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한국 생업 기술 사전

농업 2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한국 생업 기술 사전

농업
2

ㅅㅇㅈㅊ
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한국생업기술사전

농 업 ❷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윤성용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김혜영, 류건욱, 은현정, 황동이

윤문·교열
김대훈, 김선아, 김용준, 신희정, 엄민용, 유인선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345-01

ISBN
978-89-289-0268-2: 비매품
978-89-289-0266-8(세트)

94380
9 788928 902682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한국 생업 기술 사전

농업
2

ㅅㅇㅈㅊ
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일곱 번째 주제인 <한국생업기술사전>의 '농업(農業)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주요 생업인 농업 기술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을 발간하여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 <한국민속용어사전>까지 모두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윤성용**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 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 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 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 편'(1·2권),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고, 2018년에는 '식생활 편'을 발간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생활 편'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한국생업기술사전〉의 첫 번째 편인 '농업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편'은 표제어 514항목, 원고 6,500여 매, 사진 90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농업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농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88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에서는 농업을 크게 경작, 목축, 농경세시, 노동방식, 농기구, 농기계, 농작물, 자료, 제도, 유적, 용어, 농업유산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 해설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차례를 구성하여 범주별 표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경작, 목축, 농경세시, 노동방식, 농기구, 농기계, 농작물, 자료, 제도, 유적, 용어, 농업유산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외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속담·관용구

농업 관련 속담과 관용구를 정리·제시하여 농사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국가기록원, 구례군청, 국립조세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박물관, 금산군청, 녹우당 문화예술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일 MARKK(Museum am Rothenbaum-Kulturen und Künste der Welt),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문화재청, 민속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부산시립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영산호 농업박물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완주군청, 울진군청, 장흥군청,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메밀육성사업단,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육계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양대학교박물관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김명자(안동대 명예교수), 김순철(전 농협 농업박물관 학예실장), 김재호(경북대), 박종민(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박호석(농협대 명예교수), 배영동(안동대), 신탁근(온양민속박물관), 안승택(경북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정명철(국립농업과학원), 염정섭(한림대),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조승연(국립민속박물관)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구자옥(한국농업사학회), 김광언(인하대 명예교수), 김명자(안동대 명예교수), 김재호(경북대), 박호석(농협대 명예교수), 안완식(한국토종연구소),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기역 ㄱ

가대기 024
가래 025
가마니 027
가마니틀 028
가지 030
가지치기 031
가축 033
간작 036
간척 037
갈무리(저장) 694
갈이 040
갈퀴 042
감 043
감자 045
감저신보 047
감저종식법 048
개간 050
개상 053
객토 055
거름대 056
거름착 057
거름통 057
거릿대(거름대) 056
거적 058
겨리사촌 060
겨리쟁기 061
경관농업 062
경운(갈이) 040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064
경지개량사업 065
경지정리사업 066
경직도 068
계단식농업 069
고구마 070
고랭지농업 072
고무래 074
고사신서 074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076
고써레 078

고지 079
고추 080
곡물 081
곡물건조기 083
곡물도정기 085
골갱이 087
골채 088
곰방메 089
곳간 090
공음전 091
공전 091
과농소초 094
과수원 095
과전법 097
관개 098
관료전 101
관리기 102
광견병 104
광주리 105
괭이 106
구례 산수유농업 108
구유 111
구제역 112
구포건삼도록 113
구황보유방 115
구황작물 116
구황촬요 118
국토이용관리법 119
궁글대 120
궁방전 121
권업모범장 122
귀농 123
귀속농지매각령 125
귤 126
그네 127
극젱이 129
근교농업 129
금산 인삼농업 130
금양잡록 133
기장 134
길마 136
김매기 137
김매기두레 141
김제 벽골제 142
깨털기 143
꺾꽂이 144
꽃가루받이 145
끙게 147

니은 ㄴ

나래 148
낙과 149
남방아 150
남태 151
낫 152
넉가래 153
녹두 154
녹색혁명 155
녹차 157
논 159
논갈이 163
논둑태우기 166
놉 167
농가월령 168
농가월령가 169
농가지남 171
농가집성 173
농경문청동기 175
농경문화 176
농계 179
농기계 180
농기구 183
농기수리 190
농민 193
농방신편 196
농사력 197
농사직설 199
농산물건조기 200
농산물선별기 202
농서집요 204

농악 205
농약 210
농약살포기(농업용방제기) 219
농업 213
농업기계(농기계) 180
농업기계공동이용 215
농업기계화촉진법 218
농업용방제기 219
농업혁명 221
농업협동조합 223
농요 225
농용트랙터 226
농우 228
농자천하지대본 230
농점 232
농정서 234
농정신편 235
농정촬요 237
농정회요 239
농지개혁법 240
농촌지도자 242
농촌진흥법 244
농촌진흥운동 245
농포문답 246
농한기 248
농협(농업협동조합) 223
누에치기(양잠) 591
늦벼 250

ㄷ 디귿

단작 251
담배 252
담배건조기 253
담양 대나무밭 255
당근 257
당진 합덕제 259
대동법 260
대마 262
대장간 263
대추 265
덕석 266
도고리 267
도래방석 268
도리깨 270
도열병 271
독 272
돌려짓기(윤작) 650
돌태 274
돌확 274
동력경운기 275
동력이앙기 277
동력탈곡기 278
돼지열병 280
되 281
두레[1] 282
두레[2] 283
두레놀이 287
둑(제방) 709
둔전제 288
둥구미 289
둥우리 291
뒤웅박 292
뒤주 293
드베 295
들것 296
들깨 298
띄림부채 299
디딜방아 300
따비 302
딸기 304
땅콩 305

ㅁ 미음

마늘 306
마당맥질 308
마름 309
마름병 310
마지기 311

만석꾼 312
만석보지 313
말 314
망태기 315
맞두레 317
매번지 318
매통 319
매함지 320
맥주보리 321
맷돌 322
맷방석 325
머슴 326
멍석 328
멍에 329
메 330
메밀 332
멱서리 333
모내기 334
목화 338
못자리만들기 340
못줄 342
묘목고르기 343
무 344
무름병 345
무리 347
무미일 348
무자위 349
물광 351
물꼬 352
물레방아 353
물맷돌 355
물방아 356
물풍구 358
미곡공출 359
미나리 360
민전 361
밀 362
밀양 수산제수문 364

비읍 ㅂ

바구니 365
바람개비 367
바소거리 368
바인더 369
반계수록 370
반달돌칼 372
발 373
발구 374
발채 376
밤 376
방목 378
방아 379
방역 382
방제 384
밭 387
밭갈이 391
밭벼 393
배 394
배내 396
배미 397
배추 398
배토 400
버섯 400
번지 401
벌꿀 402
벤줄레 403
벼 405
벼베기 406
벼타작 407
벼품종 409
볏가리 411
보 412
보냄 414
보리 415
보리밟기 418
보리타작 419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420
보습 422
보제 424

보토괭이 425
복숭아 426
본사 427
부뚜 429
부뚜부채(띄림부채) 299
부리망 430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431
부추 433
북돋기(배토) 400
분뇨시비 434
비닐하우스 436
비료(화학비료) 844

시옷 ㅅ

사과 488
사료 489
사시찬요초 492
사이짓기(간작) 036
사일리지 493
사전 494
산듸 495
산림경제 496
산미증식계획 498
산태 499
산파법 500
살포 501
삼괭이 503
삼둘계 504
삼태기 506
삽 507
삽목(꺾꽂이) 144
상주 공검지 508
상주 전통곶감 509
상주 조공제 512
상추 513
새갓통 514
새끼꼬기 515
새끼틀 516
새마을운동 517
색경 520
생강 521
섞어짓기(혼작) 837
섬 523
섬비 524
섬틀 525
소고르기 526
소길들이기 527
소보험 529
소작 530
소줄꼬기 532
소쿠리 534
소품앗이 535
소해면상뇌증 536
솎아내기 538
쇠스랑 539
쇠죽쇠스랑 541
쇠죽쑤기 542
쇠짚신 543
수눌음 544
수레 545
수륜원 547
수리계 548
수문고사 550
수박 552
수수 553
수원 축만제 554
수확 555
순무 558
스마트팜 559
시금치 561
시비법 562
식량증산 565
신간구황촬요 567
신한공사 569
실리농방신편(농방신편) 196
써레 570
써레질 572
씨뿌리기 573
씨송곳 575
씨앗고르기 576

이응 ㅇ

아키바레(추청벼) 762
양계 577
양곡관리제도 580
양돈 581
양마 583
양배추 586
양봉 587
양수기 590
양잠 591
양잠경험촬요 594
양전제 595
양파 598
양화소록 599
어레미 600
어리 602
얼루기 603
엔실리지(사일리지) 493
여물바가지 604
연자방아 605
연작 607
연초(담배) 252
영농후계자 608
영천 청제 609
예취기 610
오곡 611
오미자 612
오이 613
옥수수 615
옥시다락 617
온실 617
올벼 619
옹구 620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621
외양간 623
외역전 624
용두레 625
우경 627
우금해제 629
우루과이라운드 630
울력 632
울릉 화산섬 밭농업 633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636
워낭 638
원예 639
위빈명농기 641
유자 643
유전자변형농산물 644
육우 645
육종 646
육해법 648
윤작 650
율무 651
응지농서 652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653
이랑짓기 656
이모작 657
이식기 659
이십사절기 660
이앙법 662
이어짓기(연작) 607
인걸이 664
인삼 665
일경 667
임원경제지 668
임원십육지(임원경제지) 668

지읒 ㅈ

자두 670
자리틀 670
자연농법 672
작두 673
작목반 674
작부체계 675
잠상집요 676
잠상촬요 678
잠실 680
잡초 681
잣 682

장군 684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685
재거름 687
쟁기 688
쟁기질 691
저온저장고 693
저장 694
저죽전사실 696
전시과 698
전정(가지치기) 031
전지 700
절구 702
절단기 704
절미운동 705
접목(접붙이기) 706
접붙이기 706
정전제 708
제방 709
제주 밭담 711
제천 의림지와 제림 714
조 715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 717
조류인플루엔자 717
조선도품종일람 718
조선 반도의 농법과 농민 719
조선부동산등기령 721
조선의 재래농구 723
조선인삼경작기 725
조선토지조사사업 727
종다래끼 728
종자 729
종저보 730
종축개량 732
주대틀기 734
주말농장 735
중경제초기 736
중맥설 737
중태 738
증보산림경제 740
지게 741
지계아문 744
지적법 745
지주대세우기 746
직전 747
직파법 749

치읓 大

찰벼 750
참깨 751
참외 752
채반 753
천일록 755
청산도 구들장 논 756
체 759
추곡수매제도 761
추청벼 762
축사 763
축산물이력제 765
충주구황절요 767
취목(휘묻이) 851
친환경농법 769

키읔 ㅋ

칼자매 771
코뚜레 771
콤바인 772
콩 774
콩털기 776
클 777
키 778

티읕 ㅌ

탄저병 779
탈곡 780
탈곡기 783
태 785

탯돌 786
토란 787
토마토 788
토매 790
토양 및 농구 교과서 791
토종벼 793
토지가옥증명규칙 794
토지조사령 796
톱 797
통가리 798
통방아(물방아) 356
통일벼 799
퇴비 800
특산물 802

피읖 ㅍ

파 803
파종(씨뿌리기) 573
파종기 805
팥 806
평보 808
포대 808
포도 810
품앗이 811
풍구 813
피 814

히읗 ㅎ

하동 전통 차농업 815
한국연초조사서 817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819
한우 821
한정록 823
항공방제 825
해동농서 826
해충 827
허수아비 829
헛간 830
호리쟁기 831
호미 833
호박 836
혼작 837
홑태 839
홈통 840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841
화전 842
화학비료 844
화훼 846
확독(돌확) 274
황두 849
후치 850
휘묻이 851
휴경 852

G

GMO(유전자변형농산물) 644

P

PL480 853

분야별

차례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가지치기 031
간척 037
갈무리(저장) 694
갈이 040
개간 050
객토 055
경운(갈이) 040
과수원 095
관개 098
김매기 137
깨털기 143
꺾꽂이 144
꽃가루받이 145
낙과 149
논갈이 163
논둑태우기 166
농약 210
도열병 271
둑(제방) 709
마당맥질 308
마름병 310
모내기 334
못자리만들기 340
묘목고르기 343
무름병 345
물광 351
물꼬 352
방제 384
밭갈이 391
배토 400
벼베기 406
벼타작 407
볏가리 411
보 412
보리밟기 418
보리타작 419
분뇨시비 434
비료(화학비료) 844
산파법 500
솎아내기 538
수확 555
시비법 562
써레질 572
씨뿌리기 573
씨앗고르기 576
육종 646
원예 639
이랑짓기 656
이앙법 662
인걸이 664
재거름 687
쟁기질 691
저장 694
전정(가지치기) 031
접목(접붙이기) 706
접붙이기 706
제방 709
종자 729
지주대세우기 746
직파법 749
취목(휘묻이) 851
콩털기 776
탄저병 779
탈곡 780
퇴비 800
파종(씨뿌리기) 573
항공방제 825
해충 827
허수아비 829
화전 842
화학비료 844
화훼 846
휘묻이 851



광견병 104
구제역 112
농우 228
누에치기(양잠) 591
돼지열병 280
방목 378
방역 382
배내 396
보냄 414
사료 489
사일리지 493
소고르기 526
소길들이기 527
소줄꼬기 532
소해면상뇌증 536
쇠죽쑤기 542
양계 577
양돈 581
양마 583
양봉 587
양잠 591
외양간 623
우경 627
육우 645
잠실 680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 717
조류인플루엔자 717
종축개량 732
축사 763
한우 821



농사력 197
농악 205
농요 225
농점 232
농한기 248
두레놀이 287
보제 424
수문고사 550
이십사절기 660



고지 079
김매기두레 141
놉 167
농계 179
두레2 283
머슴 326
삼둘계 504
소작 530
소품앗이 535
수눌음 544
수리계 548
울력 632
작목반 674
품앗이 811
황두 849



가대기 024
가래 025
가마니 027
가마니틀 028
갈퀴 042
개상 053
거름대 056
거름착 057
거름통 057
거릿대(거름대) 056
거적 058
겨리쟁기 061
고무래 074
고써레 078
골갱이 087
골채 088
곰방메 089
곳간 090
광주리 105
괭이 106
구유 111
궁글대 120
그네 127
극젱이 129
길마 136
끙게 147
나래 148
남방아 150
남태 151
낫 152
넉가래 153
농기구 183
농기수리 190
대장간 263
덕석 266
도고리 267

도래방석 268
도리깨 270
독 272
돌태 274
돌확 274
되 281
두레1 282
둥구미 289
둥우리 291
뒤웅박 292
뒤주 293
드베 295
들것 296
띄림부채 299
디딜방아 300
따비 302
망태기 315
맞두레 317
매번지 318
매통 319
매함지 320
맷돌 322
맷방석 325
멍석 328
멍에 329
메 330
멱서리 333
못줄 342
무리 347
무자위 349
물레방아 353
물맷돌 355
물방아 356
물풍구 358
바구니 365
바람개비 367
바소거리 368
반달돌칼 372
발 373
발구 374
발채 376
방아 379
번지 401
벤줄레 403
보습 422
보토괭이 425
부뚜 429
부뚜부채(띄림부채) 299
부리망 430
산태 499
살포 501
삼괭이 503
삼태기 506
삽 507
새갓통 514
새끼틀 516
섬 523
섬비 524
섬틀 525
소쿠리 534
쇠스랑 539
쇠죽쇠스랑 541
쇠짚신 543
수레 545
써레 570
씨송곳 575
어레미 600
어리 602
얼루기 603
여물바가지 604
연자방아 605
옥시다락 617
옹구 620
용두레 625
워낭 638
자리틀 670
작두 673
장군 684
쟁기 688
전지 700
절구 702
종다래끼 728
중태 738
지게 741
채반 753
체 759
칼자매 771
코뚜레 771
클 777
키 778
탈곡기 783
태 785
탯돌 786
토매 790
톱 797
통가리 798
통방아(물방아) 356
평보 808
포대 808
풍구 813
헛간 830
호리쟁기 831
호미 833
홀태 839
홈통 840
확독(돌확) 274
후치 850



곡물건조기 083
곡물도정기 085
관리기 102
농기계 180
농산물건조기 200
농산물선별기 202
농약살포기(농업용방제기) 219
농업기계(농기계) 180
농업용방제기 219
농용트랙터 226
담배건조기 253
동력경운기 275
동력이앙기 277
동력탈곡기 278
바인더 369
양수기 590
예취기 610
이식기 659
저온저장고 693
절단기 704
중경제초기 736
콤바인 772
파종기 805



가지 030
감 043
감자 045
고구마 070
고추 080
곡물 081
귤 126
기장 134
녹두 154
녹차 157
늦벼 250
담배 252
당근 257
대마 262
대추 265
들깨 298
딸기 304
땅콩 305
마늘 306
맥주보리 321
메밀 332
목화 338
무 344
미나리 360
밀 362
밤 376
밭벼 393
배 394
배추 398
버섯 400
벌꿀 402
벼 405
보리 415
복숭아 426
부추 433
사과 488
산듸 495
상추 513
생강 521
수박 552
수수 553
순무 558
시금치 561
아키바레(추청벼) 762
양배추 586
양파 598
연초(담배) 252
오미자 612
오이 613
옥수수 615
올벼 619
유자 643
율무 651
인삼 665
자두 670
잣 682
조 715
추청벼 762
찰벼 750
참깨 751
참외 752
콩 774
토란 787
토마토 788
토종벼 793
통일벼 799
파 803
팥 806
포도 810
피 814
호박 836



감저신보 047
감저종식법 048
경직도 068
고사신서 074
과농소초 094
구포건삼도록 113
구황보유방 115
구황촬요 118
금양잡록 133
농가월령 168
농가월령가 169
농가지남 171
농가집성 173
농경문청동기 175
농방신편 196
농사직설 199
농서집요 204
농정서 234
농정신편 235
농정촬요 237
농정회요 239
농포문답 246
반계수록 370
본사 427
사시찬요초 492
산림경제 496
색경 520
신간구황촬요 567
실리농방신편(농방신편) 196
양잠경험촬요 594
양화소록 599
위빈명농기 641
육해법 648
응지농서 652
임원경제지 668
임원십육지(임원경제지) 668
잠상집요 676
잠상촬요 678
저죽전사실 696
조선도품종일람 718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719
조선의 재래농구 723
조선인삼경작기 725
종저보 730
중맥설 737
증보산림경제 740
천일록 755
충주구황절요 767
토양 및 농구 교과서 791
한국연초조사서 817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819
한정록 823
해동농서 826



경지개량사업 065
경지정리사업 066
공음전 091
공전 091
과전법 097
관료전 101
국토이용관리법 119
궁방전 121
권업모범장 122
귀속농지매각령 125
농업기계화촉진법 218
농지개혁법 240
농촌진흥법 244
대동법 260
둔전제 288
미곡공출 359
민전 361
사전 494
산미증식계획 498
소보험 529
수륜원 547
신한공사 569
양곡관리제도 580
양전제 595
외역전 624
우금해제 629
전시과 698
정전제 708
조선부동산등기령 721
조선토지조사사업 727
지계아문 744
지적법 745
직전 747
추곡수매제도 761
축산물이력제 765
토지가옥증명규칙 794
토지조사령 796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064
김제 벽골제 142
당진 합덕제 259
만석보지 313
밀양 수산제수문 364
상주 공검지 508
상주 조공제 512
수원 축만제 554
영천 청제 609
제천 의림지와 제림 714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841



가축 033
간작 036
겨리사촌 060
경관농업 062
계단식농업 069
고랭지농업 072
구황작물 116
귀농 123
근교농업 129
녹색혁명 155
논 159
농경문화 176
농민 193
농업 239
농업기계공동이용 215
농업혁명 221
농업협동조합 223
농자천하지대본 230
농촌지도자 242
농촌진흥운동 245
농협(농업협동조합) 223
단작 251
돌려짓기(윤작) 650
마름 309
마지기 311
만석꾼 312
말 314
무미일 348
밭 373
배미 397
벼품종 409
북돋기(배토) 400
비닐하우스 436
사이짓기(간작) 036
삽목(꺾꽂이) 144
새끼꼬기 515
새마을운동 517
섞어짓기(혼작) 837
스마트팜 559
식량증산 565
엔실리지(사일리지) 493
연작 607
영농후계자 608
오곡 611
온실 617
우루과이라운드 630
유전자변형농산물 644
윤작 650
이모작 657
이어짓기(연작) 607
일경 667
자연농법 672
작부체계 675
잡초 681
절미운동 705
주대틀기 734
주말농장 735
친환경농법 769
특산물 802
혼작 837
휴경 852
GMO(유전자변형농산물) 644
PL480 853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076
구례 산수유농업 108
금산 인삼농업 130
담양 대나무밭 255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420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431
상주 전통곶감 509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621
울릉 화산섬 밭농업 633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636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653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685
제주 밭담 711
청산도 구들장 논 756
하동 전통 차농업 815

사과

정의 장미목 장미과 배나무아과 사과나무속 식물의 열매.

개관 사과나무의 학명은 일반적으로 '*Malus domestica Borkh.*'가 쓰인다. 사과나무속*Malus*에는 적어도 25종 이상의 야생종이 있는데, 이들의 원산지는 소아시아·캅카스(코카서스)·중앙아시아·인도·파키스탄과 중국 서부 등지로 다양하다. 사과나무의 원산지는 캅카스산맥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요르단 계곡에서 기원전 6500년경의 사과가 발견되었다.

내용 서양사과는 4,000년 이상의 재배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시대에는 재배종·야생종을 구분한 기록이 있고, 접목 번식법이 이미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재배 기술이 진보되었다. 로마시대에는 Malus 또는 Malum이란 명칭으로 재배가 성행하였고, 그 후 16~17세기에 걸쳐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다. 17세기에는 미국에 전파되었고 20세기에는 칠레 등 남미 각국에 전파되었다. 19세기 초까지는 영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미국에서 육종이 성행하여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재래종 사과인 능금이 재배되었는데 홍만선이 지은『산림경제山林經濟』에 재배 기술이 서술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에 재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량된 최근 사과 품종은 1884년 외국 선교사 등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1901년 상업적 과수원이 원산 근교에 조성되어 '국광' 및 '홍옥'이 도입되었다. 1906년 대한제국에서 뚝섬에 12*ha* 규모의 원예모범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의 육종 및 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11℃, 생육기 평균기온이 15~18℃의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 과수이다. 겨울철 최저 극온은 영하 30℃ 정도가 재배한계 온도이지만, 발아기 전후의 생육 초기에는 쉽게 저온 피해를 받는다. 봄철에 저온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에서는 서리방지 대책으로 살수법·연소법·송풍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과나무는 약산성 토양(*pH* 5.5~6.5)에 잘 생육하며 만약 토양이 중성(*pH* 7.0)에 가까울 경우 붕소와 같은 미량원소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사과나무는 토양 적응성 및 병해충 저항성과 품종의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 다양한 대목을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M9계통의 왜성대목과 반왜성으로 알려진 M26대목을 주로 이용한다. 사과원을 개원할 때에는 재식밀도는 '후지'의 경우 *ha*당 3.2~3.8*m*×1.5~1.8*m*(열간×주간)를 사용하며, '쓰가루' 등의 기타 품종은 *ha*당 3.2~3.8*m*×1.2~1.5*m*(열간×주간)를 사용한다. 수형은 세장방추형·키큰방추형·수직축형·솔락스형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과나무는 수형에 따른 정지와 전정을 한다. 전정은 빛과 약제의 투과성이 높도록 실시하며 수세가 강한 유목기에는 자름전정보다는 솎음전정을, 성목기에는 자름전정을 적정히 실시하여 착과수를 조정한다. 4월부터 5월은 사과나무의 개화기로 중부지방은 4월 하순~5월 초순, 남부지방은 4월 중·하순이다. 사과나무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하여 반드시 수분수를 혼식하여야 한다. 사과의 품질 향상과 해거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열매솎기를 하여야 하며 1과당 최소 30~50매 이상의 잎 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6월부터 수확 전까지는 병해충 방제 및 관수를 실시한다. 관수는 토성과 관수 주기 및 물량에 따라 다르며, 적정한 토양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나무와 과실의 생육에 유리하다. 사과나무는 어느 정도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생육기 강수량이 500㎜ 이하인 지역에선 관



사과 재배 | 농촌진흥청

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봄과 가을의 건조기에는 관수가 필요하며 최근 국내 사과원에서는 점적관수나 살수관수 장치가 설치되고 있다. 사과나무의 주요 병해충은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응애, 진딧물, 복숭아순나방, 굴나방, 좀, 노린재 등이 있으며 지역적 조건에 따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사과나무의 수확은 조생종·중생종·만생종에 따라 8월 상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실시하며, 저장용 과실의 경우 숙성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수확된 사과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품온을 낮추어 0.0±0.5℃의 온도에서 상대습도 90% 이상이 되도록 유지·관리한다.

사과의 품종은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수가 700여 종에 이르며, 수확기에 따라 조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나뉘고, 색깔에 따라 홍색사과·황색사과·녹색사과로 구분한다. 현재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10여 종이며, 후지(부사)가 70%를 차지한다. 주요 품종으로는 쓰가루·홍로·감홍·양광·후지가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후지'는 일본 농림성 원예시험장 동북지장에서 '국광'에 '델리셔스'를 교배·선발하여 1958년에 동북7호로 발표하고, 1962년에 '후지'로 명명하였다. 현재 많은 조숙계·착색계 변이품종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수세는 강한 편이며 반개장성이다. 수확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과실무게는 300g 정도나 재배조건에 따라 400g 이상의 대과 생산도 가능하다. 과실 모양은 원형·장원형이고, 과피색은 선홍색이며 줄무늬가 선명하다. 단맛이 많고 신맛은 중간 정도이며, 과즙이 많아 맛이 매우 좋다. 당도는 14~15°Bx이고, 산함량은 0.4% 내외이다. 저장 기간은 상온에서 90일, 저온에서 150일 정도이다. 6월 낙과나 수확 전 낙과는 없으나 해거리가 심한 편이다.



사과 재배 | 농촌진흥청

특징 및 의의 국내 대표 과수품목의 하나인 사과나무는 조생종 '쓰가루', 중생종 '홍로' 및 만생종 '후지'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국립특작원예연구소에서 개발된 다양한 신품종('썸머킹' '아리수' 등)이 보급·확대되고 있다. 기상 변화에 따라 점차 최적 재배지가 북상하여 해발 500m 이상의 산지와 강원도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전정, 적과 및 병해충관리에 매우 높은 재배 기술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과수학각론(임열재 외, 향문사, 2016), 사과원 영양관리(임열재 외, 세명문화사, 2005), 사과 병해충종합관리 길잡이(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09), 적과제 처리가 홍로와 후지사과의 착과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유진기 외, 원예과학기술지32-5, 한국원예학회, 2014), Physiology of temperature zone fruit trees(Miklos Faust, Wiley-Interscience, 1989).

필자 전익조(全翼朝)

사료
飼料

정의 가축의 생명 유지와 생산 활동을 위하여 주는 먹이.

역사 조선시대에 소 사료는 우료牛料, 말 사료는 마료馬料, 기타 가축에 급여하는 먹이는 축료畜料라고 하였다. 가축의 주요 사료로는 쌀, 보리, 조, 녹두, 보릿겨, 피[稗], 콩과 같은 곡류사료와 볏짚이나 보리짚 같은 곡초穀草, 풀사료를 말린 황초 등이 있다. 풀사료로는 차풀인 자골초, 원추리인 모애초, 칡뿌리인 갈근, 조의 줄기인 서숙대, 억새인 어욱, 토끼풀 등도 사용하였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제정된 일종의 사양표준인 축마료식畜馬料式을 적용하여 초식동물인 우마牛馬의 경우 연중 풀 성장기인 5월에서 9월을 청초절靑草節, 10월에서 4월을 황초절黃草節로 구분하여 사료의 양을 조절하였다. 1일 사료량은 큰 소의 경우 피 8되와 콩 3되에 황초 7단[束], 농사일을 하는 역우役牛의 경우 청초절 기준



쇠죽 쑤기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사일리지 | 세종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피 6되와 콩 2되, 송아지의 경우 피 4되와 콩 2되를 주었다. 말은 암말의 경우 청초절 기준 피 1말과 잘게 쪼갠 콩(말두末豆) 3되, 2세 망아지의 경우 피 3되와 콩 2되, 잡마雜馬의 경우 피 3되와 쪼갠 콩 2되, 당나귀와 노새驢騾의 경우 청초절 기준 피 6되와 쪼갠 콩 3되를 주도록 하였으며, 특히 임금이 타는 어마御馬에게는 쌀과 콩 등을 먹였다.

근대적 의미의 사료는 1946년에 경찰 말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서울에 설립된 중앙사료공사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다. 이후 1958년 서울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유엔군에 계란을 납품하기 위하여 양계용 사료공장을 1일 20t 규모로 설립하였다. 1961년에는 축협 외에 일반 사료공장 7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사료업체 단체인 한국사료협회(사협)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는 외국산 사료 곡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사료가격이 올라 정부에서 미강과 소맥피 등을 양축가에게 나눠 주기도 하였다. 1963년에는 〈사료관리법〉을 제정하여 사료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품질개선 등을 도모하여 사료공장이 46개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1964년부터 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초식가축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간 방식으로 초지를 개발하고 목초 종자를 수입·보급하였다. 1968년에는 정부에 사료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1969년에는 〈초지법〉이 공포되었다.

1970년에는 축산물 소비증가로 전국에 배합사료配合飼料 공장이 68개소에 달하였으며 사료용 곡물 31만t을 수입하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곡물 파동으로 원료가격이 폭등하자 1975년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되고 연간 배합사료 생산량이 100만t을 넘어섰으며, 1980년대 초 380만t, 1989년에는 1,000만t을 달성하였다. 1990년대에는 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가축질병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여파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다. 또한 농후사료濃厚飼料와 조사료粗飼料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섬유질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가 보편화되면서 사료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사료 생산량이 1,500만t을 넘어섰다. 2000년대에는 바이오산업 원료로 옥수수와 콩 등이 쓰이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가축질병 발생과 이로 인한 가축위생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9년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료 생산량이 2,000만t을 넘어섰다.

내용 사료는 관련법상으로는 가축이나 그 밖에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과 어류 등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사료의 종류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單味飼料,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補助飼料,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배합사료로 나눈다. 단 여기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

가축영양학적으로 사료는 부피가 작고 조섬유粗纖維의 함량은 적으나 총가소화영양소의 함량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이 50% 이상 되는 농후사료와 섬유소의 함량은 높으나 부피에 비하여 총가소화영양소의 함량

이 50% 이하로 낮은 조사료로 나눈다. 농가 입장에서 농후사료는 전문적인 사료가공 공장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배합사료와 농가 자체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자급사료로 나뉜다.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조섬유가 건물 기준 15% 이상 함유된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인 TMR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또 원료에 따라서는 옥수수·수수·보리와 기타 곡류 및 싸래기 등 곡류사료, 곡류 부산물인 밀기울·보릿겨·탈지강脫脂糠 등 강류사료, 콩깨묵·들깨묵·호마박·채종박·아마박 등 식물성박류사료, 어분·우모분羽毛粉·육골분·잠용박蠶蛹粕 등 동물성단백질사료가 있다. 이 외에도 전분박·주정박酒精粕·두부박 등 식품가공 부산물과 패분貝粉·호분胡粉·골분·인산공급제·식염 등 무기물사료가 있다. 첨가제로 비타민·광물질·아미노산 등 종합영양제, 질병예방제, 항산화제, 향미료 등이 있다.

조사료는 초식가축의 기본사료로서 이러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은 식물학상으로는 화본과禾本科, grasses, 두과豆科, legums, 근채류根菜類, root crops로 나뉜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풋베기용[青刈用], 건초용, 사일리지silage 등으로 나뉜다. 사료작물을 생존 연한으로 분류하면 화본과 단년생으로는 수단·귀리·옥수수·라이그라스 등이 있고, 다년생으로는 티머시·오처드그라스·페스큐·블루그라스 등이 있다. 두과 단년생으로는 클로버류가 있으며 다년생으로는 알팔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볏짚이나 사료작물을 수확할 때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확하는 동시에 특수 비닐로 포장하는 베일bale 방식도 많이 활용한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료 생산량은 농후사료가 2,279만t이며, 이 중 배합사료 2,014만t, 농가자급사료 265만t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료는 590만t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배합사료 공장 수는 총 108개로 한국사료협회 소속 공장이 70개, 농업협동조합(농협) 소속 공장이 28개, 사료협회와 농협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공장이 10개이다. 1일 사료 생산량은 사료협회 소속 공장의 경우 2만 3,965t, 농협 소속 공장의 경우 9,080t, 기타 공장의 경우 431t이며, 이를 합한 우리나라 전체 사료생산 능력은 1일 3만 3,476t 수준이다. 2019년 말 국내 배합사료 생산물량은 2,053만t이며 이 중 양돈용이 685만t으로 33.4%에 이른다. 이 외 양계용이 620만t으로 30.2%, 비육우용이 479만t으로 23.3%, 낙농용이 119만t으로 5.8%, 기타 용도가 151만t으로 7.4%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10조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국내 배합사료 산업은 1970년대 유치단계, 1980년대 양적 성장단계를 거쳐 1990년대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배합사료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곡물 가격에 특히 민감하고 국내 축산물 생산비용에서 사료비가 40~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료도 매년 해외에서 120만t 내외의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논 작물을 수확하고 조사료를 심는 답리작 등의



사료 | 세종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사료 | 울산 북구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보급으로 자급률이 80% 정도에 이르지만 품질이 낮은 볏짚을 제외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청보리 등 고품질 조사료의 자급률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문헌 가축사양학(강면희 외, 향문사, 1989),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14), 축산실록(남인식, 팜커뮤니케이션, 2019), 축산학(김영묵 외, 선진문화사, 1989), 한국의 축산(농수산부·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3), 한국축산연감(농수축산신문, 2003).

필자 남인식(南麟植)

사시찬요초
四時纂要抄

정의 조선 전기에 미상의 저자가 『사시찬요四時纂要』에서 필요한 내용을 초록하고 조선의 농업 현실에 맞춰 편찬한 농서.

개관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는 1655년 공주목사 신속申涑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시찬요초』의 필자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이 없어서 저자 미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사시찬요초』 후반부에 종화목류種花木類 이하 내용이 강희맹의 형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養花小錄』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사시찬요초』의 편찬자로 강희맹姜希孟이 지목되고 있다.

본래 중국 당나라 한악韓鄂이 지은 『사시찬요』는 미신적인 민속·풍습을 포함하여 농촌 생활 전반을 다룬 농서였다. 특히 작물 재배의 적당한 시기를 의미하는 농시農時의 경우 『사시찬요』에 수록된 것은 당연히 중국 화북지방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시찬요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서술하였다.



사시찬요초 |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사시찬요초』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앞부분에서는 정월부터 12월까지 절기를 중심으로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작물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채소, 수목, 양잠, 양봉, 조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2월의 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종화목류種花木類, 종과목류種果木類, 종목류種木類로 화목花木, 과목果木 등의 재배법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년송萬年松에 대한 재배법이 들어 있다.

정월의 기사 내용은 사방의 기운에 대한 설명 등과 함께 입춘立春 절기에 해야 할 일, 우수 절기에 해야 할 일 등을 정리하고 있다. 농사 작황과 연관된 점술에 가까운 기사와 장 담그기, 지붕 고치기 등 실제 농가에서 해야 할 실용적인 기사가 섞여 있다. 2월의 기사부터 봄보리 파종, 제언과 도랑 고치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 부추, 파, 오이, 가치, 홍화, 마麻, 죽竹 등을 재배하는 기술에 대한 서술이 매우 상세하게 실려 있다.

3월의 경우 기경起耕에 대한 기사, 황충 제거 방법, 건경乾耕 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양잠養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양봉을 소개한다. 4월의 기사는 들깨, 목면木綿, 만홍화晩紅花, 생강, 서과西果(수박), 호마胡麻 등의 경작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의 기사는 여러 작물을 서술하고 있고, 망종芒種과 하지夏至에 해야 할 일 등을 소개한 다음 잠종蠶種을 거두는 자세한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6월은 춘모春牟, 추모秋牟 관련 기사와 국麴과 초醋를 만드는 기술 등을 서술하고 있다. 7월은 교맥蕎麥(메밀)의 경작, 거름주기, 조도早稻의 수확, 소맥小麥 경작 등을 소개한다. 8월의 경우 호마胡麻 수확, 소맥小麥 경작 등의 기사가 보인다. 9월은 우마牛馬 키우기, 밤을 비롯한 여러 과일 수확 저장법, 국화 말리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월에는 장담그기, 먹을 것에 대한 조심, 마전麻田 다스리기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11월에는 동지의 기운 살피기와 곡종 시험하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12월의 경우 마분馬糞 모으기, 제야除夜의 풍습, 잠종蠶種 간수하기 등이 서술되어 있다.

종화목류種花木類는 화분花盆에 수목을 키우는 법, 목단牧丹 재배법, 해당海棠 키우는 법, 최화催花 기술, 화목이 피해야 할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종과목류種果木類에서는 여러 과목을 심는 법,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 과일의 벌레를 다스리는 법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종목류種木類에서는 뽕나무 재배법, 접붙이는 법, 나무 심기의 적기適期, 소나무 심을 때 주의점 등을 서술하고 만년송을 재배할 때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일러 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시찬요』는 중국에서 편찬되었지만, 그 판본이 명나라 때 이후에 사라져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960년 일본에서 1590년(선조 23)에 판각한 『사시찬요』(995년 송 태종 때 중국에서 간행한 판본)가 발견되면서 『사시찬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 『사시찬요』를 다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시찬요』를 초록하고 조선의 농업 현실을 가미한 『사시찬요초』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볼 수 있다. 『사시찬요』의 간행과 『사시찬요초』의 편찬은 조선 태종 때 중국 원나라에서 편찬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초록하고 이두吏讀로 번안한 것과 이어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시찬요초』는 『농사직설農事直說』의 내용을 보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농사직설』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주요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麻·건경乾耕·서속黍粟 등의 서술이 『농사직설』과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채소·목면·홍화 등의 재배법은 『농사직설』에 전혀 수록되지 않은 반면, 『사시찬요초』에는 그러한 작물의 경작법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 당나라 한악이 지은 『사시찬요』를 일부 초록하면서 조선농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시찬요초』에는 속방俗方이라는 표시가 들어 있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조선의 농업환경과 관행을 고려하여 포함시킨 기사로 볼 수 있다. 『사시찬요초』는 소농小農이 농업생산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농업기술의 주안점과 농업경영의 요점 등을 정리한 농서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四時纂要, 四時纂要抄,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사일리지

정의 옥수수나 목초 등 다즙사료多汁飼料를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유산발효를 시킨 저장 사료.

개관 생초를 밀폐된 저장고인 사일로silo에 담아 저장하기 시작한 곳은 로마시대의 지중해 연안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적인 사일리지를 담근 것은 1842년 프랑스에서 토굴 사일로에 옥수수 사일리지를 담근 것이 처음이고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대형 사일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러한 사일리지는 풀이 없는 겨울 동안 급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날씨 조건 등으로 건초를 만들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수분이 많은 다즙사료로 대가축인 소는 물론 중소 가축인 면·산양·토끼 등에도 급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젖소 사양 관리에는 매우 중요하다.

내용 사일리지는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는 목초나 맥류·야초류 그리고 기타 수분이 많은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옥수수로, 재료의 수분 함량이 70~75%일 때가 적당하다. 수



사일리지 | 경기 파주 | 2000년대 | 황헌만

분이 많은 재료는 예비 건조를 하고 너무 건조하였을 때는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또 재료를 절단하여 저장고에 넣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압을 하는데, 재료가 너무 크거나 잘 진압되지 않으면 호기성 발효가 일어나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 사일로는 종전에는 원탑형 사일로나 토굴형 사일로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제조 또는 급여 때의 불편함과 노동력 소요 문제 때문에 현재는 특수 장비를 갖춘 밀폐형 진공 사일로vacuum silo를 이용하거나 수확 현장에서 바로 특수 비닐로 감싸는 베일bale 작업을 하여 제조하고 있다. 특히 베일 작업은 벼를 수확한 후 볏짚을 건조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호밀·라이그래스·보리·생볏짚 등을 바로 포장하여 제조하기도 한다.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질, 수분 함량, 재료 절단, 밀봉 정도와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유산발효를 촉진하거나 불량발효를 억제하기 위해 유산균제제와 당밀·곡류 등을 첨가하기도 하며 수분 조절재로 볏짚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일리지는 20일 내외의 발효기간을 거쳐 급여하게 되는데 유산발효가 잘 진행된 사일리지는 황록색을 띤다. 산성도는 *pH* 4.5 이하가 정상적이다. 사일리지 중에 저장방식이 잘못되면 낙산발효를 하여 자극성 냄새가 나고 점성이 생기는데, 이를 가축에게 급여하면 안 된다.

특징 및 의의 사일리지는 대가축 중에서도 주로 젖소 사육농가에서 옥수수를 재료로 많이 제조한 후 급여하여 국내 젖소 생산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에는 수확 현장에서 바로 특수한 장비로 베일 작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제조하고 있는데 배합사료와 조사료가 혼합된 섬유질 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가 많이 보급되어 자가에서 제조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다. 특히 외국산 양질 건초가 많이 도입되면서 사일리지 수요는 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사료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14), 최신 사료작물(김영해·권순만·김용두, 선진문화사, 1977), 축산기술지도필휴(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6), 축산학(김영묵 외, 선진문화사, 1989), 축산학개론(농업교육교재편찬위원회, 1989), 한국의 축산(농수산부·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3).

필자 남인식(南麟植)

사전
私田

정의 고려시대에 국가가 관직 복무, 직역 담당 등의 대가로 개인에게 분급한 토지.

내용 고려에서는 토지 지목을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하였다. 공전이라는 용어는 통일신라 시기에도 보이지만, 사전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사高麗史』 권78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서문에는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제唐制를 모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중국 역사에서 토지 지목을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한 것이 당대가 유일한 것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당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분급하는 토지가 사전이었다. 다만 고려와 당의 차이를 보면 당에서는 상속과 처분권이 주어진 관인 영업전과 일반 백성에게 지급된 영업전이나 구분전 등이 사전으로 분류되지만, 고려에서는 일반 백성에게는 토지를 분급하지 않고 일반 백성 소유의 토지인 민전을 3과 공전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사전에 해당하는 토지는 1023년(현종 14)에 마련된 제주현의창지법諸州縣義倉之法에 따라 크게 궁원전宮院田, 사원전寺院田, 양반전兩班田, 군인호정軍人戶丁, 기인호정其人戶丁 등으로 나뉜다.

우선 양반전은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양반 관료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토지이며 시지柴地도 지급되었다. 양반전은 관직을 그만두거나 사망 등으로 수급자의 봉공奉供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된 양반전과는 별도로 지배층인 양반 신분 그 자체에 대한 우대의 특전으로 지급되는 공음전시功蔭田柴도 있었다. 공음전시는 자손에게 세습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들이 죄를 범해도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었고 자식이 없을 경우 방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을 정도로 세습성이 강한 토지였다. 양반전의 성격과 경영에 대해서는 민전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는 설, 분급지를 각 지방 수령이 전호佃戶 혹은 전군佃軍을 동원하여 경작하게 하고 생산물의 2분의 1을 지급하였다는 설, 양반 개인의 토지에 대한 면조권을 부여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궁원전은 궁·원에 지급된 토지이다. 궁·원은 주로 왕태후를 비롯하여 왕후·궁주 등 왕의 비빈이나 왕족이 거주하던 곳을 의미하는데, 이들에 대한 예우로 지급된 토지로 왕족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궁원전도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 세습이 허용되었는데 궁주나 원주가 죽으면 그 소생 자녀에게 분배·상속되었다.

사원전은 사원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불교는 고려 왕조의 통치에 있어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많은 토지가 시납되었다. 궁원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는다.

군인호정은 군인전軍人田으로 경군京軍 소속의 군인에게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가 지급한 토지이다. 군인전은 전정연립田丁連立의 원칙에 따라 군역의 세습과 함께 전해졌다. 기인호정은 향리전鄕吏田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 통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에게 직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로 향리외역전鄕吏外役田이라고도 한다. 향리전은 군인전과 마찬가지로 전정연립의 원칙에 따라 직역을 계승한 자손에 의해 세습되었다.

이 외의 사전으로는 왕자나 왕손 등 종친과 왕실의 외척, 공신에게 지급한 식읍食邑, 외국인이 고려에 귀화하였을 때 지급한 투화전投化田, 과거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한 등과전登科田, 현직 관료는 아니지만 동정직을 제수받아 실직에 임명되기까지 구체적인 직사가 없는 한인에게 지급한 한인전閑人田, 하급관료나 군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처와 미혼의 딸에게 지급하거나 연로한 퇴직군인에게 지급한 구분전口分田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고려 왕조에서는 왕족에서부터 문무양반과 군인, 향리 그리고 사원에 이르기까지 왕조에 대한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국가가 사전을 분급하고 이들을 국가운영에 동원하여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고려시기토지제도연구(이경식, 지식산업사, 2012),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위은숙, 한국사연구124, 한국사연구회, 2004),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김재명,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필자 위은숙(魏恩淑)

산듸

정의 볏과 벼속에 속하며, 산간 고원지 등 밭 상태에서 적응된 벼.

개관 제주도에서 고고학적으로 통일신라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내리 유적(제주도 제주시 애월)에서 밭벼, 즉 산듸(산도山稻)의 탄화물이 출토되었다. 문헌 기록으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제주도(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와 경상도 성주목(가리현) 토산조土産條에서 산도가 확인된다. 그 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전국 팔도 중 유일하게 제주도의 토산조에 등재되어 있다. 또 조선 전기의 농업서 『금양잡록衿陽雜錄』(1492)에는 점산도粘山稻(출산도), 모산도難山稻(보리산도) 등 산도 품종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이두식 한글 이름과 함께 이삭과 열매의 형상 및 색깔, 환경에 대한 적응성, 수확기, 밥을 지었을 때의 맛 등이 일일이 설명되어 있다.

내용 산듸는 한발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논벼의 가뭄 피해에 대비하여 권장되었으며 제주도처럼 밭에 물을 댈 수 없는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재배된 밭벼품종은 되스리, 갈산듸, 원산듸, 출산듸 등 4종이다. 되스리는 줄기, 이삭, 낟알이 모두 붉은색을 띤다. 갈산듸는 줄기 위와 아래가 각각 노란색과 검은색이고 낟알 껍질과 이삭은 검은색, 알맹이는 흰색이다. 원산듸와 출산듸는 줄기가 흰색이고 낟알 껍질과 이삭은 노란색, 알맹이는 흰색이다.

보통 산듸는 제주 지역의 중산간 목장지대 밭에서 메밀 농사를 지었던 그루에 5월 중하순 소만小滿을 전후하여 파종한다. 메밀을 파종할 때 섞어서 뿌렸던 재속에 무기질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 산듸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 산듸 씨 한 말을 뿌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수는 보통 보리 세 마지기(약 1,490m^2)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거름을 뿌리지 않고 쟁기질에 앞서 산듸씨 65% 정도를 밑씨로 뿌린다. 이어서 쟁기질을 하는데 두 개의 고지를 하나의 두둑으로 만든 후 나머지 씨앗 35%를 위씨로 뿌린다. 이는 밑씨가 싹이 나지 않

을 경우 위씨가 대신하기 위함이다. 위씨를 마저 뿌리고 난 후 섬비를 소에다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씨앗을 묻는다. 이를 '섬비질'이라고 하는데, 섬비는 관목성灌木性 나무를 베어서 평평하게 수수 빗자루 모양으로 묶은 것이다. 그 후 마소를 끌고 다니며 탄탄하게 '밧볼림'(밟기)을 해 준다. 그래야 토지 보수력이 생겨 파종한 씨앗이 3~4일 후에 발아되어 뿌리를 탄탄히 내릴 수 있다.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 파종법은 제주 지역이 한발旱魃의 영향이 심해 발아가 불량한 탓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김매기는 보통 '세벌매기', 즉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매기가 중요하다. 잡초를 제거하는 동시에 발아가 되지 않은 공간을 찾아 발아가 잘된 곳의 모종의 일부를 옮겨 심어야 한다. 이후 때에 맞추어 2~3번 더 김매기를 해 준다. 제주 속담에 '산듸밧 검질은 시앗을 빌려 매야 좋다.'(산듸밭 김은 동서를 빌려다 매야 좋다)라는 말이 있다. 동서와 같이 매면 부아가 치밀어 올라 힘차게 호미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듸밭의 잡초가 단단해 김매기가 힘들다는 속뜻이 있다. 잡초에 이어 병충해에는 1950년대까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잘 여문 산듸는 상강 전후에 수확하지 않으면 새들의 밥이 되고 만다. 산듸에 달린 이삭에서 낟알을 분리하기 위하여 클(머리빗 모양의 도구)에다 훑어 낸다. 낟알 겉껍질에 붙은 까끄라기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털어 낸 다음 바람에 날려 버린다. 산듸를 남방아나 말방아에 넣고 탈피 작업을 하면 쌀이 된다. 남방아에다 넣고 공이로 찧어 껍질을 벗길 때 더 하얗게 고운 쌀을 만들기 위한 요량으로 쑥을 넣어 찧기도 하였다. 산듸의 수확은 낫으로 베고 기계로 탈곡하는 순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 들어 바인더를 활용한 기계적인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재배되고 있는 벼는 대부분 논벼이며 밭벼인 산듸의 재배는 미미하다. 논을 거의 만들 수 없는 제주도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산듸는 물을 대지 않고 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논벼는 이앙법으로 재배되지만 산듸는 볍씨를 밭에 직파하면 되므로 모종을 기르거나 모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맞춰 오랫동안 재배해 온 토종 산듸 품종들은 도열병이나 벼멸구 등 병해충에 강하며 다른 작물들과도 혼작할 수 있다. 종자전쟁 시대에 대비하여 토종 산듸는 논벼의 품종개량 시 유용한 유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衿陽雜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18), 제주향토음식 식재료도감(오영주, 제주특별자치도, 2015).

필자 오영주(吳榮周)

산림경제
山林經濟

정의 18세기 초 홍만선洪萬選(1643~1715)이 산림山林, 즉 향촌에 거처하는 처사處士가 익숙하게 알아야 할 사항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편찬한 유서類書 성격의 책.

개관 홍만선은 30년의 관직 생활을 거치면서 산림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산림경제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 그는 지방의 수령守令 자리를 거치면서 익힌 견문과 방대한 독서량 덕분에 『산림경제』를 편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홍만선이 적어도 1706년까지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림경제』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시기는 1706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710년에 군자감軍資監 정正이라는 관직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 이후에 『산림경제』를 완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홍만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산림경제』에 포함시킬 내용을 독서와 견문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였을 것이다. 이에 특정 짧은 기간에 편찬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산고를 거쳐 『산림경제』 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독창적인 서술로 내용이 구성된 것이 아니다. 항목에 따라 방대한 서적의 기사가 선택·인용되었다. 이에 치농治農의 내용도 여러 가지 다른 농서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농사직설農事直說』(신속申洬의 『농가집성農家集成』에 포함되어 있는 『농사직설』)을 토대로 삼고 있다. 또한 17세기 당시 조선의 농업 현실에서 사용된 농업

기술이 속방俗方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산림경제』 치농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산림경제』의 한 항목인 치농은 곡물 재배 기술을 수록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농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산림경제』 권1 치농의 체제는 『농사직설』과 『농가집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농서의 특징적인 양상과 그대로 연결된다. 주곡 작물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과 작물별 재배법을 하나의 조목으로 정리하였다는 점, 그리고 『산림경제』의 내용 자체가 『농사직설』 등에서 인용하면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림경제』 치농에 수록된 농업기술과 작물재배기술에 관련된 서술은 『산림경제』 이전에 편찬된 여러 농서로부터 인용한 부분과 농서가 아닌 견문見聞이나 전문傳聞에 의거하여 수합한 속방을 기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농서에서 인용한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에서 편찬된 농서에서 인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산림경제』 치농에 인용된 농업기술의 인용처를 조사한 결과, 조선 농서에서 인용한 횟수는 전체 조목인 경우와 세주인 경우 각각 120건과 22건이고, 중국 농법을 담고 있는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횟수가 104건과 32건이다. 그런데 조선 농서에서 인용한 부분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것보다 많았다. 한편 속방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는 인용 부분이 각각 8건과 2건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산림경제』 치농에 인용된 많은 농서 가운데 『농사직설』, 즉 신속의 『농가집성』에서 증보된 『농사직설』이 가장 많은 인용 건수를 보였다. 그리고 전체 90건의 인용 건수인 『농사직설』의 조목 가운데 총 88건이 전체 조목을 인용하는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이 세주로 인용된 것이었다. 이렇게 『농사직설』에서 인용한 부분의 거의 전부가 전체 조목을 인용하는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산림경제』 치농의 뼈대가 바로 『농사직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경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특징 및 의의 『산림경제』가 갖는 농서로서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농사직설』을 기반으로 삼고, 이외에 앞서 편찬된 조선의 농서를 총망라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홍만선은 유서 성격의 책을 편찬하면서, 산림처사가 구비해야 할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농서와 관련하여 당시까지 국내에서 얻어진 우리 풍토 중심의 농학적 성과를 모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수록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면서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사직설』은 곡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농가집성』은 『농사직설』의 내용에 속방을 포함시켜 크게 증보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림경제』 치농은 『농가집성』 이외에 많은 농서와 서적에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산림경제』는 조선에서 편찬된 최초의 종합농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곡물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치포治圃(채소), 종수種樹(수목), 양화養花, 목양牧養, 양잠養蠶 등 농업의 여러 측면을 담고 있다. 주곡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기술의 주요 부분을 모두 종합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복거卜居, 섭생攝生, 구급救急, 구황救荒, 선택選擇, 잡방雜方 등을 총망라하고 의약醫藥에 연관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마치 가정백과사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산림경제』는 목판본으로 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필사본筆寫本, 전사본轉寫本이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향촌생활을 영위하려는 사족士族들에게 요긴한 서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산림경제』의 내용을 증보增補하는 이른바 '산림경제증보서'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서적도 대량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 향촌에 거주하는 사족의 세세한 일상생

활, 경제생활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살피는 데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조선 후기 농촌에 거주하는 산림처사山林處士가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으로 농업사뿐만 아니라 생활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山林經濟,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조선시대농서편찬과 농법발달(염정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산미증식계획
産米增殖計劃

정의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실시한 쌀 증산계획.

개관 1918년 일본에서는 상인자본의 쌀 매점매석으로 인해 쌀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이에 분노한 도야마현 어촌 부녀자들이 쌀의 이출 금지를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어 약 70만 명이 참여한 민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식량폭동 재현을 방지하고 고착화되어가는 고미가高米價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제는 식량을 국가관리 하에 두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1919년 '북해도산미증식계획'으로 시행되었고 이어서 1920년 '조선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내용 산미증식계획은 겉으로는 ①조선 내 식량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②농가경제 성장으로 반도경제 향상 도모 ③일제의 식량문제 해결 이바지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식량 확보에 의한 미가 하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

제1기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1934년의 15년 계획으로 ①관개시설 개선 약 40만 정보 ②밭의 논 전환 20만 정보 ③개간 간척 20만 정보 등 총 80만 정보에 대한 토지개량사업과 더불어 경종법 개량 등 농사개량사업을 주요 계획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899만 5,000석의 미곡을 증산하여 매년 700만 석 이상의 미곡을 조선으로부터 이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하였다. 1920~1925년의 5년간 착수면적은 9만 7,500정보로 계획된 면적(16만 5,000정보)의 59%에 그쳤으며 준공면적 역시 62%에 불과하였다. 그 원인은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금리가 높아 비용조달이 어려웠던 것에 있었다. 시비의 증가 역시 수반되지 않아 수확이 계획에 못 미쳤는데, 이전보다 평균 40만 석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6년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총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2기 계획, 즉 '산미증식갱신계획'을 수립하였다. 약 817만 석을 증산하고 매년 1,000만 석의 미곡을 일본에 이출키로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여 기관의 경영악화와 세계 대공황에 따른 미가 폭락으로 일본 국내에서 중지 논의가 일어났고 정부알선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934년 토지개량사업은 중지되었고 1937년까지 진행 중이던 사업만 시행되었다.

사업 초반인 1926~1929년에 착수면적 실적이 계획을 상회하였고, 1930년~1933년에는 준공면적 실적


産米增殖計劃에 對하야 (下)
經濟時論
大正十三年十一月三日 〔四〕

산미증식계획에 대하야 | 1924.11.30 | 동아일보

이 85%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되었다. 1937년까지 계획 대비 착수면적과 준공면적이 각각 46%와 51%에 그쳤으며, 미곡증산 실적 역시 계획 대비 재배면적은 53%, 증수량은 50%에 불과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사업 자체의 역점이 토지개량에 있었고, 토지개량은 수리시설의 개선과 그 운영을 위한 수리조합 설치로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이후 농업공황으로 곡가가 대폭락하면서 자본력이 빈약한 자작농이나 중소지주는 수리조합비를 감당할 수 없어 토지를 방매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지주들이 염가로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의 겸병집중兼倂集中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지주들이 조합비를 소작인에게 전가하는 현상마저 생겨나 소작농민들의 경제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20~1934년에 걸쳐 10여 년간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중단·실패로 끝났지만 조선의 농업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곡 생산기술이 향상되고 미곡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나 미곡의 증산과 이출 증대를 추진함으로써 조선의 농업 생산구조는 미곡생산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미곡 단작형 상업적 농업이 발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이출량이 급증함으로써 조선의 식량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몰락과 소작농의 증가로 이어져 계급 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강만길, 역사비평사, 2000), 한국농업경제사연구(주봉규, 선진문화사, 1989), 한국농업·농촌100년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03).

필자 엄지범(嚴智凡)

산태

정의 나무로 만들어 각종 물건을 올려놓고 운반하는 데 사용한 도구.

내용 거름을 돗통시(돼지우리)나 쉐왕(외양간)에서 걷어서 마당 등으로 옮길 때나 개간한 밭의 흙을 일구면서 나오는 자갈이나 돌을 옮길 때나 쌀 같은 것을 멩텡이(망태기)로 담아 옮길 때 등 다양한 상황의 운반에 이용한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 산테, 삼태, 삼테, 당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이 앞과 뒤에서 들 때 사용하는 '산태'와 한 사람이 안고 옮길 때 사용하는 '돌산태'로 구분된다. 산태는 전체적으로 二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손잡이인 산태클(지역에 따라서는 산태부출이라 함)이 양쪽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앙에 새 또는 새역이라고 하는 흙이나 거름 등을 담는 부분이 있다. 긴 나무 두 개를 二자 형식으로 놓고 가운데 부분에 4~5개의 가로대를 꼽은 것으로 사다리와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산태클과 새역은 단단한 츰낭(참나무), 특히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어야 꺾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새끼줄을 촘촘히 엮어 사용하였으며 세워서 사다리와 같은 용도로도 이용하였다. 이처럼 산태는 크고 튼튼하여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작업능률을 높이는 데 적합하였지만, 힘센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돌산태는 담는 부분이 작아 힘이 덜 들어서 여자나 힘이 약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둥근 테두리를 만들고 끈으로 井자형으로 엮은 도구로,



너비59 길이223



지름54

산태 |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주로 마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자갈을 운반할 때나 돗거름(돼지거름)을 나를 때 사용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태기, 돌바드랭이, 돌삼태라고도 하였다. 농사가 많은 집에서는 4~5개를 구비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손잡이 역할을 하는 에움과 중앙에 물건을 담는 노로 구성된다. 에움은 잘 휘어지지만 질긴 성질을 지닌 멍줄(멀꿀)이나 삼동낭(상동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노는 졸갱이줄(으름덩굴)로 만든 것을 최고로 쳤으나 찍(벼짚)이나 끅(칡줄기) 등을 가리지는 않았다.

산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무거운 것을 옮기는 데 사용하였지만, 손잡이가 꺾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고 새가 달거나 꺾어지면 보수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였다. 헛간이 있는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천장의 보 사이에 걸쳐 두기도 하고 손이 잘 가지 않는 추녀 밑 서까래에 매달아 잘 보관해 두었다.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산태의 본 기능이 개간이나 파종 때 나오는 돌이나 거름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제주어사를 지낸 김상헌(1570~1652)이 『남사록南槎錄』에서 "이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은 부박浮薄하고 건조하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제주 지역과 같이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산태는 과거부터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특징 및 의의 과거 산태의 역할을 오늘날 컨테이너가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사용하던 도구인 만큼 제주 지역에는 산태와 관련한 다양한 무형 문화가 있다. '산태질소리'라 하여 물건을 나르는 산태로 돌 따위를 옮기면서 불렀던 소리가 있으며, 제주도 제주시 구좌 지역에서는 '삼태거리'라 하여 들것에 사람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들것을 거꾸로 세우는 벌도 있었다. 돌 작업을 할 때나 장지 등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담아 들 수 있는지 힘자랑을 할 때도 쓰였다.



산태 | 제주 서귀포 | 2001 | 김동섭

참고문헌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고광민, 한그루, 2019),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김순자, 도서출판 한그루, 2018), 제주도 전래 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제주도의 농기구(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7).

필자 황이새(黃이새)

산파법
散播法

정의 정지된 경지에 종자(씨)를 흩어 뿌리는 파종법.

개관 경지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인 파종법은 근대 농학에서 조파법條播法, 점파법點播法, 적파법摘播法, 산파법散播法 등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들 가운데 산파법은 현대 농학에서 살파법撒播法이라고도 표기되며 다른 파종법과는 달리 파종구를 만들지 않고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근대 농학이 확립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산파법이란 파종 개념과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파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파종 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었음은 전근대의 각종 농법 기록에서 확인된다. 전통사회의 작물 재배법은 15세기부터 알려진다. 그 당시부터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같은 농서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서를 통해 산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내용 15세기에는 『농사직설』의 작물 재배법이 조파법, 점파법, 산파법으로 분류되는 등 다양한 파종 방식이 사용되었다. 작물의 종류와 재배 환경에 맞춰 유용한 방식이 선택된 결과였다. 산파법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산파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 표기로 살撒, 파살播撒, 살종撒種, 균살均撒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撒(뿌릴 살)'이라는 한자는 산파 방식 이외에 단순히 뿌린다는 의미와 조파 방식을 뜻하기도 하여서 각 용례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산파 방식이 사용된 용례로 우선 녹비작물 재배를 들 수 있다. 『농사직설』에서 녹두와 팥[小豆]은 기본적으로 단작물이나 혼합작물로서 재배되지만 녹비작물로 재배되는 경우도 있었다.

『농사직설』 경지조耕地條에는 척박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방법으로 녹두를 녹비작물로 재배하도록 하였다. 파종된 녹두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대로 갈아엎는 방식이다. 쟁기로 갈린 경지 전면에 손으로 녹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파종 방식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단순히 '경녹두耕菉豆(녹두 경작)'로 표기되어 있다. 농민층의 구술 언어가 한자로 표현된 것이어서 파종 방식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작업이 '무성하게 자라면 갈아엎다.'이므로 이전 작업은 '녹두 종자를 흩뿌리다.'라는 녹비용 산파법으로 해석된다.

팥의 녹비 재배는 『농사직설』 종서속조種黍粟條에 기술되어 있다. 서속黍粟(기장과 조)을 파종하기 전에 먼저 밭에 팥을 파살하고 팥이 무성하게 자라면 쟁기로 갈아서 이랑을 만들어 참깨·서·속 종자를 섞어서 심도록 하였다. 이에서 팥의 파살은 녹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팥을 흩뿌리는 작업이므로 산파법이다.

『농사직설』에서 녹비 재배 이외에 산파법을 사용한 작물로는 참깨[胡麻], 논벼(수도水稻), 밭벼(산도山稻) 등을 들 수 있다. 참깨 재배는 4월 중 비가 온 후 쟁기로 밭을 갈아서 살종撒種(종자 뿌리기)하고 뇌목檑木으로 흙덩어리를 깨어 복토한다. 뇌목은 향명이 고음파古音波, 즉 곰방메이다. 쟁기 작업 이후 별도의 파종구 작성이 없었으므로 살종은 씨앗을 흩뿌리는 것을 나타낸다. 논벼의 경우, 싹을 틔운 종자를 수전에 균살(고루 뿌리기)하고 판로板撈(번지) 혹은 파로把撈(밀개, 고무레)로 복종한 후 관개한다. 판로는 향명 번지飜地라는 축력 농구이며, 파로는 밀개(고무레)이다. 여기서 균살은 고루 흩뿌린다는 의미로서 모판에 벼 종자를 흩뿌리듯이 파종하는 것이다. 밭벼 재배법은 점파법(족종법)을 기본으로 기술하였지만 지대가 낮아 물기가 많아서 축축한 황지일 때는 늦벼(만도晩稻) 종자를 흩어 뿌린 후 시목柴木(땔나무)으로 만든 농구를 소가 끌게 하여 복종하도록 하였다. 시목으로 만든 농구는 끙게[曳介]와 유사한 축력 농구이다. 늦벼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은 '하만도종下晩稻種'이라고만 기술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복토한 것에 흩뿌렸음을 알 수 있다.

참깨, 논벼, 밭벼의 산파법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은 곰방메, 번지, 고무레, 끙게 등 다양한 인력·축력의 복토 농구, 특히 축력 복토 농구가 사용된 점이다. 이는 조선시대 농법이 갖는 조방성의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농사직설』의 산파 방식은 撒, 耕(밭갈 경), 下(아래 하) 등과 같은 다양한 한자로 묘사되지만 파살, 살종, 균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撒'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종마조種麻條의 살종처럼 발로 밟아서 파종구를 작성하여 파종하는 방식인 조파법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경우도 일부 있으므로 '撒'이 산파법 전용 용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撒' 또는 '撒播'라는 미완성 단계인 생성 초기의 산파법 용어일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근대 농학이 수용되기 이전의 전통 농학에서 파종법의 형식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산파법을 일컫는 용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통 농법 내용에는 산파법으로 볼 수 있는 파종 방식이 존재하였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통 농법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통사회의 자연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農事直說, 농업대사전(학원사, 1973), 조선농업사연구(민성기, 일조각, 1988).

필자 오인택(吳仁澤)

살포

정의 논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쓰는 농기구.

내용 살포는 지역에 따라 '살포갱이'(경남 영산), '손가

래'(경북), '논물광이'(강원도 도계), '삽가래'(전남 보성), '살보'(전남), '살보가래'(전남 강진) 등으로 불린다. 살포는 수전水田에서 이용되는 농기구로 농업과 경제권의 상징물이었으며, 왕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장에게 살포를 하사하고 수장은 이를 자신의 권력과 권한의 상징물로 무덤에 부장하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살포는 신라의 농기구로, 낙동강 하류의 것은 가야의 농기구로, 금강 중심은 백제의 농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살포 출토 고분의 연대가 백제 지역이 신라·가야 지역보다 앞섰는데, 살포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갖춘 백제에서 발생하여 수전 농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신라·가야로 유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하는 나이가 70세가 되어 사직할 때 임금에게 고하고, 만약 임금이 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증표로 궤장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궤장을 하사한 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왕조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장은 살포로 된 지팡이이다. 여기에는 치수와 농업을 관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살포 지팡이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북원수회도첩北園壽會圖帖』과 〈장삽관폭杖鍤觀瀑〉에 보인다. 『북원수회도첩北園壽會圖帖』은 정선이 41세(1716) 때 공조판서를 역임한 이광적(李光迪, 1628~1717)의 과거급제 60주년[回榜]을 맞이해 북악산 및 인왕산 기슭에 거주한 70세 이상의 노인과 그 자손들이 모여서 장수를 서로 자축한 모임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 보이는 지팡이는 살포 몸체의 자루 끝에 비둘기 장식이 달린 것으로, 네 개의 지팡이가 창문과 대청마루 턱에 걸쳐 놓여 있다. 〈장삽관폭杖鍤觀瀑〉은 조선 선비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화폭에 옮긴 것이다. 그 속에서 도포를 차려입은 노인은 갓을 벗어 농사 현장에서 감독하다가 온 모습이며, 살포 날을 위로 하여 지팡이를 잡고 있다.

궤장의 지팡이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경석궤장李景奭几杖 및 사궤장연회도화첩賜几杖宴會圖畵帖』(경기도박물관 소장)이 유명하다. 현재 궤几 1점, 장杖 4점, 화첩 1점 등 3종 6점이 보물 제930호(1987.12.26.)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들은 1668년(현종 9) 11월 27일에 이경석李景奭에게 내린 궤장几杖으로, 살포 지팡이[杖]가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살포는 근대 농기農旗에서도 보인다. 전남 장흥 안지마을의 농기에는 청룡을 타고 어깨에 살포를 멘 사람이 수신水神을 상징하는 잉어·거북 등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현지에서는 '좌상님'이라고 부른다. 마치 좌상이 수신인 용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도인道人이 산신인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과 같다. 도인이 산신으로 승격된 것처럼 좌상도 수신 또는 농신農神으로 승격한 셈이다.

특징 및 의의 살포는 200㎝ 내외의 긴 자루가 달린 농기구로 역사적으로 부장품, 궤장几杖, 농기 등에도 등장하여 일반적인 농기구가 아닌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살포는 수전水田에서 사용하는 농기구로 농업과 경제권의 상징물로 이용되었으며, 왕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장에게 살포를 하사하고 수장은 이를 자신의 권력과 권한의 상징물로 무덤에 부장하게 된 것이다.

살포는 개량형 삽이 등장하면서 오래전에 자취를



길이224 | 광복 이후

길이183 | 조선 후기

살포 | 국립민속박물관

감추었다. 현재는 박물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살포의 유형은 횡장방형橫長方形·종장방형縱長方形·정방형正方形·반원형半圓形 등으로 나뉘고, 반원형半圓形과 종장방형縱長方形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몸체의 굽통이 직선인 것과 몸체 어깨 부위에서 직각으로 굴절된 것이 있는데, 전자가 원형이고 후자는 변형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살포는 모두 굽통이 직선이다.

참고문헌 겸재 정선,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 2009),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화첩(김종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 1991), 백제 살포에 대한 일고찰(이상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살포와 철서를 통해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김재홍, 과기고고연구2,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살포의 기능과 상징에 관한 연구(오수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살포의 역사와 상징(정연학, 농감의 지팡이-살포, 농업박물관, 2014), 신라시대의 농기구(김광언,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전기가야의 철제 농공구(김재규, 국사관론업74, 1997),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정연학(鄭然鶴)

삼괭이

정의 인삼을 캐는 데 쓰는 연장.

내용 인삼을 재배하는 밭을 삼포蔘圃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삼을 캐는 사람들을 채삼군採蔘軍(채삼꾼)이라 하였다. 삼괭이는 삼포에서 인삼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인삼은 사람의 힘으로 잘 뽑히지 않을 정도로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땅의 기운을 먹으면서 자란다. 인삼은 뿌리가 원기둥 모양이며 희고 비대한 다육질로서 땅속줄기·주근主根·지근枝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성分岐性이 강한 식물이다. 6년근 인삼은 길이 7~10㎝, 지름 2.5㎝ 안팎으로 자라고 무게는 80g 정도이다. 인삼은 삼포 현장에서 갓 수확한 삼을 수삼水蔘, 수삼을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린 것을 백삼白蔘, 수삼을 가마에 넣고 찐 것을 홍삼紅蔘이라고 부른다.

삼괭이는 비록 괭이로 불리지만 일반 괭이와 생김새가 사뭇 다르다. 가느다란 여러 개의 발이 길게 나와



약초괭이 | 너비24 길이59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있으며 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다. 그 이유는 인삼뿌리가 길어서 채삼군들이 땅속 깊이 찍어야 하고 동체와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3년의 인삼이 땅속에 박혀 있는 힘은 성인이 손으로 뽑으려 해도 잘 뽑히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채삼군들은 삼괭이를 사선斜線으로 찍으면서 인삼을 수확한다. 숙련된 전문가의 삼괭이질이 아니면 제대로 인삼을 캘 수 없다. 비숙련된 삼괭이질은 인삼 동체를 찍을 수 있고 뿌리를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삼은 시장에 유통할 수 없으며 유통한다고 해도 단가가 떨어진다. 농가와 상인은 수입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삼괭이는 날과 슴베, 자루로 구성되어 있다. 삼괭이는 무쇠로 만드는데 앞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 쇠스랑과 비슷하다. 날은 길이가 30㎝ 정도로 둥글면서 가늘고 길며 날의 수는 2개가 보편적이고 4개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각도 역시 90° 정도에서 45° 정도로 약간 둥글게 자루 쪽으로 구부린다. 이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삼괭이 날의 수와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자루는 날의 길이에 비해서 짧은 편이다. 이는 작업자가 앉아서 깊이 박혀 있는 인삼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원활하게 캐야 하기 때문이다. 날과 슴베는 무쇠, 자루는 나무로 만든다. 슴베를 자루에 끼워서 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오므리거나 자루를 슴베에 끼워서 고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만든다. 대부분의 삼괭이는 후자의 방법으로 제작한다.

삼괭이를 손으로 들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찍을 때 무게 중심이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채삼군이 손목에 무리를 받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삼을 쉽게 캘 수 있다. 하루에 채삼군 한 사람이 삼괭이로 200평 정도 땅의 인삼을 캘 수 있다.

금산의 한 대장간에서는 삼괭이 재료를 불에 달구어서 날과 슴베 모양을 일차적으로 만든다. 그런 후에는 바이스vice에 이를 끼우고 날과 슴베 사이를 90°로 꺾는다. 그다음에 대장장이는 쇠모루에 올려놓고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서 인삼 캐기에 좋은 각도로 삼괭이 날을 잡아 주는 작업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슴베와 날의 중심까지 같이 잡는다. 대장장이가 슴베와 날의 중심을 일정하게 잡아 주면 채삼군은 땅속 깊이까지 괭이를 휘두르면서 손쉽게 인삼을 캘 수 있다. 삼괭이는 나무 자루를 슴베에 끼우거나 슴베를 나무 자루에 박아서 완성한다.

요즈음에는 외발에서 세 발로 구성된 약초괭이를 일반 농기구 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삼과 마늘·약초 등을 캘 수 있는 농기구로 소개하고 있다. 약초괭이는 삼포 현장에서 사용하는 삼괭이보다 날이 길지 않고 각도도 자루와 90°를 유지하고 있다.

농민들은 트랙터 뒤에 인삼을 캐는 도구를 연결하여 삼을 캔다. 사전에 채광 망과 인삼지주목 등을 해체하여 인삼밭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한다. 트랙터가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 배치된 도구가 회전하면서 땅속 깊이 판다. 인삼은 회전하는 도구를 거쳐서 밭 위에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하루에 트랙터가 인삼을 캐는 작업 면적은 보통 1,000~2,000평이다. 채삼군들은 마르기 전에 인삼을 정리하고 포대 등에 담는다. 그들은 인삼을 포대에 채워 끈으로 묶은 다음 무게를 재고 이를 농가에 알린 후 인삼조합으로 출하한다. 인삼조합은 농가에서 납품받은 인삼을 선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채삼군들이 삼포에서 인삼 잔뿌리를 제거하면서 바로 선별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삼괭이는 삼포에서 인삼을 캘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도구이다. 인삼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숙련된 채삼군에게는 인삼을 캐는 자신의 기술력에 상응하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인삼의 성장 과정과 생식 성격에 적합한 삼괭이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삼괭이질은 농민과 상인의 수입과 직결된 채삼 작업임을 보여 준다. 이는 도구와 사용 기술 등이 경제적인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박종민(朴鍾珉)

삼둘계

정의 대마를 경작하고 길쌈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결성한 집약적 협력 노동조직.

내용 대마를 수확한 이후 양질의 삼베를 얻기 위하여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이때 삼둘계를 조직하여 공동노동을 통해 생산력을 높인다. 특히 삼굿하기(삼찌기), 삼삼기, 베날기, 베매기 등 집중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삼둘계가 조직되어 운영된다. 삼둘계는 두레 전통과 연관이 있는데 친인척은 물론 동년배나 이웃 등을 포함하여 작게는 3~4가구, 크게는 7~10여 가구가 하나의 삼둘계 구성원이 되어 공동노동을 한다. 삼둘계의 주축이 되는 구성원은 삼밭이나 삼씨를 확보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삼밭과 삼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확한 대마를 찌는 일을 '삼굿하기'라고 한다. 삼을 찌기 위해서는 냇가 근처에 삼을 넣을 구덩이와 불을 땔 구덩이를 크게 파고 삼을 찌는 가마인 삼굿을 만든 후 불을 지피고 물을 부어 식히며 삼을 찌는 작업을 하루 동안 몇 차례 반복한다. 각 농가에서는 이튿날 새벽 무렵 익힌 삼을 꺼내어 가져가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주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삼둘계를 구성하여 협업한다. 이때 삼둘계 구성원들은 노동력과 기술의 등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동성마을이 삼둘계를 형성하여 공동노동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마을보다 유리하다.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 금소마을에서는 기계식 보일러를 이용하여 삼을 찌고 있다. 기술적인 원리는 재래식과 같지만, 현대식 시설로 바뀌면서 노동력을 크게 줄였다.



삼찌기 | 경북 안동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삼둘계의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 '삼삼기'이다. 삼을 가늘게 찢어 만든 삼 올을 일일이 손으로 연결하여 긴 올로 만드는 것이 삼삼기이다. 삼삼기는 삼을 찌는 일만큼 집약적인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매우 지루하고 고된 과정이다. 일과 중에 생기는 자투리 시간이나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삼삼기는 사실상 따분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경북 안동 지역의 부녀자들은 '둘게삼'의 방식으로 삼을 삼았다. 즉 부녀자 몇몇이 한 집에 모여 이야기도 하고 참(주전부리)을 먹으면서 늦은 밤까지 삼을 삼는 방식이다. 이때 참여하는 부녀자들을 '둘게꾼'이라고 하였고, 이 둘게꾼이 모여서 삼을 삼는 방을 '둘게방'이라고 불렀다. 이 둘게삼을 전라남도 여수·순천·영광 지역에서는 '삼들게'라고도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낮에 하는 낮들게와 밤에 하는 밤들게가 있었고 20~30명이 한 들게를 구성하는 등 비교적 많은 사람이 들게를 형성하였다. 농부들이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 농사하면 노동생산성이 높듯이 삼삼기를 할 때도 여러 명이 함께 하면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삼삼기 과정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베날기, 베매기 등의 과정에서도 베를 날거나 맬 사람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이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으로 대마 경작과 길쌈은 개인 노동과 집약적 공동노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마를 수확한 후 삼굿하기와 같이 대규모 노동이 필요할 때 두레를 형성하여 집약적으로 협력하였고 장시간 지루하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삼삼기도 두레 방식을 따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오늘날 대마 생산량이 줄고 길쌈문화의 전승이 약화되면서 인력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삼둘계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던 삼굿하기는 현대식 기계가 도입되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삼삼기는 둘게삼의 전통이 많이 약화되었어도 여전히 전통적인 삼삼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참고문헌 금소마을 안동포 생산지식의 존재양상(이한승, 마을사회 민속지식의 존재양상, 문예원, 2017),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이경엽,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안동의 길쌈 전통과 두레공동체(임재해, 민속학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9), 안동포 전통의 형성과 변화(배영동, 안동 삼베 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200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박선미(朴善美)

삼태기

정의 짚, 싸리, 대나무, 칡덩굴 등을 엮어 앞이 벌어지고 뒤가 우묵한 형태로 만들어 거름이나 곡식 등을 담아 나르는 도구.

내용 삼태기는 거름을 줄 때 사용하는 농기구 중 하나이다. 주로 두엄이나 재를 나를 때 사용하는데 두 손으로 들기 적당한 크기여서 허리춤에 끼고 논밭에 거름을 주는 데 유용하다. 삼태기의 종류에 따라 곡식이나 흙, 모래, 자갈과 같이 작은 낟알을 모아 담아 나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삼태미, 거름 소쿠리 등으로 부르며 씨삼태, 개똥삼태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농기구 연구서에 나타나는 삼태기를 살펴보면 『역어유해譯語類解』 『해동농서海東農書』 『사류박해事類博解』에서는 삼태, 『훈몽자회訓蒙字會』 『재물보才物譜』에서는 산태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자로는 분畚(『훈몽자회』), 박두자簙斗子(『재물보』), 분두糞斗(『역어유해』 『사류박해』), 양남颺藍(『해동농서』 『물보』 『사류박해』), 두篼(『농가월령가』)라고 썼다. 만주의 『농구보고서農具報告書』에는 '광주리 광筐'자를 써서 분광糞筐으로 표기하였으며, 왕정의 농서나 서광계의 『농경전서農政全書』에서도 분畚으로 적었다.

분두糞斗는 거름으로 쓸 말똥·쇠똥·개똥 따위를 주워 담는 삼태기를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개똥삼태기'를 이른다. 작은 삼태기에 어깨끈을 달아 메고 다니면서 괭이 따위로 개똥을 주워 담는 용도이다. 거름이 귀하던 시절에 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삼태기는 입구 너비를 기준으로 할 때 50~80㎝ 크기이지만, 『조선의 재래농구』(1924)에서는 길이가 1.3m에 이르는 삼태기도 나타난다. 이처럼 삼태기의 크기는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며 소재 역시 짚·싸리·대나무·칡덩굴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대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견고하지만, 대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을 때는 싸리를 그다음 좋은 것으로 쳤다. 비교적 구하기 쉬운 소재인 짚과 싸리를 많이 이용한다.

삼태기는 잘 휘어지는 다래나무나 물푸레나무를 'U'자 모양으로 휘어 틀을 만든 뒤 여기에 새끼줄이나 싸리를 걸고 엮어 만든다. 특히 싸리는 마르기 전에 사용해야 해서 새로 베어다가 완성하는 데 꼬박 하루가 소요되기도 한다. 생김새는 물건을 담고 쏟기 좋도록 바닥은 평평하게, 입구는 넓고 낮게, 안쪽은 깊게 만든다. 키와 쓰레받기 중간쯤 되는 모양이라 할 수 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형태와 용도가 다르기도 하다. 새끼나 칡덩굴은 촘촘하게 짜인 삼태기를 만들 수 있다. 형태는 뒤쪽 운두가 높고 앞이 넓게 벌어져 있어서 재나 흙, 쓰레기 등을 담아 옮기거나 두엄을 밭에 내다 뿌릴 때 주로 사용한다. 굵기가 가는 곡식을 나르거나 씨앗을 담아 허리에 끼고 논밭에 뿌리기에도 알맞은 형태이다. 앞이 트이지 않고 막힌 짚 삼태기는 거름을 뿌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사용한다.

싸리나 대오리로 엮은 삼태기는 새끼나 칡덩굴로 만든 삼태기에 비해 발이 성글고 운두가 비교적 낮은 형태이다. 싸리 삼태기는 발소쿠리 혹은 어랭이라고



삼태기 | 너비52 길이51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삼태기 | 충남 아산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부르기도 한다. 가볍고 바닥이 성글어서 돌을 담거나 굵은 두엄을 담는 데 사용한다. 가는 흙은 성긴 틈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 감자·고구마를 캐어 담기에도 좋다. 짚보다 물에 강하므로 흙일을 하고 나서 물에 씻어 말려 사용한다. 물에 강하고 발이 성긴 특징을 이용해 천렵할 때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할 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농기구이다.

특징 및 의의 삼태기는 거름이나 곡식 등을 담아 나르는 도구로, 짚·싸리·대나무·칡덩굴 등을 ∪자 모양의 틀에 엮어 앞이 벌어지고 뒤가 우묵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만들기 어렵고 수명이 짧은 짚이나 싸리 삼태기보다 비닐 끈이나 나일론으로 엮은 것 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통째로 찍어 낸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재가 바뀌어도 여전히 삼태기를 쓰는 것은 오늘날에도 퇴비나 비료를 담아서 운반하거나 밭에 씨를 뿌릴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용도가 다양한 삼태기는 현재에도 잘 쓰이는 농기구라 할 수 있다. 또 퍼 담는 용구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여 풍수지리에서도 삼태기 지형은 명당으로 보며 유행가의 가사로도 사용되는 등 복을 담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 친숙한 농기구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농기구(이순수, 보리, 2016), 한국농기구고(김광언, 백산, 1986), 한국민속대관5-민속예술·생업기술(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필자 이준일(李準日)

삽

정의 땅을 파고 흙을 뜨거나 흙, 모래, 거름, 소금 따위를 퍼 담을 때 사용하는 연장.

내용 중국의 왕정王禎은 1313년에 펴낸 『농서農書』에서 삽[臿]에 대한 설명으로 "『방언方言』에 따르면 연燕나라 동북의 조선 열수 일대에서는 이를 조鍤라 한다."라고 적었다. 『방언』의 저자 양웅揚雄은 1세기 무렵의 사람이므로 우리 민족은 적어도 1세기 전부터 삽을 써왔음을 알 수 있다. 1527년(중종 22)에 나온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鍤'를 '삽 쵸', '鍤'을 '삽 삽'이라고 새겼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대나무 뿌리가 1~2척으로 자라면 그 뿌리를 삽으로 자르고 흙으로 덮어두라."라고 적고 있어 오늘날처럼 삽이 자르는 기능과 덮는 기능을 동시에 행했음을 알려준다.



삽 | 너비22 길이90 |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나라 삽 그림은 서호수徐浩修가 지은 『해동농서海東農書』의 그림을 통해서 18세기 중엽의 삽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 긴 자루에 끝이 반듯하고 네모난 날을 박았으며, 날이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굽통의 일부분을 날 가운데까지 이어 놓았다. 예전에는 삽날만 사고 자루는 손수 나무를 깎아서 끼워 맞추었기에 자루의 길이가 일률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완성된 삽을 구입함으로써 삽자루의 길이가 균일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의 자루 끝에는 손잡이 구조가 없었지만, 공장에서 제작되는 삽의 자루에는 끝을 갈라지게 하고 그사이에 손잡이를 끼웠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체형과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인지라 불편한 점도 있다.

삽은 형태나 쓰임에 따라 둥근삽·각삽·개양삽·부삽·꽃삽·야전삽 등으로 나눈다. 둥근삽은 날 끝이 둥그레 한 삽으로 땅을 파는 데 쓰며, 각삽은 날 끝이 넓적하고 담긴 것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 양쪽을 위쪽으로 조금 휘어 놓았다. 흙이나 곡물 따위를 떠서 옮기는 데 쓴다. 개양삽은 소금밭에서 소금을 퍼 담는 데

쓰는 삽으로 날은 긴 네모꼴이고 끝이 곧다. 부삽은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이다. 쇠붙이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되 바닥이 좀 우긋하고 긴 자루가 달려 있다. 화로의 재를 눌러 덮기 위하여 끝이 네모나고 자루의 한끝에 꼭지를 붙인 것도 부삽이라 한다. 꽃삽은 어린 식물을 옮겨 심을 때 쓰는 흙손만 한 작은 삽으로 모종삽이라고도 한다. 야전삽은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며 쓰는 개량삽으로 날은 작으며 자루에 접어서 붙인다.

특징 및 의의 삽은 가래처럼 삽자루의 목에 두 개의 줄을 맨 후 두 사람이 각기 좌우에서 당기고 다른 한 사람은 자루를 쥐어 흙덩이 따위를 멀리 던지기도 하는데 이를 '삽가래'라고 한다. 가래가 없는 농가에서 가래 대신 삽을 이용한 사례이다.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에서는 삽을 풀을 밀어 버리는 용도로, 신숙주의 『보한재집保閑齋集』에는 삽을 이용하여 우물을 굴착한 사실을 적고 있다. 또한 삽은 논밭의 도랑을 쳐올리거나 땅을 파 엎는 데 이용되었고, 토양이 부드러운 지역에서는 기경 용구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삽은 민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삽으로 고랑파기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15세기 이후의 조선농구에 대하여(홍희유, 문화유산5,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필자 정연학(鄭然鶴)

상주 공검지
尙州 恭儉池

정의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저수지.

내용 상주 공검지恭儉池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6-15번지 일원에 있다. 남한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저수지로서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현재 그 흔적만 남아 있다. 공갈못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이를 묻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공갈못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얘기가 전한다. 축조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 등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공검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이다. 여기에 "상주목에 큰 못이 있는데 공검지이다. 1195년(명종 25)에 사록司錄 최정빈崔正彬이 옛터를 따라 제방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길이가 860보이고 너비가 800보이며 관개면적은 260결이다."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공검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둑의 길이가 860보, 둘레가 1만 6,647척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후 조선시대 고종 광무 연간(1897~1906)에 총신 이채연이 논을 만들려고 제방을 허물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저수지의 면적이 5만여 평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1959년 공검지에서 서쪽으로 2㎞ 떨어진 곳에 오태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저수지로서 공검지의 기능이 사라졌다. 그래서 1964년에 2,000여 평만 남기고 논으로 매립하여 개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폐허가 되어 흔적만 남아 있던 것을 1993년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수심 3.4m의 연못으로 조성하였다.

공검지에 대한 발굴은 다섯 차례로 진행되었는데 발



상주 공검지 | 경북 상주 | 2020 | 국립민속박물관

굴 조사에서 출토된 목재의 연대 측정 결과 일부 목재는 6~9세기, 일부 목재는 11~13세기의 연대가 나왔다. 이 가운데 6~9세기는 제방을 처음으로 쌓은 시기, 11~13세기는 고려시대에 다시 쌓은 시기로 추정한다. 한편 공검지 내부 퇴적물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는 4세기로 알려졌는데 이 시기는 저수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기라고 한다. 발굴 조사를 통해 일부 제방은 고려시대 명종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제방의 중심부는 점토와 사질토를 수평으로 다지면서 쌓아 올렸음이 확인되었고 중간에 통나무를 깔고 그 바깥에 말목을 박아 엮어서 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제방 바깥 끝부분에 넓은 너비로 2단 이상의 통나무와 나뭇가지를 제방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빈틈없이 깔고 그 내부 쪽으로 나뭇가지를 깐 층과 연결하여 보강하는 방식은 공검지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방식이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에 저수지로 제방을 쌓을 때 통나무를 깔고 말목을 박아 보강하는 독특한 제방 축조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당시 토목 기술과 관계 방식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상주 공검지 주변의 시추 퇴적물 및 규조류 기록을 통한 후기 홀로세 퇴적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이호일 외, 2017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대한지질학회, 2017), 상주 공검지-사적 승격을 위한 시굴조사(금오문화재연구원, 2018), 상주 공검지의 축조 시기에 관한 연구(곽희상,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상주 공검지 제방 유적(김찬영, 2012년 유적조사발표회, 한국고고학회, 2012).

필자 김도헌(金度憲)

상주 전통곶감

정의 경상북도 상주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해온 감 재배와 곶감 제조를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상주는 감 재배와 곶감제조를 위한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내륙에서 감을 재배할 수 있는 북

방한계선이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조건이 감 재배에 적합하고 11월에서 12월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상대습도가 낮아 곶감건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상주는 15세기 이전부터 최고의 곶감 산지였다.『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에 홍시와 곶감이 기록되어 있고『예종실록睿宗實錄』(1468)에 상주에 곶감 공물을 나누어 정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공납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고역이었겠지만, 상주곶감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산물이었다. 상주의 농부들은 튼실한 고욤나무 묘목에 우량한 상주둥시 접수를 접목하여 최적의 감을 생산하였고,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곶감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감을 깎아 처마 밑에 매달고 바람과 습도를 고려하여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곶감은 제사상에 올리는 중요한 제물이 되었고 끼니를 때우거나 겨울철 영양식으로 이용되면서 전통식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주시 전체농가 1만 3,885가구의 40%인 5,510가구가 감을 재배하고, 28%인 3,863가구가 곶감을 제조하고 있다. 상주시 농산물 총생산액에서도 곶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7년 총생산액 8,576억 원 중 곶감이 2,986억 원으로 무려 3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는 전국의 떫은감 생산량 21.3%, 생산액의 20.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떫은감 생산지이다. 이러한 상주 전통 곶감농업은 오랜 역사성, 전통적 감 재배와 곶감제조기술, 다양한 음식문화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되었다.



곶감 말리기 | 경북 상주 | 2013 | 농촌진흥청

내용 상주는 예부터 쌀과 곶감으로 유명한 곳이다. 평지에서는 쌀을 생산하고 구릉성 산지와 주거지 주변에서는 감을 재배해왔다. 이는 식량작물인 쌀과 제례음식이자 겨울철 간식인 곶감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적절하게 배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에는 감 재배지 선정에 대한 농부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구릉성 산지는 평지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가 양호하여 감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만, 평지는 지하수위가 높아 습해를 입기 쉽고 냉기류가 평지로 내려와 동해와 서리 피해를 입기 쉽다.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는 번식법은 500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기술이다. 고욤나무 종자를 심어 지상 5㎝ 줄기가 손가락 2개 정도 굵기가 되었을 때 접목한다. 접수는 11월경 품종이 확실한 둥시나무 중 병해를 입지 않은 1년생 가지만을 골라 채취한다. 이렇게 채취한 접수를 잘 보관했다가 이듬해 3월 수액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접목을 한다. 충실한 눈이 1~2개 붙은 접수를 4~5㎝ 길이로 잘라 밑 부분을 비스듬히 깎아내고 반대편은 목질부가 약간 보이도록 형성층 양편을 2.5㎝ 정도 밑으로 깎는다. 대목은 지면으로부터 4~5㎝ 높이에서 자른 후 매끈한 쪽을 택하여 2.5㎝ 깊이로 쪼개 접수와 대목의 형성층이 서로 맞닿도록 끼운 후 칡넝쿨 등으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돌려 감아 접목을 마무리하고 1~2년 정도 성장한 후에 이식한다. 접목기술의 전통성은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수령감정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수령 530년인 최고령 감나무의 잎과 뿌리 유전자가 서로 달라 접목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시비는 가을거름이 일반적이다. 가을거름은 감을 수확한 후에 수세를 회복시켜 광합성을 돕고 양분을 축적해준다. 가을철 시비를 놓치면, 다음해 발아 전에 밑거름을 한다. 밑거름은 뿌리에 흡수되었다가 발아와 더불어 잎이나 가지를 키우고 나머지는 열매를 키운다. 감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뻗기 때문에 가지 끝자락 아래 세근이 뻗어있는 곳에 시비한다. 감 수확은 한로와 상강 사이에 실시한다.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감이 크고 당분 함량이 높지만, 너무 늦어지면 연화되어 박피가 어렵고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개 이 시기를 지킨다. 수확할 때는 감나무 해거리를 조절해준다. 과거에는 정지나 전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확할 때 감



곶감 말리기 | 경북 상주 | 농림축산식품부

이 달려있는 가지를 통째로 꺾어 따는 방식으로 해거리를 방지하였다.

곶감 건조는 감깎기부터 시작된다. 감꼭지를 딴 다음 감을 돌려가며 깎는데 이때 손상을 입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에는 대나무로 만든 칼이나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박피기를 사용한다. 건조는 예나 지금이나 햇볕과 바람을 이용하여 숙성시키는 천일건조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에는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는데, 요즘에는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마당에 덕장을 설치한다. 곶감의 품질은 곶감을 건조하는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피게 되고 반대로 바람이 너무 잘 통하면 건조속도가 빨라 표면이 두껍고 거칠어져 숙성이 제대로 안 된다. 상주에서는 세로로 감 2개 정도의 간격(약 15 ㎝), 가로로 감 2~3개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전에는 싸리나무에 5개씩 마주보게 10개를 끼워 새끼줄에 매달았는데 실에 감꼭지를 매다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가 지금은 행거를 이용한다.

10월 중순이 되면 상주의 마을들은 주홍빛으로 물든다. 이때부터 감 터는 소리와 함께 마을이 분주해진다. 열흘 정도 감을 따고 다시 열흘 정도 감을 깎아야 하는데,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깎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일손이 부족했다. 감나무가 많은 농가에서는 이웃의 품을 빌려 감을 깎았는데 감껍질로 품삯을 대신하였다. 감껍질은 말려서 떡을 해먹었다. 소금과 설탕을 뿌리고 밀가루에 버무린 후 푹 찌면 감껍질버무리가 만들어졌다. 으깬 홍시에 쌀가루를 넣고 홍시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상처 입은 감을 잘게 썰어 이틀정도 채반에 말리면 꼬들꼬들 단맛이 나는 감또개가 되는데 겨울철 간식거리나 접객용으로 이용되었다. 잔칫상에는 반드시 곶감약밥을 올려야 했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말린 감꼭지차를 약으로 썼다.

지금의 상주 중앙시장 곶감골목에는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도가都家가 들어서 곶감장이 형성되었고 도가마다 10~30명의 도매상인들이 소속되어 곶감을 사고팔았다. 현재는 곶감도가의 역할이 농협공판장으로 이전되고 유통경로가 다양화되었지만, 품질 좋은 곶감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곶감장을 통해 전국 최대의 곶감 유통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상주 감농업은 산림—감재배지—주거지—논—감재배지—산림으로 이어지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림부와 논 사이에 분포하는 감재배지는 서로 다른 두 식물군락 사이에 나타나는 식생의 전이지역으로 각 군락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면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늦가을 주홍빛으로 물든 감나무들과 장대로 감을 따는 풍경은 여전히 향수어린 농촌경관을 보여준다. 가족들이 모여앉아 감을 깎는 풍경과 깎은 감을 실에 매어 처마밑에 주렁주렁 늘어뜨린 풍경은 박피기와 덕장이 도입되면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집집마다 설치한 덕장 가득 매달려 숙성되어가는 곶감은 여전히 농부들의 노고와 정성이 담겨 있는 문화경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朝鮮王朝實錄, 상주 전통 곶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설명서(상주시, 2019).

필자 정명철(鄭明哲)

상주 조공제
尙州 趙公堤

정의 조선시대에 하천의 범람을 막으려고 만든 제방.

내용 조공제趙公堤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40호로 경북 상주시 복룡동 504-1번지 일원에 있다. 16세기 무렵에 하천의 범람을 막으려고 쌓은 제방(방죽)으로 알려졌는데 제방 위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제방은 길이 370m, 높이 2.5m, 폭 5m의 규모이다. 시내로 들어가는 폭 20m의 우회도로가 관통하는 등 조공제의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현재는 조공제 북쪽의 북천과 동쪽의 병성천을 따라 제방을 높게 쌓았기 때문에 조공제의 제방 기능은 사라진 상태이다.



상주 조공제 | 경북 상주 | 문화재청

경상북도 상주읍지인 『상산지商山誌』에 조공제를 만든 배경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낙동강 물의 역류를 막으려고 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그리고 읍 터의 서쪽 산 지형이 지네가 해를 끼치는 형상이어서 그 액운이 고을에 미치지 않도록 동쪽 마주 보는 곳에 지네와 상극인 밤나무 숲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州(상주)의 서쪽 5리 북천 일대에 숲이 울창한데 북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옛날 조정의 명을 받아 나무를 심어 수호하였고 그런 까닭에 속칭 '어령수御令藪'라고 하였다고 한다. 『매헌실기梅軒實記』에 따르면 조공제의 밤나무 숲은 임진왜란 때 정기룡 장군이 화공火攻 작전으로 상주성을 탈환할 때 군사를 숨겨 두었다가 도망가는 왜군을 섬멸하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공제가 늦어도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조병로趙秉老가 상주목사로 재임(1871~1873)할 때 제방을 다시 쌓았다고 알려진다. 조공제라는 명칭은 북송北宋 시인 소동파蘇東坡가 항저우杭州 지사로 있을 때 서호西湖를 준설하면서 파낸 진흙으로 만든 제방을 소공제蘇公堤로 불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조병로가 쌓은 제방이라는 뜻으로 붙인 명칭으로 알려졌다. 제방의 남쪽 끝에는 조병로의 업적을 기념하여 1873년(고종 10)에 세워진 조공제비趙公堤碑가 있다. 비에 적혀 있는 글에 따르면 조병로가 상주목사로 재임할 때 밤나무 숲에 둑을 다시 쌓고 나무를 심고 관리의 책임을 복룡동 동쪽 끝에 있는 부락이 맡게 하면서 마을 이름을 율수리 또는 밤숲개로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밤나무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밤나무는 없어지고 둑만 남았는데 50여 년 전에 뜻을 모은 주민 20여 명이 율수계를 조직하여 밤나무 묘목을 심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편 조공제에서 동북쪽으로 1.4㎞ 정도 떨어진 곳에 북천과 병성천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다. 북천과 합류한 병성천은 동북쪽으로 휘어져 5.4㎞ 정도 흐른 뒤에 낙동강과 합쳐진다. 이러한 지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래 조공제는 북천과 병성천을 연결하여 하천의 범람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원래 조공제의 제방 길이는 850m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하천의 범람을 막으려고 만든 제방(방죽)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또 제방에 심은 밤나무를 통하여 풍수지리가 당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 주는 곳이다.

참고문헌 梅軒實記, 商山誌, 상주 조공제 및 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2002), 성동밤숲과 조공제에 관한 소고(금중현, 숲과 문화12-2, 숲과문화연구회, 2003), 국가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김도헌(金度憲)



상추 | 경북 영덕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상추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상추

정의 국화과 채소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 온 대표적인 쌈 채소.

개관 상추의 품종은 다양한 크기와 색으로 존재한다. 상추는 잎의 모양과 크기, 로제트rosette 정도와 결구성, 잎의 색 그리고 줄기형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최근까지 보통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결구crisphead 상추, 버터헤드butterhead 상추, 코스cos 또는 로메인romaine 상추, 잎상추, 줄기상추 그리고 라틴Latin 상추로 나뉜다. 더 세분할 경우 기름용으로 이용되는oil-seed 상추를 포함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잎은 녹색과 적색이며 부드럽고 비타민A·B·C·E 및 철을 다량으로 함유하며 영양이 풍부하다.

내용 상추 재배는 여러 가지 작형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하우스가 널리 보급되고 만추대성 상추 품종이 육성·보급되면서 작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연중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지 재배나 비가림 재배는 고온기인 여름철에 수확하므로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청상추보다 적상추 계통이 꽃대가 빨리 올라오므로 여름 재배에는 청상추가 유리하다. 상추는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며, 물속에서도 발아가 양호하듯이 물과 비교적 친숙한 편이다. 이처럼 상추는 다습한 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편이어서 수분이 충분한 조건에서 잎의 분화가 빠르며 생육 또한 빠르다. 토양수분이 충분한 조건에서 상추의 엽장이나 엽폭이 커지며 엽수가 많아져서 수량이 높아진다. 발아와 생육 적온이 15~20℃이며 결구 적온은 그보다 낮은 10~16℃이다. 30℃ 이상의 고온과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발아가 거의 되지 않는다. 상추 생육에서 잎의 분화는 주간 온도보다는 야간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10~15℃에서 잎의 분화가 가장 활발하며 10℃ 이하에서는 잎의 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15℃ 이상에서도 증가되지 않는다.

광과 토양 조건 역시 상추의 생육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상추의 종자 발아 조건에서 광은 필수적 요인인데 적색광(660㎚)에서 촉진되는 반면 근적색광(730㎚)에서는 오히려 발아가 억제된다. 상추 재배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pH* 6.5~7.0(결구상추는 *pH* 6.0~6.5) 정도이며 *pH* 5 이하의 산성토양이나 *pH* 8.0 이상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저하된다. 토질은 특별히 가리지 않으나 보수력이 좋으며 배수가 좋은 모래참흙이 알맞다.

가을철 서늘한 이슬을 먹고 자란 상추가 맛이 있다는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는 속담은 사철 먹을 수 있는 상추의 고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뜻이다. 또한 '상추쌈에 고추장이 빠질까.'라는 속담이 있다. 사물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항상 붙어 다닐 때 이 속담을 쓴다. 쌈이라는 음식은 양반이 먹기에는 품위가 없어 보였던지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 사전士典에서 상추쌈을 품위 있게 먹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추를 싸 먹을 때 직접 손을 대서 싸서는 안 된다고 한다. 먼저 수저로 밥을 떠 밥그릇 위에 가로놓고 젓가락으로 상추 두세 잎을 들어 밥을 싼 다음 입에 넣고서 그다음 된장을 떠 먹는 것으로 상추쌈 예절을 소개하였다.

특징 및 의의 최근 국내 상추재배는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잎상추 재배가 감소하고 있으며 잎상추를 재배하더라도 직파 재배와 일시 수확 후 판매·유통할 수 있게끔 하여 노동력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등에 들어가는 반결구형 상추인 로메인, 버터헤드와 양상추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 다양한 품종이 소개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살라노바형Salanova types과 같이 한번 잘라서 100여 개의 잎이 수확되는 상추도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수확 후 갈변되지 않는 녹스Knox 품종도 소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160-상추(농촌진흥청, 2018), 상추-한국인이 생으로 가장 많이 먹는 잎채소(장석우 외, 허브월드, 2006), 한국의 상추 연구·개발 논문 분석(장석우·이응호·김원배, 원예과학기술지25-3, 한국원예학회, 2007).

필자 장석우(張錫愚)

새갓통

정의 농사용 거름으로 쓸 똥이나 오줌을 담아서 농경지에 뿌리기 편하도록 귀때를 달아 놓은 그릇.

내용 새갓통은 바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액체를 따르는 데 편리하도록 귀때가 달렸다. 분뇨를 담을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똥바가지나 오줌바가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새갓통은 똥이나 오줌을 담는 바가지라는 범박한 의미에서 똥바가지나 오줌바가지로 불리기도 한다.



새갓통 | 가로56 세로29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나 새갓통은 일반적인 똥바가지나 오줌바가지와 달리 귀때를 달아 놓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귀때는 주전자의 부리같이 그릇의 한쪽을 바깥쪽으로 내밀어 만든 구멍을 의미한다. 새갓통에는 Y자형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러한 손잡이 형태는 귀때를 고려한 것이다. Y자형 손잡이는 좌우로 갈라진 부분이 귀때 방향으로 향해서 액체가 흘러내릴 때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새갓통을 잡았을 때 손잡이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새갓통은 나무의 속을 파서 바가지 모양으로 다듬거나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들었다. 형태상으로 새갓통과 유사한 것으로는 귀때동이가 있는데 귀때동이는 귀때를 달아 놓은 동이 종류의 옹기이다. 귀때동이에 Y자형 손잡이를 달아서 만든 것도 새갓통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인 똥바가지나 오줌바가지는 일자형 손잡이를 잡고 분뇨를 퍼내거나 담을 때 주로 썼다면 새갓통은 장군과 같은 그릇에 담아 온 분뇨를 조금씩 부어서 농경지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새갓통은 분뇨를 담는 그릇의 한 종류로서 귀때라는 배출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거름을 줄 수 있는 농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농기구(이순수, 보리, 2009),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이한승(李澣承)

새끼꼬기

정의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는 행위.

내용 '새끼'는 볏짚으로 꼰 줄을 말한다. 한자로는 초삭草索 또는 고삭藁索이라고 부른다. 새끼는 주로 볏짚으로 만들기 때문에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농촌 생활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벼농사가 이 땅에 도입된 원삼국시대, 더 위로는 탄화 볍씨가 발견된 신석기시대까지 새끼줄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새끼 무늬는 원삼국시대의 토기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신빙성을 갖는다. 조선 초기에 '삭계索契'라는 새끼로 꼰 줄을 정부 등에 조달하던 공인들의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끼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새끼는 주로 볏짚으로 꼬는데, 질기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추수가 끝나면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소재였기 때문이다. 갈대나 억새는 부러지는 속성 때문에 줄로 꼬기 쉽지 않았다.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는 풀을 겹쳐서 꼬면 그 강도가 더 세어진다. 너무 마른 풀은 바스러지기 때문에 새끼꼬기에 사용하는 볏짚은 직사광선보다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또 수분기를 유지하기 위해 볏짚에 물을 끼얹으면서 새끼를 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새끼를 꼬면서 침을 손바닥에 뱉으면서 비비기도 한다.



새끼꼬기 | 황헌만

새끼를 꼴 때는 먼저 볏짚의 북데기를 거꾸로 벗겨내는 짚단 추리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일단 긴 볏짚의 한가운데를 잡고 비틀면서 고리 모양을 잡은 다음에 손을 조금씩 옮겨서 잡아 준다. 이를 반복하면 계속해서 줄을 연장할 수 있다. 비벼서 꼴 때는 원하는 두께만큼 짚의 양을 미리 정한 다음 아래를 발 사이에 끼워서 고정하고 손바닥에 줄을 Y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손을 비비면서 회전시킨다. 동작을 반복하면 새끼줄이 생긴다. 줄을 다 꼰 후에는 한 번 꼬아서 매듭을 지어준다. 이때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왼손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오른 새끼가 되고 반대로 꼬면 왼 새끼가 된다. 새끼는 1m 이상 길게 꼬면서 굵기가 일정해야 한다. 또 이렇게 꼰 새끼가 풀어지지 않고 조임 상태가 한결같아야 한다. 길게 꼬면 반드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되는데, 알맞게 공간을 찾아 볏짚을 계속 끼울 수 있어야 새끼를 잘 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새끼로는 일단 짚신을 만들고 가마니를 짜기도 하고 삼태기나 멍석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지붕에 이엉으로 얹고 길게 만들어 낚싯줄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례에서는 새끼줄로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만들어 두르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우리 농촌에서 손으로 꼰 새끼줄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새끼꼬기 경연대회를 열었을 정도로 새끼꼬기는 농촌의 주요 일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발로 돌려서 새끼를 꼬는 족답식 새끼꼬기 기계가 등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동력식 기계가 등장하여 사람의 손이 그리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나일론 합성수지의 발명으로 1980년대 이후 나일론 밧줄이 새끼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새끼줄로는 짚신·가마니·바구니·이엉·동바 등 일상적인 농기구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금줄·씨오쟁이·씨부개 등의 민속신앙에 두루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금줄의 경우에는 악귀나 질병과

같은 부정한 접근을 막기 위해 악귀를 쫓는 기능을 지닌 왼 새끼를 사용해야 하였다. 씨오쟁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돌을 넣어 개천에 징검다리로 놓아 액막이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씨부개 안에 햇곡식을 보관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금줄의 의미와 기능(배영동, 비교민속학5, 한국비교민속학회, 1989), 한국 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필자 이관호(李官浩)

새끼틀

정의 새끼를 꼬는 틀.

내용 새끼는 볏짚을 양 가닥 꼬아서 만든 줄로 전통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업, 의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런 새끼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새끼틀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시기는 1910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1909년 조선통감부의 제3차 『한국시정연보韓國施政年報』에 따르면 1908년 일본의 개량농기구로 그네·풍구·낫·가마니틀·새끼틀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초창기 새끼틀이 보급되기 시작한 1910년대만 하더라도 새끼꼬기는 부업의 수단이기보다는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일제는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로 생산량이 증가한 쌀을 포장하고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새끼나 가마니 등의 생산을 부업으로 장려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농회에서는 부업공진회를 열어 새끼·가마니 치기 대회를 개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부업강조주간을 운영하였다. 또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제승조합製繩組合을 결성하거나 농부업강습회農副業講習會 등을 개최하여 농민들에게 새끼틀을 보급하고 새끼를 만드는 부업을 권장하였다.

부업을 진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에 정착한 일본의 농구 회사들은 새끼틀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1922년 『동아일보』에 등장한 후지상행富士商行의 새끼틀 광고에서는 여자가 새끼틀을 조작하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부녀자나 노인, 어린이도 하루에 2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도다농구戶田農具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부업에는 새끼틀로 새끼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는 신문광고를 냈다. 농구 제작 회사들은 이러한 광고를 통해 새끼틀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으며 부업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피력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전시체제하에서 군수용품으로 활용될 새끼를 만들기 위하여 새끼틀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처럼 광복 이전의 새끼틀을 활용한 새끼줄 생산은 자가소비와 부업을 위한 것이었지만, 일제의 자원 수탈과 군수품 공출 등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새끼틀로 새끼꼬는 모습 | 충남 서산 | 1986 | 국립민속박물관



새끼틀 | 너비127 길이105 높이58 | 광복 이후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농가의 자가소비 및 부업소득을 위한 목적이 더 강화되었다. 실제로 1970년대 무렵 상당수의 농가는 농한기에 새끼와 가마니를 만들었고, 농번기에는 쌀 생산 외에 과일을 비롯한 환금작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합성수지로 만든 신소재 제품이 보급되면서 볏짚 제품 제작에 사용된 새끼의 사용량이 점차 줄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 나일론 줄이 점차 보급되면서 포장·운반 용구의 재료로 사용되던 새끼의 이용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끼틀의 활용도 줄어들었다.

특징 및 의의 새끼틀은 새끼를 꼬는 기계로, 전체적인 틀은 나무로 짜고 기어나 기타 부품은 대부분 쇠로 만들었다. 대략 새끼줄을 투입하는 나팔관과 동력을 가하는 발판, 새끼줄을 꼬는 장치부, 새끼줄을 감아주는 얼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팔관에 볏짚을 넣고 발판을 굴리면 장치부에서 볏짚을 비틀면서 새끼줄이 꼬아지고 얼레에 감기게 된다. 초창기에는 족답 장치의 동력을 이용하여 새끼줄을 만드는 새끼틀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부품이 개량되면서 동력장치가 달린 자동식 새끼틀이 등장하였다.

새끼틀을 사용하여 새끼를 만들면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양의 새끼를 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른 새끼만 꼴 수 있고 손으로 만든 새끼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며 굵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중간에 끊어지면 이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새끼틀의 등장으로 새끼줄을 만드는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었고 쉬운 조작방법으로 부녀자들도 손쉽게 새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나일론 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농가의 자가소비를 위한 새끼줄 생산과 부업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여 왔다.

참고문헌 경기도 김포지역 농촌 부업의 변화와 특성(송지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결빙기래(동아일보, 1922.12.17.), 제승기(동아일보, 1922.1.17.), 두피디아(doopedia.c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엄정웅(嚴正雄)

새마을운동

정의 1970년 시작된 정부 주도의 농촌 근대화 운동이자 범국민적 사회운동.

개관 1970년 4월 22일 한해旱害 대책 지방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안한 이후 1971년의 시험단계를 거쳐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 새마을운동이 본격 추진되었다. 1973년부터는 전국의 3만 4,655개 마을을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의 3단계로 계층화하였다. 개별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을 자립마을에 상대적으로 집중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974년에는 마을의 입지조건과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채소류, 과수, 축산, 특용작물 등 마을 유형별로 소득사업을 특화하였다.

개별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마을 수준에서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 초기 단계를 특징짓는



농촌 새마을운동 | 1981 |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 포스터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같은 공동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는 정부의 지도와 지원 못지않게 주민의 순응적인 자발적 참여와 자조적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불변가격 기준으로 1971년에서 1979년 동안 농촌 새마을 관련 투자재원 중에서 정부 부담액은 약 12배 증가하였지만, 주민 부담액은 약 2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의 실현이자 농민의 희망이었던 실질적인 소득증대 실적은 좋지 않았다. 농촌 새마을운동의 목표가 정신계발, 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세 가지로 집약되면서 소득증대라는 목표가 한계에 부닥쳤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점차 새마을운동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정신계발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은 농촌뿐 아니라 공장, 도시, 직장으로까지 확대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기획으로 확대·발전되었다. 학생들도 새마을운동에 대거 동원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제외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1973년 시작된 공장 새마을운동과 1974년 시작된 도시 새마을운동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극히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작동하였으며 박정희 정부가 세운 '조국 근대화'를 위한 기계적 사회통합과 국민 총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사거死去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사람들의 일상 및 생활세계에서 빠르게 퇴장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용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정부 주도로 농촌에서 시작하여 도시, 공장, 직장 등 범국민적으로 확대된 사회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크게 농촌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환경정비 사업을 첫 단계로 한 농어촌 새마을운동은 지붕개량, 공동우물, 마을안길 확장, 소교량 가설, 도수로, 하천 정비, 전기화 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증대 사업은 실적이 저조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몰락과 이농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농촌과 농민들은 1970년대 내내 새마을사업에 열렬히 동참하였다. 굽고 좁았던 길이 곧고 넓어지고 다리가 놓였을 뿐만 아니라 초가지붕이 사라졌으며 공동우물과 빨래터가 새롭게 단장되었다. 밤이면 깜깜하던 마을에 전기도 들어왔다. 새마을운동은 농민과 농촌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새농민'과 '새농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이중곡가제와 통일벼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펼쳐진 다양한 소득증대 특별사업은 농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근대화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다. 수많은 장승과 서낭당, 돌무덤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면서 전통이 사라졌다. 시간이 갈수록 노력 동원도 심해졌기 때문에 하층 농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 주민의 자조적自助的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강한 관 주도가 혼합된 운동이었다. 중앙행정부처에서 마을회의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새마을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공무원들은 자신의 담당 지역과 마을로 내려가 농민을 독려하였다. 이때 국가와 농민의 수직적 관계를 이어주고 지탱해 주는 중간 매개자가 새마을지도자였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역이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교육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가 제시한 새마을지도자의 요건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사회·심리적 욕구, 투철한 국가 안보관, 도덕적 품성, 지도 역량과 지식 등이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로는 농촌 출신자, 농촌개발에 의욕과 관심이 있는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이해력과 협동심, 근면·성실한 건강한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새마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였지만 영농자금 우선 대부, 전화 청약의 우선 배정, 의료 수혜, 각종 세금의 면제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았다. 또 새마을지도자증을 발급받았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초청 등을 통해서 사회·심리적 보상도 받았다. 새마을지도자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주역은 새마을부녀회였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을 위한 부녀조직으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급격한 이농과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마을사업에서 농촌 여성의 사업 참여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고 여성 새마을지도자를 마을마다 선임하여 새마을부녀회의 활동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사업(저축과 구판장 사업 등)을 통해 마을 재산을 조성하여 마을사업의 재원을 제공하고 마을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기여하였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지도자는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새마을교육은 농촌 새마을운동의 우수 사례를 통해 마을지도자의 발굴·육성이 농촌개발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침에 따라 1972년부터 농림부의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독농가연수원으로 출발해서 1973년 4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새마을교육은 공무원, 사회지도층,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외국인,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농촌개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정신교육의 성격을 띠면서 확대되었다. 새마을교육은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새마을정신 체득과 생활화를 추구하였으며 교육생에게 자극·성찰·결의·실천 등의 단계별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집단합숙 생활, 정신계발 교육, 성공사례 발표, 분임토의 등의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언급한 이후 '저축 운동'이나 '매월 1일 자기 집 앞 청소하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실시되다가 1976년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1977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지역·학교·직장 새마을운동을 3대 거점으로 하여 초·중·고 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국민적 동참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농촌과 도시의 구별 없이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발휘하여 농부는 소득증대, 기업가는 경영합리화 그리고 근로자는 생산증강에 각기 전념함으로써 국력배양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197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새마을분임조였다. 분임조란 한 공정에 근무하는 10명 내외의 노동자로 구성된 소규모 작업반을 의미하는데 생산공정 개선과 품질관리, 무결점 운동, 에너지 절약, 기술혁신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동자를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된 공장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삼았던 정부가 노동자들을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동원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대통령의 지도로 확산되었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인 농촌근대화 전략으로 보는 시각과 유신체제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자 국가 동원체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대다수가 참여하였거나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대사적 키워드이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역사적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전후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내용을 밝히는 핵심 요소가 된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라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시대적 조건'에서 전개된 국민운동이자 농업·농촌 정책이었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밀레니엄 시대에도 여전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따라 배우고자 하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문헌 구술을 통해 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윤충로, 사회와역사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유병용·최봉대·오유석, 백산서당, 2001), 새마을운동 10년사(새마을연구회,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진도·한도현,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9), 새마을운동시기 국가와 농민의 정치경제학(황병주,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한울, 2014).

필자 오유석(吳有錫)

색경
穡經

정의 17세기 후반 박세당朴世堂이 중국 원元에서 편찬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대본으로 삼고 자신의 농사 견문見聞을 추가하여 편찬한 농서.

개관 박세당은 1660년에 처음 관직으로 나가서 성균관 전적이 된 이후 계속 관료로 지내다가 1668년(현종 9) 이후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수락산水落山 서쪽의 석천동石泉洞에 은거하였다. 그는 은거 생활을 하면서 앞서 확보해 두었던 『농상집요』를 주요하게 참고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들은 농사경험을 더해서 『색경穡經』을 편찬하였다. 박세당은 『농상집요』를 옮겨 적으면서 번잡하고 거친 부분을 깎아내고 두텁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한 권의 책으로 다듬어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는 비각秘閣, 즉 교서관에 딸린 서고書庫에서 『농상집요』를 구해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을 가르칠 스승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박세당은 석천동 은거지에서 농사짓기에 열중하면서 『색경』을 편찬하였다.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것을 다스리기' 또는 '농사 지도 감독'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 실제 농사짓기에 참여하면서 농업기술의 개선과 개량, 농업생산의 감독과 관리 등을 체험하였다. 박세당은 직접 손에 호미와 쟁기를 들고 농업노동에 종사하면서 온종일 논밭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농업생산 현장의 우여곡절을 직접 파악하였다. 이러한 박세당의 농사경험은 농서農書를 짓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색경 |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박세당은 『색경』을 편찬하는 데 『농상집요』를 주로 참고하였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나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크게 활용하지 않고 『농상집요』를 주요 대본으로 참고하였다. 박세당은 『색경』을 편찬하면서 『농상집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실제로 『농상집요』의 '초록抄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할 정도였다.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 『농상집요』의 구전법區田法을 설명한 부분을 크게 축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색경』에 실었다.

박세당은 1676년에 색경서穡經序를 지었는데, 이 무렵 『색경』 편찬을 한 단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 『색경』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증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1690년 무렵에 박세당이 쓴 〈제색경후題穡經

後〉라는 시詩를 보면 당시까지도 『색경』을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세당의 『색경』 보완 노력은 의지와 무관하게 1693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693년 이후 계속 질병에 시달리면서 다른 저술 작업도 중단 상태였기 때문이다.

『색경』의 목차 구성은 『농상집요』의 목차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색경』 상권上卷에 곡물의 경작법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임지任地·변토辨土·경지耕地·파종播種·종곡種穀·대소맥大小麥·수도水稻·한도旱稻·서제黍穄·촉서蜀黍·대두大豆·소두小豆·완두豌豆·호마胡麻·마자麻子·마麻·저마苧麻·목면木棉·구전區田의 순이다. 또, 과채瓜菜·과果·수樹 등의 경작법도 서술되어 있는데, 종제과채법種諸瓜菜法이라는 대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과瓜·서과西瓜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제과채법 다음으로 종제과법種諸瓜法·종제수법種諸樹法·종제화약법 種諸花藥法 등을 수록하고 있다. 끝부분에 절기節氣를 설명한 부분부터는 대소항목의 구별이 사라지고 다시 각 항목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술되어 있다.

『색경』 하권下卷은 양상법養桑法·양잠경養蠶經 등 양잠 관련 내용을 앞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이어서 전가월령田家月令·전가점험田家占驗 등 농가에서 매달 해야 할 일을 모아 놓은 부분을 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문류天文類·지리류地理類·초목류草木類·조수류鳥獸類·절후류節侯類가 실려 있다. 『색경』 하권에서 『농상집요』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저猪·계鷄·아압鵝鴨 등을 소개한 부분이다. 『색경』의 저猪·계鷄·아압鵝鴨 소개 부분은 『농상집요』 권7 자축孳畜에서 초록한 것이다. 그런데 『농상집요』는 양마우총론養馬牛總論·마馬·우牛 등의 항목을 앞에 두고, 이어서 저猪·계鷄·아압鵝鴨 등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색경』은 '양마우총론·마·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누락 부분은 본래 편찬된 『색경』이 후대에 필사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와 마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색경』의 성격을 소농小農 중심의 농업기술 정리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누락된 부분이 애초 박세당의 초록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색경』은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의 발췌 초록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농업기술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대의 유학자인 박세당이 농본農本과 민본民本의 입장에서 『색경』을 편찬하였다는 것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는 『색경』을 소농경영小農經營이나 대농경영 등 농업경영 규모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농업생산의 안정과 수확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색경』과 『농상집요』의 관계는 저본底本과 초록서抄錄書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 『농상집요』와 『색경』의 세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조선과 중국의 농업환경, 농업기술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穡經,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생강
生薑

정의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특유의 매운맛과 향기를 지닌 채소.

개관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ec.*은 고온다습한 열대·온대 지역에서 재배되며, 온대 북부지역은 종묘생강種苗生薑 저장이 어려워 많이 재배하지 않는다. 국내의 생강 재배



생강 | 충남 서산 | 농촌진흥청



생강밭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는 『고려사高麗史』(1018)에 기록이 있고 왕의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강은 영양번식 작물로 재배되었기 때문에 품종의 변화가 거의 없고 작형별 재배방식과 용도에 따라 품종을 나눈다. 생강 품종은 지역 재래종과 중국산 생강이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외국종은 재래종에 비하여 수량성이 높고 저장성이 강하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떨어진다. 품종군은 소생강, 중생강, 대생강으로 나눈다. 소생강은 조생종으로 줄기가 가늘고 싹트는 수가 50~70본으로 많다. 중생강은 20본 내외이며 육질이 유연하며 감미도는 중간 정도이다. 대생강은 중국 등지에서 도입되어 생긴 품종으로, 만생이며 줄기 수는 10본 내외로 적으나 수량성이 높다. 육질은 유순하고 감미도는 적으며 저장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 대부분은 중생강에 속하며 중국종은 대생강에 속한다.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爵』(1611)에는 전주산이 좋고 담양, 창동의 것이 다음 간다고 하였다.

내용 생강은 난지에서 덩이줄기에서 추대가 되어 꽃이 피나 국내에서는 거의 종자가 맺지 않는다. 고온성 작물로 온도는 18℃ 이상이어야 하고 서리에 약하며 15℃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된다. 저장 조건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므로 10℃ 이하에서는 부패한다. 토양은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지하수위가 높거나 너무 건조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씨생강은 외관이 싱싱하고 살빛이 없으며 육색이 선황색인 건전한 것을 사용하는데 파종 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종묘는 가능한 큰 것이 좋으며, 1개에 눈 2~3개, 20~30g 정도면 알맞다. 파종 전 3~4일간 햇볕에 쬐면 싹을 틔울 때 효과가 있다. 생강 파종 시기는 4월 중하순~5월 상순 파종하여 9~10월경 수확한다.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는 3월부터 심기가 가능하다. 생강 발아 후 늦서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종 전 싹 틔우는 요령은 따뜻한 곳에 모래나 흙으로 틈을 메우고 씨생강을 마르지 않게 비닐이나 축축한 거적으로 덮어두면 25℃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온다. 싹이 너무 길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매미 눈 정도(2~3㎜) 나올 때 파종하면 좋다. 싹을 틔워서 파종하면 15~20일 후 싹이 나온다. 생강 파종은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호미로 심어야 하나 두둑형성기를 이용하면 심긴 부분이 표시되어서 이랑에 생강을 놓고 손으로 흙을 덮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씨생강 심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된다. 심는 방법은 120㎝ 두둑에 줄 간격 30㎝, 포기 간격 25~30㎝로 한쪽씩 놓고 흙으로 3~4㎝ 두께로 덮되 가급적 얕게 심도록 한다. 피복은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고 혹서기 지온을 낮추며 통기성이 좋고 잡초 발생도 억제된다. 보통 비닐 멀칭을 하거나 짚으로 덮기도 한다. 수량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주는 데 웃거름 위주의 재배법이 수량성이 높으며 2회 정도 웃거름을 준다. 생강 뿌리는 매우 얕게 뻗는 천근성이고 뿌리가 약하므로 가뭄이 들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물을 주고, 뿌리썩음병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랑 사이 물대기를 하면 피해가 심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가림 재배는 비닐로 피복하여 장마기에 작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지보다 늦게 수확할 수 있어 수량도 많고, 저장 기간도 짧아져 유리하나 조직이 약하여 저장성이 떨어지므로 바로 출하하는 것이 좋다. 노지재배 수확 적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으로 보통 된서리를 맞은 후 수확한다. 씨생강으로 사용하려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여 잎과 뿌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저장해야 좋다. 수확 요령은 토양이 심하게 굳어지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포기째 뽑아 줄기를 자르기 전에 생강에 붙은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제거한 후 줄기를 자른 뒤 피복 잔재물 등을 털어낸다. 많은 양을 저장할 경우에는 토굴이나 전용 저장고를 사용하지만, 적을 경우에는 생강을 흙이나 모래

와 함께 상자에 담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따뜻한 곳에 두면 이듬해 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한정록閑情錄』(1618)에는 "8월에 수확하고, 9~10월에 깊은 토굴을 파고 왕겨나 벼쭉정이와 같이 묻어 둔다. 종자용은 온화한 곳에 두되 불을 지핀 방도 좋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생강은 수입자유화가 되기 이전인 1992년에 5,264*ha*가 재배되었으나 2000년대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2000년에 1,656*ha*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국내산 생강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2018년에는 2,140*ha*에 2만 1,305t이 생산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생강재배 면적은 경북, 충남, 전북 순으로 넓으며, 그중에서도 주요 재배지는 경북 안동, 충남 서산, 전북 익산 등이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생강(농촌진흥청,2005),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채소원예각론(이정명, 향문사, 2003), 농사로(www.nongsaro.go.kr).

필자 권영석(權寧石)

섬

정의 짚으로 엮어서 만든 곡식 따위를 담아 두는 저장용 농기구.

내용 곡식을 갈무리하기 위하여 짚으로 거적처럼 짠 다음 반으로 접어서 네모 상자 모양으로 꿰맨다. 섬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에서 가마니를 들여오기 전까지 주로 곡식을 담아서 보관하는 농구로 사용되었다. 가마니가 들어온 후 섬은 사용 빈도가 점차 줄면서 끝내 자취를 감추었다.

섬은 날 사이가 약간 성글어서 작은 알곡과 도정搗精한 곡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농가에서는 주로 벼·보리·콩 등을 담아 두는 용구로 섬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곡의 낟알과 쭉정이, 콩깍지, 사료 등을 섬에 넣어 두었다. 낟알을 닭이나 새들이 쪼아 먹거나 쥐들이 파먹기 쉬웠으므로 농민들은 낟알을 섬에 오래 담아 두지 않고 곧바로 쌀 등으로 찧어서 독이나 항아리에 보관하였다.

섬은 가마니에 비해 조직 자체가 약할 뿐만 아니라 담는 양이 많아서 당연히 무게가 무겁다. 그래서 곡물을 가득 담았을 때는 한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 어렵다. 따라서 곡물 따위를 가득 든 섬을 운반할 때는 새끼줄을 가로와 세로로 적절하게 얽어맨 후에 양쪽에서 두 사람 이상이 들어야 한다.

섬은 가마니처럼 생겼으나 짚을 거칠게 쳐서 양 끝을 안으로 욱여넣고 꿰맨 모양을 하고 있다. 섬의 크기는 날의 수로 따진다. 보통 다섯 날 섬과 일곱 날 섬이 많이 쓰이며, 일곱 날 섬에는 서른 말의 곡식을 담을 수 있다. 표면이 거칠고 성글기 때문에 곡식이 샐 수 있다는 것은 섬의 취약점이다. 이를 막기 위하여 두툼하게 짜기 때문에 짚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것 또한 섬의 취약점이다.

섬은 섬틀을 사용해서 만든다. 섬틀은 받침대 위 끝



섬 | 가로78 세로56 높이68 | 농협 농업박물관



창고에 저장된 볏섬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에 구멍을 뚫은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고 도리를 끼우거나 가랑이가 벌어진 나무 두 개를 마주 세워 위쪽에 도리를 얹어서 고정한다. 도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날눈을 파서 고드랫돌을 앞뒤로 걸쳐 놓는다. 고드랫돌은 돌이나 네모진 나무에 새끼를 꿰거나 얽어서 만들며, 짜인 것을 아래로 촘촘하게 내리는 구실을 한다.

섬틀로는 섬의 바닥과 몸을 이루는 부분만을 짚으로 거적처럼 짠다. 섬은 보통 5줄로 엮는데, 모두 엮은 후에 반으로 접어 양쪽을 꿰매서 자루처럼 만든다. 그런 후에 작업자 한 사람은 섬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양 끝을 당긴 다음에 밑에서부터 엮어 올라가며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

섬틀로 바닥과 몸을 짜는 것을 '친다.'라고 하며, 섬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우긴다.'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5~6장의 섬을, 능숙한 사람은 10여 장의 섬을 치거나 우겼다. 1960년대 말 경남 창녕군 영산 지역에서 만든 섬은 수명이 2~3년으로 가마니보다 오래 사용하였고, 무게는 9.6*kg*이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섬 한 개를 만드는 짚으로 가마니 3장을 쳤다.

섬보다 크기가 작은 것은 '오쟁이' 또는 '오장치'라 하고, 오쟁이보다 더 작게 만들어 씨앗을 갈무리해 두는 것은 '씨오쟁이'라고 하였다. 곡물 이외에 숯을 담는 섬은 별도로 '숯섬'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싸릿가지와 수수깡을 섞어서 짜며, 사과 궤짝과 비슷하나 너비가 좁다. 숯을 담은 뒤에는 짚을 욱여넣어서 뚜껑으로 삼았다.

섬은 가마니가 등장한 이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용량을 헤아리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민간에서 양곡 단위로 한 섬은 15말이었고, 한 휘[斛]는 10말이었다. 근래에 와서 말의 용량이 달라지면서 큰 섬은 10말들이었고, 작은 섬은 5말들이었다. 경남 영산 지역 주민들은 1960년대 말에 한 섬을 열 말들이로 사용하였다.

남부지방에는 '다리 공들인다.'라는 민속이 있다. 정월 열 나흗날에 섬이나 오쟁이에 밥·돈·모래 따위를 넣어서 마을 사람들 모르게 도랑이나 개천에 놓음으로써 가족의 한 해 액땜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마을 사람들이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 도랑이나 개천을 건널 수 있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선한 결과가 된다. 이는 그 가족이 한 해의 액운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섬이나 오쟁이 속의 돈은 어린이들이 차지한다.

옛 문헌에서는 섬을 셤(『훈몽자회訓蒙字會』『재물보才物譜』『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자류주석字類註釋』), 石(『농사직설農事直說』『왜어유해倭語類解』), 空石(『산림경제山林經濟』『고사신서攷事新書』), 蒿篅(『농사직설』), 擔(『농정촬요農政撮要』『역어유해譯語類解』『동문유해同文類解』『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藁藁(『산림경제』『고사신어』), 苫(『훈몽자회』『색경穡經』『산림경제』) 등으로 표기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섬은 우리의 전통적인 보관·저장용 농구로 작은 알곡이나 도정한 곡물보다 굵은 벼와 보리, 콩, 사료 등을 주로 담아 두었다. 섬은 조직이 성기고 약하며, 비교적 많은 양의 곡물을 담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무게가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섬을 들고 운반하였다. 가마니가 등장한 이후로 섬은 자취를 감추고 용량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의 재래농구(한국무속박물관, 1995),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섬비

정의 조나 보리, 콩, 조, 깨 등을 파종하고 난 후 흙을 고르거나 씨앗을 묻을 때 사용하는 도구.

내용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을 때 또는 흙덩이를 부수거나 흙을 다질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 끙게의 일종으로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끄시게(김녕), 섬피(대평·애월·오라3동), 선비(하효·사계), 선피(고산), 푸지게(창천), 끄실케(행원), 끄서퀴, 끄서기(수산), 끄실기(조천·함덕), 끄슬기(송당) 등으로 불렀다. 기본 용도는 쟁기질로, 갈아진 밭의 고랑에 퇴비와 씨를 뿌리고 이랑의 흙을 고랑에 얹어 주는 데 있으므로 쟁기로 밭갈이를 하고 파종하였던 농경법 시대 이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람이 섬비를 끄는 모습 | 홍정표

내륙 지역의 끙게는 Y자 모양의 틀 바닥에 여러 개의 나무토막을 수직으로 대는 형태, 잔가지가 10㎝가량 남아 있는 길이 1m 되는 나무토막 여러 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고정한 형태, 발이나 거적에 돌이나 뗏장을 얹어 만든 형태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제주 지역 섬비는 소와 말이나 사람이 끌 때 연결되도록 한 '목'을 중심으로 잔가지가 많은 나뭇가지를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되게 한 상태에서 버림대를 대고 끅(칡) 등으로 만든 줄로 엮었다. 보통 약 150㎝ 정도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만들었으며 개꽝낭(쥐똥나무)이나 누룩낭(느릅나무), 꽝낭(꽝꽝나무), 소낭(소나무), 볼래낭(보리수나무) 등 잔가지가 많은 나무를 사용하였다. 제주에서는 특히 잔가지가 많고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흙이 잘 묻지 않는 꽝낭을 최고로 쳤다. 목이 튼튼해야 하기에 근래에는 끅 대신 철사를 사용하였다.

사람이 섬비를 끌 때는 가지가 많은 나무 중 농사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섬비의 목에 멜빵을 걸고 어깨에 메어 이용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상그리진다(상거름친다)'라고 한다. 섬비 위에 돌을 얹는데 많이 얹을수록 작업 능률이 오르나 사람이 끌 경우는 고랑의 깊이 때문에 많은 힘이 들어 보통 3~4개만 얹어 끌었다. 600평 정도의 밭이면 대략 1~2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

소나 말이 끌 때는 사람이 끌 때보다 더 큰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끝부분을 솜비줄(봇줄)에서 나온 오리목(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어 매는 줄)에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이 끌 때보다 2~3개 많은 5~6개의 돌을 얹어 끌게 하였다. 600평 정도의 밭이면 대략 1시간 이내에 모두 끝났다.

특징 및 의의 섬비는 보관하기에 불편하고 마차가 없는 보통 집에서는 지게로 지어서 밭으로 가야 하므로 운반이 힘들었다.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작업 현장에서 만들어 쓰고 난 후 분해하여 땔감으로 쓰거나 버렸다. 따라서 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참고문헌 제주도의 농기구(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7), 제주도 전래 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황이새(黃이새)

섬틀

정의 섬을 짜는 틀.

내용 섬틀은 일제의 국권 침탈 이후 가마니가 보급되기 전까지 곡물, 소금, 숯 등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된 섬을 짜는 틀을 말한다. Y자로 벌어진 나무 기둥을 받침대와 함께 한 쌍을 양쪽으로 마주 보게 세워 두고, 그 사이에 도리를 올려 고정하였다. 그리고 도리에 일정



섬틀 | 농협 농업박물관

한 간격을 두고 날 눈을 파고 무게가 있는 돌이나 나무에 새끼나 끈을 꿰어 고드랫돌을 만든다.

섬은 볏짚을 씨줄 삼아 고드랫돌로 도리의 앞뒤를 교차해 나가면서 짠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양 끝을 안으로 넣어 꿰맨다. 섬의 크기는 날의 수로 결정되는데, 보통 5날 섬을 제작하지만 7날 섬도 있다. 한 섬에는 대개 10말의 용량이 들어간다.

이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옛 자료로는 19세기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남긴 『기산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의 섬짜기가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 사람은 옆에 놓인 볏짚을 씨줄로 하여 고드랫돌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5날 섬을 짜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섬의 양 끝을 꿰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섬틀로 섬뿐만 아니라 거적을 짜기도 하였다. 거적은 양 끝을 꿰지 않고 섬보다 조금 더 성글게 만든 것으로, 입자가 작은 곡물은 건조하지 못하고 부피가 큰 농산물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소가 있는 농가에서는 거적을 소 등에 씌워 겨울철 소의 체온을 유지시켰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 농가에서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섬을 만들고 농산물을 건조하는 거적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틀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대개 비가 올 때나 농사일을 마친 밤에 제작하였으며 농한기에도 수시로 제작하여 가을 수확철에 대비하였다. 농가의 부업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이 주된 목적이었다.

농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던 섬틀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007년 경상남도 함안군 성산산성(사적 제67호)에서 신라시대 섬틀의 고드랫돌로 추정되는 목기가 발견된 사례를 보면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사용된 섬틀은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가마니가 보급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두피디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엄정웅(嚴正雄)

소고르기

정의 좋은 소를 고르는 요령.

내용 일 잘하는 소와 새끼를 잘 낳는 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분류하여 키우기란 쉽지 않다. 이에 농민들은 각자 경험에서 터득한 안목으로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를 선택한다.

농촌에 가서 "어떤 소가 좋은 소예요?"라고 질문을 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모두 다르게 설명한다. 물론 같은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개인마다 소를 키우고 부리는 데 있어 토질이나 밭의 경사도 등과 같이 농지 조건이 다른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설명하는 좋은 소 고르는 기준에 적합한 소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농민들의 일 잘하는 소, 새끼를 잘 낳는 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소를 고르는 기



우시장 | 1911 | 국립민속박물관



서산 우시장 | 충남 서산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준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소를 선택함에 있어 암소인지 수소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곧 일소로만 부릴 것인지, 부리면서 새끼도 받아 살림살이에 더 도움이 될 암소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일소의 경우 농민 대부분은 암소를 선택하지만, 경기도 양평이나 경상북도 안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암소보다 힘이 센 수소를 택하기도 하였다. 이유는 이들 지역의 땅이 농지를 정리하기 이전에는 단단해서 암소로는 땅을 깊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소가 암소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매매순환이 빠른 장점이 있다. 물론 일소일 경우 새로 구입한 소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암소보다 여러 가지로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소를 택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소인지, 앞으로 클 소인지, 새끼를 잘 낳을 소인지 등을 예상하고 판단함에 있어 대부분 소의 겉모습을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 등판이 넓고 다리가 쭉 뻗어 늘씬한 소인지를 확인한다. 엉치등뼈가 넓으면 새끼를 잘 낳고 뒷다리가 쭉 뻗은 소는 건강하고 힘이 좋다.

발은 크게 통발과 밀발(사람으로 치면 평발)로 구분하는데 통발은 오래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밀발을 가진 소는 오래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밭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밀발은 발톱이 발바닥 안으로 자라거나, 안쪽 발톱이 바깥쪽 발톱 위를 감으며 자라거나, 옆으로 길게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밀발톱을 잘라 주면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지만, 보통은 부리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암소면 생산에 신경을 쓰지만, 수소인 경우 발톱을 오랫동안 물에 불려 깎아서 우시장에 내놓는다. 일소는 힘도 좋아야 하지만 첫째로 잘 걸어야 한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는 부릴 수가 없다. 힘이 약한 일소라면 조금씩이라도 부림을 할 수 있지만 걷지 못하는 소는 이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가죽이 두꺼우면 접소(겹소), 얇으면 홑소(홑소)라 하는데, 접소는 뼈대가 튼튼하고 배가 통통하여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차분하다. 그러나 홑소는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성질 또한 급해서 먹이를 줄 때마다 대드는 경향이 있어서 다루기 힘들다. 이러한 소의 성질은 암수와 상관없는데 암소라도 홑소인 경우는 성질이 급하다.

꼬리가 뒷발 며느리발톱까지 내려간 소는 성질이 차분한데 꼬리가 들린 소는 성질이 아주 급해 잘 대든다. 발톱과 며느리발톱 사이가 좀 떨어진 소들이 늘씬하게 자란다.

옛날부터 콧구멍이 크고 앞 어깻죽지 밑의 갈비가 벌어져 있으면 배통이 커서 잘 먹는다고 하였다. 소는 배통이 커야 잘 먹고 근량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멱이 늘어진 것을 '염주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늘어진 소가 근량이 많이 나온다.

특징 및 의의 옛날 어른들은 '소가 크면 가장자리만 많이 남는다.'라는 말을 한다. 큰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 밭머리만 많이 남으니 작은 소로 일을 해서 한 뼘의 밭이라도 더 갈라는 말이다. 한 뼘의 땅도 놀리지 않으려는 조상의 알뜰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일소를 고르는 데 있어 큰 소만을 고집하지 않고 적당한 소를 택해서 잘 먹이고 일을 잘 가르치면 일소로서 충분하다.

참고문헌 강원도 겨리소의 길들이기 방식과 특징(김세건, 사회과학연구 55-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2), 현지조사자료(안치옹, 강원 횡성, 2020.6.4; 이범주, 강원 횡성, 2020.6.8; 장동길, 강원 정선, 2020.5.25; 전덕재, 강원 홍천, 2020.6.5.).

필자 이영식(李英植)

소길들이기

정의 일소로 부리기 위하여 소를 가르치는 일.

내용 소는 오래전부터 농민과 함께하였다.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힘든 일을 시켰다.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가르쳐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소를 길들이는 방법은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련한 일소로 만들려면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를 길들이는 이유는 소를 부리기 위해서이다. 유능한 일소로 만들려면 여러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소를 부리려면 코청을 뚫어 쇠코뚜레를 끼워야 한다. 코청을 뚫을 때는 흔히 코뚫개라 부르는 도구를

이용하는데, 코뚫개는 손가락 굵기의 단단한 참나무나 박달나무를 15~20㎝ 길이로 잘라 앞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다.

코 뚫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생후 10~12개월 정도 되면 뚫는데 만약 코를 뚫을 때가 단오 무렵이면 조금 이르거나 늦더라도 단오에 맞춘다. 이날을 '소 시집가는 날'이라고도 한다. 코를 뚫으면 코뚜레를 끼우는데, 코뚜레는 노간주나무·느릅나무·다래나무·버드나무 등과 같이 질기고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소코뚜레를 끼우고 길들이는 시기는 보통 24개월이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수소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24개월이 안 된 소도 부린다. 경기도 양평에서는 '섬으로 하나만 되어도 일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전한다. 즉 소 크기가 볏섬 정도만 되어도 능히 일소로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에서도 봄철이면 젖을 뗀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키워서 이듬해 봄에 일을 가르쳐 밭갈이를 시키고 가을이면 그 소를 팔아 황송아지 두 마리를 구입하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24개월이 안 된 수소를 길들여 일소로 부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4개월이 되었을 때 소를 길들이는데 그 이유는 36개월 정도 되면 목뼈가 나오기 때문이다. 목뼈가 나온 다음에 멍에를 얹으면 소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소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목뼈가 나오기 전에 멍에로 눌러 주어야 한다.

소를 부릴 때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리로 논밭을 갈지만, 강원도 북부지역에서는 겨리로 갈았다. 따라서 겨릿소를 부리는 지역에서는 두 마리를 동시에 길들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필요에 의해 한 마리씩 길들인다.

길들이기를 위해서는 먼저 목뼈를 눌러 주고 목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에게 멍에를 걸고 줄을 매서 무거운 통나무나 폐타이어 또는 돌을 달고 앞에서 끌며 길이나 강변으로 데리고 다닌다. '헛밭갈기'라 해서 쟁기를 챙겨 소에 걸고 한 사람은 앞에서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쟁기질하면서 빈 밭을 갈기도 한다. 그리고 겨울철 산에서 나무를 한



소길들이기 | 전남 진도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후 발구에 나무를 싣고 끌게 하는 방법으로 목뼈를 단련시킨다.

그런가 하면 겨리를 끄는 소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뼈를 단련시키지만, 보통은 기존의 숙달된 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밭갈이를 시킨다. 이때는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가 흔한데 부인이 굴레와 고삐를 잡고 앞으로 나가면 남편은 쟁기질을 한다. 길들이는 소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편은 제대로 끌지 못하는 부인에게 한마디 한다. 그래서 '소 끄는 공 없고, 애 보는 공 없다.'라는 말이 전한다.

이렇게 목을 단련한 소는 본격적으로 밭갈이와 논갈이, 써레질을 한다. 하지만 목이 단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밭을 가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 사람이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어 주어야 한다. 일소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소를 길들이는 기간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목을 단련시키는 것은 같다. 길들이기는 매일 1~2시간 끌고 다니거나 한나절 끌고 다니고 다음 날 쉬기도 한다. 그리고 수시로 소의 상태를 살피면서 목을 풀어 주며 길들이기를 계속한다. 부리는 밭갈애비의 능력이나 소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5~10일이면 목을 단련시킬 수 있다고 한다. 목 단련을 마친 후에 앞에서 고삐를 잡고 밭갈이를 하는 단계를 지나면 밭갈애비 혼자서도 소를 조종하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른다.

참고문헌 강원도 겨리소의 길들이기 방식과 특징(김세건, 사회과학연구55-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쟁기연구(김광언, 민속원, 2010), 현지조사자료(안치옹, 강원 횡성, 2020.6.4; 이범주, 강원 횡성, 2020.6.8; 장동길, 강원 정선, 2020.5.25; 전덕재, 강원 홍천, 2020.6.5.).

필자 이영식(李英植)

소보험

정의 농민의 가장 큰 자산인 소가 불의의 사고로 폐사斃死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역사 우리나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두레 또는 계의 형태로 보험의 성격을 지닌 전통이 존재하였다. 보험의 형태를 처음 취급한 것은 소를 대상으로 한 우척보험회사牛隻保險會社로, 1897년(광무 원년)에 설립된 대조선보험회사大朝鮮保險會社와 1900년에 설립된 무본보험회사務本保險會社이다. 당시 우척보험회사에서는 전국의 각 부府에 경파원京派員을 파견하고 각 군郡에 군파원郡派員을 선정하여 소를 보유한 농가에 소의 털 색깔과 뿔 여부 등 개체식별을 명기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소 한 마리당 엽전 1냥 5전을 보험료로 징수하였다. 보험회사의 군파원은 자신의 투자금과 보험료 일부로 소를 구입하여 소가 없는 농민에게 일종의 임대소인 도짓소[賭地牛]를 운영하여 그 수수료로 경비를 쓰거나 일부는 본사에 납입하여 제반 경비에 충당하였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소와 농민에게 나누어 준 도짓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의서牛醫書와 검역 세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험료가 대우大牛 100냥, 중우中牛 70냥, 소우小牛 40냥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 100일 만에 폐지되었다.

이어서 유사한 기능의 무본보험회사가 1900년에 설립되었다. 왕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궁내부에는 매년 5,000원을 상납하도록 하였고 사원 100명에 투자금인 고금股金이 400원이었으며 보험표는 총 90만 장이 발행되었다. 이후 1921년에 최초의 일반 보험회사인 조선생명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22년에는 조선화재해상보험회사가 최초의 손해보험회사로 설립되었다.

내용 국내 자본에 의한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1946년이지만, 재해보험 성격의 소보험은 농업 분야 중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 1947년 미군정 시절에 공제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제사업은 일반 보험과 달리 협동조합 등과 유사하게 경제적 약자 단체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삼아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것으로, 소가 불의의 사고로 폐사하였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를 띠었다. 1956년에는 농업은행이 가축 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농경우農耕牛 공제사업을 시행하였고 1961년에는 농업은행이 농업협동조합(농협)으로 개편되었다. 1963년부터는 농가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고 1964년부터는 최초로 젖소 공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1981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일반 가축공제와 특수 가축공제로 구분하여 한우와 육우는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가 폐사하면 국가의 자원으로 손실을 보전받게 하였으며 특수 가축 공제는 한우·육우·젖소 등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폐사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현재와 같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본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은 1997년이다. 당시 〈축산법〉에 의거하여 가축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축산인 관련 법인에 대해 사업 활성화 및 축산농 부담경감을 위하여 납입 공제료의 50%를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소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00년에 말·돼지, 2002년에 닭, 2004년에 오리, 2005



대조선보험회사 소보험 증권 | 1897 | 국립민속박물관

년에 꿩·메추리, 2006년에 칠면조·사슴, 2007년에 거위·타조, 2008년에는 양(염소)까지로 보험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는 가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협동조합인 농협 외에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일반 민간 보험사업자도 가축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0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가축재해보험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현재는 소 이외에 27개 축종에 대해 바람이나 수해, 눈,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870억 원을 투자하여 농가 자부담을 50%로 낮춤으로써 전체 가입률은 2019년 기준 93.5%에 달하였다. 특히 소의 경우에는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폐사에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60~80%를 보상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소보험은 농경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특히 도입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우나 낙농 산업 안정에 기여하였고, 현재는 관련 법상에 모든 가축으로 확대되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상의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단가가 시가에 비해 낮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참고문헌 가축재해보험(김동겸, 손해보험의 이해18-정책성보험, 보험연구원, 2013),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0), 가축질병공제사업추진모델개발(지연구·차일권·양찬영, 보험개발원, 2016), 농업재해보험제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2016), 우척보험회사(김명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

필자 남인식(南麟植)

소작
小作

정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지주에게 농지를 빌리는 대신 그 사용의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를 임차료로 납부하는 제도.

내용 소작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지주에게 농지를 빌리고 사용의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차료로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땅을 빌리는 자가 소작농, 빌려주는 자가 지주이다. 이처럼 지주·소작 관계는 동서고금을 통해 신분을 구분하는 광범위하고도 엄격한 관계였다. 예를 들면 '현명한 소작인은 지주 앞에서 절대로 방귀를 뀌지 않는다.'라는 에티오피아의 속담이 있는데, 지주는 경제 외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작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다.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지불하는 소위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 줄여서 병작제竝作制의 병폐를 막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그 수취를 금지하고 규제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조선 중·후기인 16~17세기에 양란이라 일컫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농지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식량부족의 대책으로 황무지와 간척지 개간을 주도한 양반 지주의 농지가 확대되었다. 여기에 고려시대부터 시작한 벼의 이앙법이 17세기에 일반화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양반 지주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의 소작제도는 개항과 일제식민지를 맞아 크게 변화하였다. 즉 소작미의 형태로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이출하게 됨으로써 부를 축적한 신흥 지주계층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한일강제병합과 동시에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하여 실시된,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지주제의 강화는 새로운 지주·소작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초기에 식민지 통치기구를 강화하고 경제망을 통제하며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갔다.

특히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 구조의 재편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일본인 대지주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가 급속히 집적되어 강화된 지주적 토지소유제가 나타났다. 즉 100정보(1정보는 1ha 정도이고 1만m^2에 해당함) 이하의 규모에서는 한국인 지주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100정보 이상에서는 일본인 지주 수가 한국인 지주 수를 상회하였다. 이는 일본 내 소작쟁의 증가로 인한 소작료 저하, 즉 일본 내 지주제의 후퇴로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지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1,000정보 이상 일본인 지주의 전형은 일제강점기 내내 존속된 국가지주와 반국가지주, 재벌지주이다. 국가지주라 함은 토지조사사업으로 한국 최대 지주가 된 조선총독부이며 반국가지주는 총독부의 시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토지겸병을 진행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1931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합병된 선만척식주식회사를 말한다. 또 재벌지주는 한국에서 거대한 토지를 집적한 미쓰비시三麥, 오쿠라大倉, 시부사와澁澤 등의 거대지주를 뜻한다.

1920년대 이후의 지주·소작 관계는 일본이 자국의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기 동안 강화되어 갔으나 이는 농민적 토지소유가 아닌 지주적 토지소유라고 하는 식민지적 토지소유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즉 반봉건적이라고 하는 일본의 지주·소작 관계보다 훨씬 강력한 지주제였으며 우리 농민은 그 수탈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국가와 특히 지주에게 소작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위 농민의 소작쟁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즉 토지조사사업 전후 또는 진행 과정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일어났던 농민들의 지주를 향한 소극적인 저항은 소작쟁의라는 적극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조직적인 소작쟁의에 대응하여 나온 1933년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은 집단적이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소작단체의 쟁의에 개입하거나 다른 농민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오직 군청 관리들로 구성된 군소작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법정 판결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소작쟁의는 매년 증가하여 1937년 3만 1,799건에 달하여 전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20년대 초기에는 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삼남지방에서 발생하였다. 삼남지방에 소작농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지주들의 소작농 수탈이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소작쟁의가 조직적인 항일운동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1934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자작농 창설 계획의 실시와 지주적 토지소유의 제한, 경작권의 보호, 소작료의 저율화 등을 강조하는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제정하였다. 이는 소작농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지주의 횡포를 견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조선총독부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소작쟁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 북한 지방에 소작쟁의가 급증한 것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독립군의 영향하에서 농민들의 의식이 고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북한 지역이 공업화되고 노동운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조직적 항일농민운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소작쟁의가 감소하였으나 1939년에도 1만 6,452건에 달하는 등 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소작쟁의의 핵심 요구사항은 영국인 지주에 대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소작계약증서 | 일제강점기

하여 1850년에 조직한 아일랜드 소작인동맹이 요구한 3F 운동과 다름없었다. 즉 안정된 소작권fixity of tenure, 소작권의 자유로운 매매free sale of tenancies, 공정한 소작료fair rent였다. 이렇듯 아일랜드 3F 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에는 소작료 문제가 가장 많았다. 1930년대 중반에는 소작쟁의의 중심이 소작권 안정 문제로 옮겨지는데 이는 소작료 문제로 분쟁이 생기거나 소작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 소작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농업 이외에 취업 기회가 없던 시기로 소작인의 소작지 확보를 위한 쟁탈이 심한 상태여서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하더라도 안정된 소작권의 확보가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소작인의 저항은 매우 컸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소작료는 병작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업이 종료된 후 소작료가 고율화로 진행되었다. 소작료의 지불 방법에는 풍흉에 관계없이 연간 소작료를 미리 정해 놓는 정조定租 또는 정액제, 수확량에 따라 수확기에 소작료 비율을 정하는 타조打租 또는 정률제, 수확 전 지주가 소작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해 벼의 수확 예정량을 추정하여 약정수확량을 지불하는 집조執租 등이 있었다.

1930년대 소작료 수준은 지불 방법과 크게 관계없이 최고 90%, 평균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고율의 현물 소작료에는 소작농의 노임 일부도 포함되는 등 0.3*ha* 미만 규모 25.8%와 0.3~1*ha* 규모 34.8% 등 60% 이상의 극영세농은 소작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춘궁 농가의 상태였다.

즉 자작농은 물론 자소작농조차도 춘궁기에는 식량이 모자라는 대량의 절량농가絶糧農家가 나와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는 하였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은 순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 또는 연해주 등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광복 직후 남한 총 경지면적의 63.4%가 소작지이고 자작지는 36.6%에 불과하였다. 자소작별 농가 구성을 보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소작농은 51.6%에 달하고 자작 겸 소작농은 34.6%를 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순소작농 내지 이에 준하는 상태의 자소작농 중 소작 부분이 50% 이상인 빈궁 상태의 농가는 69.9%에 달하였다. 한편 크고 작은 자작농은 13.8%를 점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안정된 자작농은 3.2%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태의 소작조건이 소작인을 반노예화시켰으며 생활수준을 미군정이 목적으로 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시켰기에 미군정은 이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그 개정을 촉구하는 〈최고소작료결정의건〉을 1945년 10월 포고하였다. 미군정은 이 법령을 포고하는 동시에 식민지하의 지주적 토지소유제 모순을 혁신하기 위한 농지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받았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21조에서는 국가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2002년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농지소유상한을 해제하는 대신 그 밖의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두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광복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법〉에 농가 1호당 농지소유상한을 3*ha*로 제한한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를 메우고 영농 기계화와 규모화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기 강원지역의 지주소작관계 연구(신민정·전운성, 농업사연구5-1, 한국농업사학회, 2006), 세계의 토지제도와 농업(전운성, 한울아카데미, 2006), 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0~1932).

필자 전운성(全雲聖)

소줄꼬기

정의 소를 부리는 데 필요한 밧줄을 만드는 일.

내용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소를 이용해야 하고 소를 부리려면 밧줄이 필요하다. 이에 농민들은 필요할 때마다 볏짚으로 줄을 틀어 사용하거나 1년 동안 쓸 것을 미리 장만한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정월 보름날 이웃들이 모여서 겨우내 꼰 새끼줄을 자새로 틀어서 1년 동안 사용할 고삐와 봇줄을 만들었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농한기로 접어들지만, 농민들은 마냥 쉬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정월 보름날이면 겨우내 꼰 새끼줄을 가지고 소를 부리는 데 필요한 소줄(밧줄)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가 있는 집에서는 아침부터 새끼줄을 자새로 틀어 밧줄을 만드는데 이때 이웃들이 모여 새끼줄 세 가닥을 자새에 넣고 굵은 밧줄 한 가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 새끼줄을 자새로 틀어 밧줄을 만든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새끼줄을 꼬지 않고 두 사람이 볏짚을 두 가닥으로 틀어 '다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넷줄은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세 가닥으로 튼튼하게 틀지만, 쟁기를 끌거나 고삐로 쓸 밧줄은 두 가닥이면 충분하였다. 밧줄이 두꺼우면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끼줄이나 볏짚을 틀어서 만드는 과정은 쇠줄드리기, 소줄꼬기, 소바만들기, 소고뺑이드리기, 다줄드리기 등과 같이 지역에 따라 표현을 달리한다. 만들어진 밧줄은 나뭇가지에 걸고 밧줄 양 끝에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아 놓거나 밧줄 양쪽 끝에서 잡아당겨 늘어나게 한다. 이렇게 만든 밧줄로 소고삐를 만들거나 쟁기나 써레에 매는 봇줄로 이용한다.

그런데 짚으로 만든 밧줄은 쉽게 삭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 짚을 오줌통에 삼일 정도 축여 두었다가 밧줄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염분기가 짚에 배면 마른 볏짚으로 할 때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짚으로 만든 밧줄은 햇빛과 물에 약해 쟁기질을 할 때 쟁기가 돌에 걸려 소가 무리하게 힘을 쓰다 보면 밧줄이 쉽게 끊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무논에서 써레질할 때면 아무래도 밧줄이 장시간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끌다 보면 끊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역에 자생하는 피나무 껍질이나 싸리나무 껍질인 비사리 등을 채취하여 볏짚과 섞어서 밧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피나무 껍질을 이용할 때는 겉껍질은 버리고 속껍질을 물에 담갔다가 찢어서 자새로 틀어서 줄을 만들었다.

피나무 껍질이나 비사리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볏짚을 쓰지 않고 이것들로만 자새로 틀어 밧줄을 만들었다. 피나무 껍질은 물에 강하여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이나 논에서 써레질할 때는 유용하지만 겨울철에는 건조하여 잘 끊어진다. 반면에 삼 껍질인 조라기로 만든 밧줄은 물에 약하지만 추운 겨울에 강하여 농민들은 계절별로 밧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소가 밧줄을 씹어 먹는 경우가 있다. 고삐나 쟁기 밧줄을 볏짚으로 만들었으니 소가 심심하면 씹어 먹었다. 이렇듯 소가 밧줄을 씹어 먹는 것을 '삭바한다'라고 하는데 소가 삭바를 하면 줄을 끊고 날뛰므로 애를 먹는다. 이런 경우 밧줄을 피나무 껍질이나 비사리, 조라기 등으로 만들면 소가 씹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아 도움이 된다. 그래도 씹으면 밧줄에 모빌유를 발라 놓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폐그물로 만든 밧줄이 등장하고 나일론 줄이 나오면서부터 볏짚이나 나무껍질 등으로 소줄을 꼬는 일이 없어졌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농민들도 소를 일소로 부리기보다 비육우肥育牛로 키웠기 때문에 밧줄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볏짚이 충분하여 밧줄을 쉽게 이용하지만, 논이 별로 없거나 벼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볏짚이 귀한 까닭에 짚으로만 밧줄을 만들지 않았다. 더욱이 볏짚으로 만든 밧줄은 잘 삭아서 쉽게 끊어지므로 산간지역에서는 볏짚보다 피나무 속껍질, 싸리나무 껍질인 비사리, 삼 껍질인 조라기 등으로 밧줄을 만들었다. 이처럼 소줄꼬기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징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현지조사자료(이범주, 강원 횡성, 2020.6.8; 장동길, 강원 정선, 2020.5.25.), 디지털논산문화대전(nonsan.grandculture.net).

필자 이영식(李英植)

소쿠리

정의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세척·보관·운반 용도의 그릇.

내용 소쿠리는 젖은 농산물과 음식 등의 운반 용구, 음식물 재료와 채소 등을 씻어서 건져 내는 세척 용구, 명절과 제례 음식의 일시적인 보관 용구 등 다용도로 사용하였다. 대나무나 싸리 등 나무와 줄기로 만든 생활용구들은 선사시대부터 제작·사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대소쿠리와 유사한 버들광주리를 천민들이 만들었고,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죽제품을 제작·사용함으로써 소쿠리와 같은 일상 용구들은 오래전부터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가에서는 소쿠리를 곡식이나 채소를 수확한 후에 단거리 운반하기와 말리기, 보관하기 등 농사짓기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 소쿠리는 집 안팎의 짧은 거리에서 크지 않거나 소량의 농작물을 운반, 건조, 임시 보관하는 데 매우 편리한 용구이다. 농부는 씨를 뿌리거나 고추 등 농산물을 갈무리하는 데에도 소쿠리를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담은 소쿠리를 배 부분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테를 잡거나, 허리 부분에 대고 한 손으로 테를 잡고 운반한다. 모양과 재료가 달라져도 농가에서는 편의성 때문에 소쿠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다.

농사용 이외에도 소쿠리는 젖은 음식물이나 재료 등의 물기를 빼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작은 소쿠리는 부엌살림으로 최적이다. 소쿠리는 남성보다 주부가 더 많이 활용한다. 어촌에서는 소쿠리를 허리에 차고 돌가시리, 넓패 등을 캐는 작업을 한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는 작은 소쿠리에 과자나 과일을 담아 둔다.

소쿠리의 모양과 크기, 용량은 아주 다양하다. 소쿠리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원형이지만 삼태기 모양도 눈에 띈다. 속은 깊거나 얕고, 바닥은 둥글거나 약간 납작하다. 제주도 주민들은 삼태기 모양의 소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원형 소쿠리는 육지에서 들어왔다. 바닥에 굽은 없다. 크기는 구경이 약 30㎝에서부터 80㎝ 내외까지이며, 용량은 일정하지 않으나 30~100ℓ를 담을 수 있다. 중간 크기의 무게는 800g 정도이다. 경기 덕적도, 전남 산동과 삼산 지역 일부 주민들은 1968~1969년 사이에 250원을 주고 중간 크기의 소쿠리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재료는 보통 참죽을 사용한다. 소쿠리는 대를 얇게 2~3켜로 쪼개어서 만든 대오리로 날대와 사릿대의 평짜기로 만든다. 겉대와 속대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겉대로 만든 것은 단단하여 질기지만, 속대로 만든 것은 다소 거칠고 약하다. 짜임은 쌀처럼 알이 작은 곡물을 담아도 새지 않고 물만 밖으로 빠지도록 매우 촘촘하다. 테는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나무로 마감하며, 대오리에 손이 찔리거나 다치지 않게 한다. 중대형 소쿠리는 힘을 많이 받아서 단단한 겉대로, 소품은 강도가 약한 속대로 엮어서 만든다. 겉이 속보다 매끄럽고 단단해서 겉대로 짠 소쿠리가 고급품이다.

소쿠리는 대의 흡습성이 강해서 보관 방법이 중요



소쿠리 | 지름40 높이19 | 국립민속박물관



소쿠리 | 지름65 높이22 | 국립민속박물관



소쿠리 | 경남 합천 | 1983 | 국립민속박물관

하다. 사용 후에는 소쿠리를 물로 깨끗이 씻고 햇볕에 쬐거나 통풍이 잘되는 벽 등에 걸어 둔다. 대부분의 소쿠리는 3년 정도 사용하지만 대를 이어 사용하는 집도 있다. 잘 말리지 않은 소쿠리는 냄새가 나거나 검은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썩기도 한다. 대나무의 찬 성질과 항균성, 항산화성으로 소쿠리에 담은 밥은 삼베로 덮고 통풍이 좋은 곳에 두면 여름에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호남지역 소쿠리는 다양한 죽제품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전에는 장인들이 죽제품을 만들어서 팔러 다녔으며, 곡식과 교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공장제 소쿠리의 대량 공급으로 대오리 소쿠리의 생산과 사용이 감소하였다. 금속 소쿠리와 플라스틱 소쿠리는 물의 표면장력으로 빨리 건조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현대 생활에서도 소쿠리 등 대나무 제품들이 종종 사용되며 실내 장식용으로도 쓰인다.

소쿠리는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대소쿠리 혹은 광주리로 부르기도 한다. 옛 문헌에서는 속고리(『물보物譜』), 쇽고리(『사류박해事類博解』), 飯帚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소쿠리는 모양과 크기, 용량 등이 아주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원형이지만 바가지와 원통, 삼태기 등 여러 형태의 소쿠리가 있다. 농가에서는 크기에 따라서 세척하기와 운반하기, 말리기, 보관하기 등으로 생활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소쿠리의 크기가 작아도 그 용도와 목적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쿠리는 티가 없어서 물건을 실제 용도에 적합하고 정갈하게 보관하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인의 삶과 도구총서3·4(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15),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소품앗이

정의 소가 귀하던 시절에 소를 매개로 한 축력畜力 교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품앗이.

내용 품앗이는 인력뿐 아니라 축력 교환에도 쓰였다. 중세 사회에서 소 소유는 바로 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도 축력의 소중함은 바뀌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빈농민의 다수는 소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축우는 경영 규모가 영세하고 왜소한 빈농가보다 중농이나 대농가에서 대부분 길렀다.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는 빈농의 대다수가 무축농임을 의미한다. 소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축우 밀도가 높아야 할 논농사 지대에서 유축도가 낮고 그 반대로 밭농사 지대에서 유축도가 높은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농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작 농우가 부족하였다.

소 소유관계는 남부의 논농사, 북부의 밭농사라는 농업지대 분포와 완전히 모순된다. 따라서 소를 빌려 쓰고 품을 갚는 품앗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품앗이의 대표격은 북한 한전지대旱田地帶에서 폭넓게 이루어진 소를 매개로 한 소겨리(소+겨리) 풍습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를 지닌 자와 소가 없는 자 간의 노동력 교환 기준이다. 축력과 인력의 품앗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축력과 인력의 동등한 교환 방식이다. 소와 인력을 1:1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노동력 교환 법칙

상 개인 노동력에 비하여 소가 지닌 노동력이 월등히 높았으나 미풍양속으로 소를 가진 자가 양보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미풍이 전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1:1 방식이더라도 소를 빌린 사람이 소의 여물을 필요량 이상으로 돌려주는 등 예의를 갖춘 품앗이는 늘 존재하였으므로 막상 완벽한 1:1 노동력 교환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축력 우위 교환 방식이다. 축력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2 심지어 1:3으로 정하여 소를 1일 빌리면 2~3일의 인력人力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소를 매개로 한 일정한 착취가 항존하였는데, 이는 소겨리 풍습에서 잘 드러난다. 소겨리는 소가 중심이 되어 품앗이를 행하게 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다. 보통 하루 동안 남의 소를 빌려다 쓰는 데 쌀을 한두 말씩이나 지불하는 것이 광복 당시의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예탁우預託牛니 대우貸牛니 하여 지주들은 소를 매개로 농민들을 더욱 옭매었다. 소가 귀하였기 때문에 축력을 제공하는 농민과 축력을 제공받는 농민 사이에 단순한 노동관계를 뛰어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 소를 사용한 대가로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였으므로 1:1의 등가적 관계가 아닌 예속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북쪽 지방에서는 소품앗이의 일종인 소겨리가 보편적으로 유행하였다. 김홍도의 그림을 비롯한 조선 후기 풍속도에 소 두 마리가 큰 쟁기를 끌고 있는 그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쌍겨리'라 부른다. 이는 소겨리와 밀접한 농경 풍습이다. 소겨리는 '소를 겨리한다'는 뜻이다. 겨리는 '결結'이 연음화된 것으로, '소를 결합한다'는 뜻이다. 지역적 향명鄕名을 지니고 있었으니 강원도의 소개리·소제리·소쩨리, 함경도의 밭갈이 제리 등이 있었다. 소겨리에 참여하는 것도 '겨레든다' '소품에 든다' '권에 든다' 등 지방마다 여러 가지로 불리었다. 소 가진 집과 소 없는 몇 집이 참여하여 만든 조직을 보통 소겨리 또는 겨리라고 하였다.

농사에서 축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소를 둘러싼 다양한 풍습이 생겨났다. 함경도 일대에는 윤돌소와 수양소 제도가 전해졌다. 윤돌소 제도란 두 살배기 송아지를 가져다가 1년간 길러서 세 살이 되는 때부터 1~2년간 농우로 사용하고서는 큰 소로 만들어 돌려주는 방법이다. 또는 처음부터 큰 소를 윤돌값으로 금전을 선납하고 데려와 1년간 농우로 사용하고 돌려주는 방법이다. 수양소 제도란 한 살이 되는 젖떼기 송아지를 데려와 길러서 큰 소로 만들어 주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는 제도이다.

특징 및 의의 호남평야의 경우에는 멧소라고 하여 봄에 논갈이 철이 되면 산중에 들어가서 소를 세貰내다가 한 철 논을 갈고 되돌려 준다. 세는 보통 벼 석 섬이었으며 김제 만경 들녘에서는 순창, 정읍 등지에 가서 소를 빌려 왔다. 어우리소는 송아지를 얻어다가 키워서 부려 먹으면서 새끼를 낸 다음 송아지는 기르고 어미소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를 살 돈이 없으니 송아지를 얻어다가 4~5년 길러서 그 대가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게 된다. 충남에서는 삯소메기기라고 하여 24삯을 먹여 주면 소 먹여 준 값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주었다. 도짓소라고 하여 소가 여러 마리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소를 아예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도지를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과거 우리나라 공동노동의 형태와 그 특성(조대일, 고고민속론문집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3), 과거 우리나라 농사에서의 상호 로력부조 조직에 대하여(림학선, 고고민속2,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朝鮮の農業地帶(印貞植, 生活社, 1940).

필자 주강현(朱剛玄)

소해면상뇌증

정의 변형 프라이온prion 단백질이 원인체인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신경성 질병.

내용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신경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특이한 뇌병변을 보이는 질병으로 처음 밝혀졌다. 뇌병변의 이름을 따 소해면상뇌증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질병은 특이한 증상으로 인해 광우병이라는 속칭이 있다. 소의 경우 질병의 원인



고목우도 | 전 김식 | 조선 중기 | 국립중앙박물관

체가 감염된 소나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체는 열, 자외선, 화학물질로 잘 파괴되지 않으며 단백분해효소로도 분해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실험동물에서의 감염은 가능하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5년 19세 소년과 두 명의 젊은이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reutzfeldt-Jakob disease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들이 해면상뇌증을 보이자 사람의 감염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되었다.

1996년까지 8명의 젊은이가 이와 같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으로 사망하였고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변형 프라이온prion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소에서 유래한 축산물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었다. 영국은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37억 파운드(2020년 기준 약 5조 4,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었다. 이후 북미에서도(1993~2018년까지 총 26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북미산 쇠고기와 관련 축산물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2001년 일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2005년에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던 일본 내 최초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2016년까지 세계 28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소해면상뇌증은 전염성해면사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동물에서는 양의 스크래피scrapie, 밍크의 전염성밍크뇌증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사슴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고양이의 해면상뇌증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등이 밝혀져 있다. 잠복기가 최소 2~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질병에 걸린 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침울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인다. 또 침을 흘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다가 심한 경우 서 있을 수도 없게 되고 폐사한다. 2003년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후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 수입 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히 프라이온이 뇌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는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뼈와 내장을 포함하고 30개월 미만은 뇌와 척수 등 위험 부위를 포함하도록 한 수입 조건 협상에 대해 대중은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이르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소해면상뇌증의 기원과 그 원인체가 사람에게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일으키는 기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육골분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기립불능 및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에 대한 도축 금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2014년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기준 단계 중 가장 안전한 단계인 '광우병 위험 수준이 거의 없음negligible BSE risk'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인증받았다.

참고문헌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가축질병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BSE Inquiry(Committee of the BSE Inquiry, 2000), Understanding the BSE Threat(WHO·CDS·CSR·EPH, WHO, 2002), OIE(oie.int).

필자 천명선(千明宣)

솎아내기

정의 너무 배게 뿌려지거나 빽빽하게 심어진 식물체들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 햇빛과 양분, 수분 등의 생육환경을 양호하게 하고자 중간에 자라는 식물체를 뽑거나 잘라 제거하는 일.

개관 흩뿌림, 줄뿌림, 점뿌림 등으로 작물의 씨앗을 파종한 뒤 싹이 터 자라면서 작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배면 햇빛과 양분, 수분 등을 두고 서로 경합하여 웃자라거나 자람새가 나빠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불필요한 식물체를 뽑아 제거하는 농작업을 솎기 또는 솎아내기라고 한다. 너무 배게 자라 작물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드물게 자라는 편이 작물이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기에 좋다. 또 싹이 터 자라는 과정에서 병충해의 피해를 보거나 성장세가 좋지 않아 제거할 때도 솎아내기를 한다. 과수의 경우에는 나무의 모양과 세력, 토양환경, 재식 거리, 과수의 종류 등에 따라 꽃봉오리나 꽃 또는 결실된 열매를 제거하여 생산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솎아내기의 하나이다.

내용 잎채소의 경우 작물 사이의 간격이 보통 한 뼘이나 호밋자루 하나 정도의 간격(약 20㎝)이 되도록 솎아내고 열매채소는 30~40㎝ 정도, 곡식류는 대개 20~30㎝ 정도가 되도록 솎아낸다. 봄에는 자람새가 왕성한 것을 우선하여 솎아내고 가을에는 반대로 잘 자라지 않은 싹을 위주로 솎아낸다. 이는 봄에는 여름이 다가와 자람새가 점차 왕성해지고 가을에는 겨울이 다가와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같은 작물을 심더라도 계절에 따라 솎아내는 방법을 달리한다.

과수의 경우 주로 봄에 꽃봉오리나 꽃 또는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상품성 있는 과실이 맺히도록 관리한다. 여러해살이인 과수는 한해살이인 여타 작물과 달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나무의 건강과 세력을 유지하는 일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과수인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의 꽃봉오리 솎아내기[摘蕾]와 꽃 솎아내기[摘花], 열매 솎아내기[摘果]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는 겨울철 가지치기를 할 때부터 4월 초순까지 꽃봉오리 솎아내기를 실시하고 꽃이 피고 만개할 때까지는 꽃 솎아내기가 이루어진다. 이 작업을 통해 3~5년생 가지에 붙은 끝꽃눈[頂花芽]과 상품성이 우수한 것을 중심으로 남기게 된다. 사과는 보통 한 부위에서 5~6개의 꽃이 피고 이들이 모두 수정되면 그 숫자만큼 과실이 달린다. 하지만 상품성을 위해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제거해야 한다. 5월부터 2~3회에 걸쳐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 이후 좋은 과실이 생산되도록 주로 과실이 크고 열매꼭지가 굵고 길며 열매꼭지와 과실이 연결되는 부분이 넓고 평평한 모양을 남기면서 솎아낸다. 사과의 개화기인 봄에는 냉해와 강풍 등 기상이 불안정해 사과의 과실에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과는 꽃봉오리나 꽃을 솎아내는 작업보다 보통 열매를 솎아내는 일을 주로 한다.

배는 5월이 되면 상품성 있는 좋은 모양의 과실을



과수 솎아내기 | 농촌진흥청



복숭아꽃 솎아내기 | 세종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생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매 솎아내기를 실시한다. 이 작업은 과실이 영글게 하기 위하여 보통 2~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한 부위에서 3~5개의 꽃이 수정되어 과실이 달리는데 이 가운데 열매자루가 굵고 길며 과실의 모양이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솎아낸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상처를 입고 오염이 된 과실 또는 열매자루 부분에 잎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과실을 제거하게 된다.

포도는 보통 4월부터 지난해 먼저 자란 열매가지에서 눈 솎아내기를 행한다. 이는 불필요한 양분 경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수관樹冠의 밀도를 조절하는 작업이다. 눈을 솎아내는 작업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새 가지의 위치와 숫자, 포도송이의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하여 2~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후 5월에는 꽃송이 솎아내기를 한다. 캠벨 품종은 세력이 약한 새 가지에는 꽃송이 1개를, 세력이 강한 것에는 꽃송이 2개를 남기고 솎아내 버린다. 거봉 품종은 새 가지 하나당 꽃송이 1개를, 세력이 약한 가지는 모두 제거해 빈 가지로 유지한다. 꽃송이를 솎아낼 때는 이후 병충해 등으로 인한 결손을 고려해 목표로 하는 송이 수보다 20~30% 더 남기며 행한다. 6월에는 포도송이 솎아내기를 실시한다. 이 작업은 꽃떨이 현상(수정이 안 되거나 씨눈이 퇴화하는 등으로 인해 작은 포도알이 떨어지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꽃이 피고 10일 뒤부터 행하는데 3번과 6번 이삭가지를 잘라 솎아내고 큰 송이는 따로 알을 솎아주는 일을 병행한다. 이 작업은 개화 10일 후부터 약 열흘 동안만 가능하기에 반드시 제때 실시하여야 한다. 송이를 솎는 시기는 포도가 착색되는 초기까지이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는 3~4월에 꽃봉오리와 꽃을 솎아낸다. 이를 통해 새 가지의 생육을 촉진하고 봄에 새 잎이 충실히 생장하도록 하여 과실을 크게 키울 수 있다. 꽃봉오리 솎아내기는 꽃봉오리 끝이 붉은 기를 띠고 콩알만 할 때가 적기이다. 만개하기 1~2주 전에는 꽃봉오리가 쉽게 떨어져 작업능률도 훨씬 높다. 꽃가루가 많아 과실이 많이 맺히는 품종은 전체 꽃봉오리의 70~80%를, 그렇지 않은 품종은 50~60% 정도의 꽃봉오리를 솎아낸다. 복숭아의 경우 꽃봉오리를 솎아내는 일이 주된 작업이고 꽃을 솎아내는 일은 꽃봉오리 솎아내는 시기를 놓쳤을 때 하는 보조 작업일 뿐이다. 만약 이 두 작업 시기를 놓치면 만개하고 40~50일 뒤인 5~6월에 열매 솎아내기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나무에서 미리 과실을 선별한다고 생각하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변형된 과실, 병충해를 입은 과실 등을 꼼꼼하게 솎아낸다. 복숭아는 지난해에 저장한 양분과 올해 동화작용을 통해 생성한 양분으로 생장하고 성숙하기에 열매가 열리는 양에 따라 과일의 크기와 품질이 결정된다. 과실이 너무 많으면 양분과 수분의 공급이 줄어 크기와 당도가 떨어지고 익음 때가 늦어지며 과실이 너무 적으면 양분과 수분의 공급량이 늘어 크기와 당도는 높아지나 생리적 낙과나 열과 등의 피해가 많아지고 나무의 수령이 줄어든다.

특징 및 의의 밭작물을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솎아내기가 필수적인 작업의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모종을 이용해 아주심기를 하기 때문에 솎아내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수의 경우 꽃봉오리와 꽃,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을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다가 최근에는 노동력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석회유황합제, 티오황산암모늄, 카바릴수화제 등의 화학약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봄철 꿀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배(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농촌진흥청, 2019), 복숭아(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농촌진흥청, 2019), 사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청, 2019), 유기농 텃밭(전국귀농운동본부, 들녘, 2009), 텃밭백과(박원만, 들녘, 2008), 포도(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농촌진흥청, 2019).

필자 김석기(金石基)

쇠스랑

정의 논밭을 갈고 써는 데 사용하는 연장.

개관 쇠스랑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괭이보다 단단한 땅

을 일구기에 적합하게 발달된 형태의 연장으로서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발이 두세 개인 갈이 목적의 연장이었지만 점차 발의 개수가 많고 길이가 짧은 쇠스랑이 나오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의 철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나무쇠스랑은 발이 세 개로 참나무 널판을 깎아서 만들었다. 연장의 머리 부분에는 자루를 끼우는 장방형의 괴통이 있는데 괴통이 앞뒤가 경사져서 자루와의 결합각이 60~70° 정도가 된다. 그리고 나무쇠스랑의 가운데 날은 직선으로 곧고 좌우의 날은 대칭으로 부챗살 모양으로 뻗어 있으며 날 끝은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는 모양이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발이 두 개만 있는 나무쇠스랑도 출토되었는데 발의 끝부분이 몸체에서 곧게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창동보다 앞선 초기 철기시대 유적인 무안 양장리에서도 모두 세 점의 나무쇠스랑이 출토되었다. 이들 역시 참나무로 만든 것은 확인되었으나 연장의 형체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고 신창동 것과 달리 괴통이 없어서 쇠스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쇠스랑 | 전체길이10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쇠스랑질 | 논갈이 중 부분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철제쇠스랑은 발이 3개인 것이 일반적이다. 출토 지역도 서울 구의동과 아차산성, 하남 이성산성, 양주 대모산성, 김해와 울산의 고분, 경주 안압지와 월성 해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당시 농경에 보편적으로 이용된 연장으로 확인된다. 특히 산성에서 쇠스랑이 출토된 것은 쇠스랑이 무기로도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 당시의 쇠스랑 모양과 구조가 지금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초기의 철제쇠스랑은 발의 머리가 괴통으로 모인 삼각형이었으나 점차 머리와 발이 너른 사각형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해동농서海東農書』에 나오는 세 발 쇠스랑의 모습도 지금의 것과 동일하며 당시에도 네 발, 여섯 발 쇠스랑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용 논밭을 갈고 써는 데 사용하는 쇠스랑은 괭이와 같은 구조이지만 손가락 굵기의 끝이 뾰족한 송곳 모양의 발이 2~5개 있다. 따라서 괭이보다 날이 땅에 잘 박히기 때문에 땅을 일구거나 흙덩이를 부수고 썰기에 적당하다. 땅을 찍은 다음 자루를 들어 당기거나 젖혀서 흙덩어리를 일구고 부순다.

쇠스랑은 쓰는 목적이나 토질에 따라 발의 크기와 개수가 다른데, 발이 긴 것이 갈이용이고 짧은 것은 썰거나 삶는 데 쓴다. 흙이 단단한 곳에서는 두 발이나 세 발 쇠스랑을 괭이처럼 쓰고 부드러운 곳에서는 발이 더 많은 쇠스랑을 갈퀴처럼 사용한다. 그리고 쟁기로 간 흙덩이(쟁깃밥)를 잘게 부수고 고르는 데에도 적합하고 골을 타고 고르거나 파종한 후에 복토하는 데에도 썼다. 소로 할 수 없는 수렁논을 삶는 데에는 쇠스랑만한 연장이 없었다. 그리고 외양간을 치우거나 두엄을 다루는 데에는 보통 네 발이나 다섯 발 쇠스랑을 쓴다. 쇠스랑으로 한 사람이 하루 1,000여 평의 밭을 고를 수 있었으며 밭갈이는 200여 평을 할 수 있었다.

지방에 따라 소시랑, 소스랑, 쇠시랑, 소스랑이, 쇠서랑 등 비슷한 이름으로 불린다. 옛날에도 쇼시랑(『훈몽자회訓蒙字會』『사성통해四聲通解』『역어유해譯語類解』), 소시랑(『해동농서』『과농소초課農小抄』『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이라고 하였다. 한자음으로는 小時郎(『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手愁音(『농사직설農事直說』)이라고 쓰

고 한자로는 鐵齒擺(『농사직설』), 鐵齒鈀(『증보산림경제』), 鐵杷子(『역어유해』), 鐵搭(『과농소초』『해동농서』『임원경제지』), 杷(『사성통해』)라고 적었다.

특징 및 의의 쇠스랑은 최근까지도 농가마다 비치하는 필수 농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쇠스랑은 쓰임새가 다양하고 누구나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땅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며 땅을 고르고 단단한 흙을 파내며 뿌리작물을 수확하고 두엄을 내며 외양간을 치우는 등 다양한 일에 사용된다. 게다가 도둑을 막는 방범용으로는 물론 전쟁 때 무기로까지 활용되곤 하였다. 특히 동학혁명 당시 농민들이 쇠스랑이나 낫을 들고 봉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갈이나 삶이, 복토 등의 작업에 쇠스랑이 거의 쓰이지 않고 두엄을 다루는 데에는 '포크', 흙을 고르고 덮는 데에는 '레이크'라는 서양식 연장을 쓴다. 그러나 쇠스랑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장으로서의 효용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재래농기구의 류형과 그 분포(정시경, 문화유산3,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朝鮮ノ在來農具(加藤木保次 外,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24).

필자 박호석(朴虎錫)

쇠죽쇠스랑

정의 쇠죽을 끓여서 뒤집거나 퍼 담을 때 쓰는 도구.

개관 쇠스랑은 흙을 일굴 때나 거름을 펴낼 때 쓰이는 도구로, 쇠죽쇠스랑은 쇠죽을 끓일 때 쇠죽의 위아래에 온도 차가 있으므로 이를 섞어줄 때 혹은 쇠죽 건더기를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을 때 사용한다. 매우 뜨거운 솥 안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손이 데지 않게 자루가 긴 쇠스랑을 쓰는 것이다.

내용 쇠죽쇠스랑의 모양은 흙이나 두엄을 퍼내는 삼지창 모양의 쇠스랑과 별다를 바 없다. 어떤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쇠스랑을 사용하기도 하나 쇠스랑은 쇠붙이로 된 연장이므로 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농부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의 가지를 보아 두 가닥 혹은 세 가닥으로 퍼진 것을 골라 와서 이를 말리고 다듬어서 쇠죽쇠스랑으로 쓴다. 손잡이가 좀 길게 나와 있어야 여물을 뒤집거나 퍼 담을 때 유리하다. 나뭇가지의 날이 두 개이면 두 발 쇠스랑, 세 개이면 세 발 쇠스랑이라 부른다.

쇠죽을 끓일 때는 여물을 넣고 그냥 물을 부어 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둔 짚여물과 건초, 시래기 등을 넣고 곡식을 씻은 쌀뜨물을 부어 넣는다. 그리고 진한 먹이를 필요로 할 때는 콩·보리·쌀겨·보리등겨를 섞어서 푹 끓여 낸다. 쇠죽은 대개 1~2시간 정도 끓인다. 그래야 짚이나 콩깍지가 좀 물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쇠죽을 끓이는 사람은 가끔 나와서 불을 보기도 하고 솥뚜껑을 열어 쇠죽쇠스랑으로 이리저리



쇠죽쇠스랑 | 너비10 전체길이50 | 국립민속박물관



쇠죽쇠스랑 | 길이52 | 국립민속박물관



쇠죽갈고리 | 너비17 길이47 | 국립민속박물관

저어 주기도 한다. 손에 잡고 놀린다고 하여 이를 '손쇠스랑'이라고도 한다. 갑자기 솥뚜껑을 열면 김이 확 번져 오르므로 뜨거운 김에 얼굴을 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쇠스랑은 아니지만, 쇠죽을 끓일 때 저어 주는 도구가 또 있다. 'ㄱ'자형 나무로 된 것인데 이를 '쇠죽갈고리'라고 한다. 쇠죽솥을 열고 이리저리 저어 주는 데 안성맞춤이다. 쇠죽을 바가지에 퍼 담을 때 이 갈고리를 쓰면 무척 편리하다. 오히려 쇠스랑보다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뜨거운 쇠죽을 뒤집거나 퍼 담을 때에 나무로 된 쇠스랑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지혜이기도 하고 소를 사랑하는 농부의 정성이기도 하다. 쇠죽을 쇠로 된 쇠스랑으로 뒤집으면 쇠에서 나오는 독소가 소에게 해로울까 봐 나무 쇠스랑을 사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69), 농촌진흥청(facebook.com/rda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배도식(裵桃植)

쇠죽쑤기

정의 소여물을 끓이는 일.

내용 농촌에서 일소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논밭갈이를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소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소는 농가의 큰 노동력이지만 먹지 않고는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 소 주인은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쇠죽을 쑤어 구유에 담아 주었다.

동물은 먹는 대로 큰다. 먹지 않는 소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목적은 경제적인 도움과 노동력 확보이다. 경운기나 트랙터가 없던 시절 농경사회에 소가 없다면 과연 논밭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소 한 마리는 사람 10명 정도의 힘을 감당한다고 하니 농가에서는 사람의 식사보다 쇠죽을 먼저 끓여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생풀이 넉넉한 여름을 제외한 가을과 겨울 그리고 이듬해 봄까지 쇠죽가마에 쇠죽을 끓여 주었다. 쇠죽을 쑬 때 쇠죽가마에 넣는 재료는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볏짚을 작두로 썰어 등겨와 함께 끓이지만, 밭농사가 중심인 지역에서는 강냉이섶이나 콩깍지를 작두로 썰어 쇠죽가마에 넣고 푹 끓인다. 써레질을 하거나 밭을 갈 때처럼 힘든 일을 할 때는 콩싸라기나 등겨 등을 듬뿍 넣고 끓여 준다. 아울러 힘든 일을 하거나 새끼를 낳았을 때 쇠죽과는 별도로 두부초물인 순물을 만들어 소에게 주었다.

소는 푹 끓인 쇠죽을 좋아하여 뜨겁지 않으면 거침없이 먹는다. 그래서 쇠죽을 끓일 때는 쇠죽바가지로 누르고 휘저어서 골고루 잘 물러지게 쑤었으며, 부엌에서 나오는 허드렛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쇠죽에 이용하였다. 볏짚이나 강냉이섶은 물론 농가에서 생산된 부산물인 감자껍질·고구마넝쿨·메밀껍질·목화씨·콩깍지·팥깍지·조짚 등 곡초와 칡·칡잎 등으로도 쇠죽을 끓였다.

여름에는 산과 들로 다니며 꼴을 베어 먹이거나 소를 강변이나 산, 들에 데려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였다. 소가 선호하는 풀은 소 쌀밥이라 불리는 안달미로, 이 풀은 강원도에서도 높은 산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꼴을 벨 때는 소가 좋아하는 안달미·깔따리·새초 등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소는 특별히 가리지 않으므로 독초와 억센 풀이 아니면 잘 먹었다. 아울러 꼴은 여름에 많이 베어 말려서 건초를 만들어 곡초와 함께 섞어 쇠죽을 끓이기도 하였다.



쇠죽쑤기 | 충북 제천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쇠죽을 끓일 때 넣는 재료는 개인이나 지역,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쇠죽에 등겨를 넣어 주지만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등겨가 귀하므로 강냉이섶에 콩싸라기를 넣어 주었고, 보리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쇠죽가마에 보리등겨를 넉넉하게 넣어 끓여 주었다. 지금은 사료와 볏짚 그리고 물만 주고 있는데, 농가에 따라서는 1970년대에 '생식'이라 하여 구유에 강냉이섶이나 콩깍지 등을 잘라 생으로 넣고 그 위에 더운 물만 끼얹어 주었다. 이는 쇠죽을 끓여 먹이는 것보다 생여물을 주는 것이 영양적으로 낫다는 정부기관의 농사지도에 따른 결과이다. 이후 점차 개방형 축사로 발전하여 소를 여러 마리 키우게 됨으로써 더 이상 쇠죽을 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현지조사자료(이범주, 강원 횡성, 2020.6.8; 장동길, 강원 정선, 2020.5.25; 전덕재, 강원 홍천, 2020.6.5.).

필자 이영식(李英植)

쇠짚신

정의 소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기는 짚으로 만든 짚신.

개관 소도 생체生體이기 때문에 자갈밭이나 산길을 걸으면 발이 상하여 피가 나기도 한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신발을 신기지 않지만, 논밭에서 일할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발이 상할 수가 있으므로 쇠짚신을 신긴다. 특히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소 장수들이 쇠짚신을 많이 챙겼다. 이들은 소를 팔기 위하여 여러 마리를 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 장 저 장으로 다녀야 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50~100리 길은 예사로 다녔다. 그래서 이들은 미리 여러 켤레의 쇠짚신을 삼아 어깨에 둘러메고 소를 따라나선다. 그러다가 쇠짚신이 닳으면 이내 갈아 신긴다.



쇠짚신 | 너비11 길이17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소의 짚신도 사람의 짚신과 마찬가지로 짚으로 만든다. 사람의 짚신은 두 개의 새끼 걸개가 솟아 있는 짚신틀에 두 가닥의 새끼를 걸어 네 줄기의 신날을 앞으로 빼내어 이를 토대로 하여 짚을 엮어 나간다. 그러나 쇠짚신을 만들 때는 특별히 사용하는 신틀은 없다. 짚신을 삼는 이가 새끼줄을 발가락에 감거나 발뒤꿈치로 눌러서 신날을 팽팽하게 하여 짚을 적당히 끼워서 엮어낸다. 옛날에 쇠짚신을 만들었던 사람은 대개 농가의 머슴들이었다. 그리고 소를 팔러 다니는 소몰이꾼들이 짚신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신겼다.

쇠짚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대개 두 날이나 세 날 혹은 네 날을 축으로 짚신을 엮는다. 먼저 두 날 짚신은 두 가닥의 새끼줄을 축으로 삼고 짚을 적당히 사용하여 날을 중심으로 '∞'자 형식으로 엮어낸다. 적당한 길이가 되면 앞뒤 쪽을 마무리하여 바닥을 둥그스름한 모양이 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쪽의 신날 두 개를 한데 합쳐 짚을 돌돌 감아 한 가닥으로 만든다. 그래야 소의 발톱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뒤축의 두 날은 길게 늘여 소의 발목 뒤에서 'X'자로 감아 묶는다.

조금 큰 짚신을 만들 때는 짚신의 밑바닥 날을 3~4개로 하여 엮어 만드는데 발이 큰 소에게 신긴다. 신발을 만들 때 앞쪽은 두툼하게 하고 뒤쪽은 편편하게 만든다. 소가 걸을 때 앞쪽에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신발 앞쪽이 빨리 닳기 때문이라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 농가에서는 소를 부려 농사를 지었지만, 소를 보호할 줄도 알았다. 가축에게 신발을 신긴 것

은 소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소에 얽힌 민속(배도식, 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1995), 짚공예(인병선, 월간 전통문화-1월, 1986), 짚문화(인병선, 대원사, 1989),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필자 배도식(裵桃植)

수눌음

정의 척박한 제주 풍토에서 '수눌어간다.'라고 표현하는 상부상조 풍습.

내용 제주도에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문화의 틀은 매우 넓다. 향회, 연자매집단, 번쇠, 케왓, 용수집단, 화단접, 증답贈答, 멸치접 등은 모두 특유의 공동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눌음은 권리·의무 관계로 맺어지는 것과 권리·의무 관계가 없는 증답의 관습으로 나뉜다. 이들 상부상조하는 풍습 중에서 밭농사에 그대로 직결되는 검질매기(김매기), 말방애접, 용수, 번쇠 등이 중요하였다.

1. 검질 수눌음: 제주도에서 가장 힘든 노동은 역시 김매기로, '검질맨다'라고 한다. 여름에 강우량이 많은 까닭에 풀이 웃자라는 제주도에서 농경은 가히 잡초와의 싸움이다. 검질매기는 고된 노동이었고 '수눌어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주도 일노래에 김매는 노래가 가장 많은 까닭은 그만큼 밭매기가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나 접의 형태로 수눌음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눌음으로 운영되던 제주도 바령밭 | 1950년대 | 홍정표

2. 말방애접: 연자매는 ᄆᆞᆯ방이, ᄆᆞᆯ방에, ᄆᆞᆯᄀᆞ레 등으로 불린다. 연자맷간은 마을의 중심거리에 세웠으며 ᄆᆞᆯ방이집, ᄆᆞᆯ방에집, ᄆᆞᆯᄀᆞ레집 등으로 불렀다. 1개 마을에 여러 개가 있었으니 공동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마을 주민은 공동으로 마련한 연자매를 다툼이 없이 사용하고 해마다 연자맷간을 보수하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연자매 운영에서 연자맷간 지붕을 이는 날이 중요하였으니 이날 연자매계契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중수리'라고 연자맷돌의 나무를 교체하는 일을 계원들이 윤번제로 맞이하였고 이를 좌목座目에 기록해 두었다. 연자매계는 ᄆᆞᆯᄀᆞ렛제, ᄆᆞᆯ방엣제 혹은 ᄆᆞᆯ가렛접接, ᄆᆞᆯ방엣접이라 불렀다. 연자매뿐만 아니라 계원 상호 간의 부조 기능도 지녔다.

3. 번쇠: 번쇠도 일종의 수눌음이다. 봄 또는 조 파종이 끝난 여름에는 우마 사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마를 목야에 방목하게 된다. 이 우마를 이웃끼리 한데 모아 소관 목야지에 방목하는데 그 임자들이 순번제로 이를 감시하는 것을 번쇠番牛라 한다. 우마 방목기에 이르러 이웃의 누군가가 이를 발의하면 무난히 이웃끼리 번저 합의가 되고 순번이 정해져서 시행한다. 공동관리로 이웃집 소들을 전부 알게 되고 자신의 소처럼 아끼고 키우게 된다. 공동관리하는 번에는 야간에 우마를 가두고 관리하는 밭이 있게 마련이다. 이 밭을 '바량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중고사가 이루어진다.

4. 용수접: 제주도는 지표가 화산토로 덮여 있는 까닭에 비가 내려도 모두 지하로 빠져 밑으로 흐르다가 해안에 이르러서야 용출한다. 그래서 마을마다 용수가 어려운 문제이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못이나 구릉 등을 파서 봉천수奉天水를 저장하였다가 쓰고, 해안 마을에서는 통물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이웃끼리 공동으로 용수를 관리하였으니 제주도의 마을은 용수를 관리하는 몇 개의 공동집단으로도 나뉜다.

5. 케왓접: 케왓이란 '계契밭'이라는 말이고 접은 '계'를 말한다.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 소유의 밭이 있는데 이를 케왓이라 한다. 주로 해발 300m 이상의 들판

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윤작을 해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케왓은 새왓(띠밭)이기 때문에 계원들이 일정한 날짜에 공동노동으로 새(띠)를 베어 묶어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새 베기를 몇 해 되풀이하여 토질이 곡식을 갈기에 알맞을 정도로 회복되면 팥이나 메밀 등을 갈아 수확하지만 3년이 넘어가면 토질이 메말라 버린다. 다시 의논하여 경작을 중지하고 새를 자라게 하여 베어 들인다. 이 역시 공동노동·공동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징 및 의의 수눌음은 제주도 특유의 풍토에서 만들어졌다. 제주 풍토는 매우 거칠다. 제한된 곳에만 논이 있을 뿐 사람들은 밭농사 위주로 살았는데 화산 토양인지라 농사의 어려움이 늘 뒤따랐다. 따라서 제주도 수눌음은 단순한 협업노동 이상의 정신적 의미도 지닌다. 수눌음은 생산공동체에서 행하는 관습이다.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에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돕는 관행이다. 수눌음이란 제주도식 품앗이를 말한다. 노력의 교환일 뿐만 아니라 정서의 끈이 강고하게 형성된다. 단순하게 노동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생활공동체의 다양한 기제로서 기능하였으며 현대에도 '수눌음 정신' 등의 명칭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삼무정신연구(현용준, 제주도, 1983).

필자 주강현(朱剛玄)

수레

정의 널로 짠 바닥에 바퀴를 달아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기구.

내용 소가 끄는 것은 소수레 또는 달구지, 말이 끄는 것은 말수레 또는 마차馬車라고 한다. 중부 이남의 농가에서는 땔감이나 간단한 농기를 얹어서 사람이 나르는 작은 수레인 동거童車도 썼다.

가장 오랜 유물이 평안북도 염주군 주의리의 기원전 7~6세기 고조선 초기 유적에서 나왔다. 수레바퀴에 바큇살 구멍이 네 개 뚫린 것으로 복원하면 지름 1.6m에 24개의 살을 갖춘 수레로 추정된다. 이 외에 옛 무덤의 벽화에도 소나 사람이 끄는 수레가 보인다. 이 밖에 기원전 1세기 무렵 대동강 유역의 널무덤[木棺墓]과 덧널무덤[木槨墓]에서도 수레 부품이 많이 나왔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 제3대 노례왕弩禮王(재위 24~57) 때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作車乘)."라고 적혀 있지만, 이는 여러 가지 수레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뜻일 것이다. 5~6세기 유적인 경주 대릉원 일원에서 바퀴는 물론이고 짐칸까지 갖춘 완형의 정교한 수레도 선보였다.

또 "신라에서 소가 수레를 끌고, 말은 사람이 탄다."라는 『양서梁書』의 기사는 달구지의 역사도 수레 못지않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도 "달구지[牛車]는 구조가 간단하여 걸기 쉽다. 두 개의 끌채에 바퀴[轅輪]를 달고 소에 멍에를 메운다. 그리고 수레에 물건을 실을 때마다 새끼줄[草繩]로 묶어야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세조실록世祖實錄』의 "충주 단월역丹月驛에서 경기 양재역良才驛까지는 수레가 다닐 만하니 선공감繕工監에서 각 역驛에 넉 대씩 만들어 주어서 잡물雜物을 나르게 하고, 길이 좋은 고을의 역에서도 수레를 쓰게 하라."라고 이른 기사(1460년 1월 23일)는 15세기 중반에도 널리 퍼지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에는 술위, 『소학언해小學諺解』에는 수뤼, 『왜어유해倭語類解』에는 술뤼로 올라 있으며 달구지(돌고지)는 『박통사언해』에, 동거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처음 나타난다.

외바퀴수레[獨輪車]는 이제현李齊賢(1287~1367)의 시 〈말 위에서[馬上]〉에 등장한다.

> 외바퀴수레에 세간 싣고(隻輪載家具) / 지아비와 지어미 밀고 당기며(夫婦相挽推) / 날마다 수리씩 걸어서(行行日數里) / 밥 빌러 남쪽 고을로 오네(就食南州來)

손수레[便車]는 『세조실록』에 처음 보인다. "임금이 서울의 각 관청과 길이 험하지 않은 지방에서 모두 손



거름통을 실은 우마차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소 달구지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퇴비를 실은 리어카 | 강원 원주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손수레 | 충남 부여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수레로 짐을 나르라고 일렀다."라고 적혀 있다(1463년 1월 28일).

이어 같은 해 3월 각 도에 두 대씩 보내면서 길이 나쁘지 않으면 본떠서 만들라고 일렀음에도 병조兵曹에서 없애자고 하자 다시 "반드시 너무 무거운 것을 실은 자와 말馬을 주어서 수레를 파괴한 자를 찾아 벌을 주고 또 일부러 부수거나 마음을 쓰지 않은 자도 살피라."라고 일렀다(1464년 2월 20일).

이에 대해 사신史臣은 "세 사람이 끄는 작은 손수레는 짐을 많이 싣지 못하고, 길이 좁고 험하여 자칫하면 부서지는 데다가 백성들도 끄는 법을 익히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실은 물건을 짊어지고 빈 수레를 따로 끌고 가는 자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짐을 짊어지고 빈 수레를 끌고 갔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수레바퀴는 흔히 둘 또는 넷을 달지만, 초헌軺軒이나 손수레처럼 하나짜리에서 여덟 개짜리까지 있으며 더 많은 것도 있다. 외바퀴 손수레는 양쪽의 손잡이로 평형을 유지하며, 초헌은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민다.

바퀴 종류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좁게 켠 둥근 통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축대를 끼워서 쓰다가 뒤로 오면서 축 주위에 살을 박고 이에 빗등을 둘러서 더 튼튼해지고 틀 자체의 무게도 덜게 되었다. 근래에는 빗등 보호를 위하여 텟쇠를 끼웠다. 또 자전거나 자동차처럼 땅에 닿는 면적을 줄이고 차체의 충격도 흡수하는 고무바퀴와 반영구적인 쇠바퀴도 나왔다.

한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평거平車와 발거發車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수레가 보인다. 평거는 일반 달구지보다 간단하며, '발거'는 발구를 가리키는 말로 평거보다 작고 바퀴는 통나무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년은 70세였으며, 이를 '수레를 걸어 두는[懸車] 나이'라고 일렀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고려 고종高宗 때의 평장사平章事 왕규王珪는 나이 70이 못 되었음에도 물러난 뒤 타고 다니던 수레를 걸어 두고 느긋하게 즐기며 지냈다."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사람을 나르는 승합마차가 일본에서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 3월이며, 1894년에는 일본 사람 하나야마花山帳長가 10대를 들여와 서울 시내와 서울에서 인천

사이를 운행하였다. 이것은 서울에서 6·25전쟁 무렵까지 남아 있었다.

우리네 수레는 마소에 메워서 물건을 나르는 달구지가 주종이며, 종류는 북한식과 남한식 두 종류가 있다. 우리의 것은 앞에 두 가닥의 챗대를 따로 붙이고 이를 멍에에 연결하여 끄는 방식으로 민족 항쟁기에는 네 바퀴짜리도 선보였다. 네 바퀴 수레는 앞바퀴가 뒤의 것보다 작고 무엇보다 좌우로도 움직인 덕분에 방향을 바꾸기가 쉬웠다. 이에 견주어 북한식은 틀과 한 몸을 이룬 챗대를 멍에에 연결하여 목뼈의 힘으로 끄는 방식이다. 따라서 틀 길이가 5~6m에 이르며 바퀴도 지름이 1.5m가 된다. 또 우리식은 바닥에 널을 촘촘하게 깔지만, 북한식은 4~5개의 석 장을 듬성듬성 걸 뿐이어서 잔 물건을 실을 때는 따로 자리 따위를 깔았다. 이러한 형태의 수레는 비탈길에서 수레가 아래로 떨어질 때 소가 다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달구지꾼들이 조합을 구성하였다. 구윤명具允明(1711~1797)의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서울에서 달구지꾼들이 달구지계[車契]를 묻어서 국역國役에 이바지하는데, 한성부에 딸린 것을 한거漢車라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를 달구지꾼계[車夫稧]라고도 불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도 "달구지계[車契]의 공인들이 호조의 운임運價이 턱없이 적다고 불평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인다(고종 2년 1월 12일).

특징 및 의의 수레는 신령스러운 기물이다.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시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初從空中下) / 동명은 다섯 용이 끄는 수레 타고(身乘五龍軌) / 따르는 사람 백여 명은(從者百餘人) / 고니 타고 화려한 깃털 옷 입었네(騎鵠紛縿襹)."라는 구절이 있다. 한편 조선의 건국을 노래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는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날으시어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라고 적혀 있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수레로 장육불상丈六佛像을 나를 때 100만 명이 밀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아 살폈더니, 돼지가 바퀴를 잡은 탓임을 알고 떼어 놓자 비로소 움직였으며, 이들 가운데 돼지고기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다."라는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 "꿈에 수레바퀴가 부러지면 부부가 헤어지고 수레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액운이 닥치며 병자가 수레를 마련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꿈에 수레를 타고 놀러 다니면 관록이 붙고 수레에 오르면 재물을 얻으며 수레와 말을 만나면 운수 대통한다고 믿는다."라는 기사가 있다. 『조선의 귀신』에도 "전라남도에서 돌림병이 돌 때 여러 명의 여자가 다른 마을의 달구지를 훔쳐 가지고 와서 마을 입구에 세우면 병귀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는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수레는 형벌을 나타낸다. 죄인의 머리와 사지를 다섯 대의 수레[牛車]에 묶어 다섯 갈래로 찢는 거열형車裂刑이 대표적이다. 『삼국사기』에 "874년(경문왕景文王 14) 5월, 모반한 이찬伊湌 근종近宗이 달아나자 잡아서 거열형車裂刑에 처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신라본기).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세조(1회), 명종(1회), 광해군(1회), 효종(2회), 숙종(3회), 경종(1회), 정조(1회), 고종(2회) 때도 수레로 형을 집행하였다. 특히 고종 때 이경하李景夏(1811~1891)가 천주교 선교사 베르뇌Berneux, S. F.(1814~1866)를 같은 방법으로 죽인 사건은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을 샀다. 오늘날의 '찢어 죽인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다.

우리 수레문화는 중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뒤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중·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실용성을 강조하였지만, 길이 험하여 쓸 수 없다는 관리들의 저항을 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조선기술발전사-원시·고대(최상준 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조선원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황기덕,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4),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朝鮮の鬼神(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3).

필자 김광언(金光彦)

수륜원
水輪院

정의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궁내부 내장원에 설치한 기구.

개관 1897년 10월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제국은 황실을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고종의 부국강병책에는 양전·지계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의 도시정비 사업, 일련의 식산흥업 정책, 황실 재정의 확충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적 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식산흥업 정책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이러한 식산흥업 정책을 황제 직속의 궁내부, 그중에서도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 중심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원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 정부 대신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궁내부 소속 내장사 산하에 관개灌漑와 개간 등의 업무를 보는 수륜과水輪課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후 대한제국은 황무지의 조사와 개간 업무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1902년 4월 수륜과를 수륜원으로 승격시켰다.

내용 수륜과 시절에는 황폐한 땅에 물방아[水輪]를 설치하고 둑을 쌓는 역할에 국한되었으나, 수륜원으로 승격되면서부터는 전국의 황폐한 땅을 조사하여 직접 개간한 황무지에 대해서는 내장사의 경영지로 삼았고 일반 인민의 황무지 개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등 황실의 재정을 늘리는 업무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수륜원 관제를 개편하여 수륜과水輪課와 제언과堤堰課 외에 공상과公桑課를 신설하여 잠업 업무까지 수륜원이 장악하였다. 사실상 농상공부가 관장해야 할 업무가 황실 산하의 수륜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수륜원의 개간 양잠 사업을 살펴보면, 1902년 8월에는 수륜원에서 13도의 관찰부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게 황무지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였고 진황지陳荒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라남북도에 검쇄관檢刷官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10월에는 검쇄관을 각 도에 파견하여 물레방아와 진황처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1903년 4월에는 검사위원을 각 도에 파견하여 수리시설에 과세하고 개간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평안북도에서는 과도한 과세로 농민들에 의해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륜원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조직도 점차 확대되었다. 처음 수륜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과장 1명, 기사 2명, 주사 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곧이어 기사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으며 주사는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해 3월 31일에는 다시 주사 인원이 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1일에는 기수 4명이 추가되었다. 그 이후에도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수륜원으로 승격하기 직전에는 기사 4명, 주사 8명, 기수 2명, 감독 2명(칙임관급)까지 늘어났다. 수륜원으로 승격한 뒤에는 여기에다 총재와 부총재 각 1명을 더 두었는데, 모두 칙임관으로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륜과, 제언과, 문서과, 공상과, 사계과査計課 등 6개 과와 칙임관인 총재 1명, 부총재 1명, 감독 2명, 기사 10명과 판임관인 주사 11명, 기수 12명 등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부서가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수륜원의 설치는 원래 농상공부에서 담당해야 할 황무지 조사 개간업무를 황실 직속의 내장원에서 직접 관장함으로써, 세수의 처분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고종의 강력한 식산흥업정책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결국 황제 직속기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악화되면서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에 폐지되었으며, 그 업무는 농상공부로 넘어가고 말았다.

참고문헌 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조재곤, 한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이영호, 역사와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1~9(송병기·박용옥·박한설, 국회도서관, 1970~1972), 水利ニ關スル舊慣(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月報, 1913.4.).

필자 우대형(禹大亨)

수리계
水利契

정의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洑·제언堤堰 등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결성한 수리水利 공동조직.

개관 농사의 근간을 이루는 수리시설의 기원은 농경의 시작과 함께한다.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에 따르면 이미 청동기시대 경작지 유구遺構에서 관개수로의 흔적이

보일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그러나 이른바 '천방川防'으로 불리는 대규모 보의 축조는 조선 후기 이앙법의 보급과 더불어 민간에 널리 확산된 산물이다. 이에 따라 1730년(영조 6) 당시 전국의 대소 제언 수는 3,378곳에 달하였고 1778년(정조 2) 국가에서는 일종의 저수지 대장인 제언절목堤堰節目을 작성하여 각 도에 나누어 주고 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다양한 수리조직이 향촌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3대 제언의 하나로 손꼽히는 당진 합덕제의 경우 1750년경 연제수리계蓮堤修理契가 발족되어 자율적으로 제방을 관리하고 물을 분배하는 수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내용 수리계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한다. 이른바 '보계'로 일컬어지는 수리조직은 촌락 단위의 소규모 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 인원은 최소 10명 미만에서 많게는 30~50명이 하나의 수리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수리계는 대규모의 방죽이나 저수지를 이용하는 여러 마을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 다수 포착된다. 예컨대 당진의 합덕제를 운영하던 연제수리계는 6개 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관개灌溉의 혜택을 입는다고 하여 육덕몽리六德蒙利로 불리었다. 물론 보계와 수리계는 그 개념이 혼효混淆되어 있어 단지 수리시설의 규모만을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보계나 몽리계란 명칭이 우세하였고 이후에는 수리계라는 명칭이 다소 더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598개의 수리조합이 설치되고 6,300곳 이상의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종래의 보계가 수리조합에 흡수되거나 수리계로 명칭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은 몽리면적 및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인 관리를 담당해 온 소규모 보계 형태의 수리조직은 계장격인 감관監官이나 도감都監을 두고 보를 운영하는 것이 관례이다. 감관은 보주洑主, 보감관洑監官으로도 불린다. 몽리구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통솔력이 있는 자를 추대하되 봇물의 관리와 분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감관은 보에 따라 임기를 정하기도 하지만 한번 추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을 유지하였다. 임무는 평소 보의 관리와 날이 가물 때 이른바 '차례물'의 분배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사철을 앞두고 보를 수축하거나 봇도랑을 정비하는 일정 역시 전적으로 감관의 소관 사항이었다. 이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큰 수리계의 경우 계장契長, 이사理事, 평의원平議員, 서기書記, 수감水監, 감고監考 등의 역원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의 중보수리계는 속칭 보주로 불리는 계장의 휘하에 이사, 감시監視, 보군洑軍, 평의원이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들 역원 중에서 감시는 물을 관리하고 수세水稅를 징수하는 자이고 보군은 보를 수축하고 수로를 정비할 때 수리를 전담하는 일꾼을 말한다. 과거 당진의 연제수리계 역시 수장인 계장을 비롯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이사, 각 마을의 대표인 평의원, 문서를 담당하는 서기, 수문을 관리하는 수감水監 등의 역원을 두고 수리시설을 운영하였다.

수리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마다 보를 수축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일이다. 이른바 '보막이'가 그것이다. 첫 보막이는 농사철이 도래하는 음력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동 작업을 실시한다. 보통 연중 3~4차례의 보막이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충청남도 금산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해장보맥이(해장보막이)' '낮보맥이(낮보막이)' '참보맥이(참보막이)'로 구분한다. '해장보맥이'는 아침을 먹기 전에 잠시 나와 보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일명 식전보 또는 해장보라고 한다. '낮보맥이'는 아침 식사 후 한나절 또는 진종일 보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참보맥이'는 갑자기 비가 내려 봇도랑이 막히거나 터져서 보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처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전체 구성원들에게 통보할 여유가 없으므로 이를 발견한 사람과 동원 가능한 몇몇 주민들이 보를 수리하게 된다. 보막이는 보에 딸린 모든 작인들의 의무적인 출역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참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되 작업 시간이 짧은 '해장보맥이'와 '참보맥이'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보막이와 더불어 수리계의 중요한 기능은 갈수기의 농업용수 분배이다. 그 관행은 지역을 불문하고 차

렛물로 관개하는 것이다. 이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밤낮으로 몽리구역의 논에 차례로 물을 대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감관은 수시로 들로 나아가 차렛물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살핀다. 물대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칫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렛물을 대는 방식은 평소와는 달리 수로의 끝에 위치한 논이나 고지대부터 먼저 대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다. 한발이 지속되면 고지대와 보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 먼저 마르기 때문이다. 또 물을 댈 때는 논의 면적과 입지조건에 따라 시간의 편차를 두어야 한다. 몽리면적이 넓거나 마른 논은 더 오랫동안 물을 대고 덜 마른 논은 시간을 짧게 조절함으로써 고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수리계는 논농사에 필수적인 보와 수로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수리공동체이다. 그 조직의 운영과 수자원의 관리는 철저하게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런 점에서 수리계는 한정된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분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지혜의 산물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였다.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1894년 합덕 농민항쟁이나 고부 농민봉기 모두 부당한 수세 징수가 발단이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규모 수리계와 수리조합의 운영 주체는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농업개발공사 등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뀐 끝에 한국농어촌공사 산하의 각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보계와 수리계는 흡수되거나 통폐합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課農小抄, 輿地圖書, 林園經濟志, 朝鮮王朝實錄, 16세기의 천방 관개의 발달-사림세력 대두의 경제적 배경 일단(이태진, 한우근박사 정년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당진 합덕제의 운영과 농경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강성복·박종익, 남도민속연구39, 남도민속학회, 2019), 보령 성동리 중보수리계 연구(황의호, 마을생활, 한국문화원연합회, 민속원, 2010), 진악산 기슭에 꽃피운 천년의 터전(이해준·강성복, 금산문화원,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성복(姜成福)

수문고사
水門告祀

정의 간척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방조제가 터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방조제 수문 등에 가서 올렸던 고사 형식의 의례.

내용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 일대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간척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크고 작은 간척농지가 산재해 있었다. 간척지로 조성된 땅은 주로 논으로 이용되었다. 간척논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방조제 축조와 작답作畓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였다. 수문은 바닷물을 차단하고 방조제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다. 작답 이후에도 간척농지는 지형적인 조건상 해일이나 침수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大潮期] 때 조수에 의해 방조제가 유실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척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정기적으로 수문을 관리하고 해마다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백중사리 전에 방조제를 보수하였다. 수문고사 역시 간척농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관리 관행 중 하나로, 수시로 해일이나 침수 피해를 겪어야 하는 농민들이 경지의 안전을 기원하며 지냈던 의례이다. 일반 농가에서 정월 보름이나 음력 10월에 집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은 전통적인 풍습이었으나 집 밖에 있는 경작지에서 올리는 고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간척지에 관한 민속 연구가 진척되면서 수문고사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수문고사는 정월 보름이나 음력 10월 상달에 집고사를 지내면서 같이 올렸는데 모든 집에서 집 고사를 지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문고사 역시 모든 간척농지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 밖에도 매년 방조제를 보수할 때나 마을에서 도당굿을 할 때 같이 지내는 곳도 있었다. 방조제 안에 한 집의 경작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고사를 지냈다. 보통은 하나의 방조제 안에 여러 집의 경작지

가 있었는데 경작자 중 여유가 있는 집이나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맡아서 고사를 지냈다. 수문고사 절차는 간단하여서 시루 하나와 북어, 막걸리 등을 수문 주위나 상습적으로 둑이 터지는 곳에 갖다 놓고 절을 올리고 비손을 한 후 사방에 떡을 던지고 술을 뿌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집에서 지내는 고사는 대부분 부인이 주관하였으나 수문고사는 남편이 지냈다. 시루는 집에서 부인이 찌지만, 여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수문고사를 지낼 때는 따라나서는 일이 없었다. 동네 어린아이들이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고사를 지내는 곳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수문고사가 간척농지를 조성한 후 정기적으로 지내는 의례였다고 한다면 방조제 축조 마지막 단계에서 올리는 고사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성재리, 태백리, 금강리 일대에서 장부질노래와 함께 전해 오는 절강고사가 있다. 절강截江은 끝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단계로 조선시대 문헌에는 절수截水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절강은 방조제 축조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조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다 쌓아 가던 둑이 터져 버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이 마을들은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장부질노래는 마을 사람들이 가래로 둑을 쌓아 올리면서 불렀던 노동요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절강 전에 둑이 터지지 않도록 절강 터에 소나 돼지를 매장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절강고사라 불렀다.

방조제 축조 과정의 어려움은 간척지 일대에서 내려오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전설의 배경이 되었다. 이 전설은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줄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축조 과정에서 수차례 무너졌던 둑이 그 자리를 지나가던 스님이 빠져서 매장된 후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1919~1932년 동안 수차례의 실패 후에 완공을 본 전북 김제 동진농장 방조제 공사 당시에도 여인을 빠뜨리고 제를 지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 일대 사람들은 이 소문의 기원을 벽골제 전설과 연결시켰다. 벽골제가 있는 김제 지역에는 벽골제 축조 당시 젊은 처녀를 물에 빠뜨린 후 제를 지내서 벽골제 부근에 사는 용의 노여움을 풀고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역사례 수문고사 사례는 경기도 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문고사는 집 고사를 지낼 때와 같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과 오류동에 있던 방죽머리 방죽의 경작자들은 매년 음력 3월에 정기적으로 방죽을 개축할 때마다 수문고사를 지냈다. 인천 서구 원창동 개말과 환자곶에서는 음력 10월에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와 도당굿을 지냈는데 굿을 하는 과정에서 무당들이 방조제 수문에 가서 축원을 하였다.

수문고사에 올리는 시루는 집에서 고사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팥시루가 일반적이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손개마을의 경우 수문고사를 지낼 때 특별히 찹쌀 서 되 서 홉에 팥을 넣어서 한 층으로 두껍게 팥켜떡을 만들었다. 이는 일종의 모방주술로서, 원뚝이 찹쌀처럼 질겨서 터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찹쌀로 두껍게 한 층의 팥켜떡을 만들어 올렸던 것이다. 손개마을과 이웃해 있는 상신리 벌말에서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팥이 귀신을 부른다고 보아 흰쌀만으로 시루를 쪄서 올렸다. 비손의 내용 역시 지역마다 달라서, 인천 서구 경서동 고잔마을에서는 "이 방죽이 무쇠방죽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비손을 하였는가 하면 상신리 벌말에서는 "물 아래 김서방, 물 위 김서방, 일 년 열두 달 원뚝을 튼튼히 해 주소서."라고 비손을 하였다. '원뚝'은 언둑[堰-]에서 변형된 말로, 방조제를 가리킨다.

특징 및 의의 수문고사는 간척농지에서 행하여진 독특한 민속으로, 해일이나 침수 피해에 취약한 간척농지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수문고사를 지낸 제의장소가 꼭 수문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수문고사라고 칭한 것은 수문이 바닷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배수와 방조의 역할을 하였던 수문의 설치와 관리는 간척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 번의 해일로 농사를 짓던 땅이 갯벌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던 간척농지의 생태적 환경은 인간 기술력의 한계치를 드러내는 장이었다. 간척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고사 형식의 의례를 통해 자연재해의 위력에 무력한 인간 기

술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갯들(임영춘, 현암사, 1981), 벽골제의 기능(김주성, 백제문화, 2018), 조선후기 간척의 전개와 개간의 정치(양선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영암문화원(yaculture.org).

필자 안승택(安勝澤)

수박

정의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

개관 수박*Citrullus lanatus*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에 근거를 두고 롤프가 주장한 이집트 설과 1828년 세린지가 주장한 남아프리카·인도·아시아 설이 있다. 그 후 초기 중앙아프리카 탐험가였던 영국의 리빙스턴이 1857년 남아프리카 중앙부의 칼라하리 사막과 그 주변 사바나 지대에 넓게 분포한 야생형 수박을 발견하여 발표함으로써 현재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라는 설이 유력하다.

재배와 관련된 기록은 원산지와 가까운 이집트의 기원전 2500년경 벽화에서 확인된 바 있다. 중국에는 10세기 초 이집트에서 종자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11~12세기 초부터 재배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홍다구洪茶丘가 처음으로 개성에 도입하여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1502)에 있다. 또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는 흑피계 수박의 형태가 정확히 그려져 있고 홍만선의『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수박의 순지르기와 꽃 솎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 수박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초충도 | 전 신사임당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내용 수박은 호온성 식물로 낮 동안의 일사량이 충분할 경우 광합성이 촉진되는 적당한 온도는 25~30℃, 야간 광합성 산물의 이동에 알맞은 온도는 16~20℃이다. 10℃ 전후의 저온이 되면 생장점에 장해를 받아 순멎이 현상이 나타난다. 반촉성재배의 경우 12월 하순에서 1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여 본엽이 3~5매가 발생하였을 때 포장에 정식한다. 1,000m^2에 500~600주 내외로 정식하며 이랑을 따라 덩굴을 유인할 경우에는 이랑의 중앙에, 이랑과 직각이 되게 유인할 경우에는 안쪽 가장자리에서 30~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심는다. 과거에는 어미덩굴과 1~2개의 아들덩굴을 동시에 재배하였으나 최근에는 어미덩굴 4~6마디에서 적심한 후 2~3개의 아들덩굴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어미덩굴의 경우 15~20마디, 아들덩굴은 10~15마디에 착과시키며 개화 2일 전에 꿀벌을 방사하여 자연교배시킨다. 수확까지는 평균 기온이 28℃ 전후일 때 교배일로부터 35~45일 정도가 소요된다.

수박은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통해 생산되며 이 중 노지재배는 착과기 장마로 인해 재배관리가 어렵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1980년에 수박 재배면적의 약 94%였던 것이 2000년에는 31%, 2018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수박 생산량의 80%는 시설 내에서 촉성과 반촉성재배를 통해 생산되며 주요 출하기는 3~6월이다.

1990년대 수박 주산단지의 형성으로 연 2~3회의 연작에 의한 토양병해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하여 접목재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토양전염성 병해인 덩굴쪼김병 등의 발생을 줄이고 저온 신장성이



수박밭 | 강원 철원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나 내습성 등 환경 적응성을 높일 수 있었다. 대목으로는 호박(신토좌)이 주로 이용된다. 박은 노지재배에 주로 이용되는데 열매 달림과 과일 품질이 우수하다. 호박은 저온기 시설재배에 많이 이용되며 저온과 다습에 강하고 비료 흡수력이 좋은 반면 과일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제철 과일인 수박은 소비간편성과 건강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씨 적은 수박과 씨 없는 수박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수박의 대표적 기능 성분인 라이코펜의 함량이 높은 품종도 개발되고 있다. 또 망고수박, 애플수박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수박 수요에 맞춘 새로운 품종이 육성됨으로써 과거 '삼복꿀' 수박이 이끈 단타원형 수박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수박(농촌진흥청, 2018), 씨없는 수박 고품질 재배기술 플러스(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16), 채소 품종육종 과거 현재 미래(한국육종학회, 2020).

필자 이옥진(李沃珍)

수수

정의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 재배식물.

내용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재배형 수수*Sorghum bicolor Moench*는 아프리카의 적도 부근이 원산지이다. 수수는 키가 1~3m 정도로 크고 줄기의 내부에는 흰색의 속이 차 있는데 당질이 높은 수수를 단수수라고 한다. 수수는 촉서蜀黍, 고량高粱이라고도 한다. 표면에 흰 가루와 같은 납질이 많고 상처를 입은 곳에는 적갈색 색소가 생성된다. 잎은 길이 1m, 폭 5cm 정도이고 잎혀는 흑갈색의 환상막편이며 잎귀는 없다. 이삭은 10개의 마디가 있고 각 마디에서 5~6개의 이삭가지가 윤생하며 여기에서 2~3차의 이삭가지가 갈라져서 작은 이삭이 달린다. 이삭의 모양은 밀수형, 산수형, 중간형, 편수형과 이삭이 꼬부라진 압경형 등이 있다.

수수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작물이어서 오곡 중의 하나로 꼽혔고 품종도 일찍부터 분화되었다. 재배수수는 곡식용, 단수수와 같은 당용, 사료로 쓰는 청예용, 빗자루를 매는 장목수수로 크게 나뉜다. 고농서인 『행포지杏浦志』(1825)에는 뭉애수수[無應愛蜀黍], 쌀수수[米蜀黍], 맹간수수[盲蜀黍], 용의꼬리수수[龍尾蜀黍], 몽둥이수수[木椎蜀黍], 흰수수[白蜀黍], 마미수수[馬尾蜀黍] 등 7가지 품종과 청량青粱, 황량黃粱, 백량白粱이라는 고량高粱 품종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98종이 기록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재배되어 오던 주요 재래종에는 꼬마단수수, 꼬부랑수수, 너리수수, 느르뱅이수수, 단장수수, 몽당수수, 단수수, 당목수수, 비수수, 비목수수, 장목수수, 찰수수, 그루수수, 까치수수, 흰수수, 무안수수, 서산재래 등이 있다. 작물시험장에서 최근 육종한 품종으로는 황금찰수수, 대풍수수, 알찬, 남풍찰, 동안메, 소담찰 등이 있다. 수수는 열대원산으로 햇볕이 많은 고온 지역에 알맞고 산성보다는 알칼리



수수 | 농촌진흥청

토양에 강하며 내염성도 강하다. 수수의 파종 적기는 5월 상순이며 재식 거리는 60㎝×15㎝, 파종량은 10a당 2~3㎏, 시비량은 10a당 질소·인산·칼륨 8:7:7이다. 콩밭에 간작할 경우에는 5월 중순에 모를 길러 1.2m의 콩밭 이랑에 1.8m 간격으로 정식한다.

차수수로는 수수팥떡이나 밥을 지어 먹고, 메수수로는 사료나 술의 원료 혹은 엿을 만들어 먹는다. 중국의 둥베이지방에서는 고량주의 원료로 쓰며 한국에서는 문배주의 원료가 수수와 조이다. 종실은 민약으로 복통이나 기침 등에 쓰고 뿌리는 말려서 기침이나 천식, 지혈 등에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아기 돌날에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해 먹는 관습이 있었는데 수수팥떡은 붉은 팥고물을 묻힌 차수수 경단으로, 빨간색이 액厄을 물리친다는 토속적인 믿음에서 비롯한 풍습이다. 풋베기 사료로도 좋지만, 수수의 생잎에는 청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시에 다량을 먹이면 중독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볕에 말리면 시안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독성이 없어진다.

특징 및 의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수의 재배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하여 들어왔다. 함경북도 회령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수수가 발견되었고, 경기도 여주시 흔암리 선사시대 주거지에서 탄화미와 함께 수수 껍질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오곡밥에 수수를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수는 수끼 또는 수꾸(강원·경북·함북), 수시(강원·경남), 쉬수(평안·황해), 쭈시(전남), 쉬쉬(평안) 등으로도 불리었다. 수수는 C4형 광합성 식물로 고온에 잘 적응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주로 콩밭이나 들깨밭 등에 간작 또는 혼작으로 심었다. 1950~1960년대에 전국적으로 1만~2만ha에서 연간 6,000t에 달하는 수수를 생산하였다. 2006년까지만 해도 2,197ha에서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된다.



수수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식용작물의 기원과 발달(이홍석 박사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서원, 1998),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93), 전작(지영린 외, 향문사, 197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필자 안완식(安完植)

수원 축만제

水原 祝萬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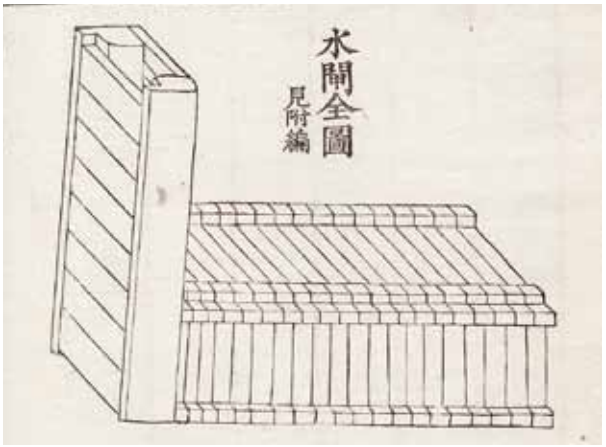
정의 조선시대에 화성 주변에 수갑水閘을 설치하여 만든 저수지.

내용 축만제祝萬提는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번지 일원에 있으며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이며 화성 서쪽에 있어 서호라고도 부른다. 축만제는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에 축조된 저수지로, 1799년(정조 23) 수원성을 쌓을 때 화성 성역 사업으로 내탕금(조선시대에 내탕고에 넣어 두고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 3만 냥을 들여 만들었다. 당시 수원성의 동서남북에 사호四湖를 만들었다. 북지北池는 수원성 북문 북쪽에 있는 일명 만석거萬石渠로 1795년(정조 19)에 완성하였다. 또한 남지南池는 만년제萬年堤라 하여 1797년(정조 21)에 화산 남쪽의 사도세자思悼世子 묘역 근처에 만들었다. 그리고 동지東池는 수원시 지동에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축만제의 규모는 제방 길이 1,246척尺, 높이 8척, 두께 7.5척, 수심 7척이고 두 개의 수문을 설치하였다. 축만제는 만석거나 만년제보다 몽리면적(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받는 곳)이 세 배



수원 축만제 | 경기 수원 | 문화재청



수갑 도설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이상 되는 큰 저수지였다. 『비변사등록』의 제언절목堤堰節目에 따라 심은 듯한 고목들이 아직도 제방 위에서 자라고 있다. 축만제 아래에는 축만제둔祝萬堤屯이라는 둔전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서 생기는 수입은 수원성의 축성고築城庫에 납입하였다고 한다.

축만제에는 물의 흐름을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문인 수갑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축만제의 수갑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수갑도설水閘圖說에 있는 상세한 그림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축만제 수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격판隔板과 이를 지지하는 틀로 이루어진 수갑竪閘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 난간 모양의 네모난 틀이 연속으로 이어져 통로를 이루는 와갑臥閘이다. 또 터널식의 매장형 입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수에 의해 제방이 입는 피해가 거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축만제에 사용한 수갑은 기존의 수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수갑을 설치하는 방법도 『화성성역의궤』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무를 깎아 마치 우물 난간의 틀과 같이하여 가로 세로로 어긋나게 쌓아 네모난 구멍이 관개수로와 관통하게 하였다. 안쪽에는 갑문을 설치하고 가로로 14층의 격판을 놓았는데, 높이가 5척 5촌이다. 보통 때는 관문을 닫고 흙으로 막아 놓아서 안에서 보면 수로가 있는지 모른다. 관개 시 널판을 열고 물을 내보낼 때 그 많고 적음을 적당히 한다." 이 내용은 만석거에 관한 기록이지만, 축만제의 수문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에 발달한 구조의 수문을 설치한 저수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특히 화성과 행궁을 비롯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군사·경제·풍수 등의 기능이 겹쳐진 저수지의 양상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堤堰節目, 華城城役儀軌, 華城志, 농업 기반의 조성과 운영(염정섭, 수원시사17, 수원시사편찬위원회·수원시, 2014),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0), 수원지명총람(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정조 대 수원화성 수리시설의 특징과 수리사적 의의(김재호, 역사민속학51, 민속원, 2016).

필자 김도헌(金度憲)

수확
收穫

정의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개관 한 해의 농사는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收穫으로 갈무리한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동작서성東作西成'이란 고사가 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동작이라 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서성이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수확은 재배한 농작물의 베기·캐기·뽑기·따기에서부터 탈곡·건조·보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연암 박지원은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 "농가의 추수기에 하는 일은 밭에서 마당으로 거두어들이고 묶고 털고 발로 비비며 도리깨로 털고 방아에 찧고 키로 까부르는 일이다.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모두 부지런히



고구마 수확 | 대전 | 2018 | 강성복



양파 수확 | 경남 창녕 | 2000년대 | 황헌만

해도 바쁘고 일이 많기가 추수보다 더 한때가 없다."라고 하여 수확의 어려움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내용 수확은 재배한 농작물의 열매와 씨앗, 꽃, 줄기, 잎, 뿌리 등을 얻는 일이다. 가령 벼·보리·콩·조·수수 등과 같은 곡식은 씨앗을 거두고, 고구마·감자·무·마늘·파·생강·약초 등은 땅속의 뿌리와 지상의 잎과 줄기를 모두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오이·토마토·참외·수박 등의 채소류와 밤·대추·사과·배·감·포도·복숭아·호두·은행과 같은 과일류는 열매를 따서 거두어들인다. 이 밖에 잎이나 새순을 수확하는 시금치·배추·부추·나물류와 드물게 꽃을 채취하는 꽃부추·유채꽃 등도 있다.

수확의 시기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확 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작물의 발육 정도, 재배 조건, 시장 및 기상 조건 등이다. 무엇보다 수확의 적기를 판정하는 요소는 수확량과 품질이다. 벼·보리·밀 등의 화곡류禾穀類는 이삭의 끝에서부터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여 이삭목이 노랗게 변화는 황숙기黃熟期에서 완숙기完熟期까지가 수확의 적기이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벼는 물이 있으면 더디 익으므로 벼가 익을 시기에는 물을 빼야 한다. 이른 벼는 알이 떨어지기 쉬우니 익으면 바로 베야 한다. 또 기장은 반쯤 익으면 바로 베고, 조는 충분히 누렇게 익은 뒤에 베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마르면 빨리 거두는 것이 유리하니 그렇지 않으면 알이 흩어질까 염려된다."라고 하여 수확은 작물별로 시기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벼 수확 시기는 품종과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예컨대 '청원생명쌀'을 브랜드로 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미호천 유역은 중부권 최대의 미곡산지이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조생종 고시히카리는 8월 상순에 이삭이 패고 이후 40~45일이 지난 9월 중순이 수확의 적기이다. 반면에 중만생종인 추청, 삼광, 대보, 진수미, 황금노들 등의 벼는 8월 19일 무렵에 출수出穗가 이루어지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확이 시작된다. 과학영농의 확산은 벼의 수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베기, 탈곡, 건조에 별도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콤바인 등의 보급으로 추수의 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확한 벼는 햇볕에 널어 말리는 수고로움 없이 건조기에 넣어 수분을 제거한다. 더욱이 각 지역에서 계약재배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벼는 탈곡 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도정공장으로 옮겨 건조와 보관, 도정이 이루어진다.

농작물의 수확이 반드시 완숙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과일은 완전히 익은 것이 가장 맛이 좋으나 곧 소비하지 않으면 썩기 쉽고 저장 및 운송·판매에 취약한 점이 있다. 따라서 수확 시기를 조금 앞당겨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콩은 콩꼬투리가 붉고 줄기가 푸르면 거두어 들어야 한다. 열매가 다 익으면 콩알이 뛰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콩은 타작하는 마당에서 여문다는 옛말이 있다. 참깨나 들깨 역시 같은 이유로 수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따르면 "피는 일찍 베고 기장은 늦게 베어야 한다. 모두 젖은 것을 탈곡하기 때문이다. 오래 쌓아 놓으면 뜨기 쉽고 이삭이 마른 것을 베면 이삭이 불어서 지저분해진다. 피는 탈곡한 즉시 쪄서 말

리고 기장은 햇볕에 널어서 말려야 한다. 피는 늦으면 알이 떨어지고 쪄서 말리지 않으면 찧어지지 않는다. 기장은 일찍 베면 알이 여물지 않고 젖은 것을 쪄서 말리면 덩어리가 된다. 또 메밀은 3단이 검은빛이 되고 위의 1단이 흰빛이 될 때 즉시 베어야 한다. 흰빛 열매가 점점 검어질 때 베어 거두면 적당하다. 만일 끝의 열매가 모두 검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반 이하 검어진 것이 모두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작물의 종류에 따라 수확의 적기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록 중국 고대의 농작물 수확에 대해 기록한 것이지만, 고려시대 농서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농사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날씨를 고려하여 다소 일찍 거두는 것이 유리한 작물도 있다. 오뉴월의 보리 베기가 그러하다. 보리가 익어가는 망종芒種 무렵이 되면 푸른 것을 반쯤 수확하고 나머지 절반은 누르스름하게 익은 뒤에 거두는 것이 좋다. 만일 완전히 익기를 기다리다가 모진 바람이 불거나 사나운 비를 맞으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게 된다. 자칫 때를 놓쳐 장마철이 닥치면 재해災害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리 수확은 이모작인 벼농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특히 논에 심은 보리 수확이 늦어지면 모내기의 적기를 지나쳐 벼의 성장과 결실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다. 그래서 '보리 수확은 마치 불을 끄듯이 하라.'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가 하면 줄기와 잎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농작물은 수확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빠르면 수분 함량이 많고 맛이 나쁘며 수송 또한 어렵다. 반면에 고구마·감자·양파·마늘과 같이 땅속뿌리를 캐는 작물은 양분이 지하조직으로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이는 약용작물도 마찬가지여서 약용성분 함유량이 가장 응축된 시기에 수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수확은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월령月令에 "중추仲秋(8월)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농민의 거두는 일을 힘쓰게 하고 계추季秋(9월)에는 농사의 수확할 일에 대비하게 하며 맹동孟冬(10월)에는 돌아다니며 수확해서 쌓아 둔 것과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살피게 한다. 또 중동仲冬(11월)에 이르러서 농민이 거두어 깊이 간직하고 쌓아 놓지 않은 자라도 책망하지 않고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은 모두 농민의 수확하는 일을 독려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함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농사에 있어서 그 완성을 의미하는 수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동일한 품종 내에서도 수확기가 빨라지는 추세를 보인다. 더욱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촉성재배促成栽培와 여름철 고랭지를 이용한 억제재배抑制栽培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훼작물을 비롯한 딸기·참외·수박·토마토 등의 채소류는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작물의 수확에는 다양한 의례가 수반되었다. 널리 알려진 천신薦新, 유두고사, 칠석고사, 올벼심리, 갈떡, 상달 고사 등이 그것이다. 이는 처음 수확한 곡식 등으로 밥, 떡, 국수, 만두를 빚어 조상이나 성주, 터주 등 집안에 좌정한 신령에게 바치는 의례이다. 예를 들



수확 | 충남 서산 | 2019 | 강성복



수확 | 전남 구례 | 1990년대 | 황헌만

어 올벼심리는 일찍 수확한 햇벼나 햅쌀을 가장 먼저 사당이나 가신家神에게 바치는 의례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올개심리, 올베심리, 햇벼천신, 신곡맞이, 신미고사新米告祀라고 한다. 갈떡은 가을걷이를 마친 시월 상달에 햅쌀로 준비한 시루떡을 성주, 터주, 조상, 조왕, 광, 뒤주, 대문, 변소 등에 조금씩 떼어 올린 다음 이웃과 나누어 먹는 세시풍속이다. 풍농을 이룰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돌보아 준 가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수확은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과 출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일이다. 옛말에 '심는 것은 가稼요, 거두는 것은 색穡이니 한 해 농사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는 것을 힘쓰고 자주 매어 주며 수확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수확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신속히 거두라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선인들은 "파종은 농사의 근본이고 수확은 농사의 끝이니, 근본은 가볍고 끝은 소중하다. 심으면 익게 하고 수확은 조속히 하는 것이 양농良農의 임무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모든 농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수확은 농사의 대미를 매듭짓는 일로 그 의의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풍농에 감사하고 이듬해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의례가 작물의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課農小抄, 農事直說, 氾勝之書, 林園經濟志, 齊民要術, 두피디아(doopedia.c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강성복(姜成福)

순무

정의 배춧과의 한해 또는 두해살이 작물로, 달면서도 겨자 향이 있으며 배추 뿌리와 비슷하나 매운맛이 없어 시원한 감을 더해 주는 채소.

개관 순무turnip의 기원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을 원산으로 하는 일원설一元說,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기원으로 하는 이원설二元說, 지중해 연안과 유럽 북쪽 및 시베리아 지역을 주장하는 다원설多元說이 있다. 순무는 기원전부터 유럽에서 재배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도입되어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도에서는 1,000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무는 옛 농서에 만청자蔓菁子, 무청蕪菁 또는 청菁으로 기록되어 전해 온다. 고려시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1236~1251)에 종자가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중엽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시문집詩文集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가포육영家圃六詠에는 외, 가지, 순무, 파, 아욱, 박 등 여섯 가지 채소가 등장한다. 이 중 순무에 관해서는 "담근 장아찌는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는 겨우내 반찬 되네. 뿌리는 땅속에서 자꾸만 커져서리 맞은 것 칼로 잘라 먹으니 배 같은 맛이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순무 뿌리는 목부 비대형이며 모양은 원형·편구형·원추형·원통형·쇠뿔형 등 유전적 특성에 따라 품종마다 다르다. 원시적인 모양은 길고 가로로 줄무늬가 있으며 육질이 여물다. 한편 진화된 것은 편구형으로 땅 위로 솟아 나오는데 육질이 연하고 즙이 많다. 뿌리의 색깔은 흰 것이 많지만 자홍색, 홍색, 녹색, 황색인 것도 있다. 국내의 재래종 품종은 백색, 자색, 적색 계통이 있는데 현재에는 주로 자색이 재배된다. 예전에는 봄·가을 재배가 일반적이었으나 연중 소비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내한성·내서성 품종을 이용하여 주년 재배를 한다. 시기별로 추파재배는 10~11월에, 춘파재배는 5~6월에, 하파재배는 2~3월에 수확한다.

신스카야Sinskaja, E.는 순무의 품종을 분류하였다. 유럽형은 ①서유럽의 야생형에 가까운 텔토군Teltow ②서유럽에서 러시아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 절엽의 서유럽군 ③유모전변엽有毛全變葉의 유럽군으로, 아시아형은 ①잎에 모용이 없이 입성인 원시 절엽과 전변엽의 아프가니스탄군 ②유럽형과 아시아형의 중간형인 전변무모全變無毛의 일본형군 ③모용이 많고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고 있는 유럽형에 가까운 소아시아 및 팔레스타인군 ④러시아군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부터

시베리아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 황색뿌리 돌연변이로 추정되는 페트로프스키형군으로 분류하였다.

순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내한성이 강하여 영하 2℃에서도 동해를 받지 않는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적온은 낮 기온 18℃, 밤 기온 13℃, 지온 18~23℃이며 뿌리 비대적온은 기온 13~24℃, 지온 24~29℃이다. 뿌리 비대에 가장 좋은 용수량은 65~80%이며 심한 다습이나 건조 조건에서는 산소와 수분 부족으로 생육이 억제된다. 토성에 민감하지 않으나 배수가 양호한 양토 계통이 적합하며 재배 가능한 토양산도는 *pH* 5.5~7.5이나 비교적 산성토양에 강하다. 저온감응성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럽계 품종은 일반적으로 저온감응성이 둔하고 꽃눈분화가 더디므로 조기 추대가 문제가 되는 봄 재배에서 이용하면 유리하다.

순무의 영양성분 함량은 가식부 100g 기준 수분 90.9%, 칼슘 40㎎, 단백질 1.1g, 비타민 2.8㎎, 탄수화물 7.1g, 열량 35㎉이다. 잎에는 무기질과 비타민류, 칼슘 함량이 많고 뿌리에는 트립토판tryptophane과 라이신lysine이 많다. 빨간순무에는 비타민C가 55㎎이나 함유되어 있어 생식하면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 된다. 한국에서 순무는 생식, 김치, 장아찌 및 각종 요리에 이용되고 있다. 한방에서 순무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기氣를 늘려 준다고 하였다. 순무의 씨는 볶아 기름을 짜서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빛이 영롱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순무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순무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①항암 효능으로, 순무의 잎 100g당 39~166㎎이나 들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특히 폐암에 효과가 있다. ②피부 질환 효능으로, 순무를 찧어서 외용으로 사용하면 급성 유선염과 종창, 피부 상처 또는 타박상을 치료한다. ③소화기계 질환 효능으로, 배가 차가워지고 통증이 있거나 식체가 있을 때 이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④결핵 및 호흡기 질환 효능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고 폐결핵을 예방한다. ⑤항균 효능으로, 황색 유액인 래핀rapine은 세균·진균과 기생충의 번식을 억제한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봄에는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 가을에는 줄기를 먹는 순무는 황달을 치료하고 오장에 이로우며 씨를 말려서 오래 먹으면 장생할 수 있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순무는 다양하게 이용된 것 같다. 근년까지도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강화와 경기도 김포·이천, 경상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東醫寶鑑, 詩經, 日本書記, 鄕藥救急方, 유기농기술서33-순무·비트 유기종자 생산 매뉴얼(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세종대학교, 2020).

필자 박한용(朴漢容)

스마트팜

정의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설비를 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농업 방식.

개관 스마트팜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환경을 원격 혹은 자동으로 관찰, 제어, 관리하는 작업이 가능한 농업 방식이다. 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에 관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노동력, 에너지, 양분, 물 등을 적게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하게 되어 농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와 농업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는 스마트팜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농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유통의 효율화, 경영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내용 스마트팜의 핵심적인 기술인 복합환경제어는 다양한 센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환경정보와 생육정보를 기반으로 온실의 천창과 측창, 환풍기, 유동팬, 차광·보온 스크린, 조명, 양액기, 탄산가스 생성기, 냉난방기 등을 제어하여 시설 내의 온도, 습도, 광, 양액, CO_2 농도 등 환경 요소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어 기술은 생산효율, 인력소모, 이익창출과 직결되는데 조절 가능 여부, 조절 기능의 범위와 함께 목표한 설정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은 농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자연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연중 작물 재배가 가능하므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확량을 예측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농업환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도 스마트팜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기온 상승은 작물들의 재배 적지를 북상시키고, 덥고 습한 환경으로의 변화는 병해충을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배시기를 변경하거나 생산성이 좋은 새로운 작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스마트팜이 제공해 주는 정보를 활용하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도 스마트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실이나 축사, 과수원에 설치된 다양한 스마트팜 센서가 제공해 주는 정보를 활용하면 병해충을 억제하는 환경으로 바꾸거나 신속하게 병해충 정보를 파악하여 적기에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기후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생산환경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농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은 농가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전업농에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도와주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비료·농약 등의 투입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추세에 따라 재배와 출하 시점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외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고령농업인에게는 자가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컴퓨터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감축을 통해 농업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편리성을 증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도시의 확장과 휴경의 증가로 인한 농경지 감소,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의 증가, 작물과 가축의 병충해 증가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농업인들은 스마트팜이 농업의 경쟁력과 농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부하 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농촌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팜(최영찬·장익훈, 한국통신학회지 36-3, 정보와 통신, 2019), 사물인터넷에 의한 농업경영혁신(김주태·한종수, 디지털융복합연구15-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스마트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ICT 기반 스마트농업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성경일 외, 미래창조과학부, 2015).

필자 정명철(鄭明哲)

시금치

정의 명아줏과의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로 자웅이주雌雄異株이며 잎과 뿌리를 이용하는 식물.

내용 시금치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에 중국을 통해 들여와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 시금치 관련 기록이 있다. 시금치 품종이 갖추어야 할 대략적인 조건을 보면 ①뿌리가 적색일 것 ②잎이 길고 넓을 것 ③엽수가 많고 잎이 두터울 것 ④엽색이 선명한 녹색일 것 ⑤입성立性일 것 ⑥추대가 늦을 것 등이다. 시금치는 내한성耐寒性이 강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반면 더위에 약하다. 발아 및 생육 적온이 15~20℃로 서늘한 기후를 더 좋아한다. 20℃ 이상이면 생육이 나빠지며 25℃를 넘게 되면 생육이 극히 불량해진다. 저온에 강하여 겨울 동안 영하에서도 월동한다. 또한 시금치는 저온발아성 식물로 발아 적온은 15~20℃이지만, 약 10℃ 정도에서도 지장 없으며 4℃에서도 발아가 가능하다.

시금치는 대표적 장일식물로서 햇빛이 길어짐에 따라 꽃대가 빨리 생긴다. 낮 길이 12시간을 기준으로 본엽 2~3매 때에 이르러 온도가 높고 낮 길이가 길어지면 쉽게 추대가 된다. 토양에 대한 적응성은 넓은 편으로 사질토나 점질토에서도 적당한 토양수분이 유지되면 잘 자란다. 유의할 점은 토양이 산성이 되면 생육이 극히 약해진다는 것이다. 토양의 산성도는 *pH* 7~8 정도가 알맞으며 *pH* 5.5 이하로 떨어지면 잎끝이 누렇게 변하면서 생장이 정지되고 결국은 말라 죽는다.

시금치는 종자 구조상 과피가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 이때 통기성이 떨어져 종자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발아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수분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발아율을 높여 준다. 파종 전에 종자를 침수하는 경우 침수 시간이 길수록 발아가 나빠지게 된다. 시금치의 뿌리는 지상부의 발육이 외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도 지하부의 뿌리는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래서 토양 조건이 좋으면 파종 후 70일 이내에 최대 종으로 120㎝, 횡으로 90㎝나 뿌리가 발달한다. 생육에 적합한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한 충적 토양이다.

시금치는 저온성 작물로서 영하 10℃ 이하의 저온에서도 잘 견딘다. 뿌리의 신장 최저온도는 0℃, 최적온도는 24℃, 최고온도는 34℃이며 뿌리털 발생의 최저온도는 4℃, 최고온도는 34℃이다. 시금치는 단기간에 왕성하게 생육하는 작물로서 봄·여름 재배에서는 파종 후 25~30일이면 수확기에 달한다. 본엽 2매기까지는 생육이 늦고 엽수가 증가하는 것도 완만하지만 그 이후는 지하부의 발육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한다. 잎은 거의 줄기에 호생하고 본엽 8~10매 경까지는 엽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수확기의 전개 엽수는 재배시기나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봄·여름 파종은 8~10매, 가을 파종은 15~20매 정도이다. 파종해서 수확까지의 기간은 재배 작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을에 파종한 경우에는 50~60일, 여름에 파종한 경우에는 30~35일, 봄에 파종한 경우에는 40일 정도 된다.

시금치의 엽형은 근생엽根生葉 초기의 2~3매는 계



수확기의 시금치 | 세종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시금치 수확 | 경남 남해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란형 또는 장난형으로 어느 품종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후는 품종 특유의 결각이 있는 엽으로 된다. 광합성 작용의 적온은 18~20℃이며 적온에서 멀어지면 광합성 능률과 생장 속도가 저하된다. 낮에 생성된 동화 산물은 야간에 이화작용을 하는 동시에 잎 자체에서 호흡한다. 따라서 야간 온도가 어느 정도 낮을수록 호흡에 의한 소모가 적어지고 그만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축적된다. 광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작용도 증가한다. 시금치의 광보상점은 20~24℃에서 1.5㏓이지만 광포화점은 20~25㏓ 정도로 비교적 약광에서도 동화작용이 원활하다. 시금치는 봄에서 초여름에 파종하면 화아 분화와 추대가 되어 상품성을 잃는다. 가을 파종에서도 파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아 분화는 되지만 저온 때문에 봄까지 추대가 되지 않는다. 시금치의 화아 분화는 장일 저온의 양적 요인에 의해서 유기되고, 분화 후는 장일 고온 조건에 의해 추대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시금치는 고위도 지방에서 발달한 호냉성 작물로 내한성은 강하지만 내서성이 약하고 고온 장일 조건에서 추대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육적기는 9~11월과 3~5월로 춘파와 추파가 작형 분화의 기본이 되고 있다. 도시 근교의 준고랭지와 산간지에서 여름철에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인근에서는 수송성이 유리하므로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차광시설과 수막시설을 갖추어 추대에 강한 품종을 이용하여 여름뿐만 아니라 연중 재배되고 있다.

시금치 종자는 씨껍질이 두꺼워 24시간 물에 담갔다가 뿌리는 것이 발아에 좋다. 온도 20℃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4% 용액에 3시간 동안 담그고 이것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뿌리면 싹틔움에 효과적이다. 관수는 노지재배의 경우 자연 강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뭄이 심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물을 줄 필요가 있다. 시설재배의 경우에는 시설 상부에 하향식 소형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상 50㎝ 부위에 분수 호스를 설치하여 관수를 하면 생산량 증대에 효과적이다. 또 여름철 시설재배 시에는 하우스 위에 50% 차광망을 덮어서 강한 햇볕을 막으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참고문헌 訓蒙字會, 농업기술길잡이140-엽채류(이상규 외, 농촌진흥청, 2017), 채소학 각론(이정명 외, 향문사, 2013).

필자 이희주(李禧珠)

시비법
施肥法

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주는 일 또는 그 방법.

역사 거름에는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있다. 무기질 비료는 인공적으로 제조된 근대 이후의 비료이며, 유기질 비료는 근대 이전 생태계의 자원을 부숙하여 농작물에 사용된 비료이다. 무기질 비료는 공장에서 화학 처리하여 제조한 것으로 농작물에 유익한 질소(N), 인산(P), 칼륨(K), 칼슘(Ca)과 마그네슘(Mg) 등의 성분을 토양과 작물에 직접 투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지만 유기질 거름의 경우 그 종류와 시비 시기가 무기질 비료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유기질 비료에는 대개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비료가 있다. 동물성 비료에는 인분뇨人糞尿와 가축 분뇨, 패각과 깃털 등이 있고, 식물성 비료에는 볏짚, 생풀, 해초, 깻묵 등이 있으며, 광물성 비료에는 석회와 목탄 등이 있다. 이들 비료를 무조건 토지에 시비한 것이 아니며, 오랜 경험에 따라 다양한 시비법이 전해진다.

선진先秦시대 이래 고대 거름은 그 명칭이 주로 '분전糞田' '분糞'으로 표기되며, 다양한 형태로 등장된다. 초기 이들 분의 의미는 '소제하다' '더럽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똥' '비전肥田'과 '비료'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인분을 받는 측간의 명칭[圂]이 상대商代의 갑골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원전부터 분전을 통해 농작물의 증산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산발적인 고대의 시비법이 처음으로 체계화된 것은 원대『왕정농서王禎農書』(1313)의「분양편糞壤篇」이라는 독립된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답분법踏糞法, 묘분苗糞, 초분草糞, 화분火糞과 니분泥糞 등과

같은 다양한 거름과 시비법이 출현한다. 이러한 거름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작물을 무성하게 하는 것이 마치 몸을 다스리는 약과 같다고 하여 분약糞藥이라고 칭하였다. 전통농업의 시비이론은 청대에 정점을 이루어 양신楊屾의 『지본제강知本提綱』(1747)에는 기후, 토양의 기맥氣脈과 작물의 물성을 연계하여 시의時宜, 토의土宜, 물의物宜라는 삼의三宜 이론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조선 초기 『농사직설農事直說』에도 이 같은 비료와 시비법이 등장하며,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분전糞田'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에도 이것들을 재료로 한 비료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분 역시 똥 또는 거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18세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764)에 다양한 거름 저장방식이 전해진다. 똥을 구덩이에 저장하는 '교분법窖糞法' 헛간[糞屋]을 만들어 저장하는 '증분법蒸糞法', 부엌에서 나온 각종 구정물과 부산물을 모으는 '양분법釀糞法', 말린 똥을 풀에 태워 만드는 '외분법煨糞法', 소뼈를 삶아 거름으로 사용하는 '자분법煮糞法' 등이 그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남이 버린 쓰레기나 목욕물, 짐승의 털가죽을 거름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똥을 황금처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비료는 무조건 토양에 시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토양과 작물의 특성 및 한전旱田과 수전水田 등 경작지에 따라 거름의 종류와 시비법을 달리하였으며, 명칭 역시 겨울 또는 봄의 계절에 따라서 한비寒肥와 춘비春肥로 표기하였다. 그런가 하면 시비법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파종 전에 시비하여 토양의 체질을 강화하고 뿌리가 깊어지는 밑거름[基肥]과 파종 이후 성장을 촉진하는 덧거름[追肥]이 있다. 이 중 밑거름은 태비胎肥라고 하여 더욱 중시하였다. 이외에도 종자를 직접 거름물에 담가 시비하는 종비법種肥法, 토지전면에 시비하는 전면시비, 필요한 공간에만 시비하는 집중시비와 근외추비根外追肥 등의 방식이 있다.

내용 15세기 『농사직설』에 등장하는 조선 초기 시비법은 한전과 수전시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때 거름의 재료는 주로 볏짚, 초목, 재와 인축분으로서, 주로 등장하는 비료는 초목재[草木灰], 초분草糞, 묘분苗糞, 똥재[糞灰], 외양간두엄[廐糞], 생초분生草糞과 인축분人畜糞 등이다. 이 중 초분은 잡초가 무성할 때 땅을 갈아엎어 이를 비료로 한 것이며, 생초분은 외양간을 거치지 않고 산야의 생초를 거름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한전에는 주로 초목재, 똥재처럼 재와 인축분을 배합한 비료가 주로 이용되었고, 수전에는 생초분과 부숙된 외양간두엄이 시비의 중심을 이루어 그 체계를 달리하였다.

17세기의 『농가집성農家集成』 단계에 이르면 외양간 거름의 생산이 증대되고 인축분과 초목재의 용도가 다양해진다. 경상도에서는 인분과 초목재를 섞은 똥재를 모판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짚이나 생초목을 외양간이나 생분生糞에 넣어 부숙하여 수전이나 맥전麥田의 비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농가월령農家月令』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들이 적으며, 토질은 척박하다. 만약 분전糞田하지 않으면 곧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여 시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잡령雜令」이란 항목에서는 측간의 대소변을 관리하고 빨래한 물까지도 거름으로 활용하며, 아궁이 속의 재를 아침, 저녁마다 수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초에 편찬된 『위빈명농기渭濱明農記』에도 가축분의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줌재[尿灰]를 이용하여 목면



어음 | 누숙경직도 | 전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木綿을 파종하고 인분에 생초를 섞어 말려 맥전에 시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산림경제』에서도 외양간 오줌과 재를 반죽하여 비료를 만들거나 버들가지나 떡갈나무의 가지를 외양간에 넣어 밟혀 조비造肥하여 한전에 시비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한 인축분의 활용과 외양간두엄이 초목재와 결합되면서 수전과 한전 비료의 구분 없이 널리 이용된 것은 당시 이앙법의 보급과 환금작물 재배의 확대 및 속효성速效性 비료의 요구와 유관했을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유구徐有榘는 『임원경제지』(1764)에 독립적인 「분양糞壤」편을 두고 그 안에 '분전통론糞田統論' '용분시후用糞時候' '분의수저糞宜收儲' '저분잡법儲糞雜法' '혼분溷糞' '작분옥법作糞屋法' '우궁답분법牛宮踏糞法' '묘분苗糞' '저분底糞' '곡피법穀皮糞' '초목분草木糞' '화분火糞' '니토분泥土糞' '잡분雜糞' '금수모우분禽獸毛羽糞'이라고 하여 거름의 종류, 조비, 저분법儲糞法, 시비법 및 그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에도 재거름인 화분火糞을 중시하였으며, 똥을 금처럼 아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었고, 생똥[大糞]은 반드시 부숙하여 비료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석회와 굴껍질재[蠣灰]를 잡분에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서도 측간에서 대소변을 모아 재와 섞어 햇볕에 쬐어 오줌재[尿灰]와 똥재[糞灰]를 만들어 맥전麥田과 도전稻田의 덧거름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벽토壁土, 아궁이 속 그을음[灰土], 사초莎草, 누에똥과 닭똥이 새롭게 등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해동농서海東農書』의 「농무農務·분전糞田」편에서는 위의 두 농서에서 보이는 비료와 시비법을 재차 소개하면서 토질에 따라 분약糞藥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18세기 후반에는 시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각종 비료와 그 시비법이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1796)에서도 볼 수 있는데, 수전 모판의 비료로 초분草糞, 오줌재[尿灰], 계구분鷄狗糞, 고초분藁草糞, 구벽토舊壁土, 황토黃土, 사초莎草, 구비廐肥, 진수임유재眞水荏油滓, 목면자木綿子, 저엽杼葉, 유지柳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깻묵[油滓]을 제외하고 이전부터 존재한 비료로서 수, 한전 시비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력소모가 많아지면서 작물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덧거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덧거름은 밑거름과는 달리 시비량이 적으면 생산량이 높지 못하고, 많으면 웃자라거나 넘어지는 폐단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한편 깻묵은 기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등장한 비료로서 기존의 비료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냄새가 없어 수송이나 취급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어 최초의 금비金肥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외양간두엄은 맥전의 밑거름보다 겨울에 맥행麥行을 따라 덧거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조비造肥 과정도 기존의 『제민요술齊民要術』이나 『왕정농서』와 같이 매일 아침에 짚을 3치[寸]두께로 깔아준 것과는 달리 4~5일마다 갈아 넣으며, 답분 능력도 말과 암소보다 황소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 사람의 밥은 남에게 줄 수 있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줄 수 없다."라고 소개하여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된 시비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비법은 19세기의 『농정회요農政會要』와 『죽교편람竹僑便覽』 등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안종수가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출판한 『농정신편農政新編』(1885)에는 일본농서를 초록하면서 「분저법糞苴法」편을 만들어 그 속에 동·식물 및 광물비료 각 12가지씩 도합 36개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특징적인 것은 동물성인 활물류活物類 비료인 어패육魚貝肉, 건어乾魚 및 활물유活物油, 초목류인 곡비穀肥, 수초비水藻肥와 매비媒肥, 토석류土石類 비료인 옥하개염초屋下芥焰硝, 토유황土硫黃, 홍비석紅砒石, 비광회砒鑛灰, 신석회新石灰, 결석법結石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정신편』은 구미농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했는데, 토양성분을 화학명으로 풀이하여 원소명을 한자나 영어식으로 표기하고 작물의 생장을 생리학적 인과관계로 풀이하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비료는 속효성 덧거름의 효과가 크고 광물비료의 경우 살충의 효과까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888년에 편찬된 『중맥설重麥說』에서는 멸치나 생선 등이 보리농사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분뇨와 가축이 배출하는 월별 거름의 양을 수치로 계산하고 공중 화장실의 건립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세기 초의 『실리농방신편實利農方新編』에는 식물이 가장 필요한 원

소는 질소, 인산이라고 하며, 용해되지 않는 비료는 효과가 없다고 하여 석회, 나무재와 같은 비료에 주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비료와 시비법의 발달은 토지의 지력을 항상 왕성하게 해주어 오랜 숙원이었던 휴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한반도 비료의 중심은 인축분과 재와 외양간두엄으로, 이들 비료는 한반도의 지역적인 습속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경牛耕을 하면서 소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으며, 농가의 각종 부산물은 아궁이로 들어가거나 마구간에 깔아 퇴비로 부숙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재와 퇴비위에 분뇨를 끼얹은 것은 미생물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이런 방식으로 역겨운 인분뇨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재생산을 위한 농업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처음에 재거름은 한전에, 다소 거친 비료는 수전비료로 이용하였지만, 조비기술이 발달하면서 한전 비료와 수전 비료의 구분은 사라진다. 특히 17세기 이후 인구 증가로 토지이용도가 증가하면서 지력소모가 많아지자 다양한 비료가 등장하였으며, 똥·오줌 역시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이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밑거름에 이어 덧거름이 중시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서양의 무기질비료가 점차 확산되고 농업생산 환경이 변화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유기질 비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참고문헌 農政新編, 王禎農書, 林園經濟志, 齊民要術, 千一錄,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 생태학(최덕경, 세창출판사, 2016), 조선시대의 시비기술 연구(민성기, 인문논총24,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1983), 金汁(杜新豪, 中国农业科学技术出版社, 2018).

필자 최덕경(崔德卿)

식량증산
食糧增産

정의 주식으로 먹는 쌀, 밀, 옥수수 등과 같은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는 일.

개관 인류는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식량은 넓은 의미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의 재료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쌀·밀·옥수수와 같이 인류가 주식으로 하는 곡물을 식량으로 지칭한다. 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주요 먹거리로 삼고 식생활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사는 한반도는 겨울이 춥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몬순기후 대에 속해 있어 이러한 농업 환경하에서 가장 적합하게 재배할 수 있는 식량작물이 쌀이었다. 쌀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데다 식품으로서 영양성과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고 가축의 사료나 연료, 건축 재료로 쓰이는 등 어느 하나 버리는 것 없이 철저히 활용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농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모든 국민이 배불리 먹을 만큼 식량 사정이 풍족한 시기가 거의 없었고 늘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식량자급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대 왕조는 주곡인 쌀의 증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근대까지도 쌀의 자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식량 증산이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 목표가 되어 오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쌀 재배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시대에 주식으로서 기반을 굳히고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수리 강화, 재배법 개량, 경지면적 확대 등을 통해 미곡증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시대로 오면



식량증산대회 | 1973 | 국가기록원



식량증산 협동생산 | 1981 | 국가기록원

서 농본정책을 제일의 국가정책으로 수립하여 미곡생산 제고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앙법移秧法 도입, 개답開畓, 수리시설水利施設 축조, 농기구 개량 등이 그러한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일제강점기에도 미곡증산 정책이 펼쳐졌지만, 이는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한반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책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강제적인 미곡 공출제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은 만주산 잡곡 배급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절대량이 부족하여 콩깻묵이나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광복 이후에도 정치적인 혼란과 6·25전쟁의 발발로 1950년대의 한국농업은 제대로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추수 직후에 쌀값이 폭락하다가 이듬해 단경기端境期가 되면 폭등하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었으며 쌀값 폭등이 이 당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식량 사정은 개선되지 않아 초근목피로 연명하거나 보릿고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국민이 허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식량자급은 여전히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그동안의 증산계획은 농업생산기반 열악, 투자재원 부족,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산업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의욕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식량증산 정책이 필요하였다.

식량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3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1962~1966)과 이를 수정한 식량증산 7개년 계획(1965~1971)이 수립되었다. 주요 시책으로 농지 확대를 위한 개간·간척 사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지정리 및 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 및 지도, 보급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동안 양곡생산은 오히려 3.5% 감소하였다. 양곡생산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한발 등 기상 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논 면적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식량증산에 두고 그중에서도 쌀 자급에 집중하였다. 주곡 자급이 국정 주요 과제가 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식량증산을 추진하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치밀한 증산 계획과 집행으로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와 배수 개선, 농지 보전과 확대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기계화 사업, 다수확 벼품종의 개발 및 보급, 농산물가격지지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초반 불어닥친 세계적인 식량 파동은 주곡만큼은 자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의 수량성이 당시 다른 품종보다 30% 이상 높아 정부는 통일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된 통일 품종 재배는 보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기도 하였으나 재배면적이 계속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74년에는 대망의 쌀 3,000만 석 시대를 열었고, 1977년에는 4,000만 석을 돌파하여 주곡 100% 자급을 달성하였다. 광복 후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외미外米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쌀 자급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통일벼의 도열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쌀 자급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외국쌀을 대량 수입해야만 하였다. 이에 정부는 통일형 품종을 중심으로 한 식량증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배 안전성이 높은 양질의 다수성 품종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1980년대 초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증산계획이 새롭게 정비되어 추진되고 통일벼를 개량한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됨으로써 쌀 자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1990년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바람과 WTO 체제 이행으로 불어닥친 쌀 시장 개방

화에 따른 쌀 재배면적의 감소, 농지 전용의 완화, 잦은 재해 등으로 식량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정부는 1996년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1년에 쌀 생산량이 551만 5,000t에 달하면서 자급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쌀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국민소득의 증가로 쌀 소비량은 매년 크게 줄어들면서 과잉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3년에 처음으로 쌀생산조정 제도를 실시하였고,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증산보다는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식량자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국제적인 식량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미래의 식량 사정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식량부족 문제를 벗어났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곡인 쌀을 비롯하여 식량만은 우리 손으로 생산해서 자급한다는 철저한 다짐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통일벼라는 다수확 신품종이 개발되었고 다비, 밀식, 이삭거름, 물관리, 조기재배, 병해충방제 등 우리나라의 벼농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단위면적당 쌀 수확량이 1970년 330㎏/10a에서 2000년 497㎏/10a로 크게 증가하여 벼농사에 관한 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힘든 벼농사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 1977년부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등을 지원 보급하기 시작하여 모내기와 수확 작업의 일관 기계화를 촉진하여 왔는데 그 결과 농작업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이후 500만t 내외를 유지하면서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쌀 증산은 통일벼라는 우수한 품종 개발과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긴밀히 결합하여 하나의 기술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얻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안보 차원과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주곡인 쌀만은 자급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도 식량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쌀 중심의 식량증산 정책은 밀, 옥수수, 콩 등 기타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악화시켜 총체적인 식량자급률을 떨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미래의 식량증산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토양침식,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지금과 같은 고투입 다수확 농법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등 모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농업 근현대사1-농업근대화의 여명(농촌진흥청, 2009), 한국농정 50년사1·2(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1999), 나라기록 포털(contents.archives.go.kr).

필자 권용대(權容大)

신간구황촬요
新刊救荒撮要

정의 1660년(현종 1) 서원현감西原縣監 신속申涑이 이택李澤의 『구황촬요救荒撮要』에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을 엮은 기근飢饉 구제를 내용으로 한 구황 전문서.

개관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는 1554년(명종 9)에 언해를 붙여 쓴 이택의 『구황촬요』(1554)에 신속(1600~1661)이 자신의 추선追選인 『구황보유방』(언해 첨부)과 효종 때 편찬된 『벽온신방辟瘟新方』을 합책하여 출간한 구황 전문서이다. 초판본인 일본 동양문고본은 1660년 충주에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규격은 18.4㎝×14.5㎝, 유괘有罫, 10행, 행당 17자로 기록되었다. 표제는 '구황촬요'라고 쓰여 있지만 서문 제목은 '신간구황촬요 서序'라고 쓰여 있으며 책의 말미에는 '구황보유방 종終'이라고 쓰여 있다. 합책할 때에 각각의 서문과 종문이 그대로 방치되고 새로운 표지를 붙였기 때문이며 이 책의 이칭이 『구황촬요』인 까닭일 것이다.

이 책의 서울대학교본도 24.2㎝×18㎝ 규격의 1책 목판본으로 반엽광곽半葉匡郭은 18.4㎝×14.5㎝의 규격

이며 유괘, 10행, 행당 17자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 책은 1929년에 정기환鄭箕桓이 간행한 석판본과 1940년에 박학종朴鶴種(『조선증보구황촬요朝鮮增補救荒撮要』의 편찬자)이 전북 고창에서 간행한 석판본이 있다.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연대와 편자를 밝히지 않은 『신간구황촬요』와 한글로 기록된 『구급신방救急新方』의 합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내용 이 책의 역사는 조선 세종이 명하여 지은 구황 전문서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佚本임)에서 출발한다. 이택의 『구황촬요』 서문이나 『신간구황촬요』에 송시열이 쓴 서문에 밝혀져 있듯이 "세종대왕께서는 『구황벽곡방』을 펴내신 바 있고 또 흉년에 대비할 물건들을 『경제대전經濟大典』에 수록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구제케 하셨다."라는 것이다.

『구황벽곡방』은 1554년에 이택을 통하여 발췌·요약·언해를 붙인 구황서인 『구황촬요』의 편찬으로 계승되었다. 현종 대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공주 목사로 있으면서 『농가집성農家集成』이라는 종합 농서를 편찬한 바 있는 서원현감 신속이 『구황촬요』에 중국 구황 관련 문헌과 민간 속방들 가운데 취사선택하고 언해를 더한 구황방들로 편찬한 『구황보유방』을 합책하여 『신간구황촬요』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농가집성』을 출간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저술 활동은 이후 수차에 걸친 우리나라 구황 전문서 출간을 거쳐 전북 고창 출신 의관醫官이었던 박학종朴鶴種에 의하여 『조선증보구황촬요』의 편찬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신속은 조선 인조·현종 때 문신으로서 자字는 호중浩中, 호號는 이지당二知堂이다. 지방의 관직 생활을 통한 경륜으로 공주목사公州牧使 시절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종합 농서인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편찬한 인물이다. 이택의 『구황촬요』에 빠져 있는 중요한 구황방을 찾아 모으기 위하여, 즉 『구황보유방』을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 서적이나 민간 속방에서 찾은 구황방은 『신간구황촬요』의 전체 목차인 63조 가운데 30조에 이른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21조, 속방에서 5조,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1조, 『범승지서氾勝之書』에서 1조, 『수세』에서 1조,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1조 등이었다. 이 책은 1660년에 편찬되었고 이를 1686년에 효종의 명을 통하여



신간구황촬요 | 국립중앙도서관

박치유가 목판본으로 판목하였다.

『신간구황촬요』의 내용은 1660년에 쓰인 송시열의 서문 2매, 권중卷中(『구황촬요』 편의 서두)에 1554년 11월 24일 당시 우부승지였던 이택차李澤次의 서문을 포함한 『구황촬요』 10매, 『구황보유방』 및 『벽온신방』 20매, 신속 자신의 발문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구황촬요』의 이택이 밝힌 서문 내용은 "세종이 이미 『구황벽곡방』을 펴냈으며 또한 『경제육전經濟六典』 안에 백성들이 흉년을 대비한 구황식료를 밝혀 수록하게 하였다. 호남·영남지방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는 구제관을 파견하였고 구황방 지식을 언문으로 적어 『구황촬요』라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었다. 『신간구황촬요』로 합본을 간행하며 송시열이 쓴 서문에는 "재난이 닥친 이때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할 수 있는가? 서원현감 신속은 세종대왕이 펴내신 『구황촬요』 한 편에다 보유방을 붙이고 언해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보유방은 촬요에 없는 것을 매우 자세하고 또한 매우 적절하게 수록하였다. …… 이 책이야말로 창고를 열어젖히고 저장한 곡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내주라 종용하는 일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일이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신속의 발문에는 "『구황촬요』는 세월 따라 사라지고 김육이 다시 간행하였으나 역시 보기조차 드물다. 이 고을 수령이 되어 보니 계속된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 가는 백성들을 볼 수 없어 이 책을 다시 펴낸다. 의방을 참고하고 냉이채식법이나 토란재배법 등 듣고 본 것을 보유하여 재해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본문 가운데 『구황촬요』를

합본한 내용으로는 굶어 죽어 가는 사람 구활법, 굶주려 부황난 기종인飢腫人 치료법, 솔잎이나 느릅나무 껍질 활용법, 솔잎가루 쓰지 않게 내는 법, 느릅나무 껍질 즙 내는 법, 송엽죽 끓이는 법(대용콩 포함), 느릅나무 껍질 떡 만들기, 미숫가루 제법, 붉나무 술 제조, 곡식가루 내는 법, 장(간장) 담는 법, 잡장 담그기 그리고 기타 구황물 소개 등이 실렸다.

신속이 집필한『구황보유방』의 내용으로는 잡물식법雜物食法으로 솔잎 조리·치료법과 메밀·칡·밤·토란·밀랍·살구씨·복령·검은콩 등의 조리법을 기술하였고 벽곡절식방辟穀絶食方으로는 검은콩, 삼씨, 무, 찹쌀 따위로 식량을 절약하는 요령과 추위를 견디는 요령, 적선소주 담그기, 구황식 조리법과 수많은 구황용 먹을거리들이 소개되었다.

특징 및 의의 『신간구황촬요』는 조선 초기부터 말기,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구황정신과 구황법, 벽곡방을 집대성하여 계승·발전시킨 주축의 역할을 하였다. 또 이와 같은 정신과 시책 집행을 현장 중심으로 펼치기 위하여 한글을 부기한 구황 전문서로 간행하고 보급·교육하였다. 아울러 생활 주변이나 가까운 산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발굴하여 조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정사나 식생활사에 큰 자료로 공여되었다.

참고문헌 구황방 고문헌집성(구자옥 외, 농촌진흥청, 2010),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신한공사
新韓公社

정의 미군정 산하의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하던 회사.

내용 1945년 9월 8일 미 제7사단이 인천에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하였을 때 한반도에 거주하던 70만 명 이상의 일본인 가운데 약 42만 명이 남한에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귀국하려고 하였다. 그 후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미군은 포고 1호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하여 주민의 소유권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이에 일본인은 군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동산은 물론 토지, 건물, 기업재산, 공장, 광산 등 일체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인 재산과 관련하여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12월 6일의 미군정령 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한 관한 건〉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 회사 개인을 포함하는 구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수입이 전부 미군정 귀속재산이 되었다. 즉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주소와 성명, 면적과 지가 등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구 일본인 등의 소유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이를 몰수하여 미군정의 관할하에 두었다.

이를 통상 귀속재산 또는 적산敵産이라 하며 1945년 일본이 패전하여 한반도에서 퇴각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한다. 즉 귀속재산은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패망 시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 조선에 대한 일제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다.

이 재산은 소유 주체 면에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으로 나뉘고, 물적 성격 면에서 기업체·부동산·동산으로 나뉜다. 세분하면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기업체, 주식, 광산, 주택, 점포, 창고, 선박, 동산 등이다. 일제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 농지는 광복 후 한국인 사원으로 구성된 동척東拓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1945년 11월 12일 군 정령에 의하여 신조선회사에


朝鮮日報 THE CHOSUN ILBO

不安一掃코新韓公司令

軍政廳이廢止되면

朝鮮政府에從屬!

불안일소된 신한공사령 | 1946. 3. 15 | 조선일보

서 신한공사The New Korea Company로 개칭되었고 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 회사를 관리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21일 군 정령 제52호에 의하여 신한공사가 창립되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한 회사가 되었다. 즉 신한공사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하는 회사였다.

신한공사는 남한지역 전체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소작농이 경작하는 농지가 남한지역 총 경지의 27.7%에 해당하였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한공사는 200여 개 농장사무소와 3,000여 명에 달하는 소작 관리인과 농감을 운용하였다. 당시 신한공사는 이 같은 자산과 조직으로 인해 식량문제, 토지개혁, 농업금융 등과 관련된 미군정의 농업·농촌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한공사는 농업은 물론 광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광범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행한 것은 일본인 등의 소유지 소작 경영이었다. 즉 신한공사는 논에서만 28만 정보 이상을 소유하였으며 이에 따른 55만 4,000호의 소작 농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회사가 되었다. 신한공사의 수입이 주로 소작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1947년 4월부터 1948년 3월까지의 수입 15억여 원 중에 소작료 수입이 13억 5,000만 원으로 90%였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요컨대 신한공사는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를 계승하여 한국 최대의 지주로서 존속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인 소유 농지는 개인과 법인 농지가 포함된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이 직면한 농업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소작료였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하여 소작료의 상한을 총 수확량의 3분의 1로 규제하는 한편 10월 11일에는 미곡 자유시장의 개설을 결정한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반노예 상황에 처해 있던 농민의 불만에 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착취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이라 할 신한공사의 운영에 한국인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1948년 3월 22일 남한과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하고 귀속농지를 분배하였다. 이때의 농지가격은 연간 총 생산고의 3배로 규정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고는 1940~1942년의 3년간 평균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매년 평균 생산고의 20%를 1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유상분배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의 농지개혁에서 정한 주산물 생산고의 150%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30%씩 5년간 납입하게 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 1951년 귀속농지 분배와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 등 상이한 두 상환 방법의 통일을 기하는 〈귀속농지특별설치법〉을 제정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귀속농지 매각사업은 한국 정부에 이관된다.

특징 및 의의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되나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퇴각한 조선총독부와 그 산하기관 등은 물론 일본인이 소유한 일체의 재산, 특히 주로 일본인 소유 농지를 관리하던 과도 기관이다.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세계의 토지제도와 농업(전운성, 한울아카데미, 2006),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신용하, 지식산업사, 1982).

필자 전운성(全雲聖)

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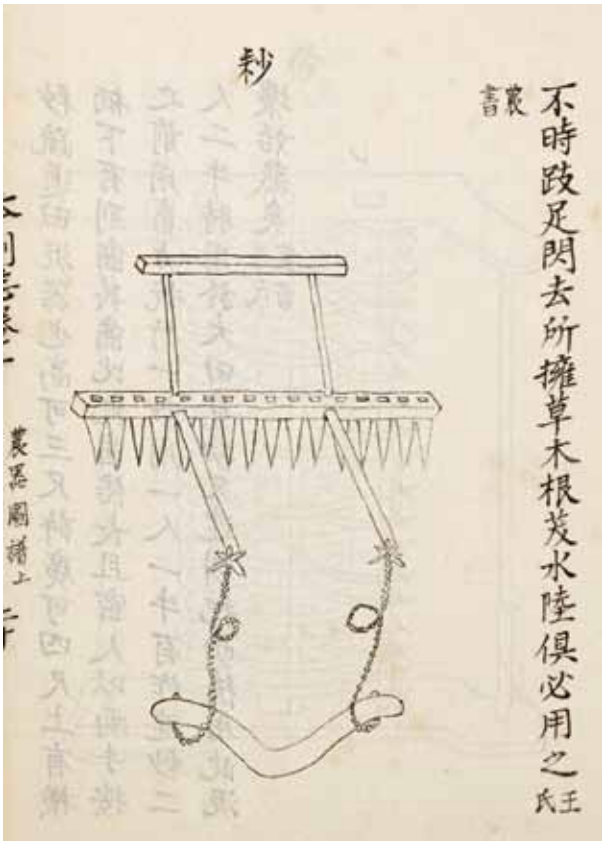
정의 모내기 직전에 논의 흙덩이를 부수고 판판하게 삶는 데 쓰이는 농기구.

내용 써레는 '쓰래'(경기도 덕적도), '쓰레'(경기 이천), '써리'(경남 영산), '써으리'(전남 영광), '써그레'(강원도계) 등으로 불리며,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는 목작木斫, 소흘라所訖羅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해동농서海東農書』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는 한자로 '파耙'라고 적고 있다.

써레는 긴 토막나무에 끝이 뾰족한 이 6~10개를 빗살처럼 나란히 박고, 위에는 손잡이를 가로로 댄 것이다. 써레의 구조는 손잡이(바탕이라고 부름), 써레



써레 | 너비119 길이64 높이83 | 국립민속박물관



써레 | 임원십육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발, 나루채, 찍게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잡이는 습기에 강한 버드나무나 소나무로, 써레발은 단단한 참나무 또는 박달나무로 만든다. 나루채는 써레 몸뚱이 앞면의 양쪽에서 앞으로 뻗어 나오게 박은 나무로, 나루채 길이가 긴 것을 '장써레'라고 달리 부른다.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옹이진 참나무 자연목 6~7개를 밑으로 하여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옹이가 없으면 따로 발을 만들어 끼워 소가 끌게 하는데 이것을 '공이써레'라고 한다.

짧은 단써레는 나루채 끝에 봇줄을 매어 멍에와 연결한다면, 장써레는 나루채 가장자리가 멍에와 연결되어 있어 소 등에 바로 얹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짧은 써레를 쓴 반면 경기도 이천 등 일부 지역과 북한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장써레만 사용하였다. 장써레는 봇줄 대신 나무로 체를 만들었기에 사람이 써레질하는 데 힘이 들지 않는다. 써레의 나루채 길이가 92㎝인 반면 장써레는 250㎝이고, 써레발의 폭은 모두 110㎝, 길이는 19㎝ 정도이다.

과거 우리나라 써레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왕정王禎의 『농서農書』나 서광계의 『농정전서農政全書』의 써레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를 통해 14~16세기에 중국에서 사용한 써레와 우리 것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써레는 논에서 쓰는 것을 '무논써레', 밭에서 쓰는 것을 '마른써레'라고 달리 부르는데 무논써레는 갈아놓은 논에 물을 대고 하는 써레질이고, 마른써레는 마른 땅의 흙을 부수는 것이다. 마른써레질은 써레발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 소가 끌게 하여 덩어리진 흙을 깨뜨리는 것으로 '평상써레'라고도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논에서 써레를 쓸 때는 '삶는다'라고 하며 밭은 '고른다'라고 말한다.

특징 및 의의 써레질의 마침은 힘든 농사의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써레시침'이라 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긴다. '써레시침(씻이)'은 쟁기질에서부터 써레질까지 모내기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끝낸 후 마지막에 사용한 써레를 씻어 걸어둠으로써 힘든 노동의 한고비를 넘겼고 농사일에서 잠시 해방되었음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課農小抄, 農事直說, 農政全書, 王禎農書, 海東農書,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90),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필자 정연학(鄭然鶴)

써레질

정의 모내기 직전에 논의 흙덩이를 부수고 삶는 작업.

내용 써레질은 쟁기갈이를 마친 후 진행된다. 『농사직설農事直說』(1429) 종도조種稻條에서는 "2월 상순에 기경을 하고, 써레로 숙치熟治 작업을 한다."라고 하며, 『농서집요農書輯要』에서는 "2월에 해빙하여 땅이 마르면 기경한 후에 물을 넣고 10일째에 흙덩어리가 풀어지거든 써레所訖羅로 삶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통 농가에서는 모내기 2~3일 전에 '무논갈이'를 마치면 다시 써레질해서 흙덩이를 부수고 바닥을 고른다. 써레질은 하루에 논 2천 평 정도를 삶을 수 있다.

써레질은 흙덩어리를 부수어 흙을 부드럽게 하며 논바닥을 편평하게 하여 모내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물의 침투 및 유실을 적게 하며 비료와 흙을 섞어서 벼의 균등한 생육을 돕는다. 써레질의 횟수는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고, 산간지의 누수답에서는 써레질을 곱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써레질 방법으로는 '사귀어치기'와 '돌아치기'가 있다. '사귀어치기'는 우선 한 번은 논판을 가로 오가며 삶고 다음번은 세로로 오가며 삶는 방법이고, '돌아치기'는 논두렁 옆을 따라 빙빙 돌아 가운데로 들어가며 삶는 방법이다. 써레질은 깊을수록 좋아서 소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써레 손잡이를 눌러준다. 깊이 삶는 것은 벼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흙덩어리도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써레질 때 논 가장자리는 소의 회전력이 미치지 못해 사람들이 쇠스랑이나 괭이로 흙을 삶는다. 이러한 모습은 경직도에서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써레질은 잡초의 씨를 땅속 깊이 묻고 그 뿌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벼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철 어려운 김매기를 덜 수 있다. 또한 써레질을 통해 흙 속의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작물에 많은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횟수로 써레질하는 것을 풍년을 가름 짓는 잣대로 생각하였다.

'써레질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라거나 '써레질 물은 사촌도 안 준다.'라는 말은 모내기 전 써레질한 논의 흙탕물에는 비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물의 유실은 토질의 거름기가 씻겨 나가게 됨을 뜻할 뿐만 아니라 써레질 물이 충분해야 모내기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소중히 여기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써레질 | 안승일

참고문헌 課農小抄, 農事直說, 農書輯要, 農政全書, 王禎農書, 海東農書,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90),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필자 정연학(鄭然鶴)

씨뿌리기

정의 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어 심는 행위.

내용 씨뿌림을 하기 전에 좋은 씨앗을 가려내고, 이때 씨앗의 발아와 발아 후의 생장과 성숙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작물의 종류 및 품종, 기후, 작부체계, 토양조건, 출하기, 재해의 회피, 노동력 사정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씨가림 및 씨뿌리기 전 씨앗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씨가림[選種]

우량한 씨앗을 가려내는 것을 씨가림[選種]이라고 한다. 눈에 의한 선별, 체를 사용하는 큰 씨앗 선별, 무게에 의한 선별, 비중에 의한 선별 등이 우량한 씨앗을 가려내는 네 가지 방법이다.

2. 씨 뿌리기 전 씨앗 처리

선별한 씨앗은 싹이 빨리 잘 나오게 하고 균일하게 또는 병충해의 예방이나 양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전에 씨앗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씨 뿌리기 전 씨앗 처리라고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발아의 촉진 및 균일을 위한 씨앗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뿌리기 전에 수분 흡수를 위하여 물에 담그는 방법으로 침종浸種이라 한다. 물에 담그기 방법에 소요되는 기간은 작물 종류나 수온에 따라 다르고 수질로는 단물[軟水]보다는 센물[硬水]이 흡수가 더디다. 둘째, 껍질이 단단한 씨앗이나 씨앗의 외부에 납질물蠟質物이 있는 씨앗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셋째, 알카리성 용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씨앗의 껍질에 납질물蠟質物이 있는 씨앗에 잿물[木灰汁] 등의 용액으로 처리한다. 넷째, 목화. 고구마, 연 등의 단단한 씨앗은 진한 황산[濃黃酸]



씨뿌리기 | 경직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을 처리하면 싹이 빨리 나온다. 또 온탕처리 방법이 있다. 다섯째, 싹틔움 처리로 추운 지방에서 벼를 심을 경우와 맥류의 씨뿌림 적기를 놓쳐 늦게 씨를 뿌리는 경우와 가지 같은 채소류를 온상육묘하는 경우에는 싹을 틔어서 씨를 뿌리기도 한다.

두 번째로 꽃을 빨리 피우기 위한 종자 처리 방법이다. 가을 호밀이나, 가을 밀, 가을 보리 등의 싹이 튼 씨앗을 1℃~2℃에 저온처리 하여 봄에 씨뿌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삭이 패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추파성의 화곡류를 춘파성화하는 방법, 즉 춘화처리春化處理를 싹이 튼 종자의 시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 씨앗에 직접 비료를 주는 것으로 질소·인산·갈리 등의 수용액에 씨앗을 담갔다가 곧 꺼내어 뿌리는 방법이다.

네 번째로는 콩과 작물의 경우 뿌리혹박테리아[根瘤菌]를 접종하여 씨뿌림하는 방법도 있다.

다섯 번째로 씨앗에 붙은 병균, 해충 등을 방지하고 새나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독을 한다. 물리적 방법으로 리 깜부기병 퇴치를 위한 방법으로는 냉수온탕침법冷水溫湯侵法이 있으며, 벼의 선충 심고병과 고구

마의 검은무늬병은 온탕침법으로 방지된다. 화학적 방법은 씨앗이나 버섯 종균種菌에 포르말린·황산동·수은제 등의 약제를 처리한다. 새나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석유나 콜타르 등에 씨앗을 담가 악취가 나게 해서 심는 방법이 있다.

3. 씨뿌림때[播種期]

씨앗의 발아와 발아 후의 생장과 성숙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뿌려진 씨앗의 싹이 트려면, 지온이 발아최저온도 이상이고 토양 수분도 적당해야 한다. 또한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르는 감온성感溫性과 감광성感光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씨뿌림때는 여러 가지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 우선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서 지배된다. 보통 월동작물은 가을에 뿌리며 여름작물은 봄에 뿌린다. 월동작물이라도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은 좀 늦게 뿌려도 되지만,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는 쌀보리는 늦은 뿌림에 적응하지 못한다. 여름작물이라도 낮은 온도에 견디고 추파성을 소거해야 하는 춘파 맥류는 이른 봄에 뿌려야 하고, 옥수수처럼 생육온도가 높은 작물은 늦은 봄에 뿌린다. 벼에서 출수하는데 일조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감광형 품종은 늦게 뿌려서 늦게 모를 내는 것이 좋으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감온형 및 기본영양생장형인 품종은 일찍 심어서 일찍 모를 내야 한다. 콩에서 꽃을 피우는데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조의 영향에 둔감하여 여름철에 거두어들이는 하대두형 품종은 봄에 일찍 뿌리는 것이 좋고, 꽃이 피는데 일조시간에 민감하며 온도에 감응이 낮아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단일성추대두형품종은 늦은 봄에 뿌린다. 하대두형을 늦게 심으면 영양생장이 충분하지 못하고 꽃이 피므로, 수량이 적고 추대두형 품종을 일찍 심으면 줄기와 잎만 무성하고 결실이 나쁘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씨뿌림 시기를 달리한다. 대체로 평지에서는 일찍 파종이 가능하지만, 고랭지에서는 늦게 뿌린다. 토양 조건에 따라서 과습한 경우에는 정지와 씨뿌림 작업이 어려워서 씨뿌림 시기가 늦어지고 너무 건조하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오지 못하므로 적습한 토양상태가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생산물을 시장에 내는 시기와 기상, 병충해 등 재해 방지를 고려하여 씨뿌림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력의 사정으로 씨뿌림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씨앗이 같은 간격으로 뿌려지고 씨앗이 같은 깊이로 흙을 덮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력이 적게 들고 씨뿌림 후의 시비나 김매기 작업도 편리하도록 씨뿌림 하여야 한다. 파종기播種機를 사용하면 작업이 빠르고 파종량, 종자살포, 거리 간격 등이 모두 정확하고 정연해지는 이점이 있다.

씨뿌림 양식에는 흩뿌림[散播], 줄뿌림[條播], 점뿌림[點播], 점모아뿌림[摘播] 등이 있다. 흩뿌림은 포장 전면에 씨앗을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노력은 적게 들지만 씨앗이 많이 소요되며 생육기간 중 통풍 및 통광이 나쁘고 쓰러지기 쉬우며, 김매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작업이 불편하다. 줄뿌림은 뿌림골을 만들고 줄지어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다. 씨앗량도 흩뿌림보다 적게 들고 골 사이가 비어있어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좋고 통풍과 통광이 좋고 관리 작업도 편리하며, 생장이 고르고 수량과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골의 넓이를



씨앗고르기 | 울산 북구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볍씨 담그기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씨뿌리기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씨뿌리기 | 강원 평창 | 1990년대 | 황헌만

30㎝ 이하로 좁게 하는 것을 좁은줄뿌림[細條播]이라고 한다. 점뿌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씨앗을 띄엄띄엄 뿌리는 방법인데, 종자량도 적게 들고 작물의 생육 중에 통풍·통광이 좋고 작물 개체 간의 간격이 조정되어 생육이 좋다. 그러나 씨뿌림 노력이 많이 든다. 점모아뿌림은 점파와 비슷한 방법으로 점뿌림할 곳에 여러 개의 씨앗을 심는 경우를 말한다. 목초나 맥류 같은 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때 적용된다. 조파나 산파보다 노력이 많이 들지만 관리 작업이 편리하고 수분, 비료분, 수광, 통풍 등의 조건이 좋아 생육이 양호하다.

파종량 및 흙덮기는 다음과 같다. 파종량의 분량은 작물 각 개체가 차지하는 생육영역을 한정하는 큰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위면적에서의 수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파종량이 많을수록 많아지지만 그 도를 넘으면 오히려 수량이 낮아진다. 이는 작물이 너무 자라서 볕을 받는 모양세가 나빠지고 식물체가 약해져서 잘 쓰러지게 되어 병충해의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파종 적량은 작물의 종류 및 품종·기후·토질·종자의 발아력의 양부·씨뿌림 시기·비료 주는 양 및 씨뿌림 후의 관리와 재배 목적에 따라 다르다.

씨뿌림 후에 흙을 덮는 것을 흙덮기라고 하는데 흙덮기의 깊이는 종자의 크기, 싹트는 습성, 토질, 기후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흙덮기의 깊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조건은 씨뿌림 방법·씨앗의 크기·싹트는 습성·토질 등이다. 물 못자리에 볍씨를 파종할 때는 흙덮기를 하지 않는다. 작은 씨앗은 얕게, 큰 씨앗은 깊게 흙덮기를 한다. 광발아 종자는 씨뿌림 후 흙덮기를 하지 않거나 극히 얕게 씨뿌림을 해야 한다. 중점토에서는 얕게 하고 경토에서는 깊게 하며, 토양이 습윤할 때는 얕게 하고 건조할 때는 깊게 해서 공기의 유통 및 수분의 보급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흙덮기를 깊게 하고 적온에서는 얕게 한다.

특징 및 의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농업은 예로부터 과학적으로 발전하였다. 일찍이 『농사직설農事直說』에 고랑을 만드는 농구農具의 하나인 작조리作條犁로 길게 파종구를 만들어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발뒤꿈치로 밟아 구멍을 내어 점파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하고 생산량도 늘리는 파종법을 창안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고상안高尙顔(1553~1623)은 러시아의 리센코(1898~1976)보다 300여년을 앞서 보리에 춘화처리春化處理하는 기술을 기록·보고한 바 있다. 가을보리를 물에 불려 얼지 않게 움집에서 얼보리로 겨울을 낸 다음 2~3월에 파종하면 가을에 파종한 것처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파종법은 한국의 농법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도 앞선 농업기술로 발전해 왔다.

참고문헌 農家月令, 農事直說, 재배범론(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93).

필자 안완식(安完植)

씨송곳

정의 농작물 씨앗을 파종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는 씨붙이기 연장.

내용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전래농구는 아니며 줄뿌림 파종기와 같이 근대의 개량농구이다. 1881년에 간행된 『농정신편農政新編』의 삽화에 등장하는 외국 농기구 중 재종천혈판載種穿穴板은 널판에 뾰족한 송곳이 4줄에 10개씩 배열되고 판 상부 중앙에는 손잡이인 자루가 표현되었다. 모식도이기는 하지만 씨송곳의 형태가 비슷하며 현재 인삼파종기를 다른 씨송곳과 구분하여 재종천혈판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씨송곳은 종자판과 송곳, 손잡이로 구성된다. 씨송곳의 형태와 크기, 송곳 배열 간격은 파종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삼씨송곳은 지름 1~2㎝ 크기의 원추형 송곳(돌기)을 나무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았다. 판의 크기는 가로 70~80㎝, 세로 10~15㎝ 정도로 일정하며 송곳은 20~24개가 3~5줄로 배열되어 전체 60~120개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손잡이는 앉아서 누를 수 있도록 활 모양의 곡재를 판의 긴 방향으로 붙이거나 양 끝부분에 두 손으로 잡도록 부착하였다.

채소나 담배, 곡식 등을 파종하는 씨송곳은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씨앗 구멍을 깊게 내는 작물일 경우 송곳을 1줄로 배열하며 송곳이 크고 송곳 간격도 넓은 편이다. 송곳 모양도 원추형 돌기뿐만 아니라 목정木釘 형태의 끝이 뾰족한 나무를 판에 끼우거나 눕혀서 박기도 한다. 판 상부에 자루 두 개를 세우고 손잡이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서서 작업하여 손잡이를 누르는 힘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판을 땅에 대고 누르면 돌기 모양의 구멍이 생기며 그곳에 씨앗을 넣고 흙을 덮는다.

씨송곳은 파종기로도 불리는데 씨가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 도구인 씨송곳은 점파기點播器나 조파기條播器와 같이 씨앗을 직접 뿌리는 파종기가 아니기에 용어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재종천혈판 | 가로79 세로1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씨송곳은 작물의 씨를 파종하기 위하여 씨앗 구멍을 만드는 씨붙이기 연장으로 근대에 도입된 개량농구이다. 흔히 씨송곳은 재종천혈판으로 불리는 인삼씨송곳이며, 작물에 따라 씨송곳의 형태와 크기에 차이가 있다. 현재는 동력파종기가 보급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깨나 배추 등을 육묘育苗하기 위한 모종판에 씨구멍을 내는 누름판이 씨송곳과 형태 및 사용방법에서 유사하다.

참고문헌 農政新編, 조선농업보감(고산철, 경성종묘원, 1938),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도감(박호석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민족역사문화도감-생업(국립민속박물관, 2008),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권민석(權珉錫)

씨앗고르기

정의 수확한 농작물 중에서 튼실한 종자를 고르는 일.

내용 좋은 씨앗을 선별하는 작업은 이듬해 농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의 하나이다. 우량한 종자는 파종 후 싹이 고르게 날 뿐 아니라 병충해에도 강한 내성을 보인다. 또 낟알이 충실하여 농작물의 소출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할 때는 우량한 종자나 알곡을 따로 잘 갈무리하였다가 이듬해 파종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오곡의 씨앗고르기는 이삭이 충실하게 영글고 빛깔이 고운 것을 골라 베어 저장하거나 높은 곳에 매달아 둔다. 봄이 되면 이것을 탈곡하여 따로 심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삼는다. 중국 고대의 농서 『범승지서氾勝之書』에서 이르기를 "이듬해 가장 잘 자랄 작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물의 씨앗을 똑같은 양으로 달아 포대에 넣어 음지의 흙 속에 따로 묻어 두고 동지가 지난 50일쯤 이것을 파내어 달아 본다. 물기를 가장 많이 빨아들인 작물이 이듬해 가장 잘 자랄 작물이다."라고 하였다.



볍씨 말리기 | 대전 | 2016 | 강성복



벼품종 종자 | 2013 | 농촌진흥청

종자로 파종할 씨앗은 저장과 보관이 중요하다. 대체로 오곡의 씨앗은 습기에 젖어 눅눅해지면 싹이 트지 못하고 설사 싹이 나더라도 쉽게 죽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 불량한 씨앗이 섞여 있으면 발아가 일정하지 않고 탈곡한 뒤 방아를 찧어도 수확량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종자를 보관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습기를 제거하고 쥐·벌레 따위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항아리에 담아 뚜껑을 닫아 둔다. 농가에서 씨오쟁이나 뒤웅박에 종자를 넣어 난간에 매달아 놓거나 혹은 움에 묻어 갈무리하는 이유이다.

최근의 과학영농은 씨앗고르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종자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두고 종자의 유통관리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자검정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못자리에 파종할 볍씨(씻나락)의 경우 국립종자원에서 우량한 벼품종을 선별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안벼, 미품벼, 삼광벼, 영호진미, 오대벼, 추청벼, 해품벼, 화선찰벼 등이 있다. 엄격한 종자 관리와 육묘를 거쳐 생산한 볍씨를 제공함으로써 침종浸種 및 못자리 과정에서 잡벼가 섞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균일한 품종을 수확하고 최상의 미질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특징 및 의의 씨앗고르기는 이듬해 파종할 실한 종자를 선별하는 일이다. 우량한 씨앗을 골라 논밭에 파종하는 작업은 풍성한 수확에 이르는 첩경이다. 따라서 농사의 첫걸음인 씨앗고르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씨앗과 관련된 속담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시나무에 가시 난다.' '대 끝에서 대 나고, 싸리 끝에서 싸리 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두 속담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또 '씨도둑질은 못 한다.'라는 옛말은 다른 물건은 도둑질을 해서 써도 표시가 안 나지만 씨도둑질은 어디가 닮아도 닮기 때문에 탄로가 난다는 뜻이다. 이들 속담에는 씨앗의 중요함이 은연중에 녹아 있다.

참고문헌 氾勝之書, 齊民要術,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강성복(姜成福)

양계
養鷄

정의 닭고기와 식용 및 의료용 달걀을 얻기 위하여 닭을 기르는 일.

내용 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친숙한 가축이며 달걀과 고기를 함께 얻을 수 있어 오래도록 길러온 가축이다. 또 인류가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동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닭을 기르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2,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된 닭을 직접 들여오거나 중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른

재래종 닭은 날씬한 체형에 홑볏으로 목 밑의 고기수염이 길고 정강이에 털이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몸이 가벼워 활동력이 뛰어나며 알을 잘 품는 성질을 가졌으나 다소 사나운 기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03년 일본에서 알을 많이 낳는 플리머스록종, 나고야종, 백색레그혼종이 도입되면서 외래종 도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6년 고종의 칙령을 통해 권업모범장에서 횡반플리머스록종 등의 외래종을 시범 사육하였다. 재래종 닭은 도입 개량종 닭보다 산란 수가 적고 성장이 더뎌 사육이 점점 줄어들다 6·25전쟁을 겪으며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보통 토종닭이라 일컫는 닭은 재래종과 토착 외래종을 포함한다. '한국 레그혼' '한국 로드아일랜드' '한국 코니쉬'처럼 7세대 이상 사육하여 한국의 풍토에 토착화된 종 모두를 토착 외래종에 포함하여 해석의 범위가 넓다. 1992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전국의 재래종 닭을 수집·선발하여 2008년 재래종 닭 복원에 성공하였고 '우리맛닭'이라는 품종명으로 출시되었다.







육계 사육 시설 | 월간 닭고기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닭은 사육 목적에 따라 알을 얻기 위하여 육성된 '난용종', 고기를 얻기 위하여 육성된 '육용종', 겸용종인 '난육겸용종'으로 나뉜다. 닭 육종에는 사료를 적게 먹고 빨리 자라는 사료 효율성과 고기 수율이 높은 도체율이 중요하다. 육종 목적에 따라 육질을 위주로 한 육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얻기 위한 육종이 있다.

전후 복구 기간인 1952년 국제 원조기관인 ECA(미국 경제협조처)를 통해 미국에서 백색 레그혼,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종란 21만 개가 도입되어 축산시험장에서 종자를 보유하고 민간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양계산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196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 계획으로 정부가 축산을 적극 장려하여 외국 종계를 도입하였다. 1962년 미공법 480호(PL480)에 의거하여 사료용 옥수수 3,907t이 도입되고 1963년에 〈사료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양계용 배합사료 수급이 늘어났다. 동시에 사료의 품질 개선으로 사료 효율도 좋아져 양계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는 육계 전용 배합사료도 생산되어 양계산업은 산란계업과 육계업으로 분리되는 전문화, 전업화의 길을 걸었다. 1970년 우리나라 배합사료 총생산량 중 양계용 배합사료가 90%를 차지하였고 양계업은 선도 축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1963년 이전 양계업은 주로 달걀을 얻기 위한 산란계(채란계) 위주였다. 가정 부업의 형태로 마당에서 길러 암탉은 달걀 생산용으로, 수탉이나 노계 등은 고기로 먹는 식이었다. 번식 방법은 어미 닭이 알을 낳고 품는 모계부화의 형태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산성이 좋은 외국계 종계와 대형 부화기가 도입되고 전용 부화장이 들어서면서 양계업은 확장 일로를 걷는다. 그중 산란계업은 전체 축산업 중에서 가장 먼저 규모화와 전업화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계를 확보하고 육계 사료 공급이 원활해진 데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통닭이나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 육계 산업도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양계업은 산란계업과 육계업으로 나뉘어 전문 분화되었고 양계업을 통해 축산업의 기틀을 잡아 나갔다.

그중 닭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육계업은 축산 부문에서 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이 완료된 분야이다. 육계 계열화 사업은 특정 육계열업체가 원종계에서 종계, 부화,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연료, 도계, 가공, 유통, 프랜차이즈 산업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계열 기업이 계약 농가에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사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가는 자가시설에서 노동력을 투입하여 닭을 기른다. 다 기른 닭을 다시 계열업체에 납품하여 사육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기업계열화 방식의 육계 산업은 1990년대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90% 이상 기업계열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육계 농민의 기업 예속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져 산란계업과 양돈업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케이지 사육이란 철망으로 만든 우리에 닭을 넣어 기르는 방식으로, 닭이 알을 낳으면 달걀 수집이 용이하여 주로 산란계 닭에 적용된다. 육계는 바닥에 놓아 기르는 평사 사육을 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 닭의 경우 2012년 산란계부터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시작하여 2014년에는 육계에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 중에서 양계농장이 가장 많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현대의 양계에서 부화는 인공 부화장에서 이루어진다. 21일간의 부화 기간을 거쳐 병아리가 태어나면 각 농장에 병아리를 넣는 '입추入雛'부터 양계가 시작된다. 산란계의 경우 산란 시기별로 구분하여 기른다. 암탉은 부화한 지 20주령 정도가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여 약 60주령까지 알을 낳는다. 20~40주령까지가 산란 정점 기간으로, 현대의 산란계 닭은 산란율이 90%에 육박한다. 40~60주령까지는 닭의 성장이 거의 끝나는 단계로 산란율이 감소하는데 시장성이 있는 특란과 대란은 20~55주령까지 생산된다. 일조시간을 길게 하여 달걀 생산량을 높이는 점등법은 인공조명을 비춰 일조량을 늘려 달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산란계 사육 시설 | 강원 홍천 | 정은정

우리나라의 육계업은 입추 이후 30일령으로 기르기 때문에 1.5*kg* 정도의 소형닭이 주를 이룬다. 부분육 소비보다 통닭 형태의 소비가 많고 사육회전율이 높아야 더 많이, 더 자주 길러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살, 가슴살 등의 부분육을 생산하기 위한 닭은 40일령 2.8*kg* 정도까지 키우지만 대체로 소형닭으로 출하한다. 삼계탕용으로 길러지는 닭은 1967년에 만들어진 '백세미'로, 육용종계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인공수정시켜 약 2주령 정도로 길러 출하한다. 산란계도 일정 정도 육계에 준한다는 뜻인 '준육계準肉鷄'라 하여 통상적으로 영어의 세미semi와 구이용 닭인 브로일러broiler를 합친 '세미브로일러semi-broiler'의 합성어에 백색의 털을 가졌다 하여 '백세미'라 통상 부른다.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길러낼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취약해 가축전염병에 잘 걸리고 짧은 출하 시기로 인해 닭고기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닭은 뉴캐슬병, 추백리, 미코플라스마, 마렉병, 가

금 티푸스, 가금 콜레라 등 질병에 취약하여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양계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후 2017년까지 매년 발생하여 약 7,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2017년에는 산란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달걀 수급에 차질이 생겨 달걀값이 폭등하고 달걀을 수입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 양계업은 생산과 도계, 유통, 식품산업과 외식업까지 촘촘하게 산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 관리와 방역이 중요하다. 백신과 알부민, 항암제 개발 등 양계 의료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양계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달걀을 얻기 위하여 재래종 닭을 마당에서 몇 마리 정도 기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산란성이 좋은 외래종 닭을 들여와 기르면서 양계산업은 부업 수준을 벗어나 점점 전업화, 규모화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이후부터는 양계용 배합사료의 공급과 생산성이 좋은 외래종 종계 도입이 늘어나면서 양계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한국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다. 주로 달걀을 생산하기 위한 산란계 양계에 그쳤으나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업도 발전하여 양계업은 산란계업과 육계업으로 전문 분화되었다. 다만 밀식 양계로 인한 가축전염병과 환경오염 문제로 친환경 양계산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닭고기백과(이희훈, 현축, 2012), 양계(농촌진흥청, 2012), 재래닭 관리지침서(농촌진흥청, 2006), 한국계육산업발전사(한국계육협회, 2002).

필자 정은정(鄭銀貞)

양곡관리제도
糧穀管理制度

정의 근대에 국민 식량 확보와 경제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양곡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

내용 농업생산물인 식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산품과 달리 생산 조절과 유통 관리를 통해 가격 체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통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양곡관리제도糧穀管理制度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군수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의 관리·통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자에 대한 식량 배급과 생산자에 대한 공출이 시행되었고, 조선총독부는 1943년 〈조선식량관리령〉을 제정하여 식량의 생산·유통·소비 모든 부문에 대한 강력한 국가 통제를 실시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식량정책에 자유시장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양곡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쌀과 맥류에 대해서 '식량 수집'이라는 통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양곡매입법〉(법률 제7호, 1948. 10. 9.)을 통해 양곡 공출을 계속 시행하였다. 1950년 2월 16일에는 '양곡을 관리 비축하고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며 배급 및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양곡관리법〉(법률 제97호)이 제정되었다. 이는 일정량의 미곡 매도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수량과 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후 한국 양곡관리제도의 모법母法이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식량의 증산과 안정적 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곡관리제를 통한 고미가 정책을 추구하였다. 정부는 매년 수확기에 농민이 생산한 양곡의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수확기의 양곡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공급 부족으로 양곡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는 정부에서 보관 중인 양곡을 시중에 풀어 가격을 조절하였다. 보관 양곡을 군량미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구호양곡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2년부터 곡가 안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저곡가 정책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쌀과 보리의 소비를 확대시켜 주곡 자급 계획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쌀 증산의 주역이라 불린 통일벼의 재배를 유인

하는 수단으로 통일벼를 우선 수매하고 수매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1950년의 〈양곡관리법〉 체제는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양곡관리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쌀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주곡 증산과 자급을 목표로 하는 양곡관리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1994년 4월 6일 〈양곡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07호)이 이루어져 양곡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 '주곡의 자급실현 등 양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곡 가공 및 유통부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재 양곡관리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곡사업을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미리 예시하는 수매예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양곡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전면 개정으로 양곡관리제도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국가가 식량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생산물인 식량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양곡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양곡관리제도는 군수식량 확보가 목적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저임금·저곡가 체제를 위하여 농민의 희생을 요구하였기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현재에도 한국 농업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불리한 조건이 많아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식민지기 조선의 식량관리제도와 광복 후 양곡관리제도의 비교(이송순, 한국사학보32, 고려사학회, 2008), 한국양정사(농수산부, 1978), 한국의 식주생활사전-식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

필자 이송순(李松順)

양돈
養豚

정의 돼지고기와 식품 원료를 비롯하여 지방·가죽·혈액 등을 얻기 위하여 돼지를 기르는 일.



재래종 돼지 | 농촌진흥청

내용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마한 서쪽 바다의 섬 위에 주호국州胡國(현재 제주도) 사람들이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며 ……"라는 기록이 있다.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를 거쳐 농경과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 말, 닭, 개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시도하였을 때부터 돼지를 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돼지는 한반도에서 선호도가 낮은 가축이었다. 소와 말은 농업과 군사에 쓰임이 있고 풀을 먹여 기를 수 있어서 인간과 먹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 닭은 알을 낳아 유용한 가축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돼지는 잡식성이라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고 특유의 냄새(이취) 때문에 식재료의 가치가 낮은 가축으로 취급받아 왔다.

『권업모범장성적요람勸業模範場成績要覽』(1923)에서 보면 "재래종 돼지는 검은색의 거친 털을 가졌고, 얼굴은 좁고 길어 앞으로 향해 있으며, 귀는 작다."고 적혀 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돼지 출하 무게가 110~120*kg* 정도인 것에 비하면 살집이 없는 편이다. 다 자란 성돈의 무게가 22.5~26.5*kg*에 불과하여 고기 수율이 매우 낮아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았다. 다만 재래돼지는 농업부산물과 음식쓰레기(잔반, 구정물)를 처리하고 분뇨로 거름을 얻을 수 있어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농가의 여러 편의를 위한 부차적인 목적으로 사육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돼지 개량을 시작하였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재래돼지 암컷과 개량 품종인 버크셔종과 요크셔종의 수컷을 교배시켜 얻은 새끼 돼지를 다시 개량종과 교배하는 누진교배로 개량종


요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돼지 | 농촌진흥청

돼지를 만들어 갔다. 중국의 호종 돼지도 들여와 버크셔 순종과 교잡하고 그 잡종을 다시 재래종과 교잡하여 이대 잡종을 만드는 시도에까지 이르는 등 돼지 개량이 활발해졌다. 일제는 생산성이 좋은 요크셔종을 권업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오랫동안 검은 돼지만을 보아 와서 흰 돼지인 요크셔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에 주로 버크셔종이 보급되었다가 1930년 후반에 요크셔종이 보급되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 개량돼지가 70%였고 나머지 30%는 재래돼지였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개량종을 따라가기 어려워 재래돼지 사육이 점점 줄었다가 6·25전쟁을 치르며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1988년부터 고유종 복원 차원에서 재래돼지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복원에 성공하였고, 현재 몇몇 농가에서 재래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잔반을 구하기 쉬운 군부대나 대형 공장 인근 혹은 술지게미를 얻을 수 있는 양조장 인근에서 돼지 사육이 늘어났다. 이는 사료의 원료를 구하기가 쉽고 소비처가 가까운 도시 근교에서 양돈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기 수요도 늘어나 양돈업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고, 1959년 홍콩으로 생돈을 처음 수출하게 되면서 돼지 수출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양돈산업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때에도 여전히 부업 형태로 돼지를 한두 마리 정도만 길렀지만, 전업으로 양돈을 하는 농가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전업화 현상은 사육 농가는 줄었지만, 사육 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983년에 54만여 농가에서 360만 마리를 사육하였으나 2005년 말에는 9,000여 농가에서 약 900만 마리를 사육하였고 2015년에는 5,000여 농가에서 1,00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우리가 주로 먹는 돼지고기는 흰색 계통인 랜드레이스종과 요크셔종을 두록종과 교배하여 태어난 교잡종 돼지이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를 잘 돌보는 특성이 있어 어미 돼지로 이용되고, 수퇘지는 고기 생산이 많고 지방 침착(마블링)이 잘 되어 고기 맛이 좋은 두록을 교배시킨다. 이렇게 순종과 순종을 교배시켜 나온 1대 잡종(F1)을 어미 돼지로 삼아 두록 수컷과 교잡하면 랜드레이스L, 요크셔Y, 두록D의 특징을 골고루 물려받은 3원 교잡종인 'LYD종'이 만들어지고, 이 교잡종을 식용 돼지로 기른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교잡품종에 맞는 사양기술과 배합사료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양돈은 더욱 확장되었다. 각각의 성장 단계와 용도별로 사료와 사양기술이 세분화되어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체중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돼지는 생후 8~10개월이 되면 임신이 가능하고 임신 후 114일 전후로 새끼를 낳는다. 사육 단계는 28일간의 젖 먹는 기간, 생후 60일까지의 이유식 기간, 성장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생산성을 높

인다. 생후 180일까지 길러 보통 100~110㎏에 출하한다. 돼지는 집단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돼지의 고질적인 문제는 특유의 역한 냄새이다. 잔반 사료를 먹여 기르면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지방에 축적되는 특성 때문이다. 거세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수퇘지의 웅취도 돼지고기 냄새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도 돼지고기 조리법은 강한 향신료와 술을 활용하여 돼지 냄새를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돼지 사육에 잔반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1%도 되지 않고 배합사료와 정밀한 양돈기술의 보급으로 돼지고기의 이취 문제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삼겹살 구이로 대표되는 생고기 구이 요리가 가능해졌다.

돼지는 다른 축종에 비하여 분뇨의 오염 부하량이 높아 양돈농가가 들어선 지역에는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양돈의 핵심 기술은 돼지분뇨의 적정처리이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생제 투여와 성장 촉진제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2011년부터 동물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항생제 투여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돼지의 밀집 사육 문제를 개선하고 동물친화적인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2013년에 도입되었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은 축사에 스톨(금속틀)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고 이빨 자르기와 꼬리 자르기를 금하며 거세할 경우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양돈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치명적인 돼지전염병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양돈업에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돼지전염병으로 2019년 한국에서도 최초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현대의 양돈업은 동물복지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사육과 더불어 세계화에 따른 국제이동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의 통제와 예방이 중요하다. 한편 돼지의 유전자원 확보와 의료용 돼지 개발에 축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2012년부터 수입산 돼지고기와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양돈이라는 말 대신 '한돈'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1970년대 이전까지 양돈은 돼지에게 농업부산물이나 잔반을 먹여 기르는 부업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배합사료가 생산되면서 1,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기르는 전업 양돈의 시대가 열렸다. 전문화된 양돈사료 생산, 사육기술 및 경영 혁신, 냉장유통 발달, 국민소득 향상 등으로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육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농업개방으로 값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로 삼겹살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양돈농가는 가격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경을 넘나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돼지기르기(농촌진흥청, 2005),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산업화에 관한 연구(송인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영양사료산업 60년사(한국영양사료산업 60년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의 축산(강규열 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74), 勸業模範場成績要覽(朝鮮總督部 勸業模範場, 1923).

필자 정은정(鄭銀貞)

양마
養馬

정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에 따라 마구간과 목장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말을 생산하고 기르는 일.

개관 우리나라에서 말을 사육한 사실을 보여 주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찾을 수 있다. 위만조선시대 한무제에게 말 5,000마리를 헌상한 일이 있고, 부여·고구려·동예 등에서 삼척마三尺馬인 과하마果下馬를 생산하여 남쪽 신라·백제·가야 지역에 전래한 사실도 보인다.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를 보면 246년(동천왕 20)에 철기 5,000명을 거느리고 위나라 대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구려에 철

갑으로 무장한 개마무사鎧馬武士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삼실총과 쌍영총 그리고 개마총 등의 벽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개마무사의 모습은 신라·가야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양마養馬가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최근 경상북도 경주 쪽샘지구(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무덤에서 말 갑옷이 출토되었는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보존 처리하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세기 신라 전투마이며, 우리나라 재래마인 조랑말 크기(키 120~136㎝)의 과하마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던 말이 지금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제주마와 비슷하다고 짐작하게 한다. 제주마라는 표현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의 제주마로 명칭이 통일된 것은 1999년 12월 21일의 일이다.

내용 한반도에서 삼국시대를 전후해 이미 양마에 관한 국가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기술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말은 주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다. 삼국시대 양마에 관한 묘사 자료로는 5세기 초 조성된 덕흥리 고분(현재 평안남도 남포 소재)의 천마도와 6세기에 조성된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가 있다. 묘사된 말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말은 신성시되며 매우 귀중하게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문무왕 때 174개의 국립 목장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여덟 개의 국립목장을 설치하였고, 마정馬政을 전담하는 다양한 조직과 부서 그리고 관리를 두어 실질적인 양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말 사육 지침인 축마우료식畜馬牛料式을 만들어 좋은 말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1025년(현종 16)에 목감양마법牧監養馬法과 1159년(의종 13)에 축마과식畜馬科式 등을 제정하여 말 사육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고려 현종 때는 우량마를 확보하기 위해 마료馬料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도 하였다. 말의 주된 사료인 꼴[芻]을 잘 생산하기 위해 풀 성장기에 맞춰 5~9월을 청초절靑草節, 10~4월을 황초절黃草節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급여하도록 하였다. 1277년(충렬왕 3)에는 원나라에서 제주도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서역마인 대완마大宛馬와 나귀 등을 들여와서 재래종인 향마鄕馬와 함께 사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마정을 이어받아 태조 이성계 때부터 말의 증식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목장 수가 세종 때는 59개에서 철종 때는 114개, 순종 때는 172개로 크게 늘어났다. 마정 제도가 정립되어 말의 번식과 사양 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사적 목적 외에도 식용과 각종 가공 재료 또는 스포츠로 확대되면서 조선시대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특히 태종은 조선시대 초기 말을 이용한 스포츠로 격구擊毬를 즐겼는데, 재위기간 중 30차례 이상 경기를 즐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격구에 활용된 말은 키가 3척(90㎝ 내외) 밖에 되지 않는 재래마인 과하마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정치 혼란과 함께 조선시대 양마 산업은 침체되었고, 6만~7만 마리에 이르던 말 사육 마릿수가 1870년(고종 7)에는 4,600여 마리에 불과하였다.



장니 천마도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문화재청



수렵도 | 전 정홍래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마 | 제주 | 2010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제주마 | 제주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이러한 조선시대 마정은 목장의 관리와 말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마의학 개발이나 말 교역 등 제반 관리 정책 등을 수립하고 관장하였는데, 조직은 의정부·육조·승정원·사헌부·경연 등이 참여하였으며 실무는 병조의 사복시에서 담당하였다. 지방 각 도道의 관찰사에 감목관監牧官을 두고 이를 해당 지역의 수령이 겸하게 함으로써 각 목장의 군두群頭와 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를 관할하며 말 증식과 사양관리 등 양마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적인 고을 수령의 감목관 겸직은 말 생산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결국 1408년(태종 8) 각 목장에 말 번식에 능통한 6품 이상의 감목관을 파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마인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으로 하여 군두 1인이 맡고, 50필마다 군부 1인과 25필마다 목자 1인을 배치하여 6품 이상의 감목관이 관리하였다. 또 1군마다 연 80필 이상을 번식하면 상등, 60필은 중등, 60필 미만은 하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30개월 안에 상등이 세 번이면 자급資級을 올려주고 상등이 한 번이면 위계는 그대로 두고 임용하며 세 번 중등이면 벼슬을 깎아 내보내고 하등은 즉시 논죄하여 파면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마는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목장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섬이나 곶에 설치되었다. 그 수는 섬과 곶이 발달한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전라도에 가장 많았고, '말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는 섬 전체가 목장화되어 64개가 있었다. 제주도의 목자는 제주목에 754명, 정의현에 365명, 대정현에 126명, 제주 별목장에 141명 등이었다. 이는 전국 목자 수의 27%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도가 국가의 대표적 사육지로 양마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태조 때 설치된 왕실목장인 살곶이목장(현재 성동구·광진구·송파구 주변)에서는 마조단馬祖壇, 선목단先牧壇, 마보단馬步壇, 마사단馬社壇 등을 세워 말의 무병과 번식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임진왜란 이후 군 편제가 기마병 중심에서 조총병을 포함한 보병 체제로 재편되면서 말과 목장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선조 때 40여 개의 목장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목장이 폐지되거나 개간되어 경작지로 변화되었고, 점차 말 사육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마정 쇠퇴의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목장이 국유지로 몰수되고, 양마를 목적으로 관리되던 전통적인 목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근대의 양마는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가 만들어지면서 경마로 시작되었다. 경마에 사용되는 말은 영국에서 개량된 서러브레드 품종으로 초기에 외국에서 수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마 생산은 1990년 초 경주마 자급 확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자급률 목표치인 75%를 실현하였다. 또 우리 재래마인 제주마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제주마 경주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주마를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고,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외모와 유전자를 확인해 기초 등록마로 174두를 선정하여 등록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말 사육 마릿수는 경주용 서러브레드가 1만 1,677마리로 가장 많고 제주

마와 서러브레드의 교잡마인 제주산마가 8,302마리, 제주마가 3,602마리 등 다양한 용도로 총 2만 7,24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양마는 삼국시대부터 국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며, 마정과 목장조직관리를 통해 말생산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왔다. 삼국 중 고구려는 개국 초부터 목장을 설치하고 양마 생산에 힘썼는데, 우량마를 통해 철갑기병을 운용해 국력을 키웠다. 고려시대 때는 거란과 여진 등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마정을 발전시켜 중앙 병부에서 말 사육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청을 두었다. 지방에는 목감을 배치해 각 목장에 노자와 간수군을 두고 체계적인 목장관리를 통해 우수한 군마를 공급하면서 영토를 보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마정을 이어받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다양한 용도의 말을 원활하게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왕과 중요 대신들이 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말 생산이 나라의 부를 만들고 보배 중 으뜸'이라며 '나라의 강약은 말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한국마정사(남도영,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사전(waks.aks.ac.kr), 팜인사이트(farminsight.net).

필자 정승헌(鄭承憲)

양배추

정의 십자화과(배춧과)에 속하는 이년생 채소.

개관 양배추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채소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 육성 품종은 원예시험장에서 1962년에 개발한 '동춘東春' 양배추로서 '석세션Sucession'과 '엽심葉深'에서 분리 고정하였다. 양배추 품종은 크게 일반 양배추와 적색 양배추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대부분은 수입종에 의존하고 있다. 양배추는 품종에 따라 재배하는 시기가



양배추 | 2005 | 농촌진흥청



양배추밭 | 2013 | 농촌진흥청

다양하므로 품종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적색 양배추는 야간 지온이 상床내 온도보다 높아야 튼튼하게 자라고 잘록병 발생이 줄어든다. 종자는 모잘록병 등의 종자전염성 병해를 막기 위해 소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 시판되는 종자는 대부분 종자소독이 되어 있어 별도의 소독은 필요 없다.

내용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요구르트·올리브와 함께 서양의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는 식재료로, 우리나라에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왔다. 양배추는 비타민U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염·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 등의 성분이 풍부해 암 발병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한 포기에 80㎉의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봄재배와 가을재배 작형을 중심으

로 재배되었으나 최근에는 육종기술의 발달로 재배가 쉬워지고 작형이 다양하게 분화·발달되었다. 봄재배는 온상에서 육묘하여 5월 초에 정식하고 7~8월에 수확하는 작형이다.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여 재배하기 힘들어지므로 되도록 내서성·내병성이 강한 조생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난지에서는 고온과 장마로 인해 과습하여 재배가 곤란해지므로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름재배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씨를 뿌려 육묘한 뒤 7월 중순경에 정식하고 9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해발 400~800*m* 되는 준고랭지나 고랭지에서 재배된다. 가을재배는 고온기인 7월에 파종하여 가을의 적온기에 결구를 완성시키는 작형으로, 가을이 긴 중부 이남의 중간지대와 남부의 난지에서 유리한 작형이다. 이 작형에서는 생육 초기의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생육기간 중에 비교적 적은 일조 조건하에서도 결구가 잘되는 품종이 적합하다. 월동재배는 9월에 파종하여 연내에 정식하고 봄에 결구시키는 작형으로 3~5월에 수확한다. 겨울이 추운 지방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므로 겨울의 평균 기온이 5℃ 이상 되는 남부지방에 유리한 작형이다. 모의 상태로 월동하므로 이 작형에서는 모가 클 경우 저온에 감응하여 꽃눈이 형성되어 다음 해에 개화하게 되므로 저온에 둔감하고 추대가 늦은 조생품종이 적합하다.

특징 및 의의 양배추는 샐러드 채소의 공급이 많아지고 뷔페 등에서 서양채소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편형형 위주로 대개 중국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는 YR호걸 품종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소량이지만 원형인 품종의 소비가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 양배추 시장도 조금씩 형성되고 있고, 전라북도 군산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과 대만에 수출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140-엽채류(농촌진흥청, 2013), 보고 가꾸고 먹고 즐기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2017), 채소연구의 오늘과 내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2016).

필자 장석우(張錫愚)

양봉
養蜂

정의 벌꿀 혹은 밀랍, 화분,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봉독액(봉침액), 수벌번데기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꿀벌을 기르는 행위.

개관 양봉養蜂산업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인류가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도 벌꿀을 채취하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꿀벌을 통한 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폴로의 아들이 벌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며,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기원전 384~322)도 유리로 만든 벌통으로 벌을 키우면서 꿀벌의 생활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꿀벌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대에는 주로 널빤지, 대나무, 나무껍질, 점토 등을 이용해 벌통을 만들어 벌을 키웠다. 벌꿀은 예로부터 고급 식품으로 취급되었고, 밀랍은 고급 초나 공예품에 이용되었다.

17세기 이후 지어존Dzierzon, J.(1811~1906)과 랑스트로스Langstroth, L.(1810~1895)에 의해 틀에 달린 벌집을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벌통이 고안되어 근대적인 양봉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벌집을 짓는 기초로 사용되는 인공 소초의 발명, 벌집을 파괴하지 않고 꿀 채취가 가능한 채밀기 제작 등으로 양봉 기술이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양봉산업이 왕성한 나라 가운데 유럽의 꿀벌을 도입하여 양봉산업을 발전시킨 나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으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도 양봉업이 활발하다. 남반구의 호주와 뉴질랜드도 풍부한 밀원자원을 바탕으로 양봉업이 발달하였다. 독일은 양봉에 대한 열기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러시아·프랑스·영국·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학술발전과 더불어 과학 양봉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벌꿀 등 양봉 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은 중국이며,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양에 분포하는 인도 최대종(학명 *Apis dorsata*) 등 야생


분봉


사군상 벌통


벌통


꿀 따르기

양봉 | 강원 인제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꿀벌을 이용한 양봉업이 발전하였다. 신대륙에서는 벌꿀·로열젤리·화분 등을 직접 생산하는 양봉업뿐만 아니라 꿀벌의 화분매개로 농작물을 수정시켜 결실을 유도하고 품질을 증진시키려는 농작물 계획수정을 위하여 과수원 등지에 벌통을 빌려주는 임대 양봉업도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양봉의 역사는 동양종 꿀벌(재래종, 토종벌, 학명 *Apis cerana*)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중국을 통해 고구려 초기에 기술이 들어와 정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 643년에 백제의 양봉기술이 일본으로 전수된 기록도 보인다. 그 밖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양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벌꿀은 오래전부터 인삼·녹용과 함께 귀한 영약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미국·유럽 등 양봉 관련 선진국에 비하면 과학적·기술적 뒷받침이 적어 양봉업 자체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생산력이 우수한 서양종 꿀벌(학명 *Apis mellifera*)은 1904년에 독일에서 양봉을 공부하고 돌아온 윤신영 선생과 1917년 독일인 신부 카니시우스 퀴겔겐Kügelgen, C.(1884~1964)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계통으로 분화된 서양종 꿀벌 중에서 국내에 들어온 종류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이탈리안종·카니올란종·코카시안종 등이 있는데, 공중에서 교미하는 꿀벌의 습성상 오랜 세월 동안 반복 교잡되어 현재에는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동양종 꿀벌을 12만~16만 통, 서양종을 1만~3만 통 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양봉이 침체되었다가 1956년 이래로 봉군수가 차차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 50만 통에서 2018년에는 283만 통(동양종 12만 통, 서양종 171만 통)에 이르고 있다.

내용 동양종 꿀벌은 서양종 꿀벌과 서로 다른 종의 관계에 있다. 두 종 사이에 자연 교미는 일어날 수 있지만, 번식은 하지 못한다.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수정된 알이 발육하지 못한다. 동양종은 우리나라에서 사양한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 관리 방법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농가에 전해오는 재래사양관리법은 벌들을 재래식 통

나무 벌통이나 판자로 만든 사각 통에 수용한 후 별도의 관리 없이 자연 방치하여 1~2회 꿀만 채취하는 형태로 행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서양종 꿀벌 사육기술이 동양종 관리에 도입되어 벌통의 형태와 사육사양 관리 기술에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이 원산지인 서양종 꿀벌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꿀벌 종으로 전 세계 지역에 따라 수많은 종류로 분화되어 있다. 각 지역에 적응된 고유한 서양종 꿀벌의 계통은 열대아프리카종, 북아프리카종, 서부유럽종, 지중해종 등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뉜다.

꿀벌이 꿀 1g을 만들려면 20회 외출을 하여 8,000송이의 꽃을 찾아가야 하는데, 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만 한다. 이렇게 부지런히 모은 꿀은 식량으로 사용되며, 단당류와 유기산·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설탕 대체 천연당으로 이용하며, 뉴질랜드 마누카꿀은 항균력이 좋아 기능식품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밤꿀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꿀벌은 같은 종류의 꽃만 찾아 꽃가루를 모으기 때문에 꽃가루 수분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꽃가루는 단백질 공급을 하고, 조단백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활용하였다는 클레오파트라도 이를 먹었다고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화분을 이용하였다.

꿀벌은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벌방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추우면 일벌들이 모여 발열을 하고, 더우면 날갯짓을 해 온도를 낮춘다. 애벌레당 일벌들이 하루 1,300회 정도 찾는다. 또 일벌들은 밀랍을 분비하여 10만~20만 개의 벌집을 짓는데, 최소재료와 최대강도를 나타내는 120도의 육각형 방을 만든다. 이런 밀랍은 공예품과 산업용 재료로 이용된다. 양봉산업에서 최근 산업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생산물로는 로열젤리가 있다. 암컷 애벌레가 로열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데, 여왕벌은 같은 유전체를 가진 일벌에 비하여 몸이 크고 산란능력이 생기며 수명이 길어진다. 로열젤리에는 특이단백질,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등이 함유되어 있다. 병중에 있던 교황 리오 12세가 로열젤리를 먹고 회복한 사례도 있다. 꿀벌은 집안 청결을 위하여 부지런히 청소하며, 병원체 방어를 위하여 프로폴리스를 만든다. 벌통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프로폴리스는 알을 낳기 위한 산란방을 코팅하여 무균실로 만든다. 이런 프로폴리스를 예전에는 방부제 또는 상처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치약과 화장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양봉산물 외에 고단백 영양원인 수벌 번데기가 한시적 식품원료로 허가되는 등 양봉농가의 소득 확보를 위한 기반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양봉산물을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봄철 증식 및 유밀기 외역봉의 확보 등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꿀벌은 그 생태와 습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봉군을 관리해 주면 부지런히 대자연 속으로 날아가 산야에 피어나는 각종 꽃을 찾아다니며 꽃꿀(화밀)과 꽃가루(화분)를 수집해 온다. 사람이 키우는 꿀벌은 각각 봉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여 먹이를 수집하고 애벌레를 키우며 외적을 방어하고 스스로 벌통 안의 환경을 조절하는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꿀벌 봉군의 집단생활을 돌보는 일, 즉 봉군을 사육하며 관리하는 작업이 양봉이라 할 수 있다. 양봉을 하지 않으면 농작물의 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꽃에서 나오는 꿀과 꽃가루가 수집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소실되고 만다. 따라서 양봉산업이란 농작물이나 산림과 야생식물 등에서 꿀벌이 수집한 벌꿀·로열젤리·화분·프로폴리스와 꿀벌이 분비하는 밀랍·봉독 등의 자연산물을 생산하여 가공·판매하는 한편 꿀벌 봉군을 농작물 수분을 위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설탕 원료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꽃에서 분비되는 천연자원인 꿀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꿀벌을 사육하며 이용하는 길뿐이다.

미국 농무성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에 꿀벌의 꽃가루받이 등 공익적 가치가 꿀 등 양봉 1차 생산액의 1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요 작물의 생산에 꿀벌의 기여도는 총 1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국내에서는 꿀벌이

농작물 수분작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사과·딸기 등 16개 과수와 채소류에서 약 5조 9,00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농작물 수확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양봉산업 실태조사 연구(정민국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 과수 및 채소 작물 생산에서 꿀벌의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 평가(정철의, 한국양봉학회지23-2, 한국양봉학회, 2008), 농업기술길잡이(lib.rd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최용수(崔龍守)

양수기
揚水機

정의 동력으로 물에 압력과 속도 에너지를 주어 높은 곳으로 퍼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

개관 농작물은 물과 태양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양호한 생육환경이 형성되는데, 태양에너지는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한 반면 물은 순환자원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의 물 순환상태를 판단하여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공급하고, 과잉일 때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여 예부터 용두레, 맞두레, 답차 등 간이 양수기를 이용하여 하천이나 개울물을 퍼 올려 물 관리를 하였다. 벼농사는 물이 있어야 이앙 작업을 할 수 있고, 벼가 자라는 동안에도 필요한 양의 물이 있어야 물속에 함유된 비료 성분이 벼에 흡수되어 생육 상태가 좋아지고 수확량이 증가한다. 또 논이 담수 상태이면 잡초의 번식이 억제되고 냉해를 방지하며 흙 속의 염분 등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용해시켜 연작 피해를 막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한반도에서는 1906년부터 저수지, 보, 양(배)수장, 집수암거, 관정 등을 정부 차원에서 설치하여 왔다. 특히 1967~1968년에 남부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고갈되어 '땅속의 물을 찾자.'는 구호가 나왔다. 이때 관정 5만여 개를 굴착하고 양수기를 도입하여 지하수를 퍼 올리면서 국내 양수기 생산이 촉진되었다.

내용 농업에 이용하는 양수기揚水機를 농용양수기라고 한다. 농용양수기는 1940년대부터 원심펌프가 도입 또는 생산되면서 나타났다. 저속 발동기를 이용하여 하천이나 호수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 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 농용양수기는 고정 수리시설 펌프용 양수기와 이동용 양수기로 구분할 수 있다. 농용양수기는 펌프, 스트레이너, 후드밸브, 흡입관, 게이트밸브, 배출관으로 구성되며, 농업용 펌프로는 주로 원심펌프, 모터펌프, 심정펌프를 사용한다. 원심펌프는 회전차impeller의 회전에 의해 생기는 물의 원심력으로 압력을 발생시켜 물을 퍼 올리는 것으로, 물의 낙차가 6*m* 이하인 곳에 사용한다. 원심펌프는 다른 펌프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며 고장이 적고 모래 등이 혼합된 물을 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농업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 모터를 원심펌프에 직접 연결한 모터펌프는 물의 낙차가 6*m* 이하인 관정 양수에 많이 사용하고, 심정펌프는 물의 낙차가 큰 암반 관정의 양수 시설로 이용한다.

1961년에는 3,700대의 양수기가 농업용수 양수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때는 양수기와 발동기가 무거워 한곳에 설치하여 양수 작업을 하였다. 가뭄 때는 하천이나 웅덩이 등에 물이 많지 않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수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1962~1970년까지 한해 대책 사업으로 이동용 양수기(5마력 엔진 부착) 약 4만 2,000대를 공급하였다. 이어 1972년에 한해 대책용 양수기 5만 7,000대 확보를 목표로 시·군별 양수기 보유 정수제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시·군)는 일정량의 이동용 양수기를 확보·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해 발생 시 양수기를 농가에 임대하여 현장에서 릴레이식으로 양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효율적인 한해 대책이 추진되어 양수기가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양수 작업 | 농촌진흥청

보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었고, 양수기 고장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1970년대 농업용수 개발(아산호·영산호 등)과 대규모 댐 건설(장성댐·담양댐 등), 농가에서 확보한 양수기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한해 대책용 양수기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 농가에 불하 또는 폐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8~1970년에 굴착한 관정 5만여 개는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에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관정 일부가 폐쇄되어 모터펌프 수요도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농가가 확보한 이동용 양수기는 1996년 약 40만 8,00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약 29만 3,000대만이 양수 작업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양수기는 물 관개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양(배)수장, 집수암거, 관정 등 수리시설에 설치되어 양수 작업에 쓰이고 있다. 농가가 30만여 대의 이동용 양수기를 확보하고 있어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해 대책 없는 농사로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용양수기는 1940년대부터 사용하였으며 가뭄 때에는 물을 찾아가 양수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동용 양수기 5만 7,000대 보유를 목표로 시·군별 정수제를 실시하였다. 한해 발생 시 이동식 양수기의 현장 릴레이식 양수 작업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효율적인 한해 대책이 추진되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농업기계연감(한국농업기계학회, 1972~2019), 농작업기계학(최규홍·김성민·김대철,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농정40년사-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한국의 농업기계화(박원규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1998), 한국의 농업기계화와 농업발전(박원규, 쌍용기계산업 쌍용기술연구소, 2018).

필자 박원규(朴圓奎)

양잠
養蠶

정의 견직물의 원료인 고치실과 그 밖의 다른 부산물

을 얻기 위해 누에를 치는 일.

내용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기록에 따르면 주周나라의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옮겨와서 기자조선을 세울 때 기자에 의하여 전래되었다고 한다. 문헌을 근거로 할 때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교기민이예의전잠직작(敎其民以禮儀田蠶織作)"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여 년 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뒤 삼한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누에 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발전시켰으며, 조선시대에는 1411년(태종 11)에 후비친잠后妃親蠶의 예법을 제정하여 역대 왕후가 궁중에서 누에를 치게 하였다. 1464년(세조 1)에는 종상법種桑法을 제정·공포하여 대호大戶에는 300그루, 중호中戶에는 200그루, 소호小戶에는 100그루, 빈호貧戶에는 50그루씩 심게 하였고 뽕나무를 잘못 가꾸어 말라 죽게 한 농가는 벌을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양잠養蠶에 관계된 서적도 간행하여 양잠기술을 전파시켰다. 세종 때에는 언해된 농잠서農蠶書가 있었다고 하며, 중종 때는 김안국金安國이 『잠서언해蠶書諺解』를 저술하였고, 고종 연간에는 『잠상집요蠶桑輯要』『잠상촬요蠶桑撮要』 등을 간행하였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도 누에치기와 뽕 기르기 항목이 있어 누에치기 좋은 날과 꺼리는 날, 누에 내고 미역 감기기 좋은 날, 누에가 꺼리는 것, 누에 미역 감기는 법 등을 기술하고 고치의 감별법과 누에 치는 법도 소개하였으며, 누에를 이용한 상처의 치료법도 기록하였다.



누에 기르기 | 경직도 중 부분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같이 관에서 양잠을 장려한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도 양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양잠은 누에씨(알) 보호, 누에씨 깨기, 어린누에 사육, 큰누에 사육, 누에올리기, 고치 수확으로 진행이 되며 여기에 누에 먹이원인 뽕나무 재배가 포함된다.

누에씨(알) 보호는 누에나방으로부터 교미된 알을 받아 자연온도에서 보관한다. 기온과 수온이 교차되는 11월에 잠종세척한 후 점진적으로 온도를 내려 월년종으로 보호하며, 다음 연도 봄 누에 사육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누에씨를 봄 사육시기에 맞춰 누에씨 깨기에 들어가는데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려 일률적으로 누에씨를 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알에서 갓 깨어난 누에는 개미와 모습이 흡사하여 개미누에 또는 1령 누에라 하고 첫 먹이를 주는 것을 소잠이라고 한다. 1령 누에에서 2일 정도 뽕잎을 먹고 탈피하여 2령 누에가 되며 이러한 탈피과정을 2번 반복하여 5령 누에가 되어 5령 7일 내지 8일째 먹이활동을 멈추고 누에고치를 짓기 시작한다. 이 시점을 누에올리기라고 하며, 이때 누에가 고치를 지울 수 있는 섶을 제공한다. 누에올리기가 끝나면 누에는 2일 정도 고치를 짓고 고치 안에서 번데기, 나방으로 변태하고 고치짓기 시작하여 14일 정도에 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온다. 나방은 먹이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교미를 통해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고치를 최종생산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태하여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수확된 누에고치를 열풍 건조시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태를 막는다.

옛날에는 누에를 사육하기 위하여 누에사육 공간인 누에 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온돌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서는 간이로 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누에 사육을 위해 별도의 공간과 누에사육장(잠실)을 설계하여 보급하고 있다. 누에를 사육하는 틀은 별도의 잠박을 사용하는 대신 상자육을 한다. 뽕주기 방법은 재래식에서는 일일이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뽕잎 사육을 하였으나 현대식 양잠은 노력 절감을 위해 장잠기에는 가지뽕치기를 한다. 누에고치를 짓는 공간으로 지네섶, 소나무섶 등을 사용하였으나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섶을 개발·보고하였고, 현대식 양잠에서는 회전섶 또는 백년섶을

사용하여 고치를 짓게 하고 있다. 고치섶으로부터 고치따기는 재래식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고치따기를 하였으나 현대식에서는 기계를 이용하여 고치따기와 견면 채취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누에농사를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뽕주기·누에똥갈이·누에올리기 등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누에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ICT 적용 스마트 양잠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잠업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광복 후의 정국혼란 및 6·25전쟁으로 인하여 쇠퇴하다가 1953년부터 강력한 장려시책으로 뽕밭 면적은 늘었으나 고치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 5·16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1962~1966)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제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1967~1971)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잠업 면모를 일신하여 1972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었다. 1980년에는 2억 4,4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1985년에는 2억 5,6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잠업은 농가의 부업으로 단순한 옷감 생산의 단계를 넘어 외화획득의 주요산업으로 육성·발전하게 되어 잠업 양가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누에를 치는 목적은 견직물의 원료인 고치실을 얻는 데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도 적지 않다. 누에똥[蠶糞·蠶砂]은 가축의 사료, 식물의 발근촉진제發根促進劑, 녹색염료綠色染料, 활성탄 제조 및 연필심 제조 등에 쓰이고 제사 과정에서 나오는 번데기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가축과 양어의 사료, 고급비누원료 및 식용유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누에가 죽어서 마른 것[白殭蠶], 누에고치 번데기[蠶蛹子], 두 번째 기른 누에나방[原蠶蛾], 누에똥, 누에알 낸 종이[蠶布紙], 풋고치[新綿] 등을 약으로 쓴다. 한편 누에는 적은 비용으로 동시에 대량사육이 가능하여 유전의 실험과 생리실험동물로 학문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에 기르기 | 황헌만



누에고치 선별 | 황헌만



선별된 누에고치 | 경북 상주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누에고치에서 실 뽑기 | 경북 상주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1900년 한국에서 잠사 과학 연구가 시작된 이래 60년 동안은 체계적인 시험조사표준이나 기준이 없었다. 누에 품종 육종시험 조사기준을 만들어 성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민간 육성 기관이나 외국과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게 명문화의 토대를 이룬 것은 1964년 이후부터이다. 이후 지정된 품종의 능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재시험의 필요성으로 1972년 장려잠품종 지정 및 보급요강을 만들어 장려잠품종의 자격 기준과 품종 지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대내적으로 품종육성의 내실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한국품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 잠업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육성된 국내 보급용 장려잠품종은 36품종이 육성 보급되었고 현재는 춘잠기용 9품종, 추잠기용 3품종, 춘·추 겸용 12품종으로 모두 24품종이 보급되고 있다. 누에 육종 목표는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다. 1960년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누에고치 생산량의 전성기였으므로 제사회사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사의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은 품종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력양잠의 필요성으로 육종 목표는 고능률 잠종 생산을 위한 한성품종, 누에가 강건하고, 고치 품질이 우수한 강건성 품종, 노력 절감을 위한 애누에 인공사료사육에 적합한 품종 육성이었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누에 육종 목표는 기능성 품종 또는 특수용도 품종 육성에 있다. 고급생사 생산을 위한 세섬도 품종, 누에가루 생산용 비대충체 품종, 동충하초생산용 나용품종, 암수구분이 쉬운 한성품종, 황색실크 생산용 골든실크, 연녹잠 등이 특수 용도로 육성된 품종들이다. 이러한 특수용도 잠품종 육성은 용도별 유전자원을 도입, 새로운 고부가가치품종 등 용도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품종의 육성 및 이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새 잠업기술과 경영(농촌진흥청·대한잠사회, 1989), 최신양잠(농업전문대학교재편찬위원회 편, 교학연구사, 1985), 한국 잠사기술 발달 100년사(한국잠사학회·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go.kr).

필자 김기영(金基榮)

양잠경험촬요
養蠶經驗撮要

정의 1415년(태종 15) 한상덕韓尙德이 왕의 뜻을 받들어 중국의 잠서蠶書를 이두吏讀로 쉽게 풀이하여 편찬한 전문 농서.

역사 이 책에는 '번역'이라는 말(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한글 제정 이전으로서 평민들까지도 해독에 도움이 되도록 이두문吏讀文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은 초록과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본母本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12월 을해 첫 번째 기사에 밝혀진바, 원나라 사농사司農司가 집필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모본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元朝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雅, 人人未易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鄕曲小民無不知之. 上從之).

『농상집요』는 1273년에 중국 원나라의 대사농사大司農司들이 편찬하여 만든 관서官序로서의 종합 농서이다. 편찬자는 고려시대에도 출사出使한 적이 있는 맹기孟祺를 비롯한 창사문暢師文, 묘호겸苗好謙, 장문겸張文謙 등이다. 고려 말기에 세계적인 인쇄술에 힘입어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복간된 적이 있다. 고려 때 이암李嵒이 충정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하면서 이 책을 가져와 이듬해인 1349년에 국내에서 복간하였고, 1372년에는 목은 이색李穡의 후서後序가 붙은 복간본이 경남 합천에서 출판되었다. 이 복간본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지만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농사 부분과 양잠 부분으로 나누어 읽기 쉽도록 왕명으로 이두문 국역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전자는 이행李行과 곽존중郭存中의 『농서집요農書輯要』(1415)로 편찬되었고 후자는 한상덕의 『양잠경험촬요』로 편찬되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초록과 번역을 맡은 한상덕은 태종 14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 우대언右代言이란 벼슬에 있었다. 대언이라는 관직은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 보는 승정원 승지의 별칭이며, 이런 명칭은 고려시대인 1310년(충성왕 2)부터 1369년(공민왕 18)까지 사용된 적이 있고, 조선에 이르러서는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 9월까지

32년간 사용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식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보다 15년가량 앞서 발간된 전문 농서이다. 비록 재상栽桑 부분이 제외되었고 우리의 독창적인 양잠 기술론이 아닌 이두 번역본이며 종합 농서가 아니지만, 현존하는 우리나라 잠서蠶書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산물이다. 이 책은 통문관通文館 이겸로李謙魯가 소장하고 있으며, 『역사학보』 권28과 『잠사학고전연구』(김영진, 1972) 등에 해제解題가 쓰여 있고 『잠사학고전연구』에는 전문全文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말미의 간기刊記 3장을 포함하여 전체 44장에 불과하며, 인본印本으로 되어 있다.

내용 이 책의 경주판본慶州板本 겉표지 표제에는 '양잠경養蠶經'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표지 책명으로는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라고 쓰여 있다. 제11·19·32장은 결장되었다. 책의 끝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간기刊記에는 "우대언 한상덕이 왕(조선 태종)의 뜻을 받들어 앞서 세상에 빛을 보고 있는 (중국의) 잠서를 풀이하고,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안등安騰이 각수刻手(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기능공)를 모집하여 1415년에 간행 사업을 끝마치고 이 책을 전국 모든 군郡에 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양잠경험촬요』는 『농상집요』 권4 누에치기편[養蠶篇]에 수록된 잠사 준비, 잠실 수리 및 관리, 변색, 개미누에 깨기, 개미누에 떨기, 온도, 누에치기, 자리 넓히기, 똥 갈이, 잠사잡록蠶事雜錄, 누에섶에 올리기, 실 켜기 등의 방법을 5분의 1 분량으로 압축·선별하여 초록하고 이두문으로 번역한 우리의 최초 양잠 전문서이다. '촬요撮要'라는 말은 '가려내서 요약한다'라는 뜻이므로 『양잠경험촬요』는 『농상집요』에서 요긴한 내용을 '촬요'하여 편찬한 셈이다. 그러나 『농상집요』의 제3권 뽕나무 재배 부분에 수록된 뽕나무 종자, 오디심기, 지상地桑, 옮겨심기, 가지휘묻이, 의상義桑, 뽕나무 잡류, 구지뽕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초록하지 않았다.

이 책은 앞서 열거한 『농상집요』의 양잠편 여러 항목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총론 격인 잠성蠶性을 풀이하고 이어서 종자 거두기, 교합, 욕련과 잠종의 저장, 양잠을 위한 준비사항, 즉 뽕잎가루·콩가루·쌀가루·소똥·깔짚·발·자리 등의 준비, 최청, 소잠, 육잠 자리 넓히기, 똥 갈이, 잠병, 상족 등에 대하여 비교적 부족함이 없이 상세한 요점으로 발췌·기록하였다. 말미에는 누에가 꺼리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초록하였고, 『농상집요』의 권1에 기술된 전훈典訓의 두 번째 항인 잠사기본蠶事起本 가운데 선잠先蠶의 당집과 잠신蠶神에 제사하는 유래나 관례를 설명하였다.

특징 및 의의 『양잠경험촬요』와 『농서집요』는 한글 창제 이전 같은 시기에 왕명으로 중국 원나라의 대표적 종합 농서인 『농상집요』를 양잠과 작물농사 부분으로 나누어 초록하고 이두문으로 편찬·보급한 각각의 최초 전문 농서라 할 수 있다. 『양잠경험촬요』에서 뽕나무 재배에 관한 내용을 통째로 번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양잠이 들뽕나무나 산뽕나무에 의지한 탓으로 추측된다. 중국 원나라의 대표 농서 『농상집요』가 우리나라(고려)에서 복간되었음에도 한문으로 쓰여 많은 농민들에게 읽히지 못한바, 『양잠경험촬요』는 농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두문으로 간결하게 발췌·요약한 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농상집요(대사농, 구자옥 역, 농촌진흥청, 2008),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구자옥(具滋玉)

양전제
量田制

정의 근대 이전에 중앙정부가 전답田畓을 대상으로 필지마다 면적, 전품田品, 기진起陳 등 토지와 관련된 정보와 전주田主, 작인作人 등을 조사한 제도.

개관 근대 이전에 국가에서 마련하여 시행한 양전제量田制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전세 등 부세 수취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전量田 또는 타량打量이라는 토지조사를 통해 전답의 면적, 비옥

도에 따른 토지 등급, 기경起耕과 진황陳荒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전주田主와 작인作人 등 부세 부담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였다. 양전의 시행을 통해 획득한 토지와 조세 부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양전의 대상은 전체 토지가 아니라 기경起耕되었던 전답田畓과 가대家垈(건물 대지) 등으로 진전陳田을 포함하였다.

한국에서 양전의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양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부제結負制 시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결부제는 토지 측량과 관련하여 양전量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곡물 소출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헤아릴 때 관행적으로 사용한 부負나 속束을 토지의 비척肥瘠과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面積을 재는 단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직접적인 양전 관련 자료는 '개선사석등기開仙寺石燈記'에 새겨져 전해지는 신라 하대下代의 전권田券(밭문서)이다. 토지가 위치한 촌락의 행정명(석보평石保坪), 구체적인 소지역 단위 명칭(대업大業), 토지 위치의 특색(수리시설에 인접한 토지: 저답渚畓, 그렇지 못한 토지: 오답奧畓), 결수結數, 토지 필지 숫자(규畦), 사방 경계 등을 기록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전품을 파악하고 전결수田結數를 파악하여, 전조田租를 징수하기 위한 기초 조사작업으로 양전이 시행되었다. 당시 1결의 면적이 방方 즉 사방 33보步였는데, 상중하上中下 등급을 막론하고 절대 면적은 일정하였다. 고려시대 양전제의 기본수치인 1결의 실제 면적을 1만 7,000평으로 보는 견해(김용섭)와 1,500~1,600평(이우태)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정부는 전품田品을 나누고, 그에 따라 수세량에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양전과 수세 방식을 동적이세同積異稅 방식이라고 한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상중하 토지 등급에 따라 실제 토지의 면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양전量田이 수행되고 수조收租가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양전과 수세방식을 이적동세異積同稅 방식이라고 한다.

고려의 양전 기록은『고려사高麗史』식화지 경리조에 몇 차례 시행기록이 보인다. 그리고『약목군정도사석탑조성형지기若木郡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고려 양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955년(광종 6) 양전사量田使가 하전下典(산사算士 등을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그 이전의 양전대장(도행導行)을 토대로 양전을 실시하였다. 당시 양전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토지소유주, 전품, 토지의 형태, 양전의 방향, 토지의 위치(사표四標), 양전척의 단위, 넓이, 결수 등이었다.

내용 조선 전기 이래 여러 차례 수행된 양전을 통하여 원장부原帳付 결수結數를 파악하여 양안量案에 기재하였다. 양전을 시행할 때 실행하는 규정은 세종 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는데 1443년(세종 25) 11월 하삼도下三道에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전품田品을 조사할 당시에는 분전품사목分田品事目을, 같은 해 11월 경기도 안산安山에서 양전을 시범 시행하였을 때는 양전사목量田事目을 마련하여 지침서로 삼았다. 또한 당시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공법 개혁을 주도하면서 양전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 있기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된 양전 규정을 보면 20년마다 1회의 양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양안을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각각 보관하게 하였다. 또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각각 양전척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방 1척을 파把라고 하고 10파把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하였다. 그리고 매년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 하였다.

15세기 중후반 전제상정소에서 양전 규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인데, 6개의 양전척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1등전을 측량하는 양전척만 이용하여 측량하고 이를 6등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등전 1부는 2등전 8속5파, 3등전 7속, 4등전 5속5파, 5등전 4속, 6등전 2속5파로 각각 환산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이전의 150만여 결에서 170만여 결에 이르는 8도八道의 시기전결時起田結이 크게 줄었다.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시기결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1603(선조 36)~1604년 사이에 전국적인 규모로 계묘양전癸卯量田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634년에 삼남三南지역을 대상으로 갑술양전甲戌量田이 실시되었다. 1719년부터 1720년까지 기해己亥·경자양전庚

子量田이 삼남三南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경자양전 이후 8도의 전결은 139만 5,333결, 삼남 지방은 97만 1,971결로 크게 증가되었다.

영조 대 이후 양전은 도 단위의 대규모 양전이 시행되지 못하고,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군현郡縣 단위로 시행되었다. 순조 대인 1819~1820년에는 전라도·경상도에 양전을 실시하기 위해 새로 양전사목을 만들어 경상도 몇 개 군에서 시험적인 양전이 행해졌지만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말았다.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황제권 강화라는 방향에서 추진된 대한제국 농업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양전量田사업과 지계地契 발급사업이었다. 양전·지계사업은 갑오·을미년에 추진된 조세금납화, 예산제도 채택 등 재정개혁의 대부분을 계승하고 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실시된 것이었다. 1898년 양전·지계사업을 담당할 기구가 만들어졌고, 1899년 충남 아산에서 첫 양전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뭄 피해 등으로 양전이 일시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1901년 7월까지 양전을 마친 군郡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양전을 실시한 곳은 경기 15군, 충북 17군, 충남 22군, 전북 14군, 전남 16군, 경북 27군, 경남 10군, 황해 3군으로 모두 124군이었다.

전답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생긴 모양대로 도형의 명칭을 정하여 양안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광무양전에서는 전답의 주主 기재방식에서 시주時主(소유자)와 시작時作(소작인)을 함께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필지의 면적을 표기하는 방식도 결부結負로 나타내는 것에서 벗어나 농촌사회에서 각 필지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두락斗落과 일경日耕이라는 수치도 기록하였다.

또한 매매 등을 통해 빈번히 변동하는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계地契가 발행되어야 했다. 양전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지계 발급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1901년 10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계아문이 설치되었다. 지계 발급은 토지소유권자를 확인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양전사업의 의의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었다. 1902년 3월부터 양전을 재개하는 한편 지계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3년까지 모두 218개 군의 양전이 완료되었으며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지계 발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04년 1월 불필요한 관서를 정리하라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지계아문이 폐지되면서 2월에는 충남 청양 정산에서 지계발급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양전·지계사업은 지세제도의 개혁과 그것을 통한 근대화사업의 재원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의 양전은 각 필지의 결부수와 부세 부담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세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양전의 담당자는 지역별 행정·사법의 책임자인 수령守令들이었다. 도道 단위로 수행된 양전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각 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조선 전기) 또는 균전사均田使·양전사量田使(조선 후기)의 책임 하에 각 군현을 단위로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양안 가운데 1720년의 경자양안庚子量案을 통해서 양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필지를 크게 구획시키기 위한 자호字號, 필지마다 부여한 지번地番, 앞서 측량한 필지로부터 파악한 해당 필지의 동서남북 방향犯, 토지등급, 지형地形,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 경작 진황 여부(기진起陳),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 정보(주명主命, 작인명作人名, 기타 난 외에 기재된 특기사항 등)가 그것이다.

전근대 시기의 양전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특징 이외에 전세 부과의 불균등을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토지조사 당시의 전답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양안에 기재할 경우 이전 양전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가경지可耕地, 이전 양안에서 누락되어 있던 은루결隱漏結 등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고문헌 17·18세기 양전사업 연구(오인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민음사, 1995), 조선전기 토지제도사 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혜안, 2008), 조선후기농업사연구1(김용섭, 일조각, 1970).

필자 염정섭(廉定燮)

양파

정의 백합과의 두해살이풀로, 땅속의 비늘줄기가 매운맛과 특이한 향기가 있어서 널리 식용하는 식물.

개관 양파*Allium cepa L.*는 서아시아 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라고 추측되고 있으나 아직 야생종이 발견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옥파' 또는 '둥근파'로 불리다가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는 의미로 '양洋파'로 불리고 있다.

초기에 국내에서 재배한 양파 품종은 미국과 일본에서 도입하였으나 미국에서 도입된 것들은 대부분 고위도 지역의 봄뿌림재배 품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정식하는 재배 형태에서는 월동 후 추대가 많이 발생하여 주로 일본에서 도입한 것을 썼다. 일본이 미국에서 옐로댄버스Yellow Danvers를 도입하여 육성한 천주황과 패총조생 품종이 주요 품종이었다.

내용 양파는 저온에는 비교적 강하나 고온에는 약한 작물로, 사양토부터 식토에 이르기까지 재배적응성이 광범위하지만 산성토양에서는 생장이 어려운 작물이다. 가을뿌림재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해 길이가 길고 기온도 일찍 상승하는 제주 및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구의 생장에 요구되는 해 길이가 짧고 온도도 낮은 조건에서 구의 생장이 가능한 극조생 또는 조생종 품종이 적합하며, 반대로 기온의 상승이 늦은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구의 생장에 요구되는 해 길이가 길고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 생장이 이루어지는 중생 또는 중만생 품종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파종 시기는 재배지역의 하루 평균 기온이 15℃가 되는 날에서 육묘 기간을 거꾸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45일부터 55일 정도의 육묘 기간이 소요된다. 추위가 일찍 오는 내륙지방일수록 조기 정식하여 추위가 오기 전에 충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파종도 빨리하며, 품종별로는 조기 수확하는 조생종 품종일수록 파종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가을뿌림작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작형이다. 8월 중순~9월 중순에 파종하여 10월 상순~11월 상순에 정식한 후 이듬해 4~6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제주를 비롯하여 남부지방과 내륙지방까지 적용할 수 있다.

양파는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 가운데 하나로 비료의 효과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질소질 비료를 기준량보다 많이 주거나 웃거름을 늦게까지 줄 경우 구의 성장 및 수확기가 늦어지고 저장성도 약해진다. 육묘 후 본 밭에 심는 것도 심는 지역이 내륙지방일수록, 조생종일수록 빨라진다. 정식한 후에 기온이 계속 낮아지므로 뿌리의 발육이 충분하지 못하여 월동 중 동해나 건조피해를 받기 쉬우며, 반대로 정식이 적기보다 빠르면 월동 전에 식물체가 너무 크게 자라 분구 및 추대가 많아지기 쉬우므로 적기에 아주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한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특히 겨울을 지나는 동안 가뭄이 심하여 토양이 건조해지면 얼어 죽기 쉬우므로, 겨울이라도 토양이 건조



양파 모종 심기 | 경남 합천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양파 수확 | 경남 합천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하면 따뜻한 날을 골라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양파는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구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에 건조하면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7~10일 간격으로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한다.

수확기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잎이 나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잎이 커지면서 잎집 속에 공간이 생겨 지상부의 잎의 무게에 의해 스스로 넘어진다. 이를 도복이라 하며, 수확 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도복이 시작될 때 양파는 구가 현저하게 커지며, 도복 후에도 잎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씩 커져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수확이 늦어질수록 저장 중 맹아와 부패가 증가한다. 도복 후 7~10일이 지나 잎이 30%쯤 말랐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특징 및 의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파가 재배된 시기는 6·25전쟁 이후 일본에서 양파 종자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한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을 선발 증식하다가 원예시험장에서 1960년대 이후 양파 유전자원과 육성계통들을 종묘회사에 분양하면서 종묘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양파 교배종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숙기·색깔·모양 등이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수량성과 저장성·균일성이 우수한 품종의 개발이 이어져 왔고, 교배종 품종들이 많이 육성·보급되고 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의 연구 등을 통해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려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백합과채소재배기술(이우승 외,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양파(농촌진흥청, 2018), 두피디아(doopedia.c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한지원(韓智媛)

양화소록
養花小錄

정의 15세기 중반에 강희안姜希顔이 화훼花卉(식물)의 재배법을 정리하여 편찬한 원예서.



양화소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개관 강희안(1417~1464)은 세종 대에 과거에 급한 이후 집현전 직제학과 황해감사 등을 역임한 학자이자 관료이다. 강희안은 당대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시문詩文을 모아 정리한 문집은 남아 있지 않다. 강희안 사후 10년이 지난 1474년에 동생 강희맹姜希孟이 출판한 『진산세고晉山世稿』 4권 1책 중 권4에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실려 있다. 『진산세고』는 강희맹이 자신의 형인 강희안, 조부 강회백姜淮伯, 선친 강석덕姜碩德의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양화소록』에 붙어 있는 강희맹의 서문을 보면, 자신의 형이 죽은 뒤에 형이 관리하던 화원花園을 방문한 후 『양화소록』 유고遺稿를 얻어 『진산세고』의 말미에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이 관직 생활 중 직무가 그리 많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양화養花, 즉 꽃 기르기에 집중하면서 문헌 탐색과 실제 경험 그리고 견문見聞 등을 엮어서 만들었다. 강희안은 양화에 능숙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친우들이 특이한 수목을 얻으면 꼭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강희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목樹木과 화훼花卉의 성격, 각각의 재배법 등을 익히고 이를 기록하여 『양화소록』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 『양화소록』 본문에 관상용 꽃과 나무 수십 종의 성격과 의미, 재배법과 이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본문의 서술 차례를 보면 노송老松, 만년송萬年松, 오반죽烏班竹, 국화菊花, 매화梅花, 난혜蘭惠(보춘화), 서향화瑞香花,

연화蓮花, 석류화石榴花, 백엽百葉(석류화 일종), 치자화梔子花, 사계화四季花, 월계화月桂花, 산다화山茶花(동백), 자미화紫薇花(백일홍), 일본척촉화日本躑躅花(영산홍), 귤수橘樹(귤나무), 석창포石菖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해당 화목花木의 재배법 일반을 설명하고 한 행을 낮추어 조선의 특이한 사항, 강희안 개인의 경험, 견문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일본척촉화의 경우 1441년(세종 23)에 일본에서 바친 화분 몇 개를 뜰에서 기르게 하였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괴석怪石을 설명하면서 돌 위에 이끼가 자라게 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화분花盆에 화수花樹를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진 흙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꽃을 빨리 피우게 만드는 최화법催花法에서는 마분馬糞을 물에 담갔다가 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꽃이 꺼리는 것을 소개한 백화기의百花忌宜에서는 오징어뼈로 꽃나무를 찌르면 바로 죽고, 효자나 임신부가 꽃나무를 손으로 꺾으면 수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취화훼법取花卉法에서는 화훼를 키우는 것이 심지心志를 북돋우는 것 외에 덕성德性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양화법養花法에서는 꽃나무를 담장이나 울타리 아래 오래 두지 말고, 거미줄이 쳐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배화분법排花盆法에서는 그늘과 볕이 번갈아 드는 곳에 화분을 두어야 한다는 점, 키가 크고 작은 것을 잘 맞추어 배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수장법收藏法에서는 움집을 만들 때 햇빛이 잘 들고 높고 건조한 곳을 가려 흙을 쌓으며, 남쪽으로 창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양화해養花解는 꽃을 키우는 이유에 대한 유학적 고찰이다. 강희안은 화훼를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화목花木의 물성物性을 법도로 하여 나의 덕德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물이 천성에 따라야만 싱싱하게 자라나 참모습을 피워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을 애타게 하고 몸을 괴롭혀 천성을 어기고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강희안의 학문관과 가치관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양화소록』의 서술 내용에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양화소록』에 보이는 화훼 기술은 15세기 중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화훼의 완상이 크게 유행하여 화훼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양화소록』의 내용이 크게 참고가 되었다. 『양화소록』의 화훼기술 서술은 꽃의 내력을 살피고 여러 품종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번식법 중심의 재배법, 국화에서 두 빛깔의 꽃이 피게 하는 기술, 괴석에 이끼를 자라게 하는 방법, 석류나무의 나무 형태를 바로잡는 방법 등이 소개된 점 등이 서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1474년 출간된 조선 최초의 전문 화훼서로, 일본의 원예학과 본초학에도 영향을 준 책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원예서로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해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완상玩賞하여 온 꽃과 나무 몇십 종을 들어 그 재배법과 이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 책은 꽃과 나무의 품격 그리고 그 의미와 상징성을 기술한 원예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편찬된 농서農書를 주요 곡물의 기술체계를 서술한 책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화훼·수목·약초·목양 등에 관한 지식 및 견문을 수록한 책까지 확장하여 살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養花小錄, 양화소록-선비화가의 꽃 기르는 마음(서윤희·이경록 역, 눌와, 1999),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어레미

정의 곡물의 알갱이나 그 가공물 또는 모래나 흙 등을 크기에 따라 선별하거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도구.

개관 어레미는 곡물의 알갱이를 비롯하여 떡고물, 메밀가루 등과 같은 가공물, 또는 모래나 흙 등을 크기에 따라 선별하거나 불순물을 걸러낼 때 쓰는 도구이다.

어레미의 구조는 대체로 쳇바퀴와 쳇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잡아주는 쳇바퀴는 보통 얇게 켠 나무나 대를 동그랗게 말아 만들고 밑바닥에 쳇불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완성한다. 용도에 따라 사각형의 쳇바퀴가 쓰이기도 하며,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있다. 쳇불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물을 일컫는데, 어레미의 쳇불은 대를 가늘게 쪼갠 대오리, 철사, 칡넝쿨, 등나무로 메워 썼다.

어레미의 원리는 쳇불의 작은 구멍으로 알갱이 등을 통과시켜 입자가 작은 것은 빠져나가고 입자가 큰 것은 걸러지게 하는 방식이다. 체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알갱이나 가루가 빠져나가는 쳇불 구멍의 크기가 3㎜ 이상 되는 것을 따로 어레미라고 한다. 어레미보다 구멍이 작은 체는 말총, 천, 철사 등으로 쳇불을 정교하게 메워 썼으며, 작은 곡물을 선별하거나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였다. 어레미의 형제라 할 수 있는 체의 종류에는 좁쌀이나 쌀의 뉘를 고를 때 쓰는 '도드미', 떡가루를 치거나 시루편을 만들 때 떡가루를 물에 섞어 비비며 내리는 '중거리', 송편가루를 내리는 데 쓰는 '가루체', 술을 거를 때 쓰는 '고운체' 등이 있다.

내용 어레미는 농사나 살림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세간으로, 웬만한 집에서는 꼭 갖추어야 했던 도구이다. 용도에 따라 구멍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데, 주로 콩이나 팥과 같은 알갱이가 큰 곡물을 불순물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콩보다 작은 불순물은 쳇불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콩을 가려내고 어레미에 남아있는 큰 깍지나 불순물은 키에 담아 바람을 등지고 키질을 하여 걸러냈다. 지역에 따라서는 쳇바퀴가 깊지 않게 대를 쪼개 서너 겹으로 둥글게 만들고 칡넝쿨, 등나무 등으로 쳇불을 거칠게 메워 곡물을 털고 남은 검불 등을 거르는 데 쓰기도 하였다.



어레미 | 지름53 높이8 | 국립민속박물관

도랑이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레미가 사용되었다. 도랑물의 흐름을 막듯이 어레미를 비스듬히 받쳐놓고 위에서부터 양쪽의 수풀을 발로 밟으면서 어레미 쪽으로 물고기를 몰아 붕어나 미꾸라지를 잡았다. 개울의 수풀에 숨어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레미를 받쳐놓고 수풀을 자근자근 밟으면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어레미에 걸려든다.

공사장에서 모래나 흙을 거를 때도 어레미가 사용되었다. 이때는 사각형 틀에 굵은 철사로 쳇불을 메운 어레미를 썼는데, 받침대에 어레미를 걸어놓고 혼자 밀고 당기거나 양쪽 끝에 손잡이를 달아 두 사람이 밀고 당겨서 굵은 모래, 자갈, 흙덩이, 검부러기 따위를 걸러냈다. 또한 어레미를 비스듬히 세워 놓고 삽으로 모래나 흙을 뿌려 고운 것을 쳐내기도 하고, 곡식 검부러기에서 알곡을 걸러내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섣달그믐이나 정초에 '야광귀夜光鬼'라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기둥이나 벽에 어레미나 체를 걸어 두는 풍습이 있었다. 야광귀가 어레미 쳇불 구멍을 세어보다가 너무 많아 날이 밝을 때까지 다 세지 못해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특징 및 의의 요즘에는 대오리나 칡넝쿨 같은 것으로 얼키설키 엮어 만든 어레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농사나 살림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도구였다. 체, 키 등과 함께 수확한 곡물을 선별하거나 불순물을 거르는 데 유용하게 쓰였으며, 식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도구였다. 모판에 깔 고운 흙을 거르거나 공사판에서 모래를 칠 때, 개울에서 천렵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다. 지금은 외딴 시골에나 가야 헛간 한 귀퉁이에 세월의 더께를 뒤집어쓴 채 걸려있는 케케묵은 어레미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물건이 되었지만, 우리 농경문화의 한 영역을 담당해온 소중한 도구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농업과학관 전시물로 이해하는 한국의 전통 농기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014),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디지털김제문화대전(gimje.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명철(鄭明哲)

어리

정의 대나무나 싸릿대를 엮어 만든 것으로 병아리를 가두어 두는 작은 우리.

개관 농가에서는 예부터 돼지나 염소·닭 등을 길러 농가 부업으로 삼아 왔다. 그중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놓아 기르기에 적당한 가축이 닭이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 병아리가 부화하면 이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기르는 장치가 어리였다. 농가에서 어리통을 만들어 어미 닭과 병아리를 넣어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병아리들을 그냥 방사하면 어미를 따라 채소밭에 들어가 밭을 파헤치거나 채소를 건드리고, 간혹 수채나 시궁창에 빠져 죽기도 한다. 그리고 뱀이나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수리나 새매에게 채여 가기도 한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어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용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 대나무로 엮어 만든 통을 어리라 하는데, '어리'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혹자는 병아리에서 '아리'만 취하였다가 이것이 '어리'로 변전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어리의 명칭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충북에서는 '종두리'라 하고 전라도에서는 '가리'나 '달구가리'라 하며 전라남도 중에서도 구례에서는 '달구어까리'라 한다. 또 동부 경남 지역에서는 '달우리'라 하고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삐가리통' 혹은 '병아리통'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병아리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리 | 지름63 높이56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어리 | 경직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어리를 만드는 재료로는 대나무 혹은 싸리나무를 많이 이용한다.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바구니 형태로 엮어서 만드는데 먼저 얼개의 지주가 될 만한 굵은 대쪽을 여섯 개 정도 ∪자형으로 휘어서 세로로 세워 벌려 놓고 여기다가 잘게 쪼갠 대나무살을 가로로 끼워 넣으면서 얽어 나간다. 마지막 마무리는 벼릿줄처럼 큰 대나무를 대어서 원통형으로 마감한다. 싸리나무를 이용해서 만들 때도 만드는 방법은 거의 같은데, 싸리나무의 굵기가 적당한 것으로 준비하여 이것을 쪼개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여 엮는다. 이때 가는 새끼를 준비하여 기둥 역할을 하는 세로대와 가로로 끼워 넣는 나무를 교차하여 고정되도록 얽어맨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원통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원뿔형으로 위가 좁아지게 만들기도 한다. 어리는 병아리뿐만 아니라 어미 닭까지 가두어 두기도 한다. 간혹 앞쪽에 문을 만들어 어미 닭이 내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다.

닭들을 단순히 가두는 용도로 쓸 때는 어리의 밑바닥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넣어 이동용으로 쓸 것은 밑바닥까지 만들어 닭들이 온전히 갇히도록 해야 한다. 닭장수들이 지고 다니는 길쭉한 어리통은 여러 마리의 닭들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가운데에 네모 모양의 출입문이 뚫려 있다. 통 안에는 닭들이 앉을

수 있게 대나무를 가로질러 홰를 만들어 두었다. 이 긴 대나무 통을 지게에 걸치고 닭을 팔러 다니기도 하고, 집에서는 닭집용으로 비치해 두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어리는 병아리를 가두어 키우는 보호 장치이다. 이것은 농촌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나 싸리로 만들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만들기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현지조사자료(이상훈, 경북 청도, 2011. 8. 10.), 농촌진흥청(facebook.com/rda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배도식(裵桃植)

얼루기

정의 바로 거둬들인 마르지 않은 곡식을 탈곡하기 전까지 말리기 위하여 야외에 나무로 설치한 간이 건조시설물.

내용 벼, 보리, 밀, 조, 콩, 팥 등을 들에서 거둬들이면 곧바로 탈곡하기 어렵다. 마르지 않은 생곡生穀 상태라 바로 타작하면 탈곡이 쉽지 않을뿐더러 알곡에 금이 가거나 알곡이 깨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수확한 생곡은 잘 말린 후 적당히 맑은 날을 잡아서 타작한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수확 곡식을 한꺼번에 말리기가 쉽지 않다. 벼의 경우 수확한 논에다가 볏단을 만들어 서로 기대놓아 타작 때까지 말리는 사례가 많지만, 밭작물은 작물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야외 간이 건조시설인 얼루기를 사용한다. 얼루기는 달리 얼룩, 어리, 교간喬杆, 항筻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농가에 비를 피해 곡식을 말릴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야외 간이 건조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농가는 대개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거두어들인 곡식을 안전하게 말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강원도 등지의 산간지방에서는 들판에 얼루기를 설치하고 곡식을 쟁여 말렸다.

얼루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서까래와 유사한 굵기의 길이가 6자 정도 되는 나무를 아래는 넓게 퍼지고 위는 가운데로 모이는 원뿔 혹은 사각뿔 형태로 설치하고, 그 중간에 새끼나 칡 끈 등으로 엮거나 드문드문 얽어매어 나무들을 서로 연결하는 테를 두른다. 이 테는 얼루기의 형태와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하고, 곡식을 쟁였을 때 걸치게 되는 지지대 역할도 한다. 그리고 맨 위 꼭대기는 짚이나 삼대로 용수 모양의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다. 이 주저리로 인해 비가 내려도 얼루기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러한 얼루기는 보통 8개 정도의 서까래로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얼루기에 곡식을 쟁이는 방법은 아래에서부터 얼루기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삭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단을 지어 차곡차곡 쌓는다. 다만 얼루기 가운데 부분에도 통풍될 수 있도록 전체를 완전히 돌려 쌓지 않고 일정 공간은 비워 둔다. 얼루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므로 쟁인 곡식의 모습도 그렇게 된다. 곡식을 쌓는 방식은 볏짚을 이용하여 초가지붕을 이는 것과 흡사하다.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빗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면서 곡식을 쌓는 방법이 그러하고, 얼루기 맨 꼭대기의 주저리가 초가지붕의 용마름 역할을



얼루기 | 강원 | 1990년대 | 황헌만

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래서 얼루기는 비가 내려도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겉으로 흘러내려 곡식이 젖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는 등의 문제가 없다. 비가 오면 겉만 조금 젖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자연 건조된다. 곡식이 충분하게 건조되면 헐어서 타작하는데, 그 후 얼루기는 해체한다.

특징 및 의의 얼루기는 건조기나 건조시설 공간이 부족할 때 야외에 급히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전통사회의 건조용 시설물이다. 특히 산간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야외용 곡식 말리는 연장이다. 들에서 곡식을 베어서 바로 집으로 운반하면 무겁기도 하고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들에 임시로 간편하게 건조대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바로 얼루기이다. 비바람이 칠 수 있는 야외에 간편하게 설치하는 것이어서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해마다 새로 세워서 사용하였다. 농가에 건조기가 많이 보급되고 건조시설 또한 많이 지어지면서 얼루기의 사용은 산간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개별 농가 차원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및 공공 차원에서 수매방식의 변화나 대규모 첨단건조시설의 확충 등으로 얼루기의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호(金在浩)

여물바가지

정의 소나 말에게 먹일 여물을 끓여서 퍼 담을 때 쓰는 바가지.

개관 쇠죽솥에서 끓인 여물을 퍼 담을 때 바가지를 이용한다. 바가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나무로 만든 여물바가지를 많이 쓴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는 '여물바가지'라는 말보다 '쇠죽바가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여물이란 끓인 것도 여물이지만, 아직 끓이지 않은 썬 짚도 여물이라 불러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쇠죽이라고 하면 이미 끓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뜻이 명확해진다.

내용 여물바가지도 바가지인 것은 분명한데, 자고로 진짜 바가지는 박에서 생산된 그릇이었다. 초가집 지붕에 둥그렇게 잘 익은 박을 따서 반으로 쪼개고, 속을 파낸 후에 잘 삶는다. 그리고 바가지 속살을 제거한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에서 천천히 말린다. 급하다고 햇볕에 말리면 박이 오그라들거나 터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가지는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물바가지나 곡식바가지로 가장 많이 쓰였다. 큰 바가지 외에 조롱박이라는 작은 모양의 바가지도 있었는데, 이를 완구용으로나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였고, 이것을 쪼개어 물을 마시는 쪽박으로도 사용하였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어린아이들이 이 호리병을 차고 다니다가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몰래 버려 액운을 방지하는 주술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물을 퍼 담는 여물바가지는 박바가지를 쓰기도 하였지만 뜨거운 쇠죽을 담기에는 견고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고안한 것이 나무바가지였다. 재료로는 뜨거운 온도에도 잘 견디는 박달나무를 선호하였고, 밤나무나 소나무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통나무를 긴 토막으로 잘라 세로로 켜고 이를 바가지 모양으로 형태를 잡은 후에 가운데를 움푹하게 파내고 자체에서



여물바가지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손잡이를 깎아 내는 것이다. 바가지 몸체와 손잡이는 한 몸체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잡이를 따로 붙인 것은 아니다. 바가지의 안쪽을 움푹하게 파내는 연장에는 자귀·끌·후비칼 등이 쓰인다. 후비칼은 둥글게 오그라든 칼날이 붙은 연장으로 나무를 움푹하게 파내는 데 용이하다.

나무바가지의 모양은 바가지 통이 원형이나 타원형 그리고 드물게 장방형의 것도 있는데, 장방형의 앞부분이 터진 것도 있다. 이런 것은 쓰레받기처럼 앞쪽으로 쓸어 담기에 편하다. 크기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대체로 바가지 통의 지름은 25~30㎝, 높이는 12~15㎝, 손잡이의 길이는 20~30㎝ 정도이다. 손잡이가 긴 이유는 쇠죽이 뜨거우니까 멀찌감치 잡기 위해서이다.

여물바가지는 끓인 여물을 퍼내는 데에도 쓰지만, 여물을 끓이기 위해 썰어 놓은 짚여물을 퍼서 솥에 넣을 때도 쓴다. 농가에서는 틈이 나는 대로 짚을 썰어 여물을 만들어 여물 뒤주나 상자에 담아 헛간에 보관해 둔다.

특징 및 의의 쇠죽을 끓일 때도, 끓여서 퍼낼 때도 여물바가지는 용이하게 쓰였다. 여물바가지의 모양은 바가지 몸에서 손잡이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야 여물 뒤주에서 퍼 담을 때에 편하고, 또 끓여서 퍼 담을 때에도 덜 뜨거워서 좋다. 쇠죽솥에 등겨나 밀기울을 퍼 담아 넣을 때도 여물바가지가 쓰였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농기구(박대순, 대원사, 2004),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농촌진흥청(facebook.com/rdakorea).

필자 배도식(裵桃植)

연자방아

정의 맷돌의 일종으로 둥글고 판판한 아래짝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위짝을 옆으로 세우고, 이를 마소가 끌어 돌려서 곡식을 찧는 연장.



연자방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연자방아는 위짝이 아래짝 가운데에 박은 고줏대에 의지하여 돌아간다. 이 때문에 아래짝을 벗어나지 않도록 위짝의 안쪽 지름을 바깥쪽보다 짧게 다듬는다. 그리고 고줏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굵은 나무를 밑짝 아래의 구멍을 통해 고줏대에 박는다.

연자방아의 '연자'는 중국 동북지방의 연자碾子에서 왔으며, 이에 관한 첫 기록은『고려사高麗史』의 "충혜왕忠惠王(재위 1330~1332)이 은천옹주銀川翁主를 위해 새 궁정 건립을 감독하면서 디딜방아와 연자방아[碓磑]를 많이 걸었다[多置]."라는 기사이다. 그러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서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연자매[驢磨]와 물방아[水碓]는 중국에서 사용한 지 벌써 오래이며, 환담桓譚이 이미 자세히 말하였음에도 우리는 아직껏 이름도 모른다."라고 한 것을 보면 19세기 중반에도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연자방아는 평안도 지역에서만 쓴다고 적혀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과『북학의北學議』에는 연마連磨로 올랐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돌방애' 또는 '연자방아',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돌방아', 조랑말이 돌리는 제주도에서는 '말방아'라고 부른다. 장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흔히 마을 공동으로 세우고 관리도 공동으로 한다. 벼·보리·수수·조 따위를 찧으며 밀을 가루로 내기도 한다. 한 사람이 짐짐승을 이끌고 돌아가면, '께끼꾼'이라고 불리는 이가 뒤따르면서 몽당비나 넉가래 따위로 곡식을 뒤집어 준다. 말은 눈을 가려서 한눈파는 것을 막는다.

벼 한 가마의 겉곡을 벗기는 데 두 시간이 더 걸린

다. 먼저 20분쯤 걸려서 애벌 찧은 것을 풍구에 넣어서 껍질을 날린 뒤 다시 방아에 널어서 돌린다. 이 같은 과정을 네 번 거듭해도 알곡이 현미로 남는 등 잘 벗겨지지 않는다.

보리는 알곡이 부서지지 않고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며 돌린다. 한 차례 돌리고 나서 햇볕에 말린 다음 풍구에 넣어 껍질을 거른다. 다시 말리고 돌리는 과정을 세 번 거듭한다. 볕이 약해서 잘 마르지 않으면 여러 날 걸린다. 조는 두 번 거듭해서 넣으며 한 가마에 세 시간쯤 걸린다. 밀을 가루로 내는 시간은 한 가마에 한 시간 반쯤이다. 방아를 돌리려면 방아뿐만 아니라 소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방아를 찧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빌려야 한다. 삯은 겉곡 한 가마에 알곡 한 말이었으며, 하루 삯을 두 사람 품으로 갚기도 하였다.

연자방아는 해마다 아래짝 바닥과 위짝 옆면을 쪼아 주어야 잘 찧어지며, 이 일을 맡은 매조이꾼을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석쇠아치라고 부른다.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 하가리(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하가리)에 중요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된 연자방아 두 틀이 있다. 보리와 조가 주식인 제주도는 흔히 30가구마다 한 틀씩 마련하였다. 흔히 마을에서 계(이를 '말방잇제' 또는 '말가렛제'라고 불렀다)를 조직해서 공동으로 제작·관리 및 운용하였다. 1974년 당시 하가리는 195가구에 인구 670명이었으며, 본디 아홉 틀의 연자방아가 있었으나 네 틀은 철거되고 다섯 틀만 이용하였다. 제주도 9개 마을의 평균치는 한 틀에 30.6가구로, 하가리는 이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다.



연자방아 | 두께33 | 국립민속박물관

방아를 선착순으로 이용한 까닭에 먼저 온 사람은 멍에나 키 또는 빗자루를 아래짝에 놓아서 알렸다. 방아는 흔히 한 방앗간에 한 틀 놓지만, 두 틀을 두기도 하였으며 이를 쌍방애라고 불렀다.

경상남도 창녕군 교리의 신씨집에서는 연자방아를 대문 밖에 두고 누구든지 언제나 무료로 쓰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연자방아를 우주의 운행에 견준다. 『담헌서湛軒書』에 포함된 의산문답毉山問答에 "따라서 칠정七政의 체는 수레바퀴처럼 스스로 돌고 연자방아의 나귀처럼 두루 휩싸고 있다. 지구에서 볼 때 지구와 가까운 까닭에 크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해와 달이라 이르고, 지구와 멀어서 작게 보이는 것을 오성五星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별의 세계星界라."라는 기사가 있다. '칠정'은 일월日月과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다섯 별을 가리킨다.

연자방아는 물방아보다 능률이 높다. 다음은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완당전집阮堂全集』에 쓰인 시 〈연자방아[馬磨]〉이다.

> 말 한 마리 열 사람 몫 하니(人十能之馬一之) / 외딴 마을 세 집 신기하네(三家村裏詫神奇) / 하늘의 이치도 본디 이러하니(大機大用元如此) / 스님들의 지나친 열심 우습구나(還笑宗風老古錐) / 물 끌어 찧는 물방아 대단할 것 없지(引泉爲碓亦麤才) / 에여디여 방아타령 이 방아 비웃지 마소(嘔哳舂歌莫見猜) / 몰아치던 비바람 자며 맑아졌으니(似向先天探至象) / 하늘도 사람의 마음을 돕는구나(怳疑龍馬負圖來)

이 시에서의 '대기大機'는 대승법을 받은 보살승에 이른 사람으로, 시에서는 연자매의 효용을 나타낸다. 나아가 도를 깨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에 몸을 맡기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는 뜻을 지녔다. '고추'는 송곳으로 찌르고 상투를 잡아매며 하는 공부를 이르며, '용마'는 중국의 복희伏犧 때 용마가 하수河水에서 도서圖書를 짊어지고 나왔고 이것이 역易·홍범구주洪範九疇의 근원이 되었다는 데서 왔다. 이 시의 이름인 '마마'

는 제주도의 '말방아'이다.

연자방아는 붙박인 삶을 상징한다.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 중 박팽년朴彭年(1417~1456)의 시문집 『박선생유고朴先生遺稿』에 실린 시에 "아득한 동쪽 하늘가에 태어난 나(吾生渺渺天之東) / 옛 자취 밟으며 나귀처럼 산 까닭에(足踏舊跡磨驢同) / 소상강 뛰어난 경치 들었건만(瀟湘勝槩空耳聞) / 축지법 몰라서 와 보지 못하였네(縮地無路堪相通)."라는 구절이 있다.

'비해당匪懈堂'은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1423~1453)의 호이고 '소상瀟湘'은 중국 후난성 둥팅호洞庭湖 남쪽에 있는 샤오수이강瀟水江과 상강湘江을 아우른 말이다. 이 부근에 매우 아름다운 승경지 여덟 곳이 있다고 하여 흔히 소상팔경瀟湘八景이라 부른다. 아주 먼 곳이라 축지법을 써야 올 수 있다고 여겼다는 말이다.

『속동문선續東文選』 중 유순柳洵(1441~1517)의 시 〈광녕으로 가는 길에[廣寧途中]〉에도 "동해 구석에서 태어난 나(我生東海隅) / 연자매 돌리는 나귀 같구나(守舊如磨驢)."라는 구절이 있다. '광녕'은 중국 지린성 옌볜延辺의 옛 지명이다.

참고문헌 연자방아고(김재호, 생활용구5, 짚·풀문화연구회, 1998), 제주의 연자매(김영돈, 문화재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濟州島(泉靖一,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66).

필자 김광언(金光彦)

연작
連作

정의 특정한 경작지에서 해를 거듭하여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 또는 작물의 동일성 여부와 별개로 휴한休閑하는 일이 없이 매해 경작하는 농업 방식.

내용 연작連作, continuous cropping, 즉 이어짓기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특정한 경작지에서 작물을 교체하거나 순환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이는 대개 단작單作의 경향과 맞물리게 되며, 이로 인해 단작이라는 말이 곧 연작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작화가 연작화와 분리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학술적·사전적 개념으로서는 이를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작이 매년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는 의미의 연작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작부체계로서의 단작이 해에 따라 작물을 달리하는 윤작輪作, crop rotation(돌려짓기)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닌 반면 이 첫 번째 의미의 연작은 윤작과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 장기추적 연구에 따르면 단작 옥수수의 연작은 단작의 옥수수—콩 윤작에 비해 최소 10%의 수확 감소가 예상된다.

연작의 두 번째 의미는 토지 생산성 유지를 목적으로 경작을 쉬는 일이 없이 특정 경작지에서 매해 농사를 짓는 농업의 방식을 말한다. 이때 특정 연도의 재배작물과 그 직전이나 다음 연도의 재배작물은 같을 수도 있고(첫째 의미의 연작) 다를 수도 있다(윤작). 즉 이 두 번째 의미의 연작 농법은 윤작 농법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며, 그 의미상 대립하는 개념은 윤작이 아니라 휴한농법이다. 일반적으로 연작을 하면 점차 생산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전농업으로 대표되는 이동식 경작체계가 발달하고, 이는 다시 여러 휴한농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시비법施肥法, 즉 경작지에 거름을 주는 방법의 발달에 의해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연작 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특징 및 의의 농학계에서 연작이라고 하면 대개 위의 첫 번째 의미, 즉 윤작 농법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여긴다. 반면 사학계에서는 두 번째 의미의 연작, 즉 휴한농법과 대립하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고려 말기를 지나 조선 초기로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휴한농업에서 연작상경連作常耕 농업으로의 전환이 한국 사학사상 중요한 논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사에서는 여말선초에 신흥사족의 주도 아래 중국 강남농법의 도입이 시도되었고, 이에 의해 시비법이 발달함으로써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연작상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정설이 세워져 있다. 강남농법으로 무장한 신흥사족은 조선왕조의 개창을 비롯하

여 거대한 사회사적 전환을 주도한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연작 문제는 학술적으로도 이미 중요한 이슈이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의미의 연작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루타기, 기지현상忌地現象, 연작장애 등으로 불리는 바 연작에 따른 점차적 수확 감소는 양자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무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논농사는 대표적인 연작 농업 분야이며, 당연히 연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논농사는 물 공급을 통한 농업생태계의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유지되며, 벼의 작물특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그루타기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그루타기의 폐해가 적은 작물로는 흔히 주식으로 삼는 맥류, 조, 옥수수, 수수 등이 있다. 이 밖에 연근, 순무, 뽕, 딸기, 양배추, 미나리 등도 꼽힌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특산물 산지에서 나타나는 연작 농업은 상당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어떤 특정 작물이 한 지역의 특산물이 되었다면 이는 연작에 따른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거나 이를 넘어서는 특정한 환경적·기술적 요인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무, 당근, 고구마, 대마 등은 풍토가 적합한 곳에서 연작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들 작물 자체가 연작피해가 적은 특성이 있어서 적절한 비료 공급과 농업기술만 뒷받침된다면 연작에 의해 오히려 품질이 향상되기도 한다. 목화나 담배도 유사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산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특정한 성분을 흡수하거나 연작 폐해를 줄이는 기술적 대책이 경험적으로 마련되어 농민들 사이에 전승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된다면 특산의 작물과 산지, 그 지역의 환경과 농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민속을 중심으로 지역사와 지역문화 연구 분야에서 한국학계가 새로운 이론적·실증적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농업대사전(김익달, 학원사, 1978), 한국사회사연구-농업기술 발달과 사회적 변동(이태진, 지식산업사, 1986), Introduction to Agronomy-Food, Crops, and Environment 2nd edition(Craig C. Sheaffer·Kristine M. Moncada, Cengage Learning, 2011), Principles of Agronomy for Sustainable Agriculture(Francisco J. Villalobos·Elias Fereres eds., Springer, 2016).

필자 안승택(安勝澤)

영농후계자

營農後繼者

정의 농업 분야 종사를 결심하여 영농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쌓고 있거나 영농정착을 위해 부분적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내용 1981년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창업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고자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 19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기부 재산을 매각한 대금 395억 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795명의 후계자를 선정, 약 86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어민후계자를 통해 과학 영농을 확산시키고, 이들이 지역 농업의 핵심 지도자로 성장하여 농촌의 복지를 촉진하는 역군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였다.

1983년부터는 여성 후계자도 선발하였고, 1987년까지 마을당 1명 이상의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자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 인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부락당 1명씩으로 후계자 선발인원이 감축하게 되었다.

199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재원財源이 농어촌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해외의 선진국으로 농업 연수를 보내어 후계자의 정예화를 꾀하였다. 1991년에는 예비후계자 제도를 도입해 후계자 육성 체계를 예비후계자,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민으로 체계화하였다. 1994년 우수한 영농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병역의무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업 경영희망자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농어민후계자란 명칭을 농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임업인후계자로 분리하였고, 여성농업인 우대제도 또한 도입하였다. 1995년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군인 중 전역 희망자도 후계자로 신

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998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탈북이주민도 포함하게 하였다.

1999년에는 새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취농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기존 수혜자의 사업 신청은 제한하였다. 2001년에는 기존 영농후계자를 신규 후계자와 취농창업 후계자로 이원화하였다. 2004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인후계자란 명칭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하였고, 2005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을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업계 대학 등에 진학한 사람은 재학기간 후계자 자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도모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농업은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 고령화, 부녀화로 농업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그러한 변화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획을 긋는 정책이었다. 1981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영농후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13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통해 영농의 규모화, 농업 조수입과 농업소득의 증가, 농업인 연령 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효과이다.

참고문헌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한농연의 발전방안(박형규, 한국농어민신문, 200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마상진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필자 김석기(金石基)

영천 청제
永川 菁堤

정의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신라의 저수지.



영천 청제 | 경북 영천 | 2020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영천 청제菁堤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52호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437-1번지 일원에 있다. 이곳은 남쪽의 채약산採藥山(해발고도 약 499m) 기슭에서 발원한 물이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길목으로 저수지를 만들기에 매우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춘 곳이다. 청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신라의 저수지 가운데 2020년 현재까지도 관개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저수지이다. 제방은 흙으로 만들었으며 규모는 길이 243.5m, 높이 12.5m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저수지 일부가 잘려 나갔지만, 여전히 구암리 일원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용수원이다.

청제를 만들고 보수한 시점과 내용 등은 보물 제517호인 영천 청제비菁堤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제비는 양쪽 면에 각기 시대가 다른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병진년丙辰年'의 명문銘文은 청제를 처음 만들 때 새긴 것이고, 반대 면에 있는 '정원14년貞元十四年'의 명문은 수리할 때 새긴 것이다. 판독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글자가 있어 연구자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제를 처음으로 만든 시점은 476년(자비마립간 19) 또는 536년(법흥왕 23)으로 알려졌다. 280개 지역에서 각각 25명씩 선발하여 총 7,000여 명이 작업하거나, 7,000명을 280방方으로 나누어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방이 무너지자 798년(원성왕 14)에 1만 4,140명 정도의 사람을 60일간 동원하여 다시 고쳐 쌓았다. 또한 목통木桶으로 만든 수문水門을 설치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청제를 만들고 보수하는 작업은 당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으로 보면 처음 제방을 만들었을 때보다 보수하는 작업에 두 배 이상의 사람을 동원하였다. 또 훨씬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였지만, 보수할 때는 더 적은 관리를 임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방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의 수로도 보수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반면 신라 왕실에서 당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궁핍한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편으로 제방 보수를 활용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목통 수문도 존재하였다고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청제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로 인식하지만, 처음에는 밭농사의 홍수를 방지하는 용도로 만들었다가 농경지의 관개시설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제는 청제비를 통해 만든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저수지이지만, 해석에 견해차가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발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발굴 조사 자료가 축적되어야만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 신라의 저수지 모습, 나아가 수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신라의 정치사와 사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곳이다.

참고문헌 신라 왕실 직할지의 초기 형태에 대하여(하일식, 동방학지1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영천 청제비의 도형분석(장재선, 목간과문자9, 한국목간학회, 2012), 영천 청제비의 재검토(橋本繁, 사림60, 수선사학회, 2017), 한국 고대 국가 형성에 있어서 관개수리 역할의 재고(강봉원, 역사와담론52, 호서사학회, 2009), 한국 고대 수리시설의 역사성과 의미(노중국, 신라문화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필자 김도헌(金度憲)

예취기
刈取機

정의 곡식이나 풀, 목초 등을 베는 농기계.

내용 예취기刈取機는 동력으로 예취날을 왕복시키거나 회전시켜 풀이나 곡식대를 베는 농기계로 엔진, 동력전달 및 변속장치, 예취장치, 주행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취장치는 이발소의 전기바리캉과 같이 보통 삼각형 모양의 예취날을 위아래에 배치하고 윗날을 왕복시켜 절단하는 왕복식과 예취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절단하는 회전식이 있다. 왕복식은 벼, 보리와 같은 곡류 예취에 많이 사용되며, 회전식은 날의 모양에 따라 일자형, 원판형, 톱날형 등이 있으며 곡류에도 일부 사용되지만 주로 목초의 예취에 많이 사용된다. 예취기는 베어 놓는 상태에 따라 베어서 바닥에 깔아주는 예도형예취기, 베어서 일정량씩 모아 놓는 집속형예취기, 베어 묶어주는 결속형예취기, 베어 흩트려놓는 초예기로 나뉜다. 예도형예취기는 벼나 보리, 목초 등을 예취날로 베어서 한쪽 옆으로 이송시켜 바닥에 일렬로 가지런히 깔아주는 농기계로, 일반적으로 동력예취기reaper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보급되었다. 예도형예취기는 기관이 있는 자주형과 관리기나 동력경운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부착형이 있는데, 자주형의 경우 기관은 5~6마력의 공



고추밭 예초 작업 | 2006 | 농촌진흥청



참깨 예취 작업 | 2020 | 윤진하

냉 휘발유 기관이 많이 이용되며 마른 논에서는 고무바퀴를 사용하나 습한 논에서는 철차륜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취날은 왕복식으로 예취 폭은 보통 120㎝로 한 번에 4줄의 벼를 벨 수 있으며 예취 높이도 조절할 수 있다. 벤 작물을 바닥에 얇게 깔아주기 때문에 건조가 잘 되는 반면, 건조 후에 모아서 묶거나 운반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드는 불편함이 있다. 집속형예취기는 베어서 한쪽으로 이동, 집속시켜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되면 바닥으로 방출시키는 방식의 예취기로 예도형예취기보다 모아서 묶어주는 시간은 절감되나 바인더가 보급됨에 따라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다. 결속형예취기는 작물을 베어서 일정한 크기의 다발로 묶어주는 농기계로, '바인더'라고도 하며, 중산간지 소규모 농가에 주로 보급되었으나 콤바인이 보급됨에 따라 생산·공급이 중단되었다.

예초기刈草機는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풀을 깎아주는 농기계로, 벌초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기관과 동력전달부, 예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부를 등에 메는 배부식과 한쪽 어깨에 메는 어깨걸이식이 있다. 기관은 소형의 휘발유 기관이 주로 사용되며 기관으로부터 예취날까지의 동력전달은 플랙시블 케이블로 전달된다. 금속제의 예취날은 2도날과 작은 원판에 여러 개의 날을 붙인 형태의 날과 원형톱날이 사용되며 풀을 깎는 데는 안전성이 높은 나일론 끈이 주로 사용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원형톱날에 벼예취가이드를 부착하여 벼 수확작업에도 사용하고 있다. 예초기는 작업 시 날이 돌과 부딪쳐 부러진 날이나 작은 돌이 튀어 올라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목초예취기는 모워mower라고도 하며, 예취방식에 따라 왕복칼날식의 커터바모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칼날들이 달려있는 원판을 회전시켜 예취하는 디스크모워, 人형상의 날을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켜 타격력으로 목초를 예취 세절시키는 플레일모워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작물의 종류에 따라 원판톱날을 이용하여 예취하는 콩예취기, 참깨예취기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예취기는 낫을 대신하여 벼, 보리 등 곡식대나 목초, 풀 등을 베는 농기계로, 초기에는 벼, 보리 수확 등에 사용되었으나 바인더, 콤바인의 보급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밭작물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원판톱날형 예취장치를 이용한 콩예취기, 참깨예취기 등이 실용화되었으며, 예초기는 농업용은 물론 벌초, 공원 등의 풀 절단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계 핸드북(한국농업기계학회, 문운당, 1998), 농업기계학(고학균 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3), 농작업기계확원론(정창주·김경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필자 윤진하(尹眞河)

오곡
五穀

정의 주식으로 사용되는 다섯 가지 중요 곡식을 통틀어 부르는 말.

개관 오곡五穀이란 단어는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유래하였다. 처음에는 백곡百穀, 구곡九穀, 육곡六穀, 오곡 등이 혼용되다가 한나라 때의 문헌에서 오곡으로 장착되었다. 그러나 문헌마다 오곡의 종류는 달랐다. 『주례周禮』 천관天官·질의疾醫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석에는 오곡을 마麻(삼), 서黍(기장), 직稷(피), 맥麥(보리), 두豆(콩)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에 대한 조기趙岐의 주석에는 오곡을 도稻(벼), 서, 직, 맥, 숙菽(콩)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의 오곡 종류도 시대와 문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벼, 보리, 콩, 밀, 메밀, 기장, 피, 콩, 팥 등의 곡물 중에서 다섯 가지를 선택하여 오곡이라고 불렀다. 또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물을 통틀어 오곡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내용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 광주목의 주석에는 모든 문헌에서 오곡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면서 『맹자』의 주석을 따라 서, 직, 숙, 맥, 도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오곡의 종류는 벼, 기장, 피, 보리, 콩의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벼는 삼국시

대 이래 한반도의 전라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의 평야 지대에서 주로 재배한 주곡이었다. 특히 18세기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벼는 세금과 물품화폐의 매개물로 쓰였으므로 오곡의 으뜸으로 인식되었다. 맥의 종류는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와 황해도 풍천군에는 맥의 종류로 대맥大麥(보리), 소맥小麥(밀), 교맥蕎麥(메밀)이 있다고 하였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에는 맥의 종류로 대맥과 소맥이 있다고 적었다. 황해도에는 보리·밀·메밀이, 함길도(현재 함경도)에는 보리와 밀의 재배가 잘 되었으므로 이런 구분이 생겼다. 한반도에서 재배되는 밀은 기온으로 인해서 늦겨울에 파종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하는 겨울밀이다. 겨울밀의 재배지역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밀을 맥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전라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 등지의 맥은 대부분 보리였다. 기장, 피, 콩이 오곡에 포함된 조선 후기 인식은 한반도의 사정에 맞춘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19세기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오는 오곡잡밥[五穀雜飯]은 다섯 가지의 곡물을 섞어서 지은 밥이란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민속조사보고에 의하면 오곡밥의 재료는 쌀(혹은 찹쌀이나 보리), 팥, 수수, 조(혹은 기장), 콩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동면 성산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세우는 솟대에 매다는 오곡은 집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벼·조·메밀·콩·수수·팥 중에서 다섯 가지를 선택하였다. 밀양백중놀이의 각색 주머니에 넣는 오곡은 벼·보리·콩·조·기장 등 다섯 가지이고, 일부 수수로 대체되기도 한다. 불교의 『조상경造像經』에는 불복장佛腹藏 의식 때 동쪽에 보리, 서쪽에 벼, 남쪽에 피, 북쪽에 콩, 중앙에 삼씨를 넣고 이것을 오곡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오곡의 종류는 『주례』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불복장 의식에서는 사찰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오곡의 종류가 달라진다.

특징 및 의의 오곡이란 단어의 '오'는 고대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오행설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오곡이라고 하면 특별한 다섯 가지 곡물이면서 주요 곡물을 두루 일컫는 말로 쓰였다. 따라서 특별히 오곡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역사 이래 한반도 사람들이 주곡으로 여겼던 곡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이후 정부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보리와 콩의 자급률이 크게 낮아졌다. 2000년대 이후 슬로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재래 곡물의 씨앗을 보존하고 재배하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참고문헌 孟子, 世宗實錄地理志, 周禮, 오곡의 개념과 그 중시의 배경(배영동, 민속연구8,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전국·진한시대 음식물의 조리와 식생활(최덕경, 역사와경계31, 부산경남사학회, 1996).

필자 주영하(周永河)

오미자
五味子

정의 오미자나무과에 속하며 산야에 자생하는 상록의 만성 초목으로 열매를 약용하는 식물.

개관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는 현급玄及, 회급會及, 북미北味, 금영자金鈴子 로도 불린다. 한국·일본·중국·대만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열매에 신맛·단맛·쓴맛·짠맛·매운맛 등 다섯 가지 맛이 있다 하여 오미자라고 한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육질은 달고도 시며 씨앗은 맵고도 써서, 합하면 짠맛[鹹味]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종 때는 50근斤에서 많게는 200근까지 중국에 보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오미자의 일본 이름을 '조선오미자'라고 쓰는데, 우리나라의 오미자를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오미자가 세계에서 제일 우량하며 국내에서는 평안북도의 영변산이 유명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남에서 나는 것은 색이 붉고 북에서 나는 것은 색이 검어 자양과 보약에 쓰이는 것은 북한 것을 쓰는 것이 좋고, 살이 몹시 신 청주산이 좋다고 하였다.



오미자 | 강원 홍천 | 2013 | 농촌진흥청

내용 우리나라에는 오미자·흑오미자·남오미자 등 2속 3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오미자는 지리산을 비롯하여 덕유산·속리산·소백산·설악산 등 백두대간 주변 산에서 자생하고 있다. 흑오미자는 제주도 한라산 일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남오미자는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로 남부 일부 해안과 도서 지방 및 제주도 저지대에 제한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1970년도 초반 오미자 자생지가 있는 덕유산 부근에서 오미자 묘목을 '포기나누기' 방식으로 채취·재배하다가 차츰 오미자 묘목을 생산하여 인근 지역에 재배가 확산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실수로 농가에서 재배한다.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하므로 여름철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해발 300~700m 이상 지역이 적격지다. 수분이 많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며,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란다. 잎은 넓은 타원형으로 손바닥 반만 한 크기에 잎자루는 붉은 기가 있다. 5~6월에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작은 동전 크기로 피는데 연분홍이거나 거의 흰색이다. 꽃이 지고 나면 8~9월에 꽃턱[花托]이 길게 자라 앵두처럼 빨갛고 굵은 콩알 크기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열린다. 암수가 다른 나무이므로 같이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미자는 종자, 삽목, 분주법, 휘묻이법 등으로 번식한다. 경사도가 낮은 산골짜기나 서북향의 서늘한 곳, 강풍에 약하여 센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적당하고, 강한 햇빛이 내리비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토질은 배수가 잘되고 통풍이 좋고 부식질이 많은 적습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오미자나무는 호기성 식물이어서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 3cm 내외에서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건조하기 쉽다. 건조한 땅에 심었을 경우 정식 후에는 짚과 낙엽 등으로 뿌리를 덮어 준다. 공해에 약하며 내염성도 약해서 해안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특징 및 의의 약용으로 수요가 많아 경상북도 문경을 비롯하여 백두대간 산간지대를 따라 재배 벨트를 형성하면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많다.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흑오미자를 제외하고 전국에 분포하는 열매는 붉은색이다. 중국 한의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약 50가지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오미자(농촌진흥청, 2018), 한방 식료해전 (심창용, 창조사, 1976).

필자 변현단(卞現丹)

오이

정의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단성화單姓花에 자웅동주雌雄同株이며 주로 열매를 이용하는 식물.

개관 오이의 재배 역사는 3,0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원산지는 인도의 서북부 히말라야 지방과 네팔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사高麗史』에 오이[黃瓜]의 재



오이 | 2013 | 농촌진흥청



오이 넝쿨 고정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오이 지지줄 설치 | 경북 군위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배 기록이 있고 『해동역사海東繹史』의 기록 등으로 보아 약 1,500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오이의 품종은 화남형, 화북형, 유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남형은 중국의 화난華南·화중華中 지역과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적응·발달된 품종군으로 남지형南支型 이라고도 한다. 곁가지가 적고 마디 사이가 짧으며 세력이 왕성하고 옮겨심기에 강하다. 내서성은 약하지만, 저온 신장성이 강하고 약한 광에서도 비교적 잘 견디기 때문에 겨울과 봄의 시설재배에 적합하다. 화남형 오이는 다다기형과 땅오이형으로 나뉘며, 다다기형은 다시 반백군半白群·청절성군青節成群·청장군青長群으로 구분되는데, 다다기성 등은 계통에 따라 다르다. 화북형은 중국의 화베이華北, 중앙아시아, 우리나라 등에서 적응·발달한 품종군으로 북지형北支型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곁가지가 많이 발달하고 초세와 이식성이 약하며 내서성 및 내병성이 강해 여름과 가을의 노지재배에 적합하다. 유럽형 오이는 유럽과 미국 등 기후에 적응되어 발달한 품종군으로 피클오이가 대표적이다.

오이는 과채류 중 저온성 작물이지만 내한성이 약해 10~12℃ 이하에서는 생육이 크게 억제되며 0~2℃ 정도에서 얼어 죽는다.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로 구분되며, 배축과 줄기에서는 부정근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삽목이 잘 된다. 줄기는 덩굴성으로 표피는 털로 덮여 있고, 잘라 보면 4~5각으로 되어 있다. 줄기의 겨드랑눈에는 덩굴손이 맺히는데, 덩굴손은 곁가지와 잎이 변형된 것으로 접촉 자극에 반응하면서 덩굴을 지지하고 유인해 준다. 잎의 광합성 능력은 생장점 아래로부터 15~30마디 위의 잎이나 전개 후 20~30일 사이의 잎이 가장 높고, 45일 후면 광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꽃은 주로 단성화單性花로 암꽃과 수꽃이 같은 포기에 있으며 마디마다 착생한다. 성 분화는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본엽이 1~2장 전개될 무렵부터 꽃눈분화가 시작된다. 한 개의 잎겨드랑이에 몇 개의 화아원기가 형성되며, 초기에는 암수의 구별이 없다. 꽃의 개화 및 개약 시간은 오전 6~10시 사이이다. 오이의 과실은 씨방과 꽃받침이 비대하여 형성된 위과이며, 수분·수정이 없이 비대가 되는 단위결과單爲結果의 특성을 갖는다. 과실의 표면에는 흑색 또는 백색의 가시가 있고 과피색은 농록 또는 담록이지만 성숙하면 황갈색으로 변한다. 오이의 생육적온은 주간 22~28℃, 야간 15~18℃이며 밤과 낮의 온도 차이는 7~10℃ 내외가 적당하다. 35℃ 이상의 고온과 5℃ 이하의 저온에서는 생육이 중지되고 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 죽는다.

또한 오이는 지온에도 비교적 민감하여 12℃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므로 그 이상은 유지해야 하며 25℃ 이상이 되면 줄기와 잎이 웃자라게 되고 노화가 촉진되어 재배 기간이 단축된다. 뿌리 부위의 적온은 20~23℃ 전후가 적당하다. 오이의 광포화점은 40~55*klx* 정도이고 광보상점은 1*klx* 정도로서 비교적 약한 광에서도 생육은 잘 되는 편이나 수확이 계속 이

루어지므로 일조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온기 시설재배나 밀식재배의 경우 햇빛이 너무 약하면 과실 자람이 늦고 곁가지의 발생이 감소하며, 기형과의 발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시설재배 시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하루 중 광합성에 의한 식물체 생육량의 71% 이상이 오전 중에 생산되므로 오전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이에 알맞은 상대습도는 주간에는 70~80%, 야간에는 90% 정도로 다른 과채류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너무 습도가 높게 되면 회색곰팡이나 노균병 등 각종 병해 발생은 물론 증산량 감소에 따른 생리장해가 쉽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오이의 뿌리는 표토로부터 15~30㎝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천근성淺根性으로 뿌리가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산소의 요구량이 크며 건조나 다습에 약한 특성을 가진다. 토양산도는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pH* 5.5~6.8이 적당하다. 뿌리는 과습을 싫어하지만, 수분 소비량은 많기 때문에 수분 부족에 매우 약한 편이다. 과실은 개화 후 3~4일은 비교적 느리게 자라지만 5~6일 후에는 1일에 2배 가까운 크기로 빠르게 자란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오이는 80% 이상 접목재배를 하고 있다. 접목은 다른 식물체(흑종호박 등)의 뿌리에 접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오이는 뿌리 부분이 약하여 병에 잘 걸리고 비료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접목재배를 통해 덩굴쪼김병(만할병)과 급성위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저온 신장성의 강화, 초세 유지 등의 이점이 있어 생산량이 증가된다. 아울러 겨울철 시설재배가 가능해지면서 광합성 촉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800~1,000*ppm*) 기술이 확립되었고, 뿌리 부위의 온도를 18℃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가온시설을 하여 재배함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海東歷史, 농업기술길잡이107-오이(이상규 외, 농촌진흥청, 2017), 오이재배도감(고관달 외, 한국농업정보원, 2005), 채소학 각론(이정명 외, 향문사, 2013).

필자 이희주(李禧珠)

정의 볏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멕시코 원산의 한해살이풀.

개관 옥수수*Zea mays L.*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중남미 멕시코에서 9,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 아메리카 선주민이 먹던 옥수수를 15~16세기부터 아메리카와 접촉한 유럽인들이 담배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옥수수는 기르기가 쉽고 빨리 자라며, 여름이 짧은 지방에서도 기를 수 있어 전 세계에서 3대 재배 작물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또는 16세기 후반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추측한다. 옥수수는 옥고량, 강냉이, 강내이, 강내미, 옥소꾸, 옥수시, 옥쉬이로도 불린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표적 식량 중 하나로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는 용도별로 간식용·알곡용·사





옥수수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료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옥수수 품종은 1960년대까지 개량이 안 된 재래종이나 농가에서 선발 육종하였으나 1960~1970년대 이후부터 전문 육종이 되기 시작하였다. 재래종 옥수수는 모양에 따라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자루가 짧고 뭉뚝한 주먹찰옥수수, 알곡이 쥐 이빨처럼 생겨 팝콘용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쥐이빨옥수수, 하얀 차돌 모양의 옹골진 차돌박이옥수수가 있다. 맛에 따라 찰옥수수·단옥수수·메옥수수가 있고, 익는 시기에 따라 올강냉이·올옥수수·올찰이 있다. 색에 따라서는 노랑메옥수수, 흑색재래, 백찰옥, 검은찰, 붉은찰, 흰찰옥수수 등이 있다.

단옥수수는 씨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당질과 녹말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옥수수보다 당분 함량이 높다. 다 자라면 알 모양이 쭈글쭈글해지고 색깔이 반투명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익기 전에 수확해서 간식으로 쪄 먹거나 통조림을 만든다. 초당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의 변이종으로, 단옥수수보다 알이 더 쭈글쭈글하고 종자 무게는 10~12g으로 매우 가볍다. 종자 구성도 단옥수수와 달리 건조되면 당분이 전분으로 전환되면서 수분이 증발하여 저장력이 높아져 냉장고에 보관해 먹을 수 있다. 찰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와 달리 찰기가 강한 것으로 흰찰과 검정찰이 대표적이다. 충북 괴산의 대학찰옥수수는 보성과 제원 지역에서 수집한 토종 옥수수를 교잡하여 1982~1989년 동안 계통 선발해 육종한 것으로 껍질이 얇고 식미가 뛰어나 인기가 높다. 토종 찰옥수수를 개량한 미니흑찰도 인기가 있다.

옥수수는 밤 기온이 16~18℃가 적온이며 발아 온도는 8~11℃, 성장온도는 32~34℃에 최고 40℃ 내외이다. 보통 자급용 옥수수는 5월 이후부터 8월까지 파종하는데, 포기 사이 25㎝ 간격으로 씨앗을 두 알씩 심어 서로 지지하면서 쉽게 수정하도록 한다. 수꽃은 암꽃보다 2~3일 앞서 핀다. 바람에 의해 꽃가루를 운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풍매화로서 바람이 없을 때는 2m, 바람이 있을 때는 300m까지 간다. 옥수수는 타가수정他家受精이므로 다른 품종끼리 교배가 잘 되어 다른 품종을 심을 때는 300m 이상 떨어져 심거나 10일 이상 간격을 두고 심는다. 옥수수를 심는 곳은 비탈져서 양분이 모이는 곳이나 밭 가장자리가 좋다. 경관용으로 밭 경계에도 심는다.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옥수수를 밭 가장자리에 심으면 안에 심어진 작물을 보호한다고 여겼다. 태풍에 쉽게 넘어지므로 뿌리를 내릴 때 주변의 흙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피해가 적기 때문에 너무 깊게 갈지 않은 밭에 심는 것이 좋다. 옥수수는 거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대체로 콩과 혼작한다. 또한 밭 가장자리에는 거름이 반드시 필요한 호박을 심는데, 그 옆에 심으면 호박의 거름을 이용하면서도 호박과 옥수수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또 고추와 섞어짓기를 하는데 고추를 심은 가장자리 두둑에 경계선으로 옥수수를 둘러 심는다.

강냉이죽과 강냉이밥은 굶주리던 시절의 대명사였다. 찰기가 없는 메옥수수는 익기 전에 쪄 먹거나 여문 후 수확하여 맷돌에 갈아 쌀과 조를 넣어 강냉이밥을 지어 먹었다. 강원도에서 먹는 '올챙이국수'는 메옥수수를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솥에 넣고 끓여 죽처럼 된 것을 면발로 만든 것으로 찰기가 적어 면발이 뚝뚝 끊어지는데, 국숫발이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 강냉이수제비, 강냉이범벅, 옥수수엿 대부분은 메옥수수로 만든 것이다. 찰옥수수는 옥수수자루 그대로 쪄서 먹는다.

한편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얼굴과 손등에 나타나는 '펠라그라'라는 피부염에 걸리는데,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메밀을 갈아서 함께 먹는다. 서양의학은 옥수수에 오메가6가 대부분이고 오메가3가 현저히 부족해서 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씨앗을 채종할 때는 여러 그루로부터 나온 자루에서 얻은 씨앗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 씨앗으로 쓸 것은 여러 자루를 옥수수 껍질끼리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둔다. 벌레가 먹지 않는 한 상온에서 최소 3~4년은 보관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인 옥수수는 잡종강세로 가장 높은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GMO 종자의 대표적 작물이다. 옥수수는 인간과 동물의 몸을 위해 재배하는 대표 작물이며, 소·닭을 비롯한 각종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데, 옥수수 사료는 동물의 살을 찌게 한다. 가축의 사료로 사용해서 인간의 음식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 옥수수가 된 인간

의 몸이라 부르기도 한다. 식량 외에 옥수수기름, 식품 첨가물, 사료, 에너지, 공업 원료를 만들기에 유전자 변형으로 다량 재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옥수수(농촌진흥청, 2018), 토종농사는 이렇게(변현단, 그물코, 2018).

필자 변현단(卞現丹)

옥시다락

정의 옥수수 갈무리용 다락집.

내용 옥시다락은 함경도 일대에서 가을에 수확한 옥수수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다락집이다. 함경도에서 이주한 옌볜延邊의 조선족 가옥은 사람의 생활공간인 본채와 마당을 중심으로 소양간·뒷간·돼지우리(돼지울)·닭장(닭굴)·옥시다락 따위의 부속 채들이 배치되어 있다. 옥시다락은 중요한 양식인 옥수수를 보관하는 다락으로, 감자굴·김치굴 등과 함께 본채 둘레에 있다. 4~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네 벽을 귀틀로 짠 다락집이 보이는데, 그 모습은 함경도의 옥시다락과 동일하다.

옥시다락의 전체적인 모습은 원두막 형태로,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이층 공간에 옥수수를 갈무리한다. 이층 갈무리 공간의 세 면은 판벽으로 마감을 하고, 한쪽은 철사로 엮어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붕을 씌워 비가 갈무리 공간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였다. 옥시다락을 이층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쥐가 옥시다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낡은 세숫대야를 기둥에 반대로 걸어두기도 한다. 쥐는 세숫대야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 올라가더라도 미끄러지기 마련이다.

특징 및 의의 함경도에서 이주한 옌볜 조선족은 1970년대 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옥수수를 먹지 않고 집짐승의 사료로 쓰게 되었다. 따라서 옥시다락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모두 단층으로 짓는다. 또 이것을 붙박이로 설치하는 집도 있으나 옥수수 소비가 끝나는 봄철이 되면 헐었다가 가을에 다시 짓는다. 옥시다락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도 널리 이용되었으며, 경상북도 울릉에서는 이것을 크게 짓고 칸을 나누어 옥수수는 물론이고 감자와 고구마 따위를 각각 갈무리하였다.

참고문헌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김광언,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정연학(鄭然鶴)

온실
溫室

정의 작물의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기후와 관계없이 재배가 가능한 농업시설.

역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나 비닐 또는 플라스틱으로 지은 인공시설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온실溫室이라고 한다. 따라서 온실에는 외형적으로 유리 온실, 플라스틱 온실, 비닐하우스 온실 등이 있지만 난방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것은 온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온실은 관상용 원예식물이나 열대작물 재배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시설비가 비교적 저렴한 플라스틱과 비닐이 유리를 대체하면서 지금은 식량작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의 재배에 플라



창경궁 대온실 | 서울 종로구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스틱 온실과 비닐하우스 온실을 이용하고 있다.

겨울철 노지露地에서 생장이 어려운 화초나 채소를 키우려는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시대에는 이동이 가능한 재배상栽培床을 낮에는 밖에 두고 기온이 낮은 밤에는 실내에 들여놓는 방식으로 재배하였고, 근대적인 온실 형태의 시설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독일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1450년경 저술인 『산가요록山家要錄』에서 겨울에 채소를 기르기 위한 온실의 축조와 그 재배관리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온실은 기름 먹인 창호지를 써서 투광과 기밀성을 높이고, 상토床土 밑에 구들을 설치하여 토양과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특히 온실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가습장치를 갖추고 있는 등의 매우 과학적인 온실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온실이 서양보다 적어도 1세기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온실이었음은 물론이고 원예용이 대부분이었던 서양과는 달리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생산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산가요록山家要錄』은 조선 성종 대에 어의御醫를 지낸 전순의全循義가 '살림집에 필요한 기록'이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쓴 일종의 요리책이다. 여기에서 김치, 술, 별식 등의 요리법을 소개하고 '동절양채冬節養菜' 항에서 겨울철에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온실의 축조와 재배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실은 왕실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한 특수시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920년경 대전에서 기름 먹인 창호지로 유지창油紙窓을 만들어 조립한 일종의 종이 온실에서 오이와 가지 등을 재배하였고, 1930년대에는 익산의 유리 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일반화된 재배시설은 아니었다.

온실이 농업생산 시설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온실의 유리를 대체할 값싼 비닐과 플라스틱이 생산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였다. 이때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식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신선 채소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근교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형 재배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온실은 온습도와 같은 재배환경의 인위적인 조절을 통하여 작물의 성장을 촉진·억제하여 수확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노지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채소, 원예 및 열대 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하고, 일정한 면적에서 다모작이 가능하여 토지이용 효율이 높다. 재배관리가 용이하여 고수익작물 재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시설과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온실은 시설의 골조에 따라 목조木造, 철조鐵造, 플라스틱 온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복 재료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비닐 온실로 구분한다. 그리고 온실의 지붕 모양에 따라 양쪽지붕형·외쪽지붕형·반원형 등으로 구분하고, 온실 분리 여부에 따라 온실이 한 채씩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단동식이라 하고 여러 채를 이은 것은 연동식連棟式이라고 한다. 다만 연동식 온실은 중간 벽이 없다.

일반적으로 유리 온실은 내구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초기 시설투자가 크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실험용이나 관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를 대체할 투명한 경질 플라스틱 판재와 필름이 등장하면서 플라스틱 온실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경질 플라스틱 판재를 강화판이라 부르는데, 두께가 0.2㎜부터 다양하고 투광성이 유리에 비하여 거의 손색이 없고 강도도 높아 파손의 우려가 적다. 그리고 필름과 강화판은 무게가 가벼워서 유리 온실보다 경량의 골재로 지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필름을 피복재로 쓰는 온실은 일반 비닐하우



생육 온실 | 강원 철원 | 국립민속박물관

스에 난방시설을 구비한 경우도 있지만, 비닐하우스보다 시설 규모가 크고 지붕이 높으며 철골구조로 짓는 것이 보통이다. 온실의 난방은 전열난방, 보일러를 이용한 증기난방, 각종 난로를 이용한 열풍난방 등이 온실의 규모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으로 피복 소재와 상관없이 난방시설을 갖춘 재배시설을 온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초기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난방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온실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도 난방 장치를 설치하여 온실 형태를 갖춘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작물의 저온 피해는 물론 고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냉난방 장치를 갖추기도 하고 온실 내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탄소농도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전천후 온실도 보급되고 있다.

식생활 행태의 변화와 함께 신선 채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설농업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온도, 일조량, 가스농도, 수분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기상 시설과 양액재배 시설 등이 보급되고 재배시설의 규모화와 함께 온실이 주축이 되는 기업형 시설농업이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15세기 조선온실건축의 기능 및 실내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조동우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12, 대한건축학회, 2004), 농상집요와 산가요록(김영진, 농업사연구2-1, 한국농업사학회, 2003), 신토불이 우리 문화유산(이종호, 한문화, 2003), 조선 초기 난방온실의 복원과 환경 조사(장성강 외,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

필자 박호석(朴虎錫)

올벼

정의 생육 기간이 짧은 벼품종.

개관 고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1429)은 벼품종을 올벼[早稻]·늦벼[晩稻]·밭벼[旱稻] 등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벼의 조만생(조생·중생·중만생·만생)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 영양생장성, 감광성感光性, 감온성感溫性, 재배지의 기온 및 일장(낮의 길이) 등이다. 벼의 일생은 종자의 발아에서 잎과 뿌리의 생장과 발육, 개화와 성숙을 통하여 벼알이 맺어지는 기간이다. 벼의 일생은 품종에 따라 생활환의 길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올벼(조생종)는 파종에서 성숙까지 100일 이내이며 늦은 벼(늦벼, 만생종)는 200일 이상 요구되기도 한다. 그 중간의 것은 중생종, 중간에서 늦은 벼에 해당하는 벼는 중만생종으로 부르고 있다.

내용 벼의 일생은 영양생장기(파종에서 유수분화기)의 길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생식생장기(유수분화기에서 성숙기)의 길이는 벼품종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발아에서 유수幼穗(어린 이삭) 분화까지 영양생장기의 길이에 따라 품종의 조早·만성晩性이 결정된다. 벼는 단일식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벼꽃의 원기인 화아花芽가 생장점에서 분화하여 개화한다. 벼는 발아에서 화아 분화까지 알맞은 일장 시간 아래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영양생장 기간이 있는데, 이를 기본영양생장상이라 한다. 기본영양생장이 지난 후 일장이 길고 온도가 낮은 북부 한랭지에서는 일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가 상승하면 출수하는 단일에 의하여 유수분화가 빨라지고 장일에 의하여 유수분화가 늦어지는 성질을 감광성이라 하는데, 늦벼(만생종)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감온성 품종은 대부분 올벼(조생종)이다.

국내 올벼는 『농사직설』에 조도早稻라는 뜻으로 문헌상에 처음 기록되었다. 종류로는 구황적소리救荒狄所里, 자채自蔡, 저광著光 등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 올벼는 진부올벼품종으로 극조숙이며 내냉성 유전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부올벼는 1980년 IRRI(국제미작연구소)가 조숙이면서 내냉성이 강한 오우모치(오우모찌) 296호와 이시카리스(이시까리스) 1호 간의 교잡 F1에 극조숙 내냉성 양질인 가미이쿠모치(까미이꾸모찌) 38호를 교배한 다음 집단선발(F1~F3), 계통육성(F4~F9), 특성검정을 거쳐 우량계통을 선발한 후 생산력 검정을 통해 진부 11호로 정하여 지역적응시험과 농가 실증재배를 진행한 끝에 1992년 중북부 산간 고랭지 장려품종으로 삼았다. 진부올벼는 7월 31일 출수가 되며, 저온발아성과 내냉성이 강한 극조생 벼품종

이다. 그 외 오대, 운광, 상주, 조광, 주남조생, 그루, 만추, 조안, 만나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올벼는 벼 생육 기간이 짧고 추위가 빨리 오는 중산간지와 산간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벼품종이다. 올벼는 생육 기간이 짧아 집약적인 작부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생육 기간이 짧은 올벼(조생종) 품종은 영양생장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영양생장 확보가 어려워 다수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량을 높이려면 밀식密植 재배를 해야 한다. 또한 올벼는 물의 이용 효율이 높다. 올벼 벼품종 재배는 햅쌀의 조기 생산·공급과 비교적 높은 유통 가격으로 농가 소득 및 마케팅 측면에서 재배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벼와 쌀의 지혜(이종훈·太田保夫,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수도작(이은웅, 향문사, 1996), 쌀을 알자2(최해춘, 과학원예, 2005), 온고이지신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08),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필자 박광호(朴光鎬)

옹구

정의 자잘하거나 흩어지기 쉬워 한꺼번에 많이 들기 어려운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소 길마 위에 얹어 사용하는 용구.

내용 소의 힘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달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외에 옹구나 걸채, 거지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 옹구, 걸채, 거지게는 물건을 소 등에 직접 실어 짊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소 등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물건을 얹을 용구가 필요하다. 소의 맨 등에 물건을 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 피부에 닿도록 물건을 실으면 소가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에도 불편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길마이다. 이 길마 위에 옹구를 얹어서 두엄이나 재 등의 거름을 내기도 하고 감자나 무·배추 등을



옹구 | 너비67 길이103 높이70 | 국립민속박물관

실어 옮길 수도 있다.

옹구와 흡사한 기능을 하는 용구가 걸채인데, 물건을 싣는 곳이 새끼로 짠 그물형 자루로 되어 있고 바닥이 트인 옹구와 달리 걸채는 바닥이 막혀 있고 옆이 여러 가닥의 밧줄을 드린 트인 형태이다. 그래서 걸채는 곡식단이나 나무 묶음 등을 실어 나르는 데 편리하고, 옹구는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나르는 데 편리하다.

옹구는 기본적으로 길마에 얹어서 사용하는 용구이므로 걸치는 틀은 어느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길마에 안정적으로 얹을 수 있으면서 소가 좌우 양쪽에 물건을 균등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다만 물건을 넣는 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물형 자루의 끝을 안쪽이 바깥보다 길게 하여 끝이 바닥을 한번 싸도록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자루를 그물처럼 짜지 않고 밑이 없는 가마니를 좌우 양쪽에 설치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나 구조이든 물건을 넣었을 때 밑부분을 마감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건을 내릴 때는 밑부분을 풀어서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는 밑부분에 긴 막대기를 줄과 줄의 사이사이로 꿰어놓았다가 부릴 때 막대기를 빼면 밑바닥이 열리면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든가, 밑부분을 모아서 졸라매거나 널빤지를 깔아 받침으로 삼았다가 내릴 때는 조른 끈을 풀거나 널빤지를 잡아 빼서 물건이 쏟아져 내리게 한다.

물건의 종류나 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옹구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길 때 대개 1회 120~140*kg*, 많으면 300*kg*까지 실을 수 있다. 옹구는 원구, 온구, 옹기, 망구, 옹고擁罟, 옹구테, 홍어리대, 우분牛奮 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들 명칭에서 '옹'은 물건을 안거나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한자식 표현으로는 옹고擁罟 혹은 우분牛糞이라고 한다. 옹고는 '물건을 담아 옮길 수 있는 그물망'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분은 '소 등에 얹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삼태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옹구는 물건을 실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다소 쳐지는 형상이 되는데, 그래서 한복 바지를 축 늘어뜨려 입는 것을 일컬어 '옹구바지'라고도 한다. 발목에 대님을 매고 한복을 내려서 입은 모양이 물건을 실은 옹구와 모습이 비슷한 데서 비롯한 말이다.

특징 및 의의 소 등에 물건을 담아 운반하는 용구로는 옹구를 비롯하여 걸채(혹은 발채), 거지게 등이 있다. 이들은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옹구는 논밭에 재·거름 등을 낼 때 혹은 각종 채소나 흙·모래 따위를 실어 나를 때 이용한다. 그리고 발채는 벼나 보릿단, 나뭇단 등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고, 거지게는 지게와 비슷한 형태로 통나무나 볏섬 등을 나르는 데 쓰였다. 이렇듯 실어 옮기고자 하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도구를 갖추어 사용한 것이다.

특히 소 등에 물건을 실어 옮기는 방법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는데, 소달구지를 이용할 때보다 운반량이 적기는 하지만 소달구지가 다닐 수 없는 산골의 좁은 길도 불편함이 없다. 따라서 사람과 소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모두 운반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운반용 동력 기계의 발달과 도로의 발달 등으로 이와 같은 운반 용구는 사용하지도 않고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옹구 | 풍속도 중 부분 | 김윤보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디지털영암문화대전(yeongam.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재호(金在浩)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정의 전라북도 완주군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해온 생강의 재배, 저장, 가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완주생강은 한국 생강농업의 대명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봉상생강'을 검색하면 "전라북도 완주군에선 나는 생강. 품질이 매우 좋으며 식용하거나 약용한다."라고 나온다. 봉상은 완주 봉동읍의 옛 지명이다. 생강유입 관련 설화에 의하면, 1,300년 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신만석이 중국 봉성현에서 생강을 들여와 다른 지역에서 재배했으나 실패하고 지명이 유사한 봉상에 생강을 심어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문헌에는 1018년(현종 9) 『고려사高麗史』에 처음 등장한다. 거란의 침략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현종이 완주를 경유하였고 전사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생강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동의보감東醫寶鑑』(1610), 『도문대작屠門大爵』(1611), 『택리지擇里志』(1751) 등에 완주생강이 등장한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亂中日記』(1597)에 "판관이 생강을 보내왔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1913년 이규준의 『봉상유람기』에는 봉상이 유일무이한 생강 산지로 소개되어 있다. 1920년 이후 김장과 탕, 국 등에 생강이 첨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1930년 9월 생강조합인 봉상산업조합이 결성되었다.

완주 생강농업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온돌식 생강굴이다. 구들장 밑에 굴을 파 생강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온돌의 화기를 이용하여 저장력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생강굴은 1450년경에 간행된 『산가

요록山家要錄』에 "온돌의 화기가 있는 곳에 묻어 두거나 항상 화기가 있는 구들 밑에 묻어둔다."라고 수록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지식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온돌식 생강굴 508개와 1960년대부터 이용된 토굴식 저장굴 357개가 확인되었다. 가옥을 개조하면서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농가 대부분이 생강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의 생강 재배면적은 2017년 기준 111*ha*이고 생산량은 1,176t이다. 이중 봉동읍 222농가에서 91.9%인 1,081t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생강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6개의 가공업체 매출액은 약 529억 원, 고용인원은 18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봉동읍을 중심으로 1,0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완주 생강농업은 전통적인 재배기술과 온돌식 생강굴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생강은 고온성 작물로 13℃ 이하에서는 동해凍害를 입기 때문에 겨울철 종강種薑(씨종자) 저장이 농사의 관건이었다. 생강굴은 온돌을 이용한 저장법으로 아궁이에서 들어온 불길이 통과하는 고래 밑에 굴을 설치하여 인간과 생강이 화기를 나눠 갖는 방식을 취한다. 고래를 지나는 불과 연기는 위로 구들장을 데워 사람을 살리고 아래로 굴을 덮고 있는 판석을 데워 생강을 살린다. 종강의 건사는 생계와 직결되므로 생강굴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아침저녁으로 불을 땐 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생강굴 입구의 덮개를 필요한 만큼 열어 찬 공기가 들어가도록 조절하였다.

온돌식 생강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토양 특성을 활용해온 지역민들의 전승지식이다. 고산천이 흐르는 봉동읍의 토양환경은 심토자갈 함유량이 35% 이상으로 지하 곳곳에 물길이 형성되어 있다. 생강농사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고산천 수량이 많아지고 심토자갈층으로 유입된 수분이 토양을 적셔준다. 이 지역 생강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강밭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강농사는 물주기 농사'라고 하여 성장기에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지만, 땅속으로 물이 유입되는 이곳에서는 물을 주지 않아도 생강 생장에 지장이 없다.

완주의 생강농사는 겨우내 저장해둔 종강을 선별하여 싹을 틔우면서 시작된다. 종강에 흙을 뿌려 물을 준 후 가마니로 덮어두었다가 파종 직전에 3~4일간 햇볕에 쬐어주면 발아가 촉진되는데, 이때 눈이 2~3개 정도 되도록 잘라준다. 싹이 트는 동안 밭에서는 땅을 고르고 땅심을 돋아준다. 갈이흙[耕土]은 약 20*cm* 깊이로 경운을 하고 파종 10일 전 깊이 9~10*cm*의 심음골을 만든 다음 깻묵, 쌀겨, 당밀을 섞어 풀과 함께 1년가량 부숙시킨 퇴비를 넣는다.

파종은 4월부터 5월 상순에 하는데, 너무 이르면 동해를 입을 수 있다. 싹을 틔워 심을 때는 눈이 위로 가게 심고 3~4*cm* 두께로 복토한다. 재식거리는 이랑나비 60~65*cm*, 포기사이 25~30*cm*로 하여 한 줄로 심거나, 이랑나비 130~150*cm*, 포기사이 45*cm*로 하여 두 줄로 심는다. 파종 후에는 떡갈나뭇잎, 상수리나뭇잎, 솔잎, 볏집 등으로 '생강풀덮기'를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발아가 잘 되고 잡초를 억제하며, 혹서기에는 토양온도를 낮추기도 한다. 생육초기에는 잡초를 자주 뽑아주는데, 수확 때까지 9~13





생강과 생강밭 | 전북 완주 | 완주군청

번의 김매기를 한다. 이랑의 흙을 모아 줄기 밑부분을 두둑하게 덮어주는 북주기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생강수확은 조숙재배 7~8월, 일반재배 8~9월에 하여 잎생강으로 시판하고, 9~10월 이후에는 뿌리만 판매한다. 종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 줄기와 잎을 제거한 후 이듬해 2월경까지 저장한다. 수확 후에는 따뜻한 곳에서 3일 정도 말려 생강의 무름을 방지해준다. 저장할 때는 온도 13~15℃, 습도 90%를 유지해 주어야 균에 의한 뿌리썩음병을 방지할 수 있다.

생강은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이다.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주에서는 생강을 재배한 이듬해 메밀, 대파, 양파, 들깨, 고추, 마늘, 감자 등을 윤작한다. 가을보리를 심은 고랑에 생강을 파종하기도 하는데, 보리수확 때 보릿대 중간쯤 베고 나머지는 생강거름으로 이용한다. 최근에는 폭염이 심해질 때, 생강밭에 옥수수를 심어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농가도 생겨났다.

광복 전에는 북만주에서 제주까지 완주 생강이 유통되었다. 주민들은 만주로 생강을 팔러 간 사람이 귀향하면, 만주에서 겪은 이야기가 사흘밤낮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1778)에도 생강장수 부부가 의주까지 생강을 팔러 다니는 사정이 언급되어 있다. 광복 이후에도 생강은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되었다. 완주 청년들은 생강을 팔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당시에 겪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완주의 농부들은 1,000년의 세월 동안 지역 풍토에 적응한 토종생강을 지키고 있다. 농부들은 토종생강을 절단면의 색깔에 따라 청골, 황골, 백골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래종과 개량종이 더 크고 수확량도 많지만 토종생강 재배면적을 10%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완주생강은 농업문화의 전승에 기여해왔다. 특히 봉동읍은 생계가 넉넉하여 장날이나 생강 수확기에 유랑예인 집단이 꼭 방문하는 곳이었다. 본래 음력 7월 20일에 거행된 봉동당산제는 축제의 장이었다. 전국에서 장사들이 몰려와 큰 씨름판이 벌어졌으며, 도전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 상씨름 전통이 이어졌다. 현재는 읍민의 날인 10월 10일로 시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풍장, 씨름,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향토음식의 전승도 주목된다. 봉동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생강의 가느다란 뿌리인 강수를 넣어 매운탕을 끓이고 생강차로 원기를 돋아주었으며, 돌아갈 때 편강을 들려 보냈다. 강수를 잘게 쪼개 무쳐먹는 강수무침, 생강줄기나 잎을 발효시킨 개악 등 고유의 향토음식이 전승되고 있으며, '진저원'을 브랜드로 한 다양한 생강식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통의 고장 완주(완주군청, 2012),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완주군, 20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정명철(鄭明哲)

외양간

정의 소나 말이 먹고 잠자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막사.

개관 소나 말은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큰 동물로 농사지을 때 부리는 요긴한 동물이다. 따라서 그 값 또한 만만치 않아 부잣집이어야 소유할 수 있었다. 소나 말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도 쓰이며, 물건을 운반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고로 집안의 큰 재산으로 치부되며, 급할 때는 고가로 매매할 수도 있는 경제적 자산이 되기도 하였다.

내용 농사가 많은 농가에서는 소를 매우 중요시하여 가족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 식구는 아니지만, 소를 생구生口라 불러 왔다. 소를 농사철에는 잘 먹이지만 평소에도 산이나 들로 데리고 나가서 좋은 풀을 배불리 먹도록 늘 배려하였다. 그러기에 농가의 아이들은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와서 소를 몰고 나가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사람에게 주거공간이 필요하듯이 소나 말도 생활공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마소가 생활해 가는 외양간을 만들어 주었다. 낮에 들판에서 풀을 배불리 먹은 소는 저녁때가 되면 저절로

제집을 찾아드는 영리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주인이 뒤따르는데, 집 안으로 들어온 소는 스스로 자기가 머무는 외양간으로 들어가 쉬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양간의 위치는 겨울에 북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겨울의 추위를 막는 것이 여간 큰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거가 대개 남향을 우선하므로 외양간은 대개 아래채의 구석 또는 별채에의 남향 아니면 동향으로 짓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소에게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북부 지방이나 울릉도 산간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해 집을 지은 후에 우데기로 집을 둘러싸는데, 이런 집을 '우데기집' 혹은 '겹집'이라고 한다. 이런 집들은 우데기 안에 부엌과 외양간이 붙어 있어 부엌의 온기로 외양간이 다소 따뜻해진다. 외양간의 추위를 막는 한 방법이다.

외양간의 구조는 앞면이 트여 있고, 뒷벽과 옆면은 막혀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옆면의 한쪽이 헛간과 붙어 공존하는 경우 또한 간혹 있다. 바닥은 뒤편 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어 오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소가 누웠을 때 폭신함을 주기 위해 지푸라기를 바닥에 깔아 준다. 이것은 쇠똥과 섞이어 나중에 숙성이 되면 유기질 거름으로 쓸 수가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 외양간에서는 소나 말도 앞쪽을 향하도록 고삐를 매어 두며, 앞쪽의 목 아래에다 먹이를 담는 구유를 놓아두어서 아침저녁으로 쇠죽을 쑤어 퍼 담아 준다. 요즘은 번거롭지 않게 사료에다 짚을 섞어 그냥 먹이는 농가도 있다. 아무리 남향이라 하더라도 겨울에는 추우므로 앞쪽을 판자나 가마니, 짚으로 엮은 뜸 같은 가리개로 가려 준다.



외양간 | 198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외양간은 농가의 식구나 다름없는 소나 말의 거처가 되므로 추위나 더위가 심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외양간은 마소가 함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다. 소는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을 지닌 가축이며 고가의 농가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민속의 원형(배도식, 집문당, 1995),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출판사, 1981),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필자 배도식(裵桃植)

외역전
外役田

정의 고려와 조선시대에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향리鄕吏에게 지급한 토지.

내용 외역전外役田은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 속 1388년(우왕 14) 조준趙浚의 상서上書에 처음 등장하는 지목地目이다. 1388년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 일파는 전제田制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준의 상서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외역전은 여러 군郡·현縣으로부터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에 속한 이吏에게 지급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조준이 고려의 토지 제도가 문란해졌음을 언급하는 내용에 이미 외역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외역전은 존재하였다고 여겨진다.

비록 외역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고려 초기부터 향리에게는 토지가 지급되고 있었다. 향직鄕職 혹은 무산계武散階를 받거나 기인其人의 역役을 통해서 전시과를 받기도 하였고, 최고 향리층인 호장戶長에게는 직전職田이 지급되었다. 또 각 관아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어졌던 공해전公廨田의 지목 가운데는 장전長田

이 있었는데, 이 토지도 향리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여 향리가 수령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보조하였고, 더구나 그들은 호족豪族의 후예로 지역의 토호였으므로 이들에게 응분의 보수로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그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향리에 대한 급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역전은 곧 이러한 향리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려 중엽 이후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향리층 내부에도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향리의 직역이 고역화苦役化되면서 향리의 숫자가 격감하게 된다. 이에 국가에서 당시 격감된 향리의 수를 보충하고, 더 나아가 그때까지 토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말단 향리층에도 급전의 혜택을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 외역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외역전은 여말선초의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인리전人吏田으로도 불리는 읍리전邑吏田으로 정리되었다. 읍리전은 각 고을에 수십 결結 이상 산재하던 것으로 여겨지며, 향리 1인에게 세위전稅位田으로 수전水田 2결과 구분전口分田으로 한전旱田 3결을 배정하였다. 여기서 세위전은 수익의 일정량을 나라에 세稅로 납부하는 토지이고, 구분전은 무세지無稅地로 수확이 모두 향리의 생계유지에 충당되는 토지였다. 이 밖에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 등 향리에게 주어지는 위전位田도 있었다.

조선 전기에 지급된 읍리전 5결은 양반 과전과 비교하면 최하위 18과에 해당하며 이마저도 세위전의 세액이 과중하여 구분전의 소출로 충당하는 등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정부에서 중앙의 공해전과 지방의 공수전·아록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읍리전도 계속 존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1445년(세종 27)에 이르러 국가재정을 정비하면서 전국에 대략 수만 결에 달하는 읍리전이 폐지되어 국고로 회수되었다. 이로써 향리에 대한 급전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외역전은 고려와 조선에서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지방관을 보좌하는 직역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세종 때 향리에 대한 급전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경제 기반은 순수하게 자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의 향역(이혜옥, 이화사학연구1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1988),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조선전기(이경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高麗·李朝時代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朝鮮學會, 1966).

필자 오치훈(吳致勳)

용두레

정의 물을 푸는 통을 그네처럼 매달아 놓고 흔들면서 물을 푸는 농사 연장.

내용 용두레는 주로 얕은 곳에 있는 물을 약간 언덕진 높은 곳의 논으로 푸는 데 사용한다. 한꺼번에 푸는 물의 양이 많고 물통을 그네처럼 흔들어서 푸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과 논의 높낮이 차가 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적 수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오늘날 양수기를 대신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두레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한꺼번에 동원하여 푸기도 하였다.

용두레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을 퍼서 담는 물통 부분과 이 물통이 매달려 있게 하는 걸개 장치 그리고 설치대이다. 물통은 지역에 따라 또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개는 소나무 같은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형태이다. 앞쪽 아가리 부분은 넓고 깊게 파고, 뒤쪽은 좁고 얕게 파낸 다음 자루를 달거나 자루까지를 한 몸으로 다듬기도 한다.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통나무의 굵은 아래 밑동 부분이 앞쪽이 되게 하고, 가는 윗동은 뒤쪽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적절한 통나무를 구하기 어려우면 판자를 이용하여 유사한 형태로 물통을 짜기도 한다.

설치대는 나무를 안정감 있게 삼각뿔 형태로 설치하여 맨 위 꼭짓점 부위에 물통을 매달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물통은 가만히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네를 태우듯이 계속 흔들면서 움직인다. 한 방향으

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앞뒤 아래위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물통은 전체 길이가 사람 키와 비슷하고 부피도 큰 통나무에 버금가며, 물을 채웠을 때 무게도 상당하다. 이러한 물통이 설치대에 매달려 있도록 하는 것이 걸개 장치이다. 이는 단순히 물통과 설치대를 연결하는 끈이 튼튼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통의 전체 무게가 걸개 장치에 집중되고, 그러면서도 움직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파서 몸통을 만든 뒤 그 가운데 양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가는 나뭇가지를 끼우고 여기에 끈을 맨 형태이지만 보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걸개 장치는 재목을 구하는 데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저전마을의 경우는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한 나무를 별도로 마련해서 장만하는데 이런 용도로는 전통적으로 시무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시무나무는 느릅나뭇과에 속하는 교목으로 재질이 야물고 단단하여 예로부터 각종 농기구를 비롯하여 배나 차, 가구, 기구 등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이 걸개 장치는 두레 물통에 부착하는데 물통 전체 길이에서 중간 부위, 즉 무게 중심 부위에 부착한다. 그래야 물통을 들었을 때 안정감이 있고, 시소seesaw 원리에 의해 들 때 힘도 덜 든다.

용두레는 지역에 따라 통두레, 파래, 품개, 풍개 등으로 이름이 다양하다. 통두레는 전남 영광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파래는 경상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주로 부르는 이름이다. 이들 이름은 지역 간에 혼용되지 않는다. 경상도에서는 용두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파래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곧 언어문화권의 지역적 차이가 분명하다.

용두레 사용 방법은 수원과 지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천 강화도나 전북 김제와 같은 저지대 평야지역에서는 현대식 관개수리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용두레를 사용하여 물을 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산간지역에서는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주로 사용하였다. 안동시 북후면 저전마을처럼 산간지역에서 물이 부족할 때 파래를 사용하여 개울물이나 논 가 웅덩이 물을 푸는 예가 더러 있었다. 평상시에는 계류보溪流洑를 이용하였으므로 파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가뭄이 심해 모판이 탈 정도가 되었을 때 파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모심기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판 정도를 건사시키기 위한 소규모 가뭄 대비용이었다. 그래도 수원이 부족한 지역이라 농가마다 거의 1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용두레를 이용하여 물을 푸는 방법은 다소 느릿느릿하다. 한 통은 약 두 말 정도가 되는데, 세 사람이 교대로 푸면 하루 약 1,000석石 정도를 풀 수 있다. 물을 풀 때는 물 푸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경북 안동시 북후면 저전마을에는 "(받음)호호 파래예이, (메김)파래소리가 아니데나 / 열려 땡겨 잡아채라 / 푹푹이 숙여 떠라 / 아무리 숙여도 물이 안 난다."와 같은 파래 소리가 있고, 경기도 안산 지역에는 "(받음)에이야-라 용-두레요, (메김)하나 하구 물을 퍼니 / 에이혀라 용-두렌가 / 이 용두레 노다가요 / 용두레로 물을 푸면 / 이 논이 가득찬다."라고 부르는 용



관개 풍경 | 일제강점기 | 수원광교박물관



용두레질 | 농촌진흥청

두레질 소리 혹은 물 품는 소리가 있다. 이들 소리는 천방에다 여러 대의 용두레를 설치하고 소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메기고 여러 사람이 받는 형식이다. 그리고 강화도의 경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2003)된 용두레질 소리가 있는데, 교동면의 경우 "하나 둘이다 허이, 둘은 서이" 또는 "하나의 둘이라 흥, 둘이면 서히요 흥" 등 숫자를 헤아리는 셈 소리로 부르고, 내가면에서는 "(받음)어허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메김)어허야 용두레 물 올라가누나"로 시작하여 달거리 형식으로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용두레는 물을 담아 푸는 통을 그네나 시계추와 같이 중력을 이용하여 물을 밀어 올렸다가 손잡이를 위로 세워 언덕진 곳으로 물을 푸는 방식의 농사 연장이다. 용두레는 수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부터 부족한 지역에서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한 아주 보편적인 물 푸는 도구이다. 하지만 전기 모터나 양수기 등이 보급되고 현대 수리시설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인력에 의존한 물 푸는 도구는 점차 사라졌다.

참고문헌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심씨 할매와 삼베, 농요의 마을 저전(안동민속박물관, 2018),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디지털안산문화대전(ansan.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재호(金在浩)

우경
牛耕

정의 소를 이용하여 논이나 밭을 갈거나 삶는 일.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502년(지증왕 3) 신라에서 우경牛耕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그 이전에도 국지적으로 소를 농경에 이용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근거로 신라에서 28년(유리왕 5)에 쟁기보습犁耜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을, 그리고 438년(눌지왕 22)에 우차牛車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증왕 때 우경 기록은 신라 전역에 우경이 보편화되었다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우경을 장려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4~5세기에도 소를 다루는 기술이 요즈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57년에 축조된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에는 외양간에서 누렁소·검둥소·얼룩소 세 마리가 통나무 구유에 담긴 여물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있다. 또한 409년에 만든 평남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견우직녀도牽牛織女圖에 나타난 소와 4세기 말~6세기 초에 조성된 중국 지린성吉林省 소재의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소는 모두 코를 꿰어 고삐를 맨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덕흥리 고분과 무용총 벽화뿐만 아니라 5세기의 고분으로서 평남 용강에 위치한 쌍영총 벽화에는 소가 바퀴 달린 가마를 끌고 가고 있다. 이들 벽화에서는 소를 농경에 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삼국 중 우경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고구려이며, 중국을 통하여 보습을 들여와 늦어도 4세기경에는 고구려의 지형과 토양에 맞는 고구려식 보습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를 이용한 갈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갈이 연장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인력으로 땅을 갈 때는 따비를 사용하였고, 그 증거가 대전 출토 농경문청동의기農耕文靑銅儀器에도 잘 나타난다. 인력농기구 따비에 성에를 끼우고 한마루로 삼각 구조를 만들어서 인력과 축력 겸용으로 발전시킨 것이 극젱이이고, 쟁기는 극젱이가 더 전문화·대형화된 것이다.

내용 소를 농경작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통제에 잘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힘도 세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 즉 소 길들임은 일차적으로 사육상 편리한 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이차적으로 농경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소의 힘을 효율적으로 동력화하고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의 야성을 꺾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였다. 이에 코를 뚫어서 코뚜레를 끼우고 굴레와 고삐를 맨 다음 고삐 하나로 소를 통제하였다. 수송아지는 생후 7~8개월(암송아지는 10~11개월)이면 사람의 통제력을 벗어날 정도로 성장하므로 이때 코를 꿴다. 그러고 나서 쟁기를 결합하여 모래판에서 구호와 함께 전진·좌회전·

우회전·멈춤 등의 훈련을 시켜서 길을 들이고, 가을에 벼 수확 이후 논에 보리를 파종하고 씨앗을 묻기 위해서 끙게에 큰 돌을 올려서 하루 정도 훈련을 시킨다. 이런 훈련을 시켰다 해도 제대로 길이 들지 않았다면 보조원으로 하여금 소를 이끌면서 하루쯤 논밭을 갈면 완전히 길이 든다고 한다.

우경도 그 목적에 따라 갈이·골타기·썰기가 있다. 갈이란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서 뒤집어엎음으로써 표층의 흙과 심층의 흙을 서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골타기는 갈아놓은 토양에서 극젱이 혹은 작은 쟁기로 파종을 위해 또는 두둑을 만들기 위해 얕게 가는 것, 제초와 북돋우기를 위해 얕게 가는 것을 말한다. 썰기는 농토의 흙덩이를 분쇄하여 토양을 부드럽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다. 부숴야 할 흙덩이는 쟁깃밥이 굳어진 것으로 쟁기질의 결과물이지만, 작물의 파종이나 발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썰어야 한다. 써는 작업도 수도재배를 위한 논이냐 잡곡 재배를 위한 농토냐에 따라 그 농기구와 방법이 다르다. 논에서는 못자리판[秧板]을 만들 때, 모심을 논을 삶을 때 써레로 썬다.



뇌경 | 양기훈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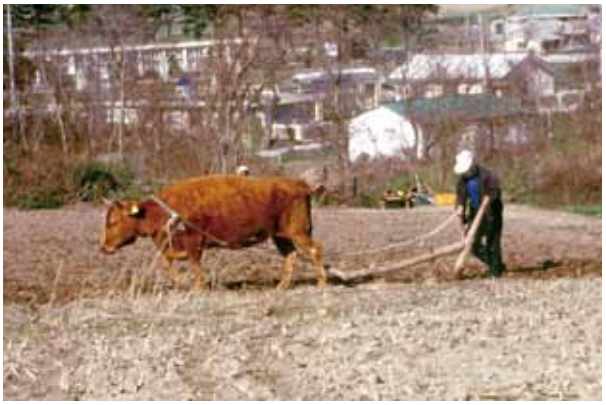
겨리쟁기질 | 풍속도 중 부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논 써레질은 대개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흙덩이를 부수어 부드럽게 하고, 이어서 울퉁불퉁한 논바닥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한다. 써레질을 빈틈없이 반복함으로써 토양을 정밀하게 분쇄하고, 이로써 자연누수를 차단한다.

소를 농경 작업에 이용할 때 핵심적인 일은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논과 밭의 갈이 작업이다. 갈이는 심경深耕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통 묵은 땅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토양을 뒤집는다. 논·밭갈이를 할 때 농부는 소에 쟁기를 결합하여 소를 부려서 일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쟁기는 심경용深耕用이며, 극젱이는 천경용淺耕用 갈이 연장이다. 대개 들이 넓은 곳에서 사용하는 쟁기는 '쟁깃밥'을 한쪽으로 넘겨주는 장치인 '볏'이 있지만, 준산간지대를 포함하여 산간지대에서는 심경용 쟁기조차 볏이 없다. 또한 쟁기보다 작고 가벼우며 볏이 없는 갈이 연장을 극젱이라고 한다. 쟁기든 극젱이든 소에 결합하여 소의 힘을 이용하여 농부가 논밭을 갈고 골타기를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중부 이북의 산간지역에서는 하나의 쟁기에 두 마리의 소를 결합하여 갈이를 하는 '겨리'농경[1犁2牛耕]이 강세를 보였고,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하나의 쟁기에 한 마리의 소를 결합하여 갈이를 하는 '호리'농경[1犁1牛耕]이 일반적이었다. 겨리농경은 산간 경사지의 위험성에 대한 적응형태이기도 하며, 인구밀도가 낮고 토양에 바위나 굵은 돌이 있기도 해서 이랑을 넓게 짓고 파종을 성글게 하므로 조방농업체계와 관련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우경의 의의와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는 농업노동력을 절감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준 것이며, 둘째는 심경·반복경을 통하여 토양비옥도를 높여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1930년에 조사된 시간당 논·밭갈이 작업능률을 보면 논갈이에서 남자가 우경으로 145의 지수를 달성한다면, 비우경으로는 17의 지수밖에 달성하지 못한다. 밭갈이에서 남자가 우경으로 152의 지수를 달성한다면, 비우경으로는 28의 지수밖에 달성하지 못한다. 논갈이에서는 비우경에 비해 무려 8.5배 능률적이며, 밭갈이에서는 비우경에 비해서 5.4배 능률적이었다. 밭갈이보다는 논갈이에서 비우경



호리쟁기질 | 전남 영광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겨리쟁기질 | 강원 양구 | 1999 | 농촌진흥청

에 비해 작업능률이 더 높았다. 물론 수소와 암소에 따라 노동능력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경으로 가능해진 심경 덕분에 토양이 얼마나 비옥해지고 그 결과 얼마나 토지생산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정보가 적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의 현지조사에서 농부들은 논을 여러 차례 갈면 토양이 기름지게 된다고 알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보통 2~3번 갈아서 논 1마지기(200평)에 2섬의 '나락'(벼)을 수확하는 논이라면, 5번 갈면 3섬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소작농으로 출발하여 자수성가한 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준다.

> 어느 해인가 소도 든든했고 시간 여유도 있어서 7번에 걸쳐 논을 갈았다. 그러고는 논맬 때 나뭇재와 쇠똥을 모아서 4마지기의 논에 거름으로 주었다. 논은 남의 토지였는데, 벼는 무진장 잘 되었다. 예년 같으면 마지기당 100단의 벼가 날 논인데, 200단의 벼를 거두었다.

논갈이를 7번 한 결과, 2~3번 할 때보다 수확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논갈이가 지력 증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우경은 사람들의 노동을 쉽게 해 주었고, 수확량을 늘려 주었다. 오랜 세월 동안 우경이야말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 겨리농경지역의 소겨리 구성과 특징(김세건, 한국민속학65, 한국민속학회, 2017), 강원도 겨리농경지역에서 '밭갈애비'의 주요 갈이 기술과 특징(김세건, 비교민속학69, 비교민속학회, 2019), 겨리 농경의 기술적 의의와 노동조직의 양상(이준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문화전승으로서 농업기술 교육의 전통과 변화(배영동, 비교민속학25, 비교민속학회, 2003), 조선농업론(이훈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한국고대의 여경(犁耕)에 대하여(이현혜, 국사관논총37, 국사편찬위원회, 1992),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高橋昇 著, 飯沼二郎 編, 未來社, 1998).

필자 배영동(裵永東)

우금해제
牛禁解除

정의 조선시대에 농우農牛 보호를 위해 소의 도살을 금하는 정책인 우금牛禁을 연말이나 연초에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

내용 소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소를 함부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고려시대에 이미 시행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얼굴에 죄인 표시黥를 새기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만큼 여기에는 살생을 금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불교국가가 아닌 조선왕조에서는 살생 금지 차원이 아닌 농업 보호 차원에서 소의 도축을 계속 금지하였는데, 이를 우금牛禁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우금패牛禁牌를 가지고 다니며 단속하게 하였고 지방에서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감찰하게 하였으며, 단속을 소홀히 한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제정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의 형법인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장杖 100대로 규정하였으나 1543년(중종 38) 무렵에 간행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는

주모자에게 장 100대를 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가족을 변방으로 유배 보냈을 뿐만 아니라 종범과 이웃까지 처벌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더욱 높여 갔다.

그러나 우금의 한계는 있었다. 국가의 공적 행사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한성부의 허락을 받아 도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5일에 한 마리만 도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경제적 성장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쇠고기 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불법 도축과 사설 푸줏간[私庖]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타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서울에서는 성균관 노비들이 운영하는 현방懸房(고기를 걸어 놓고 파는 가게)에서 소의 도축과 쇠고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1746년(영조 22)에 나온『속대전續大典』에서는 사적 도살로 적발된 자[私屠者]에 대한 장형杖刑에 처하도록만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배와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처벌 규정의 일부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속牛贖이라는 벌금[贖錢]을 냄으로써 장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가 하면, 벌금을 내고도 장형을 면치 못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속 징수가 관리들의 축재 방법이 되었고, 사적 도살의 고발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우속 폐지의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우금 정책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속을 폐지하고 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그러므로 우금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여 한시적이지만 우금을 해제하였다. 우금해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사료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1754년(영조 30) 정월 2일 왕이 "경조京兆에 명하여 우금을 완화하도록 하였다."라는『영조실록英祖實錄』권81, 영조 30년(1754) 1월 임자(2일)의 기사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는 실시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19세기 자료인『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그 취지는 연초만이라도 마음 놓고 쇠고기를 배불리 먹으라는 것으로, 매년은 아니지만 한 번씩 서울에서는 섣달그믐의 하루나 이틀 전에서부터 설날까지 형조나 한성부 같은 법 집행 관서가 우금 단속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우금해제에 대한 사료는 이 정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우금해제 시기를『동국세시기』에서는 섣달그믐 하루나 이틀 전부터 설날까지라 한 데 비해 앞에서 인용한『영조실록』에서는 정월 2일에 우금해제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금해제가 연말과 연초에 시행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둘째, 두 자료는 모두 서울에서 우금이 해제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우금이 해제되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우금해제가 매년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해에만 그것이 시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영조실록』을 통해 우금해제는 왕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지만, 시행 명령의 하달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앞으로 알아내야 할 과제이다.

특징 및 의의 우금은 농본국가인 조선왕조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이상 우금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금해제는 백성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복지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大明律直解, 大典後續錄, 牧民心書,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後續錄, 조선대세시기3-동국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서영대(徐永大)

우루과이라운드

정의 자유무역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시도에서 성립한 GATT 체제에서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재편

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시도에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성립되었다. GATT는 체약국 간 협상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 주요 협상의 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이었고 일반적으로 '가트라운드 협상'으로 불렀다. 가트라운드 협상은 1947년의 제네바에서의 제1차 협상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1994년 4월 종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전후 47년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WTO 체제가 탄생하였다.

내용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방식은 다수의 체약국이 참가함과 동시에 다수의 국별·품목별 양자 간 협상을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관세의 일괄 인하방식이 원칙으로서 채용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가 다뤄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경제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다뤘다. GATT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농산물 분야, 섬유류 교역, 비관세장벽 문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이견 등이었고 새로운 문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이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의 규율 강화, 분쟁 처리 절차,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까지를 협상 대상에 포함하여 GATT의 기능 전반에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상품 그룹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무역 관련 투자조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등 15개의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농산물·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섬유·긴급수입제한 등 많은 분야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협상이 지연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길어지게 된 것은 농업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 협상을 둘러싼 대립은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보조금의 금지 및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소극적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일본·농산물수입국의 대립, 즉 보조금 축소를 둘러싼 미국과 EC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UR 협상의 난제였던 농업 분야는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화하고 최소 시장접근 허용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각국이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가운데 허용되는 국내보조금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고, 여타의 국내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시장접근 분야, 국내보조 분야, 수출보조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 상당치를 6년간 36% 가량(개도국의 경우 10년간 평균 24%) 감축하도록 하였다. 물론 한국쌀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특별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축 대상 보조금과 감축의무 면제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선진국의 2/3)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 기준으로 36%, 수출물량 기준으로 21%(개도국의 경우 10년간 선진국의 2/3)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조,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수출을 위한 물류보조 등 6개 유형을 예시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협상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개방 분야 협상에서 획기적인 사실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통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모든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관세화 조치로 인하여 세계시장가격의 안정과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로 인하여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국민 경제상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와 가격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었다.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최대 특

징과 의의는 국내 농업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규범을 제정하였고, 또한 수량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시장개방이나 국내보조금 감축에 우선하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타결되었어야 할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분야별로 또는 수·출입국 간에 불균형한 형태로 타결되었다.

특징 및 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협상 타결 즈음에 한국 농민들과 농민운동단체들은 'UR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농산물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주요 내용이라 보고 반대운동을 펼쳐 나갔고 농업 대책 수립, 국회 비준 거부 그리고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해당 운동은 사회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이 동참하며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민의 요구보다는 자본의 세계화 논리에 맞추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을 맺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 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성립된 WTO 체제는 세계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한국 시장도 쌀을 점차 개방하는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WTO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허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가격 지지에 영향이 적은 직접지불제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 아래서 농업 분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WTO는 14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FTA는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배타적 시장개방을 추구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FTA는 더욱 확산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 FTA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55개국(2020년 1월, 발효 기준)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농업 문제가 FTA 추진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국경 보호를 유지해야 하며,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농업계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문제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비농업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강봉순 외, 농민신문사, 1993),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백서(이재옥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국제경제문제연구회, 녹진, 1991).

필자 윤수종(尹秀鐘)

울력

정의 여러 사람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힘을 합쳐서 일하는 행위.

내용 마을공동체에서 반드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유상노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력을 이용한다. 다리 신축과 보수, 상엿집 신축과 수리, 마을 공동 우물 청소, 도로 보수, 뚝방 보수, 과붓집이나 병약자 집에 대한 노동력 제공 등이 울력으로 이루어진다. 상여메기 등도 크게 보면 무상노동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울력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미풍양속은 울력이라 부르지 않는다. 관행적 미풍양속으로서의 상부상조 전통이기 때문이다. 두레와 품앗이도 공동체적 노동순환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상제공이 아니다. 울력은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완벽한 무보수로 이루어지며, 삯 임노동과도 다르다. 무상제공이기는 하지만 울력을 받는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여 막걸리 제공 같은 일정한 예를 갖추기도 하는데,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마을공동체의 울력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회, 촌회, 동계 등의 총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울력은 절대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마을 총의에서 결정한 울력은 가급적 모두 따르는 것이 마을 생활의 기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울력을 거부하는 이는 없다.

'동네에서 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울력이 없다면 도로 보수 등 공동체의 온갖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일을 무작

정 벌이는 행동을 빗대어 '울력 믿고 함부로 덤빈다.'라는 말도 생겨났다. 지금의 동사무소 등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사회서비스를 마을 자체에서 울력으로 해결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울력이라는 말은 지방에 따라 다르게 쓰였는데, 함경북도에서는 '부근'이라고 하였고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우살미'라고 하였다. 울력이 사라진 오늘날 그 명칭과 노동 행위는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찰 생활은 예불, 선수행, 발우공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울력이 빠질 수 없다. 사찰에서는 농사짓기, 김장하기, 풀 뽑기, 도로 보수 등을 울력이라 부른다. 노동하지 않는 수행 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울력이 21세기까지도 행해진다. 마을의 일은 마을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듯이 사찰의 일은 사찰 스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동일 원칙이다. 일반 마을의 울력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노동을 전제한 장기적 생활 습속이라는 점에서 울력이라는 말이 매우 오래된 유습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울력은 공동체의 환난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장마나 태풍 같은 가공할 자연재해 등에 대처할 때 울력이 없다면 해결이 어렵다.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무상으로 받아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위하여 노동력을 투입한다. 이러한 점이 미풍양속이기도 하지만 자칫 악용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울력이 강제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세사회에서 관리들이 마을 주민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제가 조선인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울력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전국 단위에서 농촌진흥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마을마다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받아 원하는 사업 목적에 이용하려는 일이 잦았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군사기지 건설 등에도 울력을 악용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마을 도로를 시멘트 포장으로 바꾸고 지붕을 개량하는 일 등에 울력을 동원하였다. 정부에서는 시멘트, 슬레이트, 목재 등 건설자재를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공동체적 노동 제공 관행을 국가적 강제노동 제공으로 환치한 사례들이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마을에서는 울력이 사라졌다. 임노동 관계로 바뀐 사회에서 두레와 품앗이는 물론이고 울력도 존립할 자리를 잃었다. 품을 팔아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받는 임노동 사회에서 공동체적 무상노동 제공은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 범위와 수준에서나마 울력이 오늘날 농촌사회에 존재한다. 마을의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여 지극히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울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울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회봉사, 자원봉사 등의 이름으로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필자 주강현(朱剛玄)

울릉 화산섬 밭농업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해온 산간 경사지와 나리분지의 밭농업체계.

개관 울릉도는 약 1만 년 전에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으로 지형의 대부분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평지가 거의 없고 표토가 얕다. 기후는 연중 서늘하고 안개가 많아 일조량이 적은 편이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농업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지만, 울릉



울릉도 경사지 밭농업 | 경북 울릉 | 2016 | 정명철

도 농부들은 경사지를 개간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밭농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다.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130㎞ 이상 떨어진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0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는 신라 512년(지증왕 13)의 우산국 정벌에 대한 기록과 조선시대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전하는 무화과, 마가목, 머루, 다래, 야생복숭아, 돌배 등의 과일과 고사리, 미역취, 부지갱이, 산마늘 등의 산나물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1417년(태종 17)에 섬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시행하여 울릉도는 5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되었다.

울릉도 농업은 조선시대에 고종이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섬을 개척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883년 처음으로 16가구 54명의 주민이 울릉도에 정착하였다. 당시 강원도 관찰사는 선박 4척과 사공 40명, 종자로 쓸 벼 20석·콩 5석·조 2석·팥 1석, 농사에 필요한 암수 소 한 쌍, 생활에 필요한 직물·가마솥·그릇·수저·항아리·돗자리·짚신 등을 비롯하여 목수 2명과 대장장이 2명을 동승시키고, 이주민 보호를 위해 총·창·칼·탄환·화약·화승 등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입도한 주민들은 섬에서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에 주거를 마련하고 산채를 채취하여 끼니를 대신하였다. 나리분지는 사람들이 섬말나리로 연명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명이나물(산마늘) 역시 겨우내 굶주린 사람들이 눈이 녹자마자 뜯어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섬에 정착한 이들은 초기에는 화전개간을 통해 옥수수, 감자, 조 등을 심었다. 하지만 조류와 설치류에 의한 피해와 가뭄으로 인해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구가 증가하자 급경사지를 개간하였다. 이들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약되지 않은 조각 형태로 농경지를 조성하여 당귀, 천궁, 산마늘 등의 환금성 작물과 산채를 재배하였다. 이곳 농부들은 산에서 자생하던 산채를 옮겨 심거나 씨를 받아 밭에 뿌렸다. 이렇게 자라난 산채는 경사지의 토양유실을 방지해주었다. 또한 척박한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가마다 소를 키워 축분을 생산하였고 철 지난 산채는 소 사료로 쓰거나 퇴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산채를 중심으로 한 경사지 밭농업은 울릉도 농업의 근간이 되었다. 울릉도 5대 산채인 부지갱이, 산마늘, 미역취, 삼나물, 참고비는 농업소득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은 생계를 잇기 위한 섬사람들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농업유산으로, 경사지 농업과 순환적 공생농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대상지는 총 7,286*ha*이며, 밭 1,243*ha*, 임야 5,513*h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울릉도의 농업은 모두 밭농업이다. 지목상으로 논이 있지만,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적은데다 육지와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식량작물이 공급되어 1980년 후반부터는 논농사가 중단되었다.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밭의 고도는 735*m*이며, 20°에서 최고 60° 이상의 급경사지가 64.4%를 차지한다.

섬에 정착한 농부들은 산간 경사지를 화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처음에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작물이 잘 자랐지만, 4~5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농부들은 화전농업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소를 키워 거름을 얻는 방식을 택하였다. 농부들은 산나물 부산물로 소를 키웠고 소는 영양분이 풍부한 분뇨를 내어주었으며, 소의 분뇨는 다시 산나물을 건강하게 키워주었다. 이와 같은 경축순환농업은 울릉도의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도 축산을 병행하는 농가가 있으나 축산농가가 줄어들면서 공동으로 퇴비와 조사료를 생산하는 형태로 순환농업이 지속되고 있다.

울릉도는 화산 토양으로 표토가 얕아 비가 많이 오면 암반사면 붕괴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밭으로 이용되는 경사지는 토양침식에 아주 취약하다. 이곳 농부들은 토양 유실을 줄이기 위하여 산나물농업을 선택하였다. 적설량이 많은 울릉도에서는 다년생 작물인 산나물을 재배함으로써 연중 토양 피복 상태를 유지하여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 산나물은 산사태를 막아 산림을 보호해주고 산림은 부식된 유기물을 경작지로 내려 보내 작물의 성장을 돕는 셈이다. 등고선 재배



울릉 화산섬 밭농업 | 경북 울릉 | 농림축산식품부

도 울릉도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법이다. 농부들은 등고선을 따라 두둑을 만들어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억새와 수목을 심었다.

울릉도의 지질은 지표수 발달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하천 발달이 미약하다. 또한 지형의 기복이 크고 경사가 심해 하천의 유로가 짧다. 경작지의 수원 확보가 쉽지 않아 서늘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산나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따뜻한 바다와 대기 중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해무와 겨울철에 쌓인 눈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주어 안정적인 산나물농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는 기후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울릉도 농부들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

초기 개척민들은 자생식물을 식용하였는데, 그 전통은 산나물 중심의 음식문화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울릉도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물은 42종에 이른다. 산나물의 종류도 산마늘, 울릉국화, 섬초롱꽃, 전호, 두메부추, 어성초, 눈개승마 등 다양하다. 초기에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도록 산나물을 범벅이나 밥에 같이 넣어 먹는 방법으로 식용하였다. 차츰 육지에서 물자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반찬으로 식용하였는데, 주로 생채로 먹거나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무쳐 먹었다. 건조와 절임 가공기술이 보급된 후에는 장기간 산나물을 보관하면서 초무침을 해먹거나 국거리로 쓰였고 간장이 보급되자 간장에 절여 장아찌로 만들어 먹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울릉도는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이다. 화산분출물을 쏟아낸 중심 화구에 공간이 생겼고 자체 하중에 의해 분화구가 함몰되면서 칼데라 지형인 나리분지가 생성되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면서 농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독특한 화산섬 분화구의 농업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림과 경작지가 조화를 이루는 산나물농업은 토양 유실을 방지하여 다양한 자생식물과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해주고, 희귀식물과 자생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식물종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사지의 밭은 산림과 해양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어 완충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생물종의 상호작용을 돕고 복잡한 생태계가 연계된 서식공간을 제공해주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다.

참고문헌 개항기 울릉도 개척정책과 이주실태(김호동, 대구사학77, 대구사학회, 2004),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울릉군, 2017).

필자 정명철(鄭明哲)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蔚珍 金剛松 山地農業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보전해온 금강송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군의 산림면적 비율은 85.5%로, 전국의 63.2%보다 월등히 높다. 울진 금강송은 백두대간의 한 축이 뻗어내려 산림으로만 이루어진 군의 서쪽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 지역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가뭄에도 비가 내려 금강송 생육의 최적지로 꼽힌다.

예부터 최고의 목재로 칭송받아온 금강송은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궁궐과 사찰 건축재로 사용된 것은 물론, 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데도 쓰였다. 금강송이 사용된 건축물로는 숭례문, 경복궁, 종묘, 울진 불영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족의 관을 만드는 데도 금강송이 쓰였다. 흔히 큰 금강송은 나무껍질 내부가 누렇다고 하여 황장목黃腸木이라 부르는데, 잘 썩지 않고 건조가 쉽고 뒤틀림이 적어 관을 짤 때 최고로 평가받았다.

금강송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신라와 고려 때는 국가에서 소나무를 심었고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조정에서는 지방 수령들에게 소나무를 식재하게 하였고, 봉산封山이나 금산禁山을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위치한 안일왕산은 1680년(숙종 6)에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표석이 남아있고 지금도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 1959년 농림부의 육종림, 1982년 산림청의 천연보호림(737*ha*)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남부지방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3,705*ha*)으로 확대·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가 설립되어 국유림 7,119*ha*를 보호·관리하고 있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 경북 울진 | 울진군청

금강송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낙동정맥 해발 600*m*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금강송 5그루, 200년 이상의 금강송 8만 그루를 비롯하여 30~500년 된 금강송 1,284만 그루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역사적 가치와 금강송 보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다. 지정지역은 141,88*ha*이며, 2018년 기준 182가구에 23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내용 울진은 전형적인 산지농업경관을 보여준다. 금강송 군락지와 소하천, 주거지와 경작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온 삶의 흔적과 농업경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발 500~1,000*m*에 경사도 15° 이상인 경작지는 과거에 화전火田이 이행된 곳으로, 직선거리가 100*m* 남짓한 좁다란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고 해발 300~500*m*에 경사도 15°이하에서는

논농업이 이루어진다. 경사도가 낮아짐에 따라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고 휘어짐이 커져 양분이 많이 함유된 퇴적토양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 효율적인 관개를 위해 하천을 따라 논이 조성되었고 논과 금강송 군락지 사이에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논밭 농사 외에도 산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금강송이 내어준 버섯이나 약재를 채취하고 토종벌을 키우기도 하였다. 때로는 금강송을 벌목하는 산판에 참여하였고, 고갯길을 넘어 다니며 해산물과 농산물을 유통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논과 밭이 적었지만, 금강송은 산촌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곳 주민들은 송계松契와 산림계를 결성하여 금강송을 지켰고 금강송은 송이와 복령, 관솔, 산나물 등을 내어주며 주민들과 공생해왔다. 금강송을 지켜온 사람들을 금강송이 품어준 셈이다.

특히 송이는 산마을 주민들의 생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이를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는 대신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한다. 봄과 겨울 같이 건조한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순번을 정해 하루 두 사람씩 산에 올라 산불을 감시한다. 송이는 보통 백로를 전후하여 한 달 정도 채취하는데, 이때는 외지인들의 입산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감시한다. 외지인들은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에서 평소에 맛보기 힘든 송이버섯을 맛볼 수 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공생하는 균류 덩어리로, 큰 것은 10*kg*이 넘는다. 땅속에서 자라는 탓에 찾기가 힘들지만, 이곳 주민들은 쇠로 만든 꼬챙이를 땅에 찔러 그 질감으로 복령을 찾아낸다. 복령은 생으로 먹거나 가루를 내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 약효가 뛰어난 복령은 귀한 한약재로 사용되었는데, 심경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고 부인병증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솔도 금강송이 내어주는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소나무는 상처를 입거나 가지가 잘려나가면 송진을 뿜어내는데 그 송진이 뭉쳐 굳은 것이 관솔이다. 관솔은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있어 인기가 많고 값비싼 원목으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또한 관솔은 송진을 잔뜩 머금고 있어 옛날부터 횃불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잔대, 콩나물, 창초, 곤드레, 참나물, 다래, 팥나물, 댓잎나물, 무꾸나물, 깨뚜까리, 나무추, 개미추, 고비, 밀기추 등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들이 서식한다. 산나물은 봄철 구황식일 뿐만 아니라, 잘 말려두면 이듬해 봄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봄철이면 갓 나온 산나물을 뜯어 나물밥을 짓거나 '꾹죽'을 만들어 부족한 식량을 아낄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나물이 나는 봄이 오면 부녀자들이 산나물을 뜯으러 일제히 산으로 향하였다.

울진의 산간지역은 새도 쉬어 넘는다는 높은 산봉우리가 많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등짐을 가득 짊어진 '선질꾼'들이 험난한 산길을 넘어 다녔다. 굽이굽이 열두 고개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붙은 십이령은 매우 험준하다. 이 길을 넘나든 선질꾼들은 소천장, 현동장, 봉화장, 춘양장, 울진장, 흥부장 등을 돌아다니며 물자를 사고팔았다. 주로 울진의 어촌에서 나는 어물, 미역, 소금 등과 경북 내륙 농촌에서 생산한 쌀, 보리, 과일, 담배, 옷감 등을 유통시켰다.

특징 및 의의 울진 금강송은 주로 소광리, 불영계곡, 천축산, 왕피천 등에 분포하며, 한국 소나무의 원형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는 *ha*당 소나무 축적도가 300m^3로 독일의 평균 268m^3보다 높고, 운무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의 경관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금강송이 내어주는 송이와 복령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 송이를 채취하는 풍경, 문화재 복원용 금강송을 벌목하는 풍경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금강송 군락지는 숲의 천이 과정과 인위적인 간섭으로 인해 형태가 변하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소광리 일대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고립되지 않고 낙동정맥의 금강송림과 생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계목을 양성하고 유전자원 보호를 통해 건강하고 우량한 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천연하종갱신이나 인공조림을 통해 금강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울진군 북면·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울진군, 2018),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이야기(권봉관 외, 국립농업과학원, 2017).

필자 정명철(鄭明哲)

워낭

정의 소의 존재와 이동 시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소의 목에 다는 방울.

개관 소는 농가의 가장 힘이 센 일꾼이자 재산이므로 주인이나 가족들은 소에 관한 관심이 아주 크다. 소의 목에 매달린 방울은 소가 살아 있는 생명체이므로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린다. 이 소리가 바로 워낭소리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소가 외양간에 잘 머무르고 있음을 안다. 만약에 외양간에 매어 둔 소가 워낭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소가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는 농가의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내용 소나 말의 턱 아래에 매단 방울을 워낭이라 한다. 워낭이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소리 자체만 해도 상징하는 바가 많다. 워낭소리는 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워낭소리가 삽짝 밖으로 멀어져 가면 소가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길에서 사람이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서 워낭소리가 들리면 소가 오는 것임을 알고 길을 비켜 준다. 위험하니까 피하는 것이다. 산간에서 논밭을 갈 때 소의 워낭소리는 매우 날카롭게 산속까지 울려 퍼진다. 인적이 드문 산간에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간간이 출몰하는데, 이때 금속성의 워낭소리가 나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한다. 소도 살고 사람도 사는 구명의 종소리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워낭소리는 소의 존재감과 함께 소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워낭을 다는 위치는 소의 목 아래가 가장 많고 또 소의 얼굴 옆으로 줄을 내어 양쪽에 한 개씩 달기도 한다. 또 ∩처럼 굽은 나무로 만든 목타래의 양쪽 끝에다 방울을 달기도 한다. 워낭을 한 개만 다는 수도 있고 쌍방울을 달기도 한다. 워낭은 원통형 종에다 안에 쇠못 같은 종봉鍾棒을 한두 개 매달아 놓아 소리를 내게 한다. 밑으로 벌어진 나팔형의 방울 종도 있어 그 모양은 다양하다. 소의 워낭은 구리에 아연이나 주석을 섞은 합금으로 만든다. 아연을 섞은 것은 황동이고 주석을 섞은 것은 청동이다. 작은 방울이나 손으로 흔들어 소리를 내는 손 종은 대개 황동으로 만들고 반면에 절이나 종각에 거는 큰 종은 청동으로 만든다.



워낭 | 너비33 길이39 | 국립민속박물관



워낭 | 강원 횡성 | 2007 | 이영식

특징 및 의의 소의 목에 워낭을 달아 소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워낭소리를 냄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그래서 워낭소리는 소가 내는 신호음이면서 소의 상징이 되었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소에 얽힌 민속(배도식, 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1995), 우리말큰사전(신기철·신용철, 삼성출판사, 1978), 현지조사자료(조장래, 경북 청도, 2011.8.10.).

필자 배도식(裵桃植)

원예
園藝

정의 채소·과실·화훼를 생산·판매·활용하는 농업의 한 분야 또는 채소·과수·화훼를 뭉뚱그리는 용어.

역사 원예horticulture는 17세기에 라틴어의 hortus(정원)와 cultura(재배, 문화)에서 유래된 합성어로, 정원에 식물을 심고 가꾼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원예라는 용어가 있기 전후에도 개인이 정원에서 즐기는 취미원예와 텃밭에서 채소나 과실을 생산하는 자급원예는 국내외에서 존재하여 왔다. 현대에는 세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원예가 발달하였다. 이때부터 원예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원 가꾸기가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채소·과실·화훼를 대량생산하고 판매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큰 산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채소는 밥반찬이나 조미료용으로 쓰이는 풀이고 과수는 과실을 생산하는 나무이며, 화훼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아름다운 식물이다.

구석기시대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국화·단풍나무·붓꽃·소나무·진달래 등의 꽃과 잎 등으로 동굴 안을 장식하고, 국화꽃으로 아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였으며, 신석기시대에는 가래·개살구·개암·달래·도토리·들깨·명아주·물봉선·박·복사나무·비름·쑥·오이·콩 등이 나타나고, 철기시대에는 도토리를 저장하고 곶감을 만들고 유물에 고사리무늬가 있다. 이 외에 느티나무, 대나무, 밤, 벚나무, 살구, 새머루, 참외, 호두가 나타난다.

삼국시대 궁궐이나 주택 그리고 절에는 느티나무·대나무·배나무·산수유·잣나무 등이, 들과 산에는 매화·복사나무·오얏나무·할미꽃·향나무 등이, 바닷가에는 해당화가, 물에는 마름·부들· 연꽃 등이 자랐다. 연못·가산·정원·정자·왕릉을 만들고 버드나무·대나무·소나무·초화 등을 심고 연꽃이 피는 연지를 만들며 중국에서 온 모란과 차나무 씨앗을 궁궐과 지리산에 심고 절 마당에 골담초 지팡이를 꺾꽂이하고 석창포를 돌 용기에서 수경 재배하였다. 갈댓잎과 만병초 꽃가지로 몸과 의상 장식을, 연꽃으로 공간장식을, 모란꽃으로 꽃꽂이를 하였다. 국화와 매화는 일본, 동백과 석류는 중국으로 반출되었다. 텃밭과 마당에서 오이·콩 같은 채소를 기르고 마늘밭을 일구며 콩죽·간장·된장을 만들고 마를 판매하였다. 박은 놀이기구, 파는 피리, 인삼은 선물로 쓰였다. 대추는 허황옥이 가져 왔으며, 밤골에는 큰 밤이 달리는 밤나무가 있으며, 배나무에서 연리지가 발생하고, 새머루는 유물장식 소재로 쓰였다. 가래·대추·모과·밤·배·복숭아·호두를 먹은 흔적이 있다. 이 외에 계수나무·귤·금목서·동백·벽오동·산복사·살구·석류·인동덩굴·접시꽃·치자나무·함박꽃나무·해바라기·회양목이 나타난다.

고려시대 민간 정원과 분화 소재로는 국화·난초·맨드라미·맹종죽·부용·서향·석류·석창포·소나무·아그배나무·왕버들·작약·장미·창포·패랭이꽃·포도·표주박·황매화 등이 있다. 겨울에는 움집에서 매화꽃을 피우고 과실을 저장하였다. 궁궐의 어화원 온실에는 큰 유자나무가 자랐으며, 팔관회 등의 궁중연회 때는 큰 용기에 심긴 꽃으로 공간장식을 하고 꽃으로는 머리



비닐하우스 | 경북 성주 | 2020 | 국립민속박물관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 전남 강진 | 2014 | 국립민속박물관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 경남 합천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하우스 내 정원 | 농촌진흥청

장식을 하고 꽃을 선물로 썼다. 봄에는 들에서 꽃을 감상하고 풀을 밟았으며, 여름에는 연꽃을 감상하고,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을 즐기며, 겨울에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즐기는 꽃놀이를 하였다. 김치와 장아찌를 만들고 과수 농사를 권장하며 배나무 접붙이기와 재배를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유자와 금귤 과수원을 조성하고 오얏나무를 심고 가지를 잘라서 이李 씨의 기운을 눌렀다. 이 외에 채소로는 녹두·겨자·동아·무·배추·부추·상추·생강·순무·아욱·염교·토란·홍당무가, 과수로는 고욤·능금·다래·비자·앵두가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담 주변, 사랑방 앞, 후원, 바깥마당, 별당마당 등에 연못이 있는 정원을 만들고 낙엽수로는 개나리·능소화·등나무·명자나무·목련·박태기나무·배롱나무·백목련·부용·불두화·영춘화·자귀나무·자목련·조팝나무를, 상록수로는 관음죽·눈향나무·맹종죽·사철나무·오죽·왕대·왜철쭉·종려·파초를, 초화로는 과꽃·구절초·나팔꽃·나팔나리·달리아·맥문동·메꽃·백일홍·범부채·봉선화·옥잠화·유채·제비꽃·참나리·채송화·천일홍·하늘나리를, 분화로는 귤·노송·단풍나무·수선·작약·춘란·풍란·혜란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동백·반송·왕버들·은행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 등의 노거수는 지금도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텃밭에서 채소와 과실을 생산하고, 강화도에서는 흙과 온돌로 지은 온실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복숭아와 살구는 밀식하고 자두는 드물게 심었다. 가래·개암·땅콩·밤·은행·잣·호두 등의 견과류는 정월 보름날 아침에 부럼으로 썼다. 수령 250~600년의 청실배가 지금도 전라북도와 울산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이 외에 채소로는 가지·고구마·고추·고추냉이·근대·냉이·더덕·도라지·머위·미나리·수박·시금치·쑥갓·토란·토마토·호박이, 과수로는 비파·사과·석류·자두가 나타난다.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장은 이화李花, 오얏꽃무늬이며 구한말 서울에는 무·배추의 김장 채소 시장이 형성되었다. 원예연구 전담기관인 원예모범장(1906)과 권업모범장(1907)에서는 채소와 과수의 육종기반을 조성하고, 감자·강낭콩·당근·배추·무의 반찬거리 생산에 집중하며 나무골재 기름종이하우스에서 고추·오이·호박을 재배하고, 과수는 사과와 배·복숭아·포도 등의 개량종을 도입하여 병충해, 나무 모양, 저장 연구를 하였다. 황실진상품으로 쓰인 청실배와 황실배가 등장하였다. 이외에 딸기·양배추·무화과·선인장·심비디움·장미·카네이션 등의 외래종이 많이 등장하고 용담·제비꽃·초롱꽃·한란 등도 나타난다. 광복되었지만 6·25전쟁으로 오랫동안 식량도 반찬도 없는 절대 빈곤 상태가 계속되고 채소 씨앗은 밀수입에 의존하였다. 1950년 3월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환국하여 단기간에 채소씨앗생산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6년 후에는 무·배추 등의 김장 채소를 자급하고 씨감자 보급, 감귤재배면적확대를 하는 등 원예 산업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내용 1970년대부터 산업원예가 급속히 발달하였다.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의존도는 채소 26%(열매채소 86%), 화훼 50%이다. 시설에서는 지온·지하수·온

수·온풍기에 의한 보온과 난방으로 채소와 화훼를 사철생산하고 수경재배, 이산화탄소공급, 맞춤형 하우스 개발, 종묘와 상품생산의 분업화, 고랭지활용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왔다. 과수는 왜성재배, 묘목고르기, 가지치기, 꽃가루받이, 열매 따주기, 색깔 내기, 하우스와 비 가림 재배 등으로 과실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 시기를 확대하고 수확 후에는 저온저장기술을 개선하여 과실을 사철 공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전통음식이자 채소의 50%인 마늘·양파 등의 조미채소와 무·연근 등의 뿌리채소를 제외한 잎채소인 셀러리·양상추·적채·케일 등, 줄기채소인 아스파라거스·콜라비 등, 꽃 채소인 꽃양배추·브로콜리 등, 열매채소인 멜론·토마토·파프리카·피망 등, 씨앗채소인 단옥수수 등과 새싹채소인 메밀·알팔파·적겨자·적채·클로버 등은 대부분 외래종이다. 전통과실인 감·감귤·배·복숭아·사과·자두·포도가 과실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대과실인 망고·바나나·파인애플·파파야·피칸 등은 수입하고 있다. 화훼는 절화인 국화·글라디올러스·오리엔탈나리·장미 등, 분화인 고무나무·선인장·다육식물·심비디움·왜철쭉 등, 화단용 초화인 팬지·페튜니아 등이 대부분 외래종이다. 원예생산액(2010)은 약 15조 3,000억 원이고 무역액은 약 24억 달러(약 2조 8,488억 원)이며 최근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앞으로는 기후변화, 인구감소,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신선한 상품을 사철 값싸게 공급하며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온라인판매, 그리고 일손 덜기와 소비확대에 유리한 휴양과 관광을 연계하는 제 몫 따기 원예 등 새로운 판매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온난화가 계속되면 채소와 화훼의 고품질 사철생산을 위한 시설재배에서는 겨울철 난방도 여름철 냉방도 걱정이다. 냉난방의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전제로 빛·물·온도 등의 재배환경을 자동 조절하는 식물공장이 필요하다. 아열대과수의 재배면적은 확대될 것이나, 온대과수는 재배지의 북상이나 산간지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조상들이 즐겨왔던 취미와 자급원예, 20세기 말에 태동한 녹색환경조성의 도시원예와 원예치료나 여가활동 지원의 사회원예, 즉 생활원예의 활성화는 건강증진과 꽃 소비확대에 기여한다. 원예는 토지 생산성이 높고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 종묘회사, 무역회사, 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원예전문점 등의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온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설업체, 농기구, 비료, 농약, 자재 생산업체 등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에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

참고문헌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이상희, 넥서스books, 2004), 삼국시대의 꽃 이야기(김규원, 한티재, 2019), 삼국유사(일연, 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8), 한국원예발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한국원예학회,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규원(金奎元)

위빈명농기
渭濱明農記

정의 17세기 초반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류진柳袗이 편찬한 것을 조카인 류원지柳元之가 증보한 농서.

개관 『위빈명농기渭濱明農記』는 이수건李樹健의 연구논문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필사본筆寫本으로 전해지는 『위빈명농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류성룡柳成龍의 셋째 아들인 류진(1582~1635)을 필자로 언급하였다. 이수건은 경상도 안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하회河回의 류씨柳氏 서애파西厓派 종가宗家의 충효당忠孝堂에 소장된 사료를 조사하면서 이 농서를 발굴하여 분석·정리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위빈명농기』는 망실된 부분과 군데군데 탈락된 글자들이 많아서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류진이 지은 제위빈명농기후題渭濱明農記後라는 글이 그의 문집 『수암집修巖集』에 실려 있어, 류진을 『위빈명농기』의 편찬자로 지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류진은 자신이 애초에 오곡五穀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농업기술에 무지하였지만, 하회에서 상주尙州에 이거移居하여 생활하면서 점차 농사일에 관심을 갖고 농사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상주의 거처에서 인근 노농老農에게 경운耕耘하는 방법을 물어서

이를 기록함과 동시에 농사짓는 법과 견문한 것을 정리하여 이 농서를 지은 것이었다.

이수건의 연구성과가 나온 이후『위빈명농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제목과 저자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김건태는 '충효당농서忠孝堂農書'라는 농서 제목을 제안하였는데 소장처였던 충효당忠孝堂이라는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다. 그리고 최인기는 이 농서의 저자를 류진의 조카인 류원지(1598~1674)로 지목하고 농서 제목도『전사문田事門』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지목한 류원지는 류성룡의 손자이고, 류진으로부터 따지면 조카 항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런데『전사문』이라는 명칭은 독립된 농서의 명칭이라기보다 농서의 항목 명칭에 가깝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17세기 초반 경상도 상주에 거주하던 류진이『위빈명농기』를 편찬하였고, 후에 조카인 류원지가 증보하여『전사문』이라고도 불린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내용 『위빈명농기』는 경상도 상주 지역 일대의 농법을 담고 있는 지역농서로서의 특색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농서이다. 앞서 나온 농서에서 채택되었던 구조 또는 당대의 농법農法의 수준과 논리체계를 따르기보다 지역적인 농업 환경에서 유래한 특정한 농업기술, 지역 내에서 또는 외부 지역에서 확보한 특별한 견문見聞 등에 의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종자 준비[備谷種]를 강조하면서 설수雪水, 누에, 번데기를 삶은 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경起耕의 원리로 강조한 것은 다경多耕인데, 영남嶺南 일대의 견문 기록을 소개하면서 다경이 뛰어난 소출 증대의 효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윤조원尹調元이 경상도 경산慶山 지역에서 갈대밭에 불을 놓고 구전區田을 만들어 경작지로 개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빈명농기』에 소개된 벼농사짓는 법, 즉 수전농법은 기본적으로 이앙법移秧法을 경종법으로 채택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앙법에서의 앙묘秧苗 관리와 앙기秧基 시비施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다. 게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도 안정적으로 이앙을 하기 위해 건앙乾秧(마른 모)을 키우는 방식인 양건앙養乾秧이라는 기술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위빈명농기』의 수전농법水田農法은 바로 이앙법 기술체계의 발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위빈명농기』에서 특기할 만한 종맥법種麥法으로 제시되어 대단히 권장되는 경종법이 바로 구종법區種法이었다. 윤조원이 제시한 구종법은 여러 곳에서 권장할 만한 종맥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비법施肥法의 경우 그 자체가 농사와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종자種子를 뿌리기 전 시비施肥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절초折草 작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위빈명농기』는 16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지역농서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농업기술에 관해 관심이 있던 관료官僚와 향촌鄕村의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농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적地域的인 농법農法의 특색을 담고 있는 지역농법地域農法을 정리하여 농서農書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편찬된 농서를 지역농서地域農書라고 부를 수 있다. 류팽로柳彭老의『농가설農家說』, 고상안高尙顔의『농가월령農家月令』과 함께 대표적인 지역농서로 지목할 수 있다.

그리고『위빈명농기』에 수록된 이앙법과 관련된 앙분법秧糞法·양앙법養秧法 등은 이앙법의 기술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진전된 이앙법 관련 기술이 17세기 중반에 신속申涑이 편찬한『농가집성』에 경상도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5세기 초반에 편찬된『농사직설農事直說』이후 나타난 조선의 농업기술에 나타난 변화를 잘 보여준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듯『위빈명농기』는 지역농서로 비정된다는 점에서 조선의 농서 편찬의 흐름을 검토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농서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渭濱明農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사회사의 일연구(이수건, 한국사학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1991), 농가설·농가월령·위빈명농기·농가집성(염정섭 외, 고농서국역총서7, 농촌진흥청, 2004),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염정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선중기 이앙법의 보급과 그 의의(김건태, 국사관논총63, 국사편찬위원회, 1995), 졸재 유원지의 농서편찬에 대하여(최인기, 사림15, 수선사학회, 2001).

필자 염정섭(廉定燮)

유자
柚子

정의 운향과의 상록 소교목으로 과실은 식용 또는 약재로 쓰이는 과수.

역사 유자柚子는 중국 장강(양쯔강) 상류가 원산지로, 진나라시대(기원전 3세기)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산해경山海經』과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현재 유자는 중국(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윈난 등)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와 이어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를 통해서는 『고려사高麗史』 충렬왕 재위기(1274~1298) 당시 불교 팔관회 의례상에 귤과 함께 유자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426년(세종 8) 전라도와 경상도의 바다 연안 지역에 유자를 시험 재배할 것을 명하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왕조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등 의료시설에 약재로 쓰일 유자를 얻기 위하여 재배 적지를 찾아 유자나무를 이식하여 재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전라도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낙안군樂安郡 그리고 제주목濟州牧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후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 의하면 물산 지역은 제주·경상도(거제)와 전라도(장흥·진도·강진·해남)이며, 진상은 제주와 경상도(고성·남해)·전라도(영암·흥양·장흥·진도·강진·해남·순천·낙안·보성·정읍) 등 남해안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따르면 경상남도 경남 거제부에는 작은 섬에 유자를 심어 재배한 유자도柚子島가 두 곳에서 확인된다.

내용 유자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노란색 열매를 맺으며 과피는 강한 향기를 내고 과즙은 강한 신맛이 나는 과실이다. 유자나무가 식재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생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상 산업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계통은 대부분이 지역 재래종이다. 유자는 기상과 지형 및 토양 조건이 알맞은 곳에 재배되어야 하므로 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연평균 기온이 14℃ 이상의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동해를 견디는 한계온도는 영하 7℃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796년(정조 20) 병진년에 큰바람이 불어 진상 예정이었던 거제·고성·남해 등 3개 고을의 유자나무는 모두 얼어 죽었고, 진주의 창선도昌善島·적량진赤梁鎭에 10여 그루만 살아남는 동해가 발생하여 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장계가 보인다.

동해로 수체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과실의 품질과 수량이 감소하므로 적과 비율을 높여야 한다. 종자 파종에서 수확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된다. 실생모는 직립형으로 자라므로 전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6~7m의 높이로 자라 방제와 수확 등 관리상 애로가 발생한다. 유자원을 개원할 때 접목묘로 정식定植하면 수확까지 5~6년이 소요된다. 유자의 대목으로 탱자나무나 유자실생이 주로 이용되는데, 특히 탱자는 낙엽성이고 내한성이 강해 생육이 양호하여 2년생이면 접목할 수 있다. 본래 유자는 병해충에 강한 작물이다.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해충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여 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약사용으로 병해충을 관리해야 한다. 유자는 주로 과피를 식용 또는 약재로 이용하므로 수확 전 10월 상순 이후에는 농약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유자는 내한성이 강해 제주도보다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500년 이상 재배되어 왔다. 현재 재래종 감귤류 가운데 산업적인 규모로 재배되는 유일한



유자 | 전남 나주 | 2007 | 농촌진흥청

품종이다. 국내 유자 재배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규모 면에서 크게 발전을 하여 일본보다 많은 세계 최대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유자는 향이 좋고 산 함량이 높아 향후 향이나 신맛을 중시하는 가공식품과 요리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大東輿地圖, 朝鮮王朝實錄, 새로운 유자재배(김광식 외, 고흥유자시험장, 1997).

필자 오영주(吳榮周)

유전자변형농산물

遺傳子變形農産物

정의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만든 농산물.

내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일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결합하여 특이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또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불린다. 기존의 생물체 속에 전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만든 새로운 성질을 갖는 생물체를 '유전자 변형(조작) 생물체'라고 한다. GMO 작물은 1994년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국제시장에 선을 보인 이후 제초제 저항성 콩, 병해충 저항성 옥수수, 높은 당도의 과채류, 무르지 않는 토마토, 비타민A 강화 황금쌀 등 많은 농작물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생육 조절, 유해물질 내성, 불량 환경 내성 유전자를 넣어서 저온·건조·염해 등의 불량환경이나 병충해에 강한 초다수성 농작물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필요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계속해서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특히 유전자변형이 가져다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유전자변형으로 인해 ①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안전성 미확보 ②농약 내성 증대에 따른 슈퍼 잡초, 슈퍼 해충 발생으로 생태계 교란 및 농약 사용의 증가로 환경오염 심각 우려 ③GMO의 변형된 유전자가 다른 일반 생물체의 유전자로 전이될 우려 ④GMO 연구개발이 미래에 가져올 영향 및 돌연변이 출현 가능성과 식품 안전성 미확보 ⑤다국적 기업들의 종자와 곡물 독점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하여 발생할 인체·환경 위해성 측면이 가장 큰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유럽연합EU에서 수년에 걸쳐 대규모 역학 조사 및 유해성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EU는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1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 작물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런데도 그린피스Greenpeace는 GMO에 대한 논란과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 미국국립학술원은 〈GMO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용화된 GMO 작물은 일반작물처럼 안전하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보고와 발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GMO가 안전하다고 믿는 전 세계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GMO를 지지하는 타당성은 GMO 상용화 이후 인체에 이상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GMO 기술은 안전하며 영양성분 등을 높인 수량성이 높은 작물을 식량 증산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창한다. 비타민A를 강화한 GMO 황금쌀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면 비타민A 결핍 환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정하고 있는 세계 비타민A 결핍증 인구 2억 5,000만 명 가운데 매년 실명되고 있는 25만~50만 명의 어린이를 구제할 수도 있다.

GMO 식품에 대하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EU·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안정성에 따라

서 독성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성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비교 평가하여 안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세계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필요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GMO 작물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현황은 2003년 총 18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했다. 미국·아르헨티나·캐나다·브라질·중국·남아공 등이 주요 재배 국가이며, 이들 6개 주요 국가의 GMO 작물 재배면적은 세계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콩은 생산량의 81%, 옥수수는 40%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GMO 작물은 콩·옥수수·유채 씨이다. 현재 콩은 전 세계 생산량의 55%가, 옥수수는 11%가 GMO 품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 개 품목이며, 한국 내 유통 중인 GMO 식품은 39개 이상의 품목에 이르고 있다. GMO에 대한 반대 견해도 꾸준하지만, 종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세계적 연구 추세에 발맞추어 GMO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나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식탁 벗어난 GMO 유해 논쟁(중앙일보, 2018.9.26.), GNN-Genetics and Genomics Timeline(Paul Berg, 1972).

필자 안완식(安完植)

육우
肉牛

정의 외국 품종의 소를 국내에 들여와 쇠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고기소.

개관 육우beef cattle는 쇠고기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를 말하며 대체로 국내법상 원산지가 국내이고 한우와 젖소(우유를 생산하는 암소)를 제외한 모든 소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홀스타인종의 젖소로부터 생산된 수송아지를 거세 후 비육하거나 미경산 젖소를 비육 후 도축하여 쇠고기를 생산하는 경우도 육우에 포함되며, 생후 6개월령 이상의 외국 육용종 및 교잡종 생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 후 도축하는 경우도 육우의 범주에 포함된다.



홀스타인종 | 농촌진흥청



헤어포드종 | 농촌진흥청

육우는 우리 고유의 한우에 비해 비육기간(20~24개월)이 짧지만 태어날 때부터 한우 송아지보다 생시 체중이 더 나가기 때문에 옥수수·밀·보리 등을 주원료로 한 농후사료 위주로 사육할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57.6%로 매우 높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할 경우 육질 등급이 2등급 이하가 86.7%로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육질이 낮은 편이다.

내용 육우는 한우와 젖소(우유를 생산하는 암소)를 제외한 고기를 생산하는 모든 소를 일컬으며 반드시 국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수입소(쇠고기)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깨끗한 목장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과 사육방식으로 20~24개월 사육한 후 도축한다. 육우[홀스타인 수송아지, 홀스타인 미경산우(출산 경험이 없는 소), 생후 6개월 이상의 외국종 수입생우]는 한우보다

성장이 빨라서 사육 기간이 짧아 육질이 아주 연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하여 성인과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공급 및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한다. 구매가격도 한우보다 30~40%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특징 및 의의 미국·호주·아르헨티나 등 넓은 국토와 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홀스타인, 헤어포드, 앵거스 등과 같은 다수의 소 품종을 사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육우란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국내산 소이며, 대부분 젖소 품종인 홀스타인종의 미경산 우이거나 수송아지를 비육하는 소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육우가 한우보다 빨리 성장하고 사육 기간이 짧아 단기간(20~24개월령)에 쇠고기를 생산하기에 사육 생산비가 다소 적게 들며, 자금 회전에도 다소 유리한 편이다. 또한 육우고기 구매 시 비싼 한우고기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쇠고기를 먹을 수 있어 대체로 맛의 차이에 그리 민감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소비형태를 추구하는 계층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 맛의 경우는 우리 고유의 한우고기에 비하여 감칠맛glucose이나 단맛alanine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성인병 예방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다소 적게 함유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나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업자들은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일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위와 같은 시스템이 정착하여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수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져 앞으로 육류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의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거나 안정적인 쇠고기 수급을 위해 국내산 육우 사육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육우학(선진문화사, 1986), 축산시험연구보고서(국립축산과학원, 201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or.kr), 통계청(kostat.go.kr), 한국낙농육우협회(naknong.or.kr).

필자 김병기(金秉基)

육종
育種

정의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나 사육飼育하고 있는 동물, 즉 농작물이나 가축의 유전형질을 개량하여 종전보다 실용 가치가 더 높은 신형을 육성·증식·보급하는 농업기술.

개관 인류에 의해서 농업이 시작된 이래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육종育種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시적인 육종기술이 발전하였다. 이처럼 농업의 시작과 더불어 육종기술이 개척되었지만,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멘델의 유전법칙이 적용되고 실험유전학이 과학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때이다. 최근에는 일반 작물의 육종에도 화분배양에 의한 세대 단축이나 유전자 조환組換 기술 및 이종異種의 세포원형질융합細胞原形質融合에 따른 세포융합법細胞融合法에 의한 신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배양법組織培養法에 따른 무병종묘 생산 등 생물공학적 기법生物工學賦技法에 의한 육종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 육종이란 말을 품종개량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종의 범주가 비단 품종을 개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신종新種을 육성하여 실용화하는 경우와 아주 새로운 생물을 창성創成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육종을 말할 때를 품종개량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품종개량으로 얻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 품종의 출현으로, 이는 각 나라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육종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결과이다. 둘째는 경제적 효과이고, 셋째는 재배 한계의 확대로 지리적인 한계나 계절적인 한계가 확대된다. 넷째는 작물·과수·채소·화훼·공예작물 등의 품질이 개선된다. 다섯째는 재배 안전성 확대로, 냉해·병해·충해에 대한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다. 여섯째는 경영의 합리화로, 조생종·만생종·단간종 등 새 품종의 육성으로 간작과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내병충성 품종 육성 보급으로 농약을 절감할 수도 있다.

육종기술의 체계화는 육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최우선으로 필요한 첫 단계는 변이를 탐구하고 만드는 단계이다. 자연계에 있는 생물이 가진 변이 중에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변이이며, 목표로 하는 변이를 교잡방법이나 돌연변이의 작성으로도 찾을 수 없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이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찾아진 변이를 선택하고 고정하는 일이다. 변이를 정밀하게 감정하기 위해서 개체선발個體選拔을 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개체의 집단을 선발하기도 한다. 자가수정自家受精을 하는 작물에서는 주로 개체를 선발하고, 타가수정他家受精을 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일정 집단의 특성에 대하여 우량성을 감정하는 때가 많다. 또 환경변이와 유전적 변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자손의 형질을 검정하는 후대검정後代檢定을 한다. 유전적 우량성을 확인하려면 표현형에 의하여 감별된 우량형이 다시 후대에도 출현하는지 검정하여야 한다. 선발된 우량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한다.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즉 순계純系, pure line가 된 것을 고정된 계통이라고 한다. 육종법은 크게 7가지가 있다.

먼저 도입육종법導入育種法은 다른 나라로부터 기성품종을 도입하여 실제 재배에 쓰거나 육종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 품종을 도입할 때는 병균이나 해충이 함께 묻어 들어 오지 않도록 방역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고려 1364년(공민왕 13)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대중화 되었으며, 1618년(광해군 10)에 담배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고 1763년 조엄에 의해서 고구마가 쓰시마에서 도입되었다. 근대에는 벼품종 아키바레秋晴와 고시히카리越光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벼육종 | 2009 | 농촌진흥청

두 번째로 분리육종법分離育種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유전형, 다른 개체들이 섞여 있는 혼형집단混型集團에서 우수한 순수계통을 새롭게 분리·선발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자가수정작물에서는 주로 순계도태법純系淘汰法이라고도 불리는 순계분리법을 이용한다. 기본 집단에서 개체선발을 하여 우수한 계통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기본 집단을 개체별로 심고 우수해 보이는 개체를 선발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여 하나의 품종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타가수정작물은 제꽃가루받이를 하면 세력이 약해지는 자식 열세가 나타나는 성질이 있으므로 순계 상태로 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 집단에서 집단적인 선발을 계속하여 우수한 계통을 분리해 낸다. 이런 육종법을 계통분리법系統分離法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교잡육종법交雜育種法은 서로 다른 품종의 교잡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를 만들어 그중에서 우량한 계통을 선발하는 육종법이다. 교잡육종은 교잡친交雜親의 우량형질을 새 품종에 모음으로써 새 품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교잡친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우수 형질을 새 품종에 나타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로 잡종강세육종법雜種强勢育種法은 두 개의 순계 간에 교잡을 하면 그 잡종은 양친의 그 어느 쪽보다도 우세한 생육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잡종강세雜種强勢, hybrid vigor라고 한다. 그렇게 잡종강세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1대 잡종을 품종으로 이용하는 육종법이다. 교배 모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1대 잡종을 만들어서 재배하면 이것도 고정된 품종과 거의 비슷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1대 잡종 이용법을 쓰는 때는 몇 가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교잡하기 쉽거나 1회 교잡에 의해서 많은 종자를 얻을 수 있어 종자 생산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종자량이 적게 드는 작물에서 유리하다. ③잡종강세가 현저하여 1대 잡종을 재배하는 이익이 그 종자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보다 커야 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작물로는 옥수수, 수수, 사탕무, 해바라기, 토마토, 가지, 고추, 수박, 호박, 오이, 양파, 배추, 양배추, 담배, 각종 꽃 등이 있다.

다섯 번째로 배수성 육종법倍數性育種法은 인위적으

로 염색체의 배수체를 만들어서 우수한 품종이나 종種을 새로이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유전자들의 조합 변경을 주축으로 하는 멘델식 육종법과는 다르며 돌연변이육종법과 함께 비멘델식육종법이라고 한다. 배수성 육종법은 콜히친colchicine이나 아세나프텐acenaphtene을 종자 또는 식물체에 처리하여 염색체를 배가시켜서 배가된 개체를 얻는다. 배수성에는 기본종의 염색체가 배가되는 동질배수성同質倍數性과 그렇지 않은 이질배수성異質倍數性이 있는데 동질배수성은 같은 염색체가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형질변화를 보면 모양은 커지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질배수성은 다른 게놈genome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중간형질을 나타낸다. 3배체식물은 생식세포 형성이 불완전하여 씨가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또 동질배수체는 결실성이 낮다. 따라서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배에는 곤란하며 영양번식식물에서 이용성이 높다. 동질 3배체식물에는 씨 없는 수박이나 사탕무가 있다. 동질4배체에는 무·코스모스·피튜니아(페추니아)가 있으며, 이질배수체의 예로는 라이밀wheat rye이 있다.

여섯 번째로 돌연변이육종법突然變異育種法은 인위적으로 유전자·염색체·세포질 등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돌연변이 유발원mutagen은 방사선과 화학물질 등이다. 방사선은 자외선·x선·α선·β선·γ선·중성자·양자·중양자 등이다.

일곱 번째로 유전공학遺傳工學을 이용한 육종법이 있는데, 최근 일반 작물의 육종에도 생물공학적 기법에 의한 육종법이 많이 이용된다. 작물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조환租還시키거나 이종의 세포원형질을 융합시켜서 배양하는 세포융합법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적 잡종 식물을 얻는 것이다. 약배양葯培養에 의하여 여러 후기 분리세대를 거치지 않고 잡종 1세대로부터 직접 고정개체를 얻음으로써 육종세대를 단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화성벼·환진벼·화령벼 등이 육종되었다.

특징 및 의의 작물육종을 시작한 1910년 이전에는 재래종 농작물이 재배되었으며 1940년대까지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도입종이 주로 재배되었고, 1970년대 이전까지는 국내 유성종과 도입종이 함께 재배되었다. 벼의 경우 1970년대에 '통일벼' 품종의 육종 보급으로 획기적인 벼의 증산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역사 4,000년 이래로 처음 식량 자급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쌀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서 국민의 기호가 밥맛을 찾게 되자 밥맛이 좋은 일반계 양질미나 유색미와 향미 등의 육종으로 방향이 선회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육종학범론(홍기창 외, 향문사, 1984), 한국농업기술사(한국농업기술사 발간위원회, 정민사,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안완식(安完植)

육해법
陸海法

정의 최한기崔漢綺가 19세기 중엽에 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설圖說을 붙여 지은 책.

개관 최한기가 편찬한 『육해법陸海法』은 그가 1830년에 쓴 『농정회요農政會要』의 별책 성격을 띠고 있다. 『농정회요』는 식량의 자급 및 생산을 위해 작물과 농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육해법』은 수리시설과 수리기구에 관한 도설圖說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경우 표제에 『육해신서』라고 적혀 있다.

내용 최한기가 지은 『육해법』은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권의 분량이 상권에 비해 훨씬 많다. 상권은 서序, 목록, 인답번차人踏翻車, 수전번차水轉翻車, 통차筒車, 고전통차高轉筒車 부附 수전통차水轉筒車, 여전통차驢轉筒車, 괄차刮車, 길고桔槹, 녹로轆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에서는 농사에 있어서 관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고금 이래의 관개법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비록 수리시설이 있으나 힘은 많이 들고 공이 적게 든다.'라고 지적하며, 설수기挈水器(양수기)에 대한 기록을 고금에서 찾아 증보하여 '육해법陸海法'이라



육해법 | 국립중앙도서관

이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상권의 인답번차人踏飜車 이하의 항목은 모두 도설圖說로 상세한 그림과 함께 설치방법, 대강의 규격, 용도 및 효용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답번차는 당시 용골차龍骨車라고 하는 것으로, 중국 위魏나라와 한漢나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며 사용법은 고지高地에 설치하여 사람이 발로 밟아 용골판龍骨板이라고 하는 판자板子를 돌려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수전번차水轉飜車는 인답번차와 비슷하나 흐르는 물가에 두 개의 수평한 수레바퀴를 설치하고 수력水力을 이용하여 그 바퀴를 돌림으로써 다른 수직으로 설치된 바퀴를 돌려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인데, 밤에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인답번차보다 월등하게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차는 수레바퀴에 통을 달아서 흐르는 물가에 설치하여 물을 끌어들인 후 홈통에 부어서 관개하는 것이며, 고지대용인 고전통차高轉筒車의 경우 원리는 통차와 같으나 수레바퀴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서술한다. 같이 소개되고 있는 수전통차水轉筒車의 경우, 모양은 고전통차와 비슷한데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전통차驢轉筒車는 수전통차와 비슷한 것으로 두 개의 수직으로 된 바퀴와 하나의 수평한 수레바퀴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된 바퀴들은 물에 설치하고 수평한 수레바퀴는 물가에 설치하여 말이나 소가 돌린다.

그리고 괄차刮車는 수레바퀴를 물가에 설치하고 손잡이를 돌려 양수하는 것이고, 길고桔槹는 장대의 한쪽에는 돌을 달고 한쪽에는 두레박을 달아 우물물을 손쉽게 퍼 올린다. 녹로轆轤는 길고처럼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데, 둥근 나무를 이용하여 두레박을 감아올리는 방식이다.

하권은 용미차龍尾車, 옥형차玉衡車, 항승차恒升車, 학음鶴飮, 홍흡虹吸을 설명하고 부록으로 고저측량高低測量을 수록하고 있다. 상권과는 달리 학음을 제외하고는 기계 전체 도설은 없으며 용미차·옥형차·항승차는 각각 그 기계 자체의 구성원리와 효용성 등을 위주로 서술되었고, 각 부속에 대해 간략한 그림과 자세한 설명을 담은 도설을 달고 있다. 용미차는 강가에 설치하는 양수기계로, 가뭄 때 강물을 끌어들여 논의 간수間水에 대면 그것을 양수해서 논에 물을 대는 기계라고 한다. 그리고 옥형차는 우물이나 샘에서 양수하는 기계이고, 항승차는 옥형차와 비슷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학음과 홍흡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데, 학음은 긴 나무통처럼 생겼으며, 흐르는 물가에 설치하는 것이며, 홍흡은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우물이나 샘에서 사용한다. 끝에 부록으로 첨부된 고저측량은 물 있는 곳과 전답의 거리 및 높낮이를 측량하는 측량법을 다루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육해법』은 조선 수리시설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수기에 대한 기록을 증보하여 13종에 이르는 설수기의 구조와 사용방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록으로 마테오 리치의 『측량법의測量法義』에 의거하여 저술한 「부고저측량附高低測量」을 수록하였다. 이 외에 나머지는 모두 청淸에서 편찬된 『수시통고授時通考』를 저본으로 삼아 세주細注를 달고 가감加減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최한기는 서양 근대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에서 편찬된 한역漢譯 서양 과학서적들을 폭넓게 참고하고 인용하면서 자신의 편찬 활동을 진행하였다. 『육해법』은 『수시통고』 권38 관개도보灌漑圖譜와 권39 태서수법泰西水法을 따로 떼어 인용하여 만든 책이다. 최한기가 편찬한 『농정회요』의 경우 『수시통고』를 그대로 옮겨 놓은 반면, 『육해법』은 선택적 인용과 세주로 설명을 붙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한기가 소개한 다종다양한 수차水車에 대

해서 실제로 실험하거나 제작하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수차를 찾아내고 확보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陸海法,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 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윤작
輪作

정의 특정 경작지에서 복수의 작물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돌려가며 재배하는 농업 방식.

내용 윤작輪作, crop rotation, 즉 돌려짓기는 농경의 시작 이래 같은 작물의 연작에 따른 수확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한농법, 화전농법, 이동경작 등과 함께 널리 활용되며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윤작 농법의 사례로 서구 농업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중세 유럽의 삼포식三圃式 농업과 초기 근대의 개량 삼포식 농업이다. 삼포식 농업이란 경작지를 셋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1년씩 여름곡물 재배, 겨울곡물 재배, 휴한을 돌아가며 되풀이하는 방식이다. 개량 삼포식은 휴한하는 대신 클로버, 알팔파, 헤어리베치 등 질소 고정 효과가 있는 콩과식물을 심고 이를 그대로 거름으로 삼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 현대화 이전 시기를 다루는 서구 농업사에서의 윤작이란 기본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는 단작을 규칙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 농업에서는 서구처럼 1년을 단위로 작물을 바꾸어 가며 재배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성격의 농법으로는 그나마 한 경작지에서 해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교대로 짓는 회환농법回還農法(혹은 전답윤환) 정도가 자주 거론되는데, 여기에서 윤작 실행의 주요 동기인 연작장애의 축소가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는 모호하다. 이로 인해 윤작은 동아시아에서 미약하였고 예로부터 유럽에서 발달하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연작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윤작에 의해 그것이 축소되는 것은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념은 있지만, 맥락에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많다 보니 활용에도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

한반도에서는 서구식 윤작 대신 주로 1년 2작, 2년 4작, 2년 3작 등 작부체계에 의해 여름곡식(보리·밀)과 가을곡식(조·콩·팥)을 1년의 밭농사 안에서 재배하는 밭 이모작 농사가 발달하였다. 이때 여름곡식은 전작前作 혹은 앞그루라고 하고, 가을곡식은 후작後作 또는 뒷그루라고 부르는데, 농업사학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윤작, 즉 돌려짓기라고 이해하였다. 이에 대한 농학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즉, 이와 같은 밭 이모작이 매년 같은 시기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므로 연작장애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어서 윤작이 아니라 '이모작형 연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주로 토지이용의 집약화를 통한 증산 추구의 결과 나타난 것으로 서구적 의미의 윤작과 다르지만 윤작은 윤작이라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입장을 택할 때 윤작의 일반적 효과로는 노동 분배, 작물 전환, 지력 유지 증진, 사료자급 안정화, 위험 분산, 자급경제 안정화 등이 꼽힌다.

특징 및 의의 최근 농학 연구를 보면 윤작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작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나 수익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작물이 결정되어도 윤작이라고 보는 등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도 그중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1세기 농업에서 윤작의 실천 양상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윤작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농법의 대두에 의해 쇠퇴하였지만, 관행농법이 위기에 처하고 다시 그 대안이 모색되는 오늘날 작물의 편성을 통해 연작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윤작에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농업이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농업기술로 발전시켜 온 곡식 작물 위주의 밭 이모작이 지니는 윤작의 가능성을 서구적 윤작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고 말 일은 아니다. 오늘날은 단작이나 연작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근대적 농업의 이념에서 벗어나 복작이나 윤작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시대이며, 우리의 밭 이모작 역시 단작과 연작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법이며,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농업대사전(김익달 편, 학원사, 1978), 전작-4판(조재영 외, 향문사, 2001), 最新農業技術事典(農業·生物系特定産業技術研究機構, 山漁村文化協会, 2006), Introduction to Agronomy: Food, Crops, and Environment-2nd edition(Craig C. Sheaffer·Kristine M. Moncada, Cengage Learning, 2011).

필자 안승택(安勝澤)

율무

정의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 재배식물.

개관 율무*Coix lacryma-jobi var. ma-yuen*는 동남아시아가 재배의 발생지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이전부터 재배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율무는 의주자薏珠子·인미仁米·의미薏米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른다. 경기도 연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며, 2017년 1,000*ha*에서 1,700t 정도가 생산되었다. 1993년부터 농촌진흥청 산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의 하나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천율무시험장이 설치되었다.

내용 율무는 영어로 'Job's tear'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감내한 욥의 눈물이란 뜻으로 눈물방울 형상을 한 율무 종자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높이는 1~1.5*m*이다. 줄기는 거칠고 곧게 서며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고 바소꼴로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며, 너비는 약 2.5*cm*로 밑부분은 잎집으로 되어 줄기를 감싼다. 꽃은 7~9월에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몇 개의 꽃이삭 끝에 길이 3*cm* 정도의 수꽃 이삭이 달린다. 밑부분에 타원형의 잎집에 싸여 있는 암꽃 이삭이 있다. 씨방이 성숙하면 잎집은 딱딱해지고 검은 갈색으로 된다. 열매는 견과로서 10월에 익는다. 번식은 종자로 한다.

율무의 재래종 중에는 검은색이 나는 흑율무, 흰빛의 흰율무, 고동색의 우렁율무 외에도 키가 작은 것, 큰 것 등 많은 종류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수원3호(1991), 율무1호(1993), 밀양(1996), 대청(1997), 풍성(1998), 상강(2001), 조현(2004) 등이 연천율무시험장 중심으로 육성되었다.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율무는 따뜻한 기후에 잘 자란다. 연평균 기온이 10℃ 이상이고 7월의 평균 기온이 20℃ 이상인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넓어 논과 밭을 가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으며 산성에도 강하다. 4월 중하순에 고랑 너비 60*cm*에 포기 사이를 20*cm*로 파종하여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에 수확한다.

율무 종자의 단백질 함량은 8~20%로 쌀이나 밀보다 높고 류신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이 많다. 기름 2~8%, 탄수화물 50~78%, 회분 0.5~2.3% 및 미량원소를 비롯하여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 씨의 아세톤 추출액에는 코익세노라이드coixenolide가 있다.



도정한 율무 | 2007 | 농촌진흥청



율무 | 2016 | 안완식

뿌리에는 코익솔coixol 등이 있다. 뿌리에서 얻은 코익솔은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으며 혈당량을 줄인다. 최근 코익세노라이드는 항암성이 있는 것이 알려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건강식품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율무는 예로부터 의이인薏苡仁이란 약용작물로 심어 왔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비장을 튼튼히 해주고, 위와 폐의 기능을 도우며 열을 내려 준다."라고 나와 있으며 『약용식물사전』에는 "율무쌀은 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피부질환과 물사마귀를 없앤다."라고 쓰여 있다. 근래에는 율무차나 식용으로도 많이 소비된다. 특히 다이어트식, 율무차용, 독소배출 등 해독요법, 피부질환 치료약 등으로 많이 쓰인다. 재배가 쉽고 생산량도 많아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작물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74), 중약대사전(강소신의학원, 강창민 외 역, 정담,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필자 안완식(安完植)

응지농서
應旨農書

정의 정조가 1798년 11월에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경외京外의 관리와 유생 등이 올린 농서.



어제권농정구농서윤음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정조는 1798년 11월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내리어 조선의 농정을 혁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가지대전農家之大全' 즉 '농서대전農書大全'에 해당하는 농서를 편찬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정조의 윤음에 호응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료와 지방 유생 그리고 서민 등이 자신의 견문과 경험에 의거하여 농업기술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여 정조에게 진정進呈하였는데, 이때 정조에게 올려진 농서農書들을 바로 응지농서應旨農書라 칭할 수 있다.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사람들을 응지인應旨人이라 부르는데, 응지인들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응지농서를 올렸다. 하나는 장소章疏의 성격을 지닌 상소문上疏文 형식의 응지농서이고, 다른 하나는 부책簿冊의 형태로 책자冊子를 만들어 올린 응지농서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응지농서는 주로 『일성록日省錄』『정조실록正祖實錄』 등 관찬 자료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일성록』에 수록된 응지농서 가운데 상소 형식인 것은 응지인이 올린 상소문 전문全文이 아니라 축약된 것이었다. 축약되지 않은 상소 형식의 응지농서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실려 있다. 『일성록』『정조실록』『승정원일기』 이외에 개인 문집에 수록된 응지농서 그리고 독립된 책자 형태의 응지농서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100종 이상의 응지농서가 전해지고 있다.

내용 응지농서는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지역적인 농법의 특색을 정리하는 데 비중을 두거나, 당시 농정農政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응지농서의 내용 속에 각 지역 농업기술의 구체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과 당시 농정의 폐단을 지목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조는 농법의 집대성을 바탕으로 농정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고, 장차 '농서대전'에 해당하는 농서를 편찬하고자 추진하였다. 정조는 '농서대전'에 담으려고 생각한 농업기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미 「권농정구농서윤음」에 제시해 놓고 있었다. 바로 농업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리水利·토의土宜·농기農器를 제시하면서 수리의 진흥[興水功], 토의의 파악[相土宜], 농기의 개선[利農器] 등을 강조한 것이다. 정조는 세 가지의 농업기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면서 각 지역의 농업 현실에서 정립된 농사 관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종합 정리하여 '농서대전'의 편찬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농서대전'을 편찬하려고 추진하면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응지농서였다.

응지농서에 농업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이앙법移秧法을 둘러싸고 찬성론과 반대론 두 입장이 격렬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농사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서의 필요성 또는 농서 편찬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농정과 관련된 주요한 주장을 보면 전제田制, 수리, 양전量田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정조는 응지농서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이를 정리하여 새로운 농서 편찬을 추진하였다. 규장각 각신들에게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새로운 '농서대전'에 적절하게 편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조는 응지인의 응지농서를 살펴보고 "취할 만한 말들이 많으니 농서에 편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내각內閣(규장각)에서 새로 편찬하고 있는 농서에 응지농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추려서 수록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자주 내렸다.

특징 및 의의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는 18세기 후반 각 지역의 농법農法 현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로 재직했거나 정조와 깊은 관계를 맺은 인물이거나 또는 지방 유생들이었다. 응지인들이 응지농서를 저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사전문가인 노농老農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평소에 노농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식견이나 또는 노농의 행적에 대한 견문見聞에 근거하여 응지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 중에는 정조와 지근거리에서 세자世子의 사부師傅 자리를 맡고 있던 고관이 있는 반면, 서울에 살고 있던 서민庶民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중앙 관리와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 유생이었다. 중앙 관리로 활약하던 응지인 중에 정약용丁若鏞, 박지원朴趾源, 서유구徐有榘 등은 정조와 규장각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다.

응지인들은 정조가 실시한 농정책農政策의 전체적인 흐름에 동조하면서 또한 정조가 추진하는 이른바 '농서대전'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의 농업 현실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농정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올린 응지농서는 18세기 후반 각 지역의 농업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應旨農書, 응지진농서1·2(고농서국역총서15·16, 농촌진흥청, 2014),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시대농서편찬과 농법발달(염정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제언堤堰을 중심으로 한 수리관개와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의성은 연평균강수량이 970㎜ 정도로 논농사에 불리한 지역이다. 특히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금성산 일대는 토양과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물이 고이지 않고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 지역 농부들은 열악한 기후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물이 모이는 곳마다 둑을 쌓아 제언(못)을 만들었고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금성산 일대 4개면(금성, 가음, 춘산, 사곡)에 크고 작은 못 1,500여 개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의 못이 언제부터 축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300여 년 전에 축조되었다는 발랑동제鉢郎洞堤(현재 용문지), 고려 때 축조된 장제獐堤(현재 장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 경북 의성 | 2017 | 정명철

제지)와 탄제炭堤(현재 순호지) 등을 통해 그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1359년(공민왕 2)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의성현(현재 금성면)에 오래된 못을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할 것을 왕에게 청한 기록이 전한다. 못과 마을 이름에서도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백제에 패한 고려군이 후퇴하면서 갑옷을 매장했다는 갑장골(개일 2리)과 갑장동제甲長洞堤, 400여 년 전 못터에 개척한 마을이라는 제두堤豆(못둑골, 제오 2리), 고려 때 축조된 못의 골짜기가 길다 하여 붙여진 장호(장골, 장호 2리) 등이 그것이다.

1757년에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전국의 제언 수가 3,171개소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경상도가 39%인 1,242개로 가장 많고, 경상도 내에서도 영천 250개, 경주 136개, 의성 114개 순인데,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과 일치한다. 조선시대에는 제언을 이용하여 수도작을 확대하고 식량자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의 수전비율 23.47%와 1908년 총감부 통계의 수전비율 50.71%를 통해 확인되며,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9)에는 의성의 제언이 2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의 제언에는 고대국가인 조문국 시대부터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의 농부들이 만들어낸 전통지식과 역사, 농업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의성 전통수리 농업은 제언을 이용한 수리관개체계, 한전(마늘 재배)에서 수전(벼 재배)으로의 전환체계, 생태순환 농업경관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대상지 면적은 2만 5,665*ha*이며, 핵심지역인 금성면의 면적은 7,453*ha*이다.

내용 금성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유산 핵심지역에는 600여 개의 못이 분포하고 있다. 마을과 못의 위치를 고려할 때, 초기 정착민들이 하천 유역권의 파랑침식波浪浸蝕된 구릉지 사이에 못을 축조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의성에서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유역권과 떨어져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자 농경지 확보와 수도작 이행을 위해 산에 못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못의 기능은 농업용수의 저장과 배출이다. 따라서 못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농부들의 지혜가 발휘된다. 못 위치는 물의 흐름과 지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금성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저장하는 산곡형 못이고, 다른 하나는 경작지 위쪽이나 경작지 사이에 축조하는 방법으로 강우에 의존하거나 높은 지대의 유역권에서 인위적으로 도랑을 연결하여 물을 채우는 평지형 못이다.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고도차에 따른 수통의 기울기에 있다. 이와 함께 용수의 저장을 위한 심통, 즉 못둑의 축조와 배수를 위한 수통의 배치도 중요한 지식체계라 할 수 있다.

못의 축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둑이 될 땅을 암반이 보일 때까지 2m 넓이로 판 후 찰흙을 다져 누수를 막는다. 그다음 물이 흘러나가는 아래수통(누불통)을 놓고 그 사이를 찰흙으로 메운다. 어느 정도 메워지면, 윗수통(설통)를 비스듬히 세워 못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수통을 타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다음 찰흙을 계속 메워서 심통을 완성하고 튼튼하게 둑을 쌓는다. 이러한 못 축조 방식은 조선의『태조실록太祖實錄』, 진휼청의 제언사목,『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제언절목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수는 윗수통 구멍에 박아놓은 못종으로 조절한다. 나무로 만든 어른 팔뚝만 한 못종을 빼면 그 구멍을 통해 윗수통과 아래수통을 거쳐 논으로 물이 흘러간다. 못종은 못 크기에 따라 많게는 15개, 적게는 5개 정도를 설치한다. 이러한 못종은 한정된 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주어 물을 절약하고 벼의 냉해를 방지해준다. 못종을 위에서부터 빼주어 논물과 같은 수온의 용수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낮 기온 38℃에서 논의 수온이 33~34℃일 때 못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수면 33℃, 수심 23℃로 1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성에서는 벼와 마늘을 이모작하면서 농업용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가을철에 벼를 수확한 후 마늘을 파종하고, 이듬해 6월 마늘을 수확한 후 모내기를 한다. 따라서 마늘 수확이 끝나면 많은 농업용수가 필요해진다. 이때 못이 위력을 발휘한다. 약 1주일 사이에 곳곳에 축조된 못의 물이 일제히 공급되면서 한전이 수전으로 전환된다.

금성산 주변에 위치한 산곡형 못은 협곡에 둑을 만들어 물을 저장해두었다가 아래쪽의 계단식 논에 관개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못 아래에 있는 모든 농경지에 통수通水하기 때문에 마을이 공동으로 못을 축조하고 관리한다. 반면 평지형 못은 규모가 작고 산곡형보다 낮은 구릉에 위치하여 몽리자들이 필요한 규모로 못을 축조하고 몽리구역 단위로 관리한다.

이 지역 농부들은 효율적인 물 관리와 공평한 분배를 위해 몽리계나 수리계를 조직하였다. 구성원들이 선출한 못도감은 시설관리, 배수 등을 총괄하면서 농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나락충제, 농신제, 용왕제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또한 주민들 간에 용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중재를 하고 못둑 보강공사나 제초작업 등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몽리자들을 불러 모아 공동작업을 진행한다. 몽리자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추수가 끝나면 곡식이나 현금을 못도감에게 지불한다.

특징 및 의의 의성의 농부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식량과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랜 옛날부터 못을 이용한 수리관개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보전된 못을 통해 수도작 재배와 한지형마늘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리계와 몽리계, 나락충제 등의 농업문화와 산림—못—농경지—주거지로 이어지는 농업경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금성산 일대는 크고 작은 못과 수로가 수역 네트워크를 이루고 산림, 논, 과수원 등과 함께 복합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의성못 | 경북 의성 | 2007 | 정명철

금성산의 산림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면서 제언에 수자원과 양분을 흘려보내고, 제언은 수자원과 양분을 농경지에 공급해준다. 이렇게 생산된 농작물은 식량자원으로 주민에게 제공되고, 주민들은 제언과 숲을 관리하는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제언과 논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논습지는 곤충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에게 서식환경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朝鮮地誌資料, 의성 제언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의성군, 2018).

필자 정명철(鄭明哲)

이랑짓기

정의 작물을 파종하기 위하여 논밭에 골을 타서 이랑을 만드는 일.

개관 이랑짓기는 쟁기 따위로 경작지를 갈아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작업이다. 쟁기로 갈이를 하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열을 지어 드러난다. 툭 튀어나온 곳을 이랑 혹은 두둑이라 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골 또는 고랑이라 한다. 작물의 재배에서 이랑과 고랑은 파종이 이루어지는 지면부이다. 이랑짓기는 농사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가령 청동기시대 밭 유구遺構에 나타난 이랑과 고랑은 울퉁불퉁하고 굽었으며 정연하지 않은 모습이다. 고랑의 깊이도 비교적 얕은 편이다. 반면에 삼국시대의 밭은 이랑과 고랑이 비교적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 형태는 완만한 S자형의 정연한 모판[播床]이고, 고랑이 깊고 일정하다. 이러한 차이는 삼국시대 기경기술起耕技術의 발달에 힘입은 결과였다. 특히 철제보습의 장착과 축력을 이용한 쟁기로 밭갈이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으며, 우경牛耕에 조응하는 작무법作畝法의 변화가 동반된 것이다.

내용 이랑짓기는 작물 재배의 근간이 되는 농사기술이다. 재배기술의 단계에 따라 이랑짓기 방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랑과 이랑 사이의 폭과 고랑의 깊이는 시대와 작물의 종류, 풍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변화를 극명하게 이끌어 낸 단초는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소를 이용한 우경이다.

이랑짓기와 관련된 농법은 크게 견종법畎種法과 농종법壟種法으로 대별된다. 견종법은 이랑과 이랑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고랑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다. 고랑에 파종하면 보온이 좋아 싹을 잘 틔우고 바람과 가뭄에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랑의 높이가 낮으면 습기가 차기 쉽고, 흙에 수분이 많으면 잘 자라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견종법은 보리를 비롯한 밀·호밀·귀리와 같은 겨울작물의 파종에 적합하다. 서유구徐有榘



이랑 위 파종 | 충남 서산 | 2019 | 강성복



배추밭 이랑 | 대전 | 2016 | 강성복

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견종畎種은 가뭄에도 종자의 발아發芽가 쉽고, 사이갈이[中耕] 제초가 쉬워 곡묘穀苗에도 통풍이 잘된다고 하였다. 또한 묘근苗根에 흙을 북돋아 주므로 바람과 가뭄에도 강하여 이랑을 내지 않고 평지에 심는 만전縵田보다 5배의 수확이 있다."라고 하여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의 이로움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이랑에 씨를 뿌리는 농종법은 흙을 쌓아 이랑(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종하는 방식이다. 이랑에 씨를 뿌리면 장마 때 습기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도 이랑에 씨를 뿌리는 농종법이 일반적이었고, 후기로 갈수록 견종법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재배기술의 변화에는 이랑짓기, 즉 작무법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는 농우農牛의 부족으로 대형 쟁기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인력으로 갈이를 한 이랑은 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소의 활용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쟁깃날의 크기와 볏 모양 등을 고쳐 쟁기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우의 증가와 쟁기의 향상은 갈이작업과 이랑짓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고랑과 이랑을 높게 만들어 배수가 쉬울 뿐 아니라 작물이 바람과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이모작과 2년 3작이 가능해졌고, 땅을 묵히는 일 없이 매년 경작이 가능한 연작상경농법連作常耕農法이 보편화되었다. 농사에서 이러한 변화는 목화 등 특수작물의 재배에도 응용되어 상업용 농산물의 재배를 활성화하였다.

오늘날 소를 이용한 이랑짓기는 사실상 소멸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기계화 영농이 일반화되면서 전통 방식의 이랑짓기는 경운기나 트랙터에 의한 이랑갈이법으로 대치되었다. 그런가 하면 밭농사의 경우 이랑과 이랑 사이의 공간을 다소 넓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과거처럼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평소 재배 과정의 편의와 여유 있는 활동공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지가 늘어나면서 변화된 농촌의 풍속도이다.

특징 및 의의 농작물을 파종하는 이랑과 고랑은 농사기술이 집약된 이랑짓기의 산물이다. 그 방법은 농경이 시작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조선 후기 이랑에 파종하는 농종법에서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경종법으로의 전환은 농사기술의 혁신으로서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참고문헌 農事直說, 林園經濟志,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이현혜, 일조각, 1998), 한국의 고대 밭 유구에 대한 검토(김병섭, 고문화6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3).

필자 강성복(姜成福)

이모작
二毛作

정의 특정 경작지에서 1년 중 경작이 가능한 기간을 둘로 나누어 먼저 하나의 작물을 파종·재배·수확하고, 곧이어 다음 작물을 파종·재배·수확하는 농업 방식.

내용 이모작二毛作, double cropping은 학술적으로는 다모작多毛作, multiple cropping 개념 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내에서 간행된 사전들에는 이모작과 구분하여 다모작을 한 경지에서 1년에 세 번 이상 경작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두 번 이상이라는 규정과 세 번 이상이라는 규정이 아무 설명 없이 같은 이의 서술 안에 나열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모작이 다모작과 별도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고 삼모작 등과 함께 다모작의 하위 개념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하고 설명한다.

특정한 경작지에서 1년 중 경작이 가능한 기간은 기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며, 경작하는 작물의 생육 기간 역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두 기간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멀쩡한 땅을 놀리며 시간을 허송하거나 제때 일을 마치지 못해 애써 지은 농사를 수확 직전에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면밀한 탐구를 통해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 가용한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이모작 농법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모작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논에서 물을 빼고 벼를 수확한 후 보리를 파종하여 밭인 상태에서 재배하며, 이듬해 모내기를 하기 직전 보리를 수확하고, 이어서 물을 넣어 논으로 다시 돌리는 식으로 벼와 보리의 두 그루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이를 논 이모작 혹은 벼·보리 이모작이라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16세기 말 또는 17세기에 이앙법이 본격 확산되면서 논 이모작이 함께 퍼져 나간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농업생산력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술적 혁신의 하나로 평가한다. 그러나 논 이모작을 이루려면 기후, 수리, 농법, 영농조직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였기에 그 확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논 이모작이 실제의 경제적 비중이나 이론적 의의에 비추어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학문적 조명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역으로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모작은 그 경제 비중이나 이론적 의의에 비겨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밭 이모작 농법은 근경根耕이라는 이름으로 세종 대의 『농사직설農事直說』(1429)에 수록된 이래 조선시대 농서에 꾸준히 주류적 밭농사 방법으로 다루어져 왔고,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도 국산 맥류의 상업적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한 꾸준히 명맥을 이어 왔다. 그 기본방식은 앞그루(또는 전작前作) 작물로 보리·밀 등 맥류를 경작하여 양력 6월 중하순에 수확하고, 바로 이어서 새로 두둑을 지어 뒷그루(또는 후작後作) 작물로 콩·팥 등 두류나 조를 파종한 후 이를 늦가을에 수확하는 것이다. 뒷그루 작물을 파종할 때는 네 번 또는 여섯 번 쟁기질해서 하나의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세 줄이나 네 줄로 조·콩·팥 등을 파종한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를 대개 그루갈이라 부르는데, 이는 근경의 우리말 이름이다.

밭 이모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농업기술의 발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중 초기에 제출된 주요 명제 중 하나로는 밭작물, 특히 보리·밀 등 맥류의 파종법이 조선 전기의 두둑심기(농종법壟種法)에서 조선 후기의 고랑심기(견종법畎種法)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있다. 이 명제는 연구사 초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도 대중적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연구가 진전되면서 전문적인 농업사 연구자들은 이를 대부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도 맥류는 보온·보습을 의식하여 고랑에 파종되었고, 여름을 나야 하는 두류 등은 수해 방지와 제초 편의 등을 염두에 두고 두둑에 파종되었다. 이 밭 이모작 농법의 범주 안에서 발로 심고 덮는 법(족종법足種法), 발로 심고 고무래나 발고무래로 덮는 법, 흩뿌려 심는 법이 분화하는 등, 다양한 지역환경과 농업 경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지역농법과 관련 농기구가 발전하였다.

특징 및 의의 최근 여러 노력으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모작이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논에서 이루어지는 벼·보리 이모작만 떠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논 이모작의 경제적 비중이 역사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벼·보리 이모작의 북방 한계선이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 일대에 그어지므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논 이모작이 아예 불가능하였다. 또 그 이남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논 이모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논 이모작 실시 면적은 전체 논 면적 대비 1914년에 약 10%, 1919년에 16%, 1937년에 26% 수준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전체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보자면 아직 제약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980년에는 64%에 도달하였다고 하지만, 전체가 이모작 불가능 지역인 북한 지역의 논이 분모에서 빠지고 남한 지역의 논으로만 계산된 숫자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국 단위 실시율이 16%이던 1919년을 기준으로 경북 42%, 경남 38%, 충북 25%, 전남 23%, 전북·충남 13%의 도별 실시율을 보였던 만큼 지역에 따라 논 이모작의 비중이 상당히 컸던 곳도 있었음은 분명하다. 농업사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논 이모작의 역할이 높이 평가된 것은 일본 등 타국 농업사 연구 성과의 참조와 함께 이러한 지역적 편차나 현대적 상황이 선이해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작물을 다각화하는 것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살아온 이래 도처에서 추구하여 온 기본적인 생존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반도에서 추구하여 온 이모작 농법은 그 이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한반도의 밭농사에서 실시되어 온 이모작은 주어진 농경지의 주어진 자연환경

조건에 맞추어 곡식작물로만 최대한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1년 2작, 2년 4작, 2년 3작 등의 이모작 작부체계로 구성해 내었다는 점에서 대단함과 독창성이 있다. 저마다 노동집약적 농경문화를 발전시켜 온 동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농민사회 중에서도 조선식 밭 이모작이 이룬 성취는 발군의 수준에 있다. 게다가 물론 논밭에서 전개되는 이모작을 윤작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학자 개인이나 학문분과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윤작에서 추구되는 연작장애 축소의 기획 등이 밭 이모작 기술체계 내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 농학에서 재래농법의 밭 이모작을 단순한 지력 약탈적 농업이라든가, 식량작물 생산에만 열중한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단순한 토지이용 집약화 전략이라는 식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모작은 주어진 농경지와 주어진 노동력으로 노동 집약화를 추구하여 최대한 토지생산성을 올리려는 수익 지향적 욕구의 산물이지만, 단순히 증산을 통해 수익 확대를 추구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재배작물을 다각화하여 한 그루의 농사를 망치더라도 다음 그루의 농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생계 지향적 필요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농민사회 내부에서 농민들이 기울여 온 오랜 노력 그리고 실패와 좌절까지 포함하는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온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제도화된 체계 속에서 유도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해 정도에 따라 부세를 경감해 주는 급재給災 방식이 밭농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나, 밭을 임차해 병작하는 경우 정액지대(소위 도지)를 내되 1년 2작을 한다고 더 내거나 안 한다고 덜 내지 않는 점 등이 그러한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농업대사전(김익달, 학원사, 1978),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안승택, 신구문화사, 2009), 조선농업사연구(민성기, 일조각, 1988),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最新農業技術事典(農業·生物系特定産業技術研究機構, 山漁村文化協会,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안승택(安勝澤)

이식기
移植機

정의 작물의 모종을 본밭에 심어주는 농기계.

개관 벼의 이앙은 이앙기의 보급으로 완전 기계화가 되었으나 밭작물의 이식작업은 기계화가 매우 미흡한 탓에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에 사람이 모를 기계에 넣어 주어 이식하는 반자동 이식기移植機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플러그묘를 이식하는 자동 이식기가 연구 개발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 고추, 배추, 양파 등을 이식하는 반자동 및 전자동이식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밭작물 이식 작업의 기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내용 이식재배는 작물의 수확량 증대와 품질향상은 물론 가뭄 및 조류피해를 줄일 수 있고 종자 절감과 싹이 난 후 솎아주는 노력 등을 줄일 수 있어서 배추, 고추 등 많은 작물에 적용되어 왔다. 대상작물과 재배면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육묘 후 이식하는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식기는 작물의 종류가 많고 작물에 따라 모의 특성 및 육묘상자 등이 다르므로 여러 종류의 이식기가 필요하다. 이식기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고추이식기, 양파이식기, 인삼이식기, 담배이식기 등으로 분류되며, 모를 공급해 주는 방법에 따라 사람이 모를 식부장치에 넣어주는 반자동식과 육묘상자 등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모를 빼내어 심어주는 전자동식으로 나뉜다. 사용하는 모의 형



전자동 채소이식기 | 윤진하

태에 따라 연결포트모, 셀성형모(플러그모), 종이포트모와 같이 뿌리에 흙이 붙어 있는 모를 심어주는 이식기와 흙이 붙어 있지 않은 모를 심어주는 이식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채소이식기는 기관,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이식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식장치는 모를 심을 구멍을 파는 혈굴장치, 모를 분리하여 식부호퍼에 넣어 심어주는 식부장치와 복토 및 진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식기에는 보통 3~6마력의 공냉 휘발유 기관이 탑재되어 있으며 기관의 동력은 동력전달기구를 통하여 고무바퀴와 이식장치 등을 작동시킨다.

반자동 이식기의 작동은 수평으로 회전하는 모 공급컵에 인력으로 모를 넣어주면 회전하여 밑판이 뚫려 있는 위치에 도달하면 모가 자유낙하하고, 이때 상하로 작동하는 원추 모양의 호퍼가 모를 받아 하강하여 흙 속으로 들어가 구멍을 낸 다음 호퍼를 좌우로 벌려 안에 담겨진 모를 파여진 구멍에 떨어트리면 뒤에서 복토륜으로 복토와 동시에 진압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트랙터에 부착하여 한 줄당 한 사람씩 앉아서 모를 공급하여 이식하는 반자동 이식기가 많이 이용된다. 담배같이 활착이 잘 되는 모를 뿌리에 흙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이식하기도 하는데, 식부장치는 주로 원판식으로 회전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원판이 상부에서 벌어질 때 모를 거꾸로 넣어주면 아래로 회전하여 식부위치에서 원판이 다시 열려 모를 골에 넣어 준 다음에 복토하고 진압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동 이식기는 구조가 반자동 이식기와 대체로 비슷하나, 육묘상자에서 모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장치가 더 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의 자동공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모와 식부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종이포트를 두 개의 핑거로 찍어 내어 식부 포트에 넣어주는 방식과 펄프몰드 트레이에 육묘된 모를 회전하는 핀셋으로 펄프와 함께 찍어내어 심어주는 방식, 육묘상자에 심겨진 모를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내어 식부포트에 넣어주는 방식은 플라스틱 상자 또는 트레이 모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셀의 뒤쪽에서 봉으로 모를 밀어 빼낸 후 벨트로 이송하여 식부장치에 넣어주는 방식은 양파이식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식기는 모를 심는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원판식을 제외하고는 노지나 비닐피복한 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주식의 폿트묘 이식기는 1조식이 대부분이며, 트랙터용 원판식 이식기는 4~6조가 많고 조간이 좁은 양파이식기는 4~8조식이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밭작물의 이식작업은 기계화하기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로 최근 재배가 많이 되는 고추, 배추, 양파, 인삼 등의 반자동 및 전자동 이식기가 개발 보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작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밭작물 기계화 추진에 따라 앞으로 이식작업의 기계화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농업기계 핸드북(한국농업기계학회, 문운당, 1998), 농업기계학(고학균 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3), 밭농사기계(농촌진흥청, 2004).

필자 윤진하(尹眞河)



양파 이식기 | 2002 | 윤진하

이십사절기
二十四節氣

정의 1년을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 헤아리는 방법.

개관 24절기는 태양의 황경黃經에 맞추어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하여 계절을 구분한 것이다. 양력(태양력)의 날짜로 절기는 매달 4~8일 사이에 오고, 중기는 19~23일 사이에 온다. 매년 양력(태양력)의 날짜



춘분 | 이억영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하지 | 이억영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추분 | 이억영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동지 | 이억영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는 같지만 달의 차고 기움에 따라 변하는 음력(태음태양력)에서는 날짜가 달라진다. 때로는 음력의 역일曆日과 계절 사이에 한 달 이상 차이가 생기기도 하여 계절의 변화를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음력 날짜와 계절의 차이가 크게 날 때는 윤달을 넣어 계절과 맞게 조정한다. 이를테면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경에 들지만, 음력으로는 초순이나 중순 또는 하순에도 든다. 그래서 초순에 드는 동지를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이 밖에 쌍춘년雙春年이라 하여 입춘立春이 정월과 섣달에 걸쳐 1년에 두 번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윤달이 드는 해에 나타난다.

내용 24절기는 춘분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황도를 동쪽으로 향해 15도 간격으로 1기氣씩 배당한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으로는 날짜가 일정하지만,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으로는 일정하지 않다. 또 24절기의 이름이 중국 주周 왕조 때 화베이華北의 기후에 맞춰 붙인 것이어서 한국의 기후와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우리 속담에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대한 때보다 소한 때가 더 춥다는 뜻인데, 실제 날씨가 소한 때 더 추운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들 속담은 24절기가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24절기는 계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음력에 윤달을 두는 지표가 된다.

대개 동양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이 입춘·입하立夏·입추立秋·입동立冬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리고 봄의 한가운데를 춘분春分, 여름의 한가운데를 하지夏至, 가을의 한가운데를 추분秋分, 겨울의 한가운데를 동지冬至로 정함으로써 사계절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서양에서는 춘분과 추분의 두 분分, 하지와 동지의 두 지점至點을 경계로 하여 사계절을 나누고 있다.

봄의 첫 달인 정월에는 24절기 가운데 봄에 들어선

다는 입춘立春(양력 2월 4일경)과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양력 2월 19일경)가 들어 있다. 원래 24절기가 태양의 황경에 따라 24등분하여 계절을 세분한 것이기 때문에 양력 날짜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음력으로는 달라서 정월과 섣달 두 번 들기도 한다. 그래서 연간 입춘이 두 번 들어 쌍춘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음력 2월에는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 나온다는 경칩驚蟄(양력 3월 6일경)과 봄기운이 이미 가운데로 들어섰다는 춘분春分(양력 3월 21일경)이 들어 있으며, 3월에는 만물이 맑고 깨끗하며 밝고 정결하게 생장케 한다는 청명淸明(양력 4월 5일경)과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한다는 곡우穀雨(양력 4월 20일경)가 들어 있다.

여름의 첫 달인 음력 4월에는 여름철이 이미 들어섰다는 입하立夏(양력 5월 6일경)와 작물이 자라나서 약간의 곡식이 여문다는 소만小滿(양력 5월 21일경)이 들어 있다. 5월에는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다는 망종芒種(양력 6월 6일경), 여름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음기陰氣가 처음으로 생기고 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하지夏至(양력 6월 21일경)가 들어 있다. 6월은 몹시 더운 달임을 대大와 소小로 나누어서 더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서小暑(양력 7월 7일경)와 대서大暑(양력 7월 23일경)가 들어 있다.

가을의 첫 달인 음력 7월에는 가을에 들어섰다는 뜻의 입추立秋(양력 8월 8일경)와 더운 기운이 장차 물러나고 더위가 점차 그친다는 처서處暑(양력 8월 23일경)가 들어 있다. 8월에는 음기陰氣가 점점 더해 가면서 이슬이 백색으로 된다는 백로白露(양력 9월 8일경)와 가을 기운이 이미 가운데로 접어들었다는 추분秋分(양력 9월 23일경)이 들어 있다. 9월에는 이슬이 차가운 기운에 의하여 장차 응결되려고 한다는 한로寒露(양력 10월 8일경)와 이슬이 응결하여 장차 서리가 되어 내린다는 상강霜降(양력 10월 23일경)이 들어 있다.

겨울의 첫 달인 음력 10월은 겨울철이 이미 다가왔다는 입동立冬(양력 11월 7일경)과 서리가 더하여 눈이 되지만 적게 내린다는 소설小雪(양력 11월 22일경)이 들어 있다. 음력 11월 동짓달에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大雪(양력 12월 7일경)과 겨울이 극에 달하였지만 양기陽氣가 비로소 생기고 태양이 남쪽에 이른다는 동지冬至(양력 12월 22일경)가 들어 있다. 섣달에는 추위가 극심함을 알리는 소한小寒(양력 1월 6일경)과 대한大寒(양력 1월 21일경)이 들어 있다.

특징 및 의의 24절기는 절기와 중기가 다달이 들어 있으면서 계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우리나라의 기후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농사의 기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다. 따라서 24절기에 맞추어 농사가 행하여졌다. 또 24절기 가운데는 동지처럼 큰 세시 명절도 있고 입춘이나 곡우처럼 절일(명절)의 의미를 지니는 날도 있다. 이 밖에도 24절기에 해당하는 날의 날씨로 농점農占을 보는 등 우리의 오랜 주 생업이었던 농경과 직결시켜 각별한 날로 여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24절기는 계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농경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시 명절이나 그에 버금가는 날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曆二十四氣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역법의 원리분석(이은성, 정음사, 1985), 절후와 세시풍속(김명자, 한국민속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김명자(金明子)

이앙법
移秧法

정의 벼를 재배할 때 못자리를 만들어 일정 기간 볏모를 키운 다음 본답本畓에 모내기하여 옮겨 심는 경종법耕種法.

개관 이앙법移秧法은 벼 경종법의 하나로서 모판, 즉 못자리를 마련하여 옮겨 심을 모[秧]를 키우고 옮겨 심을 정도로 볏모가 자라면 본답을 갈고 고르게 한 다음 이앙移秧하는 모내기 기술이다. 모판 만들기에 필요한 기경 및 파종, 모판에서 묘苗를 생육하기 위한 관리기술, 볏모를 옮겨심기 위한 본답의 기경起耕과 숙치熟治, 마지막으로 이앙작업에 공동노동조직으로 두레를 동원하거나 이웃끼리 품앗이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농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앙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벼농사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앙법은 조선 초기 1429년(세종 11)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에 삽종揷種이라는 명칭으로 기술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농사직설』은 직파법으로 수경水耕과 건경乾耕을 서술하고, 이어서 삽종법을 기술하고 있다. 삽종의 향명鄕名을 묘종苗種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앙법의 이칭을 알 수 있다.

내용 『농사직설』에 소개된 이앙법에 대한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모판의 관리, 이앙의 구체적인 방식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그 기술내용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려 후기인 14세기 후반에 이미 이앙법이 알려져 있었고, 일부 농민들이 이앙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 활약한 인물들의 시문詩文에서 당대 이앙법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5세기 초반 태종 대에 편찬된 『농서집요農書輯要』도 이앙법 기술을 수록하고 있다.

이앙법은 모내기법으로 모판에서 모를 키우다가 본답에 옮겨 심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앙법에 대하여 『농사직설』의 편찬자는 이앙법을 설명하는 항목 맨 끝부분에 제초에는 편하지만 큰 가뭄이 들면 실수하게 되어 농가의 위험한 일이라고 단서를 붙여 놓았다. 이러한 이앙법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조선의 기후조건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이었다. 초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앙한다는 것은 시기를 잘 맞추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앙법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19세기에 서유구徐有榘는 이앙을 하는 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제초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두 곳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여 모를 기르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이며, 세 번째는 좋지 않은 모를 일찌감치 제거하고 튼튼한 모를 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앙법의 이점을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직파하였을 경우 노동력 투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제초를 거의 생략할 수 있어 제초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감시켜 준다는 점이었다.

조선 초기인 15세기 이후 이앙법의 보급 확산을 살펴보면, 15세기 초반에 이앙법은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적에서 채택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태종 대에는 이앙법에 대한 금령禁令까지 내려져 있었다. 16세기 초반 경상도의 상당 지역과 영동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앙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앙법은 16세기를 거치면서 경상도 전역과 전라도·충청도의 일부 선진 지역까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앙법이 경상도·강원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감에도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앞서 태종 대와 세종 대에 지적된 이앙법 금지를 언급하지 않고, 이앙법이 실행되는 현실을 용인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게 되면 이앙법은 경상도 지역 여러 곳으로 보급되었고, 전라도·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갔다. 16세기 후반 전라도 옥과 지역에는 이미 이앙법이 보급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삼남三南의 여러 지역에도 이앙법이 보급되었다. 이앙법이 삼남 지역의 주된 경종법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는 최소한 17세기 중후반 이전이었다. 숙종 초반인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조선 농민은 수전경종법으로 이앙법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였다. 당시 이미 이앙법이 풍속이 되어 버렸기에 갑자기 금지하기 어렵다는 조정의 평가가 내려졌다.

16세기 중반 이후 이앙법이 지역적·시기적으로 편차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정은 신속申涑이 편찬한 『농가집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속은 『농가집성』을 편찬하면서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등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때 『농사직설』의 내용에 많은 구절을 증보하였다. 신속이 증보한 구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앙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16세기 초반 이후 점진적으로 이앙법이 보급되면서 이앙법과 직접 관련된 세부 기술적인 측면의 발달이 『농가집성』에 수록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16세기 중반 이후 이앙법이 단계적으로 보급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앙법을 구성하는 세부기술의 발달이었다. 볏모를 키우는 모판 관리기술의 심화, 모판 시비의 강화 등을 통하여 볏모를 건실하게 육성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이앙법이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은 이앙법을 채택할 때 부딪

히는 기본적인 난점, 즉 이앙기의 물 문제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달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이앙시기의 조절을 위하여 파종 시기를 『농사직설』 단계와 달리 설정하였는데, 『농사직설』의 이앙법은 파종 시기가 너무 이르게 설정되어 있어 이앙기에 적절하게 물대기가 불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앙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파종하는 시기를 늦추어 초여름 강우기에 이앙할 수 있게 하였다.

이앙법이 보급된 또 다른 이유로 수전水田의 위치와 토질 등 전토의 생산조건 때문에 이앙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밭을 논으로 만드는 번답反畓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서 수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수전의 경우 볏모를 모판에서 생육하다가 이앙시기에 내리는 강우에 의존하여 이앙할 수밖에 없었다.

이앙법의 기술체계에서 나타난 특이한 양상 가운데 하나가 건앙법乾秧法의 개발이다. 이앙법과 건경법乾耕法을 결합시킨 건앙법은 이앙법을 수행할 때 따르는 물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개발되었다. 건앙법의 기술적인 내용은 17세기 초반의 농서인 『농가월령農家月令』에 소개되어 있는데, 건앙乾秧을 키우는 것은 이앙법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 개발된 것이었다. 것이었다. 특히 시비柴扉라는 독특한 농기구를 이용하여 건조한 토양에서 수분의 유지와 제초작업에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건앙법의 발전은 이앙법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이앙법이 보급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벼 경종법의 발달 양상은 이앙법의 보급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앙법이 조선 초기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다가 16세기를 거치면서 하삼도 지역 일대로도 점차 보급되었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삼남의 지배적인 벼 경종법이 되면서 이앙법을 토대로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밭에서 다른 잡곡을 재배하는 모습이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다.

참고문헌 農家集成, 農事直說,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업사연구1(김용섭, 일조각, 197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인걸이

정의 쟁기를 사람이 끌어서 밭을 갈거나 매는 연장.

내용 인걸이는 '사람[人]이+끄는[結]+쟁기[犁]'라는 뜻이다. 이는 쟁기에 연결된 끈을 한 사람이 어깨에 메어 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데서 왔다. 끌쟁기 또는 인걸기라고도 하며, 평안도에서는 후치를 이렇게 부른다. 이와 달리 경기도 연천에서는 '사람(인)이 황소(황)처럼 채(쌍성에)를 끈다고 하여 '인황채', 강원도에서는 사람이 끌면 인걸이, 소가 끌면 소걸이라고 불렀으며, 강원도 화천에서는 화종채라고도 하였다.

인걸이의 구조가 쟁기보다 간단해서 논밭 갈이나 김매기가 쉬워 보이지만 사용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강원도 화천에서는 '화종채를 대면 첩이 도망을 해도 한눈을 못 판다'라고 이른다.

주 분포지역은 밭농사 위주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및 경상도의 북부 산간지대지로, 물매가 아주 심해서 소가 미끄러질 염려가 있거나 옥수수밭처럼 이랑이 좁아서 소가 들어서면 망가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쓴다. 이 밖에 옛적에 전염병으로 많은 소가 죽거나, 소가 귀한 곳에서도 이용하였다.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시 〈강촌으로 가다가[江村路中]〉에 "놀리는 땅 아까운 산골 중(唯有嚴僧嫌地廣) / 어깨에 쟁기 메고 바삐 가누나(一肩高耒勉耕山)."라는 구절이 있으며(『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 『금양잡록衿陽雜錄』에도 "백 집의 농가 가운데 소는 겨우 열 집에서 먹



인걸이 | 강원 삼척 | 안승일

인다. 이에 따라 아홉 사람이 쟁기를 끌지만, 소 한 마리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기사가 보인다(농사이야기[農談]).

흔히 성에 끝 구멍에 꿰어 놓은 두툼한 끈을 어깨에 메지만, 이를 지겟가지 양쪽에 매고 지게를 진 사람이 끌기도 한다. 주로 초복 무렵에 감자, 옥수수, 콩, 팥밭 따위의 아시김을 맨다.

인걸이의 술은 곧으며 그 끝에 보습을 끼웠다. 성에와는 45도쯤 벌어졌고 성에와 술이 만나는 부근에 손잡이 막대를 가로 꿰었다. 보습은 뒤에 가로 걸어 놓은 쇠줄과 술 사이로 막대기를 질러서 붙박는다.

한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는 위아래 두 개를 박아서 보습이 땅에 박히는 깊이를 조절한다. 이때는 오른손으로는 위쪽을, 왼손으로는 아래쪽을 잡는다. 오른손으로 힘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까닭이다.

이 밖에 성에를 끌고 나갈 때 성에가 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마루나 손잡이 사이에 탕개를 틀어서 조인 뒤 짧은 막대기를 걸쳐 두며, 성에와 보습 사이에도 막대기(강원도 홍천에서는 덮방이라고 함.)를 길이로 대고, 이것과 술 사이에 쐐기를 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쌍성에 인걸이의 끝 너비는 끄는 사람의 배가 걸리지 않을 정도가 알맞으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는 끝이 벌어진 물푸레나무나, 참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로 마련한다.

흔히 여자가 앞에서 끌고, 남자는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는 것은 보습 조절이 그만큼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서는 남녀를 따로 가리지 않고 힘이 좋은 사람이 앞장을 섰다. 인걸이로는 음력 7월 초순 무렵부터 감자·옥수수·콩·팥 따위의 평평하고 밭의 살이 부드러운 땅의 아시 김매기에 안성맞춤이다. 골이 좁아서 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옥수수밭 매기에도 이용한다.

인걸이에는 성에가 하나인 외성에 인걸이와 둘인 쌍성에 인걸이가 있다. 구조가 단순한 외성에 인걸이는 극젱이를 매우 닮았으며, 성에에 연결한 줄을 한쪽 어깨에 걸고 끌기도 한다. 이에 견주어 성에가 좌우 양쪽으로 벋어 나간 쌍성에 인걸이는 끄는 사람이 멜끈을 두 어깨에 건 뒤 성에 끝을 두 손으로 잡고 끌어 간다.



인걸이 | 충북 보은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인걸이는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하였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은 지금도 쓰며, 우리와 달리 서까래처럼 굵은 긴 통나무 앞뒤에 박은 막대기를 어깨로 밀어 나간다. 이때 앞사람은 성에 끝에 잡아맨 끈을 오른손에 쥐고, 뒷사람은 오른손으로 인걸이 손잡이를 잡는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성에 끝에 꿴 끈을 어깨에 메고 끌거나, 성에 아래쪽에 잡아맨 끈을 두 사람이 나누어 메고 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인걸이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간편하면서도 능률이 높은 셈이다.

참고문헌 쟁기연구(김광언, 민속원, 2010), 한국의 농경문화(김광언,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중 농기구 비교 연구(정연학, 민속원, 2003).

필자 김광언(金光彦)

인삼
人參

정의 강장제强壯劑로 알려진 두릅나뭇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타원형의 열매를 맺으며 주로 뿌리를 약용하는 식물.

개관 인삼*Panax ginseng*은 최초의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우리나라 고유식물 중 하나이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에는 723년(성덕왕 22) 4월 신라가 당에 바친 물품을 비롯하여 인삼이 여러 차례 확인

된다(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 牛黃, 人蔘, 羌髮,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等). 인삼을 얻는 방식은 자생하던 인삼을 채취하다가 점차 희귀해짐에 따라 재배의 방법을 병행해 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상 인삼의 재배는 조선 후기 '장로長蘆' '장뇌長腦' '가삼家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장로와 장뇌는 심어서 기른 산삼이라는 의미이며, 가삼은 인삼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삼을 작물로 재배하는 측면에서는 장로와 장뇌의 단계로부터 가삼의 방식으로 발달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경세유표經世遺表』 권8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田制에서 "근년 이래로 인삼은 또한 모두 밭에다 심는다(近年以來, 人蔘又皆田種.)."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 볼 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인삼의 재배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인삼은 여러해살이풀로 재배지 선정과 토양관리에서 재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특히 반양반음半陽半陰의 인삼 특성상으로 보면 재배지 선정과 토양관리가 중요하다.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인삼에 적합한 재배지로는 지형상으로 선상지·곡간지·저구릉지·산록경사지이며, 토성은 미사사양질의 토양이 적합하다. 경사 방향은 북향 또는 동북향의 완경사지로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적게 받는 곳이 좋으며, 기울기는 10% 내외이다. 전작물前作物로 보리·콩·고구마 등이 적합하고,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多肥性 작물인 고추·마늘·양파·담배·생강 등을 장기간 재배한 곳은 적합하지 않다.



인삼캐기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인삼밭 | 충남 금산 | 2019 | 우승하

인삼을 재배하려면 돌려짓기가 필수적이다. 돌려짓기는 윤작輪作이라고도 하며, 한 농지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하는 방법이다. 물론 오늘날 지력 회복, 시비법施肥法, 병충해 방지 등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돌려짓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여전히 돌려짓기가 일반적이다. 돌려짓기는 재배지의 특성과 재배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밭의 경우는 10년 이상, 논의 경우는 6년 이상이 지난 곳이 적합하다. 인삼을 재배하려는 예정지는 최소 1년 이상 토양을 관리해야만 안정적으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 토양을 관리하는 방법은 1년에 10회 이상 깊이갈이를 하고 재배지를 갈 때마다 이전의 방향과 달리 갈아 주어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호밀,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을 심고 그것을 갈아 퇴비로 사용한다.

인삼의 파종은 개갑開匣 처리한 씨앗을 직접 파종하는 경우와 1년 남짓 자란 인삼인 묘삼苗蔘을 심는 경우로 구분된다. 개갑 처리는 파종에서 발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씨눈의 생장을 촉진하여 종자의 껍질이 벌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다만 개갑 처리한 씨앗을 파종할 때도 1년간 재배 후 이듬해 옮겨 심는 경우가 많다. 인삼은 밭에서 약 3년에서 6년간 재배하는데, 인삼의 반양반음의 특성상 해가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양철규梁喆奎(1949년생)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해가림은 달뿌리풀(현지에서는 '미듭'이라고 부름)을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인삼 전용 차광망 또는 차광지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다만 인삼은 여러해살이풀이어서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해가림 시설을 걷어서 햇볕을 받게 하고 폭설로 해가림 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과거 금산 인삼밭 전경 | 충남 금산 | 국립민속박물관

인삼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6년까지 재배하여 8월에서 10월에 걸쳐 수확한다.

특징 및 의의 뿌리를 약용하는 인삼은 최근 그 잎과 열매까지도 활용한다. 인삼은 예나 지금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구술에 의하면 인삼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초기에는 인삼이 겨울을 나지 못하는 줄 알고 늦가을 밭에 있는 인삼을 캐어 집에 보관하다가 다시 이듬해 봄 인삼을 밭에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삼밭에 티끌 하나도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인삼밭에 정성을 들였다. 현재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인삼을 수확하고 인삼을 튀김으로 만들 정도이니 인삼의 재배방법에서부터 활용까지 그 변화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經世遺表, 三國史記, 심마니 습속의 변화양상(우승하, 민속학연구 35, 국립민속박물관, 2014), 현지조사자료(양철규, 충남 금산, 2019. 4. 14; 4. 25; 5. 16.),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우승하(禹承河)

일경
日耕

정의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로, 소 쟁기로 하루에 갈 수 있는 범위.

역사 고려시대의 공식적인 면적 기준이 결부법結負法이었음에도 양계지방(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경으로 농지 규모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토지사여문서土地賜與文書 등에 일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부터 '마지기'와 함께 민간에서 통용된 농지의 면적 단위로 보인다. 다만 양계지방은 산지가 많아서 거리를 실측해야 하는 결부법의 적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태조의 큰아들인 이방우李芳雨에게 고향인 삭방도朔方道 함주咸州와 고주高州의 토지를 상속한 분재문서에서도 밭은 일경으로, 논은 마지기로 면적을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삭방도는 고려조의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함경도와 강원도 북쪽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선 말기인 1895년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면서 일경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한 문서가 있는 것을 보면 근년까지도 일경을 토지 면적 단위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일경으로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에서도 일경을 면적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 전통적으로 농지의 크기를 측량하는 방법에는 사람의 걸음으로 길이를 재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과 농지에 파종하는 종자의 양이나 투입되는 노동력으로 측량하는 방법이 있었다. 걸음으로 면적을 실측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결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종자량이나 노동력으로 어림하여 측정하는 법은 주로 민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한 말 분량의 벼 종자가 뿌려지는 농지의 면적인 마지기와 하루 쟁기질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인 일경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민간의 측량단위는 관청에서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종종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소 쟁기로 하룻낮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규모인 일경은 '하루 동안의 일'이라는 의미로 '날갈이' 또는 '하루갈이'라고도 한다. 일경으로 농지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마도 소 쟁기가 농경에 보편화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소 쟁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경의 실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래 쟁기로 하루에 논 2,000여 평을 갈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밭의 경우에는 훨씬 넓은 면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찬술된 강희맹姜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에 하루 20~30마지기를 갈 수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이 논인지 밭인지, 1마지기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한편 일경에서 파생된 단위로 식경息耕과 반경半耕이 있는데, 식경은 한 참까지 쟁기질한 면적으로 일경의 6분의 1이고 반경은 한나절의 쟁기질 면적으로 일경의 절반을 말한다.

특징 및 의의 일경은 민간에서 농지의 규모를 어림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로 중부 이북의 신간지역에서 통용되는 단위였다. 한 사람이 소와 쟁기로 하룻낮 동안 쟁기질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의 힘이나 밭의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면적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경과 함께 화전에서 주로 쓰였던 식경은 쟁기질을 쉬지 않고 한 번에 하는 면적으로 일경을 여섯으로 나눈 면적이 된다. 이는 종일 쟁기질하면서 일을 마칠 때를 포함하여 여섯 번 쉬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衿陽雜錄,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실행농지단위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조사연구(김영진, 농림경제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조선전기농업경제사(이철호, 한길사, 1986).

필자 박호석(朴虎錫)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정의 19세기 전반 서유구徐有榘가 향촌생활을 영위하는 사족士族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로 편찬한 유서類書 성격의 책.

개관 서유구徐有榘가 남긴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총 113권 5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이 방대하다. 서유구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족들의 지침서로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는데, 유서類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복口腹을 채우는 식력食力과 거향居鄕하면서 청수淸修하는 선비가 해야 할 양지養志에 해당하는 내용을 『임원경제지』에 담았다. 조선朝鮮이 당시에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감안하여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에는 총 16개의 지志가 묶여 있어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임원경제지』는 필사본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청구기호: 奎6565)은 52책이며, 위선지魏鮮志의 1책(권1·2)이 결락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장본은 54책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이 소장본이 54책이 된 것은 예언例言과 16지志의 인引을 묶어 놓은 1책을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도 실제로 53책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전체 권·책수卷冊數가 113권 53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편찬에 영향을 준 책은 바로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였다. 서유구는 향촌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산림경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림경제』를 크게 보완하는 작업으로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 그는 1806년 중부仲父 서형수의 유배와 더불어 찾아온 오랜 기간의 은거시기에 『임원경제지』 편찬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서유구는 1806년 이후 30여 년간에 걸쳐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 그런데 『임원경제지』는 서유구 생존 당시에 완성되었지만, 세상에 크게 유통되지 못하였다. 『임원경제지』는 1840년대 중반에 완성된 이후 간행이 되지 못한 채 필사본 원고로 집안에서 보관되었고, 여러 차례 필사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임원경제지』 16지는 각각 독립적인 내용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본리지本利志는 농업

생산 전반을 다루고, 관휴지灌畦志는 식용식물과 약용식물, 예원지藝畹志는 화훼류의 일반적 재배법, 만학지晩學志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종합농서의 성격을 지닌 부분이다. 전공지展功志는 길쌈, 위선지魏鮮志는 점후占候, 전어지佃漁志는 목축牧畜·사냥佃·고기잡이漁, 정조지鼎俎志는 음식, 섬용지贍用志는 가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보양지葆養志는 양생養生을 다루고, 인제지仁濟志는 그 자체가 의서醫書이다. 향례지鄕禮志는 향례鄕禮, 유예지遊藝志는 선비의 기예技藝, 이운지怡雲志는 선비들의 취미생활을 서술하고 있다. 상택지相宅志는 집짓기, 예규지倪圭志는 유통·교역을 다룬 지志이다.

농업기술을 수록한 본리지는 농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 전제田制는 토지의 종류를 서술하고 있고, 권2 수리水利는 치수治水하여 농사짓는 데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권3 변양辨壤(토지분별)에서는 흙을 살펴서 분류하는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고, 권4 심시審時(때 살피기)는 농시農時를 다룬 부분이다. 권4 영치營治는 농사의 기본 설명과 개간 기술 및 쟁기질·써레질·거름주기 등을 설명하고, 권5 종예상種藝上과 권6 종예하種藝下는 수장收藏부터 본격적인 곡물 재배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권7 곡명고穀名攷는 개종류溉種類(벼)와 육종류陸種類(밭작물)로 나누어 곡물 품종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권8은 오해고五害攷로 농사짓는 데 닥치는 5가지 재해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5가지 재해는 수한해水旱害(홍수 가뭄), 풍무해風霧害(바람 안개), 상박해霜雹害(서리 우박), 충해蟲害(벌레), 잡해雜害 등이다. 권9에 들어 있는 전가역표田家曆表와 신정전가역표新定田家曆表는 농가에서 달력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부분으로 '월령식 농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권10과 권11은 각각 농기도보상農器圖譜上과 농기도보하農器圖譜下인데, 기경起耕에서 수확에 이르는 여러 가지 농사일에 사용하는 농기구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권12와 권13은 각각 관개도보상灌溉圖譜上과 관개도보하灌溉圖譜下로, 전답에 물을 대는 데 활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시설 등을 그림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권10에서 권13까지 수록된 농기구 그림, 수리시설 그림은 중국 농서에 등장하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임원경제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징 및 의의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17세기 이후 조선의 농서農書 편찬의 맥락을 계승한 종합농서綜合農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서醫書·조리調理書 등에 관련된 내용도 발췌·분류·정리하여 수록한 유서類書이기도 하다. 『임원경제지』는 향촌·산림에서 거주하는 사족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중국·조선의 온갖 문헌을 섭렵하여 망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의 구성체제에 대한 서유구의 구상은 우선 사람이 따라야 할 처세處世의 두 가지 길을 출처出處로 분간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서유구에게 출出이란 관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처處는 향촌의 전원에 은퇴하는 것이다. 서유구는 관직생활과 은거생활을 모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생활하는 사족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식력食力과 양지養志라고 주장하였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편찬하면서 많은 문헌을 살펴보고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조목마다 인용문헌을 분명하게 표기하였다. 또한 많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방대한 내용을 집성集成하면서도 자신의 논평을 군데군데 '안案' '안按' 등으로 서두를 삼아 붙여 놓았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유봉학, 일지사, 1995),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풍석 서유구 연구-상·하(김문식 외, 사람의 무늬, 2014).

필자 염정섭(廉定燮)

자두

정의 장미과에 딸린 핵과류의 낙엽 소교목.

내용 자두나무는 기후 적응성이 비교적 좋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과수가 그러하듯이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지대에서 잘 자라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1950년까지 자두의 재배면적은 298*ha*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70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4,029*ha*에 달한다. 그 후 차츰 줄어들었다가 1990년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452*ha*까지 늘어났다가 2017년 7,324*ha*로 최고점을 찍었다. 전국에서 재배되지만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지역이 전체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생산량을 자랑한다. 경북 김천에서 1,398*ha*의 면적에서 재배되어 전국 자두재배면적의 29%를 차지한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자두는 제59로 김천 자두가 등록되어 있다. 김천에서는 4월에 자두꽃축제, 7월에는 자두포도축제가 열린다. 김천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곳이 경북 의성인데 봉양면에서 자두축제가 열린다.





추희 자두 | 농촌진흥청

여러 품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석조생, 포모사Formosa, 솔담Soldam, 추희를 주로 재배한다. 2004년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후 자두 생과는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가공물의 형태로 조금씩 수입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자두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즐겨온 과일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적응성이 좋으며, 자두꽃[李花]은 조선에서 대한제국까지 국가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 19970년대 후반부터 자두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북이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김천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과수 품종은 20가지가 넘지만 대석조생, 포모사, 솔담, 추희이며 대부분 7월에는 수확을 모두 끝낸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林園經濟誌, 增補山林經濟, 海東農書, 자두(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09), 자두·매실(농촌진흥청, 2018), 핵과류 무농약 유기재배 농가사례집-복숭아·자두(국립농업과학원, 20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

필자 편성철(片成哲)

자리틀

정의 돗자리와 자리를 짜는 틀.

내용 자리틀은 짚자리나 화문석, 용문석, 등메자리 등을 만드는 틀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수레를 대발과 왕골로 꾸몄다는 기록이나 직관조職官條나 석전席典 등의 관청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자리틀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리틀의 형태와 그에 따른 제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돗자리를 만드는 돗틀의 경우 형태가 가마니틀과 유사한데, 틀에 날줄을 걸어 두고 바늘로 날줄을 가로지르면서 바디질을 한다. 이때 날



편석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이 속으로 감춰지게 되는데 이 직조기술을 은경밀직隱經密織이라 하며, 등메자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짠다. 다음으로 자리를 만드는 틀은 형태가 섬틀과 유사하다. 도리에 일정 간격으로 날눈을 파 두고 고드랫돌을 앞뒤로 걸쳐 둔다. 도리에 씨줄을 놓고 고드랫돌로 도리의 앞뒤를 교차해 나가면서 짠다. 이때 날줄이 밖으로 노출되는데 이것을 노경소직露經疎織이라 하며, 짚자리나 화문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짠다.

노경소직의 방법으로 자리를 짜는 모습을 18세기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중 〈자리짜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남자는 자리틀의 고드랫돌을 이용하여 노경소직으로 짚자리를 짜고 있다. 한편 그림 속 자리틀은 19세기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남긴 『기산풍속도첩』의 〈섬짜기〉에 등장하는 자리틀에 비해 고드랫돌이 많은데, 이는 짚자리가 섬에 비해 촘촘하고 섬세하게 짜이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서민 가정에서는 자리틀로 볏짚이나 보릿짚을 성글게 짜서 만든 짚자리로 농작물을 널어 말리거나 방에 깔아 두어 생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작 시기는 대개 농한기나 농사일을 마친 밤, 비 오는 날 등이었으며, 보통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반면 상류층에서는 자리틀로 만든 화문석이나 용문석을 방안에 깔아 두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화문석이나 용문석 만들기는 왕골을 논에 심어 가꾸고 수확한 뒤 건조하여 쪼개고 염색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다음에야 자리틀로 만들 수 있기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런 고급스러운 전통 자리는 대개 농민들이 논에다가 왕골을 심어 농가의 부업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화문석의 경우에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스러운 멋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거실이나 방에 깔기 위하여 많이 찾았고 인기가 좋았다. 중국산이 수입되어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도 하면서 좋은 수입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비닐장판 보급이 증가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산 자리가 본격적으로 수입되자 전통 자리의 생산과 소비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농촌진흥청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 화문석문화관과 송해면 당산리에 화문석마을 조성을 지원하면서 화문석 제작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요즘은 10여 가구가 그 명맥을 잇고 있으며, 약 20명의 완초공예보존회 회원이 화문석마을과 화문석문화관에서 시연과 체험·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이 소일거리 삼아 예전에 자리를 만들었던 기억을 되살려 자리틀로 자리 만들기를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이 만든 자리의 판로를 제공하고 홍보하



자리틀 | 너비140 높이9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면서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부터 행해진 자리틀을 이용한 자리짜기는 농민들에게 부업과 자가소비 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 생산과 소비가 줄고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이 되자 이제는 대중에게 우리의 직조전통을 알리고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96년에 완초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로 지정되고 2002년에 등메장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는 등 자리짜기 기술을 가진 장인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기술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들에 의해 자리틀을 활용한 자리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100% 전통방식 왕골돗자리 짜기(연합뉴스, 2005.12.17.), 두피디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엄정웅(嚴正雄)

자연농법
自然農法

정의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으로 영위하는 농법.

내용 자연농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미생물을 이용하며 땅을 갈지 않고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농법이며, 1935년 일본의 오카다 모키치岡田茂吉에 의해 제창되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의 본래 활동에 맡겨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땅을 갈지 않고(무경운), 잡초를 뽑지 않고(무제초), 비료를 주지 않으며(무비료),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무농약) 4대 원칙의 농법이다.

자연농법은 태양·물·토양을 이용하여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다. 자연농법을 위한 토양은 생물계의 순환, 즉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산과 지중생물(지렁이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형성된다.

양분은 또한 콩과 작물의 근류균, 미생물 등 대기 중의 질소고정균과 흰개미·지렁이 등의 배설물을 통해서 그리고 초생재배, 녹비작물(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환원 등을 통한 질소공급, 미네랄 함유 암석 등 자연 자원을 통해서 생성된다.

식물의 뿌리는 토양 중 양분을 흡수한다. 잎과 줄기 등 지상부는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식물성 단백질이 되어 초식동물의 영양원이 된다. 초식동물의 단백질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배설·사체는 다시 토양 유기물로 환원되어 지중생물·소동물이 이동하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양분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자연농법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가하여 더 많은 수량을 올리는 과학농법과 다르다. 무경운, 직파, 자연수, 재래종, 근방재배, 퇴비·녹비, 천적 이용, 윤환재배 등 인위적인 수단을 가하지 않는 농법이다.



인력의 개입 정도에 따른 농업의 형태와 관계

특징 및 의의 자연농법은 물질순환, 환경보전,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그에 따라 친환경농법·유기농법보다 생물학적 다양성, 농업생태계 자원과 물질순환의 가장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농법이다.

참고문헌 유기농쌀생산기술(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17), 유기농업원론(이효원, 에피스테메, 2016), 자연농법(福岡正信, 최성현 역, 정신세계사, 1985).

필자 박광호(朴光鎬)

작두

정의 큰 칼날이 달려 있어 짚이나 풀·콩깍지 등의 사료를 썰 때 사용하는 도구.

개관 작두는 농가에서 주로 소·말·돼지 등의 가축에게 줄 풀이나 짚·콩깍지 등의 사료를 썰 때 사용한다. 작두는 농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약재를 다루는 한약방에서도 약재를 썰기 위해 쓰고, 가정에서는 명절에 끓여 먹는 가래떡을 썰 때도 손작두를 이용하였다. 칼로 썰어 내기에는 양이 많아서 팔이 아프기 때문이다.

내용 작두란 말은 옛날에 쓰던 한자 말 작도斫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농사직설農事直說』과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작도'라는 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지河緯地가 남긴 유서에도 '착도錯刀'라는 말이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방언의 발음도 보이는데 경상도에서는 '짝도'라 하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짝두'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는 '짝뒤'라 발음한다고 조사된 것도 있다. 조선시대 형옥刑獄에서 죄인의 목을 자르는 데 사용한 '부질鈇鑕'이란 도구도 작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작두에는 손작두도 있고 발작두도 있다. 손작두는 발작두보다 크기가 작은 편인데 풀이나 약재 등 좀 규모가 작은 것을 써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작두의 크기는 용도나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에 일정한 규격은 없다. 작두의 칼날을 고정하는 나무 밑동을 작두 받침대라 하는데 여기에 고정용 작은 쇠첩 두 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작두날을 끼워 굽은 쇠못같이 생긴 고두쇠로 고정한다. 작두 머리의 반대쪽에 나무로 된 손잡이를 달아 이를 잡고 상하로 움직여서 물건을 썰어 낸다.

발작두는 주로 Y자형 통나무를 받침대로 쓰는데, 받침대가 제법 굵고 묵직해야 잘 움직이지 않는다. 발로 다질 때마다 움직이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따른다. 다리가 벌어진 쪽의 반대쪽에 칼날 고정점을 만들고 고두쇠를 꽂아 고정한다. 그리고 반대편의 손잡이 쪽에 손잡이 대신에 발판을 달아 둔다. 작두칼의 발판 쪽 칼등에 작은 구멍을 내고 여기에 줄을 끼워 이를 잡고 작두칼을 위로 든다. 그리고 썰 물건을 넣은 후 발판을 발로 밟아 이를 썰어 낸다. 힘센 사람이 힘차게 디뎌서 누르므로 절단이 쉽다. 짚단, 콩깍지, 깻단, 삼대, 닥나무 등을 자를 때 사용한다. 발작두는 자를 물건을 넣어 주는 사람과 발로 눌러 자르는 사람, 최소 2인 1조가 되어야 작업이 이뤄진다.

Y자형 통나무 받침대 외에 일자형 받침대 작두도 있다. 크고 긴 통나무를 사용하여 한쪽에 작두 칼날을 장착하고 그 나머지 쪽에는 사람이 올라앉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여기에 앉는 이유는 작두가 움직이지 못하게 무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앉아서 짚단을 손으로 넣어 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작두를 들어



담배썰기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발작두 | 강원 삼척 | 안승일

올려 발로 눌러 썬다.

특징 및 의의 농가에서 작두를 쓰는 것은 주로 가축에게 줄 풀을 썰기 위함이다. 소나 말, 돼지 등은 풀을 먹기 때문에 풀을 썰어 사료로 준다. 그 밖에 삼대나 닥나무를 자를 때도 작두가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나 작두는 매우 위험한 도구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농업기구(배도식, 생산민속, 민속학회, 집문당, 1996),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현지조사자료(김광웅, 경북 청도, 2011.8.10.), 농촌진흥청(facebook.com/rdakorea).

필자 배도식(裵桃植)

작목반
作目班

정의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

내용 작목반作目班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작목반은 1970년대 후반을 거쳐 198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고, 채소·원예·축산·과일 등의 작목에서 많이 나타난다.

작목반이라는 명칭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까지 경영 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의 리里·동洞 단위에서 읍邑·면面 단위 체제로 농협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농협은 기존의 이·동 단위 체제에서 가지고 있던 조합원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마을별 '협동회'를 만들고 그 하부에 작목반이라는 작목별 조직을 구성하였다. 물론 1970년대 이전에도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협동하여 생산 및 판매의 공동화를 위하여 조직을 결성한 사례는 존재하였지만 작목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1970년대 농협의 하부조직으로서 등장한 작목반은 출범 50년의 역사를 겪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을 비롯한 내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적지 않은 변천을 겪어 왔다. 작목반의 변천이 많았던 1970~1990년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조직 태동 및 확대 시기'(1970~1976년), '조직 정비 시기'(1977~1982년), '협동출하반과의 공존 시기'(1983~1991년), '작목반 일원화 및 영농법인 출현 시기'(1991년 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목반의 조직과 성격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미곡 중심의 식량 자급화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등으로 점차 선회하고 상업적 영농이 진전됨에 따라 작목반의 작목 구성 역시 바뀌었다. 초기 식량작물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채소, 원예, 과수, 특수작물, 축산 등의 소득작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작목반의 기능 역시 전문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협동의 내용과 공동사업의 형태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미작 중심의 공동작업과 공동방제, 공동판매선 확보를 위한 협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및 공동판매 등의 유통 기능이 강화되며 경제적 이익집단의 성격이 짙어졌다. 셋째, 조직의 지원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 작목반은 농협에서 설치한 마을별 협동회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며 농협의 지원 아래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정비 시기에는 농협과 농촌지도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가 협동출하반과의 공존 시기부터는 농협과 정부의 이중 지원체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두레나 품앗이, 계 등 농촌의 전통적인 생산조직과 달리 작목반은 작목을 중심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적지 않다. 작목반은 대개 마을 또는 인근의 2~3개 마을을 기반으로 조직되지만, 작목별 단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딸기나 고추, 양파 등의 특정 작물을 중심으로 한 작목반은 읍·면이나 군 단위 조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양계협회 등과 같이 전국적인 품목별 조직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작목반은 영농기술의 도입, 영농자금의 조달, 공동

구매와 판매, 공동작업, 시장 대응 등 작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물론 작목반은 지역과 작목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환경과 농업정책의 변화, 농산물시장 및 소비구조의 변동 등 외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일들을 협업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작목반은 농업생산기반 단계에서 농협을 통해 영농자금의 공동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금융집단'이며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집단영농교육의 수용체'이다. 또한 농약·비료·묘목·하우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공동구매집단'이기도 하다. 생산 단계에서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주고받는 '공동작업반'이며, 파종기·수확기·선별기·저온창고 등의 농업 기계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업기계·시설 공동이용집단'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개별농가의 산물을 수집하여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공동수송집단'이자 판매선을 집단으로 접촉하는 '공동판매 교섭단체'이다. 또한 작목반은 농협 등을 통해 공판장과 시장에 공동판매하는 '공동판매집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상의 수익금을 적립해 가는 '기금형성집단'이기도 하다. 아울러 형성한 기금을 근거로 반원들 간에 친목행사를 가지거나 선진지 견학을 겸한 공동오락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마을이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후원집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작목반을 통한 농가의 결합과 협동은 다음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작목반은 한국의 농촌이 역사적으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통적인 협동관행과 생산조직 구성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작목반은 우리나라 농업이 점차 상업화되고 정부의 농정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목반의 대상작물과 협동의 중점 부분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응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작목반의 활동이 외부와 접촉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서구적인 협동(협동체)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도입되었다. 넷째, 1990년대부터는 일부 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영역에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목반의 특징은 우리나라 농촌사회와 농촌마을이 겪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참고문헌 농업생산조직과 지역발전(윤수종, 현대사회과학연구13,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작목반 육성과 농협의 과제(이상영, 한국농촌지도학회지3-2, 한국농촌지도학회, 1996), 작목반 협동의 본질과 전개방향(최찬호, 농촌사회2,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필자 권봉관(權俸觀)

작부체계
作付體系

정의 기후·토양·지형 등 자연환경 조건과 조세·수익·관습 등 사회문화 조건을 반영하여 특정 경작지에서 재배할 작물을 선택하고, 경작의 시간순서와 공간배치를 서로 달리하여 이를 재배하는 작물 편성의 방식.

내용 작부체계作付體系, cropping system라는 용어는 그 뜻이 엄밀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할 때 그 방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 작물의 선택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간순서 그리고 그 공간배치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작부체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물선택과 시간순서에 이은 세 번째 요소로 공간배치 대신 작물관리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자가 작물의 편성 자체에 집중하려는 시도라면, 후자는 지력 유지나 재해 방지 등 농작물과 경작지에 대한 관리방식으로까지 개념을 확대하여 작부체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두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시간순서와 공간배치가 작부체계의 양대 요소라고 이해하는 방식, 시간순서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작부체계를 규정

하려는 방식, 관리방법 안에 작물선택과 시간순서 등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방식 등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난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작부체계를 구분하는 방식과 구분된 하위범주 간의 포함 관계가 달라지며, 따라서 관련 논의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작부체계라는 상위범주 내에 단작, 다모작(이모작 포함), 다기작(이기작 포함), 연작, 윤작, 간작, 혼작 등 하위범주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특징 및 의의 작부체계의 작부作付가 작물을 심음, 경작함을 뜻하는 영어인 cropping에 해당하는 말인 점은 분명하지만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 농서 등 조선시대 문헌에서 작부가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대에 들어 일본어 사쿠즈케作付け가 유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학계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지만, 기원이 의심스럽고 의미 전달도 어려운 '작부체계'라는 말 대신 '재배체계' 등으로 순화하는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작부체계를 재배체계로 대체할 경우 경작지를 단위로 한 작물 편성 외에 농가 등 영농 단위에서 작물·자원·기술이 편성되는 방식을 뜻하는 영농조직farming system, 지역 등 일정 공간을 단위로 한 작물·자원·기술의 편성 방식을 의미하는 농경방식agricultural system 등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일본에서 재배·경작 등 대중적 용어가 아니라 딱딱한 행정용어 성격이 강한 작부라는 말을 써서 작부체계, 작부면적, 작부 증감, 작부 연도 등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cropping도 특별한 용어가 아닌 만큼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작부체계, 영농조직, 농경방식이 서로 통일된 용어체계를 이루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함께 이 식민지 근대 기원의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작물선택과 시간순서 외에 작부체계의 본질이 공간배치보다는 관리방식에 있다고 보는 경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부체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개념이며 어디에 쓸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이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특정 작부체계가 선택될 때에는 지력 유지나 재해 방지 등이 주요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특정 자연과학의 성향에 따라 기후와 토양이 작부체계를 규정한다고 이해할 경우 작부체계 개념과 지력 유지 및 재해 방지 목적의 관리방식이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부체계의 편성에는 기후와 토양 외에 지형 등 다른 자연환경 요인도 작용하며 여러 사회문화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가령 조선 후기나 일제강점기에 면화가 특정 작부체계에 포함된 것은 기후와 토양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수익 등 경제적 추구나 공출 등 국가적 강제 요인을 빼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념을 정의할 때는 관리방식보다 공간배치를 택함으로써 뜻의 외연을 좁히고, 그 성립배경에는 기후와 토양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고 폭을 넓혀서 이해하는 쪽이 작부체계라는 용어의 사용법으로 더 유용할 것이다. 작부체계란 무엇보다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을 토대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험이 단지 자연환경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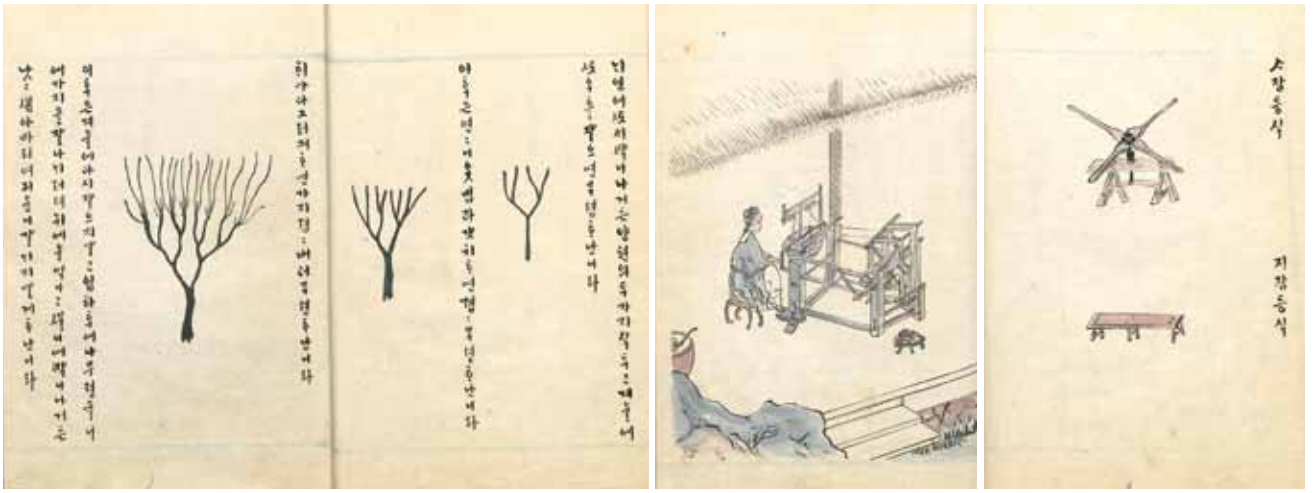
참고문헌 농업대사전(김익달 편, 학원사, 1978), 전작-4판(조재영 외, 향문사, 2001), 最新農業技術事典(農業·生物系特定産業技術研究機構, 山漁村文化協会, 2006), Introduction to Agronomy: Food, Crops, and Environment-2nd edition(Craig C. Sheaffer·Kristine M. Moncada, Cengage Learning, 2011), Principles of Agronomy for Sustainable Agriculture(Francisco J. Villalobos·Elias Fereres eds., Springer, 2016), 농사로(nongsaro.go.kr).

필자 안승택(安勝澤)

잠상집요
蠶桑輯要

정의 1886년(고종 23)에 이희규가 잠업기술 내용을 한글로 초록한 전문 기술서.

개관 이 책은 원전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2년 앞서 편찬된 이우규李祐珪의 『잠상촬요蠶桑撮要』(1884)를 대체로 한글로 번역하여 모방·초록하였다. 특히 뽕나무나 36



잠상집요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점의 양잠·제사 과정에 대한 도해 설명은 『잠상촬요』를 복사한 것과 다름없는 저술이다. 이우규는 한산이씨韓山李氏지만 이희규는 전주이씨全州李氏여서 같은 집안의 연척관계는 아니다. 책의 말미에 "광셔십이년구월쵸순견쥬이희규언초(光緖12年9月初全州이희규諺抄)"라고 쓰여 있지만, 필자인 이희규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잘 알 수 없다.

『잠상집요蠶桑輯要』는 한글 초록본으로, 전체 44장 가운데 38장의 내용이 앞서 출간된 『잠상촬요』나 『증보잠상집요增補蠶桑輯要』(김사철, 1884)와 일치한다. 이희규는 앞선 두 책이 한문으로 쓰여서 농민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두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초록하였다. 현재 『잠상집요』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앞의 두 책은 인쇄본으로 만들어져 널리 보급될 수 있었지만, 이 책은 초록된 필사본으로 남겨져서 크게 보급될 수 없었다.

내용 『잠상집요』는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어 쓰였고 말미에 초록 연도와 초록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서술방식은 "하나는一曰" 하는 식으로 시작하여 원본의 요점만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을 따랐다. 초록본이라는 분량 제약 때문이겠지만, 본문에는 『잠상촬요』나 『증보잠상집요』에 수록된 중국잠상국규조中國蠶桑局規條나 지단知單, 전단傳單 같은 홍보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뽕나무 식재에 관한 내용으로는 뽕나무 심는 법, 오디씨로 심는 법, 이식법, 반상법, 압상법, 접붙이는 법, 수상법, 뽕나무 가지치는 법, 뽕나무벌레 잡는 법 등의 10가지 요령이 수록되어 있고 뽕나무 수형樹型에 관한 5종의 그림이 곁들여져 있다.

누에 치는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는 잠성총론, 누에가 꺼리는 7가지 금기, 누에씨 적시는 요령, 최청, 어린 누에의 중량, 누에 먹이는 법, 잠실의 온도, 가을 뽕잎 가루 준비, 쌀겨 준비, 상족, 소똥 준비, 기타 잠구 준비 등에 관한 17가지 내용이 서술되었다.

그다음으로 고치 따기, 고치 말리기, 고치에서 나비 내는 법, 누에 알깨기 등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고치실 켜기 요령과 상수리나무로 야잠野蠶 기르는 법, 야잠 고치실 만드는 법 등에 대한 36종의 양잠·제사·재상 도구를 도해를 활용하여 소개하고 그 제조와 이용법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는 『잠상촬요』나 『증보잠상집요』에 수록된 뽕잎에 대한 두 개의 도해가 빠져 있다.

특징 및 의의 『잠상집요』는 무엇보다도 양잠을 경영하는 농민들이나 초보자들의 편의성과 해독성, 활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서 출간된 한문 서적들을 초록한 다음 순한글로 번역하여 책을 편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다만 필사 이후에 간인되지 못하여 실제 보급과 활용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잠상집요』의 서문에서는 잠상蠶桑을 일으킨 중국 심병성沁秉成의 업적과 공과를 높게 찬양한 뒤에 오주동이라는 사람의 간청으로 이 책을 엮게 되었다는 사연

그리고 중국 진강 땅과 오흥 땅에서 잠업이 진흥케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서문도 문맥으로 보아 초록자 자신이 쓴 것이라기보다 이우규의 『잠상촬요』나 김사철의 『증보잠상집요』의 모본이 된 중국본中國本 『잠상집요蠶桑輯要』의 서문을 그대로 국역한 듯하다. 따라서 이 책 『잠상집요』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초록자인 이희규가 이우규의 『잠상촬요』나 김사철의 『증보잠상집요』를 모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본 『잠상집요』를 모본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한편 기술적인 국역화 내용이나 기술 설명의 사례를 들어 이 책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야잠野蠶인 작잠柞蠶 사육과 고치실 켜기 요령이 새롭게 곁들여졌다.

2. 뽕나무 번식법으로 휘묻이법取木法이 있는데, 이 기술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압삽壓揷이라고 한 반면 『잠상집요』에서는 압삽법壓揷法이라고 하였다.

3. 『임원경제지』에서는 폐수 주간을 절단하여 접목하고 곁가지를 키워 수목을 젊게 바꾸는 기술을 접환接換이라 하였으나, 『잠상집요』에서는 오디씨를 파종하여 대목으로 삼고 여기에 노상魯桑을 접수로 접목하는 요령을 소개하였다.

4. 『잠상집요』에는 폐수의 주간을 잘라서 밑동에 접목하여 새 가지를 우산살처럼 펴져 크게 하는 수형樹型 조정법이 소개되었다.

5. 『잠상집요』에는 어린나무의 자람에 따른 수형조절법으로, 권상법拳桑法이 수록되었다.

6. 뽕나무 해충 구제책이 서술되었는데, 터럭 난 벌레와 자벌레에는 파 뿌리 달인 물을 물총으로 뿌리며, 수유충 방제를 위해서는 파 뿌리 가루를 두붓물에 타서 빗자루에 적셔 잎을 쓸어 준다.

7. 야잠으로 작잠柞蠶, Chinese tussar을 키우는 법이 소개되었다. 즉 3년 된 상수리나무로 야잠을 키우는 법은 어린 작잠이 깨어날 때 상수리 나뭇가지를 둘러 꽂아 잎 냄새(향기)를 맡게 한 후 야잠이 잎에 올라 먹게 한다. 또한 작잠실Chinese tussar silk 켜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김영진에 의하면 고급 섬유자원인 비단실이 부족해지자 그 대안으로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절대적인 수요 때문에 19세기 후반에는 가잠사육법이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초 수원권업모범장에서 시험사육을 한 기록이 있으며, 실제로 양주·의주·장성 등지에서는 풍부한 상수리나무를 이용하여 한때 상당한 면적에 작잠을 사육하였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동아출판사, 198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구자옥(具滋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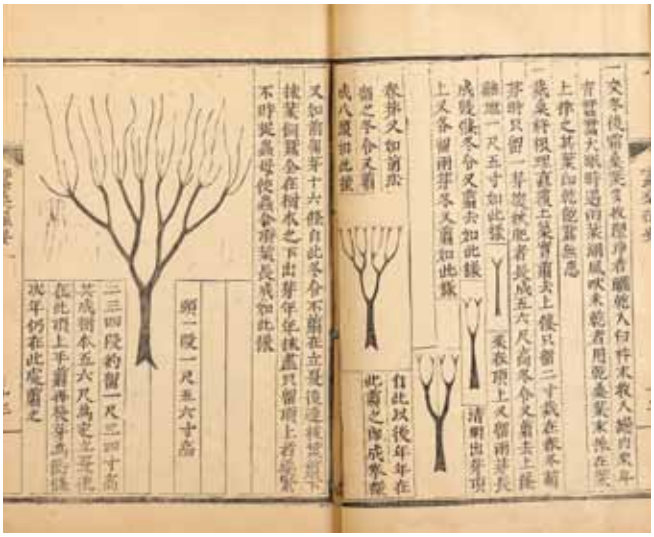
잠상촬요
蠶桑撮要

정의 1884년(고종 21) 이우규李祐珪가 집필한 잠업 전문 기술서.

개관 『잠상촬요蠶桑撮要』는 1책의 인본印本으로 서문과 목차를 포함하여 모두 7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지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뽕나무 재배와 양잠에 대한 노상재종법魯桑栽種法이나 양잠소사법養蠶樸絲法 등을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인용하여 엮은 책으로서 난외欄外에 저자의 주해註解가 실려 있고 말미에 양잠에 필요한 기구의 그림과 용법이 설명되어 있다.

편자인 이우규는 한산인韓山人으로서 자字는 성천聖天이고, 호號는 아주鵝州이다. 책 서문의 말미에 청학관주青鶴館主라고 한 것은 본인 자신을 일컬은 것으로, 본인의 거처 '청학관青鶴官'에서 유래한다. 그는 1885년 당시에 내무부 주사主事를 거쳐 후일 전라도 나주羅州군수를 지냈으며, 실학을 공부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중국의 심병성沈秉成이 저술한 『잠상집요蠶桑輯要』를 이희규가 1885년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보다 1년 앞서 이우규가 한문체의 『잠상촬요』를 저술한 것이다.

이우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잠업 관련 전문서를 편찬한 동기를 『잠상촬요』의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의 벗이자 『증보잠상집요增補蠶桑輯要』(1884)의 편술자인 김사철金思轍이 농민과 국가의 부강을 위하여 잠서를 저술하기로 의도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야 할 처지에 부딪혀 집필 시간을 내기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이우규에게 많





잠상촬요 | 국립중앙도서관

은 참고문헌을 내주면서 대신 집필을 부탁하게 된 것이다. 여러 차례 망설이며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저술에 손을 대 완결한 책이『잠상촬요』였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내용 이우규는 본문을 집필하며 뽕나무 품종을 일별하는 제가유설諸家類說부터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뽕나무 경제 수종을 얻기 위한 접목법(접붙이는 법), 옮겨심기와 자르는 전정법, 권상법拳桑法, 재식 거리, 오디씨 파종에 따르는 밭 관리·준비법, 지상地桑 재배요령, 수상樹桑 양육법, 휘묻이 번식법, 삽목 번식법, 뽕나무 가지 묻어 심는 요령, 가을 식재법, 뽕나무 가지치기 요령 등 재상학栽桑學 범주의 기술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였다.

그다음으로 누에에 대한 총론 격의 집필을 필두로 양잠養蠶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누에씨 씻기와 깨는 법, 어린 누에 떠는 법, 누에 먹이는 법, 잠재우는 법, 먹이 주고 똥갈이 하는 법, 쌍고치 짓기 피하는 법, 얇은 고치 피하는 법, 누에를 섶에 올리는 법, 여름누에 기르는 법, 누에씨 거두는 법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제사製絲 부분에서는 실 켜는 방법 12가지를 요령 있게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이어지는 잠상잡기蠶桑雜記는 양잠과 재상에 대한 설명으로, 앞서 기술에 누락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특히 뽕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 자르는 법, 권상법拳桑法 등에 대한 도해 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는 최근의 현대판 재상학栽桑學 교재에 나오는 그림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는 상수리나무를 심어서 야잠野蠶을 기르는 요령이 소개되어 있고, 다시 21개 항에 이르는 양잠상의 요점들이 조목별로 열거·설명되었다. 그리고 12종류의 실 켜는 기기의 그림과 설계내용 그리고 제작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24종류의 양잠상 필요한 기기의 그림 설명이나 설계 및 제작요령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부기되었다. 그림 설명의 끝에는 노상魯桑과 형상荊桑 품종을 구별하는 그림이 있는데, 앞맥이 서로 다른 점을 가려 잘 표현되어 있다.

뒤를 이어서 중국의 잠상국규조蠶桑局規條와 중국 청하현淸河縣의 잠상국규조, 잠상국사의 등 잠상 기술 지도를 위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된 중국의 전단傳單을 가감·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잠상국이 만든 제사법製絲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전단과 뽕나무 심기에 대한 전단, 양잠을 알기 쉽게 풀이한 전단, 월별 잠상행사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전반적으로 보아『잠상촬요』는 최신의 잠서蠶書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책이 편찬될 당시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 등을 맺으며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중국의 서적을 쉽게 그리고 많이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또한 중국의 문물을 직접 보러 나갔던 시찰단이 귀국하며 가지고 온 각종 전단까지도 참고할 수 있었다.

특히 『잠상촬요』는 이 분야의 우리나라 최초 전문서로서 책의 본문과 본술 외에도 난외에 저자의 주해가 부기되어 있고, 뒤로는 양잠 기구器具의 그림과 사용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책의 보급과 활용에 일조하도록 하였다. 『잠상촬요』는 같은 시기에 간행된 김사철의 『증보잠상집요』와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김사철이 관직 진출로 인해 여가가 없어 이우규에게 참고자료를 내주며 『잠상촬요』의 저술을 부탁하였고 같은 시기에 『증보잠상집요』를 편찬할 때도 김사철이 이우규에게 원고에 필요한 참고서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잠상촬요』와 『증보잠상집요』는 같은 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본 책 『잠상촬요』는 이희규가 1886년(고종 23)에 우리말로 저술한 『잠상집요蠶桑輯要』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잠상집요』는 출간 시기가 『잠상촬요』보다 2년 늦고 내용의 대부분이 한글로 쓰였을 뿐 서술방식과 내용 면에서 『잠상촬요』를 거의 모방하였다. 특히 뽕나무와 36면의 양잠·제사 과정에 대한 도해 설명은 『잠상촬요』를 복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 사람의 성명에 유사성이 있으나, 『잠상촬요』의 이우규는 관貫이 한산韓山인 반면 『잠상집요』의 이희규는 전주全州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8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잠실
蠶室

정의 견직물의 원료인 고치실과 그 밖의 다른 부산물을 얻기 위해 누에를 치는 장소.

내용 잠실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래식 가옥의 온돌방이 거의 유일하게 활용되었다. 1909년 권업모범장은 한국 재래가옥과 간이잠실과의 비교조사에서 재래가옥을 잠실로 겸용할 경우 너무 협소하고, 공기유통이 잘 안되며, 조명장치가 없고, 출입구의 협소로 작업의 불편 등 잠실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후에도 1910년에 온돌잠실의 불때기와 온도와의 관계 및 온돌잠실에 있어서 잠가蠶架 사육과 바닥치기의 비교시험 등 온돌잠실 내에서의 상·중·하부의 온도 분포와 잠가사육할 경우 작업노력 및 사육량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1926~1928년에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잠실의 사육적 효과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1932년에 상족잠수와 전견중 및 견층량이 애누에 때 온돌잠실, 큰누에 때 흙벽 잠실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1930년 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양잠 호수 71만 9,161호 중 주택겸용인 잠실을 사용하는 양잠 호수는 70만 4,214호로 98%에 해당되고 전용잠실 농가 수는 2%에 불과하였다.



제적 | 누숙경직도 중 부분 | 전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광복 후 6·25전쟁을 거쳐 1962년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무려 15년 이상의 긴 기간 우리나라 양잠은 재기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활기를 찾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애누에 공동사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1971년부터 애누에 공동육용 항온항습 잠실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애누에 공동육 보급은 1980년에 사육량 25만 상자로 36.4%에 달했으나, 고치 감산과 더불어 애누에

잡초
雜草



양잠 | 191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육 주체였던 제사회사 및 양잠협동조합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어 많은 시설이 점차 폐기되었다. 1990년도에는 애누에 보급률이 38%로 증가하였으나, 누에 총사육량이 17만 상자로 1980년도 69만 상자에 비하여 75%나 감소하였고 애누에 공동사육량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실크산업은 인조섬유에 밀려 산업규모가 축소되고 더불어 농가 수도 줄었으며, 1999년도에 잠업법도 폐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00년도에 접어들어 입는 누에에서 먹는 누에, 의료용 소재 실크 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기능성 양잠산업법을 2009년에 제정하면서 양잠산업 발전 재도약의 기획을 살리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애누에 인공사료 개발 및 연중 다회사육이 가능한 잠실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농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중심에서 ICT를 접목한 자동화 누에사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환경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노력 절감형 누에사육을 할 수 있는 ICT 스마트 잠실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누에 농사는 친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연간 안정생산을 할 수 있는 사육 시스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새 잠업기술과 경영(농촌진흥청·대한잠사회, 1989), 최신양잠(농업전문대학교재편찬위원회, 교학연구사, 1985), 한국 잠사기술 발달 100년사(한국잠사학회·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go.kr).

필자 김기영(金基榮)

정의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로서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거나 경제적 이용 가치가 없는 모든 식물.

내용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은 30만 종 이상이며, 이 중 세계의 농경지에는 73과 415속 1,600여 종의 잡초가 분포하고 유사 종까지 합치면 6,000여 종의 잡초가 분포한다.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잡초는 25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비농경지와 주변 잡초를 포함하여 총 81과 619종의 잡초가 분포하며, 이 중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종 잡초는 28과 166종이다. 경지별로는 논 잡초가 90종, 밭 잡초가 375종, 과수원 잡초가 492종, 목초지 잡초가 275종이다. 하지만 논과 밭에서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잡초는 100여 종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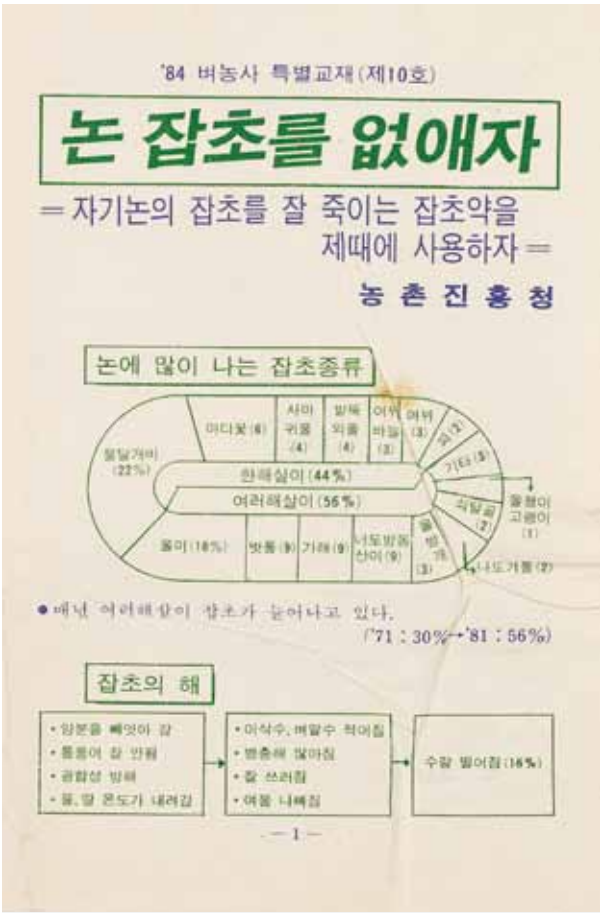
잡초는 원산지에 따라 재래(자생)잡초와 외래잡초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국제교류가 시작된 1886년 개항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자라던 잡초를 재래잡초, 그 이후에 들어와 자란 잡초를 외래잡초라 한다. 외래잡초는 이입移入 시기별로 크게 3기로 나뉜다. 1기는 개항부터 일본인 식물학자 모리 다메조森爲三가 『조선식물명휘朝鮮植物名彙』를 발간한 1922년까지, 2기는 1923년부터 광복 후 국내 식물학자인 안학수·이춘녕이 『한국식물명감』을 발간한 1963년까지, 3기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러나 3기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두 기간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래잡초의



제초 작업 | 전남 장흥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유입과 확산은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농촌인구 고령화로 외래잡초 방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계 1년생 외래잡초의 급격한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잡초는 형태에 따라 볏과(화본과), 사초과(방동사닛과), 광엽 잡초로 나누고 생활주기에 따라 다시 일년생 잡초와 다년생 잡초로 구분한다. 일년생 잡초는 발생한 후 1년 사이에 개화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고사하는 잡초를 말하며, 다년생 잡초는 2년 이상 여러 해 동안 생존하는 잡초로서 지하부에 영양번식기관이나 겨울눈을 가지고 있다. 잡초는 농작물 재배지에서 피해를 주는 식물이기에 방제가 필요하다.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10~60%의 손실을 줄 수 있다. 잡초 방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목적 작물 이외의 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 사람 손으로 하는 손 제초에서 현재는 제초제 등을 이용하는 방제법에 이르고 있다.



벼농사 특별교재 리플렛 | 1984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강인한 생명력은 잡초만의 특징이다. 잡초는 뿌리가 깊게 내려 자라는 근성根性이 있는 풀이다. 이러한 특징을 잡초성이라고 하는데, 잡초성이 없으면 잡초가 아니라 그냥 풀이라고 한다. 잡초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잡초종자는 땅속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잡초종자는 대부분 광발아성으로서 땅 위로 올라와야 발아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잡초종자는 휴면성이 복잡하여 발생 기간이 길다. 이 밖에도 잡초는 잡종자 생산량이 많고 발아가 균일하지 않으며 개화가 빠르고 자가수정을 하고 종자생산 기간이 길며 종자의 전파수단이 다양한 데다 경합 기능이 특이하고 발취拔取(뽑힘) 저항성이 있다. 잡초는 이러한 잡초성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외부 간섭으로부터 생존력이 강하다. 잡초는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 발생하는 식물은 모두 잡초로 여겨 방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잡초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현재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고 여러 분야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존하여 면밀히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잡초관리 길잡이(이인용 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9), 잡초방제종합(농촌진흥청·한국농업대학, 한국농업대학, 2007), 잡초와 제초제(이인용·김진원·이정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 2019),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김민기(金民基)

잣

정의 소나뭇과에 딸린 교목으로 산속에서 자생하는 잣나무의 열매를 식용하는 상록교목.

개관 잣*Pinus koraiensis*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중국의 『해약본초海藥本草』에는 생산지를 신라라고 기재하였으며, 명나라 때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신라송자新羅松子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본초강목』에는 "잣에는 남송·



잣 | 국립민속박물관



잣송이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북송·화음송이 있는데, 모양이 작고 껍데기는 얇다. 아롱진 것이 극히 맛이 향긋하다. 신라 것이 살이 심히 향미하다."라고 쓰여 있다. 잣에 대한 우리나라 기록은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원가怨歌〉와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에 최초로 나온다. 잣은 예로부터 신선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졌으며, 잣나무는 추운 계절에도 푸르르기에 이상과 절개를 뜻하기도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지만, 경기도 가평이 잣 특산지로 유명하다. 잣은 신라송新羅松, 해송자海松子, 백자白子, 송자松子, 실백實白으로도 불린다.

내용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충청북도 단양, 경상북도 청송·안동·봉화에도 잣이 특산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경기도 양주, 충청도의 충주·공주·단양·괴산·보은·영동·청양, 경상도의 대부분 지역에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의 잣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어 재배지역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1757년부터 1765년에 작성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경기 가평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평 잣은 고문헌에 3개 이상 수록될 정도로 가평을 대표하는 토산물이다.

유실수로 높이는 10*m* 이상 자라며, 잎은 바늘 형상인데 모가 졌고 빛깔이 푸르다. 암·수꽃은 자웅동주이며 5월에 개화하고, 열매는 긴 달걀형의 구과로서 크기는 두 주먹만 하고 그 속에 100개 정도의 씨가 들어 있는데 10월에 송이가 마른다. 잣을 수확하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6~8*m*의 긴 장대를 이용하여 잣송이까지 털어내는 것이다. 씨는 두들겨서 뺀다. 잣나무가 워낙에 힘이 없어 좌우로 흔들거리면 사람도 잣나무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심을 잡아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칫 나무가 부러져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매년 잣 따는 사람들의 사고가 끊이질 않아 극한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잣은 기미가 달고 따뜻하며 독이 없다. 십이지장충을 구제하는 효과도 있으며,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풍비나 한기와 허기를 내쫓아 허약을 보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오장을 살찌게 한다. 모든 풍을 다스리고 장과 위를 따뜻하게 한다. 잣은 많은 정력소를 가지고 있고 영양가도 매우 높아 예로부터 '신선은 잣을 수시로 먹어 불로장수하였다'라는 설이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전날 밤에 깐 잣 12개를 각각 바늘로 꿰어 그해 열두 달에 벌려 놓고 불을 켜서 불이 밝은 달은 신수가 좋고, 어두운 달은 신수가 나쁘다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잣나무 잎으로 술을 담가 정월 초하루 날 액운을 물리치는 의미에서 먹기도 하였다. 상록수 잎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기도 하며, 목재는 향기가 나는데 나뭇결이 곧고 가벼워서 건축재와 선박·악기 용재로 쓰인다.

특징 및 의의 경기도 가평은 예로부터 산과 물과 잣의 고장으로 불리었다. 산림이 78%나 차지하고 밤과 잣, 꿀과 산채 등의 토산물이 유명하다. 잣 생산량이 전국의 40%에 이르며, 잣나무가 밤나무·굴참나무·전나무 등과 함께 큰 숲을 이룬다. 가평의 명지산 남쪽에는 잣나무가 무성해서 백둔리라 이름 붙은 마을이 있다. 가평군은 1972년 10월 10일 군목으로 잣나무를 지정하였

으며, 2011년 가평 잣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잣알과 잣송이 형태를 활용하여 가평군 심벌과 캐릭터를 제작하여 지역 특산물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전통토산물이 지역을 살린다(농업진흥청, 2020), 한방 식료해전(심상용, 창조사, 1976).

필자 변현단(卞現丹)

장군

정의 사람이나 가축의 똥과 오줌을 담아서 옮길 때 쓰는 나무 또는 흙으로 만든 그릇.

내용 장군은 똥이나 오줌뿐만 아니라 물·술·간장 등의 액체를 담아서 옮길 때 사용되는 그릇을 통칭한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장군과 구분하여 똥을 담는 장군은 '똥장군', 오줌을 담는 장군은 '오줌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상남도 창녕에서는 '오줌 추마리', 전라남도 보성에서는 '소매장군'이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분뇨를 담는 장군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액체를 담는 장군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다.



장군 | 입지름14 길이57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장군 | 지름31 길이65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마산 현동縣洞 유적에서는 사립沙粒이 거의 없는 고운 태토로 만들어져 자연유가 일부 흘러서 산화되어 있는 회청색 경질의 장군이 발견되었다. 이 장군은 가운데가 불룩한 원통을 눕혀 놓고 그 중앙에 작은 입구를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이를 통해서 장군 형태의 도기陶器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군은 액체를 담았을 때 잘 새지 않도록 대체로 입구가 좁으며, 세부적인 형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나무장군은 나무로 된 판자로 몸체를 만들고 액체가 새지 않게 나뭇조각으로 틈새가 없도록 메운 후 대나무나 소나무 뿌리를 쪼갠 끈으로 단단하게 돌려 매어 고정해서 만든다. 이러한 나무장군은 위아래보다 좌우 너비가 길고 몸체 중앙에 입구가 있다.

흙을 불에 구워서 만드는 장군은 오지장군이라고 하는데, 오지는 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유약을 입혀서 불에 구워 만드는 옹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장군은 옹기장甕器匠이 만들었다. 이러한 오지장군의 형태는 나무장군처럼 좌우 너비가 긴 것과 일반적인 된장단지처럼 위아래가 더 긴 것으로 구분된다. 좌우 너비가 긴 오지장군은 좌우를 모두 평평하게 만들거나 한 면만 평평하게 만든다. 위아래가 더 긴 오지장군은 일반적인 단지와 유사한 형태지만 내용물을 편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입구의 전이 나팔꽃처럼 벌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군의 입구는 짚을 단단하게 틀어서 만든 마개로 막는데, 이것이 번거로울 경우 능숙한 농부들은 주변의 검불이나 짚 한 줌을 뿌려서 운반 중에 분뇨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장군은 지게로 져서 운반한 후 농지에 거름을 주는 용도로 쓰였다. 장군에 담아 온 똥은 주로 논밭의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오줌은 덧거름으로 사용되었다. 좌우 너비가 긴 장군은 타원형에 가까워 뉘어서 지게로 지기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입구가 좁아서 장

군에 담긴 분뇨는 운반 중에 잘 새지 않았다.

나무장군의 수명은 4~5년 정도이고, 오지장군은 주의해서 쓰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무겁고 떨어뜨리면 파손되기 쉽다. 기존의 나무장군이나 오지장군을 대체하여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군이 생산되기도 하였는데, 장군의 옛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만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농경기술의 현대화와 더불어 장군은 농사를 지을 때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농촌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농기구가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장군은 입구가 좁으며 타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지게로 져서 분뇨를 운반하기에 편하다. 이러한 장군은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줘도 한 삼태기의 거름은 주지 않는다.' '똥 한 사발이 밥 한 사발이다.' '쇠똥 세 바가지에 쌀 세 가마.'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똥과 오줌으로 된 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전통 농경사회의 대표적 거름 운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농기구(이순수, 보리, 2009), 마산 현동유적(창원대학 박물관, 1990),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이한승(李澣承)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정의 전라남도 장흥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해온 야생차 관리와 청태전 가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장흥은 연평균기온 13.7℃, 강수량 1,500㎜ 정도로 온난하여 차나무, 동백나무, 노각나무, 후피향나무 등 총 17종의 차나뭇과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전통 발효차 청태전青苔錢의 원료인 야생차는 장흥읍, 관산읍, 유치면, 부산면 등 10개 읍·면의 야산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유치면 보림사 가지산, 관산읍 천관산 등에 집중적으로 야생차가 자생한다. 장흥군 관내에 있는 전체 차밭 93.1*ha* 중 60.7*ha*가 야생차인데, 이는 전국 야생차 440*ha*의 13.8%를 차지한다.



장흥 청태전 | 전남 장흥 | 2012 | 장흥군청

장흥의 차 문화는 선종禪宗의 종찰로 알려져 있는 보림사寶林寺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보림사는 759년 원표대덕元表大德이 세운 암자에 821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道義선사가 구산선문의 시작인 가지산문을 개산하였으며, 860년 경 보조선사 체징體澄이 보림사라는 이름의 큰 사찰로 재창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차 문화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 청태전은 760년경 당나라의 육우陸羽가 쓴『다경茶經』의 돈차 제다법과 같고 차를 달여 마시는 방법 역시 이 책에 기록된 엄다법淹茶法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청태전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장흥을 중심으로 전승된 돈차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차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차 산지에 다소茶所가 설치되었다.『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고려 조정에 차를 공납한 다소 19개소(전라 16, 경상 3) 중 13개소가 장흥에 있었다. 이는 당대의 차 주산지가 장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860년대 김정호가 편찬한『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차의 주산지가 전라도이며, 그중 장흥차가 으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흥 보림사의 청태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료로는 이유원(1814~1888)의『가오고략嘉梧藁略』과『임하필기林下筆記』, 이기용의『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 등이 있다.

엽차葉茶보다 잎을 빻아 틀에 눌러 만든 덩이차를 즐겨 마셨던 장흥에서는 차의 다양한 이름들이 전한다.

청태전을 비롯해 돈차[錢茶], 단차團茶, 강차綱茶, 곶차串茶, 떡차[餠茶], 고도리차 등이 그것이다. 청태전이라는 명칭은 1920년대 장흥의 특산물인 김에서 유래하였다. 장흥에서는 김을 청태靑苔 또는 녹태綠苔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한 덩이차가 김으로 빚어 만든 엽전과 비슷하다 하여 일본인들이 청태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017년 기준 장흥의 청태전 생산 농가는 30가구이다. 생산 농가가 많지 않지만, 채다 시기에는 마을의 부녀회나 주민이 각 농가에 10명 넘게 소속되어 찻잎을 채취하기 때문에 청태전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다.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은 야생차를 이용한 청태전 제다기술과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장흥 야생차밭은 대부분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토착화된 야생차밭은 비자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의 교목 숲에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한 차밭 관리가 이행되고 있다. 도보 외에는 접근할 수 없고 퇴비를 실어 나를 방법이 없어 산림에서 얻어지는 낙엽이 퇴비가 된다. 야생차밭은 겨울 동안 휴면기를 거치고 3월이 되면 채다를 위한 길을 확보하기 위해 잡목을 제거해 준다. 채다 후에는 이듬해 차나무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차나무를 솎는 정도로 간단한 정지작업을 해주고 자연 상태 그대로 휴면기를 거친다. 가을에는 차밭 접근성과 채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수목을 정리해 준다.

채다 역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채다 시기는 우전·세작·중작·대작에 따라 다르며, 청태전을 만들기 위한 채다는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끝낸다. 채다가 늦어지면 잎이 억세져 잘 뭉쳐지지 않고 쓴맛과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 시기일지라도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채다를 금하고, 찻잎 가장 윗부분에 있는 새순만 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 찻잎만을 따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도 하루 2*kg*을 따기 어렵다. 채다 도구는 대나무 소쿠리를 썼는데 요즘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앞치마를 사용한다.



장흥 야생차밭 | 전남 장흥 | 2018 |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채취한 찻잎은 전통 제다법을 이용해 엽전 모양의 청태전으로 가공된다. 제다 과정은 여덟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찌기는 찻잎의 효소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 고유의 녹색을 지키고 수분을 공급해 준다. 보통 시루에 찌거나 끓는 물에 데치는데, 찌는 정도에 따라 차의 빛깔과 맛과 향이 달라진다. 두 번째, 찧기는 찻잎을 성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절구와 절굿공이가 사용되는데 찐 찻잎을 절구에 넣고 수분이 나와 서로 응집될 정도로 찧는다. 세 번째, 성형은 틀에 차를 넣어 모양을 잡는 작업이다. 전에는 대나무와 사기그릇을 썼는데 지금은 틀을 사용한다. 먼저 틀 안에 천을 깔고 찧어 놓은 차를 새알 모양으로 만든 다음 틀에 눌러 넣어 모양을 잡는다. 크기는 5*cm*부터 10*cm*까지 다양하다. 네 번째, 1차 건조는 성형한 차의 수분을 살짝 없애 표면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으로 햇볕이나 온돌방에서 진행된다. 다섯 번째, 구멍 뚫기는 대꼬챙이나 새끼손가락을 이용한다. 구멍을 뚫는 이유는 새끼줄, 지끈, 꼬치 등으로 꿰어 보관과 운반을 용이하게 하고 공기가 통하게 하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2차 건조는 바삭거릴 정도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1차 건조와 달리 색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대바구니, 소쿠리 등을 사용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7~10일 동안 말린다. 일곱 번째, 건조한 청태전을 끈에 꿰어 처마나 벽, 헛간, 시렁, 방안에 걸어놓는다. 여덟 번째, 바구니나 항아리 같은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이때 바닥에 종이를 깔거나 청태전을 종이로 싸줘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한다.

청태전은 차를 우려내기 전에 굽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긴 곰팡이를 살균하고 먼지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화로와 곱돌을 이용해 청태전이 노릇해질 때까지 뒤집어가며 굽는다. 청태전은 건조와 발효 과정에서 풋내가 생기는데, 화로에 구우면 풋내가 없어지고 구수한 향과 맛이 더해진다. 그런 다음 청태전을 끓는 물에 넣어 우려내는데, 물의 양에 따라 통째로 넣거나 쪼개 넣는다. 이렇게 끓인 차는 숙우에 담아 마시기 좋은 온도로 맞춘다. 끓인 물속에 남아 있는 청태전은 차향이 없어질 때까지 3~5회 정도 재탕한다.

특징 및 의의 장흥 야생차밭은 독특한 경관적 특징을 보여준다. 소나무 등의 교목들과 크고 작은 암석들 사이에 차나무가 듬성듬성 군락을 이루면서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은 생태계 보전과 함께 차밭, 산림, 식생이 공존하는 자연적 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농업 경관은 산림 주변에 촌락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의 생업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생태적·사회경제적·문화적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은 한반도 남부의 지리적·기후적 조건에 순응해 온 농업유산으로 야생차밭 관리·채다·제다·음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누대에 걸쳐 제다법을 전승한 청태전에는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이 스며 있다.

참고문헌 茶經, 世宗實錄地理志, 大東地志, 嘉梧藁略, 林下筆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기용, 1924), 다시 보는 차 문화(정병만, 푸른길, 2012),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장흥군, 2018).

필자 정명철(鄭明哲)

재거름

정의 볏짚이나 초목을 태운 것으로 카리(칼륨)성분이 많아 거름으로 이용하거나, 똥오줌같은 물질을 섞어 만드는 거름.



아궁이와 재 | 강원 삼척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일찍이 『사기史記』「화식열전貨殖列傳」에 있는 '화경수누火耕水耨'법에 대해, 17세기 『농가집성農家集成』에서는 마른 풀을 깔고 불을 지른 다음 물을 대어 파종하면 잡초가 모두 제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초기 농경방식과 같이 불을 질러 잡초제거와 시비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산간지역의 원시농법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화전火田농법 역시 초목을 불태워 밭을 개간하여 그 거름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농법으로, 여기서도 재는 중요한 비료로 사용되었다. 대개 초목의 재는 비료의 주요성분인 칼륨성분이 많아 그 자체로서도 비료가 되지만 습기를 흡수하여 건조한 고전高田보다 토성이 습한 곳이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를 분뇨와 섞어 똥재[糞灰]나 오줌재[尿灰]를 만들어 한전과 수전의 거름으로 사용한 용례가 조선시대의 농서에 자주 등장한다. 15세기 『농사직설農事直說』의 오줌재[尿灰] 만드는 방식을 보면, 외양간의 오줌을 받아 볏짚 등을 태운 재와 섞어 만들었다. 재의 생산은 한국인의 온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때어 취사하고 그 열기가 구들을 통과하여 난방을 해결하는 구조로, 매일 일정 정도 화목 재를 생산한다. 재를 농업의 비료로 재활용한 것은 한국인의 혜안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조선 초기 『농사직설』에서 똥재와 오줌재와 같이 재를 이용한 비료가 늘 등장한다. 그리고 17세기 『농가월령農家月令』의 「잡령雜令」에 의하면 농가에서 가

장 필수적인 것이 측간의 분뇨를 잘 다스리는 것인데, 항아리 속에 분뇨가 가득차면 재와 섞어서 작물의 비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온돌식 부엌에서는 아침에 불을 때고 저녁에 재를 거두고, 저녁에 불을 땔 때는 아침에 재를 거두어 비가 들지 않는 곳에 쌓아두었다. 재를 많이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장작보다 마른 풀을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위빈명농기渭濱明農記』에서도 잿간을 만들어 재를 쌓아두고 날마다 오줌을 뿌려 비료[尿灰]를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측간 안에 항아리를 설치하여 대소변을 수거하고 오줌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천일록千一錄』에서는 진일보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은 다음에 불을 태우도록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재 위에 불을 때면 원래 재가 바로 사라져버린다고 하여 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책의 「농가총람農家摠覽」에서는 「취분회聚糞灰」라는 조항을 만들어 재거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사람의 밥은 남에게 줄 수 있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줄 수 없다.'라는 농가의 속담을 첫머리에 삽입하고 있다.

재는 뒤집어 줄수록 좋은데, 만약 오줌이 없으면 쌀뜨물이나 부엌의 구정물과 섞어서 뒤집어 햇볕에 말려도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한다. 오줌재[尿灰]는 미리 볕에 말려두었다가 밭의 밑거름(또는 목화木花의 경우 분종糞種)으로 사용하며, 모판의 경우 만든 다음에 물을 빼고 오줌재를 고르게 펴서 잠시 햇볕에 쬐였다가 다시 물을 대고 볍씨를 뿌린다고 한다. 19세기 『죽교편람竹僑便覽』(1849)에서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764)와 같이 외양간의 오줌을 모아 오줌재를 만드는 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초목을 태워 만든 재는 모두 화분火糞의 일종으로 찬 기운이 많은 곳의 맥작물과 채소를 가꾸기에 좋다고 하였다. 『해동농서海東農書』에서도 화분火糞은 저지대의 흙을 푸석하고 따뜻하게 해줘 발아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재거름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아궁이에만 의지하기에는 재의 양이 부족해졌다. 그래서인지 『천일록』에서는 3~4일에 한 번씩 뜰에 뒹구는 각종 잡동사니를 쓸어 모아 불에 태워 재를 만들기를 요구하고, 이러한 것이 『중농설重農說』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를 생산하는 가마'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재거름 가마는 뜰아래 크지 않게 설치하는데, 이때 가마의 구조는 머리 부분은 기울어지되 그 끝부분이 열려 있는 오지그릇 가마 형태여야 불이 잘 타오른다고 한다. 태울만한 물건은 날마다 그 안에서 태우는데, 짐승의 뼈나 굴껍질 등도 태워 재를 만든다. 재거름을 거두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할 정도로 재거름 생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실리농방신편實利農方新編』에서는 나무재[木灰]는 구들재와 구분하여 비료성분인 포타슘인산을 함유하고 있고, 석회성분을 함유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재거름이 조선 사회의 특징이 된 요인은 주택구조가 온돌로 되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많은 양의 재가 수거되고 이를 측간 곁의 헛간에서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뇨와 결합하여 비료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에는 똥재와 오줌재가 한전작물의 밑거름으로 사용되었고 외양간 거름과 생초분生草糞은 수전에 사용되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비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더구나 18세기 이후에는 이들 비료가 덧거름으로도 사용되기에 이른다. 연료의 잔재인 재를 폐기하지 않고 농업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의 생태관념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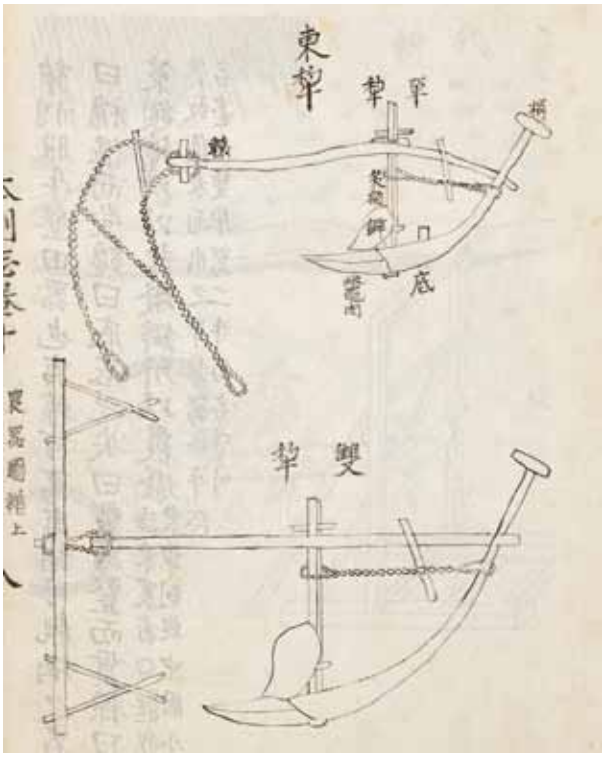
참고문헌 農家月令, 農事直說, 林園經濟志, 千一錄,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생태학(최덕경, 세창출판사, 2016), 진부농서역주(최덕경, 세창출판사, 2016).

필자 최덕경(崔德卿)

쟁기

정의 논밭을 갈거나 골을 타는 연장.

내용 쟁기에 관련된 이름은 잠개류·장기류·쟁기류·연장류를 비롯하여 보·보습·쇼보 및 소뷔·보장기·가대기·후치·극젱이·인걸이·잡은것 등 무려 67개에 이른다. 지역에 따라 형태나 기능이 다른 것을 쓴 까닭이다.



쟁기 | 임원경제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들 가운데 논밭을 가는 보 14개, 극젱이 12개, 훌쳉이 10개, 쟁기 8개, 가대기 5개 등 49개이고, 나머지 22개는 김을 매거나 골을 타는 후치류이다. 이 같은 이름뿐 아니라 쟁기에 연관된 부분 명칭이 14개에 이르고, 서너 개를 뺀 나머지가 군郡 정도의 경계를 벗어나기만 하여도 다른 말로 바뀌는 점도 기억할 일이다.

쟁기의 본디 말인 '장글'은 고려시대 노래인 〈청산별곡靑山別曲〉에 나오며, 조선 초기에는 병잠기라고 하여 무기의 뜻으로 썼다. 이는 전쟁 때 낫·삽·괭이·쇠스랑·호미 따위가 무기로 바뀐 데서 왔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국경의 백성은 무사할 때 힘써 농사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쟁기를 놓고 창을 멘다."라는 기사는 이를 가리킨다(1436년 윤6월 19일). 쟁기가 농기구로 등장한 것은 윤선도尹善道(1587~1672)의 〈산중신곡山中新曲〉이 처음이며, 이를 기구를 가리키는 말로도 썼다. 이를테면 서해의 어부들이 그물을 넣을 때 '쟁기를 넣는다'라고 이르고, 강원도의 석수石手는 돌을 다루는 영장을 '쟁기'라고 불렀으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여덟 덩어리로 나눈 한 덩이나 각을 뜨고 뼈를 바르지 않은 고깃덩이를 '쟁기고기'라고 한다. 또 이를 세는 단위로 삼아 '한 쟁기' 또는 '두 쟁기' 따위로 부르며, 그 값을 '쟁깃금'이라고 이른다.

잠기와 장기를 거쳐서 '쟁기'로 굳은 것은 19세기 후반이며, 정확하게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5년에 나온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1(경기·충청·강원)이다. 제주도의 '잠대'는 잠기나 잠개의 자취이다. 또 평안도·황해도·강원도 북부지역에서 후치류를 연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쟁기에는 가장 중요한 술과 성에와의 각도가 45도 쯤 되는 굽쟁기, 둘의 사이가 직각에 가까운 선쟁기, 술끝이 안쪽으로 굽어서 성에와 평행을 이루는 눕쟁기의 세 유형이 있다. 이들 가운데 굽쟁기는 주로 논갈이에, 선쟁기는 밭매기에 썼으며 눕쟁기로는 논의 잡초를 제거하였고 더러 소금밭에서 소금을 뒤집기도 하였다. 골을 타는 기능으로 보면 북한의 후치나 우리에 극젱이에 해당한다.

가장 오랜 쟁기인 후치는 기원전 8~7세기의 고조선 유적이라는 평안북도 염주군鹽州郡 주의리做儀里의 진흙층에서 나왔다. 참나무로 깎은 눕쟁기로 길이 140㎝이다. 앞이 뾰족하며 날에 해당하는 바닥의 왼쪽이 얇고 오른쪽이 두터운 것은 흙밥을 오늘날처럼 왼쪽으로 넘긴 것을 알려준다. 이는 중국 중북부 및 동북지방에서 지금도 쓰는 목리木犁를 연상시키며, 우리도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일부 평야지역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이용하였다. 한편 이와 똑같은 것이 일본의 8세기 유적인 시가현滋賀県에서 나온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로, 고노미 지아키河野通明는 "조선반도 북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쟁기의 중요 부분인 보습은 돌보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신석기 중기 이전의 함경북도 서포항, 황해도 지탑리, 서울 암사동 등지의 유적에서 선보였다. 이들 가운데 지탑리의 것은 57개였는데 이 중 완전한 것은 22개이며, 큰 것은 길이 50~65㎝에 너비 15~25㎝이다. 긴 타원형으로 한쪽 끝은 좁지만, 반대쪽은 너르며 좁은 쪽에 긁힌 자취를 지닌 것이 많다.

쇠 보습이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고구려에서는 4세기에, 신라와 가야는 이보다 늦은 6세기에 널리 썼으며, 형태는 오늘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8세기 무렵에 보습 위에 볏을 붙이게 되면서, 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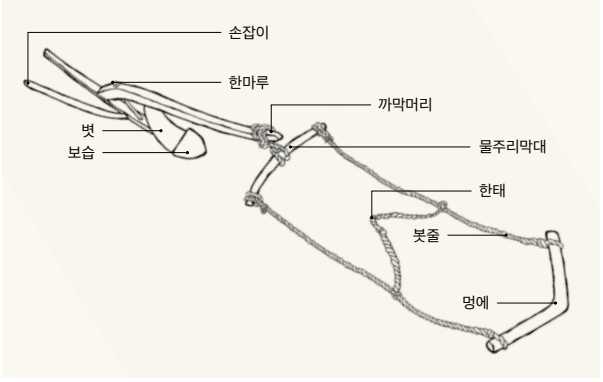
기는 다른 두 유형을 젖히고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쟁기 사용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보습, 얼음곳간,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지만, 이는 국가에서 보습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뜻일 터이다(기이 노례왕弩禮王).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지증왕智證王 3년(502)에 소를 처음 부려서 논밭을 갈았다."라고 적혔지만, 이 또한 소로 논밭 갈기를 부추겼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신라본기新羅本紀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특징 및 의의 쟁기를 들어 옮기려고 성에 손잡이 아래에 박은 짧은 막대기를 '잡좆', 이와 똑같이 생긴 겨리쟁기 멍에 가운데의 봇줄 걸이를 '홀아비좆'이라고 부른다. 보연장 따위의 손잡이를 이르는 북한의 '탑조지'도 '잡좆'의 사투리이다. 이는 대지의 여신과의 음양조화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습으로 땅을 가는 것은 대지를 열고 정액을 뿌리는 행위이다. 이 밖에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인 '농경문청동기'에 보이는 따비질하는 남자의 벌거벗은 모습에도 같은 뜻이 들어 있다.



호리쟁기 | 길이190 높이114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쟁기 세부 명칭 | 국립민속박물관

『미암집眉巖集』의 "함경도에서 해마다 입춘 아침에, 벌거벗은 청년들이 나무로 엮은 소를 몰아 밭 갈고 씨 뿌리며 농사짓는 시늉을 한다."라는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인 '농경문청동기'에도 자지를 드러낸 채 코끼리이빨형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들이 벌거벗은 것은 남근(양기)를 드러냄으로써 겨우내 잠들었던 땅(음기)의 혼을 깨워 일으키려는 주술이다.

신헌조申獻朝(1752~1807)가 남긴 "잔솔밭 언덕 아래 굴죽 같은 고래 논을 / 밤마다 장기 메워 물부침의 씨 지운다."라는 구절의 '잔솔밭'은 여음女陰의 털이고, '언덕'은 그것이 자란 부위이며, '굴죽'은 쌀과 굴로 쑨 죽으로 기름진 고래 논(여음)으로, 이곳을 밤마다 쟁기질해서 씨(정액)를 뿌리겠다는 말이다.

또 성에 한끝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를 술, 쟁기질 때 볏으로 떠엎는 흙을 '밥' 또는 '흙밥'이라고 한다. 쟁기로 생산한 곡식으로 밥을 짓고 이를 숟가락으로 떠먹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잘 산다'는 뜻을 '밥술이나 뜬다'고 둘러대고, 사람이 죽으면 '밥술을 놓았다'고 일렀다.

쟁기로 땅의 넓이를 나타낸다. 논의 크기를 하루갈이·이틀갈이·사흘갈이 따위로 이르는 것이 그것이다. 하루갈이는 황소가 하루에 가는 넓이이다. 부대기火田에서는 스무닷새 동안 가는 땅을 한 결結이라고 부른다.

쟁기로 비의 양을 가늠하였다. 아주 적게 내린 비를 '보습과 호미를 적시는 비' 또는 '보습이나 호미가 들어갈 만한 비'라고 일렀고(『정조실록』 18년 7월 26일, 24년 5월 7일), 이와 달리 몹시 가물면 '쟁기를 댈 만한 데가 없다'라고 하였다.

쟁기의 뿌리가 중국에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이를 발전시켜서 쟁기 왕국을 이루었다. 우리처럼 환경에 알맞게 여러 가지를 쓴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가 "조선의 농업문화는 쟁기문화이며, 이것이 없으면 한국의 농업은 없다."라고 한 그대로이다.

우리 쟁기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언급하였지만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와 고노 미치아키河野通明 두 사람의 글만 소개한다. 앞사람은 "5세기쯤의 쇠 따비날과 굽은 날(말굽따비 날), 쇠 낫 등의 중

쟁기질



굽쟁기 | 길이218 높이80 | 20세기 후반 | 국립민속박물관



세발이랑쟁기 | 길이218 높이131 | 20세기 후반 | 국립민속박물관

요 농기구가 모두 화베이華北—조선—일본이라는 경로를 거친 점으로 미루어, 쟁기도 같은 길을 따라 들어왔을 터이다. 일본에서 8세기에 선쟁기와 눕쟁기를 썼고, 이 두 가지는 남조선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였다. 뒤의 사람은 "아시아에서 조선반도는 선쟁기가 뚜렷한 곳이다. 이것이 분포하는 기타큐슈北九州는 조선반도에 가까운 만큼 조선반도에서 들어온 것이 거의 틀림없다."라면서, "쟁기는 가라스키唐犁라는 이름을 보아도 일본 발명품이 아니다. 조선반도는 선쟁기, 중국은 눕쟁기라고 하듯이 형태가 서로 전혀 다르므로 (일본의) 재래쟁기는 어느 한쪽 또는 양자의 혼혈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그 시기를 6세기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농기구(김광언, 한국한국민족학연구2,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4), 평안북도 주의리에서 발굴된 나무 후치에 대하여(리기동 외, 조선고고연구, 1994), 東アジアニおける犁耕の展開についての試論(河野通明, 商經論總32-1, 神奈川大學經濟學會, 1996), 民具から見た日本への犁耕傳來時期と傳來事(河野通明, 歷史と民族26, 平凡社, 2009), 朝鮮農具考(高橋 昇, 朝鮮半島の犁, 日本評論社, 2003), 和歌山北部の在來犁-X脚有床犁とチェンギの痕迹-(河野通明, 近畿民具31·32, 近畿民具學會, 2009).

필자 김광언(金光彦)

정의 쟁기로 논밭을 가는 일.

내용 논밭 갈이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강원도에서는 '보냄'이라고 하여, 새해 들어 처음 가는 날을 따로 받는다.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는 밭 갈기 열흘에서 한 달 전쯤의 돼지날[亥日]에 쟁기 메운 소를 밭에 세우되, 머리가 동·서·남·북 가운데 빈 방위인 공방 쪽으로 가도록 한다. '돼지날'에는 돼지가 땅을 뒤집어엎듯이 잘 갈리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는 손이 없는 아흐레나 열흘날에 먼저 서너 고랑을 갈고 나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풍년을 바란다. 또 쟁기질 뒤에 밭 가운데에 둥근 골을 치고 나서 다시 열십자 꼴을 지으며, 이로써 사람과 소가 다치지 않고 쟁기 보습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옛적의 보습은 무쇠였고, 그마저 마을 대장간에서 구웠던 까닭에 작은 돌멩이만 만나도 뚝뚝 부러져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던 까닭이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송침한다'라며, 밭을 가는 날 아침 일찍 산에서 꺾은 소나무 가지들을 대문 양쪽에 끼워서 소나 쟁기에 끼치는 부정을 막는다. 또 많은 곳에서 새해 첫 소날[上丑日] 쟁기질을 하면 보습이 부러져서 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꺼리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소 방아리 붙이기'라고 하여, 이날 논을 갈아야 풍년이 든다고 여긴다.

쟁기질은 곳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는 것을 '잦혀간다',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모아간다'라고 이른다. 따라서 '모아갈이' 때는 쟁기로 몇 번 돌 것인지 어림잡아서 머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모아갈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벌갈이에만 이용하며, 두 번갈이 때는 흔히 잦혀갈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 흙이 고루 퍼져서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아지는 일이 없다.

경기 포천 평야지대에서는 네 번 오가며 가는 '판대기 짓기' 방법을 쓴다. 처음에 흙밥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조금 떨어져서 같은 방법으로



쟁기질 | 전남 완도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쟁기질 | 충남 부여 | 1990년대 | 황헌만

흙을 모아서 찢는다. 세 번째는 모아 놓은 흙에 보습을 대고 찢어 나갔다가, 돌아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갈면 생땅이 남지 않는다. '삭갈이'라는 이름은 이에서 왔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북식갈이'라고 하여, 논이나 밭의 가장자리 한쪽에서 시작해서 베틀의 북처럼 모조리 갈아엎기도 한다.

한편 콩·팥·옥수수 따위의 밭을 갈 때는 쟁기를 이랑에 대고 한 번 갔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가는 '겹갈이' 방법을 쓴다. 이와 달리 오며 가며 한 번씩 가는 것은 '홑갈이'이다(북한에서는 '화종짼다'라고 부른다).

물매가 된 보리밭은 '내리 갈이'라고 하여, 위에서 아래로 갈아서 내려온다. 한 번 갈아나간 다음, 돌아오며 흙밥을 올려붙여서 높이 60㎝쯤의 이랑을 지으므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서 가는 '치갈이'는 흙이 풀에 덜 덮이는 단점이 따른다.

쟁기질은 사람과 소 그리고 쟁기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쟁기는 농부 솜씨에 달렸으므로 실제로는 사람과 소의 화합 여부에 따라 능률이 좌우된다. 우리 옛 분네들은 소를 가족처럼 여긴 나머지 하인이나 종처럼 생구生口라고 불렀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인간과 똑같이 금줄을 두르고 부정을 쫓았고, 강원도에서 봄·가을 산메기제사를 올릴 때도 소를 위한 고사를 따로 지냈다. 외양간에 소를 지키는 신을 따로 모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소도 자신을 아껴 주는 지극정성을 알아서 농부의 '소먹이 소리'를 들으면 눈물까지도 흘렸다.

따라서 『과농소초課農小抄』의 "산골에서 소를 모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어린아이 타이르는 듯하는 것이 천상天上의 소리 같았다. 안개가 걷혀서 쳐다보니 양쪽 산의 물매가 싸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음에도, 구름 속에서 농부가 겨리소를 몰았다(전제田制)."라는 내용은 과장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식에게 이르듯이 '올라서라.' '내려서라.' '덤벙대지 마라.'라고 타이르고, 험한 곳에 이르면 '멍돌밭은 넘겨 딛고 숨은 돌밭은 밀어 밟으라.' 거나 '저 앞에 방동이 많으니 발 조심하라.'라고 일렀다. 이 밖에 '이놈의 소새끼가 죽고 싶나.' 또는 '어 이놈의 소,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도 하고, '남의 집 고용살이 삼십 년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난 쥔 못 만난 탓일세.' 하는 신세타령도 늘어놓았다. 겨리쟁기로 논밭 가는 농부를 '보(쟁기)애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애비'와 다름이 없었던 셈이다.

머슴을 새로 들일 때는 먼저 겨리질을 시켜 보고 솜씨에 따라 상머슴과 아이머슴을 가려서 새경을 주었으며, 딸을 가진 집에서는 쟁기질을 잘해야 사위로 맞았다. 농가에서 쟁기질을 성인식의 하나로 여긴 것이다. 제주도 전설에도 종으로 팔린 원강어미의 남편이 염라대왕의 명으로 서천꽃밭으로 간 사이, 주인인 제인장자가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아내가 되라.'라고 하자 '배 속의 아기가 태어나서 열다섯 살이 되어 쟁기로 땅을 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선비는 쟁기질을 장쾌하게 여겼다.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기

사를 보면 "새벽에 봄비를 맞으며 밭 가는 상머슴上農夫은 왼손에 쟁기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에 쥔 볏줄로 검은 소의 등을 치면서 고함친다. 그 소리는 산이 찢어지는 듯, 소용돌이치는 물결처럼 쩌렁쩌렁 울린다. 소는 발굽을 날리며 부드러운 구름 뭉치 같은 흙덩이를 나란히 겹쳐 놓은 물고기 비늘처럼 손쉽게 갈아엎는다. 이 또한 세상의 장쾌한 일의 하나이다(선귤당농소蟬橘堂濃笑)."라고 하였는데, '고삐를 흔들며 소를 모는 머슴과 구름 뭉치 같은 흙덩이를 고기 비늘처럼 갈아엎는 소'는 한 폭의 그림이다.

쟁기질은 파괴를 나타낸다. 『기언記言』에 "황희黃喜(1363~1452) 정승이 세운 반구정伴鷗亭은 그가 죽은 300여 년 뒤 허물어져서, 소가 쟁기질을 한 것이 100년이 다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다(동우棟宇 반구정기伴鷗亭記). 이 글의 '소 쟁기질'은 자취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선비는 쟁기질을 부끄럽게 여겼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벼슬 없는 선비들이 쟁기를 잡지 않은 탓에 살길이 없자 땅을 남에게 내준 뒤, 추수 때 말[斗]로 헤아려서 받는다."라는 기사가 있고(인사문人事門 간색看穡), 심지어 농사를 짓겠다며 서울 교외 수락산水落山 기슭으로 들어간 박세당朴世堂(1629~1703)도 임천군수의 묘지명에 "집안이 가난하여 벼슬 살았으니 스스로 쟁기 잡지 않은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적었다(『서계집西溪集』 지명誌銘).

쟁기는 침략을 상징한다. 『광해군일기』에 구원을 요청하는 명의 황제에게 임금이 "우리[藩國]로서야 그 누가 소매를 떨치고 칼을 휘두르며, 곧장 말을 몰아 들어가 월지月氏의 목을 자르고, 노상老上의 궁궐을 쟁기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기사가 있다(1618년 5월 2일). '노상의 … 궁궐 쟁기질'은 청나라의 궁궐을 갈아엎어 논밭으로 만들어서 멸망시킨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지역 소 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김진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겨리농경의 기술적 의의와 노동조직의 양상(이준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쟁기연구(김광언, 민속원, 2010), 제주도 전설(현용준, 서문당, 1996),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필자 김광언(金光彦)

저온저장고
低溫貯藏庫

정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농산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저장하는 시설.

개관 오래 전부터 수확한 곡물은 건조하여 독이나 뒤주 등에 저장하고 감자, 고구마 등은 통가리에 저장하였으며, 생강, 배추 등의 채소나 과일은 땅속에 움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인위적으로 내부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과일 등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는 1990년대 말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저장고 내의 기체 상태를 조절해주는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고도 사용되고 있다.

내용 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자체 호흡과 증산작용을 억제시켜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내의 온도를 농산물의 동결점 근처까지 낮추어주고 상대습도를 85% 이상으로 유지하는 농업시설이다. 저온저장고는 냉각방식에 따라 직접냉각식과 간접냉각식이 있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에 따라 자연대류식, 벽체식, 유닛쿨러식으로 구분되며, 저장고의 형태에 따라 패널조립형, 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및 컨테이너형으로 나뉜다.

직접냉각식은 냉동시스템의 증발부를 저온저장고 내에 두어 저장고의 열을 직접 흡수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비가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증발기에 서리가 자주 끼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저온저장고 | 인천 강화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단점이 있다. 간접냉각식은 열을 운반하는 냉매가 냉동시스템의 증발부와 저장실 내를 순환하며 저장고내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정밀제어가 가능하며 상대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자연대류식은 냉각관을 천장 쪽에 설치하여 냉각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해 저장고 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고, 벽체식은 냉각관을 벽면에 설치하고 송풍기를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며, 유닛쿨러식은 송풍기와 증발기가 하나로 조합된 유닛쿨러를 천장쪽에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저온저장고는 단열 및 기밀상태가 좋아야 하므로 조립식 벽체는 스티로폼이나 폴리우레탄 패널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벽돌 내부에 스티로폼을 넣거나 우레탄을 발포한다. 특히 저온저장고의 바닥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수분을 차단하도록 단열 시공하는데, 보통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수처리를 하고 그 위에 단열재를 넣고 다시 콘크리트로 포장한다.

저온저장고는 저장 기간 동안 농산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압축기와 응축기에 의해 액체 상태로 된 냉매가 증발기를 거치면서 기화되어 저장고 내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하는 증기압축식 냉동기가 사용된다. 저온저장고 내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냉동기의 작동이 중지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냉동기를 작동시켜 저장실의 온도를 설정온도 ±0.5℃ 이내로 자동 제어한다.

저온저장고의 습도가 농산물의 습도보다 낮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무게가 줄어들고 외관이 변형되며 수분이 5~10% 빠져나가면 상품성이 상실되므로, 농산물저장고의 습도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85% 이상의 고습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온저장고에 건습구 온도계나 습도센서를 달아 상대습도를 확인해야 하며 습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증발기, 서리제거히터, 송풍기로 이루어진 고습도 유닛쿨러를 사용하거나 저장고 바닥에 물을 뿌려 주는 것이 좋다. 가습기는 증발기 표면에 성에가 많이 끼고 동결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발기에 성에가 끼게 되면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루 20~30분씩 6~9회에 걸쳐 성에를 제거해 주어야 하며 간접식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성에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성에는 물을 뿌려주거나 핫가스 또는 히터를 가동시켜 제거하며 타이머를 이용하여 성에제거장치의 가동 시간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 제어판에서 온습도를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저온저장고는 고온 또는 동해 등으로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전, 냉동기 작동 이상, 온도이상시 경고음이 발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저온저장고 내부 환경을 감시할 수도 있고 이상 시 경고음을 울려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호흡과 증산작용을 억제시켜 수확 후의 품질을 유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온도·습도뿐만 아니라 저장고 내의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농도를 조절하여 고품질의 유지하며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CA저장고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산물 수확후 처리기계(농촌진흥청, 2007), 농업공학시험연구보고서-저온저장고 성능향상을 위한 기계기술 개발(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2004), 농업공학시험연구보고서-농산물 저온유통기계 기술 연구(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2005), 한국 농기구 도감(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필자 윤진하(尹眞河)

저장
貯藏

정의 거두어들인 곡식이나 채소를 식량이나 종자로 삼기 위하여 잘 챙겨 간수하는 일.

내용 수확한 곡식이나 채소를 식량과 종자로 쓰기 위하여 잘 챙겨 간수하는 일을 저장貯藏이라 하며, 달리 갈무리라 부르기도 한다. 곡식이나 채소는 수확 시기

와 작물의 종류, 수확량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며, 이때 사용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또한 같은 작물이라도 식량 또는 씨앗 등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한다.

나락은 가을에 수확하여 볕에 잘 말린 후 섬이나 가마니, 독, 통가리, 멱서리, 뒤웅박 등 다양한 갈무리 도구에 담아 보관하며, 농사가 많은 경우 나락뒤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락뒤주는 나락을 비롯한 곡식을 자루나 그릇에 담지 않고 그대로 갈무리하기 위한 저장고의 일종이다. 나무나 대나무를 이용해서 벽체와 지붕을 만들고 벼를 수월하게 빼내기 위하여 여러 쪽의 판자로 만든 쪽문을 설치한다. 보통 나락뒤주라고 불리지만 반드시 나락만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보리나 여러 잡곡을 갈무리하였다.

집처럼 나무로 기둥과 벽체를 만든 뒤주는 너비 2*m* ×2*m*, 높이 2*m*가량의 네모진 방으로,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하여 땅에서 20~30*cm* 정도 띄워 마룻바닥을 만들었다.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이엉이나 기와를 올렸다. 벽의 한 면은 빼고 끼울 수 있는 여러 쪽의 판자로 막아 곡식을 빼내기 수월하게 하였다.

나락뒤주는 대쪽을 엮어 독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때 대쪽의 틈새에 진흙을 발라 곡식이 새어 나오지 않고 쥐나 새가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붕은 이엉을 엮어 올렸으며, 뒤주의 어느 한쪽 면에 곡식을 빼낼 수 있도록 판자 여러 쪽을 끼워 만든 쪽문을 설치하였다. 나락뒤주의 크기와 형태는 농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으며, 작은 것은 벼 열 섬에서 큰 것은 수십 섬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또한 마당 한쪽에 두툼하게 짚을 깔아 바닥을 만들고 짚이나 수수 등으로 날개를 엮어 울을 세워 만든 뒤 이엉을 엮어 지붕을 올린 형태도 있었는데, 일종의 임시저장고 기능을 하였다. 살림집의 방 한 칸을 뒤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방문에 판자 여러 쪽을 끼워 완성하였다. 나락뒤주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락을 섬이나 멱서리, 가마니, 독 등에 담아 광이나 윗방 또는 토방에 쌓아 두었다. 이때 습기가 차지 않도록 아래쪽에 고임목을 받쳤다. 이따금 습기를 날리기 위하여 문을 열어 환기를 하였으며, 쥐나 닭 등의 짐승들이 낟알을 축내지 않도록 거적을 덮거나 발을 둘러쳤다.

감자와 고구마는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움[窖]을 사용하였다. 수확한 감자나 고구마를 실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싹이 나거나 썩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냉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늘에 펴 말린 후 움에 넣어 장기간 저장하였다. 움은 저장할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대개 1~2*m* 정도의 깊이와 지름으로 조성된다. 둥글게 땅을 파고 그 안에 왕겨나 짚을 충분하게 깔아 준 다음 곡식이나 채소를 저장하며, 이때 채소류는 싹이 트지 않도록 거꾸로 세워 저장한다. 그 위에는 다시 왕겨나 짚을 깔고 흙을 덮는다.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구덩이 위에 지붕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주는데, 작은 것은 단순하게 짚으로 지붕의 형태만 만들며, 큰 것은 나무막대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짚을 엮어 지붕을 올린다. 커다란 움에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지붕에 바람이 통하는 구멍을 내기도 하였다. 수확한 곡식의 양이 적거나 겨우내 식량으로 삼을 경우에는 방 한 칸 모두 또는 일부에 통가리를 만들어 갈무리하기도 하였다.

조와 수수는 대체로 겨울에 다 찧어서 쌀로 보관하며 식량으로 삼았다. 쌀독이나 항아리, 단지 등에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멱서리에 넣어 광이나 윗방 구석에 쌓아 두기도 하였다. 옥수수나 콩, 팥 등의 곡식



입창 | 패문경직도 중 부분 | 초병정 | 1696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나락뒤주 | 2019 | 류하완


나락뒤주 | 2019 | 류하완


고춧가리 | 1990년대 | 황헌만


콩가리 | 1990년대 | 황헌만

도 독이나 항아리, 단지 등에 넣어 보관하였으며, 멱서리나 뒤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옥수수나 콩을 보관하는 뒤주는 벽체를 나뭇가지로 엮은 것과 볏짚이엉을 둘러 친 것을 이용하였다.

한편 식량으로 쓸 것과 달리 이듬해 농사에 쓸 씨앗을 저장하는 일을 두고 '씨갈무리'라고 한다. 곡식이나 채소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다음 농사에 씨앗으로 쓸 것은 미리 따로 빼놓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거두는 과정에서 잘 여문 것을 따로 챙겨 둔다. 나락의 경우 개상이나 탯돌을 이용하여 타작할 때 가장 앞에 떨어진 것을 씨종자로 쓰는데, 가장 잘 여문 것이 앞에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씨종자로 잘 말려서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 방 한구석에 저장하며, 만약 그 방에서 사람이 죽으면 부정하다 하여 이듬해 씨앗으로 쓰지 않았다.

재배량이 적은 곡식의 씨앗은 뒤웅박이나 씨오쟁이에 넣어 보관하며, 조·수수·기장·옥수수 등은 이삭을 베어 내 한 줌씩 묶어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걸어 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사용하였다. 씨로 쓸 고구마는 상강霜降 전에 캐서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 그늘에서 며칠 동안 잘 말린 다음 여물과 섞어 망태에 담거나 흙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방 한구석에 보관하였다. 씨감자는 움에 저장한 것을 쓰거나 얼지 않게 곳간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 이듬해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다양한 작물만큼이나 여러 갈무리 도구와 방법이 전승되었다. 흩어지기 쉬운 곡식 등을 갈무리하기 위하여 독이나 섬, 중태, 가마니 등을 사용하였으며, 양이 많은 경우 뒤주나 통가리 등을 활용하였다. 양이 적을 때는 중태나 멱서리, 오쟁이 등을 사용하였다. 과일이나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움을 만들거나 땅속에 독을 묻어 보관하였으며,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잘 말렸다가 처마에 널어 묵나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식량을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듬해 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갈무리 도구와 방법도 발전하였다. 씨오쟁이는 이듬해 씨앗으로 쓸 곡식을 넣어 보관하는 농기구로 천창이나 추녀 밑의 습하지 않은 곳에 매달아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파종 때 내려 사용하였다. 탈곡하지 않은 종자 이삭을 광이나 윗방의 들보나 서까래에 매달아 두기도 하였는데, 이상의 방식으로 추위로 인한 냉해와 습해, 벌레와 짐승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增補山林經濟,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권봉관(權俸觀)

저죽전사실
楮竹田事實

정의 1790년대 삼남지방 대나무·닥나무·옻나무·뽕나

무의 재배 권장과 생산관리 요령, 실태조사 통계 등을 각 도 감사들이 기록한 책.

개관 『저죽전사실楮竹田事實』은 조선 정조 17~20년에 각 도 감사들과 비변사들이 150여 년 전인 효종 대(1649~1659) 김육金堉(1580~1658)의 호남대동규례湖南大同規例 청죽조靑竹條를 비롯한 대나무·닥나무·뽕나무·옻나무 등의 경제수종經濟樹種에 대한 재배와 생산관리 요령을 전제하는 계문啓聞(관찰사·어사·절도사 등이 글로 써서 위로 상주하는 문서)을 밝히고 이들의 헌의獻議, 즉 윗사람을 향한 제출 의견에 따라 각 도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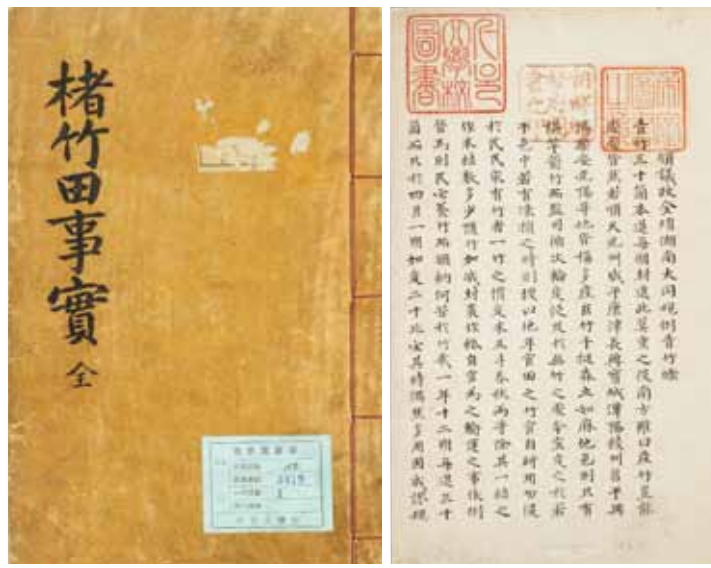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 소장되어 있는 『저죽전사실』은 32.0㎝×20.4㎝ 규격의 99장 1책 필사본으로서 1793~1796년 사이의 기록이다. 이 책에는 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잠사회20년사蠶絲會二十年史』『한국식경대전韓國食經大典』『동아원색대백과사전東亞原色大白科事典』에는 한결같이 편자를 조선시대 효종 대 영의정을 지낸 김육 또는 김육 등等이라 밝히고 있으나, 『저죽전사실』의 내용이 엮어진 연대는 김육 사망(1658) 후 150여 년이 지난 시기여서 역사적으로 합치되지 않는다. 『저죽전사실』의 서두에 기록된 호남대동규례湖南大同規例 청죽조靑竹條를 근거로 편자를 김육이라 주장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김육이 영의정으로 집무할 때 제정된 규례일 뿐이지 결코 본 책을 찬술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편자는 미상이다.

내용 『저죽전사실』은 김육의 호남대동규례 청죽조를 비롯한 각종 경제수종의 재배, 관리, 생산 권장문과 각 도 감사들의 계문 및 조사기록 등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남지역 경제수종의 식재(재배) 권장사항과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1794년 5월 전라도 청대죽금양절목靑大竹禁養節目을 보면 15개 절목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의 중요한 대나무 산지와 대발 관리, 대죽大竹 재배 권장, 소죽小竹을 대죽으로 품종 전환, 진공進貢에 적합한 대竹의 선정, 죽가竹價의 지급, 공용을 빙자한 청대죽靑大竹의 무단벌채 금지, 무단매매 금지, 대죽전大竹田의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또한 1796년 6월 7일 자 충청감사 장계에 따르면 충청도의 청대죽 보호육성에 관한 절목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작성 배경, 12개 절목, 청대죽 재배 권장과 이에 따르는 각종 특혜사항, 관가의 무가늑취無價勒取 금지, 식상양잠植桑養蠶의 장려, 논공행상論功行賞, 관둔전官屯田과 공해여지公廨餘地, 공한처空閑處를 이용한 닥나무와 대나무의 재배생산, 사유저죽전私有楮竹田에 대한 관리의 침해금지령 등이 나열되어 있다.

둘째, 청대죽의 진상에 따르는 각종 폐단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한 암행어사 서유문의 보고서(兩南暗行御史徐有聞別軍靑大竹條, 1794)와 별단저전조別單楮田條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전라도청대죽정채이폐절목全羅道靑大竹情債釐弊節目이 들어 있다.

셋째, 경제수종에 대한 각 도의 실태조사 통계수치가 기록되어 있다. 1796년 1월 충정감사 이정운李鼎運의 계본啓本에 따르면 충청도의 경우 54개 읍(군·현), 죽전竹田 227고庫, 저전楮田 272고, 뽕나무 17만 9,090그루, 옻나무 7만 8,415그루를 신구종별新舊種別로 기록·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 같은 해 1796년 6월 신임감사 임제원林濟遠의 보고에 따르면 49개 읍, 죽전 262고, 저전 1,741고로 기록되고 있어서 저전의 경우는 불과 6개월 만에 1,000여 고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796년 6월의 전라감



저죽전사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이서구李書九가 낸 장계狀啓에 따르면 전라도 54개 읍진邑鎭의 죽전은 22고, 저전은 3,082고, 뽕나무는 84만 7,119그루, 옻나무는 3만 1,488그루로 집계되어 있다.

그 밖에 『저죽전사실』 규장각본에는 수차도해水車圖解라는 도해가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설명에 "聖上特頒激水之法於八方"이라는 『농가집성農家集成』의 발문跋文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효종 때의 것으로 보이는 자료라 하였다. 효종 연간(1650)에 김육이 영의정으로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펼치며 당시의 가뭄에 대처하여 수차水車를 개성과 강화 등지에 배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식경대전』의 저자 이성우는 이 책에 부기된 수차도해가 『수차도설水車圖說』(종로도서관 소장), 『양수기제조법揚水器製造法』(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같지 않아서 아마도 중국 책의 일부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효종 대(1649~1659)나 김육의 생애(1580~1658) 또는 『저죽전사실』에 나타난 기록 대상 기간(1793~1796) 모두 우리나라 삼남지역인 충청·전라·경상 지역의 농사는 물론 경제수종인 대나무·닥나무·뽕나무·옻나무 등의 재배와 생산이 국운을 좌우할 만큼 소중한 시기였다. 이 책은 이런 치정의 내면을 보여 준다. 18세기 말 우리나라 삼남지방에서 경제수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결과로 식재나 입목축적(생산량) 실태를 밝혀 시책을 더욱 강건히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82),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전시과
田柴科

정의 고려 왕조가 국가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관료, 군인, 향리 등에게 토지를 분급한 제도.

내용 고려시대 국가가 관료와 군인 등에게 토지를 분급한 것은 940년(태조 23) 역분전役分田의 지급으로 시작되었다. 후삼국 통일에 공로가 컸던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관계官階나 관직의 고하高下가 아닌 통일과정에서 왕조에 대한 충성도와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하였다. 분급액은 알 수 없지만 이 역분전이 이후 전시과의 선구가 되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전시과가 시행된 것은 976년(경종 원년)의 직職·산관각품전시과散官各品田柴科로, 관품의 고하가 아닌 인품人品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광종 대의 중앙집권화 시책이었다. 광종 대 중앙집권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국공신 계열의 지방호족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958년(광종 9) 과거제도의 실시와 960년(광종 11) 백관의 공복제도를 정하면서 관료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또 중국식 문산계가 수용되어 고려 초 이래의 관계官階와 병용하였다. 그에 더하여 양전을 실시하고 진전陳田 개간을 장려하고 주현 세공액을 정하는 등 관료에 대한 토지분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광종 대의 공복제도를 토대로 그 수급자를 자삼紫衫층은 18품으로, 문반은 단삼丹衫 10품, 비삼緋衫 8품, 녹삼綠衫 10품으로, 무반은 단삼 5품으로, 잡업은 단삼 10품, 비삼 8품, 녹삼 10품으로 나누고 토지와 더불어 시지도 함께 지급하였다. 그 외 잡리雜吏는 인품에 따라 각기 다른 액수를 받았다고 하고, 과등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도 15결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직관과 산관 구분 없이 관계를 가진 자 모두가 대상이었는데, 특히 자삼층은 문산계를 병용하는 중앙 고위관료와 함께 고려 초 이래 관계만을 가지고 관직이 없었던 지방호족 계열도 포함되었는데, 시정전시과는 바로 그들을 회유하고 대우하는 것 역시 중요하였음을 보여 준다. 반면 단삼 이하 층은 관직이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광종 이후 성장한 과거 출신 관인이나 시위군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비·녹삼의 수급액은 문반·무반·잡업에 차이가 없었으며 후대의 전시과에 비해 지급액이 대체로 후한 편이었다.

이렇듯 시정전시과는 인품을 지급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품과 관품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경종 즉위 후 광종 대에 정치적으로 억눌려 왔던 건국공신 계열이 재등장하면서 광종 대 세력 기반을 다진 관료 세력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998년(목종 원년)에는 문·무 양반 및 군인 전시과로 개정되었다. 전시과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성종 대의 중앙정치제제 및 지방제도의 정비와 지방향리직제의 개편, 995년(성종 14) 당의 문산계를 도입하면서 관료 체제가 더욱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는 크게 관인층·이속층·군인층으로 구분하여 시정전시과의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는 제거하고 오로지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18과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17결을 지급하였다. 개정전시과에는 시정전시과에 없는 군인층에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마군馬軍이 17과, 보군步軍이 18과에 포함된 것은 993년(성종 12) 거란의 침입을 겪으면서 군인층의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각 관아의 사무 또는 잡역에 종사하는 이속층吏屬層도 16~17과에 배정하고 있다. 또한 무반은 문반보다 1~2과 정도 강등된 토지를 받았는데, 이는 문반 우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관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정전시과보다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지 지급은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시지의 경작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전시과는 시정전시과보다 실직實職을 위주로 지급하였는데, 산관인 검교직과 동정직 등은 동일 관계의 실직에 비하여 훨씬 인하된 대우를 받았다. 그 후 1034년(덕종 3) 양반 및 군·한인 전시과를 개정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전의 전시과에는 보이지 않던 한인閑人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과의 마지막 전면적 개정은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이다. 이는 문종 대의 전반적인 관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각종 관아의 증치 및 개폐가 일단락되고 각 관직의 품계도 확정되었으며 문종 30년에는 문·무반 등의 녹봉제도 완성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관인층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산직이 누락되어 철저하게 실직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더하여 성종과 현종 대 거란과의 전쟁으로 국방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면서 개정전시과보다 무반의 대우가 대략 2~3단계 상승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하급군인층 또한 마군(15과), 보군(16과), 감문군(17과)이 상향조정되어 우대되었다. 이속층도 15~17과로 상승하고 한외과限外科로 분류되었던 한인과 잡류도 18과에 포함되었다. 또한 향직鄕職을 가진 자가 포함되고 있는데, 경정전시과에 처음 포함된 것이라기보다 이전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을 재조정한 것 같다. 경정전시과에는 한외과가 사라졌는데, 그것은 수급자 전체가 과 내에 편입되었다는 뜻으로 그만큼 제도 자체가 완비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정전시과의 지급액은 개정전시과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며, 시지도 개정전시과에 비해 3분의 2에 불과하였다.

일반전시과 외에 별정전시과로 무산계전시와 별사전시도 있었다. 무산계는 중국과 달리 노병老兵, 향리, 공장工匠, 악인樂人, 탐라의 왕족과 여진의 추장 등에게 수여한 위계였다. 무산계전시는 무산계를 소지한 이들을 6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 35결, 시 8결에서 6등급은 전 17결까지 지급한 급전 규정이었다. 한편 별사전시는 지리업地理業자와 승려들에게 지급한 토지였지만, 모든 승려와 지리업자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승과나 잡과에 합격한 자에게만 6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일종의 별정전시과別定田柴科라 할 수 있는 공음전시功蔭田柴와 관청에 지급한 공해전시公廨田柴가 있다. 공음전시는 1049년(문종 3)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이 제정됨으로써 그 제도가 완비되었다. 공음전시는 5품으로 나누어 토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양반전시는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것에 반해 공음전시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지은 자를 제외하고는 세습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신분 우대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공해전시는 중앙관청과 지방관아 및 장택庄宅과 궁원의 공해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드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이다. 중앙관청에 대한 공해전 기록은 누락되어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관청의 성격에 따라 공해전, 지위전紙位田, 서적위전書籍位田, 유향전油香田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일반 공해전은 관청의 운영경비와 관료들의

오료午料(점심 비용) 및 조예皂隷 등 천역자에 대한 보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며, 지위전은 공공사무용품에 필요한 경비를, 서적위전은 서적의 필사와 간행에 필요한 경비를, 유향전은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토지였다. 지방 공해전은 주·부·군·현 및 향·부곡의 특수행정구역, 관館·역驛 등 교통요지에 설치한 기관에 지급되었다. 공수전公須田은 관아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 공수시지公須柴地는 땔감, 지전紙田은 사무용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장전長田은 각 지방 향리를 위한 일종의 직무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지역 '인정人丁'의 수에 따라 주·부·군·현은 8등급, 향·부곡은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반면 관·역의 공해전은 교통로의 위치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장택과 궁원의 공해전은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상을 알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전시과는 976년(경종 원년) 시정전시과에서 998년(목종 원년) 개정전시과,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쳐 고려왕조의 국가체제 정비와 더불어 제도를 보완하면서 국가운영의 물적 토대로 완성되었다. 국가적 토지분급제를 시행한 당의 제도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당과는 달리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분급하지 않고 국가기구인 관청과 국가통치에 복무한 관료집단 그리고 향리·군인 등에게만 토지를 분급하여 체제운영을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고려전기의 전시과(이경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전시과제도(김재명,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중세농업사연구(김용섭, 지식산업사, 2000).

필자 위은숙(魏恩淑)

전지
剪枝

정의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는 데 사용하는 연장.

내용 감과 같이 높은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과일이 사람 키와 비슷하거나 손이 닿는 곳에 달려 있으면 서서 딸 수 있지만,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달려 있으면 기구를 이용해서 딸 수밖에 없다.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전지를 제작하여 과일을 수확하였기 때문에 전지는 여러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사과와 배는 선 자리에서 한 손으로 열매가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매를 쥐고 비틀어서 땄다. 감이나 복숭아, 살구, 자두, 대추 등은 주로 장대를 이용하여 많이 땄다. 감의 경우에는 숙련자들이 한 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그물이나 자루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비숙련자는 빗겨 가서 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서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대를 내린 후에 과실을 꺼내서 섬이나 상자 등 다른 큰 용기에 담아서 보관한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과실이 처음 익었을 때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따야만 해마다 결실이 잘된다. 과실이 한 나무에서도 일시에 다 익지 못하므로 익는 대로 골라서 따야 한다. 다 익기를 기다려 딴다면 나무의 양분이 쓸데없이 허비되어 다음 해 결실에 좋지 못하다."라고 과실 따기 원칙을 기록하였다.

전지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세 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장대에 작은 종다래끼를 끈으로 달아맨 후 과실을 수확하는 전지이다. 이는 집 안에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과실 수확 연장이다.

두 번째는 한쪽 끝이 Y자형으로 벌어진 나뭇가지를 활용하는 전지이다. 벌어진 쪽에 조그마한 망태기 또는 주머니를 달고, 긴 쪽은 자루로 활용한다(경기 안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잠자리채처럼 굵은 철사로 둥글게 만든 후 그물이나 작은 헝겊 주머니를 철사에 끼워서 장대 끝에 매다는 전지가 있다. 그물 입 테두리는 원형으로 과일이 안으로 떨어지면 충격을 흡수할 정도의 두꺼운 철사로 만든다. 1920년대 초 경기도 수원 지역의 전지는 가지가 벌어진 자루가 작은 자연목에 무명실로 엮은 자루를 달고 난 후 다시 장대와 연결하였다. 당시 전지 무게는 1.9㎏이었고, 자루는 5년 정도 사용하였으며, 값은 30전 내외였다.

주머니 속에 과실을 넣은 후 몸쪽으로 전지를 잡아



전지가위 | 국립민속박물관



나무 전지하는 모습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당기면 그 힘이 철사에 자연적으로 전달된다. 꼭지가 테두리에 걸려 가지에서 떨어지면서 과일이 주머니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간다. 감으로써 수확하는 방법이다. 철사는 과일에 대고서 잡아당기거나 줄기를 좌우로 비틀 때 바깥쪽으로 휘지 않아야 한다. 철사 강도가 그만큼 강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감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 감을 수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칼등으로 장대 한쪽 끝을 두 쪽으로 가른 후 약간 벌려서 그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러면 끝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V자형이 된다. 벌어진 틈에 과일이 달린 가지를 끼워서 좌우로 돌리면 가지가 부러지면서 틈에 끼인다. 장대를 아래로 내려 가지에서 과실을 따 별도의 용기에 넣는다. 이 방식은 감을 하나씩 또는 가지에 달린 2~3개의 감을 동시에 딸 수 있다. 이때 쪼갠 대나무 틈에 감이 달린 가지를 꽉 밀어 넣어야 한다. 가지를 틈에 꽉 끼우지 않으면 감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감은 아래로 떨어져서 땅바닥에 닿는 순간 깨지기 일쑤이다. 특히 홍시는 납작하게 되어서 쓸모없게 된다. 감과 가깝게 가지를 끼우고 조심히 비틀어서 대를 올리듯이 따면 감이 땅으로 떨어질 위험이 적다.

감과 잎, 작은 가지도 함께 여러 번 따다 보면 장대의 끝이 부러지기도 한다. 이는 틈에 가지를 끼워서 좌우로 비틀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대나무를 장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대나무는 결이 위아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전지의 길이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2~3m가 보통이다. 장대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과실을 따다 보면 힘이 보통 이상으로 든다. 감의 경우에는 모두 따지 않고 감나무에 반드시 한두 개씩 남기는 풍속이 있다. 이를 까치밥이라 한다. 까치밥 풍습은 요즈음도 초겨울에 농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진동수확기가 개발되어 과일 수확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나무줄기 또는 기둥에 진동을 가하여 열매를 따는 기계로, 진동을 가하는 장치와 떨어지는 과일을 받아 모으는 수거 장치 그리고 나무의 줄기 또는 기둥을 잡는 클램프clamp로 구성되어 있다.

전지는 지역에 따라 감전지(경기 안산), 간지깽이·홍탱이·쫌망이(경남 창녕), 간대·전지개(전남 보성), 감장대(강원 강릉) 등으로 불리었다.

특징 및 의의 농가는 다른 농작물과 같이 과일을 1년에 한 번씩 수확한다. 성인 신장보다 높은 곳에 열린 과일은 손이 닿지 않아서 도구를 활용하여 수확한다. 손으로 수확할 수 없는 과일은 전지를 사용하여 수확한다. 전지는 농가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데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확 도구이다. 과일 수확 과정에서 전지는 효율적인 동시에 유효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의 재래농구(한국무속박물관, 1995),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농사로(nongsaro.go.kr), 조선향토대백과(cybernk.net).

필자 박종민(朴鍾珉)

절구

정의 곡식을 빻거나 찧고 떡을 치기도 하는 기구.

내용 '절구'의 '구'는 공이를 가리키는 '고杵'에서 왔다. '절'의 어원은 모른다. 『동문유해同文類解』에는 '졀고',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는 '절구'로 올랐다. 절구는 신석기시대의 갈돌에서 나왔으며, 가장 오랜 유물은 1~3세기의 낙랑시대 유적에서 선보인 양념절구와 공이이다.

강원도에서는 절고 또는 절고방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도구 또는 도구통이라고 부른다. 또 경기도 서부지역에서는 혼자 하는 절구질을 '외절구질', 고부나 동서 간의 것을 '쌍절구질', 아낙의 품앗이 절구질을 '삼절구질'이라고 부른다. 이 밖에 도구·도구통·절기방아라고 하며, 공이를 손으로 쥐고 찧는다고 하여 손방아라고도 부른다. 재료에 따라 나무절구·돌절구·쇠절구로도 불리며, 공이도 나무공이·돌공이·쇠공이가 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나무절구 바닥에 우툴두툴한 쇠판을 박기도 한다.

소형인 쇠절구는 부엌에 두고 마늘이나 고추 따위의 양념을 찧으며, 나무절구 중에도 같은 것이 있다. 나무절구의 굵기는 위와 아래가 같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남부지방에서는 허리가 잘록한 것을 많이 쓴다. 이에 견주어 돌절구는 위보다 아래가 좁으며 이곳을 정교하게 다듬고 무늬를 베풀기도 한다. 절구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돌공이는 공이 끝에 나무자루를 박으므로 자루와 몸이 직각을 이루며, 쇠공이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있다. 또 곳에 따라 나무공이 끝에 돌을 박기도 한다. 특히 호남지방에서는 한 집에서도 크기가 다른 것을 여러 개 마련한다. 공이의 허리가 걸릴 만큼 파낸 공이 걸림대를 벽에 붙이고 나란히 거는 것이다.

절구가 크고 곡식이 많을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서거나 서넛이 둘러서서 찧는다. 둘이 찧을 때 '께낌질'이라고 하여 한 사람이 곡물을 뒤집어 주기도 한다. 나무절구에 나무공이로 벼 한 말을 찧으려면 한 시간쯤 걸린다. 돌공이는 나무공이보다 시간이 반밖에 걸리지 않지만, 공이 자체가 무거워서 힘이 더 든다. 절구를 옆으로 뉘어 놓고 개상으로 삼기도 하며, 더러 세탁물도 넣고 공이로 찧어서 때를 빼는 일도 있다. 절구는 함경도



절구질하는모양(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절구질 | 황헌만

를 제외한 전국에서 썼다.

지역사례 전라남도에서 정월 열나흗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절구통을 핥으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절구로 곡식을 찧거나 빻듯이, 고기를 잘 삭힌다는 뜻이다. 황해도에서는 속이 편치 않은 사람이 절구에 물 두 잔을 붓고, 공이로 세 번 찧어서 마시면 체증이 뚫린다고 한다. 또 연주창連珠瘡을 오래 앓으면 절구에 고인 물을 바르고, 하루거리에 걸리면 불에 탄 공이의 재를 마신다. 여자가 절구 위에 앉으면 입이 비뚤어진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삼가는 속신도 있었다. 경상남도에서는 대보름날에 어린아이가 성이 다른 세 집에서 체나 조리에 오곡밥을 얻어 와서 절구 위에 앉아 한술 뜨고 개에게도 한 술 먹이면 그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이른다. 전남에서는 하루거리에 걸리면 공이를 거적에 싸서 새끼로 일곱 매기를 한 다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묻는다. 또 돌림감기가 돌 때, 밤중에 여자들이 이웃 마을의 공이 서너 개를 훔쳐 와서 마을 입구에 세우거나, 공이를 태우고 남은 숯을 갈아 물에 타 마시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여긴다.

경기도 서부지역 〈공이노래〉에 "문전 문밖 잡신 잡귀 / 절굿공이로 막아내고"라는 대목이 있다. 절굿공이처럼 사람의 손때를 먹은 것이 도깨비로 바뀌어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내용의 민담은 어디에나 있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두더지가 땅을 파헤칠 때, 절굿공이를 거꾸로 세워두면 두더지뿐만 아니라 쥐도 달아난다."라는 기사가 이를 가리킨다. 정월 열나흗날, 절굿공이로 밭의 여기저기를 찧고 나서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이라고 외치면서 오줌을 누면 그해에 부자가 된다. 또 새해 첫 쥐날[子日] 자시子時에 절구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하여, 밤 열두 시 무렵까지 절구질하는 곳도 있다. 또 이로써 두더지도 달아난다고 하여 '두더지 방아'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절구를 주로 소수민족이, 그나마 양념절구로 썼다. 일본도 근래에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아이누나 남부의 오키나와沖繩제도에서 썼지만, 다양한 형태나 종류를 일상적으로 이용한 것은 우리뿐이다. 우리 절구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제주도의 남방아로, 돌을 쪼아 만든 확 주위에 큰 함지박을 끼워 놓아서 여럿이 함께 찧을 때 공이를 빗맞은 알곡이 튀어 올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또 확이 돌임에도 나무공이를 쓰는 점도 특별하다.

지름 1m에 높이 50㎝의 대형으로, 가운데의 확은 지름 19㎝에 깊이 18㎝쯤이다. 한꺼번에 두서 말의 잡곡(보리나 조)을 넣고 서너 명의 여인이 노래를 부르며 찧는 것도 다른 데 없는 일이다. 이것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것이 일본 교토시京都市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 성취원成就院에 있고, 이것을 그린 것이 〈춘일권현영험기회권春日權現靈驗記繪卷〉에 실린 것도 흥미롭다.

특징 및 의의 절구는 풍년을 상징한다. 섣달그믐날 밤 절구에 멍석을 덮었다가 이튿날 걷어낸 뒤 안에 쌀이 있으면 벼가, 조가 있으면 조 풍년이 든다고 한다. 대보름날 아침 절구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음식을 차리고, 어떤 곡식이 잘 자랄 것인지 알아보는 고장도 있다.

이응희李應禧(1579~1651)의 시(〈1626년 윤유월 보름, 좁쌀과 청채를 본 기쁨[丙寅 歲閏六月望日喜見粟米菁菜]〉)에 "윤유월도 반이 지나 가을 되자(閏六月半生秋節) / 농가에 햇곡식 많아 좋구나(田家喜覩多新物) / 절구에 가득한 황금은 향긋한 좁쌀(黃金滿臼粟米香) / 쟁반에 수북한 백옥은 새로운 청채(碧玉崇盤菁菜新) / 닭은 처마 아래로 떼 지어 날고(鷄飛舍下已騰群) / 시내의 물고기 낚을 만하구나(魚長川中堪下綸)."라는 구절이 있다(『옥담시집玉潭詩集』). '청채'는 배추의 연한 잎을 데쳐서 여러 가지 양념으로 무친 나물이다.

절구는 여성의 고달픈 일생을 상징한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기사이다(불효자 최재전을 파직시키라는 사간원의 상소). "군자감軍資監 최재전崔在田은 그 아비가 훔친 구리부처[銅佛]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옥중獄中에 갇혔을 때, 아비라고 하기 부끄러워 옥문獄門에 걸터앉아 제 아비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무슨 죄인罪人인가?' 하였고, 또 그 어미가 품팔이꾼[傭夫]에게 재가再嫁하여 정구지역井臼之役으로 지냄에도 어미라고 부르기 부끄럽다며 받들지 않은 것은 물론 먼 지방에 갈 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1408년 11월 25일)." '정구지역'은 물 긷고 절구질한다는 뜻으로, 살림살이하는 아낙네의 수고로움을 가리킨다.

절굿공이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판소리 〈가루

지기타령〉의 한 대목이다. "이상히도 생겼네. 맹랑히도 생겼네. 전배사령前陪使令 서려는지 쌍걸낭을 느직하게 달고, 오군문五軍門 군뇌軍牢던가 복덕이를 붉게 쓰고, 냇물 가에 물방안지 떨구덩떨구덩 끄덕인다. 송아지 말뚝인지 털 고삐를 둘렀구나. 감기를 얻었던지 맑은 코는 무슨 일인고? 성정性情도 혹독酷毒하다. 화 곧 나면 눈물 난다. 어린아이 병일는지 젖은 어찌 게웠으며, 제사에 쓴 숭어인지 꼬챙이 구멍이 그저 있다. 뒷절 큰방 노승인지 민대가리 둥글린다. 소년인사 다 배웠나 꼬박꼬박 절을 하네. 고추 찧던 절굿공이인지 검붉기는 무슨 일인고? 칠팔월 알밤인지 두 쪽이 한데 붙어 있다. 물방아, 절굿대며 쇠고삐, 걸낭 등물 세간살이 걱정 없네."

참고문헌 일본에 건너간 우리 농기구(김광언, 한국민족학연구2, 단국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4),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臼(三輪茂雄, 法政大學出版局, 1978), 朝鮮の鬼神(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29).

필자 김광언(金光彦)



볏짚절단기 | 2018 | 윤진하



볏짚 절단 작업 | 농촌진흥청

절단기
切斷機

정의 볏짚이나 사료작물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는 농기계.

내용 볏짚이나 사료작물을 절단하는 볏짚절단기는 소형 농기계로, 전동기, 절단칼날, 원료 투입구 및 배출구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에는 경운기의 동력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2~3㎾의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절단날은 평판형의 한 쪽 날칼로, 고정날과 회전날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날은 분당 1,000회 정도 회전하며 볏짚 등을 절단한다. 절단 길이는 모터 축에서 회전 칼날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의 조합을 바꾸어서 보통 3~20㎝ 범위에서 3, 4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볏짚은 사람이 투입구에 넣어 주어야 하며 절단된 볏짚은 칼날의 회전력에 의해 배출구로 배출된다. 운반 편이성을 고려하여 바퀴를 단 볏짚절단기도 있으며, 잔가지 절단기로도 이용되고 있다.

목초 등 사료절단기는 절단부의 형식에 따라 플라이휠형 절단기와 원통형 절단기로 분류된다. 플라이휠형은 대체로 볏짚절단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고정날과 플라이휠에 2~6개의 직선날 또는 곡선날이 부착된 회전날로 되어 있으며 회전날은 전동기나 트랙터, 경운기의 동력으로 회전한다. 재료의 공급은 컨베이어를 통하여 두 개의 상하 이송롤러에 의해 투입되며, 절단된 재료는 2~3개의 날개를 가진 임펠러impeller에 의해 배출된다. 원통형 절단기는 고정날과 2~6개의 곡선날이 원통 모양을 이루어 회전하는 회전날에 의해 재료를 절단한다. 재료의 공급은 V벨트를 통하여 한 쌍의 롤러에 의해 투입되며 절단된 재료를 높은 곳으로 불어 올리기 위해 송풍기를 부착한 경우도 있다. 원통형은 플라이휠형에 비하여 소요동력이 적게 들고 소음과 진동이 더 적은 편이다. 한편 1990년대 말 대형의 원형베일러가 공급되면서 농가에서 절단하지 않고 급여하고 있어 손실이 많으며, 일반 절단기로

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뿐더러 원형베일의 무게가 500㎏ 내외로 다루기도 어려워 트랙터를 이용하여 원형베일 상태의 볏짚을 절단하고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는 원형베일 절단기가 생산·보급되고 있다. 원형베일 절단기는 트랙터 전방에 부착하며 베일을 들어 올려서 고정하는 하부 프레임과 평판형 또는 톱날형 칼날이 달려있는 상부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랙터의 유압을 이용하여 절단날을 작두처럼 아래로 하강시켜 볏짚 등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베일을 집어 올려 절단기 안에 넣어서 고정시킨 후 절단날로 절단하면서 가축에 급여하는 절단기도 있으며, 베일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반원형의 칼날 조합으로 가위질 하는 것처럼 3~4 토막으로 잘라내는 형식 등 다양한 형태의 원형베일 절단기가 보급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예부터 작두를 사용하여 볏짚 등을 20~30㎝ 길이로 절단하여 가축 사료로 이용하였다. 작두는 칼날의 길이가 50㎝ 정도의 절단기로, 한 사람이 볏단을 나무판 위에 넣어주면 다른 한 사람이 발로 밟아서 절단하여 힘도 많이 들고 위험한 작업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볏짚 등의 절단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하여 볏짚 절단기는 1980년대 초부터 생산·보급되었고 1990년대 말 대형 원형베일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원형베일 절단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볏짚이나 사료작물, 목초 등을 가축이 먹기 좋게 절단하여 주는 소형 볏짚 절단기와 트랙터용 대형 원형베일 절단기의 생산 보급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 사양 관리 노력을 경감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농업기계화시험연구보고서-원형베일 쵸퍼 개발연구(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2001), 농작업기계학원론(정창주·김경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 농기구 도감(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필자 윤진하(尹眞河)

절미운동
節米運動

정의 일제강점기부터 1976년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쌀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아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로 시행된 국민운동.

내용 한국인의 주식에서 쌀은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다. 다양한 잡곡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쌀밥은 누구나 원하는 주식이었다. 그러나 1976년 통일벼 재배를 통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 쌀은 항상 부족하였기에 이른바 절미운동節米運動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였다. 절미는 조선시대부터 관심사였다. 가뭄이 들면 임금은 가뭄을 하늘의 문책으로 여겨 스스로 반찬을 한두 가지로 줄였으며, 귀한 쌀을 아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몸소 절미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쌀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쌀을 일본으로 이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군수식량 확보를 위하여 본격적인 절미운동이 시작되어 미곡 도정제한, 혼식 장려, 대용식 활용 등을 강요하였다. 광복 후에도 일상적인 쌀 부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대에는 6·25전쟁과 쌀 생산량



절미통 | 지름19 전체높이1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절미통 | 입지름15 최대지름28 바닥지름20 높이24 | 1960~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의 부족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보릿고개로 기아와 빈곤이 심각하였다. 1950년 1월 서울시장이 절미에 협력하라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전쟁 중인 1951년 국무회의에서는 절미운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잡곡 혼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음식점은 3할 이상의 잡곡을 혼합하여 영업할 것, 여관업자는 3할 이상의 잡곡을 혼합하되 점심은 제공하지 말 것, 미곡을 원료로 하는 제과·떡·엿 제조를 금지할 것 등 8개 항목을 결의하였다. 1956년에는 농림부와 내무부, 재무부의 합의로 1년 동안 50만 석의 쌀 절약을 목표로 절미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배고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증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나 1960년대가 되어도 쌀 수급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절미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절미운동은 1961년 10월 재건운동본부가 탄생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산하 재건운동본부 주도로 각 가정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숟가락의 쌀을 아끼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으며, 이에 호응해 각 가정에는 '절미통' '절미주머니' '절미항아리' 등이 등장하였다. 1963년 1월부터 절미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절미를 위하여 쌀 수요가 가장 많은 가정과 음식점, 양조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 공공단체에 총동원령이 떨어졌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하였고, 시장에서 쌀을 파는 미곡상은 쌀 8할에 잡곡 2할 이상을 섞어 팔아야 하였으며, 관공서를 비롯하여 국영기업체와 학교나 기타 공공단체의 구내식당에서는 밀가루와 잡곡을 원료로 한 음식물만 팔아야 하였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절미운동을 추진하였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증산도 중요하지만 절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끼라도 분식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절미운동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각 가정 단위로 절미를 홍보하고 실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학생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학생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절미운동의 필요성을 교육하였다. 선생님들은 수업시간마다 초등학교 교사용 실과 지도서에 실린 "흰쌀 편식은 체질의 산성화를 초래하고 대뇌변질증을 일으켜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능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라는 내용으로 절미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절미운동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까지 통제하는 국민동원운동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과 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식량, 특히 쌀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절미운동은 단순히 쌀의 소비량만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다. 이에 쌀을 대신하여 잡곡의 혼식과 밀가루를 활용한 분식이 함께 장려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주식 패턴은 흰 쌀밥에서 서구화된 분식과 다양한 잡곡을 혼용한 식단으로 전환되어 갔다.

참고문헌 국가동원체제 시기 혼분식 장려운동과 식생활의 변화(공제욱, 경제와 사회77, 비판사회학회, 2008), 쌀밥 전쟁(김환표, 인물과사상사, 2006),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주영하·김혜숙·양미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18).

필자 이송순(李松順)

접붙이기

정의 식물의 일부를 떼어 다른 식물에 붙이는 작업.

내용 개체가 다른 두 식물체를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생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접목이라고 하며 이때 접목체 상부를 접수, 하부를 대목이라고 한다. 대개 1년생을 사용하는데, 봄에 하는 경우 가을에 접붙일 가지를 잘라 저장하였다가 봄에 접붙인다. 모란은 9월, 장미는 1~2월, 동백나무는 5월 중순에서 8월 하순이 좋다.

접붙이기는 대목과 접수의 식물분류학상 혈연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같은 품종의 경우 가장 친화성이 높고, 식물분류학상 종이 다른 경우 친화성이 낮아지며, 속의 분류가 다른 경우 친화성이 거의 없다. 접목은 접목하는 위치에 따라 고접과 저접으로 나뉜다. 고접은 대목의 20~30㎝ 지점인 높은 위치에서 접을 붙



접붙이기 | 경북 군위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이는 것으로 접수의 성장이 좋아 주로 정원수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저접은 대목의 3~4㎝ 지점인 낮은 위치에서 접을 붙이는 것으로 분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대목과 북쪽 접수가 접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엽 지는 나무는 전년 12월에 가지를 잘라 땅속 30㎝ 깊이에 묻어 두었다가 이듬해 5월까지 접수로 사용하면 좋다. 접붙일 시점에서 대목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좋으므로 미리 따뜻한 온실에 옮겨 두는 것이 좋다.

접붙이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삽목 번식이 어렵거나 실생으로는 품종의 특성 유지가 어려운 것이라도 쉽게 증식할 수 있다. 둘째, 접목하면 실생한 것보다 일찍 개화하여 결실 연령이 낮아진다. 셋째, 접목식물에서는 대목과 접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목의 선택이 재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수세 조절, 특수 풍토에 적응, 병해충의 피해 면함, 결실률이나 품질 증가 등). 접붙이기의 단점으로는 숙련 필요, 활동 시기의 이해와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 수령의 단명, 한 번씩 작업함에 있어 대량육묘가 불리함 등이 있다.

다음은 접붙이기의 종류이다.

1. 가지접: 휴면기의 숙지접이라 하는데, 이는 접수와 대목의 친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접수와 대목은 굵기가 비슷한 것이 좋고 접수의 신선도는 활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접수의 채취는 양지에서 생육한 영양이 충실한 모수에서 건전한 가지를 채취한다. 접수는 채취한 다음 즉시 0℃ 내외의 냉장 또는 땅속에 묻은 후 대목에 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 꺼내어 접목한다.

2. 녹지접: 녹지접이란 한창 생육하는 나무의 가지를 대목에 접하는 것으로 방법은 절접·할접과 같이 나무를 쐐기꼴로 깎아 대목 절구의 한가운데를 짜개고 접한다. 녹지접의 활착 유무는 온도와 관계습도의 조절에 있다. 주로 녹지접은 우수한 품종을 다량 번식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비닐하우스 속이 좋으나 여름철에는 실온이 30℃ 이상이 되면 불량하므로 차광하여 주는 것이 좋다.

3. 눈접: 눈접은 절접보다 순조롭다. 한 포기의 모수에서 많은 양의 눈을 따내어 다량의 묘목을 양성할 수 있다. 시기는 8월 중순~9월 초순 사이에 충실한 눈을 대목에 쪼개고 접합시킨다. 환경은 20℃ 전후가 좋다. 눈을 따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정아는 잎을 잘라내고 잎자루만 남긴 후 눈 밑의 1.5㎝ 정도에 조제한다. 그 후 대목 목질부를 T자형으로 2㎝ 정도 종형으로 상처내고, 껍질을 좌우로 벌려 그곳에 접아를 끼운 다음 비닐 테이프로 묶어 준다. 접한 부위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1주일 정도면 잎자루가 황색으로 되어 건드리면 탈락되는데, 만약 잎자루가 그대로 붙어 있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보고 다시 접을 하는 것이 좋다.

4. 호접: 호접이란 부름접이라고도 하는데, 절접인 아접이 곤란한 종류에서 많이 사용된다. 대목 곁에 좋은 형질의 가지나 눈을 유인하여 쌍방의 수피를 깎아 형성층을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패하더라도 대목과 접수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되풀이할 수 있다. 접목 시기는 수액이 유동하는 4월 상순~5월 상순이 적합하다.

5. 근접: 근접은 뿌리접이라 하는데, 분재와 같이 특별한 것에 사용하며 쇠약한 큰 나무의 근세를 회복시키는 데 응용한다.

특징 및 의의 접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목 친화성과 접목 활착률이 높은 대목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목용 종자는 완전히 성숙한 과실로부터 채취되어야 하며, 일단 채취된 종자는 과육을 핵으로부터 깨끗이 제거한 다음 휴면타파를 위한 층적 저장을 한다. 층적 저장을 위하여 노천매장하는 경우에는 종자와 모래를 교호로 층을 형성시켜 가면서 매장하도록 하고, 저장 중에 습해를 받지 않도록 물 빠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과수학각론(임열재 외, 향문사, 2016), 과수학총론(임열재 외, 향문사, 2016), 삽목묘의 생육특성(김장수 외, 원예과학기술지30-2, 한국원예학회, 2012), 왕벚나무 성목 녹지삽목에서 삽목시기, 옥신처리 및 삽수부위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과 이식 접목과 삽목(차건성, 오성출판사, 2000), M.9 계통 사과 대목의 기내 급속 번식(전지혜 외, 원예과학기술지19-1, 한국원예학회, 2001).

필자 전익조(全翼朝)

정전제
丁田制

정의 백성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공평한 세역 의무를 정하여 받은 신라 토지제도의 하나.

개관 삼국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는 전쟁의 혼란으로 마비된 농업생산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건사업의 시작은 지방 관청이 해당 농민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증빙을 위해 호구조사戶口調査를 하고 마을의 전답을 양전量田하여, 결부結負와 세액稅額을 정하여 받는 것이었다. 국가로부터 소유 여부를 인정받고 세액을 정하여 받았다는 점에서 연호烟戶의 토지는 연수유답烟受有畓이나 연수유전烟受有田이라고 불리었고, 국가의 조세 단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전丁田이라고 불리었다.



신라촌락문서(복제) | 국립조세박물관

내용 전쟁에 따른 농업생산의 파괴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농지의 황폐로 나타났다. 전승국인 신라의 상황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패전국이자 피정복국인 백제나 고구려 지역의 경우는 매우 참담하였다. 더욱이 이 지역 농지와 주민은 신라인들의 약탈대상이 되어 승전국 신라라도 시급히 농민 경제와 민심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농업생산의 회복을 위한 정책은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모색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백성 농민들에게는 해당 농지에 대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주는 한편,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들에게는 농지 분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였다. 722년 정전제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시행된 정책이었다.

722년(성덕왕 21) 8월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始給百姓丁田.'라고 한 상황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지역의 황무지荒蕪地나 주인이 없는 무주전無主田을 논밭을 소유하지 못한 무전농민無田農民들에게 그 마을 안에서 똑같이 균전均田이 되도록 분급하는 것이다. 가령 전쟁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인구가 감소하고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아무도 손대지 않아 황폐해진 마을은 아무래도 전쟁 전에는 농사가 그런대로 되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런 지역에 전쟁이 끝나고 연고가 다양한 주민들이 늘어나자 신라 정부는 중국 당나라의 균전제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신라 일반농민층 백성에게 일정한 의미에서의 토지, 즉 정전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백성들에 대한 조치이다. 신라 정부는 결부양전제를 통해 해당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 사표, 수확량 등 결부 수를 확정해 주는 한편, 소유한 농지의 수확 규모

에 따라 해당 농민이 의무로 부담해야 하는 조세액도 정해 주었다. 이를 양급量給이라 한다. 그렇기에 이때의 정전丁田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국가의 조세 징수 단위, 일정한 세액이 부과되는 농지가 된다. 그러므로 722년은 전쟁의 후유증을 더 겪지 않고 국가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된 해를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항쟁 격화와 그에 동반되는 체제 정비과정은 한국의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 고대에서 중세로의 과도기였다. 선진지역인 고구려와 뒤를 이은 백제는 일찍부터 중세화가 진행되었으나, 신라는 6세기 초(502) 순장 관행이 금지될 때까지 고대사회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를 신라가 주도하여 능동적으로 이끎으로써 통일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선진 토지제도를 운영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으로 신라의 경제 체질을 급속하게 변화시켜야 하였다. 신라의 전주전객제인 녹읍제의 시행과 함께 신라의 농민과 농지를 안정적인 조세체계 하에 두게 된 정전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신라의 중세적 토지제도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新羅村落文書, 농업으로 보는 한국통사(김용섭, 지식산업사, 2017), 신라시기의 정전제(이경식, 역사교육82, 역사교육연구회, 2002), 신라의 연수유전·답과 공연(박찬홍, 한국사연구116, 한국사연구회, 2002), 신라장적의 연수유전·답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형편(이인철, 국사관논총62, 국사편찬위원회, 1995), 신라 통일기 연호의 토지소유(이인재, 동방학지77-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신라 통일기 토지제도연구(이인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통일신라시대의 연수유전·답과 그 경영농민(이희관, 사학연구50, 한국사학회, 1995), 한국고대농업사연구(김용섭, 지식산업사, 2019), 한국중세농업사연구(김용섭, 지식산업사, 2000).

필자 이인재(李仁在)

제방
堤防

정의 물이 넘쳐흐르지 못하게 막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높이 막아 쌓은 구조물.

개관 제방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방수防水 제방과 저수貯水 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수 제방은 비가 많이 내리는 6~8월에 폭우가 쏟아질 때 강이나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나 마을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土砂에 파묻히는 수재水災를 막기 위하여 쌓는 방수제防水堤와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오르는 피해를 막는 방조제防潮堤를 포함한다. 저수 제방은 1년 내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을 가두어 모아두기 위해 쌓는 제방으로, 역사 문헌에는 '제언堤堰' 또는 '제堤'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용어로는 '저수지'의 둘레에 쌓은 둑을 의미한다. 현재의 하천법에서는 높이 15m 이상의 제방을 댐이라고 한다.

내용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제방의 수축(백제 구수왕), 벽골제의 신축(330년)과 증축(790년), 시제矢堤 신축(429년) 등의 기록이 있으며 이 외에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 의성 대제지, 상주 공검지, 영천 청제(798년), 정읍 눌제, 당진 합덕지 등의 저수 제방이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고려 고종대에 김방경이 안주의 위도와 강화도에서 방조제를 쌓아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벽골제 증축(1143년), 강릉의 연복정 남쪽 제방 수축修築 및 재수축(1169년), 제언 수축(1188년), 상주 공검지 자리에 다시 제방 축조(1195년), 연안의 남대지 축조 등의 기록이 있다.

15세기 말엽 이후 전라·충청·경기도의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조제를 쌓아 언전堰田을 개발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이후 이들 하삼도는 물론 황해도·평안도에서도 권신세가權臣勢家들이 백성을 사역시켜 간척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인조~숙종 대에 강화도의 여러 곳에 방조제를 쌓아 군량軍糧을 위한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739년(영조 16)에 낙동강의 방수 제방을 완축한 후 정조 대에 여러 차례 수축하였으며, 1779년(정조 4)에 두만강 방축防築을 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저수 제방 수축에 관한 기록으로는 1417년(태종 18)에 고려 말 이래 파괴되어 이용하지 못하던 벽골제의 수문 5개소와 제방을 수축하였다는 것과 1418년(세종원년)에 눌제, 1472년(성종 4)과 1777년



새만금방조제 | 전북 군산 | 2010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보령방조제 | 충남 보령 | 2010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호 | 전남 장성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호 | 전남 담양 | 한국농어촌공사

(정조 2) 및 1791년(정조 16)에 합덕제를 수축하였다는 것이 있다. 저수 제방의 축조에 관해서는 1536년(중종 31) 경기도 광주에 승려 400여 명을 동원하여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1794년(정조 19) 화성에 둔전을 설치한 다음 그 관개를 위하여 만석거萬石渠를 설치한 후 정조 22년에 만년제萬年堤를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5세기까지는 산곡 계류를 막아 저수를 활용하는 제언이 거의 유일한 관개 수단이었으나, 15세기에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천방川防(보洑)이 중반 이후 보급되기 시작하여 1세기 이후 관개시설의 주류가 되었다고 한다. 1808년(순조 8)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 5 제언조堤堰條에는 언堰 3,685개소와 보洑 2,265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소규모의 보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09년 충북의 경우 제언이 70개소에 관개면적 364.5정보町步, 보가 566개소에 관개 면적 3,457.9정보로 조사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사에 따르면 1910년대에 제언 6,384개소와 보 2만 707개소였으며, 1912년 기록에는 전국 9개 강 유역에서 제언에 의한 관개면적이 2만 1,000정보, 보에 의한 관개 면적이 9만 2,000정보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쌀 증산정책에 의해 관개개선을 위한 저수지의 축조와 간척을 위한 방조제의 축조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리조합이 중심이 되어 경지정리와 저수지 축조 그리고 간척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906년의 〈수리조합조례〉에 이어 1917년에 〈조선수리조합령〉이 발포되어 수리조합 제도가 완비됨으로써 수리조합은 1908년에 처음 옥구서부수리조합이 설립된 뒤 계속 늘어 1942년에 428개 조합(수혜면적 30만 5,521정보)이 결성되었다. 둘째, 저수지와 방조제를 축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1919년에 〈수리조합 보조규정〉을 발포하여 공사비 예산액의 15%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비중은 차츰 높아져 1942년에는 대지구 관개개선과 간척에 55%를 교부하였다. 셋

째, 저수지의 축조와 수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콘크리트로 제방을 축조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2018년 전체 저수지 1만 7,240개소 중 1945년 이전에 준공된 저수지가 8,795개소(51.0%)에 달하였으며, 1945년 이전에 준공된 보는 4,482개소(보의 총수 1만 7,955개소 중 25.0%)였다. 또한 1920~1941년에 축조된 256개의 관개용 저수지 중 4개의 저수지는 중력식 콘크리트 제방으로 축조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은 일본이 제정한 토지개량사업 관련 법령과 행정조직을 부활시켜 수리조합 설치사업과 미완공 간척사업의 일부 공사를 준공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수리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어 미국에 기자재 원조를 받아 저수지와 보의 설치, 간척사업 등을 진행하여, 66개 지구에 1만 4,899*ha*를 준공하였다. 1950년대에는 국고보조의 확대와 장기채 발행으로 사업 재원이 확대되면서 수리조합이 난립하고 대·소지구 수리시설 설치사업이 급증하여 1959년 684개 수리조합에 수혜면적은 32만 5,180*ha*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는 1961년에 〈토지개량사업법〉과 〈공유수면매립법〉, 1963년 〈방조제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강과 큰 하천의 수계水系를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강·하천의 하구와 연안에 대규모의 방조제와 댐 및 방수제를 쌓아 간척에 의한 농지조성, 담수호와 저수지 축조 및 양·배수장 건립, 경지정리, 농업용수로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어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강물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공업용수·발전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아산만방조제, 남양방조제, 금강·영산강 하굿둑, 계화도 방조제, 삽교천방조제, 대호방조제, 홍성방조제, 보령방조제, 서산간척지 A·B지구 방조제, 새만금방조제 등이 축조되었다. 새만금방조제는 길이 33.9*km*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이다. 또한 아산호·삽교호·영산호 등의 담수호와 광주호·담양호·나주호·장성호 등의 대규모 저수지가 축조되었다.

2018년 수리시설의 수는 저수지 1만 7,240개소, 양수장 7,485개소, 양·배수장 125개소, 배수장 1,113개소, 보 1만 7,955개소, 집수암거 2,615개, 관정 2만 6,077개 등으로 보의 수가 저수지보다 많지만 관개면적은 저수지가 42만 6,722*ha*로 전체 관개면적 69만 6,428*ha*의 61.3%를 차지하며, 양수장 15만 1,539*ha*(21.8%), 보 5만 2,959.9*ha*(7.6%) 순이었다. 또한 방조제는 1,673지구, 1,966조, 길이 1,195.7*km*에 달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기후는 전형적인 몬순형 기후로 7~8월에 내리는 비의 양이 연간 강수량의 50% 안팎을 차지하여 홍수로 인해 하천과 강의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방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태풍과 해일 등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제방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에 1년 내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가두어 모아야 하므로 제방의 중요도가 크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萬機要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총람(농어촌진흥공사, 1999), 이조수리사연구(이광린, 한국연구원, 1961), 조선시대의 제언과 현존 실태(김성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한국농지개발사(안재숙, 효석선생화갑기념출판봉정추진위원회, 1989), 국가통계포털-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kosis.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석두(朴錫斗)

제주 밭담

정의 제주도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2만 2,108*km*의 밭담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돌과 바람이 많은 제주도는 농업에 불리한 지역이다. 120만 년 전부터 시작된 80회 이상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화산회토火山灰土가 섬 전체 토양의 77%, 농경지의 60%를 차지한다. 화산회토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날리고 비로 인한 토양 유실에도 매우 취약하다. 연중 강한 바람이 불고 강수량이 많은 제주도

에서는 토양 유실을 막는 것이 농사의 관건이었다. 땅을 일구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돌도 문제였다. 논농사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 때문에 밭농사가 99.9%를 차지한다. 제주도 농부들은 오랜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려면 품을 들여 돌을 캐내야 했고 그 돌로 밭담을 쌓았다. 돌은 극복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자원이었다. 그렇게 조성된 밭담은 바람을 갈무리하여 토양과 씨앗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경작지 구획, 토양 보습과 보온, 마소 침입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농업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밭의 경계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현무암 밭담은 마치 흑룡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불린다. 2만 2,108㎞에 이르는 밭담은 아주 독특하고 경이로운 농업경관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제주도 농부들이 고안해낸 지혜의 산물이다. 제주 밭담은 탁월한 농업경관과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이 중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림읍 동명리, 애월읍 수산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신풍리의 3,842㏊가 핵심지역이다.

내용 제주도의 농업은 1세기경 탐라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밭담의 축조는 농경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작지를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밭담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2천여 년의 세월 동안 밭담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제주 밭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고종 21년부터 27년까지 제주판관으로 재임한 김구의 일화가 전한다. 밭의 경계선의 없다보니 강한 자들로부터 농토를 잠식당하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판관의 지시에 따라 돌담으로 밭 경계를 만든 뒤부터 토지의 침탈이나 분쟁과 같은 폐해가 사라지고 우마 침입과 풍해까지 방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바람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에둘러 쌓았던 밭담이 고려 중기에 이르러 밭의 경계로 정착된 배



제주 밭담 | 제주 | 2019 |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밭담 | 제주 | 2014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제주 밭담 | 제주 | 2019 | 정명철

경이라 할 수 있다.

밭담은 제주도 밭농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환경과 화산회토가 대부분인 토양 환경에 적응하여 밭농사를 짓기 위해 밭담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바람은 토양 속의 수분 증발을 촉진시켜 씨앗의 발아를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토양 환경에서는 초본류 식물들이 자라기 어렵고 유기물의 토양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한 바람은 표토의 비산을 일으켜 파종한 씨앗을 땅 위로 드러나게 하고 성장한 작물을 쓰러트리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과 집중호우는 토양 유실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이 표토를 날리고 습기를 빼앗는 정도라면, 비는 경작지의 토양을 쓸어 가버려 농사를 아예 망치게 한다. 이렇게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밭담은 토양의 유실을 막아내는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밭담 밑에서 자라난 잡풀은 비로 인한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었고 위쪽에서 쓸려 내려온 흙을 가두어놓았다.

밭담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조성하였다. 밭담은 돌과 돌이 잘 맞물리도록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고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보수도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숙하게 쌓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밑돌을 놓고 서로 이가 맞도록 돌을 엇갈리게 쌓는 기술이나 돌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핀 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올려놓는 감각은 경험에서 나온다. 이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라기보다 바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하게 빈틈을 확보하면서 돌과 돌이 맞물리도록 쌓아야 하는데, 오랜 경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밭담의 구조적 특징은 돌의 형태나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는 데 있다. 제대로 밭담을 쌓으려면 큰 돌, 작은 돌, 밋밋한 돌, 모난 돌, 둥글넓적한 돌들이 모두 필요하다. 각각의 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큰 돌만 사용할 경우 육중한 느낌은 있지만, 돌과 돌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돌이 없게 되고, 바람이 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오래 버텨낼 수 없다. 작은 돌 하나하나는 바람에 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돌을 큰 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이들이 서로 이음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견고한 밭담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무척 허술해 보이지만 아주 강한 바람에도 밭담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선형으로 축조되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기공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증대시키며, 돌과 돌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이 바람을 찢어 저항을 감소시키는 '파풍효과破風效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밭담은 쌓인 모양에 따라 외담, 접담, 잣담, 잡굽담 등으로 구분하여 불린다. 외담은 한 줄로 쌓은 밭담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접담은 두 줄로 쌓은 밭담을 말하는데 다른 경작지에 비해 돌이 더 많아 이중으로 쌓은 것으로 보인다. 잣담은 크고 작은 돌로 성처럼 넓게 쌓은 담을 말하는데, 밭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잣담은 길에 인접한 밭에서 맹지의 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어 밭주인의 인정과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잡굽담은 지대가 주변에 비해 낮은 경작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경작지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작은 돌들을 촘촘히 쌓아올린 후 일반적으로 그 위에 돌을 쌓는 방식을 취한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탓에 농업환경이 매우 척박하고 불리하다. 애써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려 해도 바람이 세어 흙이 날아가고 수분이 빨리 증발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제주도 농부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토양에서 골라낸 돌로 차곡차곡 밭담을 쌓았다. 밭담은 바람을 막아 토양과 수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산 관속식물의 절반이 제주도에 자생하며, 200여 종의 한국 특산종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과 보호야생종의 절반이 분포한다. 특히 한라산은 생태계의 보고로서 식물 1,565종과 동물 1,179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동식물이 분포하는 데에는 밭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섬 전체를 뒤덮은 채 그물코처럼 얽혀 있는 밭담은 토양을 보호하여 미생물의 삶터를 지켜내고 다양한 서식처를 만들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밭담은 농업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 외에도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빼어난 문화경관의 가치가 있다.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제주도 전역을 감싸고 있는 밭담은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밭담의 현무암은 초록의 밭작물과 유채꽃 등 철따라 피어나는 다양한 색상의 꽃들과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해낸다. 밭담의 이러한 경관 가치는 제주도가 천혜의 관광지라는 특성과 맞물려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2014),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2013).

필자 정명철(鄭明哲)

제천 의림지와 제림

정의 고대에 만들어진 저수지와 제방의 나무숲.

내용 의림지義林池와 제림堤林은 명승 제20호로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일원에 있다. 이곳은 용두산에서 이어지는 좁은 골짜기가 부채꼴로 넓어졌다가 다시 폭이 가장 좁아진 지점으로 골짜기의 물을 담수하기에 적합한 지점이다. 또한 아래쪽의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지형을 선택하여 제방을 쌓아 만든 저수지가 의림지이다. 의림지의 제방 길이는 170*m* 정도이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구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는 320*m* 정도가 된다. 제방의 폭은 최소 45*m*, 높이는 12*m* 정도이다. 제방의 서쪽 끝에는 자연 암반을 이용한 여수토餘水吐(여분의 물을 방류하는 출구)가 있다. 그리고 의림지의 제방 위에는 소나무와 버드나무 등의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는데, 이 숲이 제림이다.

의림지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인데, 여기에는 "현의 북쪽 6리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으며, 둘레가 530척에 관개전灌溉田이 400결이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의림지가 현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고 관개 면적이 매우 넓다는 기록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정인지鄭麟



의림지 | 사군강산참선수석 | 이방운 | 19세기 초 | 국민대학교박물관

趾가 새로 쌓았다는 단편적인 내용이 있다.

의림지를 만든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즉 제천의 옛 지명을 검토하여 삼한三韓 시기에 의림지가 존재하였다는 견해, 조선 후기의 문헌 자료와 의림지 주변에 우륵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륵于勒이 만들었다는 견해, 조선 후기 김신만金履萬과 한진호韓鎭戶의 글을 통해 정인지가 제천에 머물면서 삼도三道(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병력을 동원하여 만들었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진행한 시추 조사에서 얻은 유기물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7~10세기로 나오면서 삼국시대 말에서 남북국시대의 어느 시점에 의림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2~2013년에 제방의 가장자리를 발굴 조사하였는데, 출토 유물을 통해 제방이 6세기 중엽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였다. 현재의 자료로 보면 의림지가 늦어도 삼국시대에는 존재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의림지를 애초부터 관개를 위해 만든 저수지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처음에는 안정적인 밭농사 경작지를 얻으려고 홍수 방지용으로 쌓았다고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의림지 제방의 축조방법은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먼저 1972년 폭우로 의림지의 제방 서쪽이 무너졌을 때 제방의 절개면切開面을 간단히 조사하였다. 이때 부엽층敷葉層의 존재, 점토와 사양토砂壤土를 교대로 쌓은 기법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의 발굴을 통해 점토층 사이에 얇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깔아서 만든 여섯 개의 부엽층을 조사하였다. 제한적인 조사만 진행하였지만, 제방을 쌓은 방법이 우리나라 다른 제방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림지와 제림은 사람들이 만들고 오래 이용하면서 형성된 저수지와 숲으로, 주변의 정자나 누각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역사적 경승지이다. 또한 조선 후기 산수화가 이방운李昉運이 그린 서화첩 『사군강산참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에 나오는 명승지 여덟 곳 중 하나로, 예로부터 단양 사군四郡(청풍·영춘·단양·제천) 지역의 대표적 명소였다. 한편 충청도의 다른 이름인 호서湖西는 '호수의 서쪽'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수가 의림지라고도 한다.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충북 제천 | 2020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고대 저수지의 모습과 사람들이 오랜 기간 저수지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곳이다. 또한 제방을 이용한 수리 체계, 즉 골짜기의 물을 막아 제방을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잘 알 수 있는 곳이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제천 의림지와 제림(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8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 충청지역 최종보고서1, 2018), 제천 의림지의 수리사적 특징과 의의(김재호, 민속학연구 32, 국립민속박물관, 2013), 제천 의림지의 역사성과 가치(양기석, 의림지의 탄생배경과 그 역사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9), 제천 의림지 축조방법과 연대에 관한 일고찰(어창선, 한국문화사학회 문화사학40, 한국문화사학회, 2013).

필자 김도헌(金度憲)

조

정의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 재배식물.

개관 조*Setaria italica L. Beauvois*의 원형은 강아지풀S. viridis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조는 중요한 작물로 재배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와 백제본기百濟本紀 등에 "곡穀이 귀하여 백성이 굶주린다." 등 곡穀이 자주 기술되었는데, 여기에서 곡은 중요한 곡물로서, 쌀이나 콩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 곡穀은 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조가 중요한 작물이었고, 고려시대 문헌인 『계림유사鷄林類事』



차조 | 2007 | 농촌진흥청



황차조 | 2016 | 안완식

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오곡 가운데 조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였다.

내용 조는 뿌리가 얕게 뻗는 천근성淺根性이다. 키는 1~1.5*m*이다. 줄기는 속이 차 있고 가지치기는 1~2본 정도이다. 잎 폭이 2~4*cm* 정도이고 길이는 30~40*cm* 내외이다. 줄기를 싸고 있는 엽초의 색에 따라서 흰대와 붉은대로 구분된다. 꽃이삭은 길이 10~20*cm* 정도로 한쪽으로 굽고 짧은 1차 이삭가지가 돌려나며, 이에 다수의 2차 이삭가지가 발생하고 다시 3차 이삭가지가 갈려 나와 이에 작은 이삭이 어긋나서 붙는다. 작은 이삭에는 크고 작은 한 쌍의 받침껍질에 싸인 2개의 꽃이 들어 있다. 여기서 위쪽의 꽃은 임실하는 꽃이고, 아래쪽 꽃은 붙임이다. 조의 이삭 모양은 원통형, 곤봉형, 원추형, 방추형, 분기형, 선단분기형 등 여러 가지로 구별된다.

조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오래된 작물이어서 그 품종의 분화도 일찍부터 다양하였다. 조는 봄에 뿌리는 봄조와 남부에서 보리 후작으로 뿌리는 그루조가 있다. 종자의 성질에 따라 차조와 메조로 나뉜다. 줄기의 빛깔에 따라서 붉은대조와 흰대조로 나뉘고, 종자의 빛깔에 따라 청조와 황조로 나뉜다. 일본인 영정永井에 의하면 1932년 당시 서선 지방(황해도와 평안남·북도)에서 수집된 조 품종이 2,000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부분 품종이 멸종되었으며, 1960년 농사시험 연구보고서의 품종 보존시험에 57품종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보존 중인 토종조는 가지조, 북심이차조, 50일조, 그루조, 끌서석, 늦조, 신날거리조, 올조, 왕그루조, 은차조, 청살미차조, 황차조, 모조, 산정조, 냉큼조 외 일부가 있다. 최근 재배조로는 조생종인 황금메조·황차조, 중생종인 삼다메·가지조, 중만생종인 황미차조·삼다찰조·밀양조·제주메조가 있다. 파종 방법으로는 골뿌림, 점뿌림, 산파 등이 있다. 골뿌림은 60*cm* 이랑에 파폭 10*cm*로, 점뿌림은 파종기를 이용하여 60*cm* 이랑에 5~10*cm*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1.5~2.0*kg* / 10a 정도이며 3*cm* 이하로 얕게 덮는다. 시비량은 10a당 질소 12~15*kg*, 인산 및 칼리를 각각 8~10*kg*을 주되 질소의 반량은 6월 중순경에 웃거름으로 준다. 10월 무렵에 수확한다.

특징 및 의의 조와 차조는 취반용으로 쓰기도 하고, 떡을 빚기도 하며, 차좁쌀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차좁쌀을 발효시켜 강술이나 오메기술을 만들고 오메기술을 증류하여 제주도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된 고소리술을 만들기도 한다. 또 새 모이로는 가장 중요한 곡식이다. 특히 국내산 조의 생산·유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잡곡의 일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산지는 강원도 산간지대와 제주도이다. 1940년대에는 보리 다음으로 많은 양으로 70만*ha* 넘게 재배되었고, 2009년에는 1,101*ha*에서 1,360t이 생산되었으나 근래에는 거의 사라지고 일부 농가에서만 재배하고 있다.

참고문헌 식용작물의 기원과 발달(훈도이홍석박사 정년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서원, 1998),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74), 전작(지영린, 향문사, 19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필자 안완식(安完植)

조류인플루엔자

정의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 조류를 숙주로 하는 급성 전염병.

내용 기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7년 홍콩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4년까지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사람이 감염되었다. 당시 인체감염은 가금류 섭취가 아니라 가금류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발표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르토믹소바이러스과*Orthomyxoviridae* 알파인플루엔자바이러스속*Alphainfluenzavirus*에 속하며, 포유동물과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청둥오리나 가창오리 같은 야생조류는 바이러스를 보유해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집오리나 거위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 2016년까지 전 세계 77개국에서 총 13종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종이 확인되었다. 가금류에서의 치명도에 따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한다. 닭은 감수성이 높아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70~80%가 폐사한다. 농장 발생과 전파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철새와 텃새의 접촉으로 인한 농장 유입, 오염된 차량과 사람, 감염 동물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유입된 축산물(냉동 계육, 오리육, 생계란 등), 발생국 농장 방문자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처음 발생해서 총 10개 시도 내 392개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당시 경제적 피해는 1,12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03년 이후에도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 오고 있어 2018년까지 총 945개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가나 사료 회사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육가공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는 축산업과 외식업 및 소매업의 피해와 방역 비용 증가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다. 2003년 발생 때에는 닭고기 수요가 25.6% 감소하였고, 소비 심리가



닭 | 화조도 중 부분 | 채용신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오리 | 화조도 중 부분 | 채용신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회복되는 데는 최소 1개월이 걸렸다.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가금류의 대규모 살처분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대안으로 백신 개발의 요구도 있지만, 인수공통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의 특성과 변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17년 익산의 한 동물복지인증 육계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사육된 동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농장 측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되어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농장 노동자와 현장 살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전형적인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군·구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후 노출일로부터 10일간 모니터링을 한다.

참고문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우병준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016), OIE(oie.int).

필자 천명선(千明宣)

조선도품종일람
朝鮮稻品種一覽

정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이 1913년에 발간한 조선 재래 벼품종 특성집.

내용 수원에 있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1911년(明治 44)과 1912년(大正 원년) 2회에 걸쳐 각도의 부·군에 의뢰하여 수집한 조선산朝鮮産 재래 논벼와 밭벼품종의 특성을 정리한 조사 결과집이다. 각 도의 부·군 지역별로 재배되는 벼를 논메벼, 논찰벼, 밭메벼, 밭찰벼로 나누고 각 품종에 대하여 현지에서 부르는 명칭과 숙기熟期, 까라기의 유무, 까라기의 색상, 벼 껍질의 색, 착립 밀도, 벼알의 대소, 가뭄 견딤성, 작부 비율 등을 조사·정리하여 1913년(大正 2)에 편찬하였다. 명칭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명칭은 모두 각 산지별로 부르는 것이 달라서 같은 의미를 갖거나, 동일 발음이나 유사한 발음이 있어 될 수 있는 한 비교적 널리 사용하는 것을 적었으나 워낙 복잡한 일이라 완벽하지 않을 듯하여 독자분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였다.

『조선도품종일람朝鮮稻品種一覽』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벼품종(2개 군 이상에 분포하는 품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논메벼: 가덕도加德稻, 가림도佳林稻, 각씨도閣氏稻, 갑산도甲山稻, 강릉도江陵稻, 갱나도粳糯稻, 갱도粳稻, 거창도居昌稻, 경도京稻, 경상도慶尙稻, 고도雇稻, 광도廣稻, 광주도光州稻, 구월도九月稻, 궐도蕨稻, 귀도龜稻, 금도錦稻, 기도機稻, 난상도難上稻, 남도南稻, 냉도冷稻, 노인도老人稻, 녹두도綠豆稻, 능금도凌金稻, 다다도多多稻, 다목도多木稻 단도檀稻, 단양도丹陽稻, 단항도短項稻, 달도達稻, 대골도大骨稻, 대구도大邱稻, 대궐도大闕稻, 대명도大明稻, 덕도德稻, 덕부지도德不知淘, 도도島稻, 도사도道士稻, 두도豆稻, 두릉가도斗陵佳稻, 두충도斗充稻, 류도柳稻, 만도晩稻, 망태도芒太稻, 맥도麥稻, 모녹도毛綠稻, 모리도毛利稻, 모만도毛晩稻, 모농도毛農稻, 모록도毛綠稻, 모화도毛化稻, 목흑도目黑稻, 몰롱도沒朧稻, 몽굴도蒙屈稻, 몽금도蒙金稻, 몽동도蒙童稻, 몽실도蒙實稻, 무모도無毛稻, 무수도無鬚稻, 무술도戊戌稻, 무안도務安稻, 무염도無髯稻, 무주도茂朱稻, 미도米稻, 밀다리도密多利稻, 박달도朴達稻, 박도朴稻, 박자천이도朴子千伊稻, 배탁도背坼稻, 백다다도白多多稻, 백도白稻, 백석도白石稻, 백천도白川稻, 법광도法光稻, 변득도變得稻, 불도佛稻, 사도沙稻, 산다다도山多多稻, 산도山稻, 산두도山頭稻, 산자도山紫稻, 산조도山早稻, 삼소도三笑稻, 삼수도三穗稻, 상모도象毛稻, 서도黍稻, 서해도西海稻, 석도石稻, 석상도石相稻, 소도素稻, 소로리도小露里稻, 소서도小暑稻, 수도水淘, 수상도水上稻, 수원도水源稻, 수정근도水精根稻, 승도僧稻, 시도矢稻, 시부지도時不知稻, 안진도安進稻, 앙금교도央今橋稻, 애달도愛達稻, 야충도野充稻, 양도洋稻, 양노리도襄老利稻, 양산도梁山稻, 억척도億尺稻, 여수역

도麗水驛稻, 여실도呂實稻, 연안도延安稻, 염도髯稻, 영산도靈山稻, 영색도永色稻, 영천도榮川稻, 오돌충도五突忠稻, 오명개도五明介稻, 오양도五陽稻, 옥산도玉山稻, 옥자항도玉字杭稻, 온양도溫陽稻, 올창도[蚪稻], 왕대도王大稻, 왕충도旺充稻, 왜도倭稻, 왜미도倭米稻 왜산도倭山稻, 외대도外大稻, 외도外稻, 용천도龍川稻, 우두도牛頭稻, 월도月稻, 운봉도雲峰稻, 원산도元山稻, 유도酉稻, 유두도流頭稻, 율도栗稻, 은다다도銀多多稻, 은도銀稻, 인동도仁同稻, 인부지도隣不知稻, 일천도一千稻, 임도荏稻, 자광도紫光稻, 자다다도雌多多稻, 자도紫淘, 자변도紫釆稻, 자치도雌雉稻, 잡도雜稻, 장군도將軍稻, 장사도壯士稻, 저도猪稻, 적다다도赤多多稻, 적맥도赤麥稻, 정근도精根稻, 정달도正達稻, 정도正稻, 정읍도井邑稻, 정주도定州稻, 제과도堤過稻, 조도棗稻, 조동지도趙同知稻, 종화도宗禾稻, 주지도主地稻, 중도中稻, 중실도中實稻, 진도眞稻, 진안도鎭安稻, 천다리도泉多利稻, 천도泉稻, 천상도天上稻, 청도靑稻, 치도雉稻, 칠승도七升稻, 토수도土守稻, 함부도含富稻, 항축도項縮稻, 해남도海南稻, 호란도好爛稻, 홍다다도紅多多稻, 홍도紅稻, 홍두도紅豆稻, 화도火稻, 황도黃稻, 흉년부지도凶年不知稻, 흑다다도黑多多稻, 흑대구도黑大邱稻, 흑도黑稻 등 579품종.

2. 논찰벼: 가위나可爲糯, 각씨나閣氏糯, 강릉나江陵糯, 갱나粳糯, 경나京糯, 경상나慶尙糯, 고종나菰種糯, 관나鸛糯, 구령나九靈糯, 궐나蕨糯, 금나錦糯, 기나機糯, 나도糯稻, 노인나老人糯, 녹두나綠豆糯, 니나泥糯, 다다나多多糯, 다목나多木糯, 단목나丹目糯, 단항나丹項糯, 대골나大骨糯, 대구나大邱糯, 라나羅糯, 만나晩糯, 맥나麥糯, 모금나毛今糯, 모나耗糯, 모농나毛農糯, 목흑나目黑糯, 몽금나蒙金糯, 무모나無毛糯, 무안나務安糯, 미나米糯, 반나班糯, 방나房糯, 백구나白狗糯, 백나白糯, 벽나蹙糯, 변득나變得糯, 변색나變色糯, 사나沙糯, 산두나山頭糯, 상모나象毛糯, 서나黍糯, 승나僧糯, 앙나秧糯, 앵나鶯糯, 양근나陽根糯, 양품나良品糯, 언나鰋糯, 열나熱糯, 영산나靈山糯, 왜나倭糯, 우두나牛頭糯, 우미나牛尾糯, 유나鰡糯, 유두나流頭糯, 유월나六月糯, 윤모녹나潤毛綠糯, 은나銀糯, 인부지나隣不知糯, 자치나雌雉糯, 저나猪糯, 전라나田螺糯, 점나粘糯, 정근나精根糯, 정명나正名糯, 조나棗糯, 조동지나趙同知糯, 좌나坐糯, 좌도坐稻, 중실도中失稻, 진나眞糯, 질나質糯, 차달도次達稻, 청두도靑頭稻, 추석나秋夕糯, 치나雉糯, 칭찰도稱察稻, 토산도兎山稻, 토산모도兎山毛稻, 포도匏稻, 풍기도豐基稻, 함흥도咸興稻, 합천도陜川稻, 항단나項短糯, 호경도胡京稻, 호란나好爛糯, 호승나好勝糯, 홍나紅糯, 홍두나紅豆糯, 홍왜도紅倭稻, 홍원도洪原稻, 황나黃糯, 황모나黃毛糯, 황서나黃鼠糯, 황주나黃州糯, 황주도黃州稻, 흉년부지도凶年不知稻, 흑경도黑京稻, 흑나黑糯, 흑다다도黑多多稻 등 223품종.

3. 밭메벼: 노인도老人稻, 녹산도綠山稻, 다다도多多稻, 맥도麥稻, 모화도毛化稻, 목산도木山稻, 밀다리도密多利稻, 산도山稻, 산두도山頭稻, 석상도石上稻, 옥산도玉山稻, 왜도倭稻, 왜산도倭山稻, 용천도龍川稻, 육도陸稻, 전도田稻, 홍도紅稻, 흑도黑稻 등 74품종.

4. 밭찰벼: 가위나可爲糯, 경나京糯, 구령나九靈糯, 금나錦糯, 라나羅糯, 산나山糯, 산두나山頭糯, 상모나象毛糯, 서양나西洋糯, 석상나石上糯, 양품나良品糯, 육나陸糯, 저나猪糯, 전나田糯, 조나棗糯, 칠일나七日糯, 황서나黃鼠糯, 흑나黑糯 등 55품종.

특징 및 의의 이 책에 나온 품종은 모두 1,451품종인데 같은 품종을 다르게 표기한 것을 제외하면 931품종이 된다. 즉 논메벼가 579품종, 논찰벼가 223품종, 밭메벼가 74품종, 밭찰벼가 55품종이다. 이 품종들은 한반도에 전해지던 모든 벼품종인데, 새로 육종된 품종의 보급으로 대부분은 멸종되었으나 그중 121품종과 또 다른 일부 한국 토종벼를 포함하여 186품종이 일본 규슈九州대학에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국 토종벼품종들은 1990년 이후에 재도입되어 농촌진흥청 국립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朝鮮稻品種一覽(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13).

필자 안완식(安完植)

조선 반도의 농법과 농민

정의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1892~1946)가 1919년부터 1946년까지 권업모범장에서 근무하며 전국을 다니면서 농촌·농민·농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농사 관련 기록을 모은 자료를 1991년 일본에서 출판한 책.

개관 다카하시(타카하시) 노보루의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은 이누마 지로飯沼二郎, 다카하시 고시로高橋甲四郎,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편저의 『타카하시 노보루의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미래사, 1998)이다. "조선으로 살러 간다."라거나 "한 줌 조선의 흙이 되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조선의 땅을 믿고 사랑하며 긍지로 여겼던 다카하시 노보루는 가와타 히로시河田宏의 책명 『조선전토를 답사한 일본인 농학자, 타카하시 노보루』나 김용권의 책 『타카하시 노보루, 평생을 조선 농법 연구에 바친 일본 농학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15~1918년의 고마바농학교(현 도쿄대 농학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19년부터 광복 직후인 1946년까지 권업모범장에 근무하며 조선 농업의 연구·조사에 평생을 바쳤다. 특히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에 저술된 조선 농업의 연구는 6~8월에 집중되는 빗물의 효과적인 이용체계를 서술한 『농사직설農事直說說』과 『농가집성農家集成』, 『산림경제山林經濟』 그리고 『과농소초課農小抄』 등의 학습을 통하여 터득한 결과로서 2년3작법으로 토지이용률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는 세계 최강의 집약농법이라는 농학이론을 다시 세웠다. 또한 그가 연구하여 터득한 조선의 전통농법은 논의 이모작법이나 휴립재배 그리고 밭의 혼작법混作法을 비롯한 2년3작식 작부체계에 있었다. 이들 연구는 권업모범장의 연구시설을 벗어나 8도의 농지와 농촌, 농가와 농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어져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현지답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예산과 시간을 이용하여 1933년부터 1943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는 직접 촬영한 수많은 사진과 스케치한 그림을 포함하여 자료를 기록하였다. 그림들은 각 농사 모습의 특징과 요점을 쉽고 날렵하게 그리고 있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자료는 이후 광복과 더불어 귀국하는 일본인 후배 동료들을 통하여 일본으로 옮겨졌으나 적지 않은 자료가 도중에 소실되었다. 그는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과 제자 동료들이 자료를 모아 이 책을 편저로 출간하였다. 이 책의 출판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이 지원한 1990년의 출판조성금과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1997년도 출판조성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내용 이 책은 총론과 영농실태조사, 농민생활조사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총론은 앞으로의 조선 농업에 대한 내용, 주요 농작물의 작부방식과 토지이용, 인삼경작 상황조사, 메밀에 관한 시험성적(예보), 감자 냉동건조법에 대한 것, 냉동감자 제조성적, 논의 잡초에 관한 연구, 조선반도의 쟁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학문적 연구 성과였다. 저자가 조선에 와서 권업모범장에 근무하는 동안 주력한 관심 분야와 연구 성과는 주요 농작물의 작부방식과 토지이용, 즉 전통 재래의 농법인 혼작법과 2년 3작식 조선 농법이었다. 조선에 와서 이룩한 그의 괄목할 만한 업적인 유전·육종학적 성과(박사학위 논문 내용)와 논 휴립재배법, 밀 재배 및 이용 연구 등은 이 책의 제한된 원고 분량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두 번째, 영농실태조사는 이 책의 주 내용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의지와 계획, 자신의 경비와 시간 그리고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으로서 팔도강산의 지역 방언을 일본어 방식으로 급히 메모하듯 기록한 '가라カラ耕(애벌갈이 또는 헛갈이)' '침경沈耕(두벗듸기, 멍에질, 소돌기 즉 벼개갈이)' '전조혼작田條



조선 반도의 농법과 농민 유고 | 그때 이 사람, 타카하시 노보루 | 구자옥 | 민속원

混作(줄뿌림섞어짓기)' '고네미식(골넘어식)' '노베기식(노갈이식)' '마메차豆茶(밤콩)' '모찌도리(비틀어뽑기, 즉 훔쳐뽑기)' '차지(바퀴가지)' '현근玄根(유색근, 표면노출근)' '단책묘대短冊苗垈(병풍못자리)' 등이 그런 사례이다.

다카하시 노보루의 조선팔도 답사기는 편집상 전라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순으로 출판되어 있지만, 실제 여행은 저자의 근무 입지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전라도 일원(1차): 1939. 2. 26.~28. ②전라도 일원(2차): 1939. 10. 13.~18. ③전라도(제주도): 1393. 5. 20.~6. 3. ④경상남도 일원: 1940. 11. 13.~25. ⑤경상북도 일원: 1937. 7. 6.~8.과 1937. 9. 6.~7. ⑥충청도 일원: 1934. 6. 30., 1938. 11. 6.~8., 1939. 10. 12.~13., 1940. 2. 25. ⑦경기도 일원: 1937. 12. 7.~10., 1943. 7. 3.~9. ⑧강원도 일원: 1937. 9. 27.~10. 5., 1939. 7. 2.~8. ⑨황해도 일원: 1933. 9. 20.~22., 1934. 7. 13.~16., 1934. 7. 22., 1935. 8. 1. 충청도 일원: 1934. 6. 30., 1938. 11. 6.~8. 남선·경주 일대: 1939. 10. 12.~13., 1940. 2. 25. 평안도 일원: 1937. 10. 24.~11. 1. 함경도 일원: 1938. 6. 30.~7. 16.

셋째, 농민생활조사 기록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농촌실태조사에 섞여 기록된 내용과 별도로 팔도의 다양한 일상식日常食을 공통화하여 제시하였고, 명절 음식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각지의 명물 먹거리를 조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에 당대를 주도한 일본인 농학자들은 조선의 전통농업을 경시하고, 조선의 재래농업기술을 존중하는 의식이 없었다. 이 틈에서 "일본에 가르칠 것은 있어도 배울 것은 없다."라거나 "한 줌 조선의 흙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한 다카하시 노보루가 출현한 것이다. 조선 재래농업의 작부방식이야말로 500년 전부터 서양의 윤작법과 비교해도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팔도를 돌아다니며 농촌·농민·농사의 실태를 조사·기록한 책이다. 마치 20세기 초반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이 겪었던 숙명적 격랑과 그 속에 죽지 않고 살아 꿈틀대던 전통재래의 원천(합리적·숙명적 농사의 이치)을 깨우쳐 알게 한다.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한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은 출간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 …… 식민지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을 멸시하였지만 다카하시는 조선 재래농법의 뜻과 자료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1945년(광복) 이후 조선 농업은 크게 변모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조선의 재래농법이 지니는 가치를 조사하여 밝힐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유일한 자료이다. 현대 농업의 기초를 이루는 재래농법의 실태를 보여 주는 이 책의 출간이야말로 오늘의 남한이나 북한의 농업발전에 대하여 지혜롭게 밝혀 줄 최대의 공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그때 이 사람, 타카하시 노보루(구자옥 외, 민속원, 2013), 우리 농업의 역사 산책(구자옥, 이담북스, 2011),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상·중·하(다카하시 노보루 외, 구자옥 외 역, 민속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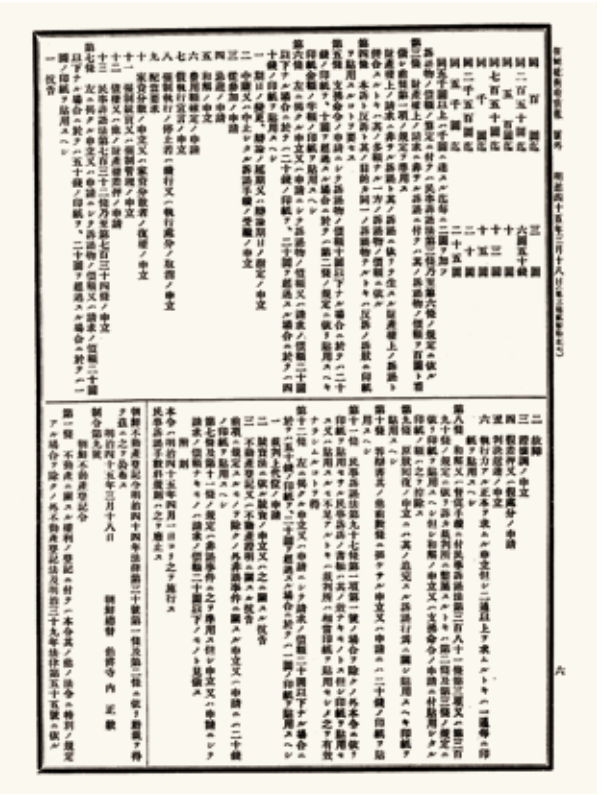
필자 구자옥(具滋玉)

조선부동산등기령
朝鮮不動産登記令

정의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9호로 발표된 등기제도에 관한 법령으로 부동산의 매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권을 발행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였다. 〈토지조사법〉에 규정된 지권발행 규정을 〈토지조사령〉에서는 삭제하고 일본 〈부동산등기법〉을 한국에 적용하여 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사회를 재편성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나 금융자본이 부동산 담보를 바탕으로 한 금융제도를 확립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제도는 소유권이 확정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제도였다. 즉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실시할 수 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조선부동



조선부동산등기령 | 조선총독부 관보 | 일제강점기 | 국립중앙도서관

산등기령〉과 함께 〈조선부동산증명령〉을 공포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근거하여 증명제도를 적용하고, 토지대장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기반으로 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증명과 등기는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1914년 4월 〈토지대장규칙〉이 발표되어 토지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었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등기부를 작성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제도는 1914년 5월 1일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경성부 및 11부 17시가지부터 시행되었다. 1918년 7월에는 12부 218군 2도에 등기소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12년 3월 18일 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은 부칙 포함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899년 2월 법률 제24호로 공포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조선부동산등기령〉이 발표된 시점에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갖추어진 지역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이 법령이 적용된 것은 1914년 5월 1일에 개정되어 발포되고 같은 날 시행된 〈조선부동산등기령〉이다.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은 부칙 포함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본 조항은 총 4개였다. 먼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전당권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부동산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다. 일본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적용대상은 한국 직제에 따라 조정되었다. 일본 사법대신의 역할은 조선총독이 담당하였으며, 부·현은 도에, 시는 부에, 정촌은 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종 등기부는 부 또는 면별로 별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등기 사건이 과다한 부나 면에서는 별책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토지조사를 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부윤 또는 군수의 인증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었다.

부칙은 6개 조항이었다. 먼저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지역 및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등기법〉 혹은 〈조선부동산증명령〉에 근거하여 진행한 등기 또는 증명은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 이전에 등기 또는 증명을 한 부동산에 대한 처리 규정은 제8조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등기 및 증명 용지를 폐쇄해야 하였다. 등기관리는 이전에 행한 등기 및 증명의 결과와 다를 경우 가등기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부동산등기령〉은 한국에서도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된 〈조선민사령〉과 연관되어 물권의 득상,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등기를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하였다. 〈조선부동산등기령〉을 통해 등기를 받음으로써 불확실하였던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권이 법

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일병합 이전부터 일제가 시도한 일본인의 토지소유권 보장은 조선토지조사사업과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완성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 등은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장애 없이 토지를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일제초기 조선부동산 등기제도의 시행과 그 성격(최원규, 한국민족문화5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한국토지용어사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16), 한말 일제 초 토지소유권 법령의 제정과 의미변화(남기현, 역사연구36, 역사학연구소, 2019), 관보465 호외(조선총독부, 1912.3.1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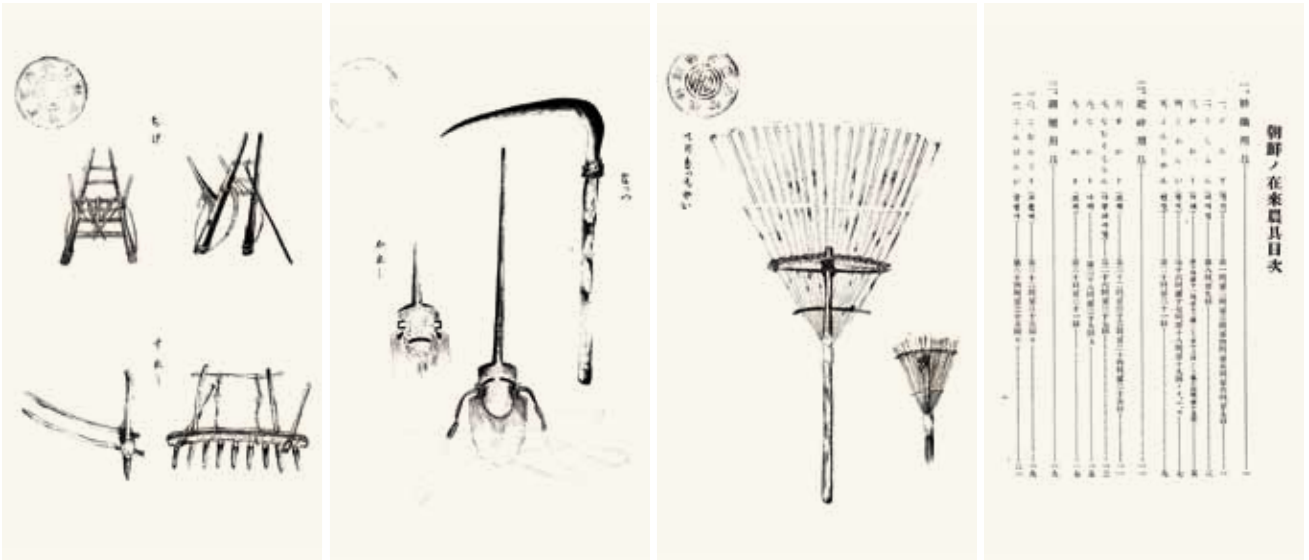
필자 남기현(南基玄)

조선의 재래농구

정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소속 기사와 기수에게 명하여 재래농기구의 개요를 조사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및 사진과 함께 편찬하여 1925년 간행한 보고서.

내용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장 다이쿠하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의 서언과 범례, 목차 외에 본문 114쪽, 채색 도판 6쪽, 흑백 도판 73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조선의 재래농기구 77개를 모두 14개의 범주로 나누어 농기구마다 명칭, 형태, 용도, 공정, 사용연한, 가격을 차례로 적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명칭은 일본어·한자·한글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아래에 관련 도판의 번호를 열거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본문 서술은 당대의 일반적인 농학 및 농업기술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조선의 농업과 농법, 농기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평가를 거의 배제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범례와 목차 사이에 6쪽에 걸쳐 작성된 채색 도판 면에는 11개의 농기구를 그린 17개의 그림이 실렸고, 농기구 설명을 읽으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본문 중간에 삽입된 흑백 도판 면에는 그림 81개와 사진 91개 등 모두 172개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은 주로 실측 수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농기구 실측 및 해설 방식은 일본 농상무성에서 사용하는 조사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동저자 중 기사技師로 직급이 높은 가토기 야스지加藤木保次는 1886년(明治 19) 일본 후쿠시마현의 옛 미하루번三春藩 번사藩士 집안에서 태어나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 위치한 도호쿠東北제국대학 농과대학(삿포로농학교의 후신이며 후일 홋카이도제국대학 농과대학)을 졸업하였다. 홋카이도청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22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기사로 발령을 받아 조선에 왔다. 이후 경상남도 산업과장(1925)과 같은 도 초대 농무과장(1927)으로 있으면서 총독부 전매국 대



조선의 재래농구 | 국립중앙도서관

구전매지국 기사를 겸하였으며, 이후 함경남도 농무과장(1929)을 거쳐 1930년 일본 요코하마시橫濱市 산업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조선을 떠났다. 『조선의 재래농구』 외에 『농업문답집農業問答集』(北海道農友會, 1913)의 편저자이며, 『조선에서 주요작물분포의 상황朝鮮ニ於ケル主要作物分布ノ狀況』(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23)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38년에는 일본 만국박람회 출품 부장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업모범장에서 경상남도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함경남도를 거쳐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농학자에서 행정가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또 다른 저자로 책 발간 당시 기수技手였던 시미즈淸水央의 경우 그 이전 세부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923년에는 이미 권업모범장 기수로 있었다. 권업모범장에 1925년까지 재직하였고 1926년에는 경상남도 산업과와 농무과 기수로 근무한 점으로 미루어 가토기와 함께 공직경력을 쌓아 갔던 것으로 보인다. 가토기가 조선을 떠나고 몇 달 후인 1930년 7월 도기사 승격 및 함경남도 발령과 함께 명예퇴직[榮進退官]하였는데, 1933년 경상남도 토목과 촉탁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 퇴직 후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조선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이 책은 광복 이후 한국 민속학계가 생산한 재래농기구 분류해설서의 원형에 해당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자료상으로 참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에 이어 관련 도판의 번호와 이칭을 나열하고 본문 사이에 사진과 그림, 실측 수치를 조합한 도판들을 적절하게 삽입하면서 그 형태, 용도, 공정, 사용연한, 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이는 가토기와 시미즈의 작업방식이 지닌 서술의 효율성과 학문적 객관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일본인 농학자들의 조선에 대한 농업 식민화 의도를 상쇄하는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책의 학술적 의의에 대한 평가에까지 인색할 이유는 없다.

반면 농기구의 재료, 부분명칭, 작업방식이나 작업집단, 관련 의례 등의 서술은 이 책에 아예 없거나 매우 소홀하다. 이는 당시 일본 농학의 조선 재래농법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77개의 농기구를 분류하는 14개의 범주는 다소 어지럽고 단순 나열에 그치며, 따라서 체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광복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개선이 시도되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종합에 이르지 못한 것은 『조선의 재래농구』가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아래 표는 그와 같은 종합을 염두에 두고 몇몇 주요 농기구 분류해설서의 분류체계를 대조한 것이다.

조선의 재래농구 (1925)	한국의 농기구 (1969)	한국의 농기구 (2001)	한국의 전통 농기구 (2014)	
경서 용구	가는 연장	갈이 연장	일구기	갈이
파쇄 용구	삶는 연장	삶이 연장		삶이
진압 용구				
파종 용구	씨뿌리는 연장	씨붙이기 연장	심기	씨붙이기
시비 용구	거름주는 연장	거름내기 연장		거름내기
중경제초 용구	매는 연장	김매기 연장	기르기	김매기
관개 용구	물대는 연장	물대기 연장		물대기
				모내기
수확 용구	거두는 연장	거두기 연장	들이기	거두기
조제 용구	터는 연장			떨기
	고르는 연장	고르기 연장		고르기
	말리는 연장	말리기 연장	갈무리	말리기
	갈무리 연장	갈무리 연장		담아두기
운반 용구	운반 연장	나르기 연장		나르기
정곡정분 용구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방아 연장	가내생산	음식
축산 용구	축산 연장	축산 연장		축산
농산제조 용구	농산제조 연장	짚 가공 연장		짚 가공
		길쌈 연장		길쌈
잡용구	기타 연장	기타 연장	(기타)	

위의 표에서 농기구 범주의 배열 순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재래농구』를 따랐는데, 하나의 표로 종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반 용구와 정곡정분 용구의 순서만을 서로 바꾸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령 『조선의 재래농구』는 파쇄 용구와 진압 용구를 구별하고 전자의 범주에 쓰레(써레)·나무쇠시랑·나레(나래)가 포함되고, 후자에 고문데·곰방이가 포함된다고 적

었지만 현대의 농업민속 연구자들은 이 두 범주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조제 용구는 오늘날 더 세분하여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의 시도조차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졌고 또『조선의 재래농구』이래 나열적인 농기구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학술적 대안 모색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조선의 재래농구』범례에 적혀 있듯이 이 책은 수원 지역의 농기구와 그 명칭을 기본 축으로 삼아 지역별 형태와 명칭, 기타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서술을 부분적으로 더해가는 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간명한 전달과 효과적인 편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된 서술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시로서는 재래 농법과 농기구에 대한 일본인의 이해가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결과 농기구 분화발전의 지역적 맥락이나 환경적 특수성으로부터 농법과 농기구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중심, 형태 및 공정 중심으로 농기구와 농법을 이해하려는 편향이 생겨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의 재래농구에 관하여(오토마스 시게다카, 조선의 재래농구, 한국무속박물관, 1995),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의 전통 농기구(양선아, 농촌진흥청, 2014), 日本研究のための歷史情報(jahis.law.nagoya-u.ac.jp).

필자 안승택(安勝澤)

조선인삼경작기
朝鮮人蔘耕作記

정의 1765년 사카노우에 노보루坂上登가 조선인삼 경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

개관 『조선인삼경작기』는 초판인『인삼경작기』와 재판『조선인삼경작기』의 두 종류가 있다. 초판은 1747년에 쓰였고 1748년에 간행되었으나, 1760년의 화재로 판본이 소실되어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는다. 다시 초판을 증보하여 쓴 재판은 1764년 10월에 간행이 허가된『조선인삼경작기』로서 실제 판행된 시기는 1765년 5월 14일이다. 저자인 사카노우에 노보루(1718~1776)는 오타니가大谷家의 겐유元雄였으나 15세에 다무라가田村家의 양자로 입적되어 성은 다무라, 이름은 노보루, 호는 난스이藍水, 통칭은 겐유로 불리었다. 또한 다무라가의 원조가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坂上田村麻呂여서 겐유는 성을 자주 사카노우에로 사용하였다.

이 책의 자서自序와 말미에는 '사카노우에 겐다이坂上玄臺'라고 서명되어 있고 본문 모두에는 '동도東都 난스이 다무라 겐유 겐다이 편'이라 기록되어 있어 다소 혼란이 있으나, 이 모두 사카노우에 노보루를 지칭한다. 이 책은 1737년 여름, 겐유 나이 20세 때에 쇼군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조선인삼 종자 20알을 하사받아 이를 자신의 밭인 백화가百花街에 뿌리고 번식시킨 과정을 그림까지 곁들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표지의 책명은『조선인삼경작기』이고 책의 구성은 1748년과 1764년의 서문, 1763년의 자서自序를 합한 6매에 본문 29매, 그림 34개, 제미題尾 2매, 후서後序 2매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일본에 조선의 인삼이 알려진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으킨 임진왜란(1592~1596) 이후부터이다. 인삼은 정상적인 유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귀한 약품 재료로 일부 귀족과 상류사회에서 쓰이게 되었다. 도쿠가와(에도) 막부 200여 년(1603~1867)에 걸쳐 조선인삼의 자국 내 번식과 기술재현 및 재배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메이지시대(1868~1912)에는 〈약초의료법〉을 성행시켜 인삼 재배기술의 오류를 잡고 기틀을 세우게 되었다. 인삼 재배의 시초가 1716년 상어원上御苑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결국 정상적인 재배기술은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실전경험론을 바탕으로 쓰인『초목육부경종법草木六部耕種法』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일본 내 생산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조선인삼은 금수禁輸 조치로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때 조선삼 재배법 재현과 그 기술 보급을 위한 '약초어용서상藥草御用書上'을 발의한 사람, 사카노우에 노보루가 출현하였다. 식물학적인 진인삼眞人蔘은 조선에서 나는 고려삼이기 때문에 당시 일

본에는 진인삼이 없었는데, 1744년에 조선인삼 종자 515알을 심어 꽃을 피우기에 이르렀으므로 장차를 위하여 재배시험을 하였던 것이다.

이미 도쿠가와 막부는 1720년경 닛코산日光山에 인삼포를 설치하고 어용삼御用蔘을 심기 시작하였고, 사카노우에 노보루는 최초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막부는 1720년 8곳에 직할 어약원을 설치하고 인삼 뿌리나 종자를 이용한 조선삼 재현과 번식법 터득에 성공하였다. 그 첫 열매를 얻은 사람은 사카노우에 노보루의 스승인 아베阿培로, 그는 1728년에 에도의 어약초식장 950평 포장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1744년에는 조선인삼 515알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채종까지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제자인 사카노우에 노보루는 에도의 사택에 백화원이라는 포원을 열고 수많은 종류의 인삼을 수집하여 번식재배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1737년에 조선인삼 씨앗 20알을 하사받아 자신의 백화원에 심어 12뿌리를 번식시켰으며, 이들을 28년생으로까지 키우는 기록을 세웠다. 28년생은 뿌리 길이가 1자, 줄기 키가 3~4자, 1포기당 100여 알의 종실을 결실하는 거대한 인삼 실체였다.

저자는 자신의 다년간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인삼 재배요령이나 약제제조법을 보다 쉽고 실용적인 글로 써서 전문의와 취급상, 재배농과 제조기술자들에게 보급하려는 의도로 이 책의 재판 증보판을 썼다. 일본은 조선과 달랐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조선의 재배법 재현으로 이어졌다. 그의 책에는 종수집[種收方], 씻기[洗滌方], 심기[蒔方], 뿌리나누기[屋根挂], 이식밭벌채법[移植畑伐方], 토양종류가리기, 해충의 형태와 피해상황 및 병충해 방제법, 비배관리, 경엽제거, 뿌리형상구분 등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알기 쉽게 기록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조선인삼의 모든 성공적 재현을 포괄할 만큼 방대하였고 또한 완벽한 것이었다. 특히 활엽수를 심은 모양을 통해서도 인삼의 포장 주변에는 조선의 인삼 재배포 환경을 그대로 흉내 내어 모방함으로써 재현코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모방은 어느 때라도 조선과의 국교와 교역이 단절될 경우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였다. 『조선인삼경작기』의 판행을 허가하면서 1764년 윤 12월에 나온 고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세상의 인삼 품절(부족)로 인해 서민과 같은 경시받는 자들은 병이 나도 손쉽게 상용하기 어렵고 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관해, 일본에서 가능하다면 만민구제를 위하여 조선에서 인삼을 들여와 야주금시변野州今市辺에 경작시켜 그 효능을 시험한바 조선인삼과 다르지 않았으므로 어떻게든 소출을 많게 하여 서민들에게까지 미치도록 자주 돌보게 해야 한다.

『조선인삼경작기』의 서책 평가로 『인삼사人蔘史』를 집필한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조선인삼경작기 | 국립중앙도서관

삼포參圃 주위에 활엽수를 심어 그늘을 만드는 요령을 빼고는 모든 내용이 지금(1934~1940)의 조선재배법에 다름없다. 당시 일본에서는 어쨌든 본받을 만한 어떤 지침도 없었다. …… 특히 병충해에 대하여는 본책만큼 제대로 기술한 책이 없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도 본 책의 내용을 능가하는 지침이 없을 정도임을 인정받는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인삼경작기』는 근세 일본에서 저술된 조선인삼 재배법에 관한 어떤 저술보다도 세밀하고 평이하게 기술된 책이다. 다만 이때까지도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조선)에서 조선삼의 유전적 우수성을 알리고 그 생리와 생태, 재배법과 방제법, 가공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연구나 서적편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

참고문헌 그때 이 사람, 사카노우에 노보루(구자옥 외, 민속원, 2014),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조선토지조사사업
朝鮮土地調査事業

정의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시행되었으며 식민지적 토지정책이 완성되는 데 근간이 된 사업.

내용 조선토지조사사업은 한일병합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일제가 토지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 것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대한제국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이 발표되었고, 이후 이 법령을 보완하는 후속 법령들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통감부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하여 역둔토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국유지조사'를 진행하였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역토, 둔토, 궁장토 등을 '역둔토'로 통합한 후 국유지國有地로 간주하였다.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국유지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면적, 소작농, 소작료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적은 '국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국유지조사'에 의해 국유지와 민유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이때 조사된 '국유지대장'은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유지를 조사하는 기본 장부가 되었다.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장부帳簿들도 정비하였다. '결수연명부'라는 징세대장이 작성되었고 '결수연명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과세지견취도'가 제작되었다. 이 장부들은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국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편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대만,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토지소유권 상실에 대한 위험, 강압적인 토지조사 규정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지체된 원인이었다. 1912년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등기령〉 등이 발표되면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토지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사대상 지역과 시행 날짜를 공고하면 해당 지역에 조사를 담당할 '외업반'이 파견되었다. 외업반원들은 면·리·동장, 지주총대, 지주들을 소집하여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토지신고서' 용지를 배포하였다. 토지소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지주총대는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는 지주총대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와 대조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토지의 지주, 경계, 지목, 지번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실지조사부'에 기입되었다. 세 장부의 대조가 끝난 후에는 토지의 지번과 토지소유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토지조사부'가 만들어졌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주로 기입되면 '사정査定' 명의인이 되었다. '사정'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의 사실상

최종 단계였다. '사정'은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였다.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토지소유권이 새로 시작된다는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이나 사정 공시 후에 이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200필당 1필꼴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 소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규정한 일본 민법이 한국에 적용되면서 중답주의 권리나 도지권과 같은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의 토지에 농민의 권리와 지주의 권리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지주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유지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조선총독부는 최대 지주가 되었다. 반면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동·리·계는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촌락공유지는 면이나 지방 유지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향촌의 자치질서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개간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도 소멸되었다. 관습적으로 농민의 소유지로 인정해 온 하천 변의 공지空地, 포락지浦落地, 니생지泥生地 등이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지가에 의한 지주납세제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지세 납부자를 지주로 확정하여 지세 수납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로 세금징수 대상지는 1910년에 비해 80.7%가 늘어났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부동산등기제도가 확립되는 기반이 되었다. 결국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전통적인 토지제도가 해체되었으며, 일본 민법의 규정을 받는 토지제도로 재편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식민지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었다.

참고문헌 근대 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이영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8),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선인, 2014), 일제하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 연구(남기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조선토지조사사사업보고서(조선총독부, 1918),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조선곤, 해남, 2003),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조사사업(최원규, 혜안, 2019).

필자 남기현(南基玄)

종다래끼

정의 곡식이나 채소 등을 담기 위하여 풀이나 대나무로 만든 아가리가 좁고 끈이 달린 작은 바구니.

역사 종다래끼가 언제부터 농사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농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파종에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농서에서는 종다래끼, 다래끼, 씨삼태, 씨망태 등이 혼용되어 있고, 따로 구분하여 기록한 문헌을 찾기 어렵다. 다만 1778년(정조 2)에 간행된 『방언유석方言類釋』에 다른 씨 뿌리는 도구가 청상靑箱이라고 적혀 있으며 종다래끼는 령苓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파종은 작물의 씨를 논밭에 뿌리는 일로서, 봄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공정 중 하나였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파종 시기와 방법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왔다. 파종 시기에 사용하는 도구로 대표적인 것은 종다래끼, 다래끼, 씨삼태, 씨망태 등이 있으나 소쿠리, 뒤웅박, 말, 양재기 등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널리 사용되었다.

종다래끼는 씨앗을 넣어 보관하거나 파종할 때 사용하는 바구니의 일종이다. 아가리 양쪽에 끈이 달려 허리에 둘러 감거나 어깨에 걸쳐 사용할 때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콩, 팥, 조, 감자 따위를 심을 때 씨를 여기에 담아서 뿌린다. 또 산이나 들에서 캔 나물이나 깻잎과 고추 등의 농작물을 따서 담기도 하며, 농가의 어린이들은 이것으로 고기를 잡기도 한다.

종다래끼는 다래끼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짚이나 싸리로 만드나 지역에 따라 고리버들, 댕댕이덩굴, 대나무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농한기 때 집마다 수공예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과 만든 이의 솜씨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된다. 하지만 아가리가 좁고 바닥이 평평해 종자의 보관과 파종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은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종자
種子



종다래끼 | 충북 제천 | 1990년대 | 황헌만

종다래끼는 재질별로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겨울철 싸리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두드린 후 엮어 만들거나 대를 쪼개 가늘게 깎은 대오리를 교차시켜 만든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두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방형方形으로 바닥 면을 만들고 위쪽으로 가면서 둥글게 엮는다. 만드는 방법은 바구니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아가리는 좁게 만들어서 잘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싸리로 짠 것은 안쪽에 막대를 대어 놓은 것도 있다. 주로 양옆으로 매듭진 끈을 달아 어깨에 메거나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징 및 의의 종다래끼는 파종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직접 만들거나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마련하는 대표적인 농기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고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지만 바구니나 그릇 등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 이른 시기에 사라진 농기구이다.

참고문헌 方言類釋, 겨레 전통도감-농기구(이순수, 보리, 2009), 농기구(박대순, 대원사, 199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8(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경(金載暻)

정의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씨앗.

개관 식물학상의 뜻은 '유성생식有性生殖의 결과 수정에 의해서 배주胚珠가 발육한 것'을 말한다. 종자는 식물의 밑씨가 발달한 것이다. 겉씨식물과 속씨식물에 있으며, 지구상에 있는 식물 대부분이 씨를 통해 자손을 퍼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세이셸군도에 있는 자생 야자나무 열매로, 하나의 무게가 8~12*kg*에 이른다. 가장 작은 씨는 난초 종자로 에비비틱란과 우란인데, 무게가 1*gr* 당 110만 개로 1개 씨주머니에 700만 개의 씨앗이 들어 있다. 씨앗 속에는 씨가 싹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여러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사람을 비롯한 많은 동물은 곡물 등 식물의 씨앗 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간다.

내용 종자는 보통 씨껍질에 싸여 있으며 표면에는 배꼽이 있고 배꼽줄臍條 또는 봉선縫線이 있다. 또 종자는 배胚와 씨젖胚乳이 있는데, 배는 극히 작은 식물체이고 씨젖은 녹말이나 사탕·지방 등 양분과 생장호르몬 등이 함유되어 있다. 두류의 종자는 씨젖이 없고 떡잎에 양분이 저장된다. 식물의 수정작용은 벼·보리·밀·콩·땅콩·토마토 등과 같이 자가수정을 하는 것과 호밀·옥수수·무·배추처럼 타가수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중 호밀·옥수수는 바람을 매개로, 무·배추는 곤충을 매개로 수정된다.

종자가 발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수는 작물의 종류·품종 및 기후에 따라 다르다. 화곡류는 수정 후 5~6일로 이미 발아력이 있으며, 한번 성숙하면 휴면상태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전한 정상 발아력을 나타내게 된다. 종자가 갖는 휴면기간은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 휴면이 거의 없는 경우부터 몇 개월 혹은 씨껍질이 단단한 경실硬實 종자는 휴면기간이 몇 년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종자의 수명은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 다르며 채종지의 기후환경 그리고 종자의 숙도,

수분함량, 수확 조제 방법, 저장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 실내 조건에서 1~2년 생존하는 단명종자는 메밀·고추·토당귀·양파 등이고 2~3년 생존하는 상명종자는 벼·쌀보리·완두·목화·토마토이며, 4~5년 또는 그 이상 생존하는 장명종자는 콩·녹두·오이·가지·배추·아욱·연 등이다.

종자에서 유아·유근이 출현하는 것을 발아發芽, germination라고 하며, 발아한 새싹이 지상에 출현하는 것을 출아出芽, emergence라고 하는데, 출아도 발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발아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자는 적당한 조건, 즉 수분·온도 및 산소가 공급되면 발아한다. 종자에 따라서는 광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발아에 필요한 종자의 흡수량은 종자 무게에 대비하여 벼는 23%, 밀은 30%, 쌀보리는 50%, 콩은 100% 정도인데 토양이 건조한 경우에는 습한 경우보다 발아 시 종자의 함수량이 적다.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최저·최적·최고온도는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르다. 대략적으로 최저온도는 0~10℃, 최적온도는 20~30℃, 최고온도는 35~50℃이다. 대부분 종자는 호기호흡好氣呼吸이 잘 이루어져야 발아가 잘 되지만, 벼와 같은 것은 산소가 없는 경우에도 무기호흡無氣呼吸에 의하여 발아하기도 한다. 하지만 벼도 물이 너무 깊어 산소가 부족하면 유아幼芽만 도장徒長(웃자람)해서 뿌리의 생장이 불량한 상태가 된다.

종류에 따라서는 광선에 의해 발아가 조장되는 것도 있고 억제되는 것도 있다. 호광성종자好光性種子는 암흑 상태에서는 전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가 몹시 불량한 종자이다. 담배·상추·우엉·차조기·금어초·베고니아·뽕나무 등이 있다. 암발아종자暗發芽種子는 광선이 있으면 발아가 저해되는 종자로, 혐광성종자嫌光性種子라고도 한다. 호박·토마토·가지·오이·파·나릿과 식물이 대부분이다. 광무관계종자光無關係種子는 광선이 발아에 영향이 없는 종자로 벼·보리류·옥수수 등의 화곡류 대부분과 콩과 작물이 여기에 속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종자를 헛간·다락·천장 등에 매달아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존하였으며, 대다수 잘 말린 종자를 항아리나 유리병 등에 넣어 저장하였다. 저장 중 종자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습도, 온도, 산소이다. 고온·고습 조건 하에서 종자의 효소 활동이나 호흡작용의 촉진으로 종자의 수명은 짧아진다. 종자의 수명을 길게 저장하는 방법은 종자를 잘 건조 시킨 다음 건조제인 실리카겔을 넣고 밀봉하여 건조한 상태로 저온 저장하면 된다. 종자은행에서는 단기저장의 경우 잘 건조한 종자를 4℃에, 장기 보존할 종자는 영하 20℃에 밀봉하여 보존한다. 종자를 잘 건조하여 액체질소(영하 196℃)에 저장하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다.

종자는 작물 재배에서 양호한 생육 과정을 거쳐 양질의 농산물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실하고 적절한 종자의 선택과 육묘과정의 근본이다. 종자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종자의 생성과정 및 구조, 종자의 수명과 저장 방법, 종자 발아에 필요한 조건 등은 농업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참고문헌 재배범론(이은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3),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93), 종자학(L. O. Copeland, 최봉호·강광희 역, 향문사,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안완식(安完植)

종저보
種藷譜

정의 1834년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저술한 고구마[甘藷] 전문 농서.

개관 고구마 재배는 1766년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치농편治農篇 끝에 '감저종식법'으로 풀이되어 언급된 바 있다. 집필 내용이 강필리姜必履의 『강씨감저보姜氏甘藷譜』(연대 미상)와 일치하지만, 이 둘이 동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고구마가 왜국에서 1763년에 전래되었다는 소개와 함께 고구마의 성질·형태·색·맛·용도·수량 등이 설명되어 있고, 13개 항목의 장점이 열거되어 있다. 식재법으로는 옹절법擁節法과 단별근묘법段別根苗法이, 씨앗저장법으로는 씨고구마나 넝쿨 저장법이 소개되었고 그 뒤에 우리나라 재배요령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재배법은 서호수徐浩修의 『해

동농서海東農書』(1798~1799), 이광려李匡呂의 『이참봉집李參奉集』(1805), 저자·연대 미상의 『감저경장설甘藷耕藏設』, 서경창徐慶昌의 『종저방種藷方』(1813) 등의 저술·출간에 뒤이은 서유구의 본 책 『종저보』(1834)가 출간되면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참봉집』에 따르면 서유구의 집안인 호조판서 서상일徐相一은 중국에서 고구마를 도입하려 하였다. 서유구의 생부인 서호수는 『해동농서』에서 고구마를 언급하였으며, 서유구 자신도 『행포지杏蒲志』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하여 고구마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던 1834년에 서유구는 호남 순찰사로 임지任地를 순찰하다가 노령蘆嶺 일대의 평야가 황폐하므로 그 연유를 물었다. 그의 서문에서도 밝히듯이, 원주민의 답은 1809년과 1814년의 흉년 탓에 있었고 서유구는 이곳 구황에 고구마가 최선이라는 신념을 굳혔다. 남쪽의 씨고구마를 얻어다 보급하는 동시에 명나라 서광계의 『감저소甘藷疏』와 우리나라 강씨 및 김씨의 『감저보甘藷譜』를 일별하며 요점과 사견을 정리하여 『종저보』를 집필·배포하였다. 당시에는 관찰사가 수령의 행적과 민정을 살피는 순찰사를 겸하였으므로, 그의 『종저보』는 광주목 장관인 관판官版임이 책 표지 뒤쪽에 명기되어 있다. 1834년은 이참봉이 고구마를 서울에 가져왔다는 1764년 이래 70년이 되는 해였다.

『종저보』의 사본寫本은 일본 동양문고에 그리고 간본刊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국회도서관, 종로도서관, 일본 덴리天理대학교, 오사카부립도서관, 동양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목활자본 1책으로 29.6㎝×18.9㎝, 28매, 10행의 규격으로 되어 있다.

내용 필자의 서문은 『종저보』의 편찬 내력과 의지를 보여 준다. 백성의 먹거리인 백곡은 곡물인 3곡이 60%이고 과실·채소가 40%인데 전자의 부족을 기饑, 후자의 부족을 근饉이라 하여 기근이 된다. 고구마는 뒤늦게 나타난 작물이지만 기근 해소의 기능이 크고 병충해나 가뭄 견딜성이 크다. 원래 중국 월남의 푸젠福建·광둥廣東이 원산지이며, 일본은 씨를 얻어 키워 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재배가 늦었다. 필자가 호남 순찰에서 황폐해진 땅과 주민의 기근 현황을 보고 보급을 결심하였으며, 중국 서광계의 『감저소』와 우리나라 강·김씨의 『감저보』를 참고·인용하여 『종저보』를 편찬·활용케 하였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15개 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1 교원敎遠: 『이물지異物志』『광지廣志』『강·김씨 감저보姜金氏甘藷譜』 등을 인용하여 고구마의 유래를 소개하고, 유사한 서류 가운데 질·빛깔·감미甘味 등의 특성을 들어 차이점을 밝히며, 지방별로 산저山藷·번저番藷·옥침저玉枕藷·유구우流球芋 등으로 명칭을 달리함을 설명하였다.

제2 전종傳種: 씨고구마 저장의 여러 방법과 중국(월남)이나 일본의 저장요령을 저장 중의 주의사항과 함께 기술하였다.

제3 종후種候: 지역별 고구마 파종 시기, 파종 간격(거리), 묘의 생산성 등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제4 토의土宜: 고구마의 생리 성상과 토양의 물리 성상을 논하였다. 고구마 재배에는 모래질의 비옥한 땅이 좋고 씨고구마 생산에는 신규 개간지가 좋다고 하였다.

제5 경치耕治: 밭갈이는 우선 연말에 인분을 주고 갈아엎은 다음 춘분 전후의 파종에 앞서 다시 갈아엎되 초목회와 채친 풀이나 우마분을 사용하며, 차진 땅은 거름을 중시하라고 하였다.

제6 종재種栽: 씨고구마의 파종요령을 설명하였다.

제7 옹절壅節: 고구마묘의 마디 수와 묻는 요령을 설명하였다.

제8 이삽移揷: 전경분종법剪莖分種法을 소개하였다.



종저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9 전등剪藤: 고구마 순치기(넝쿨 자르기)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10 수채收採: 고구마 수확요령을 설명하였다.

제11 제조製造: 고구마 조리와 가공 요령을 설명하였다.

제12 공용功用: 떡·장담그기·술담기 등 고구마 식품 가공법을 소개하였다.

제13 효용效用: 고구마의 효용가치를 논하였다.

제14 구황救荒: 고구마의 기근 해소 기능을 들어 구황작물로서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제15 여조麗藻: 중국 명나라 서광계의 『감저소』에 나오는 서현호의 『감저소서』 등을 기록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서유구는 조선 말기의 농정가農政家이자 농학인農學人으로서 자字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이다. 조부 서명응徐命膺부터 시작하여 3대가 농학자인 전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농학에 대한 집안 교육이 두텁고 긍지가 있는 선비였다. 그의 대표 저술은 실로 방대하고 체계적인 종합 농서인 『임원경제지』이겠지만, 『종저보』 또한 조선조에서 단일작물을 이토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이한 전례가 없는 완벽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자가 인용한 기존 농서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 농촌 실정에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안案'이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비판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양설兩說로 맞서 있는 경우에는 직접 비교 시험을 거쳐서 결과를 기록하기까지 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종저보』는 고구마의 도입, 재배기술의 변천 등을 연구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역사적 참고문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저보 |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농서 36(한국학문헌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86),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종축개량
種畜改良

정의 번식용으로 적합한 가축 개체를 가려 시장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종축의 특성을 개량하는 일.

역사 종축種畜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는데, 1455년(세조 1)에 각도의 감사에게 직책을 다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을 독려하면서 농업과 양잠을 뜻하는 농상農桑에 힘쓰고 종축을 부지런히 하며 병마兵馬를 잘 기르라고 한 기록이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1909년에 남부지방의 체격이 작은 한우 개량을 위해 북부 지방의 대형 씨수소[種牡牛] 42마리가 경상도 일원에 배부된 바가 있다. 1916년에는 한우 보호우 규칙(연령은 수소 2~10세와 암소 2~8세, 체고는 수소 126㎝ 이상과 암소 120㎝ 이상)을 제정하여 운용하였다. 이후 1938년 한우 심사 표준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젖소로는 조선시대에 농사용으로 쓰던 한우 중에서 건강하고 젖이 많이 나오는 소를 이용하였다. 최초의 젖소 품종 도입은 1902년 일본에서 홀스타인Holstein종 20여 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이후 저지Jersey종 소도 일부 도입하였고 한우도 일부 젖소로 활용하였다. 1940년대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에서 매년 500여 마리의 젖소를 우리나라로 이동시켜 목장을 운영한 기록이 있다.

재래종 돼지는 1904년 무렵까지 체구가 왜소하고 길이가 1.2척(약 40㎝)을 넘지 못하며 털은 흑색이고 코끝이 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후 1910년대에 종돈種豚으로 버크셔Berkshire종이, 1930년대에는 요크셔

Yorkshire종 등이 보급되었다. 1933년에는 황해도에 돼지 개량을 위한 종축장을, 1948년에는 경남 사천에 종돈장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재래종 닭의 산란능력을 처음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종계種鷄로 보급된 것은 1903년 일본에서 도입된 플리머스록Plymouth Rock종과 나고야 코친Cochin종이다. 이후 단관 백색 레그혼Leghorn종과 횡반 플리머스록종이 도입되었고, 1921년에는 로드아일랜드레드Rhode Island Red종, 1940년대 전후 미노르카Minorca종 등이 수입되었다.

이 밖에 재래산양 개량에 관한 최초 기록은 1907년 유럽원산의 유용종 산양과 교잡한 기록이 있으며, 면양은 1910년 몽고양을 시험 사육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기록이 있다. 가축으로서의 토끼도 1900년대 초에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내용 광복 이후 축종별 종축개량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 1947년 미군정 법령으로 축우도살 제한령을 공포하여 우량우를 보호하였고, 1954년에는 〈가축보호법〉을 제정하여 종우種牛의 연령 등을 정하였다. 이후 1963년 〈축산법〉을 제정하여 종축 및 후보종축 검사기준을 정립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젖소의 경우 1950년대에는 전체 사육 마릿수가 400여 마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1962년 이후 정부에서 젖소 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사업을 지원하고 낙농진흥 시책으로 젖소를 본격 도입하면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1966년 젖소의 등록과 산유능력 검정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지금과 같은 종축 등록과 개량업무가 추진되었다.

돼지는 1950년대에 외국에서 원조 물자로 햄프셔Hampshire종, 두록Duroc종 등이 도입되었고, 이후 개량종 보급과 1960년대 이후 곡물 도입에 따른 사양 여건 개선으로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닭도 1950년대에는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으로 다양한 품종이 수입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국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로 종계개량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종축을 개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축의 마리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마리당 생산성을 증대시킨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한우가 12개월령 암소 기준으로 1974년에는 190.7㎏이었으나 2019년에는 316.7㎏으로 126㎏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12개월령 수소는 214.2㎏에서 398.9㎏으로 184.7㎏ 증가하는 등 매년 4.1㎏꼴로 증가하였다.

젖소의 경우 305일 기준 마리당 산유량이 1980년 4,957㎏에서 2018년 1만 303㎏으로 증가하여 38년간 약 2.08배 증가하였다. 돼지의 경우에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중 1㎏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의 양을 나타내는 사료 요구율을 개량하여 1984년 2.67㎏에서 2018년 2.37㎏으로 낮추었으며, 소비자 요구에 따라 등지방 두께를 같은 기간 1.91㎝에서 1.26㎝로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종축개량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선발과 교배를 이용하여 육종하는 것인데, 현재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유한 씨가축을 선발하고 계획교배를 통하여 우량 자축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소와 돼지는 농가가 사육하는 소나 종돈 중에 심사하여 혈통을 등록하고, 여기서 생산된 우량 자축의 능력을 평가하여 종축을 선발한 후 혈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획교배를 한 다음 다시 농가에 우수 생산 축이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닭의 경우에는 순계pure line를 확보한 후 원원종계great grandparent stock를 계통선발하고 원종계grandparent stock를 보급하며, 농가 단위에는 종계parent stock나 실용계commercial chicken를 사육하면서 개량을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종축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다. 한우의 경우 씨수소 선발에 5~6년이 소요되며, 혈통 갱신을 위하여 우수한 젖소 씨수소를 외국에서 도입할 때는 마리당 수억 원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된 종축개량의 역사는 100년 내외로 짧다. 그중에서도 현대화된 본격적인 종축개량은 1960년대 이후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축 선진국보다 경험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경우 사양관리 방식이나 육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입 소고기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의 경우 마리당 산유량이 국제가축기록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Animal Recording 공인기록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중소가축인 돼지나 닭 부문에서는 아직도 많은 종축이 해외에서 수입되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가축개량 관련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 제16차 한우개량추세조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2020), 축산실록(남인식, 팜커뮤니케이션, 2019), 축산학(김영묵 외, 선진문화사, 1989), 한국가축개량사(한국종축개량협회, 1980).

필자 남인식(南麟植)

주대틀기

정의 소와 농기구를 연결하기 위한 굵은 줄을 꼬는 일.

내용 새끼로 꼰 줄은 우리 농경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새끼줄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굵기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가늘게 꼰 줄은 짚신으로 삼거나 줄로 만들어서 물건을 꿰기도 하고, 중간 굵기의 줄은 밧줄 등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동아줄만큼 굵은 새끼가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 가닥으로 굵게 묶은 줄은 줄다리기 등의 놀이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도 소의 고삐로 사용하는 줄을 주대라고 하며, 줄을 꼬는 일을 '주대틀기'라고 부른다. 주대틀기는 지역에 따라 쇠줄드리기, 주대드리기(충청남도 당진·예산), 소줄꼬기(금산·청양), 봇줄드리기, 쟁기줄드리기, 소고뺑이드리기(금산·천안·홍성)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이 줄을 꼴 때 '꼬기'라는 표현 대신 '틀기' 혹은 '드리기' 같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새끼줄을 여러 개 놓고 교차로 묶으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줄은 주로 써레나 쟁기 등에 연결하여 소에 거는데, 소의 힘을 견디면서 사람이 소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으려면 줄이 굵고 튼튼해서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줄의 강직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무에 걸고 그 끝에 무거운 돌이나 맷돌을 달아보기도 한다. 그러면 성근 부분을 찾아서 보강할 수 있고, 줄이 좀 늘어나면서 탄력성이 생기기도 한다.



새끼줄 합쳐 주대 만들기 | 충남 예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주대에 돌 달아두기 | 충남 예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새끼줄을 미리 만들어두는 일은 농한기 농부들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추수가 끝난 후부터 음력 2월 초하루인 머슴날까지 남자들이 각자 집에서 소일거리로 새끼를 꼬거나 아니면 마을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 꼬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농촌의 풍경 중 하나였다.

특징 및 의의 주대는 농경에서도 다양하게 쓰이지만 같은 줄을 어로에서 쓸 때는 닻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이렇게 줄을 꼴 때 〈주대소리〉라는 노동요를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충남 민속의 이해(이필영, 집문당, 2019),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필자 이관호(李官浩)

주말농장
週末農場

정의 도시 근교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경지와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농장.

개관 산업화와 함께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 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시민들은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토요일 격주 휴무와 주5일 근무제가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농사체험 프로그램의 일종인 주말농장週末農場 등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도로망이 확충되고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 원거리 접근이 쉬워진 것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직접 재배한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주말농장이 활성화된 요인의 하나이다. 농업계에서도 갈수록 낮아지는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농가 소득의 기회를 창출하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을 활성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민은 주말농장을 통해 정서 함양과 관광 수요 등을 충족시키고, 농민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들 사이에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었다.

내용 도시는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손쉽게 문화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인구가 고도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거주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도시민들은 도시를 벗어나 농촌 등의 자연과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주말농장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특히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즐기려는 도시민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휴식이 아닌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말농장의 형태는 1960년대부터 나타난다. 농촌 공원과 비슷한 개념의 주말농원이 1969년 5월 수원에서 최초로 개원하였고 이후 1969년 7월에는 속리산 주말농원이, 1971년 7월에는 평택 어린이 관광농원이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단체로 농장을 개발하며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와 호화별장 건설 등의 부조리가 만연하며 법적 제한에 직면한다. 이후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말농장은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사실상 불법 행위였다. 농민과 도시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4년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 휴양단지 사업,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 등 관광농업을 육성하려는 사업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1990년대 들어오면서 주말농장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를 충족시키고자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92년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1993년 '농사체험장'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주말농장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1994년 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에 관한 〈농어촌정비법〉을 마련하는 등 주말농장 사업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나 개별 농민 및 각종 단체 등의 민간이 주도하며 주말농장이 점차 확대되었고, 이제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말농장 | 경기 안산 | 2014 | 농촌진흥청

특징 및 의의 도시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된 주말농장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을 통해 농업에 대한 경험을 쌓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주말농장은 도시의 공간을 생태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환경운동의 일환인 도시농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참고문헌 도시농업(텃밭보급소, 들녘, 2011),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박용범 외, 농촌진흥청, 2008), 주말농장의 운영실태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권기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필자 김석기(金石基)

중경제초기
中耕除草機

정의 이랑과 작물 포기 사이의 겉흙을 갈아엎어 땅을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잡초를 제거하는 농기계.

내용 논에 벼를 이앙한 후 10일 정도 지난 후에 중경제초를 하고 다시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2회 정도 중경제초작업을 하는데, 이때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서 보통 자체 엔진이 있는 보행형 중경제초기中耕除草機가 주로 사용된다. 논 중경제초기는 엔진, 동력전달부, 제초부, 핸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관은 2~4마력의 소형이고 가벼운 공냉 휘발유 기관을 사용하며 핸들 쪽에 부착되어 있다. 별도의 바퀴는 없으며 중경제초날이 바퀴 기능을 대신한다. 논 중경제초기는 보통 2~5조이며 벼가 자람에 따라 제초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쪽에 벼 포기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분초판이 달려 있다. 제초부는 폭 20㎝, 높이 8㎝ 정도 톱날형의 날 4~8개를 붙인 직경 25㎝ 정도의 중경제초날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기관의 동력으로 회전시켜 잡초를 파헤치거나 뿌리를 잘라 땅속에 묻어버려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또 포기 사이의 제초를 위하여 중경제초날의 회전력에 의해 동력 없이 수평으로 회전하는 날개를 설치하여 제초와 동시에 제초날로 파헤쳐진 흙으로 복토하여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어 잡초방제 효과가 높다. 한편, 논 양끝의 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면 심겨진 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하나의 보조 구동바퀴를 설치하여 회전시키는 중경제초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밭 중경제초는 작물생육 중에 작업하기 어려우며, 제초제의 사용으로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 중 하나이다. 밭작물 중경제초기는 동력원에 따라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부착형과 별도의 자체 기관을 구비한 자주식이 있으며, 작업 방법에 따라 견인식과 회전식이 있고 작업조수에 따라 1조식 또는 2조식 등으로 구분된다. 견인식은 호미같이 생긴 날이나 삼각날 등을 관리기 등으로 끌어당겨 표토를 얇게 파헤치면서 잡초의 뿌리를 잘라 제초하는 방식이며, 회전식은 엔진이나 PTO의 동력을 이용하여 L자형 등의 제초날을 회전시켜 땅을 갈아엎으면서 잡초를 뽑거나 절단하여 제초하



논 중경제초기 | 2000년대 | 윤진하



밭 중경제초기 | 2018 | 윤진하

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뒤에 배토기를 부착하여 북을 주기도 한다. 밭작물의 중경제초는 파종 또는 이식 후부터 생육 중기까지 계속되는데, 작물이 자라서 키가 크게 되면 경운기, 트랙터로는 작업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1~2마력의 소형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보행형 소형 관리기의 차축에 제초날을 부착 회전시켜 중경제초하거나 소형 관리기 후방에 중경제초날을 부착한 1조식의 중경제초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특징 및 의의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작물생육 중에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김매기)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다. 예부터 호미나 밀낫 등을 사용하여 흙을 파 뒤집거나 긁어서 잡초를 뽑아주거나 잡초의 뿌리를 잘라주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축력용인 칼자매와 매번지 등을 사용하여 밭고랑이나 두둑의 표토를 긁어서 김을 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논에서 여러 개의 쇠날이 붙어 있는 바퀴 두 개가 달린 핸들을 사람이 밀면서 바퀴를 회전시켜 흙을 갈아 제초하는 인력 중경제초기가 사용되었다. 1980년대 초 경운기용 밭작물 중경제초기가 개발되었으나 비닐피복재배와 제초제의 사용 등으로 실용화되지 못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추세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중경제초기가 개발·보급되었다. 중경제초는 제초제의 사용과 비닐피복재배 등으로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 중의 하나이지만 중경제초기의 보급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밭농사기계(농촌진흥청, 2004), 시험연구보고서-농업공학연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2006; 2009), 농업기계 핸드북(한국농업기계학회, 문운당, 1998), 농작업기계학원론(정창주·김경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 농기구 도감(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필자 윤진하(尹眞河)

중맥설
重麥設

정의 1888년(고종 25)에 지석영池錫永이 편찬한 보리 재배에 관한 전문 농업기술서.

역사 지석영(1855~1935)은 1855년에 출생한 학자 가문의 인재로 자字는 공윤公胤, 호號는 송촌松村이고 충주지씨忠州池氏의 손孫이다. 약관 20세가 되던 해 지석영은 1876년(고종 13)에 일본을 다녀온 스승 박영선朴永善으로부터 일본 서적인 『종두귀감種痘龜鑑』을 전해 받고 종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879년에는 부산의 제생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해 겨울 충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종두를 실시한 사람이 되었다. 1880년에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였다.

1882년에는 유학인 지석영이 개화기를 맞아 백성을 계몽할 적당한 책자들을 국왕에게 상소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을 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10종의 서적 가운데 안종수의 『농정신편農政新編』(출간 이전)을 포함시켜 하루 속히 이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농정신편』은 1885년 광인사에서 출간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석영은 안종수로부터 『농정신편』의 저본 저자였던 일본 농학자 쓰다 센津田仙과 그의 스승 격인 네덜란드 농학자 호이브렌크Hooibrenk, D.의 농학이론을 비롯한 신농서 『농업삼사農業三事』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들 정보는 1888년에 지석영이 『중맥설重麥設』을 편찬하는 데 저본으로 쓰인 중심이론이 되었다.

지석영은 1883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885년에는 『우두신설牛痘新設』을 저술하였다. 1887년에는 정치범으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었다가 『중맥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888년에 저술을 마쳤다. 1899년에는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의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국문학을 연구한 끝에 『자전석요字典釋要』를 집필함과 동시에 『신학신설新學新說』이라는 현대과학 소개 서적도 편술하였다. 순한문 연인본鉛印本 1책이며 분량은 15매(30쪽)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중맥설』은 저자의 서문과 목차·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문에는 저술의 의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어서 농촌사회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본문의 내용을 앞선다. 서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보리는 흙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라는 곡물이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여름에 수확한다. 보리는 비, 가뭄, 해충, 서리 등 재해에 강하고 여름철에 제초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처럼 인력이 적게 들고 (악)천후에 강하므로 농가의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는 보리농사에 소홀하다. …… 필자는 전에 일본의 농업 대가인 쓰다 센의 『농업삼사』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방수리나 화분매개 같은 신비한 농법과 보리재배법이 쓰여 있었다. 이를 보아 일본인이 보리를 중요시함을 알았고 또 중국과 서양에서도 많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므로 맥류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흰 쌀밥이 싫기야 할까마는 모판, 모내기, 김매기를 거치며 홍수, 가뭄, 바람, 서리 등 순조롭지 않은 일기가 걱정된다. 일기가 좋아도 벼농사는 보리농사보다 훨씬 힘들다. 생각하건대 벼처럼 보리를 중요시하면 날씨나 서리, 병충해 걱정을 비켜서 농가나 국가 치부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중맥설의 확신을 밝혀서 농가의 보리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본문은 총론, 공기, 치전治田, 명품, 성능, 택종, 종예種藝, 토의土宜, 비료, 제초, 언매偃媒, 배양, 거두기, 설명, 비지肥地, 회요, 산계, 양계법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서유구의 보리 재배를 인용하였다. 공기론에서 지석영은 "21%가 양기, 79%는 담기로서 탄기炭氣는 0.1% 내외이다. 양기는 산소(O_2), 담기는 질소(N), 탄기는 탄산가스(CO_2)로 되어 있다. 양기는 인축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담기는 담양淡養을 고르게 하며, 담기는 독이 있어 탄炭과 같다. 사람은 양기를 흡수하고 탄기를 토하지만 초목들은 탄기를 섭취하고 양기를 토해 낸다. 작물은 공기 조화로 자라므로 비옥한 땅에 자라며 병드는 것은 공기 소통이 나쁜 탓이다. 공기는 청기淸氣, 지기地氣는 땅속 중기重氣이다. 서양인들은 이런 이치에 따라 거름을 반감하고 오지관죽통을 땅속 3~4척에 이어 묻어 공기를 소통시키며 소출을 배가시킨다. 공기가 비료보다 중하므로 농가의 급선무이다. 보리 이랑도 바람 방향으로 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수분매조설을 소개하였고, 끝에는 산계算計라는 항목을 두고 인축의 배설물, 개수대물, 잠박 등을 비료로 환산하는 요령과 허균의 『한정록閑情錄』에 나오는 닭 사육법을 부기하였다.

특징 및 의의 지석영은 의학자이자 국문학자로서 역사적이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개화파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농정의 실사구시 사상을 앞세워서 일본이나 서양의 밭작물 재배 혁신기술, 특히 안종수의 『농정신편』에 저본으로 쓰인 일본인 쓰다센과 네덜란드인 호이브렌크의 농학이론서 『농업삼사』에 심취하여 이를 우리 전통농법(보리농사법)에 적용하고자 『중맥설』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이론 적용과 기술해석에 오차와 오해의 여지가 발견된다. 이는 지석영이 의지를 옳게 살려서 『중맥설』을 편찬하였으나 농사의 경험이 많거나 농학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본문의 논리보다는 서문의 지론이 한결 타당성이 높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여름철 논에 짓는 벼농사에 집중하는 대신 겨울철 밤에 짓는 보리농사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실제로 벼농사는 여러 위험(기상재해나 병충해 등)이 따르는 만큼 안정성이 없는 반면 보리농사는 이런 위험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고 농사에 정성을 더하면 농가와 나라에 보탬이 크다. 또 세계열강의 대부분은 보리나 밀과 같은 맥류를 중요시하며 이와 같은 이점을 얻는다. 이러한 점을 배우기 위하여 『중맥설』을 편찬·보급한 것이다.

참고문헌 그때 이 사람, 안종수·쓰다센·사토 노부히로(구자옥 외, 민속원, 2014),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農業三事(津田仙, 發兌書林, 1884).

필자 구자옥(具滋玉)

중태

정의 곡류와 감자 따위를 담아 갈무리해서 옮기거나 저장할 때 쓰는 용구.

내용 가는 새끼를 엮어서 가마니처럼 만든 자루이다. 중태는 감자와 고구마 등과 같이 알이 굵은 농산물을 갈무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강원도 산간 마을을



중태 | 가로64 세로37 높이62 | 농협 농업박물관

중심으로 사용한 농구로 알려져 있다. 중태는 강원 지역 농산물 등을 담아 운반하고 보관하여서 지역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농구이다.

중태는 짚으로 꼰 가는 새끼 또는 피나무 껍질, 귀리 짚 등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짜는 방식으로 만든다. 피나무 껍질은 물에 재를 풀어서 넣고 끓여서 이기면 부드러워진다. 이 껍질은 주로 입하 무렵에 벗기며, 나무 등 쪽이 다른 데보다 더 두껍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리 짚으로 중태를 만들기도 하였다.

삼끈 또는 노끈 등을 주로 날줄로 활용하여 중태를 만든다. 이 끈은 손으로 꼬거나 자새에 걸고 틀어서 만든다. 크기는 중태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높이 80~110㎝에 너비 60~90㎝ 정도이다. 작은 중태는 한 가마의 곡물을, 큰 중태는 작은 것보다 두 배 정도 더 담을 수 있다. 중태 한 닢을 짜는 데 하루 정도의 품이 들었다. 중태는 보관과 운반 용구로서 10여 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짚으로 만든 농구 중에서 오래도록 사용하는 편에 속한다.

날줄은 대체로 16~18줄이지만 28줄인 중태도 있다. 날줄 수는 너비가 넓을수록 일반적으로 많다. 간혹 그렇지 않은 중태도 있다. 대체로 4~5㎝마다 날줄을 한 줄씩 배치하지만 약 3㎝마다 날줄을 배치한 중태도 있다.

씨줄을 새끼로 매우 촘촘하게 엮어도 틈새가 생긴다. 가는 새끼로 엮어서 작은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이사이에 생긴 작은 틈은 작은 알곡을 담아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중태를 알이 굵은 감자와 고구마 등의 농산물을 갈무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중태는 매우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닥은 양 귀가 약간씩 벌어지도록 만들었다. 이 부분은 곡물을 담으면 펴지면서 넓은 바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중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으로 들기 쉽도록 하단과 상단 양쪽에 손잡이와 고리를 달았다. 한 손은 하단의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상단 고리를 잡아서 운반하거나 다른 용기로 곡물 등을 옮길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가마니처럼 긴 네모꼴을 취하고 있다. 쓰지 않을 때는 중태를 잘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농가에서는 중태를 광 등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두거나 선반 등에 얹어 놓을 수 있다. 작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중태가 갖는 하나의 장점이다. 게다가 농민들은 중태의 편리한 관리로 주변을 간결하고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담았을 때 중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 지역의 중태는 용량이 한 가만 반들이고, 수명은 2~3년, 무게는 3.1㎏이었다. 다른 중태의 생김새는 가마니 모양을 띠고 있다. 너비가 좁고 울이 깊은 긴 네모꼴이다. 짚으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서 씨줄을 삼고 노끈을 날줄로 하여 촘촘히 엮었다. 물건을 담았을 때 중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닥을 세모지게 마무리하였다. 주둥이는 나무로 둥글게 처리하여 농작물을 퍼서 담을 때 옆으로 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어 매우 편리하다. 양 끝에는 저울질할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았다. 오늘날은 다수확 품종의 벼가 널리 퍼짐에 따라 짚으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 따위를 짜지 않고 대신에 규격 포대를 사용한다. 중태는 지역에 따라서 탈래기(강원 도계), 할기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중태는 강원 지역 산간 마을 중심으로 알이 굵은 농산물을 갈무리하는 데 주로 사용한 농구로 알려져 있다. 중태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서 강원 지역 농가에서는 알이 작은 곡식보다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굵고 큰 농산물을 갈무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즉 중태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 주는 농구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경생활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정의 18세기 중반 의관醫官출신인 유중림柳重臨이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증보하여 편찬한 농서.

개관 유중림은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의 소략함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 유중림은 『산림경제』가 은거隱居하는 선비가 안빈安貧하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권질卷帙이 작아서 강령綱領이나 조목條目이 소략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산림경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증보하여 『증보산림경제』를 저술하였다. 유중림은 1761년에 세손世孫이었던 정조正祖가 두창痘瘡에 걸렸을 때 담당 의관醫官으로서 세손을 완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내의원 소속 의관으로서 세손 치료에 전념하였다.

유중림이 『증보산림경제』의 편찬을 완료한 시기는 1760년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증보산림경제』의 서문은 1766년에 임희성이 지었는데, 그에 따르면 유중림이 『증보산림경제』를 지을 당시인 1760년대에 벌써 『산림경제』를 누가 언제 지었는지 미상인 상황이었다. 당시 『산림경제』가 필사본으로 유통되면서 편찬자가 홍만선이라는 사실마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산림경제』 자체가 판본板本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筆寫本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증보산림경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를 대대적으로 증보하여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산림경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농서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향촌에 살아가는 양반들의 품위있는 생활과 관계있는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모두 수합하였다는 점에서 유서類書로 평가되거나 양반들의 생활지침서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농治農, 종수種樹, 양화養花, 양잠養蠶, 목양牧養, 양우養牛, 치포治圃, 구황救荒 등 농서農書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농서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내용 『증보산림경제』는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거卜居, 치농治農, 종수種樹, 양화養花, 양잠養蠶, 목양牧養, 양우養牛, 치포治圃, 섭생攝生, 종덕種德, 치선治膳 상·하, 구황救荒, 가정家政 상·하, 구사求嗣, 구급救急, 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 전가점후田家占候, 선택選擇, 잡방雜方,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등 산림처사 즉 향촌에 살고 있는 사족士族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의 내용을 단순히 양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전형적인 농서에 해당하는 「치농治農」에서 증보의 내용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산림경제』의 「치농」은 전체 조목의 숫자가 191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증보산림경제』 치농편은 58개의 조목을 추가하였고, 37개 조목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증보산림경제』에서 증보된 기사를 보면, 앙기秧基(모판)에 시비施肥를 많이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튼튼한 묘종苗種으로 키우는 기술, 밭작물이 당시 농부農夫의 식량食糧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전법區田法을 소개하면서 『산림경제』를 크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에 없는 내용을

새로이 증보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저甘藷, 즉 고구마 경작법을 수록한 것이다. 감저가 조선 국내로 들어온 때는 1763년으로, 일본에 통신사 정사로 다녀온 조엄趙曮(1719~1777)이 들여왔다. 감저가 조선에 전파된 이후 감저재배법을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강필리姜必履였다. 그는 감저를 수차례 시험 재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저재배법을 정리하여 『감저보甘藷譜』를 지었다.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에 강필리의 감저종식법甘藷種植法이 압축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유중림은 『증보산림경제』에 조선의 감저 경작법 정리의 밑거름이 되는 강필리의 『감저보』를 수록하면서 구황작물의 경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의 내용을 계승하여 시비施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증보산림경제』「치농」은 『산림경제』에서는 개별 작물의 경작기술을 설명한 대목에 나뉘어 들어있던 시비 관련조목을 수합하여 수분收糞 항목으로 모아서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시비관련 조목을 5조목이나 증보하여 원래의 7조목과 더해 총 12조목을 수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수분, 즉 시비의 독자적인 기술적 성격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소변大小便과 재[灰]를 이용하여 벼, 보리, 목화에 사용하기 적당한 시비방식을 제시하면서 시비를 강조하였다.

특징 및 의의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를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증보하였고, 그러한 증보는 결국 당대의 농업기술 발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는 농서편찬에서 시비기술 관련 내용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하는 흐름에 따라 경파耕播 → 택종澤種 → 수분收糞의 순서로 내용을 서술하였다. 한편 『증보산림경제』 이외에 『산림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농서農書를 편찬하는 흐름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는 이른바 '산림경제증보서山林經濟增補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편찬자인 유중림이 영조 대에 의관醫官으로 활약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중인층의 성장, 의학과 농학의 연관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책이다. 의관 출신인 유중림이 농서이자 재지사족의 생활지침서에 해당하는 『산림경제』를 증보하였다는 점은 조선 후기 중인층의 성장이라는 상황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보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사족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는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增補山林經濟,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지게

정의 짐을 얹어서 사람이 등에 지고 나르는 기구.

내용 '지게'는 무엇을 진다는 뜻의 '지[負]'와 접사 '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게'는 덮개나 끌개의 '개'가 모음조화 현상에 따라 바뀐 결과이다.

우리는 지게를 오래전부터 썼다. 5~6세기의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유적에서 나온 '지게 진 인물상' 들이 그 증거이다. 이것이 처음 등장한 문헌은 정철鄭澈(1536~1593)의 〈장진주사將進酒辭〉로, "지게 위에 거적 덮여 졸라 매여 가나"라는 구절이다. 옛적에 가난한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적이나 멍석에 말아서 지게에 얹어서 날랐으며, 이를 '지게송장'이라고 불렀다. 판소리 〈변강쇠가〉에도 "장강틀은 어디 가고 지게송장 되었으까?"라는 대목이 있다. '장강長杠틀'은 길고 굵은 나무로 짜 맞추거나 얽어맨 틀로, 이 위에 상여를 차리는 데서 흔히 상여의 대명사로 쓴다.

지게를 벽에 기대놓을 때 반드시 가지가 집 바깥쪽으로 가도록 한 것도, 집안으로 향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여긴 까닭이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지가支架'는 '지게'를 한자의 소릿값에 따라 적은 것이며, 이 밖에 지거支莒·지기支機·지거枝擧로도 적었다.

가지가 조금 위로 뻗은 자연목 두 개를 위는 조붓하



지게 | 높이126 | 국립민속박물관



쟁기지게 | 높이112 | 농협 농업박물관



거름지게 | 너비126 | 농협 농업박물관



물지게 | 길이125 높이54 | 국립민속박물관

게, 아래는 조금 벌려서 세우고, 사이사이에 세장을 걸고 탕개를 튼 뒤 사괘를 맞추어서 붙박았다. 위아래 두 곳에 멜빵을 걸어 어깨에 메며, 등이 닿는 부분에는 짚으로 두툼하게 짠 등태를 걸었다.

곡물을 비롯해서 사람이 등으로 나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나르며, 젊은이는 50~70*kg*을 진다. 몸은 주로 소나무를, 세장은 단단한 밤나무나 박달나무를 쓴다. 농가마다 쓰는 사람의 나이나 체형에 맞게 걸었으므로 지게 수가 식구 수와 거의 맞먹었다. 알맞은 지게감이 없을 때는 어린나무 때부터 돌을 달아 두거나 하는 방법을 썼고, 이마저 어려우면 베어서 기둥에 묶어 놓고 돌을 실어 두었다. 지게와 늘 함께하는 것이 지겟작대기이다. 짐 실은 지게를 바로 세우거나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 반드시 필요하며, 먼 길에서는 지겟다리를 두드려서 장단도 맞춘다.

우리 지게는 다음의 17가지가 있다. ①제가지지게 ②옥지게 ③쪽지게 ④땅띠기지게 ⑤돌쪽지게 ⑥두구멍쪽지게 ⑦바지게 ⑧켠지게 ⑨거지게 ⑩쟁기지게 ⑪모지게 ⑫조기지게 ⑬부게와 조락지게 ⑭일꾼지게 ⑮물지게 ⑯거름지게 ⑰쇠지게

제가지지게는 일반적인 지게이고, 옥지게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가지 끝이 위로 꼬부라진 지게'이다. 물매가 된 곳을 만나면 땅에 뉘어 놓고 사람이 끌어내린다. 쪽지게는 이름처럼 나무쪽에 못을 박아 꾸민 지게이다. 등짐장수나 시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물건을 나른 지게꾼의 지게가 그것이다. 특히 6·25전쟁 때는 노무자들이 산꼭대기의 진지로 식량이나 포탄을 비롯하여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날랐으며, 연합국의 군인들은 이를 'A자틀A frame'이라고 부르며 감탄하였다. 또 옛 보부상들의 '가지가 달리지 않은 것'도 쪽지게라고 불렀다.

땅띠기지게는 인천시 옹진군 교동도에서 공사장의 흙을 나른 것으로, 이름은 땅을 파는 양에 따라 삯을 받은 데서 왔다. 돌쪽지게는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오직 돌을 나르려고 마련한 작은 지게이고, 켠지게는 알맞은 나무가 귀한 곳에서 감을 길이로 잘라서 두 틀을 건 것이어서 가벼운 짐이나 싣는다. 두구멍쪽비게는 몸에 구멍 두 개씩 뚫어서 짐의 부피에 따라 지겟가지를 위아래로 옮기는 지게이다.

모지게는 물지게를 닮은 것으로 논에 심을 모를 나

를 때만 쓰며, 거지게는 길마 양쪽에 걸어놓은 틀에 긴 나무나 돌 따위를 나르는 지게이다. 오늘날에는 하역장 등지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장치가 달린 것도 지게차라고 부른다. 쟁기지게는 전라북도 평야지대에서 쟁기를 논밭으로 나르는 데만 쓴 것이다. 일반지게와 다른 점은 가지가 둘째 세장에서 위로 곧게 뻗어 나가고 등태를 쪽나무로 대신하며, 가지 길이가 아주 짧은 점(15㎝쯤)이다. 조기지게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배에서 내린 조기를 나르는 지게이고, 부게와 조락지게는 경기도 서해안에서 물고기를 나르려고 울이 깊게 싸리로 엮은 바소거리를 붙박은 것으로, 바닷물이 양쪽 끝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물지게는 일반 지게와 달리 긴 작대기 틀에 등판을 붙이고 양 끝에 쇠갈고리를 붙박은 것으로, 물이나 거름을 나른다. 쇠지게는 지게의 허리 부분을 쇠파이프로 만든 지게로 나머지 부분은 쓰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끼웠다. 1990년대에 퍼진 것으로, 덕분에 지게감을 찾거나 걸기가 쉽지 않았던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 몸 전체를 쇠로 꾸민 반영구적인 지게가 나돌기 시작하였다.

전라북도 중서부지역에는 몸에 가지를 따로 끼운



부샹도부ᄒᆞᄂᆞᆫ모양(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지게로 볏단 나르는 모습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특이한 지게가 있다. 소나무 몸에 참나무로 깎은 긴 가지를 끼우고 끝에 줄을 감아서 새고자리에 묶었다. 이 결과 몸과 가지의 각도가 90°에 이르러 짐 싣는 공간이 좁아지자, 부피가 큰 볏단을 나를 때는 긴 작대기 둘을 허리세장에 가위다리 꼴로 끼우고 이에 의지해서 높이 쌓는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같은 날에 갈퀴·가마니·삼태기·비·도리깨 따위의 기물을 지게에 얹어 대문 밖에 세워 두었다가 보름날 들여온다. 이로써 풍년이 든다고 여긴다. 또 아무리 급해도 지겟작대기를 땔감으로 쓰면 육손이가 태어난다고 하여 삼간다. 또 자식이 돌림병으로 죽으면 지게에 얹어 무덤으로 옮긴 뒤 액운이 집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는다며 작대기를 그 자리에서 태운다.

조선시대 궁궐의 혼례식에서도 지게를 썼다. 『일성록日省錄』에 임금이 "자전慈殿께서 병환 중에 가례嘉禮 날을 기다리시는데 …… '납채納采할 때 지게支架는 누가 지느냐'고 묻자 홍국영洪國榮(1748~1741)이 기러기가 없어서 지게 차비支架差備도 없다기에, '비록 대혼大婚은 아니지만 지게 차비한 사람은 규례대로 마련하라'라고 일렀다."라는 기사가 있다(1778년 6월 18일). 이때 지게 지는 사람을 '봉지가관奉支架官'이라고 따로 부른 것도 눈에 띈다.

지게를 놀잇감으로도 삼았다. 강원 양양군 상복리의 '지게 싸움놀이', 강원 정선군 북면의 '지게 타기', 강원 화천·양양·태백 등지의 '지게발 걷기', 충청북도 제천의 '지게 목발 들기', 강원 영월의 '지게 시집보내기'와 '지겟작대기 뛰어넘기', 강원 화천의 '지겟작대기 돌

리기', 전국에서 벌이는 '지게 행상行喪놀이', 경상남도 밀양과 전라북도 익산의 '지게 목발춤' 따위이다.

이들 가운데 '지게 행상놀이'는 여러 틀의 지게로 꾸민 상여를 어깨에 메고 펼치는 놀이이다. 이는 죽은 이가 저승으로 떠나기 전날,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돌던 상여놀이를 본뜬 것이다. 차례로 등장하는 중·총각·신랑·신부·행상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 외에 평소 위세를 부리던 양반에게 조롱을 퍼붓고 나서 술타령을 벌이며 즐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징 및 의의 지게를 닮은 운반구는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분포하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널리 쓴 나라는 우리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게왕국'이었으며, 그 본고장은 전라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쓰베 세이쿄藤部西郊는 "산잉山陰지방에서 조센오이코朝鮮オイコ라고 부르며, 이름처럼 조선의 것을 이곳으로 온 조선 노동자들이 퍼뜨린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시모노 도시미下野敏見도 "가지지게의 여러 형상과 현대 한국 지게와의 관련을 생각하면 조선반도에서의 전파는, 근대 및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출병 두 차례였다고 생각된다. 그때 무구武具와 신변잡물, 전리품 따위를 지게에 얹어서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의외로 이것이 제일파의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서일본 각지의 가지지게를 조선 오이다이オイダイ 또는 조선 오이코オイコ라 부르고, 구마모토현熊本県 아마쿠사天草나 나가사키현長崎県 히가시키네東杵木에서 지게라고 하며, 오이타현大分県이나 미야자키현宮城県에서 도우진카루이トウジンカルイ라고 하는 것이 제2파이다."라고 적었다.

지게를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쓰는 것은 우리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게왕국'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일본에 건너간 우리 농기구(김광언, 한국민족학연구2, 단국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4), 지게연구(김광언, 민속원, 2003), 山陰の民具(勝部正郊, 名著出版, 1971), 日本列島の比較民俗學(下野敏見, 吉川弘文館, 1995).

필자 김광언(金光彦)

지계아문
地契衙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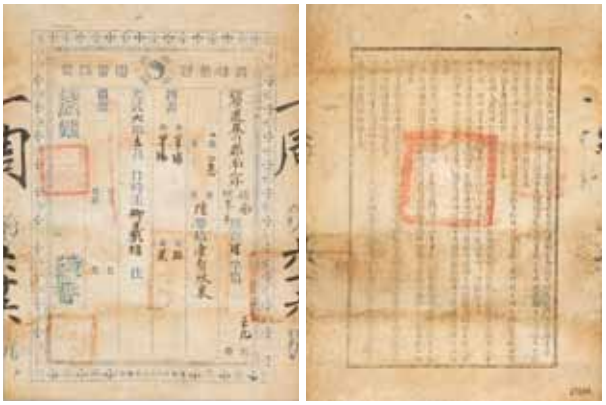
정의 1901년 대한제국 정부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지계地契를 발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서.

내용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양전量田과 함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계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신설하였다. 1901년 공포된 칙령 제21호에 의하면 지계아문이 담당한 업무는 한성부와 13도 각 군郡에 있는 전토田土의 계권契券을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같은 해 11월 조사대상을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토지·전답·가사家舍까지 확대하였다. 이로써 토지 소유권 증서라 할 수 있는 지계는 전토·산림·가사 등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만 내국인 소유자에게만 발급하였다.

1902년 3월 기존의 양지아문과 업무상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자 양지아문을 지계아문에 통합시켰다. 이때 양지아문의 총재관, 부총재 양무감리量務監理는 모두 해임되고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지계아문으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지계아문은 지계 발행 사업뿐만 아니라 양지아문이 담당하던 양전 사업까지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에 의해 양전이 시행된 곳은 총 218군郡으로, 이는 전국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양국에 대한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 기구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긴축재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해 4월 19일에 반포된 칙령 제11호에 의해 지계아문은 탁지부에 편입되었고 지계아문이 담당한 사업은 탁지부 양지국量地局으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양지국은 단지 그동안 지계아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데에 국한되었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지계 사업이 일본인의 이해와 상반되면서 지계의 발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계아문의 초기 조직은 총재관總裁官 1인, 부총재관



대한제국 지계 | 1902 | 국립민속박물관

2인, 칙임勅任과 판임判任 대우 각 4인씩 모두 8인의 위원, 그 밖에 기수技手 2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도에는 감리監理를 파송하였는데 각 지방관을 임시 감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칙임 1등의 총재 1인, 칙임의 부총재 3인, 주임奏任 6등의 감리 13인, 주임 또는 판임判任의 위원 4인, 판임의 주사主事 6인을 두었다. 지계아문의 하위부서는 문서과·서무과·회계과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문서과는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신분에 관한 사항, 공문서 작성 등을 맡고 서무과는 공문의 접수와 발송, 통계조사보고, 공문서의 편찬과 보존, 지권도서 간행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회계과는 아문의 소관 경비 및 수입의 예산 결산회계, 지계아문 소관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았다.

특징 및 의의 지계아문의 역사적 의의는 지계라는 새로운 문서를 발급하여 개인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최초로 공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토지 매매나 양여, 전당의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던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저지하는 정책이 취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보호국화 정책에 밀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근대법적인 토지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기 양전과 관계 발급사업(최원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한국역사연구회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민음사, 1995), 대한제국기 지계아문의 강원도 양전사업과 관계 발급(왕현종, 동방학지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대한제국의 양전(김건태, 경인문화사, 2018).

필자 우대형(禹大亨)

지적법
地籍法

정의 토지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측량,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 등록된 정보를 제공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1950년 12월 1일 공포된 법령.

내용 〈지적법地籍法〉이 제정되기 이전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토지대장등록지에 대한 내용은 〈지세령〉에, 임야대장등록지에 대한 사항은 〈임야대장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두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이었다. 또한 〈지세령〉에는 지적 정리절차와 과세 징수절차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조항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적을 효율적이고 상세히 조사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65호 〈지적법〉으로 공포되었다. 1951년 4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497호로 〈지적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지적법〉이 발표되면서 기존 〈지세령〉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록지, 〈임야대장규칙〉에 규정된 임야대장등록지가 통합되어 지적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적법〉과 함께 1950년 12월 1일 〈지세법〉이 공포됨으로써 지적업무와 지세업무가 분리되었다.

1950년 12월 1일 공포 당시 〈지적법〉은 총 4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공부와 지번, 지목에 대해 규정하였다. 지적공부로써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를 두도록 하였다. 지번은 1구역마다 붙이고 지목, 경계 및 지적을 정하도록 하였다. 지목은 전·답·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사사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임야·분묘지·도로·하천·구거·유지·제방·

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등 총 21개 항목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지적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토지의 경우는 '평坪'을, 임야의 경우에는 '무畝'를 단위로 정하였다. 셋째, 토지대장을 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地積,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질권자나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해야 하였다. 넷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다. 만약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은 신고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였다. 만약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적을 정부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규정이다.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지세부과 여부가 바뀐 토지의 경우, 질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토지를 합병할 경우에도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지적법〉은 발표 이래 총 17차례 개정되었다. 이 중 11차례는 본법이 개정된 경우였는데, 전부개정은 2회, 일부개정은 9회 이루어졌다. 1992년 〈부동산등기법〉, 1997년 〈정부조직법〉, 200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례가 총 6회였다. 〈지적법〉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본법이 전부 개정된 1975년과 2001년이었다. 1975년에 개정된 〈지적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의 면적단위를 미터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밝힌 법률 개정의 이유는 〈지적법〉의 미비점으로 보완하고 측량기술을 향상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령은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1호로 발표되었고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1년 개정된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목의 세분화와 지적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 개선이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에 따르면 지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전산 처리된 지적공부를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 및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개정된 〈지적법〉은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89호로 발표되었고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측량제도에 관한 법률이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으로 삼원화되어 측량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된 정보와 기술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통일된 측량기준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측량 관련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3개의 법률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발표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지적법〉은 폐지되었다.

특징 및 의의 〈지적법〉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법률들에 의해 규정된 지적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발표한 법령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지적법〉이 발표됨으로써 지적업무가 통일되고 지세업무와 지적업무가 분리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기반이 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지적법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정우형, 지적과 국토정보39-2, 한국국토정보공사, 2009), 지적법 주요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 변천에 관한 소고(최승영·오화련, 한국지적정보학회지21-1,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백년사-역사(대한지적공사,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남기현(南基玄)

지주대세우기

정의 작물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막대 등을 세워 지지하는 일.

개관 지주대는 주로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을 재배할 때 설치한다. 고추·가지·토마토 등처럼 식물체의 지

상부에 크고 많은 열매를 맺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바람 등에 쓰러지기 쉬운 가짓과의 작물이나 강낭콩·여주·오이·애호박·수세미 등과 같은 덩굴성 작물의 경우에는 열매가 땅에 닿아 쉽게 상하는 걸 방지하고 수확하기 쉽도록 지주대를 세워 덩굴을 유인하여 관리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농사일의 경우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각목 또는 나뭇가지나 대나무 같은 자연물 및 폐철근과 파이프 등의 각종 재료를 지주대로 활용한다. 전문적인 생업일 경우에는 전문 농자재 상점에서 철제와 플라스틱제의 기성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내용 지주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일자형 지주대이다. 일자형 지주대는 주로 고추와 가지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활용한다. 고추의 경우 포기마다 하나씩 지주대를 세워 지탱하기도 하고, 5~8그루마다 지주대를 하나씩 꽂고 성장 속도에 맞추어 지주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로로 끈을 띄워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줄을 띄우는 방식이 노력



일자형 지주대 | 전북 고창 | 2020 | 김석기



고추밭 지주대세우기 | 인천 강화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도 적게 들고 편리하지만, 지주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쓰러질 우려가 있어 양 끝과 사이사이에 튼튼한 소재를 설치해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가지는 열매가 크고 무거워 한 그루에 하나씩 지주대를 세워 지지해 준다.

다음으로 A자형 지주대이다. 이 방식은 주로 덩굴성 작물의 재배에 활용한다. 일자형 지주대보다 더 길고 굵은 지주대를 A자 모양으로 세운 뒤 지주대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끈 등을 얼기설기 얽어서 작물의 덩굴이 쉽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원형 또는 우리cage형 지주대이다. 보통 가정이나 텃밭에서 토마토나 피망 등의 작물을 재배할 때 유리하다.

특징 및 의의 고추, 가지, 오이, 애호박 등의 작물을 주로 노지에서 재배하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지주대를 활용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농사가 점차 첨단화된 시설 하우스에서 행해지면서 지주대도 전문화·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농업 정책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고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2017), 오이(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2017), 텃밭백과(박원만, 들녘, 2008), 토마토(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2017), 호박(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2017).

필자 김석기(金石基)

직전
職田

정의 일반적으로 관직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를 뜻하지만, 협의로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한 수조지收租地.

내용 중국의 수隋·당唐에서 율령제에 따라 관인에게 지급하는 직분전職分田을 직전職田이라고 하였듯이 직전은 관직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상으로 고려시대부터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인에게 분급되었던 전시과 토지를 뜻한다. 전시과는 문무 양반을 비롯하여 군인에 이르기까지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토지이므로 직전으로 불릴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상 직전이 하

나의 역사 용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1466년(세조 12) 8월에 시행된 직전법職田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왕조는 건국을 전후하여 고려 말 혼란하던 토지제도를 개선하고자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였다. 과전의 지급 대상자는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하되 산관散官을 포함하였으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의 처妻가 수절하는 경우 수신전守信田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전부 혹은 절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과전을 받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어린 자식에게 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역시 과전을 모두 이어받도록 하였다. 본래 과전은 관료 본인 일대一代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처나 자식에게 전수되면서 점차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전의 몰수와 재분배를 통하여 관료들 간의 수조지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세조는 즉위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양안量案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신전과 휼양전의 불법적인 전수를 차단하였다. 아울러 과전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차 직전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그 결과 1466년에 이르러 현직 관리만이 직전이라는 수조지를 받게 된 것이다. 직전법의 실시로 산관은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신전·휼양전의 명목이 폐지되어 모두 직전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과전이 가진 세록世祿(대대로 녹을 이어받음)의 성격은 사라지게 되었다.

직전법의 실시로 인해 관료들은 퇴직 이후의 생계와 가족들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졌으므로 끊임없이 과전의 복구, 특히 수신전과 휼양전의 복구를 줄기차게 요청하였다. 또한 직전으로 지급되는 토지의 액수도 과전법보다 줄어들게 되어 이를 만회하려는 관리들은 전조田租와 고초藁草를 규정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전법 단계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조율과 고초의 징수량을 규정하고 답험손실踏驗損實을 수령의 책임하에 두는 등 단호히 대처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인 수취에 대해서는 경작 농민인 전부佃夫가 관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전을 몰수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리가 직접 수조지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전조 수취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

1470년(성종 1) 4월 정부는 꾸준히 발생하는 직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직전의 소출을 거두어서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관리들의 직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관수관급을 통해 직전을 경작하는 농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전조田租를 직전세職田稅라고 한다. 또한 전조 이외에 문제가 되었던 초가草價도 낮추었으며, 결국에는 이것도 관수관급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성종 대 관수관급제의 실시는 사실상 수조권이 사라지고 이제는 수조지의 실질적인 경작자이자 소유자인 농민에 대한 관리의 지배력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생산자인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봉건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직전세의 수취와 지급은 녹봉에 대한 가급加給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직전의 분급 취지도 무색해져 갔다. 여기에 더하여 흉년과 재정 궁핍의 이유로 직전의 지급이 중단되고 직전이 다른 명목으로 분급되면서 직전 자체도 축소되었다. 태종 초에 과전이 8만 4,100여 결, 세종 대에 과전이 6만 8,000여 결이었던 것에 비하여 성종 15년에는 직전과 공신전을 합쳐서 1만 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중종 대에 이르러 직전과 공신전, 별사전 등 사전私田의 전조 총액은 3,000~4,000석 정도였다. 16세기 중엽 명종 연간에 이르면 거듭되는 흉년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직전은 더 이상 지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던 직전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직전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한국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토지분급제의 하나로 이해된다. 고대의 토지제도로서 관료전, 고려시대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과 직전은 관리에게 토지의 수확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을 통한 경작 농민 지배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직전의 폐지는 토지분급을 통한 수조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종래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는 사자세록仕者世祿이라고 하는 봉건 지배의 한 형태였으나 토지를 통한 농민의 지배와 지배 권력의 세

습이 모두 부정된 것이며, 이후 소유권을 중심으로 토지 지배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조선전기 직전제의 운영과 그 변동(이경식, 한국사연구28, 한국사연구회, 1980),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科田法から職田法へ(深谷敏鐵, 史學雜誌51-9·10, 史學會, 1940).

필자 오치훈(吳致勳)

직파법
直播法

정의 씨앗을 전답에 직접 뿌려 재배하는 파종 방법.

역사 직파법直播法이라는 농학 용어는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 방법을 이식법移植法과 직파법直播法의 두 종류로 분류할 때 사용된다. 이와 같은 분류법은 이식과 직파의 근대적 농학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근대 농학이 도입되면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파법은 농학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농학적 의미는 씨앗을 경지에 직접 파종하여 수확기까지 재배하는 일반적인 재배 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묘를 모판에서 키워 옮겨 심는 일반적인 이식 재배법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적 의미는 조선시대 벼 재배법의 변화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이다. 전기의 직파법에서 후기의 이식법(이앙법移秧法)으로 발전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속학에서 직파법의 중요성은 이러한 직파법의 역사적 의미에서 나온다.

전통사회의 벼 재배법 내용은 15세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은 15세기를 기준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15세기 초 조선에 보급된 농서로는『농서집요農書輯要』와『농사직설農事直說』이 있다.『농서집요』는 중국 원대에 편찬된『농상집요農桑輯要』에서 발췌하고 이두로 번역한 농서이므로 당시의 농법이 이두문으로 담겨있다.『농사직설』은 세종 대에 간행된 농서로서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삼남三南(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선진적인 농법을 담고 있다. 두 농서에는 전통사회의 직파법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내용『농사직설』에 따르면 도작에는 수경水耕, 건경乾耕, 삽종揷種(또는 묘종苗種), 밭벼(한도旱稻 또는 산도山稻) 재배 등 네 가지 재배법이 있었다. 수경은 무논에 볍씨를 직접 뿌려 재배하는 방법으로 당시에는 수삶이 또는 수부종이라고 하였다. 건경은 마른 논에 직접 볍씨를 뿌려 재배하다가 우기에 관개灌溉하는 방법으로 건삶이 또는 건부종이라 하였다. 수부종과 건부종은 치전할 때 경지의 관개 여부를 기준으로 나뉘므로, 합쳐서 부종법이라 하였다. 벼농사의 부종법은 직파법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삽종은 별도의 모판에 묘를 길러 무논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서 이앙법이라고 하였다. 밭벼는 특수한 벼품종으로 직접 밭에 씨를 뿌려 밭작물로 재배하는 방법을 가리켰다. 수경, 건경, 밭벼재배는 재배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볍씨를 경지에 직접 뿌려 재배하므로 농학적으로 직파법이며, 삽종은 옮겨심기이므로 이식법이다. 이 가운데 15세기의 일반적인 도작 방법은 수부종水付種과 건부종乾付種, 즉 부종법付種法으로 불리던 직파법이었다. 부종법은 조선 후기에 중남부 지역에서 이앙법으로 대체되었고, 특히 삼남에서는 이앙법이 주된 재배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도작의 변화는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도작의 직파법은 부종법, 즉 수부종과 건부종을 의미하였다.

『농사직설』에는 부종법을 수경과 건경으로 나누어 벼 재배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수경 재배법은 파종에 앞서 물에 담가 싹을 틔운 벼 종자를 정지된 마른 논에 균일하게 뿌리고 번지(판로)나 추개(파로)를 끌어서 복종한 후 물을 대어 제초하면서 재배하는 방법이다. 품종에 올벼(조도早稻)와 늦벼(만도晩稻)의 구별이 있지만 파종 시기만 2월 상순과 3월 상순으로 다를 뿐 재배법은 동일하였다.『농사직설』의 수경 재배법은『농서집요』의 이두문에 '수종水種'으로 표기되었다.

건경 재배법은 당시 건삶이로 일컬어졌다. 조선 후기에 건부종 또는 건파법乾播法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수도水稻)건파법으로 굳어졌다. 건부종(건경)은 봄가뭄으로 만도의 수부종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벼 재배법이었다. 따라서 건부종이 사용된 곳은 주로 천수답(봉천답)이었다. 먼저 마른 논을 써레질로 충분히 치전治田한 후 숙분熟糞이나 오줌거름을 섞은 벼 종자를 족종足種이라는 점파로 파종한 다음 제초하며, 재배하다가 묘가 성장하면 관개하여 수부종처럼 재배하는 방식이다. 밭벼도 건경으로 재배되지만 묘가 성장해도 관개하지 않고 밭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농사직설』의 건경 재배법은 『농서집요』 이두문에 건종乾種으로 기재되었다.

벼의 직파 재배법은 수부종과 건부종 두 종류이지만, 파종 경지와 치전 경지의 관개 여부에 따라 수부종은 한경수종旱耕水種과 수경수종水耕水種, 건부종은 한경건종旱耕乾種과 수경건종水耕乾種으로 나뉘었다. 『농서집요』나 『농사직설』에서 수전의 경기耕起 작업은 기본적으로 물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졌지만 물을 댄 상태로 경기하는 방법도 있었다. 물을 대지 않은 밭에 이루어지는 경기법은 한경 또는 건경이라 불렸으며 향명으로는 건삶이[乾沙彌]라고 했다. 물을 댄 밭에서의 경기법은 수경이라 불렸으며 향명으로는 수삶이[水沙彌]라고 했다. 종자를 물 댄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을 수종, 대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을 건종이라 하였다.

한경수종은 마른 논을 경기하여 관개한 상태에서 파종하는 방식으로, 뿌리가 깊어 가뭄을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졌다(1457, 『세조실록世祖實錄』). 한경건종은 한경한 마른 논에 미리 싹을 틔운 종자를 파종하고 써레로 복종한 후 관개하여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봄가뭄으로 수종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경건종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경한 마른 논을 치전하여 족종법으로 파종하고 싹이 튼 후에 관개하여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수경수종은 물을 댄 상태로 치전하고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식으로 가뭄에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징 및 의의 도작의 직파법은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재배법이었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 이앙법으로 대체되었다. 농촌에서 이앙법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복 이후 한국 농업은 근대화·기계화 속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전통사회에 일반적이었던 도작 직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대부분 일실되었다. 간략한 추상적 내용은 조선시대 농서에 일부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농촌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통 농법의 복원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다. 전통사회 도작 직파법 기록의 다양한 해석과 실험적인 농촌 경험은 전통 농법의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農事直說, 農書輯要, 농서집요를 통해서 본 조선 초기의 경종법(오인택, 지역과 역사5, 부경역사연구소, 1999), 농업대사전(학원사, 1973),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1971).

필자 오인택(吳仁澤)

찰벼

정의 아밀로스가 없어 찰기가 높은 벼품종.

개관 벼를 도정한 쌀의 투명도를 보아 멥쌀과 찹쌀로 구분된다. 멥쌀은 투명하며 찹쌀은 뽀얗게 불투명하다. 쌀 전분은 주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 다당류로 구성된다. 찰벼로 도정한 찹쌀은 아밀로스가 거의 없고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밥알의 횡단면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세한 구멍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는 스펀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이 때문에 찰밥이나 떡이 매우 차진 성질을 나타내며, 멥쌀(메벼)보다 덜 굳어지고 부드러움이나 탄력성을 오래 유지하기도 한다.

내용 쌀은 형태적·이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쌀 배유의 투명 여하에 따라 찰벼와 메벼로 구분되어 왔다. 벼 상태에서는 멥쌀과 찹쌀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 멥쌀(메벼)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찹쌀(찰벼)은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다. 찰벼는 주로 찹쌀로 도정되어 가공용(떡류)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찹쌀은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된 전분으로, 밥이나 떡을 만들면 멥쌀에 비해 차진 성질을 나타내며 오래 두어도 잘 굳어지지 않고 탄력성과 부드러움을 오래 유지한다. 찰벼품종으로는 조생종(상주찰·설백·월백·진부찰 등), 중생종(눈보라·보석찰·신선찰·한강찰

1호·해평찰·화선찰), 중만생종(동진찰·반미·백설찰·백옥찰·백진주·백진주1호 등)이 있다.

최근 메벼에 약제 처리를 하여 배유胚乳 돌연변이체를 개발하여 메벼와 찰벼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반찹쌀이 개발되어 농가에 재배되고 있다. 저아밀로스 벼(쌀)로도 알려지고 있는 반찹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약 9%로 찹쌀과 비교해서 배유의 불투명 정도가 약간 덜한 편이며 육안으로 구별은 어렵다. 백미에 요오드 용액을 처리하면 멥쌀은 청자색, 찹쌀은 옅은 적자색, 반찹쌀은 멥쌀과 찹쌀의 중간 정도의 붉은 자색을 띤다(Choi et al. 2006). 주요 저아밀로스(반찰벼) 품종으로는 백진주(아밀로스 9.1%)·백진주1호(아밀로스 11.5%)·월백(아밀로스 11.6%)·미호(아밀로스 11.2%) 등이 있으며, 농가 재배 품종으로는 진상벼와 밀키퀸(아밀로스 약 10%)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찰벼를 가공하여 도정한 찹쌀은 주로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떡류 가공식품 혼반용(현미밥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벼와 쌀1·2(한국쌀연구회, 2010), 쌀을 알자(최해춘, 신구문화사, 1997), New mutants of specialty rice induced from Ilpumbyeo, a high-quality·japonica rice, and its mutant, Suweon 464(HC Choi·SN Ahn·HC Hong·YK Kim·HG Hwang·TY Kim,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51-22, ACS Publications, 2006).

필자 박광호(朴光鎬)

참깨

정의 꿀풀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로, 씨앗으로 기름을 짜거나 씨앗 자체를 양념으로 이용하는 식물.

개관 참깨*Sesamum indicum L.*는 호마胡麻, 지마芝麻, 향마香麻라고도 불리며, 이집트와 인도 등 서아시아가 원산지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한 유지용 재배 작물 중 가장 오래된 작물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이전부터 재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조선시대에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 대표적 토산물이다. 재래종 참깨는 색깔에 따라 '흰깨·누런깨·검정깨'로, 꼬투리 모양에 따라 '팔모깨·육모깨·네모깨'로 나뉘며, 익는 시기에 따라 올깨와 늦깨가 있다. 재배 기간에 따라서 40일깨, 50일깨, 60일깨가 있다. 40일깨는 숙기가 빠르고 키가 작으며, 60일깨는 숙기가 늦고 키가 크며 수확량이 많다. 완전히 익어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벙어리깨'라고 부르기도 하며, 늦게 열매가 달리고 가지를 많이 치는 것을 '느리깨·가지깨'라고도 한다. '팔모깨'는 가지를 잘 치지 않고 마디가 짧은 특징이 있지만, 간혹 6개의 가지를 치기도 한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씨를 뿌린다. 플라스틱 작은 병뚜껑에 구멍 세 개를 뚫어 한 구덩이에 세 알씩 파종한다. 참깨와 팥을 섞어짓기도 한다. 참깨를 세 구멍에 심고 늦팥을 한 구멍에 심는다. 밭을 간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참깨와 팥을 섞은 종자를 고루 뿌리도록 한다. 포기 사이는 넓게 하는 것이 좋다. 촘촘히 심으면 가지가 많이 나지 못하여 수확이 적다. 성숙기 무렵에 여름 태풍이 오므로 참깨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작물로 섞어짓기를 하는 것이 좋다. 10월에 꼬투리가 벌어지기 전 줄기가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이슬이 깨기 전 아침에 거두어 참깨대를 5~6다발로 묶어 서로 기대어 세워 놓고 꼬투리가 벌어지기를 기다린다. 흙바닥인 경우에는 바닥에 비닐이나 바닥 깔개를 이용하여 익으면서 씨앗이 터져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 이후 꼬투리가 벌어지면 다발을 하나씩 거꾸로 세워들고 작은 막대로 가볍게 두드려 탈곡한다. 1차로



참깨밭 | 인천 강화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참깨 말리기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턴 다발은 제자리에 세워 두고, 3일에 한 번씩 서너 차례 탈곡한다.

씨앗으로 쓸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널어 말렸다가 이듬해 사용하는데, 상온에서 3~4년 묵혀도 싹이 잘 나온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오직 꼬투리가 여덟 모진 것이라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였고, "땅이 거칠고 백색의 토양이 더욱 좋다. 보리와 그루갈이면 거름재와 섞어서 비가 내린 후 땅이 습할 때 땅을 갈고 씨를 흩뿌린 다음 고무래로 흙덩이를 깨뜨려 복토하며, 김매기는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참기름과 통깨 양념으로 쓰이며, 떡·엿·과자에 넣기도 한다. 지방유가 들어있어 자양 강장 및 변비 치료에 좋고, 다른 생약과 배합하면 허약체질·병후 회복용으로 유효하며, 염증에 외용되고, 해독제·완화제·연고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름을 내고 남은 찌꺼기인 깻묵은 사료·비료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흰깨는 기름이 많으므로 착유용으로, 검은깨는 보양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흰깨는 고함유지방산이, 검은깨는 고단백 아미노산 개량이 육종 지침으로 되었다.

『해동농서海東農書』에서는 "검은깨를 구증구포한 후 빻아 꿀을 섞어 거위알만 한 환을 만들어 하루 5개씩 100일을 먹으면 다시는 병이 없으며, 1년이 지나면 몸과 얼굴이 매끄럽고 기름져서 물이 묻지 않고, 2년을 먹으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3년을 복용하면 빠진 이가 다시 나며, 4년을 먹으면 물이나 불로 화를 입지 않으며, 5년이 되면 달리는 말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農事直說, 海東農書, 토종농사는 이렇게(변현단, 그물코, 2018).

필자 변현단(卞現丹)

참외

정의 박과 오이속의 덩굴성 한해살이 재배식물로 멜론의 일종.

개관 참외는 분류학상으로 멜론과 같은 종이다. 1차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적도 동쪽인 사하라 남쪽 지방으로, 2차 원산지는 중근동 지역과 인도·중국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에 중국 화북지역으로부터 들어와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미 재배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우리나라 참외는 3,614*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13만 528t이다. 대부분 시설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 생산액은 3,276억 원으로 채소 전체에서는 2.8%, 과채류 중에서는 6.3%로 7번째로 비중이 높은 작물이다. 참외는 대구·경북 지역이 주산지이며,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96%를 생산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재래종이 재배되었고, 1960년대 중반에 F1품종이 보급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반촉성·촉성 작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금싸라기은천참외의 보급에 의해 소비가 연중 확대되면서 한 번 심어서 초가을까지 수확하는 소위 연장재배 작형이 성립되었다.

참외 품종에는 개구리참외 등의 지방재래종부터 최근의 개량종까지 많은 품종이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노지재배용인 은천 계통, 시설재배용으로 육성된 신은천 계통, 신은천 이후에 육성된 단성화로서 당도가 높은 금싸라기은천참외 계통과 신은천과 금싸라기은천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즉 양성화이면서 배꼽이 작은 황태자참외 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금싸라기은천 계통의 참외를 개량한, 과장이 짧고 골이 깊으면서 과피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품종이 개발되었다. 2003년에 개발된 오복꿀참외가 금싸라기은천참외 이후 가장 대표적인 참외 품종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참외 재배에서 방제가 가장 어려운 병인 흰가루병에 강한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조은대참외와 국보꿀참외, 오복플러스꿀참외 등이다. 최근 참외 재배 주산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은 오복꿀참외, 부자꿀참외, 만리장성참외, 조은대참외 등이다.

참외는 따뜻한 물에 침종한 종자나 어린뿌리가 약간 보일 정도로 싹을 틔운 종자를 파종한다. 파종 5~7일 후 참외 떡잎이 전개되어 펼쳐지는 시기에 대목용 종자를 파종하고 11~15일 후에 접목한다. 아주심기는 본잎이 4~5장에서 순지르기를 하여 아들줄기가 발생할 무렵이 적당한데, 겨울철 파종의 경우 45~50일 정도 육묘하면 된다. 참외는 보통 손자덩굴에서 착과시키며 생장조정제나 벌을 이용한다. 저온기에는 수확까지 수정 후 37~40일, 고온기에는 27~30일이 걸린다.



참외 | 경북 성주 | 농촌진흥청



개구리참외 | 2007 | 농촌진흥청

특징 및 의의 참외는 열량이 높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시원한 맛이 있어서 인기가 많다. 약리적으로 덜 익은 참외꼭지를 말린 것은 독약이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먹었을 경우 토해 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기침과 가래를 그치게 하고, 변비에도 도움을 주며, 풍담·황달·수종·이뇨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2018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기술길잡이105-참외재배(농촌진흥청, 2018).

필자 김태복(金兌福)

채반

정의 싸리 껍질 등으로 둥글고 넓적하게 만들어서 건조 등에 사용하는 용기.

내용 채반은 물기 있는 채소의 물기를 빼고 나물을 말리거나 음식을 식히는 데 사용하는 생활 용기이다. 채반은 공기를 잘 통하게 하고 물기를 잘 빠지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우수한 투수성透水性과 통기성通氣性은 물기를 빼고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덜 상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게다가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자는 채반을 쉽게 다룰 수 있다. 농가에서는 7월경 주변의 야산 등지에서 싸리를 베다가 껍질을 훑어 낸 후 용도에 맞게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채반을 만든다.

김장 때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은 후 채반에 담아서 물기를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썰어서 올려놓기도 한다. 이때 미나리와 갓, 표고 등은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채반에 담아서 물기를 빼고 함께 버무려서 배춧속으로 사용한다.

평상시에는 호박과 가지, 고구마 등 고지를 썰거나 각종 나물 등을 깨끗이 씻은 후에 채반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햇빛에 바싹 말린다. 명절과 잔치에 쓸 전과 누르미, 고기 등 기름진 음식을 장만할 때는 기름에 지진 후 채반에 담아서 열을 식힌 다음에 상차림에 낸다. 어

촌에서 해산물과 어류 등을 말릴 때도 채반을 활용하였다. 채반을 활용한 말리기는 음식물의 장기간 보관과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채반은 싸리채로 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월은 싸리 껍질을 훑는 데 적절한 시기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싸리의 물이 말라서 껍질이 잘 훑어지지 않는다.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끝낸 7월경에 싸리를 베어다가 찍개처럼 날카롭게 생긴 나무로 껍질을 훑어 채반을 만들 준비를 마친다. 큰 껍질은 큰 채반을, 작은 껍질은 작은 채반을 만드는 데 쓴다. 농가에서는 대부분 채반을 촘촘하면서도 견고하고 외견상 보기도 좋게 만들지만, 얼기설기 쉽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얀 꽃이 피는 쪽싸리 껍질은 가장 작은 채반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채반 재료로는 쪽싸리에 비해 통싸리가 더 양질이다. 쪽싸리로 만든 채반은 크기가 작은 반면에 빛깔이 희고 매끄러워서 쉽게 더러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로 씻기도 쉬워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채반 | 지름19 | 국립민속박물관



채반 | 전북 임실 | 황헌만

둥글고 넓적한 모양은 채반의 공통적인 생김새이다. 차이가 있다면 평평하면서 납작한 채반과 운두를 낮게 배치한 채반이 있다. 앞의 채반은 바닥에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 채반은 음식물 등을 말리는 데 주로 사용한다. 뒤의 채반은 굽이 있으며, 운두가 있어서 음식이나 농작물 등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일정 기간 보관하는 데 용이하다.

싸리 이외에 버드나무 또는 대나무 따위의 가는 나무오리는 채반을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재료이다. 대나무가 많이 나는 고장에서는 대나무 껍질로도 채반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경기도 지방에서는 줄풀의 줄기를 돌려가면서 엮은 채반을 쓰기도 하였다. 줄풀은 굵은 뿌리가 진흙 속으로 뻗어 가며 잎이 무더기로 나오고 높이가 1~2m 정도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草本이다. 농가에서는 이처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채취하여 생활에 필요한 용기를 만들어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제작 과정은 싸리 또는 대오리, 고리버들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세운 날을 같은 재료로 씨줄로 둥글게 돌려가면서 바닥을 우선 만든다. 그리고 여러 가닥의 날줄을 서로 엮어가면서 운두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면 채반의 전체적인 제작 과정이 끝난다. 원재료의 특성상 채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긴다. 틈 사이가 취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물기가 빠지고 바람이 통하는 통로로서 채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크기는 50cm에서 1m가 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전에는 농산물을 널어서 햇볕이나 바람에 말리는 등 자연을 아주 폭넓게 활용하였다. 현대에는 건조기를 이용하거나 채반 대신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 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채반을 활용하여 집안에서 나물 등을 말리는 모습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상관없이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채반은 실생활에서 물빼기, 건조, 보관 등 여러 목적과 용도로 활용한 필수품이었다. 농가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변의 산과 들에서 채취한 재료로 채반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채반은 원재료의 흡수력이

좋아서 플라스틱 제품보다 건조 속도가 빠르고 건조 후에 양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채반으로 건조하였을 때 질이 플라스틱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지금도 채반은 일반 가정에서 나물이나 버섯 등을 말리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포의 농기구와 생활용구(김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10),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천일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천일록
千一錄

정의 조선 후기 수원(현재 경기도 화성) 지역에 거주하던 향촌 지식인 우하영이 문헌을 탐독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종합하여 농업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 사회의 현상과 그 개편 방향을 저술한 책.

내용 원본은 필사본 11책으로 저술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10책만이 전해지며, 가장 선본으로 여겨지는 도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 이본이 있다고 하지만 학술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별본이 있음은 확실하다. 2015년 화성시에서 색인집까지 모두 7권으로 상세한 주석을 단 국역서를 간행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쉽게 이 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원본의 저술 시기는 1800년경으로 파악되는데, 저술의 바탕이 된 원고는 18세기 말 이래 꾸준히 집필되어 1800년대 초에 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인 취석실 우하영禹夏永(1741~1812)은 1796년(정조 20)과 1804년(순조 4)에 임금이 조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내린 윤음에 따라 '수원유생 우하영' 명의로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올림으로써 처음이다시피 세상에 알려졌다. 책의 제목인『천일록千一錄』은 이 상소문의 제목으로 쓰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 뜻은 "천 가지 생각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쓸 만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 두 차례의 응지상소는 그가 저술 중이던『천일록』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상소 후 다시『천일록』저술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천일록』이 한국학계에 알려진 것은 북한에서 이를 실학사상을 담은 민족고전의 하나로 높이 평가하여 그 중「산천풍토」(제1책 도읍건립建都의 부록 일부),「토지제도[田制]」(제2책 일부),「농가총람農家摠覽」(제8책)을 국역하고 이 북한본 국역서가 일본을 통해 한국에 전해지면서였다. 이 영향이 초기 연구는 물론 근래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책의 농업기술론과 농업경영론, 농정개혁론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농업사 연구에서 주요 텍스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천일록』제8책「농가총람」은 농서로서 압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산천풍토의 차이와 근면함과 게으름의 차이라 표현되는 자연환경의 차이와 농업생산 집약화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 농법의 분화를 설명한 점에 대한 설명은 농업 현장의 상황적 다양성을 도외시하는 농서들과 이 책을 차별화한다. 또한 지역농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대하고 체계적인 서술을 완결시킨 점은 지역환경과 지역농법의 차이에 주목한 농서들 중에서도 이 책의 내용이 돋보이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농서로서만 이해한다면 이는 일면적인 파악이다.『천일록』은 농업의 범위를 넘어 국가·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방대한 정보와 독창적 사유를 담고 있으며, 소농을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하여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실용적 지식과 학문

적·정책적 대안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특히 조선 내 지역별 산천풍토 형세와 생활문화 풍속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이를 문헌적 지식과 종합해서 조선의 국가체제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정비책을 마련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천일록』의 내용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면이 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천일록』은 오랜 기간 저술되고 꾸준히 수정, 가필된 일련의 저작물이 말년에 경세학經世學 성격의 총서叢書 형태로 집성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제의 완결성이나 체계성의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점은 이 책의 한계이다. 그러나 향촌 지식인의 입장에서 문헌을 고구하여 얻은 지식과 현장을 탐방하며 얻은 견문을 종합하여 저술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출하고 우수한 저작물이다. 특히 농서의 성격을 지닌 제8책 농가총람은 조선시대 농서를 통틀어도 굴지의 수준으로 꼽을 만큼 탁월하다.

우하영의 존재는 초기에 수원유생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저 향촌 지식인이라고 막연하게 추정되고는 하였다. 이후 연구를 통해 그가 이황의 제자로 성장하여 남인의 영수로 활약하고 임진왜란 중 의병장으로도 큰 공을 세운 추연 우성전禹性傳(1542~1593)의 직계 7대손이며, 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생가터가 있다는 등 전반적 정보가 확인되었다. 우하영을 평범한 향촌 지식인이나 농민 입장에 선 무명 실학자로만 보는 견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나 명문가의 후손임에도 증조부 대부터는 벼슬을 하지 못하였고, 그 자신도 조부 사망 이래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여 과거에 몇 차례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몰락하였다.『천일록』에서 스스로 적었듯이 우하영이 빈한한 양반으로서 모멸을 견디며 살아야 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일이었다. 따라서 소농 중심의 생산론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농업론은 동시에 몰락한 명문가의 소외되고 가난한 양반이라는 처지 그리고 그 자의식과도 관련이 깊다고 이해된다.

한편 우하영이라는 인물과『천일록』이라는 저술은 한국 농업사의 초기 단계 연구에서 지주의 입장에 선 농업론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대개 우하영이 균전제나 여전제와 같은 농지소유의 개혁을 내세우지 않고 농지의 경계 확립이나 조세 공평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론이라는 것이 소유론 외에도 기술론·경영론·정책론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총체적 구성물이라고 할 때, 우하영의 농업사상을 지주적 입장에 선 것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따라서 상당히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농 생산을 중심으로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소농들을 지도하는 향촌 지식인의 역할을 높이는 소농적 농업론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함이 옳을 것이다. 특히 자연환경과 집약농경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농법의 여러 차원을 드러낸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 문제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상공업과 광업 등 산업 전반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가 제도와 사회문화적 관습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특히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일대의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것을 모색하는 등 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사회의 전체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식견을 펼친 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천일록』은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이 18세기 말이라는 시간과 근기近畿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농사를 짓고 살면서 바라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는, 아주 좋은 읽을거리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안승택, 신구문화사, 2009),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최홍규, 일지사, 1995),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취석실 우하영의 삶과 학문-다시 여는 천일록과 그의 시대(최홍규 외, 화성시청, 2014).

필자 안승택(安勝澤)

청산도 구들장 논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청산도 구들장 논 | 전남 완도 | 2014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청산도 구들장 논 | 전남 완도 | 농림축산식품부

개관 청산도는 완도읍에서 남쪽으로 19.2㎞ 떨어져 있는 완도군의 부속 섬으로 5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도의 지형은 둥근 소라 모양이며, 섬의 중심에서 동서로는 분지, 남북으로는 대봉산·대성산·보적산 등 표고 400m 이하의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총면적 41.87㎢ 중 임야가 71.4%를 차지하며, 분지나 완경사지를 개간하여 논과 밭이 각각 12.2%, 8.9% 형성되어 있다.

청산도는 경사지가 많은 데다 돌이 많고 물이 쉽게 빠지는 사질토양이라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다. 청산도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농부들은 이러한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식량과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독특한 논 개간기술과 지하 통수로를 이용한 수리관개기술을 개발하여 섬 곳곳에 구들장 논을 조성하였다. 17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개간되어 온 구들장 논은 토지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통농업기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청산도 농부들은 경사진 땅에 계단식 석축을 쌓고 자갈과 흙을 이용해 평평한 논을 만들었으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구들장 형태의 지하 통수로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농지면적을 극대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산도 구들장 논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산도 구들장 논은 지형적으로 산림과 주거지의 경계부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2014년 조사 결과 총 8개 법정리(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청계리, 지리, 도청리, 읍리, 모도리)에 총 895필지, 면적 65만 2,828㎡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 논은 농업기술·농업문화·농업생물다양성·농업경관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선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내용 청산도 구들장 논은 17~18세기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경작지가 부족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말부터 임진왜란을 피해 부흥리 함양박씨, 양지리 안동권씨, 지리 김해김씨, 청계리 충주지씨 등의 입도조入島祖들이 섬으로 들어와 정착하였고,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자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상서리에 속하는 덜리乭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피해 청산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주한 곳으로 구들장 논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청산도는 경작지가 적어 항상 식량이 부족했는데 인구가 늘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여건이 매우 불리한 곳까지 논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도입한 논 개간 방법이 전통 온돌과 유사한 구들장 논이었으며, 1940년경까지도 구들장 논 개간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구들장 논은 먼저 경사지 하단부에 축대를 쌓고 온돌의 아궁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들을 놓듯 넓적한 돌을 놓아 그 위에 돌과 흙을 다져 쌓는 방식이다. 구들

장 논은 전통 온돌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온돌이 방바닥 전체에 구들을 깔고 아궁이에서 나온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구들장 논은 바닥에 크고 작은 돌을 쌓고 아래쪽에 정방형 통수로를 만들어 물의 용수와 배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통수로는 온돌의 아궁이와 닮았으며, 아궁이가 불의 세기를 조절하듯 통수로는 물의 양과 물길의 방향을 조절하여 용수를 관리하고 운용하였다. 이러한 구들장 논은 물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구들장 논은 청산도에서도 사질토양이 발달한 동부지역에 주로 형성되어 있고, 물이 잘 흐르고 관리가 쉽도록 계단식 형태로 조성되었다. 하부구조인 석축은 크고 작은 돌을 성기게 쌓아 돌을 절약하였으며, 토양유실로 인해 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돌의 크기는 논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작아진다. 석축의 높이는 지형의 경사에 따라 다르며, 보통 1~1.5m 정도이고 높은 것은 3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석축의 중간 부분에 평평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조금 안으로 들여 '중대'라고 하는 석축을 다시 쌓아 올려 석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석축 하부에는 지하 암거형 통수로가 설치된다.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수구 역할을 하는 통수로는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석축의 하부나 중간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그 위에 구들장 모양의 판석을 얹어 정방형으로 조성하였다. 통수로는 대개 안쪽으로 3~10m 깊이로 뚫려 있고 통수로의 앞에는 좁은 수로인 '샛똘'을 설치하였다. 윗논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아랫논에 댈 때는 샛똘을 열고, 물을 댈 필요가 없을 때는 물길을 막아 아랫논으로 바로 흘려보낸다. 이와 함께 통수로에서 흘러나온 물을 아랫논으로 바로 흘려보내는 수직 통수로가 설치된 곳도 있다. 이러한 통수로는 물의 양에 따라 위치와 개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물이 많이 흘러 내려오는 논에는 통수로가 많고 크기도 큰 편이다.



청산도 구들장 논 | 전남 완도 | 2014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석축 위의 토양층은 용수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밑복글 물잡기'라고 하는 혼합토층으로 조성한다. 혼합토층은 작은 돌과 흙을 혼합하여 두께를 20~30㎝로 깔고 물을 넣어가며 괭이나 삽을 이용하여 다지고 메꾸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완료되기까지 15일가량 소요된다. 혼합토층은 논에 물을 댔을 때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작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다. 혼합토층 위에 '윗복글'이라고 하는 표토층을 20~30㎝ 두께로 복토하여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구들장 논 조성은 돌과 흙을 나르고 쌓고 다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힘든 노역이었다. 따라서 가족이나 마을단위의 협업을 통해 경작지를 조성했으며, 작은 구들장 논 하나를 만드는 데 수개월 또는 1~2년이 소요되었다. 조성된 구들장 논을 경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협업은 필수적이었고, 이로 인해 돈독한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었다. 구들장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보를 관리하기 위해 몽리구역의 논을 묶어 보작인을 선정하였고, 보작인은 보 관리는 물론 농업용수를 엄격하게 분배하였다. 이와 함께 경작에 필수적인 소[牛]를 나누어 빌려 쓰는 '소언두' 제도를 두어 농사에 필요한 농업도구를 함께 사용해 왔다.

특징 및 의의 청산도 구들장 논은 비탈진 경사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조망점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해안-주거지-구들장 논-산림으로 연결되는 경관이 청산도를 대표하는 농어촌 경관이라 할 수 있다. 구들장 논은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과 하부의 마을, 해안이 연계되는 경관을 형성한다. 고도가 낮은 곳에서 조망할 경우에는 구들장 논과 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경관이 형성되고, 높은 곳에서 조망할 때는 구들장 논과 해안, 마을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복합경관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만든 구들

장 논의 독특한 구조는 이렇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농업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돌을 쌓아 만든 구들장 논은 마치 돌담 위에 논을 올려놓은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 구들장 논 석축에 설치된 통수로는 다른 계단식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경관이다. 벼가 한창 성장하는 하절기에는 통수로에서 농업용수가 쏟아져 나와 작은 폭포를 이루는데, 이는 청산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논농업 경관이다.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구들장 논은 유려한 선형의 농업경관을 형성하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경관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부흥리와 양지리에 위치한 구들장 논은 동부지역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경이로운 복합경관을 형성한다.

섬 지역의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돌을 쌓고 땅을 다져 조성한 구들장 논에는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청산도 농부들의 지혜로운 농업기술과 농업문화 등 삶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식량 생산은 물론,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소를 명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관요소를 갖추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 논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키고 보전해야 할 농업유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종합계획 및 지표자원조사(완도군, 2014), 청산도의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조경만, 도서문화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991).

필자 정명철(鄭明哲)

체

정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거르는 데 쓰는 고르는 연장.

내용 알곡이나 가루의 크기에 따라 곡식과 가루를 고르는 데 사용하는 전래농구이다. 문헌에는 우리말로 체(『사성통해四聲通解』『훈몽자회訓蒙字會』『역어유해譯語類解』『동문유해同文類解』『방언류석方言類釋』) 혹은 쳬(『재물보才物譜』『사류박해事類博解』), 키(『자류주석字類註釋』)라고 하였고, 한자로는 나籮(『훈몽자회』『물보物譜』『사류박해』), 사篩(『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한정록閑情錄』『색경穡經』『산림경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고사신서攷事新書』), 사篩(『훈몽자회』『신증류합新增類合』『북학의北學議』), 사라篩羅(『사성통해』) 등으로 썼다. 어레미는 얼멍이(『사류박해』), 어러미(『재물보』)라고 하였고, 한문으로는 죽사竹篩라고 썼다.



체 | 지름31 높이1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체의 제작 방법은 나무를 얇게 켜서 겹으로 끼운 두 개의 바퀴 사이에 말총이나 헝겊 또는 나일론 천이나 철사 등으로 바닥을 메운다.

체는 쳇바퀴, 아들바퀴, 쳇불로 구성된다. 쳇바퀴는 체의 몸에 해당하며, 얇게 켠 나무를 둥글게 말고 한쪽에서 솔뿌리 또는 실로 꿰매어 원통으로 만든다. 간혹 네모난 형태도 있다. 아들바퀴는 쳇바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퀴이며, 쳇불은 쳇바퀴에 매어 액체나 가루를 걸러 내는 그물이다.

체는 쳇불 구멍의 크기에 따라 어레미, 도드미, 중거리, 가루체, 고운체 등으로 나뉜다. 어레미는 얼레미(경기 안산, 강원 강릉), 얼맹이(전남 영광), 얼개미(강원 삼척), 얼금이(경상), 얼기미(전남, 충청), 얼금체 등으로 불린다.

쳇불 구멍이 가장 넓은 체로 떡고물이나 메밀가루 등을 내린다. 쳇불은 철사나 가는 대오리로 메운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의 체는 가로 3㎜, 세로 3.8㎜의 크기이다. 호남지방에서는 쳇바퀴의 울이 깊지 않게 대를 서너 겹으로 둥글게 만들고 든든한 나무껍질이나 칡으로 쳇불을 메워서 곡식의 검불 등을 가리는 데 쓰기도 한다.

도드미는 쳇불 구멍이 어레미보다 좁은 체이다. 좁쌀이나 쌀의 뉘를 고를 때 사용한다. 쳇불은 철사로 엮는 것이 보통이며, 쳇불 구멍의 크기는 가로 1.8㎜, 세로 2㎜이다(충북 봉양).

중거리는 중체(경기 안산), 중거리(충청, 강원 산척), 반체(전남 보성)라고도 한다. 중거리로는 떡가루를 치며, 시루편을 만들 때 떡가루를 물에 섞어 비비며 내린다. 쳇불은 천으로 메우기도 한다. 쳇불의 구멍 크기는 가로 1㎜, 세로 1㎜이다(충북 제천).

가루체는 신체(충북 제천), 설된체(인천 옹진), 모시미리(강원 도계), 참체(전남), 접체·밴체(전남 보성)라고도 한다. 쳇불은 말총을 썼으나 근래에는 나일론 천으로도 메우며, 송편가루 등을 내린다. 쳇불 구멍 크기는 가로 0.6㎜, 세로 0.6㎜이다(충북 봉양).

고운체는 풀체(경기 안산), 접체(인천 옹진), 술체(전남 여수시 거문도), 곰방체(전남 보성)라고도 불린다.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잔 체이며, 주로 술을 거른다. 쳇불은 말총이며, 근래에는 나일론 천으로 메우기도 한다. 쳇불 구멍의 크기는 세로가 0.5㎜이고 가로는 이보다 더 좁다.

체를 쓸 때는 그릇에 쳇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서 체를 흔들어 거른다. 명칭은 쳇더리(전남 보성), 쳇발거리(전남 영광)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쳇다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Y자 모양으로 뿔이 세 개 달린 나무이다. 강원도 도계에서는 통나무를 쟁반과 같이 둥글고 우묵하게 파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걸러진 물질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동이는 가루를 내는 데 사용하고, 함지는 술과 같은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체를 악귀를 물리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 언급되어 있다. 설날 밤에 야광귀夜光鬼라는 귀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의 신을 신어 보고 맞으면 그대로 신고 간다. 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1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대문 앞에 체를 걸어 두면 야광귀가 밤새 체의 구멍을 세어 보다가 신을 미처 신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로 되올라간다고 한다. 이때 야광귀를 쫓는 데는 쳇불 구멍이 가장 촘촘한 가루체를 이용한다. 촘촘함의 정도가 지름 0.5㎜ 정도이기 때문에 쳇불의 구멍을 사실상 헤아리기 어렵다. 체는 이물질을 걸러 내고 좋은 것을 정선精選하는 기능의 도구이기 때문에 체를 문밖이나 대문간에 걸어 둠으로써 액운은 막아 내고 행운만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체질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지방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성이 다른 세 집의 음식을 체에 받아다가 자기 집 절구통이나 디딜방아에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가락 주고 자신도 한 숟가락 먹었다. 이 밥을 '쳇밥'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그해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전한다.

특징 및 의의 체는 곡식을 고르는 재래농구로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며, 혼자 작업하기에도 적합하여 적은 양을 체질할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작업할 수 있었다. 체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근대 이후 풍구나 바람개비 등 인동력으로 작동하는 개량농구가 등장하고 자취를 감추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체는 집집마다 보유하였기 때문에 민가에서 야광귀를 쫓는 축귀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액운을 막고 행운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도를 가지는 등 민속신앙에서도 중요한 기물로 인식되었다.

현재 전통적인 체는 일부 농가에서만 사용되며, 대부분 가정에서는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등의 금속제 체가 분말 정선 등에 사용된다. 한편 산업용 측정기기로서 표준체標準篩는 눈금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황동 또는 인청동으로 제작되어 화학약품이나 의약품의 체분석시험, 광물이나 골재 등의 입도粒度조사에 이용된다.

참고문헌 식품과학기술대사전(한국식품과학회, 광일문화사, 2004),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도감(박호석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민족역사문화도감-생업(국립민속박물관,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민석(權珉錫)

추곡수매제도
秋穀收買制度

정의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따라 가격안정, 수급조절, 양곡비축, 소득지지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미곡을 직접 매입하는 제도.

개관 미곡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1939년 '조선미곡통제령'을 발포하였는데, 군량미 확보와 일본 본토로 반출할 미곡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미곡 통제가 철폐되었으나, 투기꾼 매점매석 등의 원인으로 미가 폭등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46년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에 의한 식량공출제가 시작되었고 미곡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양곡매입법〉을 통해 전면통제정책이 지속되다가 1949년 〈식량임시취급조치법〉을 거쳐 1950년 〈양곡관리법〉을 통해 미곡의 전면통제가 부분통제로 바뀌었다. 전후에는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현물수매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1962년 수매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고 현금수매가 시작되었으며 국회 동의를 얻어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추곡수매가 본격화되었다.

내용 추곡수매제도秋穀收買制度는 정부가 매년 수확 직후기에 농가로부터 쌀을 매입하여 단경기에 방출하기 때문에 '수매·방출제'라고도 한다. 쌀값의 계절변동을 완화하는 가격안정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수확 직후에 정부가 매입하면 시장가격이 오르고 단경기에 방출하면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또한 수확 직후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가 농가로부터 매입하면 생산자 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단순히 수확 직후기에 시장가격을 높이는 역할만 필요하다면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면 된다.

쌀 수급과 재정 여건에 따라 추곡수매제도의 기능은 변화되어 왔으나, 정리하자면 ①수확기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지지 ②단경기 방출을 통한 연중 가격안정 ③국가위기 및 연속 흉작 등에 대비한 공공비축 유지 등으로 볼 수 있다.

추곡수매제도는 200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시기마다 강조된 기능은 차이가 있다. 1962년부터 1969년은 가격안정, 즉 쌀값의 계절변동 및 연차변동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정부 매입량 비율은 10% 미만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들어 농가소득지지가 강조되었다. 쌀 자급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가들의 쌀 증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쌀값 지지정책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때부터 이중가격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쌀은 임금재賃



추곡 수매 | 경남 남해 | 국립민속박물관



추곡 수매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金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쌀 증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중가격제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 수단으로 수매제도가 사용되었다. 냉해와 대흉작으로 대규모 식량 수입이 이루어지고 곧 이은 풍작으로 인해 정부 보유 재고미의 이월량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정부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저가에 방출되었고 수매량도 10%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의 적자 누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1994년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개입을 줄인 '수매비축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쌀을 직접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단경기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하였다. 이중가격제는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정부가 농협과 양곡소매상협회에 쌀을 매도하였지만, 수매비축제도는 농협이나 민간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인 국내 보조금의 삭감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감축 대상 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s, AMS를 계산하여 2004년까지 보조금을 1조 4,900억 원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이 AMS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1997년 '추곡약정수매제'가 도입되었다. 추곡약정수매제는 정부가 농업인들이 재배면적을 결정하기 전인 연초에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3~4월에 희망 농가와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맺으면 매입대금의 40%를 4~5월에 지불하는 제도이다(매입대금 비율은 2001년 45%, 2002~2004년에는 60%로 인상되었다).

추곡수매제도는 AMS 감축 대상이었기 때문에 1995년 이후 매입량을 줄여 왔으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매입량은 1995년 29.3%에서 2004년 14.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가소득의 안정과 수급조정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직접지불제도 및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근거로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2004년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추곡수매제도는 전면적·직접적 통제라기보다는 통제 원리에 시장 원리를 혼합한 부분적·간접적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쌀 수매량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총생산량의 10%에 불과하였지만 1971년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후반 이중가격제를 강화하면서 도입 이후 주곡의 획기적 증산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통일벼 재배가 최고조에 달한 1977~1979년에는 23.4%의 수매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의 추곡수매제도는 쌀값 안정과 더불어 쌀 수급조절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1980년대 이후 대체로 물가안정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저임금 체제 유지 등 '국민경제의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문헌 한국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한국농업농촌100년사-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03), 한국의 농업정책(김병택, 한울아카데미, 2014).

필자 엄지범(嚴智凡)

추청벼

정의 1954년 일본 아이치현 농업시험장에서 인공교배하여 육성된 벼품종.

개관 추청벼는 흔히 아키바레秋晴れ라고 불린다. 1967년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도입된 벼품종이다. 이후 국내 환경 적응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1970년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뒤 현재까지 재배되고 있는 고품질 중만생종 품종이다.

내용 1954년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농업시험장에서 만다이니시키萬代錦(만대금)에 와카바若葉(약엽)와 긴마제金南風(금남풍)의 F_5 계통을 인공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계통명은 34-15B이다. 1967년 한국에 도입되어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1970년 장려품종으

로 결정된 벼품종이다. 벼 잎은 연한 녹색을 띠고 줄기 굵기는 보통이며 까락은 거의 없다. 벼알 모양은 둥근 편이고 소립종으로 벼 성숙기 및 수확 과정에서 벼 이삭의 탈립성이 강하여 잘 안 떨어진다. 쌀알에 심복백이 없고 쌀알이 맑으며 아밀로오스 함량이 19.6%이고 밥맛이 매우 좋다.

중만생종 벼품종으로 벼 키는 간장이 80㎝, 수장(이삭 길이)이 18㎝이다. 이삭 길이가 짧고 이삭 수가 많은 수수형 품종이다. 등숙 비율이 높은 편이며 벼 수량은 1,000㎡당 453㎏으로 낮은 품종이다. 병해충에 약한 편이며 도복(쓰러짐)이 잘 되어 재해 저항성이 약하다. 내비성(화학비료 및 거름 견딜성)이 약하다. 미질과 밥맛이 좋아 경기 일원에서 많이 재배되었다. 한국 주요 장려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이다. 1모작은 한강~대전 해발 100m 이하 그리고 대전 이남 150m 이하, 2모작은 대전 이남 100m 이하에 알맞은 추청벼는 2011년 국내 재배면적이 10만 2,600㏊로 전체 벼 재배면적 85만 3,000㏊ 중 12.0%를 차지하여 상위 20개 품종 가운데 1위 품종이었다.

특징 및 의의 추청벼는 밥맛이 매우 우수하여 도입된 품종이다. 추청벼가 가지고 있는 밥맛이 양호한 유전인자 교배 모본을 활용하여 국내 고품질 벼 육성개발에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벼 재배공학(박광호 외, 향문사, 2019), 벼품종해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981), 수도작(이은웅 외, 향문사, 1986).

필자 박광호(朴光鎬)

축사
畜舍

정의 집짐승을 기르는 건물.

개관 가축家畜을 키우려면 마소·돼지·닭 등이 머무르거나 가두어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소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돼지는 마소보다 작지만 닭을 키우는 닭의 장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축사畜舍라 하면 집짐승, 곧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인 건물을 가리키는데,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소를 사육하는 건물을 축사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돼지우리라 하고, 닭을 가두어 키우는 곳을 닭장이라 한다. 이 돼지우리와 닭장이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 돈사, 계사 또는 양계장이라 한다.

이렇듯 농촌에서 축사가 소를 키우는 공간의 대명사로 불리는 까닭은 농가에서 돼지나 닭을 한두 마리 키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 농촌에서는 일소로 부리기 위하여 한두 마리 소를 키우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비육우를 사육하는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축사라 할 때는 소 한두 마리를 키우는 건물보다 전문적으로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곳을 이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까닭에 요즘 축사는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관리하며 기르는 본래 의미의 '축사畜舍'보다 소를 키우는 건물인 '축사丑舍'와 같이 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 소가 머무르며 여물을 먹고 쉬는 공간을 지역에 따라서는 마구·마구간·외양간·오양간·우사·마뒤·축사라 한다. 그런데 축사는 농가나 지역에 따라 위치하는 곳이 다르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축사가 부엌과 접해서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소머리가 부엌을 향하도록 하여 부엌에서 여물을 쑤어서 바로 구유에 담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쇠죽을 쉽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축사를 부엌과 맞닿게 지은 것은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농가의 주요 재산인 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엌의 훈기가 축사로 퍼지게 하여 추운 겨울에도 소가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역에서는 대부분 바깥채 옆에 축사를 마련하거나 바깥채가 없는 집에서는 마당 한쪽에 별도로 짓는다. 이럴 때는 쇠죽가마를 바깥 행랑채 아궁이에 걸거나 별도의 공간에 걸어 놓고 쇠죽을 끓였다.

축사의 크기는 소 마릿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



외양간 | 강원 횡성 | 2004 | 이영식

통 한두 마리를 키울 때면 높이는 9자 길이의 기둥을 세우고 폭은 9자, 길이는 12자 정도의 크기로 한다. 그리고 이엉·함석·슬레이트 등으로 지붕을 하고, 지붕 아래에는 보통 고미다락을 만든다. 고미는 성인이 축사 안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높이로 한다. 고미다락을 만드는 이유는 여름에 햇볕의 열기를 차단해 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미다락은 건초나 농사에 필요한 온갖 연장들을 올려놓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튼튼한 경우에는 쟁기도 보관한다. 벽은 나뭇개비나 수수깡으로 외를 엮어 흙을 발라 벽을 만들거나 송판으로 널빈지를 만들어 외양간 두엄을 치우기 편하도록 한다.

요즘은 소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하여 축사 바닥에 톱밥을 깔아 주지만, 예전에는 풀이나 짚을 썰어서 깔아 주었다.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과 밭농사가 중심인 산간마을에서는 축사 바닥에 깔아 주는 내용물이 달랐다. 특히 겨울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를 막아 주고 봄에 쓸 퇴비를 만들고자 벼농사 지역에서는 북데기나 새 등을 썰어서 깔아 주는 반면 산간지역에서는 풀이나 가는 나뭇가지 등을 품앗이로 베어다가 작두질을 하여 쌓아 두었다가 겨우내 깔아 준다. 이처럼 산에서 나뭇가지 등을 썰어서 축사 바닥에 깔아 주어 두엄의 재료가 되는 풀을 큰풀·마구풀·밟이풀·가을풀이라 한다. 농촌에서 봄철이면 논 거름을 목적으로 산에서 갈나무를 꺾어다가 논에 깔아 주었는데, 이를 갈풀이라 한다. 그런데 축사에 깔아 주는 가을풀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 이를 종종 갈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갈풀과 가을풀은 다른 풀이다.

축사에서는 고미다락을 제외하면 구유가 유일한 시설물이다. 구유는 지역에 따라 구융·귀융·구숭·소통·여물통 등으로 부르는데, 구유의 길이는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 두 마리 정도를 키우기 위하여 축사 폭 간격을 9자로 하였으면 구유는 그 기둥 사이에 끼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유가 9자보다 짧아야 하는데, 두 마리를 키운다면 실제로 홈을 파는 길이는 8자 정도이다. 구유의 재료는 보통 소나무인데, 가정에 따라서는 박달나무로 만들기도 하였다. 박달나무는 워낙 단단하므로 자귀로 파려면 소나무를 파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까닭에 박달나무 구유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힘 좋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만든다. 박달나무로 만든 구유는 보온성이 좋아 소가 여물을 다 먹을 때까지 여

물통이 따뜻하다고 한다.

구유는 보통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많이 만든다. 구유를 만들 때면 적당한 소나무를 미리 점찍어 놓았다가 날을 잡아 아침을 먹고 톱·자귀·각칼·낫 등의 도구를 챙겨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간다. 도착하면 먼저 나무를 베어서 낫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각칼로 껍질을 벗긴 후 10자 정도의 길이로 자른다. 그리고 자귀로 나무를 파는데, 힘이 좋은 사람은 하루 또는 이틀이면 속을 다 팔 수 있다고 한다. 완성된 구유는 두 사람이 끌거나 목도를 해서 산 아래로 옮긴 다음 소발구에 싣고 집으로 옮겨 와 축사에 설치한다. 구유는 여물을 담는 통이기 때문에 항시 물기가 있어 보통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억센 소를 만나면 소가 구유에 올라서거나 물어뜯는 까닭에 구유가 금방 망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농가에서도 나무가 아닌 시멘트로 구유를 만들거나 고무통으로 대신하였다.

봄·여름이면 소가 논밭을 갈고 써레질을 하느라 바쁘지만, 가을걷이가 끝나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축사에서 머문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짚으로 만든 덕석을 소등에 덮어 주고 벗겨지지 않도록 잘 묶어 주는데, 덕석은 삼정·소삼정이라고도 한다. 겨울에 날이 좋으면 소를 마당이나 밭 한쪽에 말뚝을 박고 묶어 두는데, 이 공간을 마답·마장이라 한다. 마답에 묶어 둘 때는 덕석을 벗겨 햇볕을 쬐도록 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덕석을 다시 입혀 축사에 들여놓는다.

한편 농가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구멍이 뚫린 돌을 축사에 걸어 두기도 하는데, 이 돌을 삼신돌·소삼신·구멍돌·돌삼신이라 한다. 삼신돌은 길이나 밭 또는 냇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을 채취하여 축사 기둥에 걸어 두는데, 이렇게 하면 소가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축사 입구 기둥이나 출입문에 축사에서 키우는 소나 말을 호랑이와 용에 비유하여 '우여맹호경백묘 마사비룡행천리牛如猛虎耕百畝 馬似飛龍行千里' '우여남산호 마사북해룡牛如南山虎 馬似北海龍'과 같이 써서 붙이는 가정도 있다. 이는 자신이 키우는 소나 말이 호랑이와 용처럼 강한 힘으로 밭을 잘 갈고 빨리 달리는 가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축사 | 강원 횡성 | 2020 | 이영식

특징 및 의의 요즘은 어느 농촌을 가더라도 축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보다 그렇지 않은 농가가 더 많다. 농가에서도 예전처럼 소 한두 마리, 돼지 한두 마리, 닭 서너 마리 등을 키우지 않는다. 현재 농촌에서 축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는 소나 돼지 그리고 닭 등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가축을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농업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기계화의 영향으로 농촌에서도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보다 경운기·이앙기·트랙터 등과 같은 기계의 힘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일소를 부리던 농가에서는 비육우를 키우게 되었고, 사육 마릿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축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과 같이 개방형 축사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축사·돈사·계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농업인보다 축산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현지조사자료(안치옹, 강원 횡성, 2020.6.4; 이범주, 강원 횡성, 2020.6.8; 장동길, 강원 정선, 2020.5.25; 전덕재, 강원 홍천, 2020.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이영식(李英植)

축산물이력제
畜産物履歷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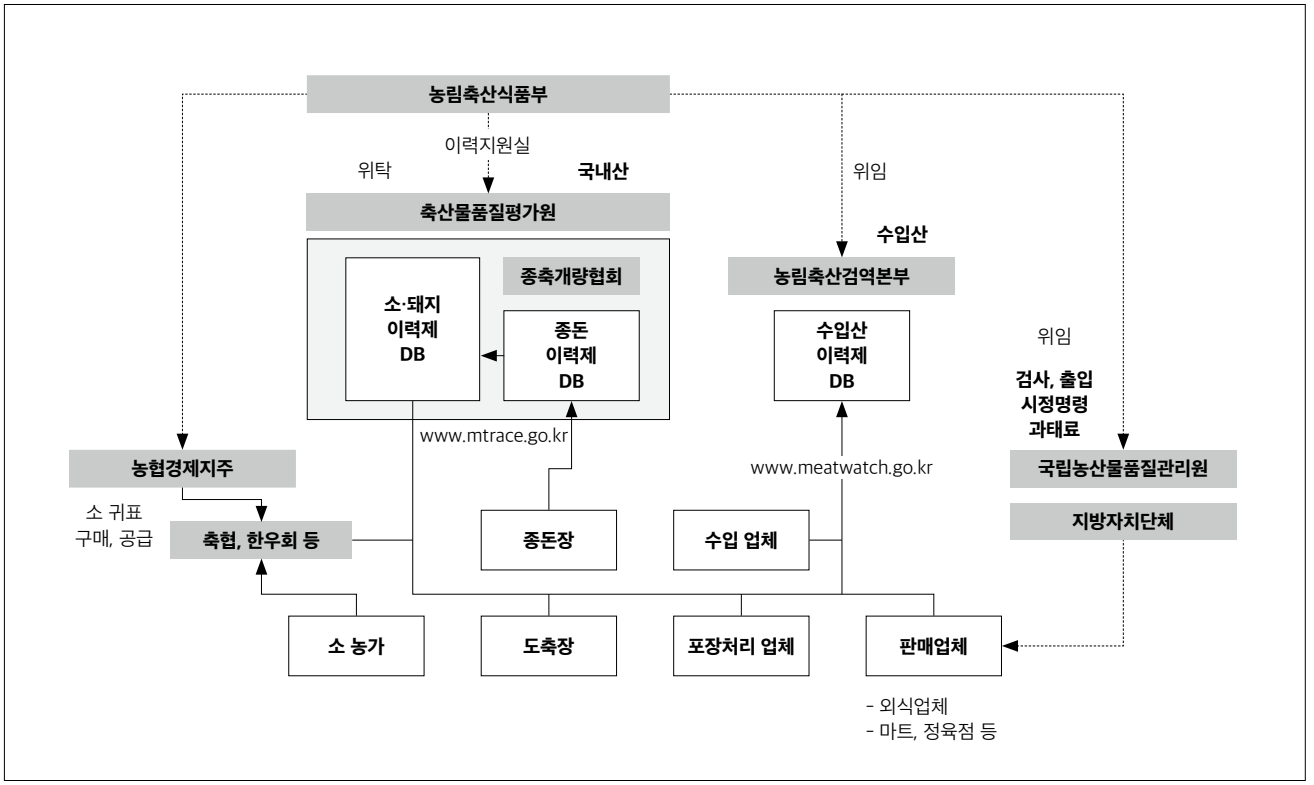
정의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내용 축산물이력제畜産物履歷制는 먼저 쇠고기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생 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에 '쇠고기이력제'가 도입되었다. 쇠고기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 마련과 도축·포장처리·판매 단계에서의 국내산 쇠고기에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방법 등 시행체계가 마련되었다.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농장경영자 등은 송아지가 출생하면 지역 농·축협 등의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위탁기관에서는 소의 개체관리를 위한 12자리 숫자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게 한다. 귀표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동일한 번호로 표시·관리된다.

또한 쇠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뒤바뀌거나 섞이는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DNA 동일성 검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2년간 보관하며 판매 중인 쇠고기의 시료를 수거하여 동일한 개체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편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고자 하는 축산물의 이력 정보(농장명, 농장경영자 정보, 도축 정보, 포장처리업소명, 구제역 백신 접종일 등)를 확인함으로써 축산물 구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2011년에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축종이 확대되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도 이력제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5년 6월 28일부터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을 포장하거나 판매할 때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에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과정에서도 이력 관리가 가



축산물이력제 관리체계도


이력제 귀표 부착


이력제 시료 채취


이력제 정보 조회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품질평가원

능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심 소비 환경과 유통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을 닭·오리·달걀(가정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정책, 수급조절, 가축개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10년 3월)에 의하면 이력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1조 3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물 이력 정보는 축산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이력 정보를 소의 구입이나 가축개량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7년 3분기부터 '소 이력제 자료'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하여 공표되고 있으며, 점차 다른 축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2017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18), 축산물이력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농정연구센터, 2018), 축종별 업무편람(축산물품질평가원, 2018).

필자 이정용(李正容)

충주구황절요
忠州救荒切要

정의 안위安瑋와 홍윤창洪胤昌이 1541년에 일종의 절목節目 형식으로 집필한 구황 전문서.

개관 『충주구황절요忠州救荒切要』는 세종 연간에 편찬된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원본 일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황 서적이다. 이 책은

서문, 목차, 발문 등이 없이 27개 항이 30면에 필사되어 있다. 현재 일본 내각문고와 국립중앙도서관에 35㎜ 마이크로필름으로 사본 1책 14장이 소장되어 있다. 원본은 1541년(중종 36)에 가정활자인본嘉靖活字印本 7행, 행당 15자로 간인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두문 풀이가 되었던 부분이 삭제된 채 1794년에 사본을 만들고, 이것으로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일본의 반환 문화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게 되었으며, 원본은 일본의 의관인 곡직뢰曲直瀨가 소장하고 있다.

안위安瑋(1491~1563)는 문신으로 자는 백진伯珍이고 호는 문간文簡이며 순흥안씨順興安氏이다. 1521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542년에 장령掌令이 되었으며, 1546년에는 청홍도淸洪道(현재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1555년에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를 찬수하였다. 1560년에는 호조판서에 오르고 다시 병조판서를 지냈다. 그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중종 36년 무렵에는 한재旱災가 특히 극심하였다. 이 때문에 안위는 통판通判 홍윤창과 더불어 구황정책과 구체적인 구황식의 방법들을 수집·편찬하고 집필하여 충주에서 개간開刊하였다. 책 말미 1541년 10월 하순 부분에 안위가 밝힌 발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정의 근심은 멀리 밖인 100리에 이르므로 도저히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고생시키는 모양만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필사된 『구황절요救荒切要』를 보며 분담된 일을 하되 한문 문장의 조간에는 이두를 써서 백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장욕첩將欲帖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통판 홍윤창이 본판에 글을 새겨 인출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여서 최문헌으로 하여금 인쇄 작업을 시킨 다음 두찰관糾察官과 진휼관賑恤官에게 주어 구민救民토록 하였다."

내용 이 책은 다른 구황서와 달리 이두문의 토를 단 개조식 조목의 절목 형식으로 집필하되 흉년 극복의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식節食하여야 한다. 절식법으로는 죽을 끓여 먹거나 가식성 풀들을 섞어 먹으며, 하루 세끼 가운데 한 끼를 거르는 식생활이 있다. 산속의 승려처럼 하루 3홉의 죽으로도 능히 건강할 수 있으므로 거창하고 망령스러운 음식을 장만하는 짓은 처벌하여야 한다. 둘째, 귀신에 제사하고 불공에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금한다. 식량 낭비에 혹세무민 그리고 사회폐단만 일으키는 짓이므로 철저히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식량이 없어도 유리걸식하기를 금한다. 적극적인 흉년에는 팔도가 매일반이므로 어디를 가도 흉황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이웃끼리 서로 곡식과 염장을 십시일반으로 나눌 일이며, 이런 취지를 어기면 이웃들과 함께 치죄하여야 한다. 넷째, 진휼청 사목事目(규칙)의 구휼救恤을 따르고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에 만전을 기한다. 또 구황식으로 도토리·상수리·뽕잎·메밀·콩·녹두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죽을 쑤거나 곡식에 섞어 먹되 미리부터 눈·비를 가리고 식재료를 거두어 갈무리해 둔다. 특히 솔잎은 가공, 이용, 혼식, 절약법에 따라 이용해야 통변通便 문제가 없다. 또한 목민관은 백성들과 함께 시식하며 중론을 들어야 한다. 솔잎은 채취와 활용성이 구황에 적격이다. 다섯째, 구황용 장은 식량이라기보다는 굶어서 부종이 난 데 예방용이나 기력유지용으로 유효하다. 장을 담가 비축하려면 도라지가루 2푼, 소금 2푼, 가루장 1푼을 섞어서 대용품으로 담글 수도 있다. 여섯째, 아사에 직면한 자나 동상에 걸린 자 등을 다루는 요령, 진황전陳荒田의 개간, 흉년에 임하는 부자들의 행태, 유랑민과 기아에 대한 조치 요령, 흉년에 농사소와 노비·도적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 등의 치안적 내용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책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충주구황절요』는 다른 구황서와 달리 통치자의 의견을 대신하는 신상필벌적인 내용이나 행정적 강제동원의 필요성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15~16세기로 접어들면서 구황요령은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 국가의 진휼제도를 뒷받침하는 상평창이나 의창·군자창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가난·흉년·재난·굶주림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고작 아사 직전의 사람을 살려 내는 구황 먹거리 탐색과 벽곡辟穀 방법 탐색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책 역시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구황식으로 이용하는 초근목피식이나 기타의 구황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의 먹거리 낭비를 부추기

는 잘못된 풍속이나 허무맹랑한 미신적 요소들을 바로잡으려는 통치 의도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유형의 서술은 다른 어떤 구황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이다.

『충주구황절요』를 통하여 당시의 세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였지만 결국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종의 구휼 방법은 초근목피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확고히 하였던 왕도주의의 민본통치 이념과 백성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구휼 의지는 결코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니면서도 완벽하게 실천하기 어려운 이념이었음을 새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비록 뒤늦었을망정 백성 구휼을 위해서는 평상시의 절약하는 일상생활, 산천에 흩어져 있는 먹을거리를 소중히 알고 비축하여 활용할 궁리를 하는 일,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상호부조의 생활, 부자들이 함께 나누는 기부 원리 등을 깨닫는 일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구황방 고문헌집성(구자옥, 농촌진흥청, 2010),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농사, 고전으로 읽다(구자옥, 농촌진흥청, 2017),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구자옥(具滋玉)

친환경농법
親環境農法

정의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

개관 친환경농법親環境農法에 관한 논의는 1982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가 제정한 〈세계토양헌장World Soil Charter〉에 따라 시작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은 토양의 친환경적 보전에 관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1987년 세계환경위원회(UN WCED, 브룬틀란 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도 계속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토양 보전은 지속적 발전, 즉 현재 세대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요약되었다. 한국에서는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렁이농법 | 경기 파주 | 2000년대 | 황헌만



오리농법 | 경기 파주 | 2000년대 | 황헌만

내용 친환경농법은 자원 순환형 농업 체계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수산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업이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에는 유기농법뿐만 아니라 병해충 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종합적 잡초관리integrated weed management, 양분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작부-체계cropping system 등 토양과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이 포함된다. 친환경농법의 의미에는 유기농업, 저투입 지속농업, 환경보전형농업, 환경조화형농업, 환경친화적농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관리 | 경기 파주 | 2000년대 | 황헌만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관리 | 경기 파주 | 2000년대 | 황헌만

친환경 잡초방제 수단으로는 경종적耕種的·생태학적 방제, 물리적·기계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가 있다. 경종적·생태학적 방제로는 경운, 윤환재배, 작부체계, 멀칭농법 등이 있으며, 물리적·기계적 방제로는 중경제초기, 소각제초법 등이 있다. 생물학적 방제에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어류, 병원미생물, 천연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병해충 관리에는 품종 개량, 작기 변경, 종자 소독, 유아등 설치, 미생물이나 천적 등을 이용하며, 유기물이나 녹비작물 등을 통하여 양분 관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은 일종의 유기농법으로, 농장 내 모든 영농요소가 유기적 관계의 총체적 생산·관리 체제하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녹비작물·두과작물·윤작재배를 통한 토양비옥도 증진, 토양진단에 의한 최적 시비, 경축순환농업 등을 포함한다.

1. 유기농법: 유기물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는 농법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품종, 유기질 양분, 경종·물리·기계·생물학적 잡초방제와 내병해충 및 재해 저항성 재배 관리를 통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유기농법은 단순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농법은 농업생태계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생물순환 및 토양생물 활성 증진을 위한 농법이다.

2. 자연농법: 최대한 자연의 본래 활동에 맡겨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자연계의 에너지(태양, 물, 토양 등)를 이용하여 작물이 생장하게 하는 농법이며 토양 유기물, 미생물, 천적, 녹비작물(대기 중 질소고정), 초생재배, 천연소재(광물 등 친환경 소재) 이용을 통한 농업 행위이다. 농업 형태 중 자연농법, 유기농법, 친환경농법, 관행농법 순으로 자연친화적이다.

3. 지렁이농법: 인위적인 지렁이 사육 또는 토양 내 지렁이 생장 환경을 만들어 그 배설물(분변토) 이용 및 토양 물리성 개선을 통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하는 농법이며, 분변토에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토양 3상(고상, 액상, 기상) 구조 중 토양공극土壤空隙을 양호하게 만들어 토양 통기성과 배수를 촉진하고 토양 내 유기물 분해를 빠르게 하여 작물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렁이는 토양 속 유기물과 기생물을 먹이로 하여 생존하므로 배설물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친환경농법의 목표는 유기물 함량 수준 유지, 토양미생물 활성화, 토양의 비옥화와 보호, 병해충 및 잡초의 종합적 관리, 작부체계 등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법이다. 유기물 함량과 토양 미생물 관리를 통하여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주요 양분이 자급될 수 있도록 순환시킬 수 있다. 이렇듯 친환경농법은 최저 수준의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잡초와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동물 복리를 고려한 가축 사양,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광범위한 환경 보호까지 배려한 농법이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에 의한 지속 가능 농업은 수질, 대기, 토양, 에너지, 유기성 폐자원, 종 다양성을 고려한 농업이다.

특징 및 의의 친환경농법은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적 농업

의 발전,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요구하는 인류의 건강증진, 경관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의 특징 및 의의를 담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법은 농업의 지속성 목표가 가장 핵심이며,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성에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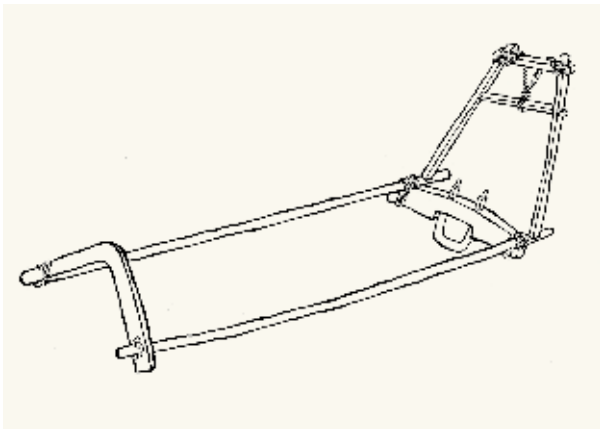
참고문헌 유기농쌀생산기술(한국농수산대학, 2015), 유기농업(손상목, 향문사, 2007), 환경친화형 농업(최은영·현해남·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필자 박광호(朴光鎬)

칼자매

정의 논밭의 잡초 제거 연장.

내용 칼자매는 북한 평안도平安道 건답乾畓 지역에서 소에 메워 잡초를 제거하는 축력 제초기다. 전체적인 형태는 장써레와 유사하며, 60~70㎝ 정도의 써레 몸체에 써레발 대신 폭이 20~30㎝ 정도 되는 ∪자 모양의 날을 가운데 박았다. 칼자매를 사용할 때는 소에 메워 끌고 다니면서 밭고랑이나 두둑에 난 잡초를 긁어서 없앤다. 칼자매와 유사하게 제초를 하면서 작물에 북을 주는 축력 연장으로는 '후치'가 있다. 그러나 후치는 제초는 물론 종자를 뿌리기 위한 이랑 짓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칼자매는 가뭄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칼자매는 제초 용도로만 제작된 연장이



칼자매 | 平安南道に於ける乾畓 | 1928 |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자 축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연장채와 멍에가 한 몸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북한지역 축력 농기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농기구고(김광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平安南道における乾畓(喜田正澄·渡邊千嘉次·白倉德明,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28).

필자 정연학(鄭然鶴)

코뚜레

정의 일소를 조종하기 위해 소의 코에 걸은 도구.

내용 어린 송아지가 6개월 정도 지나면 부리기 용이하게 코뚜레와 고삐를 건다. 코뚜레는 산서성 혼원현渾源縣 이욕촌李峪村에서 출토된 소 술잔(춘추시대 말기)과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 "낙마수落馬首, 천우비穿牛鼻", 『여씨춘추呂氏春秋』 중이편重已篇에 "使五尺堅子引其棬, 而牛恣所以之, 順也"라고 적은 문구를 통해 춘추시대에 이미 소에 코뚜레를 걸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코뚜레는 '권棬'이라고 불리었다.

코뚜레 감은 습기에 강하면서 잘 부러지지 않는 주목(노가리나무)이나 물푸레나무를 으뜸으로 치지만,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휘어서 만들기도 한다. 부지런한 농가에서는 코뚜레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PVC나 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살을 찌워 판매되는 소는 코뚜레를 걸지 않는다. 코뚜레를 거는 시기는 5월 수릿날이 제일 좋다고 하며,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소의 조종은 코뚜레와 연결된 고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쟁기를 부리는 사람은 고삐를 손에 쥐고 잡아당기거나 좌우로 움직여 소를 조정한다. 겨리인 경우에는 고삐를 엇갈려 잡는다. 즉 안소의 고삐는 오른손으로 잡고, 마라소의 고삐는 왼손으로 잡아 고삐가 소의 몸통 위를 지나게 된다. 만약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쥐고 있는 '안소'의 고삐만을



코뚜레 | 너비13 길이18 | 국립민속박물관



코뚜레 | 강원 횡성 | 2004 | 이영식

잡아당기면 되고, 오른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왼손에 쥐고 있는 '마라소'의 고삐만을 잡아당긴다.

특징 및 의의 개업이나 이사를 했을 때 문에 코뚜레를 걸고 주인은 '귀신 들어오지 말라'며 그 이유를 댄다. 코뚜레가 억센 소를 꼼짝 못 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듯 감히 잡귀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사용한 코뚜레를 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장사하는 집에 거는 코뚜레는 벽사辟邪의 기능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다. 소는 집안의 큰 재산으로서 부의 상징이며, 그 재산을 코뚜레가 꽉 잡아주어 가게가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소는 팔아도 코뚜레와 고삐는 주지 않았다. 만약 코뚜레를 줄 경우 다시 소를 키우면 그 소가 자주 병이 나고 집안의 재산이 딸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록 복을 상징하는 소는 팔았어도, 코뚜레와 고삐가 여전히 집안에 복을 잡아두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소에 나타난 민속학적 의미와 상징(정연학,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중농기구 비교연구-따비에서 쟁기까지(정연학, 민속원, 2003).

필자 정연학(鄭然鶴)

콤바인

정의 논밭을 주행하면서 작물을 예취·탈곡·선별 작업을 동시에 하여 곡물과 부산물을 분리·배출하는 곡물 종합 수확기.

개관 우리나라의 벼 수확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낫으로 벼를 예취하고 논바닥에서 말리거나 단으로 묶어 세워 곡립의 수분함량이 15~18% 정도 되면 탈곡기로 탈곡하여 정선·건조한 후 가마니에 담는 작업이었다. 이는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리 파종 시기와 겹쳐 과중 노동이라는 한국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러다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추진한 금강·평택지구 농업개발 사업으로 1972년에 자탈형 콤바인 15대가 도입된 데 이어 농업단체와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콤바인을 도입하여 1976년에 콤바인 69대가 벼 수확 작업을 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벼 수확 작업 체계로는 낫이나 탈곡기 등을 이용한 인력식, 바인더나 자동탈곡기 등 인력을 동력으로 대체한 기계식, 둘 이상의 기계식 과정을 기계 하나로 수행하는 콤바인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벼 수확 작업의 기계화 작업 체계 비교

	예취	결속	건조	운반	탈곡	정선	건조
인력(관행)	낫	인력	태양열	인력	탈곡기	정선기	태양열
바인더	바인더		태양열	인력	자동탈곡기	정선기	태양열
콤바인	자탈형 콤바인						건조기

내용 콤바인은 곡물 종합 수확기로 시스템화된 고능률 농기계이다. 미국에서 밀 수확을 위하여 1854년에 개발한 것으로 예취기와 탈곡기를 결합combine하였다는 의미로 콤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콤바인은 작물을

탈곡부에 투입하는 방식에 따라 보통형 콤바인과 자탈형 콤바인으로 구분한다. 미국에서 1854년에 보통형 콤바인을 개발하였고, 1960년대에 일본에서 보통형 콤바인을 보고 벼 수확에 적합한 콤바인을 개발한 것이 자탈형 콤바인이다. 보통형 콤바인은 예취된 작물 전체를 탈곡부에 투입하여 곡립만 선별 수집한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밀·보리·콩·수수 등 밭작물 수확에 사용하고 동남아 지역의 벼 수확에도 사용한다. 자탈형 콤바인은 작물의 이삭부만을 탈곡부에 투입하여 탈곡하는 구조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벼 수확에 사용한다. 보통형 콤바인보다 곡립 손상과 포장 손실이 적고 소형이다. 자탈형 콤바인은 엔진, 주행장치, 전처리장치, 예취장치, 반송장치, 탈곡·선별장치, 곡물처리장치, 짚처리장치, 제어·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벼를 예취하는 줄 수에 따라 크기를 구분하고, 탈곡된 곡물의 처리방식에 따라 포대식, 산물식(캐빈식)으로 구분하며, 볏짚 처리방식에 따라 세단형, 집속형, 결속형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벼농사의 수확 작업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수확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용으로 콤바인 공급이 시작되었다. 콤바인은 가격이 비싸고 운전 조작이 어려우며 연간 짧은 기간(약 15일) 사용하는 수확 전용기이다. 그에 따라 개별 농가의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가 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인 기계화영농단 등에 지원·공급하였다. 이때 도입한 콤바인은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2~3조형 자탈형 콤바인 9대였다. 일반 농가에는 바인더·자동탈곡기를, 대농과 공동이용단지에는 자탈형 콤바인을 병행 공급하였다. 1978년에는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기종과 규격을 공급하여 3개 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가 콤바인 41대를 공급하였다.

보통형 콤바인의 국내 도입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아세아종합기계에서 독일의 클라스사 보통형 콤바인을 도입, 생산·공급하여 맥류와 두류 등 밭작물의 콤바인 수확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통형 콤바인은 작업 대상 작물에 따라 범용 콤바인과 전용 콤바인으로 구분된다. 범용 콤바인은 일부 부품을 교환하여 보리·밀·유채·콩 등 여러 작물 수확이 가능하고, 전용 콤바인은 콩 콤바인이 대표적이다. 보통형 콤바인 공급 수량은 2015년까지 연간 10대 미만이었으나 콩·유채·옥수수 등 밭작물 수확 작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동남아 지역의 벼 수확용으로 보통형 콤바인이 수출되면서 2016년에는 3개 업체(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에서 보통형 콤바인 70여 대를 생산하였다.

1982년부터 국내 생산 콤바인에 한하여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 농기계 생산업체가 일본 콤바인 생산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여 콤바인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에는 2~3조형 콤바인을 완전 국산화하였다. 1982~1990년까지 4개 생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금성전선)에서 2~3조형 콤바인 약 5만 3,000대를 공급하여 1990년에 콤바인 약 4만 4,000대와 바인더 5만 6,000대가 벼를 수확하였다. 벼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은 1980년 2%에서 1990년에는 72%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공급한 콤바인은 2~3조형으로 선별능력이 낮아 주행속도가 0.4~0.6m/sec인 저속 포대식



예취·탈곡 | 강원 철원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탈곡된 곡물 이송 | 강원 철원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콤바인이었으나 1990년대에 공급한 콤바인은 4조형으로 주행속도가 1.2~1.8m/sec인 고속 산물식 중형 콤바인으로 수확 작업의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0년에 콤바인 약 8만 7,000대를 보유하여 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이 98%에 달하면서 콤바인을 공급한 지 25년 만에 벼 수확 작업의 완전 기계화를 달성하였다.

특징 및 의의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 작업 체계는 바인더를 이용한 작업보다 간단하다. 바인더와 자동탈곡기를 사용한 수확은 예취·결속, 건조, 운반, 탈곡, 정선 등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곡물 포장 손실도 크다. 반면 콤바인 수확은 예취·탈곡·정선과 건조 두 단계로 단축되어 생력 효과가 크고 곡물 손실도 적었다. 콤바인 수확 작업 체계화는 볏논 1,000m^2당 수확 작업 시간을 1980년 35.0시간에서 2016년에는 1.1시간으로 대폭 줄여 가을철의 고질적인 과중 노동을 해소하였다.

참고문헌 농업기계연감(한국농업기계학회, 1972~2019), 농업기계핸드북(한국농업기계학회, 1998), 농작업기계학원론(정창주·김경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의 농업기계화(박원규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1998), 한국의 농업기계화와 농업발전(박원규, 쌍용기계산업 쌍용기술연구소, 2018).

필자 박원규(朴圓奎)

콩

정의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 식물.

개관 원산지는 만주 일대이며 함경북도 회령군(현재 회령시)부터 경기도 팔당 수몰지구, 경상남도 김해군(현재 김해시) 등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탄화된 콩이 발굴되어 재배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메주를 쑤거나 두부를 만드는 대두大豆를 가리킨다.

내용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에 가까워 수많은 콩 품종이 존재한다. 1492년에 간행된 『금양잡록衿陽雜錄』에는 검은콩[黑太], 오해파디콩[吾海波知太], 누른콩[黃太], 온되콩[百升太], 불콩[火太], 잘외콩[者乙外太], 왁대콩[臥叱多太], 유월두[六月太] 등 8가지 품종이 나타난다. 이후 1800년대에 가서야 서유구의 저작에 홀아비콩[鰥夫豆], 검정올콩[黑早大豆], 눈검정콩[黑眼大豆], 아롱콩[斑麻大豆], 다다기콩[纍子大豆], 파랑콩[靑大豆] 등 6가지 품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 용도에 따라 된장 등의 제조에 쓰이는 메주콩 또는 장콩, 밥에 넣어 먹는 밥밑콩, 나물을 키워 먹는 나물콩 등의 종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푸른독새기콩·납작콩·아주까리콩·밤콩·눈까매기콩·쥐눈이콩 등과 같이 열매의 크기나 모양 또는 빛깔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콩은 품종에 따라 개화 이후에도 줄기가 계속 생장하는 '무한 신육형'과 그 반대의 '유한 신육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콩은 대부분 유한 신육형이다. 또 원줄기의 길이와 곁가지의 길이·수·각도·방향 등에 따라 옆으로 넓게 뻗치는 '광초폭형'과 그렇지 않은 '협초폭형'으로도 구별된다. 꽃눈의 형성에 필요한 햇볕을 쬐는 시간과 기온에 따라 여름형, 중간형, 가을형으로도 구분된다. 여름형은 주로 고온에서 꽃이 피고 일찍 수확하는 품종으로, 이른 봄에 심지 않으면 수확량이 적다. 가을형은 일조시간이 짧을 때 꽃이 피고 늦게 수확하는데,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편이다.

콩의 원줄기 첫째 마디에서 떡잎이 나오고, 둘째 마디에는 홑잎이 마주나며, 셋째 마디부터 3개로 구성된 겹잎이 어긋난다. 콩의 잎은 밤이 되면 아래로 처지는 취면운동을 한다. 7~8월 무렵 줄기의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자줏빛이나 흰색의 꽃이 피는데, 꽃받침은 종 모양이고 하나의 꽃에는 10개의 수술이 있다. 콩은



콩 | 농촌진흥청



토종콩 | 전남 곡성 | 2019 | 김석기

보통 자가수분을 하지만 자연교잡도 이루어진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꼬투리가 생장하기 시작해 길이와 너비가 커진다. 이렇게 꼬투리가 먼저 발육하여 열매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된다. 꼬투리에는 보통 2~5개의 열매가 들어 있다. 다 여물면 꼬투리가 터지는 품종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콩은 수분을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로 토양수분이 충분하여야 잘 자란다. '가뭄에 콩 나듯이'란 속담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물 빠짐도 중요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되지 않으며 비가 그치고 하루 안에 물이 다 빠질 정도로 배수가 좋은 토양이 알맞다. 파종 방법은 대부분 2~3알씩 점뿌림을 한다.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올콩 종류는 배게 심고 키가 크고 가지를 많이 뻗는 늦콩 종류는 드물게 심는 편이 좋다. 또한 척박한 토양에서는 배게 심고 비옥한 토양에서는 드물게 심는다. 파종 시기는 작부 방식에 따라 다른데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보통 5월 중하순 무렵에 파종하고 맥류와 사이짓기할 때는 6월 초순, 뒷그루인 경우에는 6월 중하순에 파종한다. 올콩의 경우 4월 중하순에 파종해 일찍 거둔 뒤 뒷그루로 채소 등을 심으면 토지이용률이 상승하지만, 수확기가 고온다습한 계절이라 열매의 품질이 떨어져 오히려 소득 작물의 뒷그루로 심는 게 좋다.

콩은 일단 자리를 잡고 가지와 잎을 뻗으면 지표면을 뒤덮어 빛을 차단하여 광발아성 잡초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래서 콩의 생육 초기에 수시로 잡초를 방제하며 북을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생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멈추는 게 좋다. 또한 꽃이 피기 전 본잎이 5~7장 나오면 순지르기를 하기도 한다. 너무 배게 심거나 비가 자주 와 웃자라서 쓰러짐이 우려될 때 순지르기를 하면 마디 수가 늘어나 수확량이 증가한다. 꽃이 핀 뒤에는 가급적 순지르기를 하지 않는 편이 좋으나 너무 웃자라 쓰러질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실시한다.

콩의 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색이 80~90% 정도 변하면 수확 적기에 들어선다. 중부지방은 보통 10월 상중순 무렵이고, 남부지방은 10월 중하순 무렵이 된다. 낫으로 콩 줄기의 밑동을 베거나 뿌리째 뽑아서 콩 낟가리를 만들거나 특수한 시렁을 제작하여 건조한다. 콩은 공중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특성이 있고 식생활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전통적인 밭농사 작부체계에는 콩이 끼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리나 밀 같은 맥류와 사이짓기하거나 그루갈이로 파종하고, 수수·옥수수·고구마 등의 작물과 섞어짓기도 하며, 조·수수·들깨·참깨 등의 작물과 한 두둑씩 번갈아 재배하기도 하고, 논두렁이나 감자밭 주변에도 많이 재배하였다.

특징 및 의의 콩에서 싹이 터 원뿌리가 자라면서 많은 곁뿌리가 발생하고 거기에 뿌리혹박테리아가 착생하여 공생한다. 뿌리혹박테리아는 대기의 질소를 고정해 콩이 이를 양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콩의 특성 때문에 과거부터 땅심을 북돋는 작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콩이 발아할 때 조류 피해가 극심해지며 모종을 옮겨 심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을철 성숙기의 다습한 날씨로 피해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기계화와 각종 화학 농자재의 사용이 늘어나며 전통적인 농업 관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자가소비용으로 콩을 재배하는 일부 농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정부의 보급종을 신청해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라 재래종 콩이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참고문헌 온고이지신3(구자옥 외, 농촌진흥청, 2008), 콩(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토종곡식(백승우·김석기, 들녘, 2012), 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농촌진흥청(rda.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석기(金石基)

콩털기

정의 콩대에 달린 콩깍지에서 콩을 떨어내는 일.

내용 콩은 거두는 시기가 중요하다. 너무 늦게 거둘 경우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콩꼬투리의 콩이 튀어나와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콩대를 꺾는 적기는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고 콩꼬투리가 변색하여 고유의 색을 띨 때인데, 콩꼬투리를 흔들어 소리가 나면 씨앗이 다 여물었다고 판단한다. 수확 시기는 파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부지방은 보통 양력 10월 상중순, 남부지방은 10월 중하순 무렵이다.

콩 수확은 대체로 이른 아침에 하는데, 한낮에 콩대를 꺾으면 콩꼬투리가 튀어 콩알이 밭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콩대는 낫으로 베거나 호미를 밑동에 대고 밀어 꺾는데, 뿌리째 뽑는 경우도 있다. 꺾은 콩대가 많을 때에는 단으로 묶어 밭에서 잘 말려 두며, 양이 적으면 당일 농가에 옮겨 놓는다. 보통 지게나 발구, 달구지 등을 이용하여 농가로 거두어들이며, 늦어도 상강霜降(양력 10월 하순경) 전에 끝냈다.

농가로 옮긴 콩단은 마당이나 수확이 끝난 텃밭에 낟가리로 쌓아 놓았다. 콩낟가리는 콩대 뿌리 부분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단지형으로 만들며, 콩낟가리의 꼭대기에는 볏짚이나 조짚으로 주저리를 씌워 비를 맞지 않도록 하였다.

콩털기를 할 때는 다른 곡식을 타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당에 진흙을 져다 두껍게 펴서 평편하고 단단하게 다져 놓았다. 그 위에 멍석을 서너 장씩 깔아 놓기도 하였다. 콩의 양이 적을 때는 가족끼리 진행하지만 일감이 많은 경우에는 이웃과 품앗이를 하였다.

마당이 준비되면 콩낟가리에서 콩단을 날라 미리 골라 둔 마당이나 멍석 위에 일정한 두께의 원형으로 펴 놓았다. 그런 다음 도리깨질을 시작하며 콩알을 떨어내는데, 한벌치기가 끝나면 갈퀴나 거름대로 콩대와 콩깍지를 추려 내어 한쪽으로 엎어 놓고 콩알을 긁어낸 다음 재벌치기를 하였다. 서너 벌 정도 도리깨질을 하면 콩알이 말끔하게 떨어졌다.

콩털기를 마치면 갈퀴로 콩대나 깍지를 따로 긁어모으고 콩은 거두어 키에 드리운다. 이때 맞은편에서 부뚜 등으로 바람을 일으켜 먼지나 작은 깍지 등이 가려지도록 한다. 풍구를 이용하여 콩과 검부러기를 골라내기도 하는데, 풍구의 아가리에 털어 낸 콩을 넣고 축을 돌리면 나무로 만든 둥근 통 안의 날개가 돌아서 바람을 일으켜 겉껍질이나 검부러기 등을 옆으로 날려



콩털기 | 경북 군위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보내고 콩만 아래로 떨어진다. 고른 콩은 멱서리나 섬에 담아 갈무리하며, 콩대는 땔감으로 사용한다. 콩깍지는 별도로 보관하여 쇠죽을 쑬 때마다 넣는다. 봄에 밭을 갈 때 소에게 먹이기 위하여 따로 갈무리하는 것을 두고 '깍지울'이라고 이른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콩대를 낫으로 베거나 호미로 꺾어 말린 뒤 도리깨로 타작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동력예초기와 동력탈곡기를 사용하여 콩대를 베어 말린 뒤 콩밭에서 곧바로 탈곡을 진행한다. 더 나아가 콩대를 베고 탈곡한 뒤 정선과 배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콤바인combine harvester이 보급되어 더 빨리 콩을 수확하고 탈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탈곡기와 콤바인의 가격이 비싸고 보급률이 낮아서 영세농가에서는 여전히 콩 수확과 탈곡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농촌 곳곳에서 콩을 타작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農家集成, 農事直說, 山林經濟, 閑情錄,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북한지역정보넷(cybernk.net),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봉관(權俸觀)

클

정의 보리나 나록(벼), 산뒤(밭벼)를 수확한 후 줄기에서 이삭을 따낼 때 쓰던 도구.

내용 곡물을 훑는 데 쓰던 그네의 종류로, 제주도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훑태' '홀태' '홀테'라 불렀다.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는 보리를 훑는 보리클은 '가레기클', 밭벼를 훑는 산뒤클은 '판장클'이라 하였다.

보리클을 가레기클이라고 한 것은 제주도 사람들은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토리를 가레기라고 하는데, 가레기클의 쇠가락이 이와 닮았기 때문이다. 쇠꼬챙이의 틈새가 크기 때문에 이삭이 큰 보리를 훑을 때 사용하였다.



클 | 홍정표

판장클은 쇠꼬챙이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쇠판을 적당한 크기의 간격으로 오려서 날을 세운 형태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보리클과 흡사하지만 보리클 쇠가락이 둥그렇게 생겼다면 판장클 쇠가락은 납작하고 넓적하게 생겼다. 또한 틈새가 좁아 산뒤나 나록 등 이삭이 작은 것을 훑을 때 사용하였다.

제주 지역에서는 본래 이삭을 따지 않은 채 도리깨질로 낟알을 떨어내거나 마소한테 보리이삭을 밟게 하여 낟알을 떨어내었다. 또한 보리 묶음을 돌(섶돌)로 내려쳐서 낟알을 떨어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거상치기'라고 하였다. 가레기클은 논농사 지역에서 쓰이던 '훑이'나 '그네'가 약 100년 전 유입된 뒤 변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후 1920년대부터 애월읍 상가리와 안덕면 감산리 등에서 벼 이삭 훑이인 판장클이 들어와 쓰이다가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동력탈곡기로 대체된 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클은 전체적으로 A자 모양을 하고 있다. 알곡을 훑기 위해서 이삭을 꽂아 넣는 '클'과 이를 지탱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앞발'과 '뒷발'이 두 개씩 있다. 발의 재료로 숙데낭(삼나무), 소낭(소나무), 자귀낭(자귀나무), 자배낭(구실잣밤나무), 가시낭(가시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용 할 때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내륙지역에서는 몸 양편에 줄을 늘이고 발판을 달아 한 발로 발판을 밟고 고정하여 작업하였으나, 제주 지역에서는 ᄀᆞ레(맷돌) 윗돌을 클의 중앙에 묶어 흔들리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옆에 지게를 두어 쓰기도 하였다.

클로 보리나 나록을 훑는 일은 두 사람이면 할 수

있었다. 대개 한 사람이 보릿대를 한 줌씩 쥐게 해 주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잡고 보리클에 넣어 훑는 작업이 주요 과정이다. 때에 따라서는 보리클을 여러 개 설치하여 여러 사람이 짝을 이루어 일하기도 하였다. 주위의 몇 사람은 훑어진 보리이삭을 정리하는 일 또는 이삭을 훑어 낸 보릿단을 묶고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다. 하루에 보통 4, 5바리 정도를 훑었으며 많게는 10바리를 훑었다. 한 바리는 스무 단이다.

클은 탈곡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앞발과 뒷발을 분해하여 먼지를 털고 마당이나 헛간 한쪽 구석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밭에서 거두어들인 보리를 집 마당에 쌓아 두었다가 보리이삭을 훑어 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 중 '보리 훑는 소리'가 있다. 두 사람 이상이 노래를 부르며, 사용하던 클의 이용 행태를 통하여 과거 양곡을 훑는 작업은 단일 노동이 아니라 집단 노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고광민, 한그루, 2019), 제주도의 농기구(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7), 제주도 전래 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황이새(黃이새)

키

정의 곡식 등을 까불러서 쭉정이·티끌·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쓰는 고르기 연장.

내용 지역에 따라 키, 치(강원도 도계), 칭이(경남 영산), 챙이(전남 구례·보성), 푸는체 등 다양하게 부른다. 문헌에는 '키'(『훈몽자회訓蒙字會』『신증류합新增類合』『산림경제山林經濟』『재물보才物譜』『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라고 하였고, 한자음을 빌려 箕(『훈몽자회』『신증류합』)라 쓰고 한자로는 簸, 簸箕(『농사직설農事直說』『고사신서攷事新書』)라고 적었다.

키는 고리버들이나 대로 만드는데 『해동농서海東農書』에 "남쪽 지방에서는 대로 만든 키를 쓰고, 북쪽에서는 고리버들로 만든 키를 쓴다."라고 하였다. 제작 방법은 고리버들이나 대를 바닥 너비 50~70㎝, 길이 70~100㎝의 크기로 겯고 둘레를 얇은 버드나무 판자를 안팎으로 대고 칡넝쿨이나 소나무 뿌리로 단단히 돌려 감아 고정하였다. 그리고 바닥의 안쪽을 움푹하게 하여 얼마 정도의 곡식이 담길 수 있게 하였다. 고리버들로 만든 키보다는 대오리로 만든 것이 크고,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다.

사용 방법은 물질의 마찰력이나 비중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곡물에 섞인 협잡물을 가려낸다. 곡식을 담고 까부르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 구분되는데, 이를 '키질'이라고 한다. 또 곡식 등에 섞인 불순물을 고르기 위하여 키에 담아 높이 들고 천천히 쏟아 내리는 것을 '키내림'이라 하고, 키를 나비 날개 치듯 부쳐서 바람을 내는 것을 '나비질'이라고 한다.

키는 농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



키 | 너비65 길이7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여러 크기의 키 | 정연학

에 관련된 풍속·민간신앙이 다른 농기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민간에서는 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키를 씌워 다른 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보내면 그 집에서는 까닭을 알아차려 소금을 뿌리고 키를 두드리면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마라.'라고 소리친다. 이렇게 하면 버릇이 고쳐진다고 믿었다.

키는 곡식의 불순물을 고르는 기능적 목적 외에 풍년을 점치는 기구로도 사용되었다. 정월 보름날 제례를 올린 뒤 콩나물과 밥을 키에 담아 소에게 먹여 소가 콩을 먼저 먹으면 콩 농사가, 밥을 먼저 먹으면 곡물 농사가 잘되리라 여겼다.

키는 집의 운을 상징하는 까닭에 쓰지 않을 때는 엎어 놓지 않고 반드시 배가 위로 향하도록 젖혀 놓았다. 엎어 놓으면 곡식이 땅으로 쏟아지듯이 집안의 운도 줄어든다고 믿었다. 또 '키받치'라고 하여 손발을 씻거나 옷을 빤 허드렛물을 텃밭에 줄 때 골고루 뿌려지게 하려고 키에 담아 주기도 하였다.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정초에 처음 서는 장에서 키를 사지 않았다. 키는 까부는 연장이므로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모르고 키를 사 오면 집안 어른이 부수어 버린다. 제주도에서는 섣달 그믐날 키점[箕占]을 쳤다. 부엌을 깨끗이 치우고 키를 씻어서 엎어 두었다가 새해 아침에 그 자리를 살펴본다. 쌀알이 있으면 쌀이, 조가 있으면 조가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윤달에 주부가 마루에서 마당 쪽으로 키질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다. 이는 대문에 그 집을 지켜주는 문전신門前神이 있어 그쪽으로 키질을 하면 그 신을 내쫓는 격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키는 체와 함께 오랫동안 널리 쓰여 온 한국 고유의 고르기 연장이다. 동력 탈곡기를 이용하면서 이용률이 저하되었지만, 농가에서 비교적 소량의 곡물을 선별할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현재에도 사용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국립민속박물관, 1978), 한국의 농기구 도감(박호석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민족역사문화역사문화도감-생업(국립민속박물관,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민석(權珉錫)

탄저병
炭疽病

정의 곰팡이균이 일으키는 병으로 기주식물의 열매, 잎, 과일 또는 꽃에 검은색 괴저와 움푹 꺼진 종양 병반 등을 나타내는 증상의 병.

내용 검게 된다는 의미의 탄저병炭疽病, anthracnose은 그리스어이다. anthrak은 검다는 것을 의미하고 nosos는 병을 의미한다. 탄저병은 식물병원진균(곰팡이)에 의해 감염되는 식물병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탄저병anthrax 병원균인 탄저균과는 다르다. 탄저병은 온난하고 습한 지역과 시기에 주로 발생하여 작물이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잎·줄기·과일·꽃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나 열매와 잎에 주로 발생하고, 초기에는 반점이 생기고 진전되면 갈색으로 변하며 점차 회색이나 흑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병이 진전되면 짙은 색의 점무늬를 형성하거나 가장자리가 약간 융기되고 안쪽은 다소 들어간 특징적인 병반을 형성한다. 과실에 침입하면 긴 잠복기를 갖기도 한다. 과수의 경우에 과실에서 병반이 융기하고 표면이 코르크처럼 되거나 낙과 및 과실 부패를 일으킨다. 그리고 잔가지나 굵은 가지가 말라 죽기도 한다. 탄저병은 검은색의 분생포자층 안에 분생포자를 형성하는 균류가 일으킨다. 디플로카르폰*Diplocarpon*, 엘시노에*Elsinoë*, 글로메렐라*Glomerella*, 노모니아*Gnomonia* 등 네 속의 자낭균류가 탄저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이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주로 분생포자 상태로 발견되고 균사나 분생포자로 월동한다.



탄저병 | 2012 | 농촌진흥청



탄저병 | 경북 안동 | 2009 | 김민기

탄저병은 작물이 재배되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고온다습한 온대지역에서 특히 심하게 발생한다. 탄저병의 분생포자conidia는 분생포자층에서 방출되는데, 비가 내릴 때 빗방울에 의해서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과수에서 열매 성숙기에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비가 지속하여 오는 경우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식물체 표면에 부착한 포자는 수분이 있을 때만 발아하며 건조한 환경 조건에서는 발아가 잘되지 않는다. 탄저병균은 잠복기latency 또는 잠복감염quiescent infection을 가질 수 있다. 잠복의 시기는 멜라닌이 형성된 부착기 단계부터 초기 침입까지 전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 상태로 존재하다가 과일이 성숙하기 시작할 때 공격적으로 자라며 병증을 보인다. 따라서 수확할 때는 감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저장 중에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탄저병은 기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저병균이 알려져 있는데 주요 병으로 고추탄저병·오이탄저병·사과탄저병·딸기탄저병 등이 있으며, 이들 작물에 있어서 방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병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콜레토트리쿰*Colletotrichum* 속의 식물병원성 진균이 식물을 감염시켜 생기는 병이 많다. 기주에 따라 종이 구분되기도 하며, 다양한 기주의 다양한 조직(잎·줄기·과실·꽃 등)을 감염시킨다. 기주별로 병원균의 특성도 조금씩 다르며 병징이 나타나는 시기도 매우 다르다.

특징 및 의의 국내에서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오스포리오이데스*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는 주로 사과와 딸기를 감염시키고 '콜레토트리쿰 아쿠타툼*Colletotrichum acutatum*'은 주로 고추를 감염시킨다. 탄저병의 방제는 감염된 식물이나 종자는 태워 제거해야 하며, 병 발생이 심한 포장은 화본과 등의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저항성 품종의 사용, 무병종자 또는 소독한 종자의 사용, 돌려짓기, 저항성 품종의 이용, 죽은 가지나 병든 과실 등의 전염원 제거, 살균제 살포, 생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 편찬위원회, 에피스테메, 2015), 식물병리학(George N. Agrios, 고영진 외 역, 월드사이언스, 2006), 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

필자 김민기(金民基)

탈곡
脫穀

정의 벼나 보리 따위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일.

내용 탈곡脫穀은 벼나 보리 따위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사일을 말하며, 타작이나 바심, 마당질이라 부르기도 한다. 탈곡은 보리나 밀 등의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졌다. 곡류나 두류 등의 작물을 가을철에 수확하여 낟가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삭이나 꼬투리가 바싹 마르고 얼어서 낟알이 잘 떨어지고, 이듬해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필요한 식량과 씨앗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곡 풍습은 지역과 작물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탈곡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탈곡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탈곡을 하기 전에는 먼저 마당을 평편하게 다져 놓기 위하여 논흙을 퍼다 마당에 고루 펴고 다진 다음 물을 뿌리고 거적 등을 덮은 뒤 밟아 준다. 콩이나 깨 등의 수확량이 적은 작물을 탈곡할 때는 멍석 몇 개를 이어 붙여 펴 놓기도 한다. 마당을 정비한 뒤에는 탈곡에 필요한 농기구를 가져다 놓고 준비를 마친다.

탈곡을 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농기구는 작물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곡식의 이삭을 개상이나 탯돌 등의 농기구에 메어쳐 낟알을 떨어뜨리거나, 벼훑이나 그네처럼 나무나 쇠로 만든 가지 사이로 훑어 내기도 한다. 이삭이나 꼬투리를 도리깨처럼 단단한 막대로 내리쳐 낟알을 떨어내기도 하였다. 떨어낸 낟알은 한데 모아 부뚜나 키를 이용하여 먼지와 쭉정이, 검불을 날려 보냈다.

벼 탈곡에는 개상, 탯돌, 벼훑이, 그네, 도리깨, 족답식탈곡기 등 다양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개상이나 탯돌은 벼이삭을 메어쳐 낟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개상은 통나무를 엮고 네 다리를 달아서 마치 긴 의자처럼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긴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통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돌절구나 절구통을 눕혀서 개상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볏단을 자리개로 단단히 묶은 뒤 개상에 메어치면 낟알이 떨어지며, 남자 한 명이 하루에 벼 한 가마 반 내지 두 가마의 낟알을 떨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탯돌은 적은 양의 곡식을 떨어낼 때 쓰는 농기구로서 가랑이가 벌어진 가지 위로 넓적한 돌을 올린 뒤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도록 받침대를 붙여 놓았다. 사용 방식은 개상과 같다.

벼훑이는 잘 말려 놓은 벼 이삭을 훑어 낟알을 떨어뜨리는 농기구이다. 두 개의 가는 나뭇가지나 댓가지 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며, 벼 이삭을 가지 사이에 넣고 낟알을 훑어 내는 방식이다. 적은 양의 곡식을 탈곡하는 풋바심이나 씨나락을 받을 때 또는 개상질을 하고 이삭에 붙어 있는 낟알을 깨끗하게 훑어 낼 때 사용하였다.

그네는 두툼한 각목의 양 끝에 네 다리를 달아 떠받치고 그 위에 날이 촘촘한 쇠틀을 끼워 만든 것으로, 쇠틀 사이에 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떨어뜨린다. 탈곡 작업 중 그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두툼한 각목에 두 줄을 내려 연결한 발받침을 밟으면 그네가 단단히 고정된다.

근대화와 함께 도입된 족답식탈곡기는 발굽쇠 모

양으로 구부린 철사(급치)를 원통에 촘촘히 박아 만든 농기계이다. 발판을 밟아 빠르게 회전하는 원통에 볏단을 가져다 대면 낟알이 떨어졌다. 탈곡을 하는 사람 두세 명, 볏단을 공급하는 사람 두 명, 떨어진 낟알을 정리하는 사람 두 명, 떨어낸 짚을 정리하는 사람 두세 명 등 여러 사람이 있어야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이들이 힘을 합하여 하루 40여 가마 정도의 벼를 탈곡할 수 있었다.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나 그네, 개상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네나 개상을 이용하여 이삭과 낟알을 떨어내었다. 이때 보릿단 안쪽의 이삭은 잘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네와 개상 등을 이용하여 낟알을 떨어낸 보릿단과 이삭을 한데 모아 도리깨질을 하였다. 이삭이 가운데를 향하도록 보릿단을 펼친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돌아가며 도리깨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타작을 진행하였다. 어느 정도 이삭을 털어 낸 다음에는 보릿단을 뒤집어 다시 한번 두들겼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도리깨질만으로 보릿단을 뒤집어 가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리깨질이 끝나면 부꾸와 키 등으로 낟알을 깨끗하게 골라 갈무리하였다.


흘태


탈곡기


도리깨질

탈곡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조나 수수 역시 도리깨질로 탈곡을 하는데, 조와 수수 이삭을 마당에 펴 놓는 과정에서 이삭의 두께를 미리 적절히 조절하였다. 이삭이 너무 얇게 펴지면 도리깨질을 하는 과정에서 낟알이 깨질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두터우면 낟알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나 수수는 보통 서너 벌 정도 골고루 누벼 치는 것으로 타작을 마치고 부뚜나 키를 이용하여 깨끗한 낟알을 가려내어 갈무리하였다.

콩털기를 할 때는 사전에 마당을 평편하게 다져 놓고 그 위에 멍석을 서너 장 깔았다. 그런 다음 콩낟가리에서 콩단을 날라 미리 골라 둔 마당이나 멍석 위에 일정한 두께로 펴 놓았다. 도리깨질을 시작하면 콩알이 떨어지며, 한 벌치기가 끝나면 콩알만 따로 긁어내고 재벌치기를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서너 벌 정도 도리깨질을 계속하면 콩알이 말끔하게 떨어졌다.

참깨는 깻단을 세워 말려 둔 마당이나 밭의 한 귀퉁이를 평편하게 고른 뒤 그 위에 멍석이나 포장을 깔고 털어 낸다. 특히 잘 말린 깻단은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깨가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가급적 깻단을 말려 놓은 곳 가까이에서 탈곡을 진행한다. 깨를 탈곡할 때는 특별한 도구 없이 가벼운 막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잘 마른 깻단은 가벼운 막대로 툭툭 털기만 해도 낟알이 잘 떨어진다. 그래서 잘 말려 둔 깻단의 뿌리 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잡고 작은 막대로 두들기는 방식으로 타작을 진행한다. 털어 낸 깻단은 다시 세워서 말리며 이틀이나 사흘 뒤 다시 털어 낸다.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하면 참깨를 깨끗하게 떨어낼 수 있다. 떨어낸 참깨는 한데 모아 키질을 하여 쭉정이와 흙 등의 잡물을 제거한다.

개상이나 그네, 도리깨 등 다양한 농기구를 활용하여 곡식을 탈곡한 뒤에는 어레미 등의 체나 키를 이용하여 검불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체를 이용하면 검불 등 비교적 크기가 큰 잡물을 걸러 내고 곡식의 낟알만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키를 이용하여 바람에 먼지나 쭉정이 등 작은 잡물을 날려 보내고 좋은 낟알만을 남길 수 있다. 만약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으며, 이때 사용한 농기구가 바로 키나 부꾸였다. 이를 두고 '나비질'이라고 하였으며, 넉가래를 든 사람들이 낟알을 높고 멀리 날려 보내면 키나 부꾸를 든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켜 잡물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면 가까이 남은 무거운 낟알을 먼저 긁어모아 잘 갈무리하여 이듬해 식량과 씨앗으로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탈곡은 작물에 따라 곡식의 이삭을 메어치거나 훑어 내고 도구로 내리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작물에 따라 탈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농기구도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벼나 보리의 경우 파종부터 탈곡까지 모든 농사 과정이 기계화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개상이나 도리깨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탈곡은 더 이상 보기 어렵다. 다만 농가마다 소규모로 재배하는 깨와 같은 작물은 여전히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탈곡을 진행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농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윤수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두피디아(doopedia.co.kr), 북한지역정보넷(cybernk.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봉관(權俸觀)

탈곡기
脫穀機

정의 벼를 탈곡하는 회전식 기계 연장.

내용 탈곡기는 벼를 타작하는 기계이다. 탈곡기는 직



탈곡기 | 너비106 높이63 길이 6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크랭크crank가 부착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서 동체를 돌린다. 이 동체에는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린 철사인 급치扱齒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회전할 때 곡식 단을 거꾸로 잡고 먹이면 빠른 속도에 의해 급치가 이삭을 때려 알곡을 떨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탈곡기는 인력탈곡기pedal driven thresher이며,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족답식足踏式 탈곡기라고도 부른다.

탈곡기는 1930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도입되었는데, 당시는 '회전식 도급기稻扱機'라고 불렀고 그 후에 발로 밟아서 하는 탈곡기라는 의미에서 '족답식 탈곡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 한자식 명칭보다는 탈곡기가 돌아갈 때 내는 소리음을 따서 '와룽기' 혹은 '호롱구'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쉽게 '발탈곡기' 혹은 '디딤탈곡기'라고도 하였다.

탈곡기의 크기는 높이 73㎝, 가로 폭 107㎝, 세로 두께 74㎝ 정도로 비교적 크기가 작다. 구조는 동체인 회전통과 이 회전통을 지지하는 기틀, 그리고 발판과 크랭크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통은 목재와 주철로 만들었으며 강철선으로 급치를 만들어 박았다.

탈곡기를 사용할 때 보통 2~3명이 한 조를 이룬다. 한 명이 잘 건조된 볏단을 풀어서 잡아 떨기 편리하도록 도와주고, 두 명이 탈곡기를 밟으면서 볏단의 안과 겉을 바꾸어 가면서 먹인다. 앞사람이 애벌 떨고 다음 사람이 받아서 두벌 떨어 마무리한다. 그러나 손이 부



탈곡기로 탈곡하는 모습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족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회전식 탈곡기는 기본적으로 벼의 품종이나 상태에 따라 회전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건조가 잘 된 벼일수록 낮은 회전속도로도 쉽게 떨 수 있고, 마르지 않은 것일수록 회전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벼와 같이 탈립성脫粒性이 큰 품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품종도 있으므로 회전속도를 잘 맞추어야 한다. 회전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곡식 낟알에 상처가 생겨 쇄미碎米 혹은 동할미胴割米 발생이 높아진다. 곡식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적절한 회전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종자용 곡식은 회전속도를 낮추어 탈곡하는 것이 좋다.

탈곡기는 세 명이 하루 40여 가마의 벼를 탈곡할 수 있다. 탯돌이나 개상 혹은 그네 등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 족답식 탈곡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바뀌어 갔는데, 인력으로 돌리던 상태에서 후에 동력을 인력 대신 원동기나 경운기로 대체하는 방법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이 볏단을 일일이 먹였으나, 볏단을 기계적으로 물고 자동으로 공급하면서 탈곡과 선별작업을 동시에 하는 자동탈곡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자동탈곡기의 구조는 볏짚 자동공급장치, 굴통의 급동扱棟을 중심으로 한 탈곡장치, 풍구風具를 중심으로 한 선별장치, 탈곡된 볏짚을 보내는 이송장치로 되어 있다. 급동에는 족답식 탈곡기와 유사하게 급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회전할 때 곡식 이삭을 때려서 탈곡한다.

특징 및 의의 탈곡기는 최초의 기계식 탈곡장치이다. 크랭크라는 동력 변환 장치가 설치된 기계로, 이를 이용해 사람이 발로 밟는 반복적인 힘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고 이 힘을 이용해 급동으로 전달하여 급치에 의해 탈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탈곡기는 생산력이 매우 뛰어나 재래식 도구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타작기술과 농촌문화를 급속히 바꾸어 놓았다. 초기에는 탈곡장치만 갖춘 형태였으나 점차 자동공급장치, 선별장치, 이송장치 등이 추가되어 점차 콤바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참고문헌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수도작(이은웅, 향문사, 1995), 탈곡도구의 변천 개관(권진숙, 한국의 농경문화4, 경기대학교박물관, 1994),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호(金在浩)

태

정의 짚이나 삼, 실 같은 것으로 부드럽게 꼬아 만든 것으로 소리를 내어 새를 쫓는 연장.

내용 공기와 마찰로 발생한 소리를 활용하여 새를 쫓는 도구이다. 태는 짚이나 삼으로 머리 쪽을 굵게, 꼬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늘게 꼰 2~3m 길이의 줄을 말한다. 태의 머리 쪽인 손잡이를 잡고 손을 쭉 뻗은 후에 머리 위로 계속 빙빙 돌리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잡아챈다. 태는 줄이 꺾이면서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딱' 하고 큰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소총 소리처럼 크게 난다. 소리에 새는 알곡을 쪼아 먹으러 왔다가도 놀라서 허공 속으로 멀리 날아간다. 농민들은 태 외에 새를 쫓는 방법과 도구로 팡개와 물풀매 등을 사용하였다.

우선 머리 쪽은 머리를 땋듯이 굵게 만든다. 꼬리 쪽은 새끼를 꼬듯이 하면서 점점 더 가늘게 만들어 나아간다. 처음에는 한 줌 정도의 짚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에 밑동 부분으로부터 어른 손 반 뼘 정도 위 위치에서 짚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리고 짚을 반대로 늘어뜨리면서 다시 가지런히 정리한 후에 약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에 짚으로 다시 묶어서 짚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은 머리 부분으로 둥근 형태를 띠어서 손으로 잡기에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새를 쫓을 때는 이 위치가 바로 태의 손잡이 역할을 한다. 그다음 부분부터 머리를 땋듯이 태를 만들어 나아간다. 꼬리 쪽은 가늘고 길게 꼬며, 여러 번 돌리면 떨어지기 쉬워서 대체로 삼으로 엮어서 태를 완성한다.

새를 쫓는 일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하였다. 새가 조금 뜸해지면, 아이들은 한곳에 모여서 태질을 하면서 새를 쫓는 소리가 누가 더 큰가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새 쫓는 것을 놀이로 즐겼다.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추수하는 시기에 따리치기로 새를 쫓았다. 머리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가 11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꺾어 치면 '뻥' 하고 새총 소리가 난다.

태 외에 새를 쫓는 도구로는 팡개와 물풀매가 있다. 팡개는 태와 마찬가지로 논밭의 새를 쫓기 위하여 대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길이 50~60㎝의 대나무 토막 한끝을 네 갈래로 짜개서 십十자형으로 만든다. 그런 후에는 그 사이에 작은 막대를 물리고 끈 등으로 단단히 동여맨다. 흙에 꽂으면 그 사이에 흙이나 작은 돌멩이들이 자연스럽게 박힌다. 논이나 밭에 모여드는 새에게 이를 내두르면 사이사이에 박혔던 흙이나 돌이 멀리까지 날아가므로 새가 놀라서 달아난다. 무게는 100g 안팎이다. 지역에 따라서 팡개는 팽개(전북 봉동), 팽매(전남 영광·보성) 등으로 부른다.

물풀매는 새를 쫓는 또 다른 도구이면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님처럼 너비가 좁고 긴 천을 반으로 접어서 그 가운데에 작은 돌을 올려놓고 힘껏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돌이 멀리 날아간다. 두 번째 방법은 가는 새끼나 노로 국자처럼 움푹하게 망을 뜨고 두 개의 끈을 달아서 가운데 돌을 담고서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멀리 날아간다. 손에 쥐는 쪽의 끈에는 고리가 달려서 손가락을 고리에 걸고 돌린다. 두 방법 모두 원심력을 활용하여 돌을 던진다. 지역에 따라서 물풀매는 줄팽개(전북 완주), 헐끈팽매(전남 보성), 노팔매(경북 울진) 등으로 불린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농민들은 조류와 산짐승들의 무단 침입으로 상당량의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다. 농민들은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허수아비나 종, 반짝이는 줄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조류 등을 쫓아 농산물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검은 플라스틱판으로 매의 실루엣을 본떠 잘라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새의 접근을 미리 차단하는 방



태 | 길이15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법까지 사용한다.

태는 알곡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량의 수확을 올리려는 농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농기구이다. 태는 지역에 따라서 뙈기, 뙤기, 파대, 딸기, 때기라고도 불리었다. 한문으로는 태를 '破帶(파대)'로 쓰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조류와 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민들은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시행하였다. 태와 탕개, 물풀매 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를 쫓기 위하여 농민들이 만들었던 도구이다. 이들 도구 중에서 태는 새를 쫓는 대표적인 도구였다. 태질은 알곡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량의 농산물을 확보하여 수확을 올리려는 농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농법'이었다. 태는 원심력과 마찰음을 활용한 과학적인 농기구로서 아이들의 민속놀이로까지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탯돌 | 영양산촌생활박물관

탯돌

정의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으로 메어쳐서 알갱이가 떨어지도록 태질하는 돌.

내용 전통적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훑기와 떨기이다. 훑기는 이삭을 잡고 난알을 떼어내는 방법이고, 떨기는 순간 힘을 가해 난알이 이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떨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곡식은 그대로 둔 채 외부에서 힘을 가해 떠는 방법과 반대로 곡식을 메어쳐서 부딪쳐 떠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 방법은 도리깨질이고, 후자의 방법으로는 태질이나 개상질이다. 기계식 탈곡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이 방법으로 타작하였다.

탯돌은 바로 태질에 사용하는 돌이다. 굳이 돌에 태질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돌이 가진 견고성이나 제작의 용이성, 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돌이 가장 무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질할 때는 곡식을 태질하기 쉽도록 작은 단으로 새로 묶는다. 그래야 메어치기가 쉽고 알곡을 떨기가 쉽다. 이런 이유에서 탯돌은 개상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수확 농기구에 속한다. 농업사적으로 볼 때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를 이용해 곡식의 이삭만을 잘라 수확하던 시기 이후, 즉 청동기 이후에 출현한 농기구로 추측된다.

탯돌은 전통사회에서 여느 농가 마당이나 처마 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태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탯돌을 얹는 받침이 필요하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지도록 간단한 나무틀로 받침을 제작하여 그 위에 탯돌을 얹으면 더 좋다. 탯돌은 돌의 형태나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소 거친 둥글고 넓적한 자연석을 그대로 써도 되고, 맷돌 한 짝을 탯돌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돌이 없으면 통나무를 사용할 수 있고, 나무 절구나 돌절구를 뉘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만큼 농업생산력이 낮았던 시기에 순수한 인력을 이용해 타작하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태질할 때는 잘 말린 볏단 아랫도리를 자리개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이는 힘쓰기 좋게 하는 것으로, 내리치는 힘으로 볏단이 흩어지거나 빠져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리개로 묶은 볏단은 어깨 위로 돌려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가 탯돌에 힘껏 내리친다. 그러면 곡식의 알갱이들이 떨어진다.

태질을 통해서 하는 타작의 대상은 주로 벼이다. 벼는 보리나 밀보다 낟알이 이삭에서 잘 떨어진다. 특히 바짝 마른 벼일수록 더욱 탈립脫粒 작업이 수월하다. 그래서 벼는 논에서 베어 잘 말려야 한다. 오늘날은 회전력이 매우 우수한 콤바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벼를 논에서 베자마자 젖은 상태에서 탈곡하는 생탈곡生脫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 방법을 달리하기도 하였는데, 벼는 탯돌이나 개상을 이용해 태질하지만 보리타작은 탯돌보다 도리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곡식이 갖는 탈립성脫粒性의 차이를 고려한 것인데, 벼나 보리가 갖는 고유한 성질을 잘 알고 그에 맞는 타작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탯돌을 이용할 경우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벼 한 가마 반에서 두 가마를 떨 수 있으며, 많으면 세 가마까지 떨 수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탯돌은 개상과 함께 볏단이나 보릿단을 메쳐서 이삭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농사 연장이다. 개상은 주로 나무를 이용한 것이고, 탯돌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탯돌이 개상보다 좀 더 탈곡 도구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족답식 탈곡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통 농가에서는 이러한 재래식 탈곡 도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그네나 탈곡기 등이 보급되면서 탯돌이나 개상은 그 역할이 축소되고 서서히 농가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탈곡도구의 변천 개관(권진숙, 한국의 농경문화4, 경기대학교박물관, 1994),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호(金在浩)

토란
土卵

정의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덩이줄기를 번식하고 덩이줄기를 먹는 식물.

개관 토란*Colocasia antiquorum var. esculenta*은 토지土芝, 토련土蓮, 우자芋子, 야우野芋, 땅토란으로 불린다. 토란은 인도·히말라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열대아시아가 원산지로, 기원전부터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퍼졌다.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 때 간행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토란이 약재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고려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 토란은 영양체로 번식하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하게 분화되지 않았다. 대체로 흰빛의 백우白芋, 자줏빛의 자우紫芋 등이 있다. 개량종 토란은 재래종 토란보다 알이 크고 일찍 자라는 조생종이다. 자우는 줄기가 연하고 알이 작으며 고소한 맛이 있다. 전통적인 토란 재배법은 구덩이에 콩대를 잘라 넣고 물을 주며 발로 밟아서 물기를 머금게 한다. 씨 토란을 네 모퉁이에 넣고 발로 밟아주거나 냇물의 진흙 또는 재거름과 썩은 풀을 이용하여 북돋아 준다. 콩대가 썩으면서 토란이 싹트는데, 한 구덩이에서 3*kg*까지 수확한다. 8월에 기운



순이 자란 토란 | 전남 순천 | 2019 | 변현단



토란밭 | 전남 곡성 | 2019 | 변현단

이 왕성할 때 호미로 뿌리 주변의 흙을 파서 진흙을 얹어주고 잎을 짚으로 묶어 주면 알이 비대해진다고 한다. 이를 '토란 뿌리 놓아 준다'라고 한다. 토란을 수확할 때는 토란대를 먼저 잘라 놓은 뒤 1~2주 뒤에 수확한다. 그 사이에 토란은 더욱 살이 찐다. 4월 중순부터 파종하고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소만(입하와 망종 사이, 양력 5월 21일경) 전까지 끝내야 한다. 토란을 심는 곳은 물에 가까운 습한 곳이 좋다. 10월에 수확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겨울에 먹으면 토란의 부작용이 없다. 전남 곡성에서 농가 소득용으로 토란을 많이 재배하는데, 퇴비를 한가득 붓고 경운을 한 뒤에 비닐로 토양을 덮는 멀칭을 한 후 3월 중에 파종하고 추석 전후로 수확한다. 종자로 쓸 토란은 모양이 둥글고 길며 꼭지 부분이 흰 것을 골라야 한다. 구덩이를 파고 씨토란을 묻고 얼지 않도록 볏짚이나 천막 덮개(천막지, 가빠, 타포린지 등으로도 칭한다)로 덮어 둔다. 3월 중에 씨토란을 꺼내 4월에 비옥한 땅에 심는다.

토란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몸의 열을 내려 진통제로 널리 쓰여 왔다. 벌이나 독사에 물렸을 때 토란잎을 따서 즙을 내어 바르면 해독이 된다. 치통이 심할 때 토란을 갈아서 물고 있으면 가라앉는다. 타박상, 염좌, 화상에도 바르면 2~3일 내로 치유가 된다. 이는 모두 토란의 찬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토란을 이용한 찜질법도 있다. 토란을 강판에 갈아서 같은 양의 밀가루와 섞고 거기에 소량의 생강을 갈아 잘 섞어 환부에 바른 뒤 거즈로 붙여 두면 급성관절염, 급성복막염, 맹장염 등으로 생긴 통증이 가라앉는다. 토란 찜질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전쟁 시기에 식량을 비축하기 위하여 토란을 흙에 묻혀 돌담으로 쌓았다가 적이 물러가면 돌담을 허물어 식량으로 먹었다. '땅속의 달걀'이라는 뜻을 가진 토란은 한 그루에 1.2*kg* 정도 달리는데 벼보다 오래전부터 재배해 온 구황작물이다. 중국의 고서 『열선전列仙傳』에서는 "토란으로는 흉년을 넘길 수 있다. 지금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 재난이 생기면 굶주려 죽는 사람이 길바닥에 가득한데, 이를 알고도 토란을 심지 않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구술하고 있다. 토란은 줄기와 뿌리를 이용하여 전남 곡성에서는 논 대체 작물과 지역 특산물로 토란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토란은 일상적으로 먹지 않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토란을 식량 대체 작물로 이용하면서 빵이나 과자에 넣어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실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林原經濟志, 온고이지신3(구자옥·김미희·김영진, 농촌진흥청, 2008), 토종농사는 이렇게(변현단, 그물코, 2018).

필자 변현단(卞現丹)

토마토

정의 남아메리카 원산의 가짓과 채소.

역사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1614년(광해군 6)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芝峯類說』이며, 여기에서는 '남만에서 나는 감'이라는 뜻에서 남만시南蠻柹라고 하였다. 이후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남만시가 등장하는데, 도입 초기 남만시라고 부르던 것을 19세기에 들어 당시唐柹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토마토가 식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부터이다.

내용 토마토의 품종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식은 생장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토마토는 줄기에서 9장의 잎이 분화되고 생장점이 비후하여 제1화방으로 분화한 후 제1화방과 9번째 잎 사이로 새로운 생장점이 형성되어 원줄기로 신장해 간다. 이때 세 마디 건너씩 화방이 순차적으로 착생하는 무한형 품종과 두 마디 건너 제2화방, 한 마디 건너 제3화방을 착생시키고 생장이 멈추는 유한형 품종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과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로 구분하며, 방울토마토는 다시 과실 길이와 너비의 비율에 따라 원형과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나눈다. 대과종 일반토마토에는 동양계(핑크계)와 유럽계(레드



방울 토마토 | 농촌진흥청



토마토 | 농촌진흥청

계) 품종이 있으며, 각각 생식용과 가공용에 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토마토는 호온성 채소로서 생육적온은 17~27℃이며, 과실비대에 적합한 온도는 25~30℃이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고온에서는 착과가 불량해지고 과실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름철 온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토마토는 또한 햇빛을 좋아하는 채소로 광포화점이 7만 럭스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꽃눈분화는 일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 한편 토마토 뿌리는 습해에 대한 적응성이 낮아 배수가 원활한 토양에서 재배하여야 하고, 토양의 적정 산도는 *pH* 6.5~7.0이다.

성숙된 토마토 과실에 함유된 색소는 대부분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이며, 주성분인 리코펜lycopene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암과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마토 과실에는 루틴rutin이라고 하는 플라보놀flavonol 배당체가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주고 혈압을 낮추어 주어 모세혈관의 출혈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토마토에는 비타민A,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꼽히기도 하였다.

과거 비닐하우스 도입 전에는 2~3월 온상에 육묘하여 5월 노지에 정식하고 6~7월에 수확하는 재배가 널리 이용되었다. 비닐하우스의 보급 이후에는 시설 내에서 보온 또는 가온을 통해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배 형태가 다양화되었고, 2009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노지 토마토 생산 통계는 더 이상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유리온실 내 양액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8~9월에 정식하여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하는 장기재배가 있다.

토마토는 환경조건에 따라 생육속도가 다르기에 작형별로 파종부터 정식까지의 소요 일수가 달라진다. 육묘적온은 20~25℃이며 육묘기간은 고온기 30~40일, 저온기 50~60일 정도이다. 정식 시에는 잎이 7~9장 전개되고 첫 번째 화방의 꽃이 10% 정도 개화된 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이후에는 생육에 적합한 온습도, 광, 양수분 관리를 통해 충분한 영양생장이 이루어진 후 생식생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능률을 높이고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하여 줄기를 세워 유인하며,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줄기 아래쪽 오래된 잎이나 병든 잎을 따 준다. 착과 후에는 균일한 과실 비대와 초세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토마토 기준 화방당 4~6개의 과실을 남기고 적과한다.

특징 및 의의 토마토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이 불과 50~60년에 지나지 않고 외국과는 달리 생식용에 국한되어 있어 소비나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작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강 기능성 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토마토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6,058*ha*와 38만 8,657t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 토마토 품종의 종자 자급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토마토 육종회사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토마토(농촌진흥청, 2019), 신선농산물 국내 및 일본시장 후속조사-토마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원예작물학1-채소(문원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9),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이철, 알마, 2011),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박효근 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농사로(nongsaro.go.kr).

필자 정효봉(鄭效奉)

토매

정의 벼의 껍질을 벗겨서 현미를 내는 기구.

내용 매통의 이가 모두 닳아서 더 쓰지 못하거나, 지름 80여㎝의 큰 통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대로 테를 둘러서 울을 삼고, 그 안에 소금에 버무린 찰흙을 다져 넣어서 만든다. '흙매'라는 별명은 이에서 왔다.

맷돌처럼 위아래 두 짝으로 구성되며 이[齒]로는 대나무 쪽을 박는다. 크기는 지름 70~80㎝에 높이 40~50㎝쯤이다. 매우 무거워서 위짝 옆에 달린 기둥에 손잡이를 따로 박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노를 젓듯이 앞으로 밀었다가 당기면서 돌린다.

그러나 매통보다 성능이 두세 배나 높지만 곡식을 잘 말리지 않으면 낟알이 깨지기 쉬어서 한 섬[一石]에 쭉정이가 한 되 닷 푼이나 나온 탓에 농사가 큰 집에서나 쓸 수 있었다. 이 밖에 위짝이 너무 무거운 탓에 보



농 | 임원경제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꾹에 내린 줄에 걸어놓은 T자 꼴 손잡이를 적어도 넷이나 여섯이 돌려야 하는 것도 큰 단점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를 비롯한 여러 고문헌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터이다.

토매가 처음 등장하는 글은 허초희許楚姬(1563~1589)의 시〈손가락에 봉선화 물들이고[染指鳳仙花歌]〉로, "해 질 녘 황금분의 이슬 내 방에 어리자(金盆夕露凝紅房) / 여인의 열 손톱 길고도 매끄럽네(佳人十指纖纖長) / 토매에 갈아 장다리 잎에 말고(竹碾搗出捲菘葉) / 귀고리 울리며 등잔 앞에서 동였네(燈前勤護雙鳴璫)."라는 네 구절이다(『난설헌시집蘭雪軒詩集』). '허초희'는 허난설헌許蘭雪軒으로 알려진 여인의 본명이다. '죽연'은 흙매를 가리킨다. 젊은 여인이 '토매'로 갈아서 얻은 봉선화 물을 들인 '길고도 매끄러운 손톱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두 번째는 이식李植(1584~1647)이 남긴 시〈청사에서 새로 차 끓이며 지은 절구[省中新火煮茶]〉 가운데 다음 네 구절이다. "새 차 한 대접에 새 시름 말끔히 씻자(新茶一椀浣新愁) / 간밤 꿈의 고향 강물 갑자기 떠오르네(忽憶東江昨夢遊) / 양쪽 언덕의 도화와 끝없이 출렁이는 봄 물결(兩岸桃紅春漲闊) / 풍로와 흙매 싣고 돌아가는 배에서 보노라(風爐竹碾倚歸舟)."라는 내용이다(『택당선생집澤堂先生集』). 배에 흙매와 풍로를 왜 실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다.

토매는 20세기 초까지도 널리 쓴 것이 분명하다. 가토 스에부로加藤末郎가 남긴 『조선농업론朝鮮農業論』의 "충청남도 강경江景처럼 일본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일본의 기구를 쓰지만, 다른 고장에서는 조선구朝鮮臼를 쓴다."라면서 토매 만드는 법을 덧붙인 것이 그 증거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 토매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매통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토매가 들어간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김문길金文吉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오카야마현岡山県 히젠시備前市의 기이 조이치紀井條一 가문에 전해 오는 고문서를 통해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1598)의 가신家臣이었던 오카야마현岡山県 출신의 로코스케 신베에六介新兵衛가 토매를 일본으로 가져간 뒤, 자기 마을의 고쿠시國司 신사

에 바친 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볍씨[赤米]로 농사를 지어 그 맏물을 토매에 벗겨서 빚은 감주로 감사제[霜月祭]를 지냈으며, 이것은 뒤에 히젠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지 시문화원에 높이 1m에 지름 1.5m의 토매가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참고문헌 일본에 건너간 우리 농기구(김광언, 한국민족학연구2, 단국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4),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朝鮮農業論(加藤末郎, 裳花房, 1904).

필자 김광언(金光彦)

토양 및 농구 교과서

정의 1914년(大正 3)에 조선총독부가 농업학교 농업과에서 가르치는 토양 및 농구[土壤及農具]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간행한 서적.

역사 한국사회에서 농업학교 설립은 통감부 시기 중등교육을 통해 농민의 저항의식을 무마하고 민족교육을 억제하는 한편 산업 발달의 명목 아래 식민지 수탈에 중등교육을 활용하려던 일제 실업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농업개량을 성공시키려면 학생들이 직접 개량농법을 이용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도低度 농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농업학교 설립 기저의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따라 1909년 4월 〈실업학교령〉이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관립인천실업학교를 필두로 실업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농업학교의 경우 각 도에 1개교씩 일괄 설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반 실업학교보다 진척이 늦어져서 1910년에 들어서야 대구·평양·전주·함흥부터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10년에만 모두 12개교가 신설되는 등 설립이 활발하였고, 일제강점기 중등교육의 핵심 영역을 이루었다. 당시 농업학교 졸업생이 지니는 엘리트로서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토양 및 농구 교과서[土壤及農具教科書]』가 간행되던 19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주·청주·전주·군산·광주·대구·진주·평양·해주·의주·영변·춘천·함흥·북청 등 모두 14개의 농업학교가 중등의 실업계 학교로 운영되고 있었다.

농업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토양 및 농구' 과목은 1910년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농업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마련된 2년제 학과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2학년 전체 시수 30시간(수신·국어·수학 등 보통학과 시수 7시간, 농업·임업·측량 등 실과 시수 23시간, 실과 중 농업 시수 18시간) 중 '토양 및 농구' 과목 시수가 2시간을 이루도록 짜여 있었다. 농업학교 전공실과 고급과목으로서 '토양 및 농구' 과목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식민지 강점 직후인 1911년 〈조선교육령〉과 〈실업학교규칙〉을 포고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1912년 실업학교의 교과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913년 〈실업학교규칙〉이 개정되었다. 이 교과 조사와 규칙 개정의 저변에는 농업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권업'의 방침에 부합하는 과목만을 교과과정에 남겼다. 이에 의해 설정된 농업학교 교과 편제를 보면 2학년생 농업 과목의 시수 19시간 중 2시간이 '토양 및 농구' 과목에 배정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이 책 『토양 및 농구 교과서』를 간행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을 지닌 농업학교 '토양 및 농구' 과목의 교재로 삼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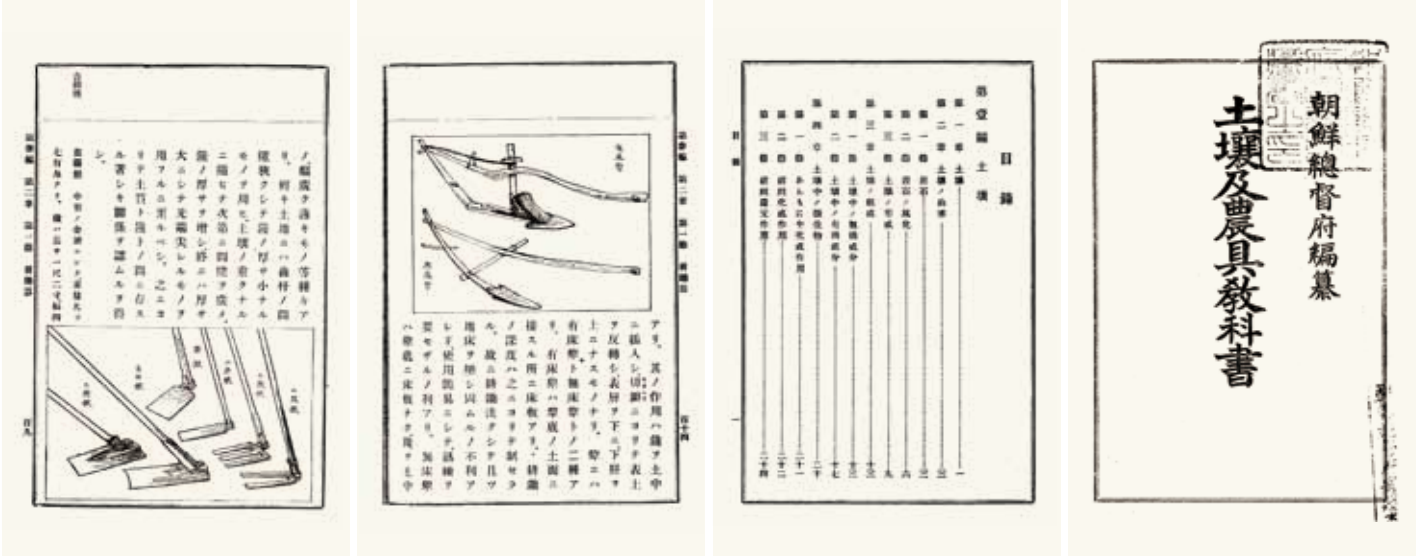
내용 1910년의 농업학교 학과과정에서 '토양 및 농구' 과목의 과정 내용은 농구, 토양, 토지개량으로 되어 있고, 1913년에 개편된 농업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이 과목은 토양의 구성·분류·성질, 토지개량, 농구 등 세 부분을 과정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토양 및 농구 교과서』의 편제 역시 제1편 토양, 제2편 토지개량, 제3편 농구 등 3부로 구성되었다. 책머리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작성된 서언緖言은 "이 책의 내용은 특히 조선의 농업에 적절하게 함에 유의하여, 각 사항에 관하여 되도록 상세히 기술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식민지 수탈 의도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이 '조선 농업에 적절하게 함'이 어느 수준의 어떤 것을 의미하였는지가 이 교과서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서언에서는 "이 책을 사용하는 학교에서의 토양 및 농구의 매주 교수 시수에 따라 적당히 사정을 헤아려 교수할 것 …… 간이농업학교에서 특히 많이 토양 및 농구에 대해 교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책을 사용하고, 또한 이 책의 교재를 적당히 사정을 헤아려 교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용법은 융통성 있게 하되 기본 교재로 널리 활용하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도서 가격은 13전, 인쇄처는 조선총독부 총무국 인쇄소, 초판 발행일이 1914년 3월 15일이며, 전체 분량은 184쪽이고, '교과서'답게 곳곳에 도판이 사용되었다. 각 편은 모두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편찬 과정에서 기획된 편제로 보인다.

제1편인 토양편은 '토양(정의)' '토양의 유래' '토양의 조성' '토양 속의 미생물' '토양의 성질' '토양의 분류' '토양의 비척肥瘠' 등 모두 7개의 장에 56쪽 분량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조선에 많은 암석의 종류를 거론한 것 외에 딱히 '조선 농업에 적절하게'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며, 대부분의 서술이 대단히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토양학 교과서 수준의 기술로 채워져 있다. 오늘날 민속 연구와 관련하여 토양편의 내용 중 유익한 부분을 찾자면 토질의 차이에 따라 쟁기 사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 끄트머리의 한쪽 남짓한 서술 정도일 것이다.

제2편인 토지개량편의 7개 장은 '토지의 개량(의정의)' '객토客土' '소토燒土' '관개' '배수' '제언 및 보' '경지정리'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토지개량편의 전체 분량은 22쪽으로 토양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토지개량은 토양학과 달리 근대 학문체계의 정식 분과가 아니다 보니 학자적 개입이 적었기 때문일 것인데, 오늘날 입장에서 유익하기로는 이쪽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책이 중등 실과 교과서이다 보니 제1편에서 토질 차이에 따른 쟁기 사용법 차이를 적은 것처럼, 제2편에서는 당시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오늘날은 잘 모르는 농지의 조성과 개량 작업 실무 공정에서 기본이 될 만한 사항들을 입문 수준에서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제3편인 농구편 7개 장은 '농구(일반론)' '정지용구整地用具' '작부용구作付用具' '수입용구手入用具(일본에서 '수입'이란 손질 또는 관리를 의미함)' '보호용구' '수납용구' '가공용구' 등으로 짜였다. 전체 96쪽 분량인데, 농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 도판도 많이 사용되었다. 정지용구 내에 경서기耕鋤器(논밭 갈이), 초파기秒耙器(흙 부수기), 진압기鎭壓器(흙 다지기) 등이, 작부용구 내에 정휴기整畦器(이랑 고르기), 조비기調肥器(거름 만들기), 파종기播種器(씨뿌리기), 재식기栽植器(옮겨심기) 등이, 수입용구 안에 운서기耘鋤器(김매기), 전정기剪定器(가지치기), 관수기灌水器(물 대기) 등이, 수납용구 내에 예취기刈取器(베어 거두기), 굴채기掘採器(캐어 거두기), 조제기調製器(떨고 고르고 빻기), 운반기運搬器(나르기) 등이 포함되었다. 보호용구와 가공용구에는 별도의 하위범주를 두지 않았다.



토양 및 농구 교과서 | 국립중앙도서관

특징 및 의의 위의 내용 설명에서 토양편의 내용 중 오늘날의 시각에서 유익한 부분으로 토질 차이에 따른 쟁기 사용법 차이를 꼽은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현재는 쟁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나 1914년 당시에는 아는 이가 흔해서 일반 서적이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내용을 교과서이기에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굳이 이 책을 펼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쟁기 사용법 서술이 제1편에서 유익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편에는 1910년대 시점에서 실행되거나 권장되던 여러 논밭 일구기와 물 대기 방법이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유용하다. 이는 오늘날 교과서로는 쓰일 수 없지만, 전근대 기원의 방식에 대한 것이든 근대 기원의 방식에 대한 것이든 '사전적' 내용의 참조적 이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재래적인 것인지, 외래적인 것인지 혹은 전근대 기원인지, 근대 기원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3편인 농기구편은 도구를 분류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분류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며, 해당 작업에서 사용할 만한 농기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갈이도구(경서기)의 가장 앞부분에 괭이에 대한 서술이 자리잡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식 체계에 조선의 것을 삽입하는 서술 형태를 보인다. 또 콩깻묵 분쇄기나 바퀴식 파종기, 회전식 제초기 등 근대기는 물론 현대기에도 일선 농가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근대적' 농기구의 설명을 앞세우고 또 그에 몰입하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별 쓸모도 없는 근대적인 것에 일선 농촌에서 필요한 재래적인 것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삽입되거나 덧붙여진 내용이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다.

즉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유용한 부분은 이 농기구편인데, 정작 그 서술을 보면 내용 자체로는 크게 또는 새롭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 책이 그간 참고도서로도 널리 활용되지 않은 이유일 듯하다. 그러나 순수한 내용적 참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는 근대적인 것들을 조선에 들여오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여겼던 초기적인 생각, 그 안에서 각축하는 식민지 근대적인 것과 조선 재래의 것 사이의 투쟁을 읽어 내기 위한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들이 농업 분야의 '중등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各司謄錄,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대 일제의 중등 농업학교 운영과 조선일 졸업생의 진로(박지원, 역사교육130, 역사교육연구회, 2014),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안승택, 신구문화사, 2009), 朝鮮農業發達史(小早川九郎, 朝鮮農會, 1944).

필자 안승택(安勝澤)

토종벼

정의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재래 벼품종.

개관 토종벼는 1923년 권업모범장에서 1,843점을 수집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대부분 가뭄·냉해·만식 적응성이 높고, 병해충에는 약한 특성을 보이는 품종이다. 하지만 토종벼보다 수량성이 높고 재해성도 강한 신품종이 보급되면서 토종벼는 급속히 멸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2년경에는 27점이 조사되었다.

내용 토종벼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품종 또는 그 지방의 풍토에 알맞게 적응되어 온 벼품종이다. 토종벼는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업인에 의하여 때때로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된 벼이다. 한국의 토종벼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는 4,000~5,000년 전인 고조선시대로 추정되며, 경기도 고양과 김포에서 기원전 3000~2000년 전 벼들이 출토된 바도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유적에서 출토된 볍씨는 1만 5,000여 년 전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사직설農事直說』(1429)에 조도早稻(올벼), 만도晩稻(늦벼), 산도山稻의 뜻으로 문헌상에 처음 기록되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종자은

행에 보존된 1900년대 초 이전의 토종벼는 약 400가지 품종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토종벼품종은 다다조多多租, 조동지趙同知, 석산조石山租, 모조毛租, 점조粘租, 냉조冷租, 해조海租, 사래벼, 정금조正金租, 중조中租, 용조龍租, 족제비찰, 돼지찰, 녹두벼[綠豆稻], 대궐벼[大闕稻] 등이다.

토종벼의 생육특성은 벼 키(간장)가 50~130㎝로 다양하며 까락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까락의 색도 담녹색, 황백색, 갈색, 홍색, 자색, 검은색도 있다. 잎의 색은 담녹색에서 짙은 녹색이며 잎이 넓고 긴 것, 좁고 짧은 것도 있다. 줄기도 굵은 것과 가는 것, 벼 이삭의 탈립성도 강한 것과 매우 약한 것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1. 까투리찰: 자치나雌雉糯로도 불리며 암꿩(까투리) 깃털 색깔과 모양을 닮은 이삭이 특이하여 붙여진 벼 품종이다. 8월 26일 출수가 되는 만생종이며, 거름을 많이 주지 않아도 벼 생육 및 수량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기 좋다. 밥을 하면 구수한 향과 찰진 정도(찰성)가 적당하다.

2. 가위찰: 육도(밭벼) 찰벼로 까락이 있는 유망종이다. 벼 생육특성이 직립형이며, 8월 6일 출수가 되는 중조생종이다. 벼 키는 90㎝ 정도 자라는 중간 정도이며, 도열병에 약하고 이화명충에 저항성이 있다. 잎의 노화가 빠르며, 탈립이 잘 안 되고, 아밀로스 함량 6%의 찰벼로 분류하고 있다.

3. 단두나: 논벼 메벼로 까락이 있으며, 지엽止葉, flag leaf(제일 윗마디에서 나오는 잎) 각도가 중간 정도이고, 출수가 8월 13일 되는 중생종이다. 벼 키는 90㎝로 중간형이다. 도열병에 약하고 백엽고병에는 강하며 이화명충에 저항성이 있다. 잎 노화 정도가 중간 정도이며, 아밀로스 함량이 18%로 메벼이다.

4. 구천조: 논벼 메벼로 까락이 있으며, 벼의 생장특성은 직립한다는 것이다. 8월 27일 출수가 되는 만생종(늦벼)이며, 벼 키는 93㎝로 중간 정도이다. 도열병 및 이화명충 저항성은 중간 정도이며, 탈립성도 있다.

5. 다다조: 논벼 메벼로 까락이 있으며, 지엽 각도가 중간형이다. 출수기는 8월 27일로 만생종이고, 벼 키는 91㎝이며, 도열병에는 약하지만 백엽고병에 강하며 이화명충에 저항성이 있다. 중간 정도의 잎 노화도를 가지며 탈립성이 중간 정도이다. 아밀로스 함량이 18%로, 메벼 중에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품종이다.

6. 대궐찰: 조선시대 궁궐에 올렸던 찰벼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8월 1일 출수하는 조생종 벼이다. 벼 키가 작고 줄기가 약해 잘 쓰러진다. 까락은 없으며(무망종), 이삭이 울긋불긋하고, 분얼이 적은 소얼성 벼품종으로 수량성이 낮다.

7. 달골찰: 평안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지역의 달골마을[月谷洞]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 13일 출수되는 극만생종이다. 이삭의 길이가 길고 붉은 까락을 가진다. 벼 키가 140㎝로 큰 편이지만 줄기가 튼튼하여 쓰러짐에 강하다.

특징 및 의의 토종벼는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값진 유산이다. 토종벼는 국외로부터 새로운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밑천이 되는 기본자원이다. 토종벼는 한국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자원이다. 한번 소멸하면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유전자원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의 기본 소재이다. 품종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재래종이 보편적으로 재배된 벼이다. 토종벼는 그 지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 특성을 지닌 품종이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적응하고 선택되어 온 것이다. 토종벼는 민족의 얼이 담겨 있어 가장 큰 유산이며, 지구환경보전의 근본으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전국 지역별 토종벼품종 특성 연구 및 토종법씨 보존과 보급(이근이, 농업실용연구총서8, 대산농촌재단, 2017),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박광호(朴光鎬)

토지가옥증명규칙
土地家屋證明規則

정의 1906년 칙령 제65호로 발표된 토지 및 가옥을 매매, 증여, 교환, 전당할 때 관에서 증명을 해 주는 절차를 규정한 법령.

내용 1906년 7월 13일 대한제국 정부는 토지제도, 법

률제도, 조세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권소관법不動産權所關法〉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답, 전, 산림, 천택 기타의 토지, 가옥, 토지의 정착물 등 모든 부동산권을 대한제국에서 관리한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를 전제로 하였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증명 제도를 만들고자 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부동산권소관법〉이 발표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토는 부동산법조사회 회장이었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郎에게 〈부동산권소관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06년 10월 16일 법률 제6호 〈토지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외국인 토지 소유 허가는 인정되지 않았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한제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토는 외국인 토지 소유가 인정되어야만 대한제국 내에서 일본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법률 제6호가 발표된 지 10여 일 후인 1906년 10월 26일에 칙령 제65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공포되었다. 통감부는 한 달여 후인 1906년 11월 16일에 통감부령 제42호 〈토지건물증명규칙〉을 공포하여 대한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토지가옥증명규칙〉을 따르게 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부칙 포함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청이 거래에 관한 증명을 하여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한제국 내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본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간 관행에 의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관청의 인허가 증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적 거래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위조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토지 소유의 합법성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이 한국 내에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한 증명의 효력은 계약자 서로에게만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해 받은 증명은 등기와 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토지조사를 통해 일본의 민법 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906년 시점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과도적 단계로 〈토지가옥증명규칙〉을 만든 것이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토지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경계, 이해관계자 등을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두 단계로 규정되었다. 먼저 통수나 동장이 계약사항과 사실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해 주는 단계였다. 다음은 이러한 인증을 기초로 군수나 부윤이 군리자의 정당성, 부동산 표시의 적합성, 계약의 허위나 강제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증명관리에게는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인 등을 소환하거나 관리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증명관리가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특징 및 의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은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인정한 상태에서 증명 제도를 도입한 법령이었다. 토지 거래 인허가를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토지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일본인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본력을 앞세워 토지 소유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토지가옥증명규칙〉은 대한제국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저지되고 일제의 의도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과 일제의 토지권법 제정과정과 그 지향(최원규,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010), 한국토지용어사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16), 한말근대법령자료집5(국회도서관, 1971), 한말 일제 초 토지소유권 법령의 제정과 의미변화(남기현, 역사연구36, 역사학연구소, 2020), 관보 3598(대한제국, 1906.10.31.).

필자 남기현(南基玄)

토지조사령
土地調査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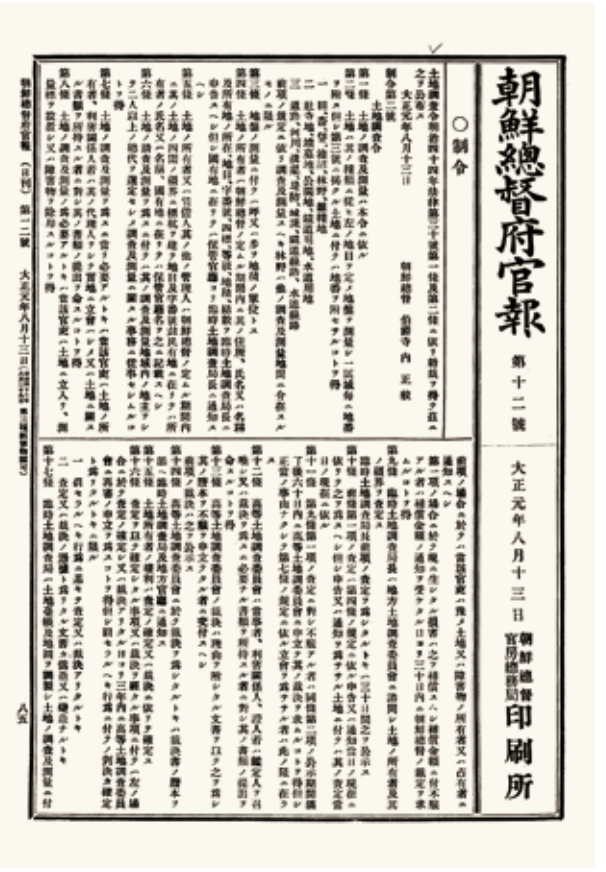
정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1912년 8월 제령制令 제2호로 발표된 법령.

내용 한국을 강제 병합한 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재편하여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3일 법률 제7호로 발표된 〈토지조사법〉을 기반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이 토지 소유권의 사법재판 가능성을 차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내에서도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기존 〈토지조사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912년 2월 28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토지조사령〉의 내용을 담은 '제령안'을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보냈다. 이것은 1912년 8월 7일 천황의 승인을 받았으며, 1912년 8월 13일 총 19개 조항과 부칙 2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다.

〈토지조사령〉은 공포된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조사령〉이 이전 법령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측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측량시간, 측량표 설치 및 측량 장애물 제거권이 명시되었다. 측량 대상지인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는 통지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만약 불복할 경우에는 조선총독에게 재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권 판정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강화하였다. 사정 공시기간을 30일, 재결 신청기간을 60일로 분리하였다. 이와 함께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조건이 구체화되었으며, 재심에 관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국유지 통치 절차가 확정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국유지의 사정일은 통지일로 정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었고, 표항 설치도 의무사항이 되었다.

〈조선부동산증명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정비되었다. 〈토지조사법〉에 규정된 지권 발행 규정이 삭제되어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통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권 제도는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를 판 사람이 지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을 가질 수 있었다. 명의이전이 지체되어 지세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 등기에 준하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지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권 발행 계획을 철회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고 규정 및 신고서 내용 변동, 이동신고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신고 규정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신고 항목의 경우 소유자나 관리인의 이동, 주소·성명·명칭 등의 변경, 분필, 합필, 지목 변경, 국유가 민유로 혹은 민유가 국유로 소유


朝鮮總督府官報 第十二號 大正元年八月十三日 朝鮮總督府印刷所
○制令
土地調查令

토지조사령 | 조선총독부 관보 | 일제강점기 | 국립중앙도서관

가 바뀔 경우 등으로 세부화되었다. 이동 신고를 할 때는 동장이나 이장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실제적인 변동이 토지조사사업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였다. 토지를 신고한 후 소유자로 인정받는 사정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동장과 이장의 인증을 통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작성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한편 〈토지조사법〉과는 달리 〈토지조사령〉에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에 반하더라도 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대해 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토지 소유권 원칙 확립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토지조사법〉이 개정되어 〈토지조사령〉이 발표된 것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원칙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조사령〉이 공포된 1912년 이후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유지 신고와 국유지 통지라는 원칙의 명시, 토지소유권 판정 기구의 체계화, 등기제 실시를 전제로 한 토지조사 방법의 확립 등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실행되는 데 기본 방침으로 작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일제초기 토지조사법규 정비와 토지신고서(최원규, 역사문화연구1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일제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에 대한 식민지 내부기관의 혼선(남기현, 한국근현대사연구92,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한국토지용어사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16),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朝鮮總督府, 1918).

필자 남기현(南基玄)

톱

정의 좁고 긴 쇠판에 이빨을 새겨서 틀에 끼운 다음 나무를 자르거나 켤 때 사용하는 연장.

내용 톱은 농업·건축·공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연장이다. 철제 농구로 기원전 3~2세기(철기시대 초기)에 괭이·호미·낫·도끼·반달칼 등 주조품鑄造品이 등장하고, 기원후 1세기에 따비·쇠날 등 단조품鍛造品이 등장하며, 삼국시대에는 쟁기 보습과 호미·살포 등이 일반화되었다. 반면 톱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른 시기에 개발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톱은 철제 목수연장 중 가장 늦게 개발되었다.

톱이 기능성 연장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자귀·도끼 등을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였다. 톱의 고고학적 발견 사례로는 5~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나주 반남면 신촌리 제9호분 옹관에서 목질흔木質痕이 있는 손잡이와 날이 굽은 톱이 출토된 바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톱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탕개톱이 개발된 이후라 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톱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이다.

탕개톱은 크게 톱양[鋸樑], 톱자루, 동발, 탕개로 구성되어 있다. 톱을 제작하는 과정은 톱양 양쪽에 톱자루의 밑부분인 톱소매를 하나씩 연결하고 톱자루 중간쯤에 동발을 지지한 다음 톱자루 양쪽 맨 위를 탕개로 걸고 죄어 탕개목을 동발에 괴어 놓는다.

톱양은 마모에 강한 철을 담금질하여 만들고, 톱자루는 단단하고 휨에 강한 참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동발은 참나무와 보통나무를 많이 쓰지만, 압축에 강한 대나무를 쓰기도 한다. 탕개줄은 삼, 닥나무껍질, 말총 등을 꼬아서 사용한다.

톱은 쓰임새에 따라 켤톱과 자름톱으로 구분되며, 크기에 따라 대톱·중톱·소톱으로 나뉜다. 켤톱[引鋸]은 목재의 나무결(섬유) 방향으로 켜는 것으로, 톱니의 모양은 70° 정도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날어김을 적게 하여 마모가 크지 않게 한다. 켤 때는 톱니 끝이 끌과 같은 기능을 하여 켜지게 된다.

자름톱[斷鋸]은 목재의 섬유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자르는 톱이다. 톱니의 날어김을 크게 좌우 두 줄로 만든다. 지름이 큰 원목을 자르는 톱은 특히 톱양과 동발 사이를 넓게 만들어 사용한다.

대톱[大鋸]은 주로 원목을 제재할 때 둘이서 밀고 당기면서 사용하며, 톱니를 크게 하여 한 번에 많이 썰 수 있도록 하였다. 중톱[中鋸]은 일반적으로 목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톱이며, 소톱[小鋸]은 톱니가 작고 간격이



톱 | 전체길이70 자루길이17 | 국립민속박물관

좁아 창호나 가구를 짜는 소목장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돌림톱, 실톱, 칼톱, 절톱, 손톱, 세톱 등이 있다. 돌림톱(쥐꼬리톱)은 곡선으로 자르거나 구멍을 내는 데 사용되고, 실톱은 곡선이나 원형 또는 파도형 등 보다 정밀한 세공을 하는 데 쓰였다.

이 밖에 공예용 톱으로 자개를 가늘게 자를 때 사용한 상사톱(상사거도)과 자개 문양을 오려낼 때 사용하기 위해 1910년대 보급된 'ㄷ'자 형태의 실톱대 등은 나전칠공예용이며, 화각華角공예용으로는 쇠뿔을 잘라서 얇은 각지角紙를 만들 때 사용한 곱창톱 등이 있다.

20세기에 들어, 원목을 자르거나 얼음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두톱, 과실수의 가지를 자르는 전정거剪定鋸, 양날에 한쪽에만 손잡이가 달린 일본식 톱 또는 서양식 톱이 도입되어 일반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전통적인 켤톱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특징 및 의의 톱은 늦게 개발된 연장이지만,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중요한 목공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탕개톱이 개발되면서 넓은 판재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목재 가공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100가지 공예도구(온양민속박물관, 2016), 한국의식주생활사전-주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19), 土壤及農具敎科書(朝鮮總督府, 19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민석(權珉錫)

통가리

정의 엮은 발을 이용해 감자나 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겨우내 갈무리하기 위한 저장시설.

내용 감자나 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가을걷이하면 싸리·수숫대·갈대 등을 촘촘히 엮어 만든 발을 이용해 널찍한 울을 만들고, 그 안에 담아 저장한다. 이때 사용하는 울이 바로 통가리이다. 통가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겨울나기의 한 방법으로, 가을에 추수한 제법 많은 양의 감자나 고구마를 갈무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행하여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자나 고구마는 얼면 쉽게 썩고 그러면 양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구마는 밭에서 캐자마자 곧바로 사람의 온기가 있는 방의 머리맡에 늘 두어야 한다는 옛말이 전한다. 고구마는 특히 추위에 약하고 슬쩍 얼어도 쓴맛이 나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감자 역시 고구마와 유사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감자나 고구마는 겨울철에 불기운이 있는 집 안이나 방 안 윗목에 통가리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전통사회에서 감자나 고구마는 반찬으로 이용되는 부식일 뿐만 아니라 쌀·보리·조 등의 주곡이 부족할 때 그 대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고, 그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보관 장소도 접근성이 좋으면서 보온성이 높은 방 안 윗목이나 마루 혹은 부엌 등에 통가리를 주로 설치하였다.

엮은 발로 이용해 울을 설치하려면 발을 세로로 눕혀서 쳐야 한다. 울의 크기는 대략 지름 1~3*m*, 높이 1~2*m* 정도의 크기로 한다. 겨우내 수시로 통가리 안의 감자나 고구마를 꺼내 먹어야 하므로 판자나 쪽문을 내어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의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않고 사람이 통가리 안을 넘나들 수 있는 정도로 치기도 한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식구 수·생산량·가옥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일곱 가마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다.

통가리는 보통 방이나 헛간 혹은 추녀 밑에 잇달아 설치하는데, 바깥에 설치할 경우 특히 겨울철 추위를

고려한 보온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울 바깥 면으로 이엉을 둘러치고 새끼로 잘 동여매서 움처럼 따뜻하게 하고 지붕은 이어서 비를 가릴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전남 보성에서는 통가리를 '발두지'라고 하는데, 이는 발을 이용해서 설치한 뒤주라는 뜻이고, 강원도 도계에서는 '감자울'이라고 하는데, 주로 통가리에 감자를 많이 넣어서 보관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는 '석돈席囤'이라고 적는데, 이는 발, 즉 자리를 이용해 만든 곳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통가리는 그냥 '발'혹은 '울'이라고도 하고, 간혹 '둥가리'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통가리는 주로 감자나 고구마 같은 서류薯類 작물을 가을걷이하여 갈무리하기 위한 임시 저장시설이다. 간혹 벼와 같은 곡식을 저장하는 통가리도 있긴 하나 흔치는 않다. 벼는 주곡으로 그 가치가 높게 인식되기 때문에 통가리보다는 더 안전하고 튼튼한 뒤주에 주로 보관하였다. 통가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은 무엇보다 보온이고, 다음으로 충분한 저장공간의 확보이다. 그래서 가난한 농가에서는 대개 통가리를 방안에 두어, 감자나 고구마의 저장성을 높였고 아울러 접근성도 높였다.



통가리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하지만 이러한 통가리는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전통가옥구조가 개편되고, 농가의 저장시설 확대와 저장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사라져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통가리는 전통사회의 겨울철 보관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시설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호(金在浩)

통일벼

정의 육종학자 허문회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전국에 보급된 벼의 품종명.

개관 6·25전쟁 이후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의지해 오던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수립 과정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식량 중에서도 특히 주곡인 쌀 증산이 절실하였는데, 쌀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국내 수요량을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1960년대 당시 수도 품종은 대부분 자포니카형으로 일본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자포니카형 품종은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이 낮고 장간형이면서 내비성耐肥性이 낮아 농가 수준의 쌀 생산성은 10a당 310*kg* 수준에 불과하였다. 자포니카형의 수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병성과 다수성을 가지면서 도복倒伏에 강한 품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육종학자 허문회는 1964년 서울대학교를 휴직하고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객원연구원으로 육종연구에 참여하였다. 허문회는 *ha*당 최고 8t이 넘는 높은 수량으로 '기적의 벼'라는 찬사를 받았던 IR8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한국 품종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1966년 허문회는 자포니카형 품종 '유카라(일본 홋카이도 장려품종)'와 인디카형 품종 '대만 재래 1호(대만 광지역 적응성 품종)'를 인공교배하여 얻은 1대 잡

종에 IR8을 3원 교배하였는데, 이것이 국제미작연구소에서의 교배번호 66번째, 즉 IR667이다.

IR667은 1968년 중반부터 농촌진흥청의 주도 아래 실용화 연구에 돌입하였다. 1969년 IR667의 6계통(수원 213호, 수원 214호, 수원 215호, 수원 216호, 수원 217호, 수원 218호 등)이 특히 우수함을 인정받았고, 그중 수원 213호에서 분리된 수원 213-1호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1971년 '통일'이라는 품종으로 명명되었다.

내용 통일벼는 인디카형의 IR8의 세포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온 내성이 재래품종보다 약하다. 키가 60㎝ 정도로 짧고 대가 굵어서 도복에 강하며, 이삭은 23㎝ 정도로 일반 품종보다 약간 길고 입수가 100립 이상인 수중형이다. 잎은 비교적 넓고 곧게 뻗어 햇빛을 이용하는 효율이 높다. 비료 반응이 강하여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도 잘 쓰러지지 않지만, 저온에서는 생육이 지연되고 적고赤枯 현상이 심하다.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여 다수확재배에 적합하며 탈립脫粒이 심한 품종 특성이 있다.

통일벼는 인디카 품종의 계열로 형태나 맛도 자포니카보다 인디카에 가까운데,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조리하였을 때 표면에 윤기가 적고 씹었을 때 찰기도 적은 편이다. 한국인이 선호해 온 맛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시장에서 통일벼는 자포니카 품종의 통칭 '일반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특히 자포니카 계열의 '추청'과 비교하여 시장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통일벼는 장려품종으로 결정되어 1971년부터 농가 실증 시험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첫해 550개 단지 2,750㏊에서 10a당 평균 500.9㎏이 수확되었다. 단수가 가장 높은 단지에서는 10a당 713.8㎏(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단지)이 생산되었다. 당시 충북 평균 수확량(342㎏)의 2.1배나 되는 기록을 세웠다. 1972년 당시 2만 2,945개 단지, 18만 7,471㏊, 62만 5,174농가에서 통일벼가 재배되었으며, 1978년 통일계 품종 재배면적은 92만 9,000㏊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75.5%에 달하였다.

1978년부터 3년간 병충해와 냉해 등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농민들의 저항이 커졌다. 이에 더해 1980년을 기점으로 내냉성 다수확 인발계 품종의 중요성 강조되고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양질의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져 다수성 중심에서 품질 향상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991년 통일계 품종을 장려품종에서 제외하면서 보급종 공급이 중단되고 1992년 수매도 중단되어 통일계 품종은 퇴조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통일벼는 인디카 표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발한 품종으로 일본 육종의 전통에서 벗어난 품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통일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가 확산되었는데,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1972년부터 적극적으로 통일벼를 수용하였다. 중부지방에서는 경쟁 품종인 자포니카 계열의 '추청'에 열세를 보였다. 통일벼가 아열대 품종인 인디카 계열이어서 봄과 가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방에서 안착한 측면이 있다. 통일벼의 개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에서 한국형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김태호, 들녘, 2017), 한국의 녹색혁명-벼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김인환, 농촌진흥청, 1978).

필자 엄지범(嚴智凡)

퇴비
堆肥

정의 풀이나 짚, 쓰레기 및 동물의 배설물 등을 쌓아 썩혀 만든 비료.

역사 퇴비堆肥를 두엄이라고도 하며, 대개 각종 짚이나 쓰레기를 외양간에 깔아 가축이 밟게 한 다음 꺼내서 별도의 지역에 쌓아두는데, 이때 소와 말의 똥오줌은 퇴비를 부숙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가축의 우리에 초목을 깔았던 기록은 『운몽수호지진간雲夢睡虎地秦簡』「일서日書」에 등장하지만, 초목이 비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가축이 밟아 만든 두엄은 『제민요술齊民要術』「잡설雜說」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 기록

에 의하면, 타작한 곡물의 짚이나 겨를 마당 한 곳에 쌓아두고 매일 소 다리 아래에 3치[寸] 두께로 펴주고 이튿날 일찍 끌어 모아 다른 장소에 쌓아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겨울이 지나면 소 한 마리가 30수레의 거름을 밟아 만들 수 있으며, 12월에서 1월 사이에 농지로 실어 보내 고르게 깔고 갈이하여 덮어준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남송의 『진부농서陳旉農書』(1149)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초봄에는 외양간에 쌓여있는 지푸라기와 똥오줌을 걷어내야 한다. 또한 봄이 아닐지라도 열흘에 한 번은 청소해야 더러운 냄새와 축축한 것들로 인한 역병과 창질 또는 발굽이 오물에 잠겨 생기는 질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경우 외양간의 두엄[踏糞]을 걷어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비료생산과 함께 가축의 질병예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같은 남송의 『명수집洛水集』(1215)을 보면, 수집한 분양糞壤이 집집마다 산처럼 쌓아두었다는 것으로 볼 때, 강남지역 역시 두엄 생산방식과 재배작물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엄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왕정농서王禎農書』(1313)의 「분양糞壤」편에는 『제민요술』과 동일하게 밤새 소가 밟고 오줌을 누어 거름으로 변한 것을 모아 쌓아두었다가 5월 중에 농지나 상전桑田에 시비했다고 하고, 명대에 『농정전서農政全書』「농사農事·영치상營治上」과 청대의 『수시통고』「공작功作·어음淤蔭」편에도 『제민요술』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당 다섯 수레를 시비하여 6무畝에 비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진부농서』 이외에는 동일한 기록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보면 두엄 생산은 한전지역에서 고유한 사육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듯하다. 두엄의 제조 방식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20세기 70~80년대의 한국 농촌에서도 동일한 생산방식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내용 조선의 외양간두엄[廐肥]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조도앙기早稻秧基」편에 따르면 경상좌도에서는 모내기 때의 풀거름[秧草]으로 부드러운 수양버들가지나 떡갈나무[眞櫟]를 작두로 썰어 오줌이나 외양간 오줌에 적시거나 외양간에 깔아 마소가 밟게 하여 부숙한 비료로 사용하였으며, 추동기에는 경상우도에서 보이듯 참깨대나 늦벼의 볏짚을 썰어 외양간에 넣어 소와 말이 밟아 쌓아 부숙하여 겨울철을 넘긴 다음 사용하였다. 게다가 「종대두소두녹두種大豆小豆菉豆」편에는 7월에 백양白蘘 나무의 연한 가지나 떡갈나무[櫟木]의 가지와 잎 등을 베어 작두로 썰고 구덩이를 파서 모아둔 외양간 오줌으로 적시거나 마구간에서 소, 말이 밟아 거름이 되면 시비하고 잡곡을 파종했다고 하여 두엄이 수전과 한전의 비료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보면 조선의 경우에는 중국과 달리 비료원을 수확한 곡물의 짚과 같이 집이나 그 근처에서 구하지 않고 산에서 채벌하였으며, 이를 한전이나 한도旱稻 모판의 밑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이 비료제조에 적극적이었으며 17세기를 전후하여 비료의 수요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료 상 구비廐肥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15세기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우마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게다가 똥오줌에 재를 섞어 만든 똥재[糞灰]와 오줌재[尿灰]도 볼 수 있다. 특히 오줌재의 경우 외양간의 오줌에 볏짚, 쭉정이를 태운 재를 섞은 것으로 제조방식이 두엄과 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퇴비 | 황헌만

당시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17세기 초 『농가월령農家月令』「삼월절三月節·청명淸明」에는 실제로 가을에 수확한 다북쑥[蓬蘞]과 참깨 껍질[胡麻殼]을 대소변에 적셔 수전에 넣고 조앙종[早秧種]을 파종하는데, 만약 이런 재료가 없으면 새싹이나 버들가지 또는 할미꽃 등을 대신 사용하고, 대소변이 없으면 마구간[馬廐]에 넣어 말이 밟게 하여 꺼내서 쌓고 부숙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퇴비 제조과정에서 똥오줌의 역할은 그 속의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부숙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퇴비를 쌓아 집적하는 이유는 비력이 유출되고 건조하거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흥미로운 점은 18세기 『임원경제지』(1764)와 『해동농서』에도 답분의 방식이 『제민요술』과 완전히 동일한데, 같은 시기에 나온 『천일록』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농가총람農家摠覽·부관附管」에서는 외양간의 볏짚과 잡초가 부숙할 수 있도록 4~5일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라고 하였으며, 특히 가을보리밭의 이랑에 두엄을 덧거름으로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답분의 능력도 말이나 암소보다는 황소가 우수하다고 하여 농가의 변화된 실제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농정신편』에는 마구馬廐의 두엄이 질적인 면에서 우구牛廐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20세기의 『실리농방신편實利農方新編』에는 외양간 두엄을 토양에 시비하면 부드럽고 기름지며, 식물의 뿌리가 땅속에 자유자재로 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1970~1980년대 농촌에서 기계가 소와 말을 대신하기 전까지 우경牛耕이 일반적이었으며, 마구간에서 생산된 두엄은 농가의 가장 중요한 비료 중 하나였다. 퇴비는 일종의 부숙 유기질 비료로서 어박魚粕, 깻묵 같은 유기질 비료와는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유해성분이 적어서 부숙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외양간두엄은 쌓아두고 충분히 부숙하지 않고 사용하면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해균이 그 속에서 생장할 수도 있다. 퇴비를 부숙하는 방법에는 대개 저온법과 고온법이 있는데, 저온법은 질소함량이 높고 영양분 손실이 적으며, 고온법의 경우 유해한 각종 미생물, 기생충과 잡초의 씨 등이 사멸되며 숙성기간도 짧고 냄새도 좋다. 두엄의 효과는 토양의 공극을 만들어 주고 토양속의 산성도를 조절해주며, 흙의 색을 검게 하여 햇볕의 흡수량을 높이고 흙속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준다. 게다가 퇴비 속 질소 등의 영양분이 식물의 전 생육기간에 서서히 방출되며 화학비료에 비해 유실량이 적다. 그리고 퇴비는 비록 속효성이 크지 않지만 토양 미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화학비료는 따라갈 수 없는 보수성保水性과 투수성透水性이 있다.

참고문헌 王禎農書, 齊民要術, 陳旉農書, 千一錄,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 생태학(최덕경, 세창출판사, 2016), 조선시대의 시비기술 연구(민성기, 인문논총2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3),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한국비료협회, 2019).

필자 최덕경(崔德卿)

특산물
特産物

정의 어떤 지역의 특별한 산물.

개관 조선시대 문헌에는 특정 지역의 특별한 산물을 토산이라고 적었다. 토공土貢은 중앙 각사에 상납하는 공물 중 행정관서가 준비하여 바치는 공물인 관비공물官備貢物을 가리키는 말로 특산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19세기 후반의 문헌에는 토산물 혹은 토산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특산물과 특산품은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단어이다. 20세기 이후의 문헌에는 특산물이란 단어가 자주 쓰였다.

내용 조선 초기 특산물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각 도와 군·현별 서술 중 토산 항목에 나온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광주목에는 "토산은 은구어銀口魚이다."라고 적혀 있다. 은구어는 바다빙엇과의 은어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특산물 관련 문헌으로는 『지봉유설芝峯類說』과 『도문대작屠門大嚼』 등이 있다. 허균許筠은 『도문대작』에서 병이지류餠餌之類(떡

종류), 과실지류果實之類(과일 종류), 비주지류飛走之類(새와 짐승 종류), 해수족지류海水族之類(수산물 종류), 소채지류蔬菜之類(채소 종류)의 순서로 직접 먹어 본 식재료와 음식을 지역별로 적었다. 조선 후기의 특산물 관련 문헌으로는 『고사신서攷事新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규합총서閨閤叢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다.

그중 『규합총서』는 '동국팔도 소산小産'이라는 항목에 조선의 특산물을 적고 있다. 먼저 『지봉유설』에 소개된 거창 감, 보은 대추, 밀양 밤, 충주 수박, 회양 잣, 안변 배 등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금속今俗, 즉 당시의 풍속에 팔도의 유명한 소산을 지역 이름을 앞에 적고 식재료, 음식, 술, 그릇, 돗자리, 인두, 나막신, 부채, 연죽, 담배, 나무, 망건, 옷감, 종이 등을 적었다. 『규합총서』에 나오는 19세기 초반 조선 팔도의 특산물은 주로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이다.

대한제국기 신문도 여전히 '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황성신문』 1903년 12월 29일 자 3면에는 경상북도 경주의 감포 토산인 금사석金沙石으로 만든 벼루에 관한 광고가 실렸다. 1922년 6월 평양 조선물산장려회의 창립을 시발로 전국 각지에는 물산장려회, 토산장려회, 자작회, 소비조합 등 다양한 물산장려운동 조직이 등장하였다. 여기에서의 토산은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리킨다.

19세기 말 세계 각 곳의 근대국민국가는 박람회를 열어 자국 특산물을 상품으로 선전하였다. 대한제국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컬럼비아세계박람회(1893년)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1900년), 오사카(1903년)와 도쿄(1907년)에서 열린 유사한 행사에 전시관을 설치하였다. 1907년 소규모로 치러진 경성박람회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의 출발이었다. 특히 조선물산공진회는 지역별로 전시관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서울에 총독부진열관을 설치하여 각 도청에서 공급받은 특산물을 진열하였다. 각 도에서 선정한 특산물에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 망라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특산물 정책은 각 지역의 산물을 전시하고 지역 거주민들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도별로 특산물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유통을 통해 지역 거주민의 경제적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주었다. 외국과의 교류 때는 칠기, 유기, 자기, 부채, 자수품 등을 선물로 제공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담긴 특산물 수출을 꾀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와 기업에서는 '향토적 특산물' 혹은 '향토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산물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각종 행사를 펼쳤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토산은 왕실과 중앙권력이 수집한 지역의 특산물을 가리켰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지역 특산물은 지역 거주민들이 역사성·전통성·정통성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였다. 삭힌 홍어는 20세기 이후 전라남도 흑산도와 영산포의 지역 특산물이었다. 1960~1970년대 전라도 사람들의 서울 이주가 증가하면서 서울에도 삭힌 홍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자리 잡았고, 2000년대 이후 삭힌 홍어회에 돼지수육과 묵힌 배추김치를 곁들인 홍어삼합이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 권력도시(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역, 산처럼, 2020),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초 공물 분정의 실제와 특성(소순규, 한국사연구161, 한국사연구회, 2013), 조선의 미식가들(주영하, 휴머니스트, 2019),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서대숙·김인식·이동언, 누리미디어, 2011).

필자 주영하(周永河)

파

정의 유황 성분과 알리신 등으로 인하여 나는 매운 향을 이용하여 요리 양념으로 이용하는 1~2년생 백합과 채소.

개관 파는 야생 식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원산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서부지역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옛날부터 채소로 이용되어 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파가 도입된 것은 통일신라 시기로 추정한다. 최초의 기록은 1131년(인종

9)『음양회담소陰陽會談所』에 파를 '총蔥'이라 하고 술안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전순의全循義의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신속申涑의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등에 파 재배 기술과 파김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파는 품종, 분얼分蘖 특성, 수확 시기, 상품 크기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보편적으로 수확 시기에 따라 봄파·여름파·가을파, 이용 부위에 따라 줄기파·잎파, 상품의 크기에 따라 실파·중파·대파, 포기당 줄기 수에 따라 외대파·쌍대파·분얼파로 나뉜다. 대파는 내한성과 내서성, 내건성이 비교적 강하여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토양은 토층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충적토나 사양토가 적합하다. 재배되는 품종은 과거에는 석창·은창·금장 등 고정종 품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수량과 상품성이 높은 다양한 교배종 품종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파는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일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기도 하지만 80% 이상 노지재배로 생산된다. 파의 파종 시기는 지역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봄파종 재배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이며 한해寒害 방지를 위하여 비닐터널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묘를 키운다. 파의 발아 적온은 15~25℃이며 발아 최고온도는 33℃, 최저온도는 1~4℃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발아 일수가 길어지며, 온도가 높아지면 발아율이 낮아진다. 파는 암발아暗發芽 종자로 묘상에 흩어뿌림(산파)하거나 육묘 상자에 파종한 후 물을 충분히 준 다음 볏짚, 흑색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 육묘상의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단기간에 발아를 촉진시킨다. 육묘 기간은 노지산파육묘는 50~60일, 상자육묘는 45~50일이다. 육묘 기간 동안 이식할 밭을 30㎝ 이상 깊이갈이한다. 파는 유기물 효과가 크므로 1,000㎡당 완숙된 퇴비 1,500~2,000㎏과 석회 120~180㎏을 고루 살포한 후 밭갈이한다. 정식定植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한다. 외대파는 이랑과 이랑 사이의 거리를 75~85㎝ 정도로 두고 1포기씩 심는 것이 상품성에 가장 좋으나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므로 2~3포기씩 7~12㎝ 간격으로 심는다. 이랑 방향은 남북으로 하면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파의 생육에 좋다.

정식 후 웃거름(NK비료)은 생육을 보아 가면서 주는데, 정식 1~2개월까지 완만하게 자라면 3~4개월부터는 생육이 왕성하여 중량이 3~4배로 증가하므로 웃거름 양(20㎏)을 10%, 20%, 30%, 40% 비율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준다. 파의 상품성을 높이고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3~4회 북주기를 한다. 첫 번째 북주기는 정식 후 30~40일경에 하고 수확 전 30~40일경에 마지막 북주기를 한다. 생육이 불량한 8월까지는 북주기를 얕게 하고 생육이 왕성한 9월 이후에는 잎이 갈라지는 부분까지 덮이도록 깊게 하면 연백부가 길어져 상품성을 높여 준다. 수확은 재배지역별로 다르지만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가 일반적이며, 시장 가격과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수확 시기가 결정된다. 파는 수분함량이 90% 이상으로 저장이 어렵고 신선도가 쉽게 낮아진다. 따라서 출하 기간이 짧고 수확과 동시에 출



파 | 농촌진흥청



파꽃 | 제주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하되는 품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매한다. 파는 잎집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확하고, 크기와 굵기가 일정한 것끼리 잘 골라 껍질을 깨끗이 벗겨 내어 1~2*kg*씩 단을 묶어 출하한다.

특징 및 의의 파는 재배 역사가 오래된 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재배가 쉬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량이 낮고 줄기 수가 많은 재래종인 고정종 품종이 재배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교배종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고정종 품종보다 생육이 왕성하고 토양 적응성이 넓으며 순도가 균일하여 상품성이 높은 교배종 품종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재배법은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단순한 재배 작형에서 하우스재배, 추파재배, 터널재배, 엇파재배, 실파재배 등이 개발되어 연중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파종과 이식 등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에 파종기, 정식기, 배토기 등이 도입되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백합과채소재배기술(이우승 외,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파(농촌진흥청, 2013), 파 재배(농촌진흥청, 2006).

필자 김철우(金哲佑)



무논파종기 | 2012 | 농촌진흥청



밭작물파종기 | 윤진하

파종기
播種機

정의 논이나 밭에 작물의 씨앗을 심는 농기계.

내용 파종기는 기본적으로 파종할 구멍이나 골을 판 후 정확한 양의 씨앗을 종자통에서 꺼내어 넣어주고 흙으로 덮어 눌러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 부가적으로 두둑을 만들고 비닐로 피복하며 물과 비료를 주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파종기는 종자도관 앞에 설치되어 파종할 골을 파는 삽이나 괭이 모양 또는 원판으로 되어 있는 구절기, 종자통에서 씨앗을 빼내어 종자도관으로 보내주는 종자배출장치, 두 개의 복토판이나 복토진압바퀴, 체인 등을 사용하여 종자를 흙으로 덮어주는 복토기와 종자가 잘 발아되도록 여러 형태의 작은 바퀴로 복토된 흙을 눌러주는 진압바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종기의 가장 핵심적인 종자배출장치는 균일한 양을 안정적으로 배출해야 하며, 종자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파종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종자배출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멍롤러식, 홈롤러식, 경사원판식, 컵식, 진공흡인식, 벨트식 등이 사용된다. 롤러식은 롤러의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반구형의 구멍 또는 홈을 파고 롤러가 회전함에 따라 구멍 또는 홈 속에 종자를 담아 아래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멍롤러식은 종자 크기 및 파종량에 따라 롤러를 교환하며, 홈롤러식은 홈의 길이를 조절하여 파종한다. 원판식은 종자통 아래 부분에 구멍이 뚫린 원판을 설치하고 회전시켜 구멍에 담긴 종자를 배출구로 낙하시키는 방식이고, 컵식은 종자통 안

에 종자컵을 달아 회전시켜 종자를 담아 배출시키며, 벨트식은 평벨트에 홈이나 구멍을 내고 종자통 밑으로 회전시켜 종자를 구멍에 담아 배출한다. 진공흡인식은 진공펌프로 진공을 만들어 흡입관에 종자를 빨아들인 후 진공을 해제시켜 종자도관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파종기는 파종방법에 따라 흩어 뿌리는 산파기, 일정한 줄간격에 맞추어 줄로 뿌려주는 조파기, 일정한 줄간격과 포기간격으로 뿌려주는 점파기로 나누어지며, 산파기는 종자통과 배출장치만 있는 것으로 종자통에서 자유낙하되는 종자를 빠르게 회전하는 날개로 종자를 쳐내어 파종하는 기계로 원래 비료살포용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동력원에 따라 인력파종기, 자체 기관으로 주행하는 자주식 파종기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부착파종기로도 분류되며, 콩파종기, 마늘파종기, 감자파종기, 참깨파종기 등과 같이 대상 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특별히 논에 직접 볍씨를 파종하는 농기계를 직파기라고 하는데, 마른 논에 뿌리는 건답직파기와 무논에 뿌리는 담수직파기가 사용된다.

한편, 논이나 밭에 직접 씨앗을 뿌리지 않고 따로 모를 길러 이식하기 위하여 육묘상자, 육묘트레이에 씨앗을 심어주는 육묘파종기가 생산·보급되고 있다. 벼 육묘파종기는 벼육묘상자에 상토를 넣고 물을 뿌려준 다음 파종하고 복토를 해주는 작업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채소육묘파종기는 128구, 200개 등의 셀cell이 있는 육묘 트레이에 상토를 넣어주고 진압하면서 셀의 중앙에 홈을 만들어 파종, 복토한 뒤 관수하는 작업공정을 전부를 일관 자동화한 육묘파종기와 이들 공정 중 파종작업 등을 자동화한 반자동식 육묘파종기가 사용되고 있다. 채소 육묘파종기는 셀마다 종자 하나씩을 정밀 파종해야 하므로 배종장치는 진공흡인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진공흡인식은 진공압력으로 노즐 끝이나 드럼 구멍에 씨앗을 흡착시킨 채로 파종위치로 이동시킨 후 진공압력을 해제하여 씨앗을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정밀 파종이 가능하다.

특징 및 의의 논이나 밭에 씨앗을 심어주는 파종작업은 보통 손으로 씨앗을 흩어 뿌린 후 극쟁이 등으로 긁어 주거나 씨앗을 뿌릴 골을 타고 씨앗을 넣은 다음 흙으로 덮어 주는 식이었다. 파종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씨앗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재배방식도 달라서 기계화하기 어려운 농작업 중 하나로, 파종의 기계화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반에 맥류를 파종하는 동력경운기 및 트랙터용 휴립로타리 파종기가 개발·보급된 후로 다양한 종류의 파종기가 생산·보급되면서 파종작업이 기계화되어 노력 절감은 물론 정밀 파종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농업기계 핸드북(한국농업기계학회, 문운당, 1998), 농업기계학(고학균 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3), 농작업기계학원론(정창주·김경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밭농사 기계(농촌진흥청, 2004), 한국 농기구 도감(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필자 윤진하(尹眞河)

팥

정의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식물.

개관 중국 남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종原種인 새팥과 근연종近緣種인 좀돌팥, 잡초형 팥 등 야생종이 자생한다.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오동유적(청동기 시대)과 백제의 군창지에서 녹두와 함께 출토되었다.

내용 팥은 재배 역사가 오랜 작물로 고농서古農書에 자주 나타난다. 『금양잡록衿陽雜錄』에는 봄갈이팥[春小豆], 그루팥[根小豆], 뫼대기팥[山達伊小豆], 저배부채밭[渚排夫蔡小豆], 먹팥[黑小豆], 올팥[早小豆], 생동팥[升伊應同小豆] 등 7가지 품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재령이팥[再寧小豆], 쉬인날팥[五十日小豆], 용의눈팥[龍眼小豆] 등이 첨가될 뿐이다. 이처럼 재래종 팥은 주로 모양이나 빛깔, 쓰임새, 심는 시기, 여무는 시기, 재배 지역 등을 따서 품종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근래의 육성종에는 아라리, 서나, 흰나래, 해오롬, 홍다, 홍경 등이 있다.



토종팥 | 전남 곡성 | 2019 | 김석기

팥의 뿌리는 콩과 비슷한데 콩보다 뿌리의 끝이 많이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또 뿌리혹의 착생과 질소의 고정력이 콩만 못 하다. 줄기의 형태도 콩과 비슷하지만, 콩보다 더 가늘고 길며 덩굴이 뻗는 경향이 있어 쓰러지기 쉽다. 또 줄기와 잎에는 털이 있으나 콩처럼 거칠지 않고 뭉툭한 것과 뾰족한 것이 있으며, 백색·녹색·담갈색으로 구별된다. 콩처럼 1쌍의 떡잎이 있는데 콩과 달리 지상으로 떡잎이 올라오지 않아 조류의 피해가 거의 없다.

여름에 잎의 겨드랑이에서 긴 꽃자루가 나와 2~3쌍의 노란 꽃이 핀다. 자가수정이 되면 둥글고 긴 꼬투리에 4~8알의 열매가 생긴다. 꼬투리가 익어 마르면 적색·적갈색·흑색·회백색·담황색 등 다양한 빛깔을 띠고, 품종에 따라 크기도 매우 다양하다.

팥은 평균 기온이 15℃ 이상에서 싹이 잘 트고 건강히 자라 보통 중부지역에서는 6월 중하순, 남부지역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파종한다. 일찍 심으면 잘 쓰러져 콩보다 늦게 심어 그루갈이 작물로 많이 활용한다. 일사량의 제한을 덜 받아 다른 작물과 사이짓기하거나 섞어짓기하기도 좋아 작부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다. 단 이어짓기하면 콩처럼 피해가 있어 되도록 돌려짓기하는 게 좋다. 팥은 습해濕害에 약하여 물이 잘 빠지는 땅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두둑을 높여 심어야 한다. 또한 저온에 약하므로 산간 등지에서는 냉해 등의 저온 장해에 주의해야 한다. 콩보다는 약하지만,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는 팥은 비옥한 땅에서는 드물게 심어야 쓰러지지 않는다. 잡초의 방제는 인력이나 사이갈이 등으로 해결하는데 간혹 제초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과다한 싹을 솎으면서 잡초도 제거하거나 본잎이 2~7장 정도로 아직 꽃이 피기 전에 사이갈이를 통해 끝마친다. 수확은 팥의 꼬투리가 70~80% 정도 황변 또는 갈변하면서 마르면 한꺼번에 밑동을 꺾어 거둔다. 잎이 떨어지지 않다가 잎과 꼬투리의 색이 변하면 성숙한 것으로, 대체로 10월 상중순 무렵이다.

특징 및 의의 농가의 고령화와 저렴한 중국산 수입 팥에 밀려 국산 팥은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생산성을 위해 장려품종의 파종, 비닐 피복 및 제초제와 수확용 농기계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의 팥소를 공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농가와 계약재배한 팥을 이용하는 사례 등도 있다.

참고문헌 토종곡식(백승우·김석기, 들녘, 2012),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팥(안완식, 이유, 2009), 농촌진흥청(rda.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석기(金石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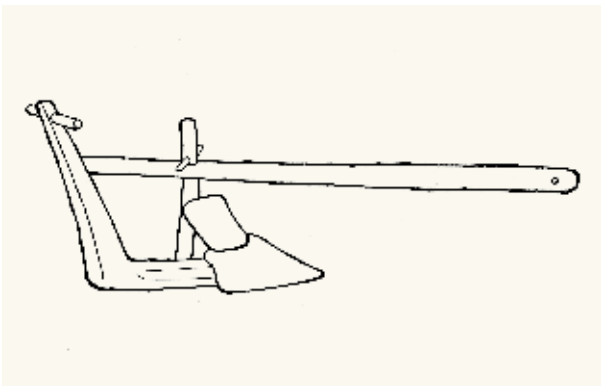
평보

정의 가을철 이랑갈이에 사용하는 쟁기.

내용 중국어로 평보를 '당토', 쟁기 바닥을 '딩판'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 보습과 볏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평보는 중국에서 들여온 쟁기로 여겨진다. '당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딩판'은 '저판底板', 즉 쟁기받침을 가리킨다. 평보의 모습은 무리처럼 쟁기의 바닥에 대는 딩판犁底의 길이가 60㎝로 길고 두꺼운 편이라 소 두 마리로 견인하며 논에서만 사용한다.

물을 가둔 논에서 가을갈이[秋耕] 때 주로 사용하며 이랑갈이를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같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 때 보통의 쟁기는 두 번 갈아 두 이랑을 만들지만, 평보는 3자쯤 되는 너비의 땅을 중심부에 두둑이 되게 남겨놓고 나머지 좌우로 각각 한 번씩 갈아 흙을 두둑에 얹어 이랑을 만드는 점에서 일반 쟁기와 다르다. 이듬해 춘경春耕 때는 이랑을 째어 좌우편의 고랑에 흙을 메운다.

평보는 평안북도 해안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광복 후에는 급격히 사라졌다. 그 이유는 개량된 호리가 널리 보급되고, 보습 구하기나 다루기가 힘들어 노동력에 비해 능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호석은 평안도의 평보나 무리가 인도의 쟁기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서북부지방과 몽골까지 전래되었다는 오드리쿠트HAUDRICOURT(1955)의 견해와 이들 쟁기가 아프가니스탄 쟁기와 유사한 점을 들어 인도 쟁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평보 | 문화유산6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 정시경

특징 및 의의 평보는 무리와 함께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며, 평보의 중국어 표기 방법이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에서 농기구도 중요한 물품이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기경용 재래농기구의 유형과 그 분포(정시경, 문화유산6,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 우리나라 쟁기의 발달과 역학적 특성(민족문화6, 1993), 한중농기구 비교연구-따비에서 쟁기까지(정연학, 민속원, 2003).

필자 정연학(鄭然鶴)

포대
包袋

정의 베나 가죽, 종이 따위로 만들어서 이동과 보관용으로 쓰이는 자루.

내용 농민들은 포대를 다용도와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농민들은 포대를 보관, 판매, 재활용 등 필요에 따라서 요긴하게 사용함으로써 활용도를 상당히 높인다. 포대는 가정에서 필요한 쌀과 설탕, 밀가루, 옥수숫가루, 소금, 사료, 비료, 퇴비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한다. 포대 겉에는 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적는다. 겉에 적힌 상품명, 용도, 성분, 사용방법, 제조사 등의 상세한 정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농민들의 상품 선택에 편리를 제공한다.

농가에서는 주로 포대를 수확한 농작물 등을 담아서 이동하고 보관하는 자루로 활용한다. 곡물 이동과 보관은 포대의 궁극적인 용도이다. 곡식 등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여 건조한 후에도 포대에 넣어서 일정 기간 저장한다. 예를 들면 벼는 가을에 수확하고 바닥에 널어서 3~4일 정도 바람과 햇빛에 말린 후에 포대에 담아서 보관한다. 농가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벼를 꺼내서 도정한다.

이 외에 포대는 퇴비와 비료 등을 담는 용도로도 쓰인다. 때로는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서 버리기도 한다. 농민들은 집 안팎에서, 집에서 논밭으로 또는 논밭에서 집 안으로 농작물을 들일 때도 이동 수단으로 포대를 사용한다.

곡식은 오쟁이와 가마니 등 짚으로 만든 용구에 주로 저장하였다. 가마니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채산성이 낮은 짚 제품으로 이제 짜지 않는다. 농가에서 보관·저장 용구로써 가마니 사용은 현저히 줄었다. 지금은 가마니 등을 대신하여 다양한 재질과 종류 그리고 여러 크기의 포대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종이, 화학섬유나 합성수지로 된 자루가 대표적인 포대이다. 농민들은 포대를 부대負袋나 마대麻袋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포대는 일상생활에서 자루와 내용물, 재질 등과 합성하여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밀가루포대, 소금포대, 설탕포대, 푸대자루, 마대자루, 종이푸대, 비닐푸대 등이 대표적인 명칭이다.

조선시대의 대袋는 자루 크기와 주머니 크기였으며 포장용으로도 쓰였다. 자루 크기의 대는 포대布袋로서 비단 30근, 흙 7~8두斗, 들깨 20여 두, 다량의 삼을 담았다. 주머니 크기의 대에는 활과 염주, 향 등의 소품을 담았다. 포장용 대로는 불상을 포장하기도 하였다. 영조의 가례 시에 도감은 의주儀註 문서를 담을 종이포대[紙袋] 제작에 후유지 1장이 소요된다고 적고 있다.

포대는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다. 조선정미주식회사가 판매한 쌀 포대는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를 인쇄하였다. 상단에는 '조선총독부검사朝鮮總督府檢査', 하단에는 '정미삼십천입正米三十瓩入' 및 '조선정미주식회사朝鮮精米株式會社'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이는 조선정미주식회사가 쌀을 생산하고 조선총독부가 검사한 백미 30*kg*을 담아서 판매한 포대였음을 말한다.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천天'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좌우에는 각각 '백미白米'와 '정찬精撰'이라는 녹색 글씨가 적혀 있다.

이후에도 포대는 각종 물자를 담아서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쌀과 밀가루, 소금, 비료 등의 공급과 보관에 포대를 많이 사용하였다. 밀가루는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수입하였다. 비료는 식량증산 목적으로 비닐포대에 담아서 공급하였다. 이들 생산과 공급은 당시 식량부족과 식량증산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포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쌀은 지역마다 자신의 고장과 연관 있는 상품명을 지어 형형색색 디자인한 포대에 담아 판매한다. 포대에는 지역 대표 농산물로서 쌀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밀가루포대 | 가로40 세로64 | 국립민속박물관



건조시킨 벼를 쌀포대에 담기 | 경기 시흥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일반인들은 포대 이외에 마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마대는 황마 등 천연 소재 섬유로 만들어서 붙여진 명칭인 듯하다. 이는 재질에 따라서 붙은 명칭이다. 최근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포대도 마대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의 포대는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서 창고의 수용력을 늘리는 장점이 있다.

포대의 저장량과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가마는 일정한 기준의 양이 정해져 있지만, 포대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포대는 대체로 가마니보다 적은 양을 담지만 공공비축용 벼 800*kg*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도 있다.

포대는 재질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봉하는 작업을

다르게 한다. 종이포대는 물건을 담은 후에 기계로 입 주변을 실로 박음질하여 포장한다. 마대는 입 끝을 약간 접어서 재봉한 뒤에 그 안에 실을 넣는다. 물건을 채우고 실을 잡아당겨서 입을 아물린 뒤에 묶어서 마무리한다. 비닐포대는 열을 가하여 압착한다.

특징 및 의의 포대는 보관, 운반, 재활용 등의 용도로 생활 전반에서 넓게 사용된다. 농사 현장에서 포대는 다양하면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농업 생활용품이다. 포대에 담는 내용물은 여러 종류이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을 수확 후에 보관하였고, 농사짓기에 필요한 비료와 퇴비 등을 담아서 운반하였다. 밀가루와 비료 포대는 한때 어려웠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여 준다. 최근에는 쌀 포대에 디자인과 문구를 넣어 생산지역의 이미지와 인지도,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현재는 농업용 이외에 산업용으로도 여러 종류와 크기의 포대를 생산·판매하고 있어서 다양화와 보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참고문헌 식품과학기술대사전(한국식품과학회, 광일문화사, 2008),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포도
葡萄

정의 포도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나무와 그 열매.

내용 포도를 식용으로 먹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서 확인되며, 원 황제가 고려 충렬왕에게 포도주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실주가 아니라 과실로 먹었다는 내용은 『태조실록太祖實錄』에 나오는데, 이성계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수정포도水精葡萄(청포도)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 이후로도 포도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도는 모두 야생종·재래종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근대식 포도재배는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1년 안성 천주교



포도 | 인천 옹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회의 초대 신부인 프랑스인 안토니오 콤벨트가 미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 모국에서 가져온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과수로 본격적인 재배는 1906년 서울 뚝섬의 원예모범장 설립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1909년 서울 백동수도원(현 혜화동성당)에서도 포도밭을 조성하여 미사용 포도주를 담갔다.

포도나무의 수명은 50년가량이지만, 과수용 포도는 20년이 지나면 그 수명이 다해 다시 심어야 한다. 묘목은 노지 묘목과 포트pot 묘목이 있다. 노지 묘목은 밭에서 키운 묘목을 뽑아 뿌리의 흙을 털어내 심고, 포트 묘목은 작은 화분에 담긴 뿌리와 흙을 그대로 옮겨 심는 방법이다. 가격은 포트 묘목이 더 비싸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활착률이 더 좋다.

호랑하늘소는 어린 포도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랑하늘소가 알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년이 된 묘목은 추운 봄에 나무껍질을 벗긴다. 호랑하늘소가 포도눈 옆에 알을 낳으며 알이 부화하여 포도눈을 갉아 먹는데, 이렇게 되면 순이 나오지 않아 빈 포도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3월에는 가지에서 상태가 좋은 눈 2개만 남기고 자른다. 4월 중순부터는 포도나무의 순이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순을 묶어 주어야 바람에 가지가 꺾이지 않는다. 5월에 꽃이 피고 6월 초가 되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알이 작기 때문에 열

매를 솎아 준다. 열매를 솎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에어건air-gun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지치기, 열매솎기는 모두 포도열매의 알을 크게 만들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6월 말이 되면 유해한 벌레의 접근을 막고 농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포도송이에 종이봉지를 씌운다.

우리나라 포도의 주산지는 경상북도 김천과 영천, 충청북도 영동과 옥천, 경기도 안성과 화성 등이며,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포도는 제53호 영천포도, 제60호 영동포도, 제62호 김천포도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포도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는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명칭을 송산포도휴게소, 충청남도 천안시는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이름을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캠밸 얼리를 주로 재배하다보니 출하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포도철에 가격을 높게 받지 못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 등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품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02년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이후 수입만 하던 포도를 2005년 미국 LA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포도의 식용에 대해서는 문헌에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의 포도는 경작 작물이 아닌 야생에서 채집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와는 다르다. 근대식 포도는 천주교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시작하였는데, 과실 유통보다는 천주교 미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담그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캠밸 얼리를 주로 재배하였지만 지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품종을 도입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02년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후 수입만 하던 포도를 2005년 미국 LA에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10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山林經濟, 朝鮮王朝實錄, 농업대사전(도서출판 농원, 1999), 한끗익어느러진동산장포도(동아일보, 1933.9.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필자 편성철(片成哲)

품앗이

정의 품을 '앗이'하는 한국 고유의 상부상조 노동 관행.

내용 품앗이는 품을 '팔이'하는 품팔이 노동 관행과 전적으로 다르다. 경제적으로는 품을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상호 등가적 노동 교환행위이며, 사회적으로는 품을 앗이하는 공동체적 상부상조의 미풍으로 인정된다. 품앗이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품앗이, 소를 중심으로 한 소겨리, 제주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수눌음, 길쌈에서의 길쌈 두레 따위를 망라한다. 품앗이, 소겨리, 수눌음, 길쌈 두레는 각각 다른 노동형태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들 노동 관행은 농업지대에 따라서 분포하였다. 논농사와 밭농사 지대의 구획은 자연스럽게 공동노동 자체의 지역적 분화를 의미하였다. 중부 이남 지방에 강고한 조직체인 두레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지역은 두레보다는 품앗이 류 조직으로 묶이고 있었다. 품앗이는 전국에 고루 분포된 노동 관행이나 밭농사 지대에 더욱 요긴한 방식이었다.

품앗이는 품을 주고받는 노동 관행이다. '품'은 노동력을 뜻하며 '앗이'는 갚는 것을 뜻하여 문자 그대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각 지역 사정과 작업의 성격,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다. 남쪽에서는 대개 품앗이라고 불렀지만, 함경도에서는 농사일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여 '돌레' 또는 '돌개' '품들이'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품바꿈'이란 말도 쓰였다.

품앗이는 가족 노동이 모든 노동방식의 기초인 소농경영의 현실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타인과의 노동력 차용 및 교환으로 해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필요한 노동력을 타인에게서 빌려다 쓰고 이에 대한 답례로서 응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력 교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소농경영의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풍습이었고 상부상조하는 생활 기풍으로 더욱 권장되었다.

품앗이는 공동체성이 강한 데서 출발하였다. 즉 품앗이를 단순하게 품의 교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품앗이는 노력의 교환보다 상호부조에 주어진 규율이며, 예禮라고 이해해야 한다. 부조扶助되면 '품갚음'을 하여야 할 예절을 제도화한 것이 품앗이이다. 뒤에 남지 않는 노력 부조 등은 제도화되지 않으면 친한 사이의 상례로서 예를 잃는 경우가 많고, 그 여러 가지 불유쾌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경험해 왔을 것이다. 품앗이도 마을공동체의 공동사회적인 생활 중에 성장한 것으로, 이를 개인주의적이고 타산적인 사고에서 해석하여 단순한 노력 교환의 제도로만 보는 것은 분명히 바른 관찰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문화가 와해하면서 두레가 1차로 사라졌고 품앗이조차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품앗이가 공동체적 속성이 강하다는 말은 타당하다. 두레건 품앗이건 그 본래 조직은 '자작농과 소작농'에 기초하기 때문에 마을 내 경영면적이 대체로 균등할 때 가능하다. 두레보다 매우 느슨한 조직이라고는 하나 품앗이 내에도 이미 일정한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시대에 따라 품앗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품앗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공조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이익추구적인 면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품앗이는 부농富農보다 중농中農 및 그 이하의 계층에게 긴요한 노동력 창출 방식이었다. 대농大農은 품앗이 참여도가 낮은 대신 노동력을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종래와 같이 농민 당사자의 직접적인 노동교환이 아닌 머슴이나 구입 노동자에 의한 대리노동의 제공이 강화되면서 품앗이의 교환 주체가 소농과 부농의 머슴, 혹은 고용농 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품팔이[日傭]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특히 중농 이상에서 품앗이 대신에 날품 구입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품앗이는 소농에게는 매우 긴요한 노동 형태이지만 중농 이상 특히 대농에게는 중요성을 차츰 잃게 되었다. 품앗이 자체가 분화되면서 공동체적 강제에서 벗어났고 이익추구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임노동에 의한 품팔이 고용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품앗이도 제자리를 잃어 갔다.

품앗이는 모든 종류의 농경 작업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농사에 쓰이는 품앗이와 농사일 외에 쓰이는 품앗이로 가를 수 있다. 품앗이 작업대상 범위는 매우 넓다. 파종, 밭갈이, 논갈이, 모내기, 가래질, 논매기, 밭매기, 퇴비 하기, 피사리, 보리타작, 추수하기와 같은 농사일 품앗이부터 지붕 잇기, 집짓기와 수리, 나무하기와 같은 생활상의 품앗이 그리고 염전의 소금일, 제방 쌓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활용된다. 어떤 노동교환 방식보다도 작업대상과 계절, 지대의 제약이 적음을 뜻한다. 대체로 시간을 다투는 봄철 씨붙임과 모내기 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김매기에도 두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으며, 풀베기까지도 품앗이하였다. 추수와 탈곡 때는 그때 가서 품앗이를 다시 조직하였다.

구성인원은 적으면 2인부터 3인, 4인, 5인, 10인 이상 혹은 20인 이상에 이른다. 4~5인 정도로 친소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함경도 같은 곳에서는 친척 또는 이웃의 여러 집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망라하여 품앗이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밭농사 지대보다 논농사 지대의 숫자가 다소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논농사 지대가 밭농사 지대보다 많은 숫자의 품앗이 인원을 요구하였음은 모내기에서 보이듯 일정한 기일 내 일시에 모를 내야 한다는 작업상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품앗이는 자연마을 내에서 행해지며 친소관계, 동족관계, 계층관계, 지역적 인접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품앗이 대상에서 상대방과 노동력을 1:1로 교환하는 관행은 마을주민의 관습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16~17세의 아이들은 바로 '진세턱(지역에 따라 진서턱, 진쇠턱, 꽁배술, 손더듬이라고도 부른다)' 같은 의식을 거쳐서 온당한 노동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품앗이뿐만 아니라 두레 집단에 참여하는 첫 관문이기도 하다. 두레의 가입식인 진세턱에서 비로소 '장정 품앗이'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은 두레와 품앗이의 자격 부여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특징 및 의의 품앗이와 두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 간에 발전해 왔다. 두레와 품앗이는 나름의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며 규모나 조직 강도, 지속성, 성원 자격, 일감 등에서 차이가 난다. 양자의 차이는 도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레와 품앗이 비교표

두레	품앗이
대규모	소규모
강제적(동두레)	임의적(개방적)
공동노동조직	노동교환조직
영속적	일시적
성원 자격이 엄하다.	융통성이 있다.
고정적인 일에 종사한다.	수시로 행한다.
주로 미작지대에 발달	전국적으로 성행
작업지 전체를 하나의 경영지로 간주	개인의 경영지가 대상이다.

두레는 전체적이고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나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의 개별 노동에서 노력의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계약적 형태이다. 두레와 같이 공동체적 연대관념이 뒷받침되는 전체적·의무적 성격과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사회경제적 토대도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밭농사에 적합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보습을 이용한 밭갈이 작업단위가 3~6명이 요구되는 한전 경작지대에서 외부노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개별적 소가족들이 노동력 부족 또는 기본생산 도구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품앗이를 발생시켰다고 본다.

품앗이는 농업노동뿐만 아니라 건축 노동에까지 쓰일 정도로 소농경영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쓰였기에 품앗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현대의 '과외 품앗이'같은 지극히 현대적 생활에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장기지속적인 풍습이다.

참고문헌 과거 우리나라 공동노동의 형태와 그 특성(조대일,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3),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김주희, 집문당, 1991).

필자 주강현(朱剛玄)

풍구

정의 공기의 기류를 이용하여 곡물에 섞인 쭉정이, 겨, 먼지 등을 선별하는 고르기 연장.

내용 풍구는 지방에 따라 풍차·풍로·풀무·품구라고 부르며 문헌에는 양선颺扇(『북학의北學議』『과농소초課農小抄』), 선차扇車(『방언류석』『물보物譜』), 풍선차風扇車(『농정촬요農政撮要』) 등으로 올라 있기도 하다.

고르기 전래농구로 부뚜나 키를 사용하였으나 효율성이 떨어졌고 18세기 이후 실학자들에 의해 중국에서 사용되는, 바람과 곡물의 비중을 이용한 고르기 기계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과농소초』에서 연암 박지원은 안의현감安義縣監으로 재직 시 중국의 양선을 모방하여 농민들에게 사용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풍구 중에는 손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발로 밟아서 부채가 돌아가게 한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이후 농가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풍구는 바람개비와 함께 일본에서 도입된 개량 농구이다. 1908년경부터 도급당기稻扱唐箕 등 일본식 농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과 1909년 통감부에서 배부한 개량 농구 중에서 풍구가 확인되며, 1916년과 1917년에는 풍구가 각각 1만 5,315대와 1만 1,143대 보급되었다는 기록 등을 통하여 볼 때 1900년대에 최초 도입된 이후 1910년대에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가로116 세로65 높이99



풍구 | 국립민속박물관

풍구의 구조는 송풍장치, 곡물투입부[주입구注入口], 투입량 조절장치, 곡물배출구, 검불 배출구로 구성된다. 바람개비의 날개는 4장이 보통이고, 얇은 나무판자로 만들었다. 회전지름이 50~100㎝ 되는 일종의 송풍기(바람개비)를 설치하고 바람에 배출되는 입구에 곡물을 낙하시켜 협잡물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사용방법은 한 사람이 사각 깔때기 모양의 곡물투입부에 곡물은 투입하여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한 사람이 손잡이를 돌려 송풍기의 바람 작용을 일으켜서 쭉정이·겨·먼지 등이 검불배출구로 분리되며 정선된 낟알이 곡물배출구로 떨어지게 된다.

재료는 송판이나 합판 등 목재를 사용하였고 크기는 높이 100~140㎝, 길이 100~200㎝, 너비 50~80㎝이다. 풍구는 수동식으로 돌리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근년에는 전동기를 달아 돌리기도 하였고, 1990년대에는 바람개비를 보다 능률적으로 개량하여 크기를 작게 만든 철제 풍구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었다.

특징 및 의의 풍구는 송풍기로 공기의 기류를 이용하여 곡물을 선별한 근대적인 수동식 기계로, 부뚜와 키 등 재래식 고르기 연장보다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현대에 들어서는 동력기를 이용하거나 철제풍구 등 기능·형태 면에서 개량하여 최근까지 사용한 고르기 연장이다.

참고문헌 농업소사전(농업과학위원회, 국립농업출판사, 1960), 조선농업발달사(조선농회, 1944), 조선농촌문제사전(인정식, 신학사, 1948), 한국의 농기구 도감(박호석 외,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민석(權珉錫)

피

정의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 재배식물.

개관 피稷, *chinochloa crus-galli var. frumentacea ROXB.WIGHT*의 기원은 중국의 동부지방이 유력하며, 인도·중국·한국·일본



돌피 | 농촌진흥청

에서는 고대부터 재배하여 왔다. 일본에는 한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고 하며, 그 연대는 벼보다도 빠르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피 재배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와 청동기시대 유적인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면 오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에서도 피가 출토되었다. 우리나라는 1965년에 1,000*ha* 정도가 재배되었으나 1974년에 31*ha*로 줄었으며, 현재에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내용 키는 1~2*m* 내외이며 직립이다. 재배형 피는 잎의 폭이 2~3㎝로 잡초형의 피보다 넓고 길이는 30~50㎝이다. 꽃은 8~9월에 피고, 작은 이삭은 1개의 꽃이 피는데 길이 3.5~4㎜로 까락은 있거나 없다. 수술은 3개이고 암술은 1개이다. 7~10개의 분얼이 생긴다. 재배형 피의 원형인 좀돌피*E. crusgalli*에는 돌피[稗], 물피[水稗], 강피[姜稷]가 있다. 이중 돌피는 반건조한 습지인 밭에서 자라고 대체로 까락이 없는 피이며, 물피는 물이 약간 있는 도랑 등에서 자란다. 물피는 긴 까락이 성숙에 가까우면 검은 자주색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또 강피E. orizicola는 벼와 생태형이 거의 비슷하여 생육 초기에는 구별이 어렵다. 하지만 벼가 출수한 후에 논 위에 길게 출수하는 피가 대부분 강피라고 보면 되며, '논피'라고도 한다.

육성종은 없고 재래종이 논밭에서 재배된다. 생육이 왕성하며 강건하여 불량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척박지에서도 잘 된다. 생육 일수도 100~120일로 짧아서 과거에는 구황작물로 많이 재배하였다. 파종은 추운 지방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에 산파하며, 따뜻

한 지방에서는 병충해를 피하기 위하여 좀 더 늦어진다. 성숙되면 곡립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80% 정도 성숙하였을 때 수확하여 탈곡한다.

주성분은 당질이지만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은 쌀보다 높다. 피는 보통 가볍게 쪄서 절구로 정백한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으며 영양분은 쌀·보리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소화율이 낮다. 쌀과 함께 밥을 짓거나 가루로 만들어 떡이나 엿을 만들어 먹는다. 또한 된장이나 소주의 원료로도 이용한다. 피의 질은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은 편이어서 일본에서는 말의 사료로 이용한다. 근래에는 먹기보다는 새의 모이나 가축 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한다. 한방에서는 종자를 강장약이나 지혈제로 쓰이기도 하였다. 어린 식물과 뿌리도 상처와 지혈에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재배 역사가 오랜 작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식량 작물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1,000*ha* 정도가 재배되었으나 1974년에 31*ha*로 줄고, 2008년만 해도 제주도의 일부에서 말 먹이용으로 재배하였으나 현재에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새 모이용으로 척박지 등에서 재배할 가치가 있는 작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식용작물의 기원과 발달(이홍석 박사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서원, 1998), 재배학원론(조재영 외, 향문사, 19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안완식, 이유, 2009).

필자 안완식(安完植)

하동 전통 차농업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의 자연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해온 차 재배와 가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체계.

개관 경상남도 남서쪽에 위치한 하동군은 1,200년의 역사를 지닌 차 재배기술과 가내수공업 형태의 차 가공기술을 전승해오고 있다. 산간 경사지의 나무와 바위를 벗 삼아 생장한 차나무는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고, 봄부터 여름까지 품질 좋은 찻잎을 주민들에게 선사해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조에 따르면 828년(흥덕왕 3) 김대렴金大廉이 당나라에서 차나무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었고, 그 후 쌍계사의 승려인 진감선사가 차나무를 번식시켰다고 한다.

하동군 화개면의 자연환경은 차나무 생장에 적합해서 고려시대 이래 유명한 차 산지로 명성을 유지해왔으며, 19세기 후반까지 하동군은 차를 국가에 공납하였다. 고려 중기 문신인 이규보(1168~1241)가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13권에 이와 관련된 시가 전한다. 이 시에는 "화개에서 차 따던 일 논하네 /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까지도 징발하였네 /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 머나먼 서울에 등짐 져 날랐네 / 이는 백성의 애끊는 고혈이니 /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바야흐로 이르렀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시를 통해 화개지역이 고려시대의 중요한 차생산지였으며, 당시에는 차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험한 산중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채취하여 공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차 공납으로 인해 이 지역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이 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규보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산림과 들판을 불살라 차의 공납을 금지한다면 / 남녘 백성들 편히 쉼이 이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덧붙여 공납 제도의 폐단을 강하게 지적한다.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하동의 토산물로 차가 꾸준히 등장한다.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하동현의 토산으로 '작설다雀舌茶'가 기록되어 있고,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1권에는 하동현의 토산으로 '차茶', 18세기에 편찬된 『하동부읍지河東府邑誌』에는 하동부의 토산으로 '차茶'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조선시대 지리지에 지속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동 차가 지역의 토산물로 국가로부터 주목받았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하동군 화개면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사양토 80%, 양토 19.7%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수가 좋고 산소를 많이 함유한



하동 전통 차농업 | 경남 하동 | 2019 | 농림축산식품부



하동 전통 차농업 | 경남 하동 | 2019 | 정명철

다공성 토질이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직근성의 차나무 생육환경에 적합하다. 기후환경 또한 차나무 생육에 적합하다. 화개면은 채다採茶 시기인 봄철의 밤낮 일교차가 15.4℃로 크고, 섬진강과 화개천의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안개일수가 길다. 화개천을 따라 만들어지는 물안개는 낮동안 대지의 열을 식혀주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해준다. 차나무의 새싹이 형성되는 2~4월에는 연강우량의 20%인 217㎜가 내리고, 수분 증발이 많은 7~9월에는 연 강우량의 30%인 428㎜가 집중되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준다.

하동군의 차 재배 농가는 2014년 기준으로 1,956가구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 1,014㏊에서 1,974t의 생엽을 생산하여 2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는 생엽 생산량으로는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중에서 화개면은 전체농가 951가구의 84%인 801농가가 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734㎏의 차를 생산하여 하동군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종가宗家이자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동의 차농업은 유구한 역사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의 차나무 재배기술과 차 가공기술을 전승해오고 있다. 산비탈에 형성된 야생에 가까운 차밭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지역주민들은 자연과 공생하는 전통농법을 이행하고 있다. 하동 전통 차농업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내용 하동군 화개면의 차밭은 고도에 따라서 조성 시기와 조성 방법이 다르다. 고도가 낮고 평탄한 차밭은 논이나 밭으로 이용하던 것을 차밭으로 조성되었고, 산비탈의 차밭은 원래 야생종 차나무 자연적으로 종자번식하여 군락을 이루었던 곳으로, 채취 위주로 차를 생산하다가 점차 재배·관리하는 차밭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의 대중화와 함께 차밭의 규모화가 추진되고 채취에서 재배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화개면의 차밭은 화개천을 중심으로 저지대에는 평지형 차밭이 분포하고, 동서로 마주하고 있는 협곡의 표고 300~400m 급경사지에 집중적으로 차밭이 분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차나무는 재배 특성상 배수가 잘되는 곳에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화개면의 차밭은 주로 산비탈에 분포하여 배수가 용이하고 차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농업활동이 불리한 급경사지인 탓에 농기계나 비료와 같은 농자재 투입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대부분 친환경농법과 전통농법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 불리한 자연조건을 역으로 이용하여 농가에서는 인위적인 차밭 관리를 최소화한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의 농부들은 차나무 식재에서 수확까지 친환경농업을 고집한다. 차밭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확이 끝난 뒤에는 차나무 전지·전정으로 생긴 부산물을 차밭에 그대로 두어 잡초를 방지하고 퇴비 역할을 하게 한다. 차 농가의 보편적인 차밭 관리는 정지

와 갱신, 비료시비, 잡초방제, 토양관리, 월동피복 등이며 수작업 채다와 풀 비배를 통한 전통농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차밭이 427*ha*에 이르는데, 이는 화개면 차밭의 74.2%를 차지한다.

하동 지역의 제다법製茶法은 무쇠가마솥 덖음 방식으로, 250~350℃로 달군 솥에 찻잎을 넣고 타거나 설익지 않도록 균일하게 덖어내는 것이 비법이다. 이러한 제다기술은 가족 구성원 간에 대를 이어온 세대 간 전수, 쌍계사의 승려들로부터의 제다법 전수, 고문헌의 제다법을 통한 전수를 등을 통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수제덖음 제다법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정립한 초의선사의『동다송東茶頌』에 기록된 제다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통 제다법으로 평가된다. 수제덖음차 제다 과정은 선별-덖기-냉각-유념-건조-끝덖기-선별 및 포장 순서로 진행되며, 제조 전 과정에 사람의 손이 닿아 정성과 예로써 만들어진다.

민간에서는 '잭살차'로 불리는 발효차를 만들어 마셨다. 주로 가정집에서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위조-주청-살청-유념-발효-민황-건조 단계를 거쳐 만들었다. 발효과정을 통해 생긴 산화작용으로 쓴맛은 약화되고 차의 맛과 향은 풍부해지므로 채다 시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른 봄의 여린 잎을 선호하였다. 잭살차는 삼베주머니나 종이에 싸서 채반·항아리·합 등에 넣어 시렁·광·장독대 등에 두어 보관하였으며, 주로 자급자족 형태로 소비되었으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는 방문판매, 장터에서 판매하는 장시와 임시 '잭살장'에서 유통되기도 하였다. 잭살차는 하동 지역만의 마실거리이자 민가의 상비약으로 전통성과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방주'에 등록되었다.

이와 함께 하동에서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농업문화를 계승해오고 있다. 채다 시기에 맞추어 차가 나왔음을 하늘에 고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풍다제와 차를 바치는 헌다례가 전승되고 있으며, 혼례 때 차씨를 넣어 보내는 봉차封茶 풍속도 전해지고 있다. 차씨를 보내는 이유는 차나무가 씨앗으로 심어야만 자라고 직근성으로 세근이 없어 옮겨 심으면 자라지 않는 속성에서 유래했으며,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화개면 주민들은 고품질의 차를 만드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차인회 등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농업공동체로 결성된 품앗이단은 노동의 고단함과 수확의 풍요 등을 공유하면서 채다와 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하동 전통 차농업은 산악지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생계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개면 일대의 산자락은 경사가 심해 다른 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농경지로의 활용도 불가능하다. 이 지역의 농부들은 급격한 경사지를 차밭으로 가꾸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차나무 뿌리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차밭은 산사태를 줄이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화개면의 차밭은 화개천을 중심으로 산이 동서로 마주보는 협곡의 산비탈에 주로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표고 300~400*m*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나무의 재배 특성상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밭은 산지 지형에 순응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거친 멋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심은 질서정연한 모양의 차밭이 있는가 하면, 듬성듬성 씨가 떨어져 멋대로 형성된 차밭도 있다. 산자락을 따라 정교함과 흐트러짐이 조화를 이루는 차밭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농업경관이다.

참고문헌 국가중요농업유산 하동 전통 차농업 보전관리 종합계획(하동군, 2016), 하동 전통 차농업 이야기(윤경식·정명철·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2018), 하동 화개면 야생수제차 생산의 전승양상(이소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필자 정명철(鄭明哲)

한국연초조사서
韓國煙草調査書

정의 대한제국 1910년(순종 4) 8월에 조선총독부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에서 국내 연초의 재배, 제조, 판매, 소비 등에 관한 일체와 사실을 공식적으로 조사·기

록하여 엮은 책.

개관 담배는 16세기 후반에 남만선南蠻船을 타고 일본 규슈로 들어가 1570년경에 보급되었고, 16세기 말엽(1607~1610)의 임진왜란 틈새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1780)에 따르면 "담배는 천하의 독초로, 먹어 배가 부를 것도 아니건만 천하의 기름진 밭에 심어 이득을 가곡佳穀만큼 얻으며 여인들부터 아이들까지 즐겨 피우지 않는 자가 없을뿐더러 즐기면 선호하는 정도가 기름진 고기나 차茶나 밥을 능가합니다. 이보다 더한 변괴가 다시 없으니 국법으로 말려야 합니다."라고 상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담배는 경작자에 과세한 사실조차 없이 날로 번창하였고, 오직 판매될 때만 시장의 시세市稅 형태로 추세抽稅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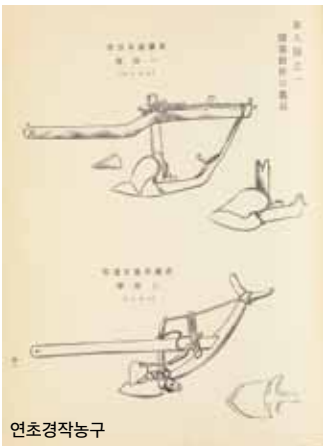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이 1907년 12월에 칙령 제41호로 설치되었고, 주로 각종 국가 재원을 조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908년 1월 탁지부 분과 규정이 반포되면서 임시재원조사국 안에 제1·제2·제3과課가 설치되어 제1과는 소금과 수산물, 제2과는 술, 제3과는 연초 및 농산물에 관한 재원조사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조사 진행상 실제 계획 준비와 지방 사정 통찰을 위하여 우선 전주全州·개성開成·성천成川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이어서 경성鏡城·영변寧邊·대구大邱·광주光州·충주忠州 등지에도 추가 설치하여 출장소별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속되는 지방의 소요사태로 조사사업은 부진하였다. 이 조사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1909년 2월에는 주세법酒稅法과 연초세법煙草稅法을 제정·실시하게 됨으로써 연초경작자는 처음으로 과제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연초경작자와 판매자는 면허준패免許準牌를 받아야 하였고, 경작의 다소와 도·소매 판매 구분에 따라 정률 과세하게 되었다. 이 책은 『조선연초조사서』로도 불린다. 이는 『한국연초조사서韓國煙草調査書』의 오기誤記인데, 한일병합(경술국치) 직전의 대한제국 때에 붙여진 책명이었기 때문이다.

내용 이 책은 경작·제조·판매·소비·함양 등 다섯 장으로 구성·편찬되었다.

제1장 경작耕作은 우선 연초 재배가 중국으로부터 만력萬曆 연간에 전래된 것이고, 그 명칭은 담배·남초·서초·왜초倭草·호초胡草·담파고淡巴菰·남령초 등 다양함을 이야기한다. 경작지는 대·중·소 산지로 구별되는데, 20만 문匁 이상을 생산하는 대단지로서는 영월과 전주를 들었다. 이어서 용인 등 전국 7개 지역의 경작방법을 묘상苗床, 본포本圃, 수확, 건조, 조리의 순으로 지방별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덧붙여 생육상, 건조상태, 건조사乾燥舍, 연초용 농기구, 비료사肥料舍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이어서 평양·함흥 등지의 호초胡草(담배) 재배 개황을 재배의 기원, 경작법, 특징 및 끽미喫味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 주산지의 생산액과 생산비 그리고 주산지의 토양을 분석하고 품종에 따라 엽형葉形을 기준으로 7개 품종을 도시圖示한 결과 무병첨타원형無柄尖楕圓形 품종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지방별 연초 작부방식(윤작, 연작, 휴한작, 혼작 등으로 구분)과 파종, 이식, 적심, 채취, 건조의 시



한국연초조사서


연초경작농구


연초경작농구


수입연초국별비교표

한국연초조사서 | 1910 | 국립중앙도서관

기를 밝혀 기술하였다.

제2장 제조製造는 연초 제조 상황을 인천·평양 지역 사례로 들어 제품, 제조원료, 작업순서의 순으로 설명하였다. 제조량을 지방별, 권연초卷煙草·각연초刻煙草별 제조량으로 표시하고 제조업자 수나 생산능력 및 기계 유형을 기술하였는데, 각연초가 권연초보다 월등히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3장 판매販賣에서는 엽연초 가격과 운반비, 소비지와 교통의 양부良否 등을 표로 나타내어 보이고 시장에서의 엽연초와 각연초 그리고 제조연초의 산매 상황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제4장 소비消費에서는 흡연상의 습관을 설명하고 생산, 소비, 수입 연초의 월별 수입량 및 소비량을 비교표로 나타내었다. 수입 연초의 수입국별 비교는 일본, 중국, 터키, 영국의 순으로 그 수량을 표시하였다.

제5장 함양涵養에서는 시작試作, 시제試制, 품평品評과 연초 농사 지도내용을 기술한 데 이어 일본인 연초 경작의 개요를 덧붙이고 있다. 특히 제조의 기원은 1864년 평남 성천成川의 '갈방'에서 수각기手刻器를 사용한 것이 그 기원이라 하였다. 개성 지방에서 엽권연초葉卷煙草 제조가 흥업하였으며, 청일전쟁 이후에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일본인에 의한 지권연초紙券煙草 제조업이 흥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 규모가 큰 것은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이 책은 담배 재배·생산·제조·경영 면을 개략적으로 초록하였다. 더불어 당시의 우리나라 재배농가 기술의 체계성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던 실상에 대하여 더욱 정밀하게 기술지도를 한 내용까지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기온이 온난한 남부지방에서는 육묘하였다가 이식재배를 하고, 북쪽의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에서는 직파재배를 하도록 발전하였다. 또한 담배는 씨앗이 작아서 싹튼 발아묘가 작고 연약하며 육묘기간이 길고 병약하지만 본엽이 3~4장 때부터는 이식 활착과 생장 속도가 빠르므로 한식寒食에 파종하여 두 달 정도 육묘하였다가 망종芒種에는 특히 봄 가뭄이 심하므로 반드시 비 온 뒤를 가려 이식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한일병합(경술국치) 직전의 연초 생산과 제조업 전모를 치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지만, 조사·편찬의 주체가 일본의 침략 및 식민 정책에 영합한 일본인들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참고문헌 농림수산 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농사, 고전으로 읽다2(구자옥, 농촌진흥청, 2016), 한국농업근현대사8-농업과학기술발달사(농촌진흥청, 2009).

필자 구자옥(具滋玉)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

정의 대한제국기 일본 농상무성이 일본인 농학자를 파견하여 한반도 농업의 제도·생산·유통 현황에 대하여 도별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간행한 보고서.

역사 일제는 1903년 한반도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일본 농업인의 척식을 도울 목적으로 한국 전역에 대한 토지농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1904년 농상무성에서는 1급의 농업기술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실제 한반도에 파견되어 조사를 맡은 이들은 도쿄제국대학의 교수·조교수와 농상무성 및 농사시험장의 기수·기사 등이었다.

조사는 토지반과 농산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토지반은 기상·토지·교통·운반 등 기본적인 입지조건과 주요 농경지의 토성 등 토지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산간계곡이나 천변 등에 존재할 것으로 상정된 미경지의 분포와 그 상태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향후 농지개발과 농업척식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농산반의 경우 농업의 사회경제적 상태 및 농가의 영농 실태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하여 작물의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도록 조사하였다. 또한 한반도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농업경영 실정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일본인 농업이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토지농산조사사업의 결과는 2,000페이지에 달

하는 전체 5권의 거질『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로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시『한국에 있어서의 농업조사』(농상무성, 1906)라는 연관된 책명의 요약본으로 출판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려고 하였음도 확인된다. 지나치게 방대한 원본의 내용을 요약하여 널리 읽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인 식민자의 농업이주를 도우려는 기획이었다. 또 한국의 실정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담겨 있으므로 농업 목적 이주자 외에도 식민통치를 위한 상황 파악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원본 도서 외에 1977년 원문 영인본이 간행되어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크게 활용되었으며, 2008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국역본을 간행하고, 2013년에는 이를 다시 판매도서로 발행함으로써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이 보고서는 강원·경기·충청편을 합본하여 한 권으로 그리고 경상·전라편도 합본하여 한 권으로 편집하고 황해편·평안편·함경편을 각기 단권으로 만들어 총 5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에 관한 서술에서 실제 거리, 도로의 상태, 이동과 운반을 위한 교통수단 등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또 지질이나 토성, 관배수 조건과 비옥도 등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지역에 대한 토양시험분석결과표까지 제시하였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면적·경사·고도 등 물리적 수치와 함께 가뭄이나 수해의 영향 등도 상세히 적었다. 농경지의 확보·확대와 직접 매입을 유도하여 한국을 농업생산기지화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농민에 대한 조사에서 농가 호수, 남녀비율, 노동 인력, 농가경영 특성별 분류, 농가당 가족 구성, 농업노동의 과정, 생계방식(의식주, 연료, 위생, 지출 규모, 사회생활 등), 생계비 구성과 지출 규모, 생활습관, 풍속과 질병, 여가문화, 저축과 부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차이 나는 도량형, 육상·수상 교통과 그 시설, 수리시설, 노동조직, 축력 운용, 농업기술, 연중행사, 재배품종, 유통조직 관련 기술들이 중요 자료가 된다.

그 서술의 관점을 보면, 가령 "우리나라(일본, 필자주)의 벼농사가 우습雨濕이 많음을 근심으로 여긴다면 한국 또한 다우다습을 두려워함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39년(1906년, 필자 주)처럼 '올해는 비가 많은 해雨年인 관계로 양작良作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가문 해旱年인 고로 풍작이 된다.'라고 하니"처럼 오늘날의 농업사 연구자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농업환경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양국의 농업생산에 미치는 방식에 대해 현장의 언어로 생생하고도 예리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세밀한 관찰과 보고가 지니는 내용적 가치는 특기할 만하다.

반면, 가령 도처에 나타나는 '일시에 힘을 써서 일하는 방식은 일본인이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지만 농업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우매하고 나태하여 많이 놀고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 농민'에 관한 지적들은 한반도의 농업환경이나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달한 한국적 농업기술과 노동문화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서술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내내 여러 형태로 변주·확대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한국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인식 저변을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지식으로 물들여 왔다. 우리에게는 이런 왜곡과 오해에 바탕을 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지적 기원으로서 이 서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이 책의 발간 계기가 된 조사사업은 1906년의 권업모범장 설치와 연동된 것으로, 하나의 세트가 되어 조선에 대한 식민지 농업생산기지화라는 기획을 담고 있다. 1904년의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1905년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조사를 담당하게 된 도쿄제국대학 교수 혼다 고스케本田幸介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간청을 받아 권업모범장장으로 부임하여 1919년까지 재직하였던 점 등은 이 두 사업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근대적인 통치의 수립은 과학적 조사를 통한 근대적인 지식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근대적인 지식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치에 활용하는 지배자들의 인식은 물론 그들을 만들어낸 사회와 문화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공식적인 식민지화

를 앞두고 일제가 벌였던 한국토지농산조사사업 그리고 그 결과물로 제출된『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일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은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외국인'으로 한반도에 관한 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조사대상 면적이 광대한 데에 비해 그들의 작업을 도울 만한 근대적 통계나 여러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부분 현장조사와 2차적 추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통과 치안이 미비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이 현장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조사자 자신도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스스로도 믿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강원·경기·충청에서의 조사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 책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점이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조사 및 서술 방식에 의해 한말 조선 농업의 현상을 기록한 책으로서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방문이 가능했던 한반도 전역의 농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성한 보고서로서, 다른 어떤 자료도 갖지 못한 세밀한 상황들의 기록이 소중하다. 이제는 역사가 된 당시의 현장을 근대 과학이 제공하는 학문적 도구들을 통해 기록해 나간 자료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학술적 의의는 다른 자료들이 쫓아가기 힘든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환경과 기술에 대한 보고의 수준을 넘어 농업현장의 사회적·문화적·민속적 특징들에 대한 기록도 된다는 점에서도 그 자료적 가치는 막대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보고서가 지니는 자료로서의 위험성도 이 장점과 관련하여 생겨나게 된다. 일제 말기『조선농업발달사』를 저술한 고바야카와 구로小早川九郎는 이 책에 대해 "…이전이나 이후에도 조선의 농업에 관한 사적·공적 조사보고서들이 많지만, 의견을 곁들여 조선의 농업 전반을 이처럼 철저히 조사하고 이처럼 조직적으로 편술한 것은 없었다."라고 평하였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조사 및 조직적 편술'과 함께 '의견을 곁들여'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의 내용 중에 당대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가졌던 이데올로기적인 인식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가 지니는 과학적 성격을 인정하는 한편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증을 통해 이 자료를 재해석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선 농업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적 침탈의 첫째가는 '과학적이면서 이데올로기적인 기획'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그때 이 사람, 혼다 코스케(구자옥 외, 민속원, 2013),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안승택, 신구문화사, 2009), 일제의 한국 농업정책사 연구(김도형, 한국연구원, 2009), 朝鮮農業發達史(小早川九郎, 朝鮮農會, 1944).

필자 안승택(安勝澤)

한우
韓牛

정의 한국에서 사육하는 고유의 토종 소.

개관 한우Korean native cattle, Hanwoo는 얼굴이 긴 장액우로서 인도 견봉우 계통에 속하고 원우와의 교잡에서 생성된 종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농경 및 운반 등의 역용으로 사육해 오던 재래종 소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등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한우Bos taurus Coreanae는 유럽원우Bos primigenius와 인도원우Bos indicus의 혼혈종에서 기원하여 북부 중국과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옮겨온 후 다른 품종과의 교류 없이 순종 번식에 의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광복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소는 '조선우'라고 하여 일본의 소 '화우'와는 구별하였다.

우리나라 소의 기원은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소뼈의 연대를 보면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며 당시 원시 야생소, 들소, 물소 등이 가축화되기 전의 야생소가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소, 말, 돼지, 닭 등의 뼈가 출토되고 있어 농경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민족사의 시작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으로 여기에서는 부여와 고구려 등에서 모두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후한 시기에 한민족의 생활영역 전역에 걸쳐 소의 사육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는 의례에 제물로 사용되었거나 짐 또는 사람을 싣는 수레를 끄는 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4~6세기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는 본격적으로 역우役牛로 이용되면서 한우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농경문화의 발달은 인간의 힘과 아울러 가축의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경에 알맞게 힘이 세고 잘 순응하는 한우는 이러한 농경문화에 인간의 힘을 대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우는 성질이 온순하면서도 묵직하고 뚝심이 있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가축으로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의 민족성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해 온 문화적·역사적 산물이다.


흑소


칡소


황소

한우 | 경북 영주 | 2020 | 김병기

내용 한우는 과거에는 일소로 사육되어 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농업 분야에서도 농기계가 점차 보급되면서 역우(일명 일소)로서의 가치는 낮아지고 1980년대 접어들면서 육용우(고기소)로서 점차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UR)을 개시하여 1993년 12월에 최종 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국제화 교류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육용우(고기소)로서 완전히 변신하여 오늘날 국민에게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우리 한우는 가축으로서, 외래 품종과의 혼혈이 없는 순수한 집단으로서 고유한 유전자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토종 한우는 털색에 따라 황소·칡소·흑우·백우로 나누어진다.

현재 사육 중인 한우는 대부분 외모상 누렁이 일반 황소가 99.9% 이상을 차지하고, 이 밖에 희소 한우로 칡소(흑우 포함)가 약 3,300마리 사육되고 있으나 백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우는 우리나라 전통과 맥을 같이하는 고유 가축의 하나로서 칡소·흑우 등 희소 한우는 더 많은 번식기반을 구축하여 사육 마릿수를 증식해야 하며, 일반적인 황소는 국민들의 소비 요구에 부합하는 맛있는 한우로 개량·생산되어야 할 산업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 한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흑우가 일본으로 수탈되었고, 광복 이후 6·25전쟁 탓에 마릿수가 39만여 마리까지 크게 줄었으나 1959년 말

에는 증식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102만 마리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황갈색 한우(황소)를 중심으로 한 한우 개량 방향이 설정되었고 한우경진대회 개최, 인공수정소 설치, 〈가축보호법〉 제정, 한국종축개량협회(1969) 설립 등으로 한우 개량 기반조성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우량 종축 선발을 위한 당대 검정사업이 시작되었고, 축산진흥대회에서 선발된 종모우를 축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매입하여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로 선발하여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국에 한우 개량단지도 64곳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과 소비자들의 질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산물 등급제(1992)가 시행되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구제역과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의 발생 및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EU·미국·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사육농가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2009년 6월)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었다. 이와 함께 품질의 균일화를 위한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이 참여하여 한우고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오늘날 한우는 높은 경제적 가치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약 2만 호수의 3,020만 마리이다.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볼 때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자가인건비 제외)은 도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0만~250만 원 정도이며, 번식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자가인건비 제외)은 250만~300만 원 수준이다.

한우비육은 생후 6~7개월령에 수송아지를 구입하여 거세한 후 28~30개월령까지 비육하게 된다. 한우비육은 비육밑소(수송아지), 사양기술 및 사육환경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도축 후 도체등급에 따라 농가의 수익(소득)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또한 한우번식우는 번식능력을 잘 갖추도록 적절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인공수정 시에 좋은 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우량 송아지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2~3개월령 이유(젖떼기)한 후에 생후 6~7개월령까지 더 키워서 판매하게 되며, 이때 송아지 가격은 외모와 부모 혈통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 한우고기는 외국의 쇠고기와 달리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다. 우선 올레인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한우는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특히 단가불포화지방산의 하나인 올레인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 주어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한다. 또한 고기의 맛을 좋게 만들어 주는 황 성분을 함유한 아미노산은 피를 맑게 하고, 위장기능을 좋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기에 긴장된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와 함께 한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튼튼한 체질로 이끄는 생활 속 보양식으로 어린이의 성장호르몬과 면역세포 성장을 유도한다. 성인, 특히 노인에게는 노화 방지 및 골다공증과 각종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한우(향문사, 1999), 한우(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 2005), 한우(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 한우자조금관리원회, 2009), 한우의 기원과 역사(연구용역보고서, 전국한우협회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nias.go.kr), 한국종축개량협회(aiak.or.kr),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hanwooboard.or.kr).

필자 김병기(金秉基)

한정록
閑情錄

정의 17세기 초에 허균許筠이 중국의 여러 책 중에서 은둔隱遁, 한적閑寂, 치농治農 등에 관한 내용을 모아 분류한 유서類書 성격의 책.

개관 허균은 1610년 관직에서 파직되었을 때 『한정록閑情錄』의 원본을 편찬하였다. 이때 은둔隱遁·한적閑寂·퇴휴退休·청사淸事 등 4개의 문門으로 나누어 편집하였

는데,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5에 수록된 「한정록서」가 1610년에 쓰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록』 원본은 중국 사신으로부터 받은 『세설산보世說刪補』 『옥호빙玉壺氷』 『와유록臥遊錄』 등을 기반으로 은둔·한적·퇴휴·청사의 4문門으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휘집彙集한 것이었다.

1618년까지 허균은 소략한 원본의 내용을 크게 보충하여 16문으로 나누고 부록을 더하였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한정록』이다. 그해 봄 허균은 기준격奇俊格에게 고발을 당해 조사받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다시 이전 것을 크게 증보하는 편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한정록』을 증보하는 작업을 16개 문으로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1618년 8월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정록』은 총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권까지 각 권은 차례로 은둔隱遁, 고일高逸, 한적閑寂, 퇴휴退休, 유흥遊興, 아치雅致, 숭검崇儉, 임탄任誕, 광회曠懷, 유사幽事, 명훈名訓, 정업靜業, 현상玄賞, 청공淸供, 섭생攝生, 치농治農으로 정리되어 있다. 부록에 해당하는 17권 가운데 병화사甁花史·상정觴政은 중국 원굉도袁宏道의 저서를 옮겨 적은 것이며, 서헌書憲은 오영야吳寧野의 저서를, 서화금탕書畫金湯은 진계유陳繼儒의 저서를 옮겨 적은 것이다.

내용 『한정록』은 저술방법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권부터 15권까지는 총 96종의 서적에서 777칙則을 뽑아 채록하였다. 둘째, 16권의 치농治農은 중국의 농서農書와 견문을 바탕으로 직접 저술하였다. 셋째, 부록에 해당하는 17권에 실린 것들은 남의 글을 그대로 전사轉寫해 놓은 것이다. 권1의 은둔편은 세속을 떠나 은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권2의 고일高逸에서는 은둔자 중 기이한 행적을 남긴 자와 고상한 생활을 한 사람의 전기를 남겼다. 권3의 한적에서는 출세·재세在世를 가리지 않고 유유자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권4의 퇴휴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한가롭게 살다간 이야기, 권5의 유흥은 산천을 두루 보아 정신을 수양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다. 권6 아치雅致에서 권14 청공淸供까지 은거자의 정신적인 측면의 현상 유지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한정록 | 국립중앙도서관

권16 치농은 은둔하며 살아가면서 농사짓는 법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농서農書와 견문을 바탕으로 열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택지擇地, 자본資本, 정거定居, 종곡種穀, 종소種蔬, 수식樹植, 잠소蠶繅, 목양牧養, 순시順時, 무근務勤, 습검習儉, 양잠養蠶, 양우養牛, 의치급용단방醫治急用單方, 양계養鷄, 양어養魚 등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기사에 인용한 서적을 밝힌 것이 거의 없지만, 대부분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정록』 치농은 『농사직설農事直說』 등 국내 농서를 기초로 하기보다는 중국 농서를 저본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명대에 간행된 『도주공치부기서陶朱公致富奇書』를 주요 저본으로 하였다. 이는 『농상집요農桑輯要』, 왕정王禎의 『농서農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향의 『편민도찬便民圖纂』 『신은神隱』 등의 농서를 기초로 편찬되었다.

치농에서는 주곡主穀 이외의 작물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곡류 중에서는 오히려 서속黍粟·직稷·마麻 등의 작물을 제외한 반면, 곡류 외의 채소와 나무에 해당하는 작물, 특히 상품작물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또한 이들 작물에 대한 재배법을 상세히 다루었는데, 이는 기존의 『농사직설』에 제시된 재배법과 차별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허균은 『한정록』을 자신이 정계를 떠나 산림에 은거하면서 활용하기 위해 편찬하였고, 치농의 기사 내용도 은퇴한 이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

기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과 같이 정치적 문제로 정계에서 물러나는 사대부 계층에 치농의 방법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한정록』 치농에서 농업경영의 주체는 사대부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농업경영은 적극적이고 사대부 계층의 체면을 잃지 않아야 할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노비 또는 고공 등의 복종僕從을 거느리고 그 일부는 가작家作으로서 자경自耕하고, 나머지 일부는 전인佃人에게 병작並作으로 경작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농업경영의 목표는 치부致富로 뚜렷이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입지 조건인 택지擇地와 재력, 즉 자본資本을 강조하였다.

『한정록』 치농은 17세기 중후반 이후에 편찬된 여러 농서에 영향을 주었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박지원朴趾源의 『과농소초課農小抄』,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산림경제』 목양牧養의 양우養牛, 양계養鷄, 양어養魚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한정록』의 치농에서 인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閑情錄,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필자 염정섭(廉定燮)

항공방제
航空防除

정의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기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작물의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일.

내용 항공방제는 비행기·헬리콥터·드론 등의 항공체를 이용, 공중에서 농약 등의 약제를 살포하여 작물에 생기는 병해충 등을 방제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운용하는 유인방제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기를 이용하는 무인방제가 있다. 과거에는 유인기를 이용한 방제만 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무인기를 활용한 방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인기를 이용한 방제는 대형기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들며 비행장 등 기반 시설의 필요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 하지만 무인기(드론 등)를 이용한 무인항공방제는 사람이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무선 장치를 활용하여 방제 작업을 하기에 유인항공방제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정밀한 방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행시간이 짧고 약제 살포량이 적어 현재 적은 면적의 방제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항공방제는 산림 지역 등 주로 큰 면적의 방제를 위해서는 유인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 면적의 농업 등 방제에는 무인기를 활용하여 방제하고 있다.



항공방제 | 농촌진흥청

무인항공방제는 일본에서는 1980~199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무인항공방제를 시작하였다. 무인항공살포기는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익 항공기로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탈 수 없으며, 원격조작 또는 자동 조정으로 비행시키는 항공기를 말한다. 회전축(로터) 1개 또는 2개를 가진 것을 무인헬리콥터라고 하고, 회전축이 3개 이상의 로터를 가진 항공기를 무인멀티콥터라고 한다. 무인항공살포기에 의한 농약 살포는 스스로 비행하기 위한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하향풍(항공기 아래로 부는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무된 살포액 입자는 하향풍을 타고 확산되고 낙하하여 작물에 도달한다.

농업용 무인항공기에는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고정익 무인항공기, 무인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으

나 현재 농약을 살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이다. 무인헬리콥터는 2003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벼를 주요 살포 대상으로 하는 방제에 사용되고 있고, 현재 양파·마늘 등의 대규모 재배 단지와 일부 외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고 있다. 무인멀티콥터는 주로 드론으로 지칭하는 항공체로, 항공촬영과 취미 활동용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밭작물과 일부 논 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에서 방제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항공방제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지역을 빠르게 방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농업현장에서 방제 인력의 부족과 농약 살포 시 약제 노출에 의한 중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드론방제는 지상 살포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인항공방제보다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적고 기상 영향을 적게 받으며 대량 항공살포에 따른 환경피해의 염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적은 비용과 방제 및 비행에 제약이 적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방제는 고농도 약제를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비의도적 오염 및 환경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 편찬위원회, 에피스테메, 2015), 드론 무인비행장치운용(류영기·박장환, 골든벨, 2015), 무인항공기살포의 안전사용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18), 무인헬기로 안전하게 농사짓는 길 열어(농촌진흥청, 2009), 농사로(nongsaro.go.kr).

필자 김민기(金民基)

해동농서
海東農書

정의 서호수徐浩修가 1799년에 정조正祖의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편찬한 농서.

개관 『해동농서海東農書』를 지은 서호수는 『고사신서攷事新書』와 『본사本史』를 편찬한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이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지은 서유구의 생부生父이다. 서명응, 서호수, 서유구는 모두 농서를 편찬하여 달성 서씨 가문의 가학家學이 농학農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조는 1798년 11월에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내려 조선의 농정을 혁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려고 추진하였다. 서호수는 정조의 농업 혁신 의지에 호응하여 『해동농서』를 올리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 농서는 응지농서로 볼 수 있다.



해동농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해군사관학교

현재 전해지는 『해동농서』의 판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8권으로 된 초고본이고 다른 하나는 4권으로 엮은 정고본이다. 전자는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성대 稀C6A-9, 農書9'이고, 후자는 목판본으로 일본오사카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 '일본오사카부립도서관44506, 農書10'이다. 후자는 전자의 3권까지를 수록하고, 거기에 전제田制·수리水利·농기農器의 조목을 보충한 것이다. 서호수는 정조에게 올리기 위해 『해동농서』를 편찬하던 중 완성을 보지 못하고 초고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사후에 서유구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정리된 것이 정고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서호수徐浩修는 『해동농서』를 편찬하면서 특히 조선의 지역적인 특색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는 『해동농서』 범례凡例 첫 조항에서 "오곡五穀의 종種에는 각지各地의 토양에 적합한 것이 있고, 농사짓는 데 쓰는 농구農具에는 각지의 농민들이 즐겨 쓰는 것이 있다."라고 지

적하면서 농법의 차원에서 지역적 특색을 농서가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각 작물의 품종品種에는 각지各地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것이 마련되어 있고, 농사를 짓는 농기구에도 지역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조선의 특유한 농업 기술의 내용으로 오곡의 명색名色, 즉 특유한 곡종穀種의 존재와 전작田作의 기계器械 등 농기구의 특색 있는 발전 그리고 전제와 수리에서의 특징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동국東國 농서를 기본으로 하고 중국中國 고방古方을 참고하는 방식으로『해동농서』를 편찬하였다. 서호수의 입장은 조선 농학을 기본으로 삼고, 중국의 농서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해동농서』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서호수는 농업 기술의 측면에서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다. 사실 '해동농서'라는 이름 자체가 이러한 의식의 산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국의 농서를 기본으로 삼고 중국의 고방을 참고하여 이름하기를『해동농서』라고 한 것이다.

서호수가 수립한 수리학水利學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해동농서』수리편水利篇의 내용은 수리 총론水利總論, 피호陂湖, 장천障川, 축안築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측량지세법測量地勢法과 용미차제龍尾車制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 내용은 대부분 명나라 서광계의『농정전서農政全書』에서 발췌·인용한 것이지만, 서호수가 정리한 수리학 체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해동농서』에서 서호수는 당대까지의 농업 기술을 정리하였고, 특히 수리학水利學에서는 조선 수리학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피호 조항에서는 하천수 이외의 둑을 쌓아 가두어놓은 물을 관개灌漑에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장천 조항은 소규모 하천수나 계곡수를 관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었다. 그리고 축안 조항에서는 둑이나 제방을 쌓은 방법을 설명하였다.

『산림경제山林經濟』치농 이후 농서 편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설정된 시비기술의 독립항목화는『해동농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호수는 농무農務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개황開荒(개간)—경전耕田—분전糞田(시비)—장종藏種(종자 처리)이라는 순서로 서술항목을 하나하나 집어넣었다. 서호수는 분전이라는 항목 명칭을 사용하여 작물에 대한 시비, 전토에 대한 시비를 정리하였다.

조선 후기 농서 편찬 과정에서 농기구의 지역적 성격을 밝혀냄과 동시에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던 농기구를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되었는데,『해동농서』에서도 농기구의 조선 명칭을 소개하고 농기구의 그림(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중국 농기구 그림)도 같이 수록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해동농서』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농서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토질, 기후조건에 따라 형성된 조선의 농법農法을 정리하는 입장에서『해동농서』가 편찬되었다. 서호수는 우리나라 농학의 전통 위에서 우리의 자연조건을 반영하고, 중국의 농업 기술까지도 수용하면서 새로운 농학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동국東國(조선)의 농서를 기본으로 삼고 중국의 고방古方을 참고하여『해동농서』를 편찬하였다.

서호수는 조선의 특유한 농업 기술의 존재를 지목하였는데, 첫째는 오곡의 특유한 품종이고, 둘째는 농기구의 특색 있는 발전이며, 셋째는 전제와 수리에서의 특징이다. 이처럼 서호수는 우리 농학을 기본으로 삼고 중국의 농서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해동농서』의 체계를 세웠다.

참고문헌 海東農書,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김영진·이은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후기농학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88),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 담론(문중양, 집문당, 2000).

필자 염정섭(廉定燮)

해충
害蟲

정의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곤충.

내용 곤충의 수는 약 86만 종으로 동물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많은 종수를 가진 곤충 중에 인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곤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진딧물 | 경북 문경 | 2020 | 김민기



꽃매미 | 경북 군위 | 2016 | 김민기

다. 이 중 해를 끼치는 곤충을 해충이라 하고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 한다. 해충은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긴 의미로, 해충과 익충의 구분은 처한 환경·시기·시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나비는 유충의 경우 초식성이고 이들이 유용 식물을 가해하면 해충이 되지만, 성충의 경우 화분을 매개하고 또한 장식용 곤충으로 이용되므로 이때는 익충이 되기도 한다. 해충은 모기·벼룩·이 등과 같이 인간에게 직접 해를 주는 위생곤충과 벼멸구·메뚜기·나방류·진딧물류·노린재류·총채벌레류 등 농작물을 가해하는 농업해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인간에게 가장 밀접적이고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은 농업해충이다. 이들 해충은 발생하는 작물에 따라 벼 해충, 채소 및 시설작물 해충, 밭작물 해충, 과수 해충, 산림 해충, 저곡 해충으로 나눌 수 있다.

해충은 지역적·시기적 등에 의하여 발생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매년 자주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는 주는 해충이 있다. 또한 발생은 하지만 작물의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방제가 필요 없는 해충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 변화와 잦은 농산물 교역 등으로 인하여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및 외래유입 해충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방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외에서도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에서는 큰 식량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해충의 방제는 살충제 개발 이전 시대에는 윤작, 경작, 포장 위생, 재배 시기 조절, 시비 관리 등으로 해충 발생을 감소시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개발된 강력한 살충력을 가진 유기합성살충제는 기존의 재배적 방제법을 대체하여 대부분의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합성살충제의 부작용으로 저항성이 높은 해충이 발생하고, 인축의 피해가 일어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해충 종합관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농약으로 해충을 완전하게 박멸하거나 정기적인 살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해충의 속성을 고려해 생물적·화학적·경종적·물리적 방제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못할 수준으로 억제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포장 개량, 저항성 품종 선택, 윤작 등의 경제적 방제 기술과 천적 활동 조장, 선택적 농약 사용, 적기방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충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 허용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해충의 발생 예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친환경농업을 위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당벌레, 이리응애, 진디벌, 애꽃노린재 등의 천적을 이용하거나 유기농업 자재를 이용하여 방제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해충은 인류가 농업을 하면서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과거 살충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해충의 발생으로 생산량 대부분이 감소하여 피해가 컸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는 살충제의 개발로 해충 대부분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어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참고문헌 곤충 독성학(김길하·이시혁·안용준, 월드사이언스, 2014), 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농업생명과학용어대사전 편찬위원회, 에피스테메, 2015), 삼고 해충학-이론과 응용(김길하 외, 향문사, 2012), 최신 농약학(정영호 외, 시그마프레스, 2004).

필자 김민기(金民基)

허수아비

정의 곡식을 해치는 새나 짐승 따위를 막기 위하여 막대기와 짚 따위로 만들어 논밭에 세우는 사람 모양의 조형물.

내용 조선 중기에 편찬된 중국어 번역 사전인 『역어유해譯語類解』(1690)에는 중국의 허수아비를 나타내는 단어인 '적금초인赤禽草人'을 '정의아비'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후에 나온 번역서인 『방언유해』(1778),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1779), 『몽어유해蒙語類解』(1790)에서도 '초인'을 '정의아비'로 적고 있다. 정의아비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19세기 중엽에 쓰여진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허수아비'란 단어 대신 '정의아비'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허수아비는 나무막대기나 짚 또는 새끼 등을 이용하여 십十자형으로 뼈대를 만든다. 짚이나 새끼를 뼈대에 덧붙여 머리 형상을 만들고, 숯이나 먹물로 눈·코·입 등을 그려 넣는다. 그다음 헌 옷을 입혀서 논밭에 세워둔다. 허수아비의 형상 가운데 원형에 가까운 것은 장대를 든 농부의 모습이다. 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농부이며, 농작물에 가까이 가면 장대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새를 쫓는 장대를 들고 있게 하였다. 여기서 조금 나아간 형상이 사냥꾼의 모습이며 사냥꾼도 활에서 총을 든 모습으로 바뀌었다. 허수아비의 모자도 농부의 밀짚모자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절모자·운동모자 등으로 바뀌고, 허수아비에게 입히는 옷도 한복에서 양복·일반복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허수아비를 외다리로 만들어 꽂아 두는 이유는 허수아비가 잘 흔들려서 살아 있는 듯 보이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허수아비 양손 끝에 깡통과 헝겊을 매단 새끼줄을 건 것도 바람에 새끼줄이 흔들리면서 깡통소리와 함께 헝겊이 너풀거려 새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천이나 종이로 매 또는 솔개 모양



허수아비 | 안승일

의 허수아비를 만들기도 한다. 바람에 갑자기 날아오르는 이 '조류'들에 기겁한 참새들이 놀라 달아나게 된다. 새의 생태를 깊이 이해한 뒤에 만든 허수아비라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허름한 차림으로 논가에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을 근거로 그 유래를 말해 주는 전설도 있다. 계모의 학대로 집에서 쫓겨나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는 불쌍한 아들 '허수'를 찾아다니다가 거지가 된 허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일하는 논둑에 쓰러져 죽었는데, 새들이 허수의 아버지를 보고 날아들지 않아서 그 뒤부터 사람들이 새를 쫓기 위해 허수의 아버지 모습을 한, 곧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계모의 학대—아들의 가출—아버지의 죽음—아버지의 현신顯神으로 구성된 허수아비 전설은 죽은 이의 시신을 대신하는 초우草偶와 허수아비의 기능이 결합된 듯하다.

특징 및 의의 허수아비는 지역에 따라 '허재비' '허사비' '허깨비'라고 부른다. 이들 명칭에서 '가짜'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제구실을 잘하지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허울뿐이고 쓸모가 없거나 실권이 없는 사람을 빗대어 허수아비라고 일컫는 것도 그 때문이다.

참고문헌 중국의 허수아비 소고(정연학, 새천년 문화지킴이 허수아비 축제,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허수아비(김명자, 한국문화상징사전2, 동아출판사, 1995), 허수아비(임재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허수아비고(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3), 허수아비의 뜻과 구실(이주승, 민속소식49,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정연학(鄭然鶴)

헛간

정의 농가에서 자질구레한 물건이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던 장소.

개관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비를 맞히지 않으려면 지붕이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곳이 바로 헛간이다. 헛간에는 짚 뭉치나 건초, 땔감, 시래기, 콩깍지, 말린 깻단, 농기구, 멍석 그리고 오줌장군이나 구유 등을 보관하기도 하는데 헛간에는 앞쪽으로 문짝이 없는 게 특징이다. 말하자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내용 헛간은 농사짓는 농가라면 꼭 필요한 공간이다. 언제나 생기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헛간은 허드레 물건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농부가 짬을 내어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짚신 삼기 등의 일을 하는 작업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겨울철 추울 때는 술독이나 김칫독, 장독을 헛간의 지푸라기 속에 갖다 두어 얼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바닥은 흙으로 다져져 있거나 간혹 한 부분을 마루처럼 널빤지를 깐 곳도 있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헛간의 지붕은 서까래를 얼기설기 엮어 골격을 만든 후 산자를 치고 알매를 얹은 다음 짚 이엉을 덮어 마감한다. 내부 공간은 천장을 만들지



헛간 | 강원 강릉 | 2010 | 배도식



헛간 | 전남 장흥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않는다. 헛간의 대들보 위에도 새끼타래나 겨릅대, 짚단 같은 것을 올려서 보관하기도 한다.

헛간은 대개 외양간이나 변소에 붙여서 지은 것이 많고 드물게 별채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굵은 목재 기둥을 쓰지도 않고 기와지붕을 올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는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부잣집의 별채에 딸린 건물이라면 기와를 올린 것도 있을 수 있다. 헛간이 별채로 독립된 경우에는 디딜방앗간과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외양간과 붙어 있는 예도 있다. 외양간에는 짚이 많이 필요한데 헛간에 보관하고 있던 짚을 가까이에서 쉽게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 헛간이 존재하는 위치를 보면 작은 농가에서는 본채 옆에 붙어 있는 예도 있고, 아래채 옆에 붙여 지은 것도 있다. 그리고 외양간이나 디딜방앗간 옆에 붙여 지은 것도 있으며, 변소나 달구짓간 또는 곳간 옆에 붙여 지은 것도 볼 수 있다. 드물게 대문 밖 공터에 단독으로 지어진 헛간도 있다. 헛간은 물건만 있는 곳이 아니고 고양이도 살고 쥐도 드나든다. 때로는 암탉이 들어와 알을 낳기도 한다.

헛간의 사례를 몇 군데 소개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의 농가에는 안채와 문간채가 있는데, 문간채에 외양간과 헛간이 붙어 있다. 이 헛간은 드물게 2층으로 된 것으로 아래층은 왼편이 외양간이고 오른편이 헛간이다. 그런데 헛간이 좀 협소하였던지 2층을 모두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층 헛간에는 손수레와 괭이, 쇠스랑, 삽 등의 농기구와 짚단이 놓여 있다. 2층에는 주로 농우의 사료용 짚 뭉치가 그득하게 올려져 있다. 그리고 가마니와 탈곡기, 지게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한 헛간도 외양간과 헛간이 붙어 있는 형태이다. 오른편이 소를 매는 외양간이고 왼편이 헛간인데, 헛간의 앞쪽에 쇠죽을 끓이는 큰 솥이 걸려 있다. 헛간에는 농구의 하나인 쇠살로 된 벼훑이도 걸려 있다. 뒤편에는 땔감도 놓여 있고, 깻단과 옥수숫대도 보인다. 외양간에 깔아줄 지푸라기도 마련되어 있다. 헛간의 위쪽 공간에는 각종 농기구와 칡줄 말아둔 것도 걸려 있다. 헛간의 왼쪽에 또 작은 까대기를 달아서 부속 헛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짚단과 삽과 대빗자루가 보인다.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의 한 농가 헛간은 별채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헛간채에 디딜방아를 들여놓았고 그 주변을 헛간으로 쓰면서 기둥과 중반에 망태기·다래끼·멱서리·통발·꼴망태 등을 걸어 두었다. 지붕 아래 빈 곳에는 말아놓은 큰 멍석 두 개가 보관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 삼동면 보삼마을의 한 헛간은 기다란 초가의 중간에 자리 잡았는데, 왼편의 한 칸은 외양간으로 쓰고 오른편은 변소이다. 가운데가 헛간인데, 반은 짚동을 쌓아두었고 오른편 공간은 잿간으로 쓰고 있다. 그 앞에는 여물 분쇄기도 한 대 놓여 있다. 천장에는 쪽파의 종자를 넣어둔 가마니와 자루 등이 매달려 있고, 싸릿대를 잘라 묶은 단도 보인다. 그 밖에 나무막대기, 삽, 쇠스랑, 대빗자루, 쟁기의 보습 등이 보관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내덕마을의 한 농가는 빈집을 통째로 헛간 겸 창고로 쓰고 있다. 부엌과 마루, 방, 축담에까지 자질구레한 물품들이 꽉 들어차 있다. 여러 개의 삽과 호미·널빤지·짚단 등이 보이고, 처마 밑에는 마늘·옥수수·양파 등이 매달려 있고, 누런 호박과 약초말림·장화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농가의 헛간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공간이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물건을 보관하기 때문이다. 헛간은 단독으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외양간이나 방앗간·창고·변소 등과 붙어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도 한다.

참고문헌 농기구(박대순, 대원사, 2004),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출판사, 1981),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현지조사자료(김용수, 경남 하동, 1990.2.2; 김광웅, 경북 청도, 2009.11.7.).

필자 배도식(裵桃植)

호리쟁기

정의 소 한 마리에 메우는 쟁기.

내용 호리는 '홑[獨]'과 '리[犁]'가 합친 말로, '홑'이 '리'와 합치면서 '홀'로 바뀌었다. 『산림경제山林經濟』는 한자의

소릿값을 빌려서 '胡犁'로 적었다.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에도 '결이'와 '홀이'라는 말이 보인다(犁駕雙牛而曰결이, 隻牛曰홀이). 그러나 농가에서는 겨리쟁기와 호리쟁기를 구별할 때 외에는 단지 쟁기라고 부른다. 호리는 성에와 술이 45도쯤의 각도를 이루는 굽쟁기류가 대부분이지만, 더러 선쟁기류를 쓰는 곳도 있다. 겨리쟁기와 달리 평야지대에서 주로 논을 갈며 더러 밭의 골을 타기도 한다. 황해도와 평안도 일부 지역의 후치, 중부 지역의 극젱이와 인걸이, 남부지역의 훌챙이 따위는 모두 호리쟁기의 하나이다.

중요 부분은 술과 성에이며 이들을 한마루가 붙박았으며 성에 위쪽에 가로 끼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는다. 소가 논밭을 갈 때 멍에가 벗겨지거나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봇줄 양쪽에 한태나 뱃대끈을 매지만 지역과 토질에 따라 둘 다 쓰거나 어느 한 가지만 쓰기도 한다. 또 보습 위에 날이 달려서 흙밥이 한쪽으로 떨어지는 까닭에 평갈이에 적합하지만, 날을 좌우로 돌리면서 쓰는 양호리도 있다. 이것은 면적이 작은 논에서 한쪽으로 오가면서 흙을 잇대어 갈아엎었다. 윤두서尹斗緖(1668~1715)의 〈경답목우도耕踏牧牛圖〉, 기산풍속도를 비롯하여 여러 점의 그림들에 호리쟁기로 논밭을 가는 장면이 보인다. 한편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 "산간지대의 쟁기 보습은 두터운 타원형으로 겨리소가 끌지만, 호남의 것은 좁고 길며 소 세 마리를 한 줄로 세워서 간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도에서 더러 두 마리를 한 줄로 세우기는 하지만 세 마리를 줄 나란히 세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쟁기는 가장 귀중한 기구인 까닭에 고려시대부터 입춘에 임금이 스스로 나무나 흙으로 빚은 모의 쟁기로 논밭을 가는 의례를 치러서 풍년을 빌었으며, 이를 내농작內農作 또는 친경親耕이라도 불렀다. 첫 기록은 『고려사』의 "좌보궐左輔闕 이양李陽이 입춘에 앞서 토우土牛로 농사의 때를 알았다는 『예기禮記』를 들며 '우리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라는 기사이다(성종 7년 2월 임자). 조선 영조 때는 임금이 종친들과 적전籍田에서 쟁기를 다섯 번, 정조는 일곱 번 밀었으며(『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대왕 행장), 이 의례는 1871년(고종 8) 2월 17일까지 이어졌다(『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경답목우도 | 윤두서 | 조선 후기 | 녹우당 문화예술재단

한편 제주도 입춘굿에서 호장戶長이 쟁기를 끄는 행사도 친경례를 연상시킨다. 이 행사는 백성들에게도 퍼졌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함경도에서는 입춘에 나무소[木牛]를 관청에서 끌고 나와서 마을로 돌아다닌다. 이는 그 전날, 흙으로 빚은 소[土牛]를 길거리에 늘어놓던 관례를 본뜬 것으로, 농사를 부추겨서 풍년을 거두기 위한 행사이다."라고 적혀 있다(입춘).



호리쟁기 | 너비73 길이16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에서는 정초에 수수깡으로 꾸민 보리·조·옥수수·콩 따위의 곡식과 함께 쟁기를 비롯한 기구들을 열나흗날 밤 거름더미에 묻었다가 대보름날 아침에 마당에 펼쳐놓고 작대기로 두드리며 '천 섬 나온다' '만 섬 나온다' 소리치며 터는 시늉을 한다. 이어 곡식을 짚신에 담고 다시 '한 섬이요' '두 섬이요' 읊조

리며 풍년을 기원한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으며, 중국에서는 정월 대보름날에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성에에 붉은 네모종이를 붙일 뿐이다.

특징 및 의의 호리쟁기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지형이나 곡물 종자에 따라 여러 가지를 알맞게 쓴 것은 우리뿐이다.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사는 목수 비커성 씨가 '조선 연장'을 본떠서 걸어놓은 평밭용 쟁기와 비탈용 쟁기[山田用] 두 틀을 2000년대 초부터 쓰는 것이 좋은 보기이다. 그는 "조선쟁기로 갈면 밭이 푹신푹신하고, 산비탈에서도 갈기 편하며 풀이 많은 곳도 매기 쉬워서 중국 쟁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털어놓았다.

참고문헌 쟁기연구(김광언, 민속원, 2010),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김광언(金光彦)

호미

정의 철제 날에 목제 손잡이를 박은 형태가 일반적이며, 주로 김을 맬 때 쓰지만 파종이나 수확을 비롯하여 농사짓는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작은 농사 연장.

내용 우리나라에서 호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김광언에 따르면 호미는 오직 안압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날은 세모꼴이라서 현재 남부지방의 것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고려 말기 이규보의 고율시古律詩에 당시 논에서 김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호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려속요 〈사모곡思母曲〉에 호미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호미는 시대에 따른 변화를 거쳤으며, 용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고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양하다. 호미는 호맹이, 호매이, 호무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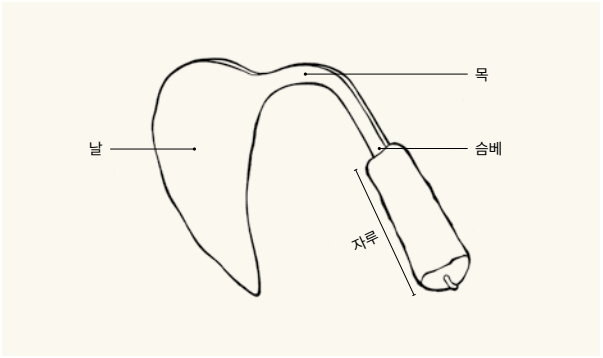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보면 호미는 자루 짧은 호미인 단병서短柄鋤와 자루 긴 호미인 장병서長柄鋤로 구분된다. 단병서의 전통은 고려속요 〈사모곡〉에 낫과 비교되면서 등장하는 호미에서 확인된다.

> 호ᄆᆡ도 ᄂᆞᆯ히언마ᄅᆞᄂᆞᆫ / 낟ᄀᆞ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 아바님도 어이어신 마ᄅᆞᄂᆞᆫ /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 아소님하 /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이 속요에서는 농작물이나 풀을 베는 데 일반적으로 쓰는 낫과 호미 날의 예리한 정도를 비교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정도를 비교한다. 일반적인 형태의 자루가 짧은 낫과 호미가 비교되었으니, 호미는 단병서라고 확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15세기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 무논을 매는 데 사용된 호미는 단병서로 보인다. "벼의 모[苗]가 두 잎이 나면 물을 빼고 손으로 논을 매는데(세주: 모가 어려서 호미를 사용할 수 없으나, 물이 말라서 논바닥이 굳어지면 당연



① 안동 임하면 신덕2리, 의성 안계면 교촌리 논호미 | 전체길이27~30 날길이16~18 | 경북 | 배영동
② 강화 길상면 선두2리 밭호미 | 길이29 | 인천 강화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③ 평호미 | 전체길이41 날길이12 | 국립민속박물관
④ 제주도 밭호미 골갱이 | 길이31~42 | 배영동



호미 세부 명칭도 | 농경생활문화읽기 | 배영동 | 민속원

히 호미를 사용한다), 모 사이의 작은 잡초를 뽑는다. …〈중략〉… 모의 키가 반 자가량 자라면 또 호미로 맨다(세주: 모가 튼튼해졌으니 호미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맬 때는 손으로 모 사이의 논바닥을 주물러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손에는 호미를 잡고, 한 손으로는 논바닥 흙을 주무르려면 당연히 이 호미는 단병서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 청나라를 다녀온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과농소초課農小抄』에는 조선의 단병서가 중국의 장병서에 비해서 능률이 떨어진다면서 우리도 장병서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수원농림학교 일본인 교사 덴구치 기요토시天口淸利가 각지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호미 형태를 봐도 단병서가 주류이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호미라고 하면, 응당 단병서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는 점도 단병서가 주류적 호미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런 주류적 호미 외에 자루가 긴 장병서도 조선 중기까지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장병서는 호미의 계열에 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을 매는 용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서서 김매는 용도의 '선호미'[立鋤]가 이에 해당한다. 장병서의 존재가 많았고 장병서를 사용한 전통도 무척 강했던 사실이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규보의 고율시〈가군과 별업 서쪽 교외 초당에서 놀면서 2수遊家君別業西郊草堂二首〉와 강희맹의『금양잡록衿陽雜錄』에 나오는 '호미를 멘다[荷鋤]'라는 표현,『금양잡록』에 나오는 '허리춤에 긴 호미를 끼운다[長鋤揷腰間]'라는 표현,『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작자 미상 시조에 나오는 "세우 중에 호믜메고 산전을 흣ᄆᆡ다가"라는 표현, 같은 책에서 송강 정철이 지은 시조에 "호뫼메오 가쟈스라 내논 다 ᄆᆡ여든"이라는 구절, 숙종 조 김우규의 시조 "비개거니 삿갓에 호미메고"라는 표현이 장병서의 존재를 말해 준다. 이는 공통적으로 '호미를 어깨에 멘다.'라든지 아니면 '허리춤에 끼우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경세유표經世遺表』권7 전제 8에 나오는 "깊은 산중의 사람들이 쓰는 장병대서는 뇌사에 해당한다[深山之民 長柄大鋤 以當耒耜]." 등의 표현은 장병서를 직접적으로 말해 준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에 단병서와 장병서가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정 박제가의『북학의北學議』를 보면 "날이 수숫잎 같고 자루가 짧은 호미로 김맬 때 왼손으로 묘종苗種을 잡고 오른손으로 호미를 잡는다. 등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포기를 헤아리며 북돋우고 풀을 따라가면서 뽑는다. 장정 한 사람의 하루 노역勞役이 5·6묘畝를 매는 데 불과하다. 예전에는 보습으로 간 뒤에 반드시 작은 호미로 두렁을 그어서 골을 만들고 씨앗을 골 가운데 심는다. 싹이 나면 자루가 긴 호미로 두렁 흙을 서서 그으면서 좌우로 갈아 묻으면 이에 따라 잡풀이 뽑히면서 뿌리는 저절로 북돋게 된다. …〈중략〉… 자루가 긴 호미는 길이가 두 자 반이고, 호미 목이 한 자인데 큰 칡잎 같으면서 안쪽으로 굽어져서 서서 긋기에 알맞다."라고 하였다. 단병서의 단점과 장병서의 장점을 평한 대목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 우리 옛 문헌에서도 호미와 괭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훈몽자회訓蒙字會』에 '곽钁'자를 "호ᄆᆡ 확, 대왈 곽大曰钁, 속칭 곽두俗稱钁頭"라고 새기고,『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도 '곽자钁子'를 '서자鋤子'와 같다고 풀이하고 있지만,『해동농서海東農書』『과농소초』『북학의』에서는 '곽钁'을 괭이로 다루고 있다. 특히『해동농서』의 농기편 곽조钁條에서는 가짓잎괭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가엽곽茄葉钁'이라 표기하고,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괭이 그림에는 '직곽直钁'으로 적고 있으며, '곽钁'자에 대해서는 '광이'라고 한글로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 호미였던 '곽钁'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괭이'로 그 뜻이 바뀐다는 것은 호미의 형태와 성격이 변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장병서는 조선 전기의 조방농업에 사용되다가 조

선 후기에 집약농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용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곽钁'이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널리 사용된 호미였던 장병서를 가리키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장병서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더 보편적인 호미인 단병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곽钁'은 단병서보다는 자루가 긴 형태의 괭이와 더 가깝게 인식되었다.

호미는 지역에 따라 형태적 다양성이 있다. 1930년대 일본인이 만든 호미 분포지도를 이춘녕이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분포지도에서 논호미와 밭호미가 혼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반도 북부(함경도·평안도 지방)의 호미는 남부(전라·경상·충청도 지방)의 호미보다 날이 크고 넓으며 자루 또한 더 길다. 이것을 서서 사용하는 장병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장병서의 전통을 지닌 호미로 판단된다. 북한학자 정시경의 보고에 따르면 함경도 지방의 '양귀호미'는 자루가 짧으면 50~60㎝, 길면 1m까지 된다고 하니 긴 것은 장병서임에 틀림이 없다. 양귀호미란 땅이 넓은 산간지대에서 지면을 긁는 데 적합한, 호미 날이 지면과 수평인 호미로서 오늘날 철물점에서는 '평호미' '강원도 호미'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양귀호미가 아닌 호미를 외귀호미라고 하는데, 양귀호미의 상대어이다. 양귀호미, 평호미는 밭농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조방농업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남부지방 호미는 날의 끝이 가늘고 뾰족하다. 남부지방에는 인구밀도가 더 높고, 물의 관리가 까다롭고, 제한된 기간에 다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논이 많아서 자연히 많은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므로 호미도 정밀한 제초에 더 적합한 단병서가 많이 쓰인 것으로 해석된다.



호미분포지도 | 이조농업기술사 | 이춘녕 | 한국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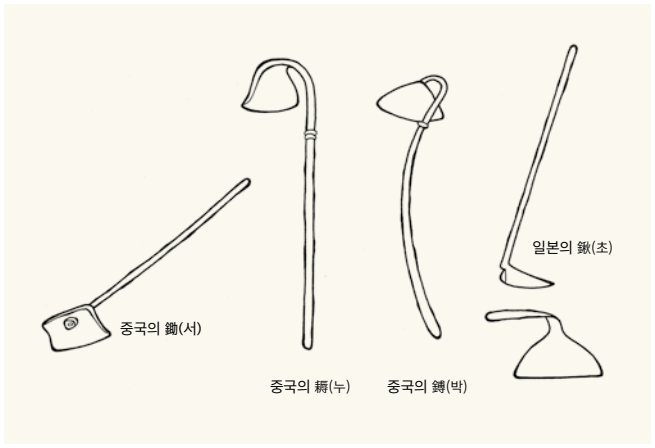
밭호미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0세기 말 대장간에서 구입한 호미를 봐도 남쪽의 전라남도 진도·완도와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내륙지방의 호미에 비해 호미 날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가늘고 뾰족하다. 남쪽 지방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관련이 깊고, 제주도는 토양에 현무암이 많아서 호미 날이 가늘어졌다. 제주도에서는 호미를 '골갱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호미의 쓰임새를 보면 논에서 쓰는 논호미와 밭에서 쓰는 밭호미로 대별된다.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갖는 밭호미에서 조선 후기에 이앙법의 보급과 더불어서 논호미가 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20세기 초반에 조사하여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엮은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 보고된 호미씻이의 지리적 분포를 통하여 논호미의 분포를 해석할 수 있다. 호미씻이는 두레와 같은 공동협업농업의 농경의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미씻이는 경상·전라·충청·경기도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존속하고, 평안·함경도 같은 곳에는 매우 미미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분포 양상은 곧 논호미가 한반도 남쪽의 논농사지대에 밀집 분포하며, 북쪽의 밭농사지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황해도와 같은 곳은 논호미 분포의 점이지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징 및 의의 호미는 사람의 손을 대신하던 농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섬세한 농경작업을 할 때 호미를 사용하였다는 뜻이다.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앉아서 김매는 형식의 호미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



호미질 | 충남 논산 | 1990년대 | 황헌만



중국·일본 호미 |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 배영동 | 민속원

기 드물다. 우리가 호미를 사용하는 농경작업에 다수의 다른 민족은 괭이 또는 그와 유사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괭이를 이용하는 데에도 갈이와 파종에 치중하는 형태와 제초나 파종에 치중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앞쪽 방식에서는 쟁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괭이가 쟁기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전형적인 괭이농경의 형태이다. 뒤쪽 방식에서는 쟁기를 사용하며, 따라서 축력농경에 치중하고 있다. 전형적인 괭이농경은 아니며, 중국과 일본도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서 김매는 다른 나라의 농기구는 한국의 어떤 농기구에 해당할까? 기능상으로 보면 호미에 해당할 것이요, 형태상으로 보면 괭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괭이처럼 무겁고 두터운 날을 가진 것은 아니나 오늘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미보다 크고 형태도 다르다.

독일의 지리학자 베르스Werth, E.는 괭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괭이 농경민은 적도 언저리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 위도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농경의 분포권을 '괭이농경 벨트'라고 명명하였다. 다만 그가 말하는 괭이농경은 쟁기를 사용하지 않고 괭이로 갈이까지 하는 전형적인 괭이농경이다.

프랑스의 브로델Braudel, F.은 베르스의 견해를 계승하여 괭이농경은 가축을 이용한 농경이 출현하기 이전의 형태로 인구 압력이 높지 않은 곳에서 존재하는데, 세계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괭이농경 벨트에 거주하는 농경민들은 재산·식물·동물·도구·관습 등의 점에서 상당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호미는 한국의 고유한 농기구이자 세계적 특이 농기구로서, 한국인의 섬세한 젓가락질처럼 농작업에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김매기를 실현하던 대표적인 연장이다. 인구증가 상황에서 토지생산성 증대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장병서의 전통은 약화되고, 단병서를 이용하는 김매기법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온돌문화가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논매기의 기술과 농경문화적 의의(배영동, 두산김택규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89),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이조농업기술사(이춘녕, 한국연구원, 1964), 조선전기 농업경제사(이호철, 한길사, 1986), 호미의 변천과 농경문화(배영동, 민족문화6,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호미의 유형과 그 분포(정시경, 문화유산1,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기구(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필자 배영동(裵永東)

호박

정의 박과 호박속의 한해살이 덩굴성 채소.

개관 호박은 약 9,000년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용되기 시작하여 15세기 말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600년대 초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30여 종의 호박이 있으며, 동양종·서양종·페포종 등 3종이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래종 호박이 동양종에 속하며, 애호박·풋호박·늙은호박 등이 주로 소비되고 있다. 단호박 또는 밤호박으로 불리는 호박과 약호박·대형호박 등은 서양종 호박에 속한다. 주키니 계통은 페포종이며, 국수호박과 다양한 무늬와 색을 띠는 관상용 호박도 페포종이 많다.

내용 파종은 먼저 종자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고 종자를 넣은 후 종자가 약간 덮일 정도로 복토를 하고 관수를 해 준다. 파종 후 온도는 주간에는 30℃, 야간 최저 온도는 18℃ 이상으로 유지하고, 발아 후에는 묘가 웃자라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정식은 본잎이 4~6장 정도일 때가 적기이다. 풋호박이나 애호박을 줄 유인재배 할 때 이랑 폭은 1.5~2.0m, 주간거리는 45~60cm가 적당하다. 정식 직후에는 밤 온도를 최소한 15~18℃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고, 활착하면 낮 온도 23~25℃, 밤 온도 12~15℃로 유지해 준다. 관수는 정식할 때 물을 충분히 주어 활착을 촉진하고 활착한 후에는 관수량을 적게 하여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지 않도록 한다. 호박 재배는 어미줄기와 아들줄기를 각각 1개씩 기르는 방법이나 아들줄기만 2줄 기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유인하고자 하는 줄기가 결정되면 그 외의 측지를 초기에 제거해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막아야 한다.



호박 | 서울 종로구 | 2020 | 류하완

호박 착과(수분)에 알맞은 온도는 16~23℃이며, 30℃ 이상의 고온에서는 꽃가루의 발아력이 감퇴하여 착과율이 낮아진다. 인공수분이 어려운 경우 착과제를 개화 당일이나 전날 발라주면 쉽게 착과시킬 수 있다. 청과용 호박의 경우 토마토톤(50배 희석액)과 지베렐린(50ppm)의 혼합액을 주두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주간 기온이 30℃가 넘으면 토마토톤은 100배액으로 농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청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키니, 애호박, 풋호박은 개화 후 7~1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나 저온기에는 15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숙과용 호박은 완숙까지 40~60일 정도가 걸린다.

특징 및 의의 호박은 대부분 청과 또는 숙과로 이용되며 어린잎과 줄기, 꽃도 식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숙과인 청과의 이용이 특히 많다. 숙과의 당분은 소화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다. 호박씨에는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다. 또 호박씨가 혈압을 낮게 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촌충구제와 천식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다. 이 외에 기침이 심할 때 호박씨를 구워서 설탕이나 꿀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좋고 젖이 부족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술길잡이141-호박(농촌진흥청, 2018), 먹고 보고 즐기는 호박(박동금 외, RDA인테러뱅82, 농촌진흥청, 2012), 농사로(nongsaro.go.kr).

필자 김태복(金兌福)

혼작
混作

정의 특정한 경작지에서 생육 기간이 거의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주작물과 부작물의 구분 없이 심어 동시에 재배하는 농업의 방식.

내용 근대 농학의 학문적 개념으로 혼작混作, mixed cropping이란 주작물과 부작물의 구분이 없이 단일한 경

작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작부체계를 가리킨다. 참깨와 팥, 녹두와 참깨, 혹은 밭벼와 기장과 팥을 함께 재배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제 혼작이라 일컬어지는 농경의 실태를 보면 곡식 작물이 중심이 되는 경작지에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만큼 수요가 없고 생장 기간도 다소 상이한 작물을 그보다 드물게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식, 즉 학술용어로는 간작에 가까운 방식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한 두둑 위에 조나 콩과 팥을 네 줄로 심고, 이후에 중간에 수수나 참깨 또는 들깨 등을 한 줄로, 그것도 드문드문 심는 식이다. 근경 밭에서 행해지는 전형적인 혼작 농법인데, 주작물과 부작물의 구별이 뚜렷함에도 이를 간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개념 정의는 물론 논의 구도 자체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주작물과 부작물의 구분 없이'라는 서술을 그 정의에서 삭제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처럼 정의를 수정해도 개념 구분이나 논의 구도에 여전히 모호함이 남는다는 점이다. 이는 개념을 정의하는 근대적 학문체계와 우리 역사 속의 실제 기술체계가 서로 구성원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개념 정의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혼작의 방식으로는 애초에 종자를 혼합해서 뿌리는 식으로 경작하는 혼파混播, 특정 작물이 우세한 두둑에 드문드문 다른 작물이 자라도록 혼작하되 종자를 흩어서 뿌리는 난혼작亂混作과 점점이 심어 나가는 점혼작點混作, 골을 파서 줄뿌림[條播]을 하되 줄마다 종자를 바꾸어 가며 혼작하는 줄혼작[條混作] 등이 있으며 이 중 두 가지를 결합하여 경작하는 혼작도 있다. 그 외에 한 경작지 안에서 두둑 하나나 둘을 단위로 작물을 바꾸어 가며 심는 교호작交互作, 단작單作을 하는 특정 경작지의 가장자리 또는 바깥 경계공간에 다른 작물을 심는 주위작周圍作 등은 혼작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혼작과는 구별되는 범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혼작 농법은 다양성이 주요한 특징인데, 그 중 가장 우세한 방식인 두둑 위에 점혼작 하는 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쟁기질을 네 번 해서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조나 콩 또는 팥을 주작물로 하여 네 줄로 점뿌림[點播]한다. 이 주작물의 파종처는 한쪽 발의 뒤꿈치로 찍어서 만든다. 이어서 파종처에 씨를 떨구고 흙을 덮을 때는, 씨를 떨군 사람이 연속동작에 의해 다른 쪽 발의 바닥으로 흙을 툭 쳐서 덮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서 고무래·발고무래 등으로 덮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 근경(그루갈이) 밭의 파종법과 같다. 혼작은 그 두둑의 중앙에 주작물 두세 그루에 한 그루 정도로 간격을 띄워서 점뿌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외에 여섯 번 쟁기질하여 매우 폭이 넓은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네 줄로 조나 콩·팥 등을 파종하고 이어서 두둑의 양쪽 가장자리에 다른 작물을 한 줄씩 심어(이를 '부룩 박는다'라고 한다) 모두 여섯 줄의 파종렬을 만드는 방식도 있다.

특징 및 의의 15세기 전반의 저술인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혼작의 방법이 단지 세 가지만 실려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말의 상황을 전하는 『천일록千一錄』에는 좋은 밭에서는 혼작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토박한 밭에서는 종자와 똥거름, 오줌거름을 비벼서 파종하는 방식을 쓴다고 적었다. 1400년대에 구사되던 혼작 방식이 실제로 세 가지뿐이었을 리는 없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혼작이 널리 확산된 점만은 분명하다.

혼작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농사직설』에는 여러 곡식을 섞어서 심으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이 닥쳐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은 없다고 하여 재해에 따른 위험분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후 근래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작물 조합만 적절히 한다면 단작보다 혼작의 생산량이 우세하고, 수박밭에 양파를 혼작하는 식으로 하여 병충해의 방제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벼과 목초와 콩과 목초의 혼파처럼 작물의 영양 가치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혼작 농법을 농업기술 미발달의 시대에 팽배했던 원시농업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화학적 방제와 시비·제초 등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줄여 나가는 미래농업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농업대사전(김익달, 학원사, 1978), 전작-4판(조재영 외, 향문사, 2001),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最新農業技術事典(農業·生物系特定産業技術研究機構, 山漁村文化協会, 2006).

필자 안승택(安勝澤)

홀태

정의 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둬들일 수 있는 농사 연장.

내용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에는 훑기와 떨기가 있다. 하지만 훑기보다는 떨기를 전통적으로 많이 하였다. 훑는 것이 떠는 것과 비교할 때 대개 노동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력으로 하는 벼타작은 훑기보다는 떨기 방식인 개상질로 주로 하였다. 개상질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타작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상질로 한 타작은 완전히 떨어내기 어려워 낟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홀태를 이용해 남은 낟알을 마저 훑는다. 그런 점에서 훑기는 떨기에 비해 알뜰하게 낟알을 남김없이 거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떨어서 타작하면 낟알이 이리저리 튀거나 흩어지는데 훑어서 수확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훑기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홀태를 이용하면 적은 양의 이삭을 손으로 쥐고 일일이 훑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홀태를 이용해 많은 양의 곡식을 한꺼번에 훑기는 어렵다. 그래서 홀태의 사용은 타작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홀태는 달리 벼훑이, 훌치개, 홀태, 훌추이, 홀대 등으로도 부른다. 이들 명칭은 주로 벼를 훑는 데 사용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형태상으로 구분할 때 홀태에는 손홀태와 가락홀태가 있다. 손홀태는 손 모양을 닮은 데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고, 가락홀태는 두 가락으로 된 홀태이다. 손홀태는 손바닥만 한 나무판자를 이용해 빗살을 깎은 빗 형태가 있고, 대나무로 살을 깎아 여러 개를 겹쳐서 손 모양을 만든 것도 있다. 손홀태는 모두 빗살 사이로 벼 이삭을 넣고 빗어서 알곡을 훑는다. 그리고 가락홀태는 쪼갠 대나무나 철사·수수깡 등을 반으로 접어 집게처럼 만든다. 사용방법은 집게로 벼 이삭을 잡고, 잡은 상태에서 훑으면 알곡이 떨어져 나온다.

홀태를 이용해서 벼를 탈곡하면 한 명이 하루 한 가마 정도를 훑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벼를 타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풋바심을 할 때나 소량의 벼를 훑을 때 유용하였다. 풋바심은 채 익기 전의 벼나 보리를 지레 베어 떨거나 훑는 것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가난한 농민들은 풋바심으로 끼니를 때운 경우가 많았다. 가을 추수는 아직 이르고 봄에 수확한 보리나 밀은 다 떨어져 양식이 부족할 때 논을 둘러보아 먼저 여문 나락 이삭을 드문드문 베어서 홀태를 이용해 훑어 양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풋바심이다. 풋바심할 때는 탈곡할 나락의 양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홀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타작 후 채 떨지 않은 이삭을 주워 골라서 훑을 때도 홀태를 이용하였고, 씨앗용인 씨나락을 준비할 때도 홀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홀태는 타작의 보조 기구로 주로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홀태의 어원은 '훑다'이다. 그러므로 홀태는 '훑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벼를 비롯한 곡식의 이삭을 훑어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도구라는 뜻이다. 훑어서 곡식의 알곡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떨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교하다. 이삭의 낟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훑어서 거둬들일 수 있다. 따라서 홀태와 같은 도구는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때는 개상처럼 떨어서 수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홀태 중에서 손홀태는 달리 손그네라고도 하는데, 손홀태가 보다 능률적으로 발달한 연장이 그네이기 때문이다. 손홀태의 빗살은 열 개 남짓한데, 그네는 그 배가 된다. 손홀태는 손으로만 사용할



① 가락홀태 | 한국의 농기구 | 박호석·안승모 | 어문각
② 손홀태 | 너비8 길이2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수 있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네는 발판까지 있어서 생산성이 훨씬 높다. 이런 이유에서 도구사적으로 손홀태에서 그네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탈곡도구의 변천 개관(권진숙, 한국의 농경문화4, 경기대학교박물관, 1994),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김재호(金在浩)

홈통

정의 농업용, 생활용, 조경용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통나무나 대 따위에 길게 홈을 파서 물길을 연결하는 시설.

개관 홈통은 수로가 발달하지 않은 농경지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설치한 전통적인 관개시설의 하나로, 주로 홈을 길게 판 통나무와 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와 서호수의 『해동농서海東農書』 등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이전부터 널리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남부 산악지역의 계단식논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농업용수 외에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개울의 물길을 집안으로 돌릴 때도 홈통이 이용되었으며,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한 물을 끌어올 때도 홈통을 자주 이용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원림이나 정원 등지에 인공 못을 조성한 후, 그곳으로 물길을 돌리기 위해 홈통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홈통을 따라 흘러온 물이 연못에 이르면 수차水車를 돌리기도 하였고 물확과 같은 조경물에 떨어진 물은 물고기들을 모으기도 하였다.

내용 평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댈 때는 수로를 이용하였고,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대어야 할 때는 맞두레·용두레·물풍구·무자위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폭이 좁은 계곡이나 개울을 가로질러 건너편에 있는 논에 물을 대야 할 때는 반드시 홈통이 필요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산을 넘겨 논에 물을 대기도 하였는



가조 | 임원경제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세기 형성된 화순 이서면 영평리 홈통 | 전남 화순 | 2017 | 정명철

데, 나무나 대로 만든 홈통이 물길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홈통은 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를 길게 잘라 속을 파내거나 대나무를 길게 쪼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옛 문헌에는 홈통을 견간·죽간·연통·가조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높이 띄워 물을 나른다.'라는 뜻으로 비구飛溝라고도 불렀다.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에는 무등산 중턱에서부터 10㎞가량 이어지는 봇도랑이 남아 있는데, 폭포에서 흘러내린 물길을 돌려 농경지까지 끌어오기 위해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한 홈통이 지금도 남아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곳의 홈통과 봇도랑은 14세기 진주 강씨와 광산 이씨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무려 600여 년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해 온 소중한 농업용 관개시설인 셈이다. 그 덕에 이 마을에서는 극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에는 '홈거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300여 년 전 노盧씨 일가가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산기슭에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홈을 길게 판 통나무를 설치하여 물길을 연결했는데, 이런 나무 홈통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마을의 명물이 되어 '홈거리'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의 '홈태골' 역시 골짜기가 많아 홈통을 이용해 물을 논으로 끌어오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도 홈통으로 물을 대던 보가 있어 '홈대거리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홈통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림과 정원의 인공 못에 물을 끌어올 때도 홈통이 자주 이용되었다. 양산보梁山甫(1503~1557)가 조성한 전남 담양의 소쇄원에는 통나무의 속을 파낸 홈통 하나가 계곡을 가로질러 놓여있다. 오곡문을 지나 담장 안으로 들어온 계류溪流가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 홈통을 타고 흐른 물줄기 하나가 대봉대를 지나 작은 연못으로 이어진다.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에는 대를 쪼개 만든 홈통이 남아 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강진 유배 시절에 제자인 황상에게 보내는 글에 "뜰에 조그마한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붕어를 기르며, 왕대를 쪼개 속을 긁어내 홈통을 만들어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가 못에 댄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곳곳의 원림과 정원에서 나무나 대로 만든 홈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홈통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개시설일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급을 위해서도 자주 사용된 수리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곡이나 도랑과 같은 장애물을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물길을 돌려야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현재는 대부분 콘크리트 농수로나 PVC 파이프로 대체되었지만, 농경지가 작은 산간지역에서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유홍준, 창비, 2012), 제황상유인첩에 나타난 다산의 정원상(정수진, 한국조경학회지46-5, 한국조경학회, 2018), 자연적 폭포 많은 사찰에 인공폭포 적어(홍광표, 현대불교, 2012), 김봉아 기자의 농촌 문화유산 답사기3(김봉아, 농민신문, 2016.5.20.), 영양군청-문암리의 이름과 유래(yyg.go.kr).

필자 정명철(鄭明哲)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정의 조선 후기에 만든 보의 수로와 보 주인의 이름을 바위에 새긴 명문.

내용 동창보수로東倉洑水路 및 암각명巖刻銘은 강원도 기념물 제65호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 204-6번지 일원에 있다. 동창보東倉洑와 수로는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동창마을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받으려고 1800년 무렵에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내촌천에 설치한 보에서 이어지는 수로는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동창마을까지 약 4㎞ 거리에 걸쳐 만들어졌다. 수로의 일부 구간은 하천과 접하는 바위벽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만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로의 중간 지점의 바위벽에 '보주洑主 김군보金君甫'라는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김군보가 사재私財로 동창보와 수로를 만들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은 산간지역으로 평지가 적고 경사지가 많아서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 동창보 하구인 동창마을 일원에는 넓은 평지가 발달하여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동창마을은 내촌천과 접하지만 지형 조건 때문에 내촌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강우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고 생산량도 적었다. 그러다가 동창보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생산량도 많아졌다고 한다. 동창보는 김승중金承中이라는 사람이 관리하였다고 전해지며, 매년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개수開水할 때 산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올려 보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한다.

조선시대에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작농自作農과 전주田主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小作農이 있었다. 당시에는 소작농과 자작농 모두 공동으로 보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업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보를 국가의 것이라고 하면서 탐관오리들이 물세를 가혹하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만석보처럼 보는 여러 지역에서 농민 착취의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동창보는 주인이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 후기 동창마을의 벼농사를 자작농이 경작하였는지 소작농이 경작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자작농과 소작농 모두 김군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홍천 동창보 암각명 | 문화재청

한편 바위벽에 새긴 글씨는 마을 주민들이 새겼다고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동창보 수로 주변에 세운 감은비感恩碑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김군보는 다른 마을에서 살다가 동창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창마을의 농경지가 좁고 관개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농경지를 개간하고 보를 만들어 관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후 농경지가 더 넓어져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마을 유지들이 바위에 '보주 김군보'라는 글씨를 새겼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김군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를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에 개인이 만든 보와 수로 등 관개시설의 모습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또한 관개를 통해 농경지의 생산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와 당시 관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홍천 동창보 수로 및 암각명(강원향토문화연구회, 강원문화재대관, 강원도, 2006), 보주김군보(치집)공감은비(1998), 국가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필자 김도헌(金度憲)

화전
火田

정의 경작지가 아닌 산이나 들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 또는 그 농지.

역사 농경의 기원과 함께 시작된 원시적인 농사법이 화전이다. 초목이 자라던 땅은 겉흙이 부드러워 갈이

를 할 필요가 없고 오랫동안 낙엽 등의 유기물이 축적되어 토양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초목을 태운 재가 비료가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란다. 특히 잡초 발생이 적어 김매기가 필요 없어서 농사가 아주 쉽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농사를 '화경火耕'이라 하였고, 일본에서도 논밭을 가리켜 화전을 뜻하는 '전畑'이라 할 만큼 고대의 화전은 일반화된 농사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토지를 수전水田·한전旱田·화전火田 등으로 나누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화전에도 조세를 부과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전도 공인되는 농사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 숙종 대에 화전의 폐해를 들어 이를 금지하자는 상소에 대하여 임금은 '백성들의 실업失業·이산離散·기아飢餓 등을 고려하여 화전을 금지시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8년에 전국의 화전 면적은 15만 4,000정보였으나 1938년에는 44만 2,000정보로 3배가량 증가하였고, 화전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도 3만 4,000호에서 7만 5,000여 호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당시 화전은 대부분이 평안도·함경도·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부 이남지역에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1955년에 조사된 화전 농가는 전국(남한지역)에 총 3,088호에 불과하였으나 1961년에 6,427호, 1967년에는 1만 7,200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이후에 민생이 얼마나 피폐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1968년에 이르러 정부가 화전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화전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전정리법〉을 공포하면서 당시 주로 강원도 지역에 남아 있던 화전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법령으로 화전을 금지하였다.

내용 화전은 지면의 평탄하고 돌이나 큰 나무가 비교적 적은 곳, 비탈이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나고 완만한 곳, 토심이 깊고 낙엽 등의 유기물 축적이 많은 곳 그리고 1,000~3,000 평 정도의 면적이 되는 곳을 적지로 선정한다.

화전할 곳을 정하면 지표면에 자라고 있는 수목을 불로 태워 제거하는데, 불을 놓기 전에 큰 나무는 미리



화전 | 강원 평창 | 1974 | 국립민속박물관

껍질을 벗겨 말라 죽게 하고 작은 나무들도 베어서 말린다. 이를 화전벌채라고 하는데, 보통 여름에 벌채하여 가을·겨울 동안 말렸다가 이듬해 봄에 태운다. 불을 놓을 때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갈퀴나 괭이로 바닥을 긁어내거나 얕은 고랑을 만들어 경계선에 1m 정도의 폭이 있는 방화대를 만든다.

보통 4~5명이 함께 불을 살피면서 비탈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태우는데, 반쯤 타면 아래쪽에서 위로 맞불을 놓아 불을 합치게 한다. 보통 하루 종일 태우지만 경우에 따라 2~3일간 태워야 할 때도 있다. 초목이 타고 나면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재가 토양에 스며든 후에 경작한다.

처음 만든 화전을 '부덱이'라고 하는데, 이듬해부터는 '화전밭'이라고 부른다. 화전은 보통 3~4년간 부치다가 땅심[地力]이 떨어지면 5~6년 동안 휴경한다. 그런 다음 다시 불을 놓고 경작하는데, 이를 윤경輪耕한다고 한다. 그리고 휴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하는 밭을 산전山田 또는 숙전熟田이라고 하며, 화전이 숙전이 되면 화전민이 한곳에 정착하게 되지만 토양이 척박해서 숙전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화전을 마련한다.

화전 첫해에는 보통 조나 감자를 파종하고, 이듬해에는 귀리나 수수 등 그리고 3년째는 땅심을 돋구기 위해 콩을 심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경작한다. 그러나 화전의 작부체계는 지역이나 농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화전의 비옥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화전은 작물을 파종하고 나면 수확할 때까지 솎아

주기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쉽다. 토양이 부드럽고 비옥하여 쟁기질이 필요 없고 김을 맬 필요도 없어서 화전 농가에서 사용하는 연장이라야 극젱이·괭이·쇠스랑·호미·낫·도리깨 등이 고작이다. 그런데다 화전 첫해인 부덱이 때의 수확량은 숙전에서보다 20~30%나 많다.

특징 및 의의 농경기원과 함께 화전을 하였다고 하지만, 산림을 태워야 하는 화전은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근절해야 했던 농사법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1970년 초반까지 화전이 남아 있던 이유는 일제나 국난을 피해 은둔하거나 생활이 곤궁한 극빈층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함경도 갑산 지방의 화전민 1,449호를 조사한 결과 화전을 하는 이유가 소출감소·화재·채무·사업실패 등이라고 했지만, 상당수는 일제나 지배계층으로부터 핍박이나 수탈을 피해 은거하려는 계층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전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급증한 이유는 화전 과정에서 나오는 통나무로 쉽게 집(귀틀집)을 지을 수 있는 데다 특별한 농사기술이 없어도 뿌리고 거두면 되고 농사에 별다른 연장도 필요하지 않은 등의 이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전 첫해가 소출이 많아 새로운 화전을 일구게 되고, 결국은 산림의 황폐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8년 산림녹화와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화전정리법〉을 공포하고 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강원도 산간에 주로 남아 있던 화전민들을 새로 조성한 정착지로 이주시키고, 주택지원과 함께 축산·잠업·양묘·양봉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광산이나 도시 근로 등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정착시켰다. 특히 화전민 자녀의 교육과 취업까지 챙기면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1970년대 말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화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원도 화전지역의 농업기술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박호석, 농협경제연구23,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00), 농림통계연보(농수산부, 1955~1980), 한국의 화전농업에 관한 연구(옥한석, 지리학연구10, 한국지리교육학회, 1985), 화전정리사(강원도, 1976), 農林統計(朝鮮總督府, 1937).

필자 박호석(朴虎錫)

화학비료
化學肥料

정의 대기성분이나 광물질을 원료로 화학적 공정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비료.

역사 농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비료에는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가 있다. 유기질비료는 각종 동식물성 찌꺼기나 이를 부식한 비료인데 반해 무기질비료는 인공으로 제조한 화학비료이다. 화학비료의 3대 영양소는 질소, 인, 칼륨이다. 이들 원소 자체는 식물을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형시켜 비료로 만든다. 주목할 점은 청대 호위胡渭가 『우공禹貢』을 역주할 때 "똥은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벼 줄기가 푸르고 무생해진다. 철은 잎의 성장을 재촉하고, 유황은 벼 줄기가 건장하여 창고가 가득 찬다."라고 한 절강의 민가民歌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적어도 명말 청초에는 농가에서 이미 질소, 칼륨 같은 영양소를 알지 못했지만 유기질 비료가 지닌 생리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시도는 19세기 이후 계속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조 비료인 과인산석회가 생산된 때는 1843년이었다. 독일의 리비히Liebig가 1840년에 비료의 3요소를 제시한 이후, 공중 질소의 고정에 의한 인조 질소 비료의 제조가 활발해졌고, 1906년에 석회질소, 1909년에 암모니아 합성법을 발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1913년에는 질소 비료의 제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본이 명치明治(메이지)시대 후기에 화학비료에 주목한 이유는 저렴하고 속효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석회를 시작으로 점차 남미산의 해도분海島糞과 인산비료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명치 정부는 벼농사 수확량의 증대를 위해 다비다수多肥多收의 노선을 취하였고, 명치시대 후기에 도입된 유안硫安(황산암모늄)이 효과를 보자 질소, 인산, 카리(칼륨)라는 단일비료를 이용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차 화학비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일본의 과인산석회는 명치 21년(1888)에 제조되었으며, 또 유안의 본격적인 제조는 동 43년(1910)부

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1904년에 광주廣州를 통해 질소비료를 수입해서 사용하였으나, 1924년까지 화학비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연간 소비량도 적은 일종의 선전단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20년대 중국의 각종 화학비료 상표는 100여종에 달했으며, 그중 영국과 독일의 판매량이 가장 많았다. 화학비료의 소비는 연해지역의 성省이 대부분을 점하였으며, 주로 벼농사에 활용하였다. 중국이 화학비료에 주목한 이유는 유기질비료보다 용적이 적고 깨끗하며, 운반과 취급이 간편하며 노동력이 절약되고 속효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화학비료가 농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유기비료의 용량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 중국 화학비료의 생산량과 사용량이 모두 세계 제1위로 도약하게 되었다.

내용 1881년에 편찬된 『농정신편農政新編』은 서구의 농학을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본서의 「토성토질론土性土質論」에는 칼륨, 소다, 마그네슘, 산화망간, 염소(클로린), 브롬(브로민), 요오드(아이오딘), 불소(플루오린) 등의 원소명을 영어식 한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거름의 종류[糞苴法]」에도 이전에 볼 수 없던 광물성 비료인 염초, 토유황土硫黃, 홍비석紅砒石, 홍비광紅砒鑛, 비광회砒鑛灰, 신석회新石灰, 천사川砂, 결석結石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융희 2년(1908)에 편찬된 『실리농방신편實利農方新編』에서는 다양한 비료 중 식물에 가장 필요한 비료원소는 질소와 인산이고, 요소, 산소, 수소, 석회, 소다는 그 다음이라고 하여 비료를 화학원소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질소, 인산, 요소, 석회와 같은 화학비료를 제시하면서 동·식물비료보다 광물비료를 우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수재배법果樹栽培法』(1909)에도 화학비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용량은 적어도 식물의 양분 함유량이 많으며, 그 양분이 물에 잘 용해하는 성질이 있어 효과가 극히 좋아 결핍한 양분을 보충하는 데 가장 편리한 비료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용 시기는 토양과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인산석회나 칼륨 등은 가을철에 사용하고 암모니아염이나 질소비료는 봄철에 사용함이 좋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학비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식민지시대 일본인의 눈에 비친 당시 한국의 비료 상황은 이전의 자급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1910년부터 부산에서 유안을 제조하고 1927년 흥남 질소비료공장이 건설되면서부터 질소의 공급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인산과 칼륨의 복합비료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게다가 황산암모니아는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일제日帝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1920년대에는 비료 유통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 후 수력전기의 개발에 따라 1930년에는 흥남에 유안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었고, 그 외에 유인안硫燐安, 석회질소(1936), 염안鹽安(1941)도 생산되었다. 1960년대에는 비료의 국내자급을 위해 비료공장 증설에 힘써 충주비료공장과 호남비료공장에 이어 삼척의 석회질소공장(1964), 장항의 용성인비공장(1966)이 설립되었으며, 뒤이어 제3, 제4의 대단위 비료공장도 준공되었다. 1977년에는 여수에 제7비료공장이 준공되어 국내비료의 생산능력은 300만t에 도달하여 완전자급과 아울러 연간 50만t의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로는 '3요소 균형 시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복합비료 증산책이 추진되었다.

특징 및 의의 화학비료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균일한 품질로 속효성이 있어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화학비료가 토양의 산성화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



조선질소비료공장 흥남공장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적되고 있다. 게다가 비료가격보조정책이 2005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만약 화학비료의 효능을 경시한다면 협소한 농경지에 식량자급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도 곤란하다. 화학비료의 토양 오염과 산성화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농정신편(농촌진흥청, 2002), 식량안보와 무기질 비료(한국비료협회, 2019), 화학비료 다시 보기(이상은, 토양과 비료19, 한국토양비료학회, 2004), 近代江南地區化肥和有機肥使用變化研究(過慈明·惠富平, 中国農史 2012.1.), 我国化肥施用與研究簡史(曹隆恭, 中国農史, 1989.4.), 中国稻作史(游修齡, 中国农业出版社, 1995). 國史大辭典3(吉川弘文館, 1994).

필자 최덕경(崔德卿)

화훼
花卉

정의 정원, 분화, 공간장식, 꽃 장식품 제작 등의 소재로 쓰이는 꽃이나 잎 등이 아름다운 식물.

역사 화훼는 꽃이나 관상식물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도 강희안姜希顔(1419~1465)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꽃이라 하였고, 신경준申景濬(1712~1781)은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에서 화훼라고 하였다. 화훼는 관상의 즐거움뿐 아니라 정서를 순화하고 맑은 공기와 녹색, 그늘을 제공하는 등 유용성이 크다. 화훼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취미로 즐기는 취미원예, 녹색환경 조성의 도시원예, 원예치료와 여가활동 지원의 사회원예, 영리 목적의 화훼원예로 발달한다. 우리는 화훼원예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구석기시대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국화·붓꽃·진달래꽃과 단풍나무·소나무·주목·쥐똥나무 가지로 동굴 안을 장식하고 국화꽃으로 아이의 죽음을 추모하였다. 신석기시대에는 물봉선·복사나무 등이 움집 주변에 나타난다. 철기시대 유물에는 고사리무늬가 나타난다.

삼국시대 왕궁에는 연못을 만들고 못 둑에는 버드나무를, 가산에는 화초를 심었다. 절에는 연꽃이 피는 연지를 만들고, 절·왕릉·정자 주변에는 대나무·산수유·소나무 등을 심고, 돌항아리에서 석창포를 수경재배하고 용기에서 소나무를 길렀다. 연꽃으로 실내장식을 하고 갈댓잎으로 관장식을 하고, 댓잎을 귀에 꽂은 죽엽군이 나타나고, 만병초 꽃가지로 머리 장식을 하고, 연꽃과 모란꽃 등으로 꽃꽂이를 하였다. 진달래꽃 가지 등을 선물용으로, 연꽃 등은 불전 공양에 쓰였다. 국화와 매화는 일본으로, 동백과 석류는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온 모란과 차나무 씨앗은 궁궐 정원과 지리산에 심고, 부석사 마당에 꽂아둔 지팡이는 비선화수로 자랐다. 삼월삼짇날 궁인들은 꽃을 꺾으며 봄놀이를 하고, 왕은 신하들과 음주 가무를 곁들인 꽃놀이 또는 뱃놀이를 즐겼다. 귀족들은 사철 다른 별장에서 노니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대 궁궐에서는 연못에 연꽃을 심고 가산과 정원에 초화와 나무를 심었다. 민간에서는 정원에 맨드라미·부용·서향·아그배나무·작약·장미·창포·패랭이꽃·홍매·황매화 등을 심고, 국화·난초·매화·맹종죽·석류·석창포·소나무·포도 등의 분화를 길렀다. 분갈이를 하고, 조리개로 물을 주고, 빛이 드는 움집에서 겨울에 매화꽃을 피우고 초화를 월동하였다. 연등회·팔관회·기로연 등의 궁중 연회 때에는 큰 분화와 버들가지·연꽃·연꽃봉오리 등을 꽃병과 수반에 꽂아서 공간장식을 하였으며, 큰 통에 담아둔 꽃가지를 왕·태자·신하 순으로 머리에 꽂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왕은 연로한 대신에게 꽃을 하사하였다. 꽃바구니가 등장하고, 모란꽃·연꽃 등을 선물이나 공양용으로 썼다. 봄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음식을 싸서 경치 좋은 곳에서 음주 가무와 꽃놀이를 즐겼다. 삼월삼짇날에는 풀을 밟는 답청을 하고, 여름에는 연꽃을 감상하며, 중양절에는 산에 올라 단풍과 국화꽃을 감상하고 국화주와 국화전을 즐기고, 겨울에는 대나무·동백·서향·소나무 등을 감상하였다. 홍·자·백색 국화, 겹꽃 동백, 겹꽃 홍·백색 매화, 백·적색 모란, 겹꽃석류, 홍·백색 연꽃, 적·자·홍·백색 작약, 황·자색 장미 등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궁궐 정원의 가산에는 느티나무·단풍나무·반송·부용·소나무·왜철쭉·은행나무·향나무·황매화·회화나무 등을 심고 연못에는 홍련·수련 등을 심었다. 선비들은 자연을 즐기고 마음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꽃을 가까이하고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자 바깥마



화훼 단지 | 경기 수원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당, 사랑마당, 안마당, 후원, 별당마당이 있는 우리 고유의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에는 낙엽수인 개나리·능소화·단풍나무·등나무·매화·명자나무·모란·목련·무궁화·박태기나무·배롱나무·백목련·벽오동·부용·불두화·산벚나무·산수유·영춘화·은행나무·자귀나무·자목련·장미·조팝나무·진달래·찔레·해당화·황매화 등, 상록수인 관음죽·사철나무·소나무·소철·솜대·종려·주목·차나무·참대·철쭉·측백나무·탱자·향나무·회양목 등, 초화인 감국·과꽃·금잔화·나팔꽃·달리아·맥문동·메꽃·백일홍·범부채·봉선화·붓꽃·산국·색비름·수국·수선·양귀비·여주·옥잠화·작약·접시꽃·참나리·채송화·천일홍·파초·패랭이꽃·한련화·하늘나리·해바라기 등, 과수인 감·능금·다래·대추·밤·사과·산돌배·살구·석류·앵두·오얏·잣·포도·호두 등을 심었다. 그리고 연못에는 마름·부들·수련·연꽃·창포 등의 수생식물을 심었다.

정조는 궁궐에서 수백 개의 분화를 키우고, 민간에서는 검정대·국화·귤·노송·단풍나무·서향·석곡·석류·석창포·수선·연꽃·작약·춘란·풍란·혜란 등의 분화를 재배하였다. 분화를 방안에 두고 자연을 상상하며 누워서 즐기기도 하고, 움집·온돌방·욕실에서 매화꽃을 일찍 피우거나 늦게 피우고, 줄기에 종이를 감아서 미량 관수하며, 국화는 키를 크게, 소나무 등은 작게 키우고, 오색국화와 큰 옹기에서 오색연꽃 등의 희귀한 화훼를 만들었다. 한양에서 삼색국화, 밑동이 굵고 열매 달린 매화·살구·대나무·소나무 분화는 비싸게 거래되는가 하면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귤·동백·배롱나무·왜철쭉·유자·종려·진달래·치자 분화는 최고의 환전 식물로 부르는 게 값이었으며, 왜철쭉은 평양에서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궁중의식 때에는 큰 꽃병에 꽃을 꽂아두고 참석자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주인공에게 국화꽃 등을 바치거나 흩뿌리고 왕은 꽃을 하사하였다. 전통혼례나 축하연 때에는 음식상을 분화로 장식하고, 봄에는 동백·모란·영춘화,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대나무·사철나무·소나무 등을 큰 꽃병과 수반에 꽂아서 공간장식을 하였다. 봄철에는 남녀가 어울려 개나리·능금·배·복사·산수유·살구·앵두·오얏·진달래꽃 등이 피는 들에서 꽃을 감상하고 음주 가무와 꽃놀이를 즐겼다. 황·백 등의 오색 겹꽃동백, 겹꽃무궁화, 백도와 벽도, 홍색 왜철쭉, 흰 장미와 흰 진달래 등이 나타난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에는 정원용과 분화용 수

요가 증가하고, 꽈리·분꽃· 선인장·심비디움 등이 외국에서 도입된다. 또 신식결혼식의 시작으로 화환, 꽃다발, 부케 등 꽃 장식품 제작에 필요한 장미·카네이션 같은 사철 꽃이 피는 절화 수요도 증가한다. 이에 필요한 절화와 분화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근교화훼원예가 시작된다. 광복 후에는 호텔·사무실·고급식당에서 꽃으로 공간장식을 하였고, 일부 여성들이 취미활동과 정서교육으로 꽃꽂이를 하였으며, 어머니날과 졸업·입학 선물로 꽃을 썼다.



화훼 단지 | 농촌진흥청



화훼 단지 | 농촌진흥청



화훼 단지 | 경기 수원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1970년부터는 묘목, 분화, 절화의 형태로 가정용, 업무용, 복지용, 행사용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가정용은 개인이 취미나 오락으로 즐기기 위하여 정원을 만들고 분화를 기르고 테라리움이나 물병재배, 꽃꽂이를 하고 꽃을 선물하는 등의 원예활동이다. 업무용은 호텔, 병원, 식당, 카페, 사무실 등의 실내장식, 종교단체의 성전장식, 호텔 로비 등 큰 실내공간의 대형 꽃꽂이나 정원 조성, 큰 건물의 옥상정원 조성, 건물주변의 분화장식 등이 있다. 복지용은 꽃길, 꽃동산, 꽃마을, 작은 공원, 지하철역 정원 조성, 꽃 축제, 원예치료, 여가활동 지원 등이 있다. 행사용은 돌잔치·결혼식·장례식·각종회의·축제·부활절·석탄일 등의 특별한 날에는 실외에 꽃 탑을 설치하고, 식장입구에 화환을 두고, 식장 안에 분화와 절화로 테이블, 통로, 벽 등의 공간장식을 하고, 행사주체는 코르사주로 의상 장식을 한다. 특히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화관과 부케, 신랑의 부토니에르 등으로 몸과 의상을 장식하고, 장례식장에서는 고인께 헌화를 한다. 생일·어버이날·스승의 날·개업식 등에는 분화·꽃다발·꽃바구니·압화·건조화 등을 선물한다. 행사용 꽃 소비는 전체 꽃 소비의 80~90%이다.

꽃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화는 유통이 편리한 대도시 근교에서, 절화는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화훼단지가 형성되어 분화와 절화를 사철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 본격적인 화훼원예의 시작으로 조상들이 과거에 즐기던 화훼와는 다른 모습이다. 생산품목으로는 화단용인 단풍나무·왜철쭉·진달래·회양목 등의 화목과 팬지·피튜니아 등의 초화, 분화용인 고무나무·다육식물·선인장·포인세티아·호접란 등과 절화용인 거베라·국화·글라디올러스·오리엔탈나리·장미·카네이션 등 수백 종이 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화훼는 일부 화단용을 예외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다. 대부분의 절화와 분화는 온실과 비닐하우스에서 촉성이나 억제재배 등으로 사철 생산되고 있다. 절화는 바이러스 무병묘목과 절화의 분업생산, 분화는 저면관수, 양액재배, 왜화재배, 왜성재배 등의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화훼산업은 생산, 유통, 활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자는 상당한 시설과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꽃을 연중생산하고, 생산물은 공판장에서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꽃가게에서

는 신선한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꽃장식전문가는 품격 있는 공간장식과 고품질의 꽃장식품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화훼는 토지 생산성이 가장 높은 농작물로 종류가 많고 활용형태와 용도가 다양하다. 종묘회사·교육기관·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자리와 꽃가게·꽃장식학원·화훼장식가 등의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온실과 비닐하우스 건설업체나 화분 및 자재 생산업체 등과의 연계성도 크다. 또 21세기에는 화훼장식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화훼장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제도가 시행되는 등 화훼의 사회적·경제적 역할과 중요성도 커졌다. 그럼에도, 최근 10여 년 꽃 소비는 감소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향, 색깔, 모양, 무늬 등이 있는 특이한 꽃과 미니 화훼 등 주거환경에 맞는 희귀한 품종을 육성하고, 절화의 수명을 연장하고, 참나리 등을 왜화재배하고, 사철 신선한 꽃을 공급하는 등으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서의 화훼재배는 겨울철 저온과 여름철 고온으로 냉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제로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설화훼생산에 필요한 냉난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고랭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이상희, 넥서스books, 2004), 삼국시대의 꽃 이야기(김규원, 한티재, 2019), 삼국유사(일연, 김원중 역, 민음사, 2008), 한국원예발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한국원예학회,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규원(金奎元)

황두

정의 북한 지역의 청천강 하류 열두삼천리벌의 건답에서 행해지던 공동노동조직.

내용 건답직파에 쓰인 황두는 신라시대의 향두가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진 것이며, 남한지역에서 이앙법이 발달하면서 일찍이 사라진 농법이 건답직파를 행할 수밖에 없는 청천강 유역에서 특수하게 잔존한 사례이다. 여러 측면에서 두레와 비교된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북쪽의 청천강 인근에서는 여전히 모를 내는 이앙법 대신 마른 땅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건답직파법乾畓直播法으로 농사지었다. 안주·문덕·숙천·평원을 포괄하는 너르디너른 '열두삼천리벌'이 그곳이다. 황두는 광복 전후 시기까지도 이들 서북에 남아있던 공동노동풍습이었다.

황두와 향도는 밀접하다. 즉 '향'이 '황'으로, '도'가 '두'로 전음된 것으로 보인다. 향도는 노동조직 황두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도-상두'로 변천되어 상두꾼에 잔존된 향도의 유제를 남겼다. 북한의 민속학자 황철산은 향도와 황두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함경도 지방과 그에 인접한 강원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다른 지방의 상여계에 해당하는 조직을 향도라고 하였으며, 평안도 열두삼천리벌을 중심으로 한 논벼를 건직파乾直播 하는 소위 건갈이(함북지역 방언으로 표준어는 '마른갈이') 지대에서는 농번기에 조직하는 김매기를 공동으로 하는 조직체를 황두라고 하였다.

향도, 황두, 상두 그리고 두레와의 연관성 속에서 황두의 위상을 유추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향도로부터 조선시대의 상두꾼과 황두 공동노동조직 등 장기지속으로 이어진 한국사상의 민중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조선 후기 이앙법 확산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두레 역시 북상을 거듭하였다. 평안도 지역은 건답이 그대로 존재한 가운데 이앙법이 확산되었다. 황두 노동관행이 병존한 가운데 두레 관행이 19세기 말에서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이 지역으로 북상하였다. 건갈이 지대에서는 두레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므로 황두가 잔존하였다. 따라서 건갈이 지대에 남은 황두 노동관행은 두레 발생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오래된 노동관행임을 말해 준다.

황두는 마을당 20~30명의 농민이 하나의 작업단위가 되어 김매기 작업만을 수행하였다. 호수가 크면 여

러 개의 편대로 나누어 조직하였다. 한 마을에 한두 개의 황두가 조직되었다. 황두 지휘체계는 농사경험이 많은 황두꾼 중에서 계수契首와 부계수副契首를 역원으로 뽑았으며, 신망 있고 경험 많은 황두꾼을 선출하였다.

주된 작업대상은 김매기이다. 황두가 활동한 계절은 보통 하지부터 김매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였다. 노동활동은 규율이 있고 능률적이었다. 황두 작업은 계수나 부계수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공동노동의 우월성이 발휘되도록 조직되었다. 황두꾼은 새벽에 박주라꾼이 신호용 나팔인 박주라를 불면 이른 시간 안에 일정 장소에 모여 계수의 점검을 받고 작업장으로 갔다. 황두꾼의 모든 행동이 달리기처럼 진행된 데서 얼마 전까지도 평안남도 문덕 지역에서는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을 황두꾼 같다고 말하였다.

황두꾼의 일상 소지품은 호미, 늬역(짚, 혹은 장풍으로 나래식으로 엮은 비옷), 조삿갓(갈로 엮은 삿갓), 겨블(담뱃불) 등이었다. 비옷인 도롱이와 담뱃불인 마른 쑥 뭉치를 들고 다니는 두레 풍습과 동일하다.

물론 주된 작업도구는 호미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하였다. 황두꾼이 쓰던 호미는 남쪽의 두레꾼이 쓰던 섬세한 호미와는 모습이 달랐다. 건갈이 지대에서 쓰였던 '베루개' 같은 호미는 평안도의 고유 호미이다. 황두의 제초작업은 맨땅이라 작업 강도가 고되었다. 따라서 기경 작업만 아니라 제초작업에도 축력을 이용한 '칼거'가 등장하였고 중복 무렵에 비가 와서 물을 댈 수 있게 되면 '물후치질(무논에서 극젱이로 땅을 가는 일을 뜻하는 북한어)'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작업장 이동은 계수契首의 지시에 따라 박주라 소리에 맞추어 이동하였다. 두레는 농기를 들고 다니면서 두레풍물을 쳤지만 황두는 그러한 풍습이 약했다. 악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두레의 나발에 준하는 박주라로 신호를 보냈고 선소리로 일과 놀이를 즐겼다. 황두의 공동식사는 점심과 오후 한때, 즉 오후 3~4시경에 곁두리(참)를 즐겼다. 식사나 휴식이 끝나면 역시 박주라 신호에 따라 일제히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황두를 짜는 회의는 김매기 전이었다. 계수를 뽑는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회의가 있었다.

참고문헌 17·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발생(이태진, 진단학보67, 진단학회, 1988),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조선후기 황두공동노동연구(주강현, 국사관논총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향도에 관하여(황철산, 문화유산2,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

필자 주강현(朱剛玄)

후치

정의 골을 타서 북을 돋우고 김을 매는 연장으로, 주로 밭농사에 쓰지만 더러 논농사에도 이용하는 농기구.

내용 '후치'의 어원은 '홅이'로, 땅을 홅어 엎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천일록千一錄』의 '後峙'는 우리말을 한자의 소릿값에 따라 적은 것이다. 한편 '후치'는 중부 및 중부 이남 지역의 극젱이나 훌챙이에 대한 북한의 사투리이기도 하다. 앞 책에 "밭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후치질이다. 두둑의 흙을 뿌리에 북돋아 주는 덕분에 바람과 가뭄을 만나도 시들거나 쓰러지거나 마르지 않는다. 또 장마가 져도 이랑이 깊어서 물에 잠길 염려가 없다."라고 적혀 있다. 『농가집성農家集成』에도 닮은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널리 쓴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후치는 기원전 8~7세기 유적인 평안북도 염주군 주의리에서 나왔다. 참나무로 깎은 나무후치로, 날 부분이 왼쪽은 얇고 오른쪽은 두터운 것은 흙밥을 지금처럼 왼쪽으로 넘긴 것을 나타낸다. 날을 포함한 바닥은 길이 80㎝이며, 윗부분은 10㎝이다. 한편 근래까지 쓴 평안도의 평보와 황해도의 무리는 후치의 뒤를 이은 것이다.

후치는 밭뿐만 아니라 논에서도 썼으며, 평후치·메후치·도리개후치 등 세 종류가 있다. 평야지대에서 널리 쓰인 평후치는 성에와 45도쯤의 각도로 구부러진 술 끝에 보습을 끼웠으며, 성에 끝이 Y자 꼴로 벌어져서 소에 메우기 편하다. 보습은 골을 타고 나가면서 흙을 둑에 올려붙여서 북을 돋운다.

논을 매는 데 쓰는 메후치의 구조는 평후치와 같지만, 나무로 깎은 볏은 평후치보다 길고 크며 표면이 굽



인후치 | 길이162 높이89 | 농협 농업박물관

특징 및 의의 후치는 주로 황해도 북부 및 평안도 남부지역에 분포하며, 그 기능이나 구조가 중북부 지역의 극젱이나 인걸이를 빼닮은 것은 상호연관성이 깊은 사실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연백지방의 축력 농기구에 대한 민속학적 고찰(정시경, 문화유산2,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조선기술발전사-원시·고대(최상준 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朝鮮ノ在來農具(加藤木保次 外,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1924), 山陰の民具(勝部正郊, 名著出版, 1990).

필자 김광언(金光彦)

었다. 이랑 사이로 갈 때, 볏밥을 뿌리 쪽으로 눌러 붙여서 북을 돋아주는 동시에 흙덩이도 부순다. 논에 물이 없으면 볏을 떼지만, 풀이 길게 자라고 물이 차 있으면 붙인다. 이때 이랑의 너비가 좁으면 평후치로 대신한다.

도리개후치는 성에가 돌아가는 후치로, 비탈이 심한 밭에서 쓰기 편하다. 이것은 채에 멍에가 직접 달린 것과 채와 멍에를 밧줄로 이은 두 종류가 있으며, 주로 평안남도 순안군 일대에 분포한다. 조밭의 아시김을 맬 때는 보습 양쪽에 풀이나 짚으로 엮은 '풀귀'를 붙여서 올라온 흙이 양쪽으로 퍼지도록 하였으며, 이 뒤에 반드시 호미로 다시 맨다. 이 밖에 인걸이처럼 사람이 끄는 것도 있으며, 이를 인걸리[人結犁]라고 부르는 것은 흥미롭다. 주로 평북 초산에서 쓴다.

논농사에 쓰는 후치는 술이 길고, 보습 길이 30~45㎝에 너비 21~24㎝이다. 성에는 길이 2.4m이며 흔히 호리에 메운다. 술과 바닥은 한 몸이고 성에는 끝이 Y자 꼴로 갈라진 나무를 쓴다. 성에와 술을 연결하는 한마루는 성에 위로 솟았다. 술 끝에 손잡이를 가로 꿰었으며 한마루 끝 사이에 탕개를 쳤다. 술 바닥 양쪽에 나뭇조각 둘이 붙어서 흙밥을 좌우로 갈라놓는다. 보습과 볏은 작으며, 손잡이를 누르는 힘에 따라 바닥의 흙이 단단해지는 덕분에 씨를 뿌린 뒤의 물기 보존에 효과가 높다. 또 쟁기로 갈고 나서 고랑을 짓는 외에 소나 나귀에 메워서 김을 매기도 한다.

휘묻이

정의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지 않는 상태에서 뿌리를 내어 번식시키는 방법.

내용 휘묻이는 가지와 어미나무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에 일 년 내내 가능하나 침엽수와 낙엽수는 봄의 발아 시기가 좋으며 상록수는 장마철이 좋다.

생식에 관여하지 않는 영양기관을 이용하여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무성생식, 특히 영양생식에 속한다. 동물은 일반적으로 생식세포에서만 발달하여 성체가 되는데, 식물은 모든 세포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식물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인 전분화능이 있어서 휘묻이를 할 수 있다. 휘묻이는 한자로 취목取木이라고 하여 고취법高取法과 저취법低取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휘묻이라는 용어에 맞는 말은 이 중 저취법에 해당한다. 휘묻이는 원래 나무와 같은 나무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한 번에 많은 양의 작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다음은 휘묻이의 종류이다.

1. 성토법

어미나무에서 자란 1년생 묘목을 15~20㎝ 남겨 놓고 바싹 잘라서 약간 깊이 심는다. 약간 깊이 심는 것은 뒤에 흙을 덮어주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미 나무가 좋은 묘이고 관리도 충실이 하면 세력이 좋은 새 눈이 5개 정도 뻗어 나오므로,

그 기부를 넓게 벌려 흙을 높게 돋워 새 가지의 기부를 파묻고 잘 눌러 놓는다. 성토는 발근이 용이한 것이면 6~7월경, 길이가 30㎝ 정도로 되었을 때 시행하면 좋다. 그러나 발근이 어려운 것은 새 가지가 자람에 따라 몇 회로 나누어 시행하고 새 가지의 기부에 광선을 닿지 않게 하는 황화 처리를 겸하면 발근이 촉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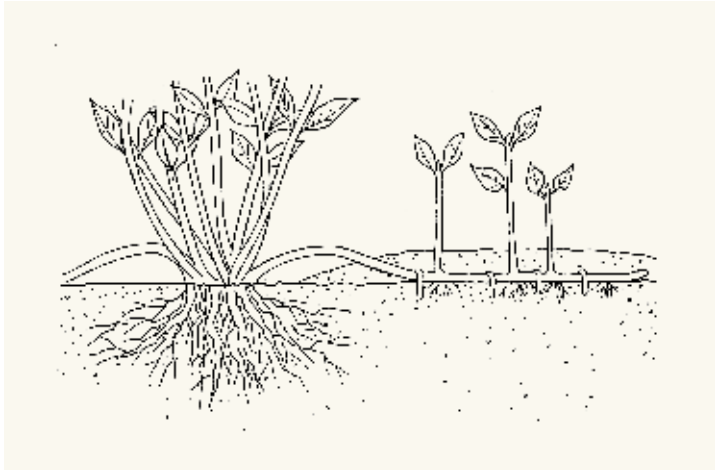
2. 압조법·복취법·언지법

어미나무의 1~2년생의 가지를 구부려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흙 속에다 파묻고, 발근이 되면 뿌리를 붙여서 절제하는 방법으로 그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법은 가지를 잡아당겨서 그 중간을 흙에 파묻는 방법으로, 무화과·포도·자두 등의 대목번식에 응용할 수 있다. 선취법은 가지의 선단을 아래로 잡아 내려서 흙 속에다 파묻어 발근시키는 방법으로, 나무딸기의 번식에 널리 시행되고 있다. 파상법은 긴 가지를 파상으로 몇 번 기복시켜 낮은 부분을 흙 속에 파서 묻고 발근이 되면 잘라내어 한 번에 몇 본의 묘목을 얻는 방법으로, 포도 등에 사용된다.

3. 고취법

휘묻이하려고 하는 가지를 지면까지 끌어내리기가 어려울 때 공중에서 가지 일부를 흙이나 이끼 등으로 싸고 발근되면 잘라내서 묘목으로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재수나 관상식물 등의 번식에 응용되고 있으며, 과수에서는 그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포도의 화분 재배 등에 이용해서 관상용으로 심는 예도 있다. 방법은 가지의 접칼을 이용해 세로로, 가지의 2~3배 폭으로 껍질을 벗긴 후 그 속에 밭흙·점토·물이끼 등을 채우고 비닐로 씌운 다음 때때로 관수를 해서 수분을 유지시켜 발근되기를 기다린다. 고취한 것은 충분히 발근된 다음 뿌리 밑에서 잘라내는데 이때부터 양수분의 공급은 새 뿌리만으로도 잘 처리되므로 잎이 붙어 있는 시기면 선단을 약간 잘라 버리기도 하고, 일부의 잎을 따 버려서 증산되는 것을 줄이고 용토를 붙인 채로 화분이나 그늘진 상에다 심는다. 그 후에도 건조되지 않도록 때때로 관수를 해서 뿌리가 잘 뻗어나게 한 다음 차차로 햇빛에 쬐이기도 하고 본포에 이식하기도 한다.



선단취목 | 생활원예 | 이승우·이정명 | 동화기술

특징 및 의의 휘묻이는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지 않는 상태에서 뿌리를 내어 번식시키는 방법을 가리키며 식물의 인위적인 번식 방법의 하나이다. 휘묻이의 방법에는 성토법·압조법·고취법 등이 있다. 친목의 가지를 절제하지 않고 흙 속에 묻기도 하고 높은 가지의 부분을 흙이나 이끼로 싸기도 해서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삽목 접목을 하기 어려운 것도 번식이 되며, 또한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참고문헌 기내 배양 사과 대목 M.9의 순화 후 휘묻이 번식 시 발근 관련 생리적 특성 변화(권순일 외, 식물생명공학회지32-3,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05), 과수학각론(임열재 외, 향문사, 2016), 과수학총론(임열재 외, 향문사, 2016), 사과 왜성대목 묻어떼기 번식 방법의 개선(김정희 외,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5), 접목과 삽목(차건성, 오성출판사, 2000).

필자 전익조(全翼朝)

휴경
休耕

정의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농경지.

개관 농경지에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력地力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적어지는데,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작물을 심지 않고 농경지를 놀리는 것을 휴경休耕이라 한다. 휴경의 기간은 토양의 특성, 작부체계,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력의 감퇴를 막기 위해 몇 해 만에 한 번씩 작물을 심지 않고 경지를



휴경지 | 경남 함양 | 2014 | 정치영

휴한休閑하는 방법은 고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농법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에서는 17년 만에 1년의 휴한 또는 50년 만에 1회의 작부 정지가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세 유럽에서 널리 행해진 삼포식 농법三圃式 農法도 경지의 3분의 1을 휴경하는 농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부터 휴경이 지력 회복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조선 초기 이후 지력을 증진하는 농법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휴경이 줄어들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까지 많이 사용되던 휴경이 조선시대 들어 점차 줄어든 것은 윤작輪作 등 새로운 작부체계와 다양한 시비방법施肥方法이 개발·보급되었기 때문이다. 휴경하지 않고 매년 경작하는 밭을 숙전熟田이라 하는데, 인구의 증가로 식량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숙전화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산간지역에서 이루어지던 화전火田에서는 휴경이 계속 사용되었다. 화전은 산림이나 휴경지에 불을 놓아 나무와 풀을 태워버리고 남은 자리를 농경지로 조성한 것으로 밭곡식을 심어 비료를 주지 않고 경작하며, 지력이 쇠퇴하면 몇 년간 휴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화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1970년대였다. 최근에는 지력 회복을 위한 휴경이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업 생산성의 저하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휴경이 늘어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경은 지력 회복이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으로 야기된 현상으로, 사회적 휴경社會的 休耕 또는 경작방기耕作放棄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경지는 이전에 경작한 바 있으나 1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다시 경작할 의지가 없는 농경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휴경은 도시화·산업화를 경험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휴경지는 일단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경작이 중단된 농경지에서는 잡초와 잡목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이곳에서 농작물에 해로운 새와 짐승·벌레 등이 이상 번식하여 인접한 농경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논은 동일한 관개체계 안에 속하는 적은 면적의 논만 휴경하여도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개수로망이 파괴되고 토양 침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문헌 재배학범론(지영린, 향문사, 1995), 지리산지의 농업과 촌락 연구(정치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한국농학사(이춘녕, 민음사,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치영(丁致榮)

PL480

정의 미국의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농산물(식량) 원조를 지칭하는 용어.

개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이 아니었던 미국은 전쟁 기간 중 연합국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였다. 1941년 〈무기대여Lend-Lease법〉이 통과된 후, 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국에 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2차대전 종전 후 진행된 마셜 플랜은 미국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위한 출구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와 농업이 부흥하며 미국에 잉여농산물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농업소득이 저하되었다. 이에 의회는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



미국원조식량 입하 환영식 | 1957 | 국가기록원



미국원조식량배급 | 1957 | 국가기록원



UNKRA관계자 구호물자 전달 | 1959 | 국가기록원

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농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농민에 대한 자금대출이 증대되고 다시 잉여농산물 재고가 쌓이게 되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쌓인 미국 잉여농산물의 출구가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후 잉여농산물 재고가 다시 쌓였다. 1954년 미국 농산물의 재고량을 보면 밀 2,540만 4,800t, 옥수수 2,336만 8,000t, 원면 1,100만 더미bale(1 더미=218*kg*)이었다.

미국의 농산물(식량) 원조의 시작은 일찍이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농산물원조가 제도화된 것은 PL480으로 불리는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PL83-480)〉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농산물 원조 제도화 이전에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사안별ad hoc로 제공되었다. 예산 배정도 상이한 여러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원조는 재난·전쟁·기아에 대한 단기적 응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농산물 원조가 제도화된 후에는 PL480에 의거하여 원조가 시행되었다.

내용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국내 농산물의 잉여분을 외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식량부족 국가에 공여와 양여적 신용조건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식량 이용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농산물 시장의 개척, 잉여농산물 처분, 빈곤과 영양실조에 대한 구호활동, 수원국의 경제발전, 미국 외교정책의 촉진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서는 잉여농산물을 1관, 2관, 3관, 4관 등 4가지 방식으로 원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PL480 1관은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미국 달러 대신에 수원국의 통화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PL480 1관에 의한 현지통화판매는 1966년 법 개정으로 1971년까지 종결되도록 하였으나 협정이행분으로 인하여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PL480 1관의 판매대금으로 수원국이 적립한 현지통화를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라고 한다. 이 자금은 수원국 사용분과 미국 사용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용은 미농무부USDA와 미국제개발처USAID가 주축을 이루는 부서 간 위

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

PL480 2관은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가 기아와 구호를 위해 잉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아나 긴급필요의 구제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국에 우호적이면서도 궁핍한 주민들에게 인도케 하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잉여농산물 이전이 가능한 상업 판매를 대체하지 않는 한 우방국 또는 자발적 구호기관에 무상공여토록 하였다.

PL480 3관은 미국 내 구호 및 비영리 학교 중식 프로그램과 또 다른 국가의 비슷한 목적에 식량을 증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3관하에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①연방기구가 사용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지불 ②법으로 정한 전략적 물자 및 기타 물자와 잉여농산물의 물물교환 ③국내구호, 자선기관 및 교육기관의 중식을 위한 기증 ④비영리 자발적 기구가 미국 밖의 비영리 중식 프로그램 수요자에게 원조하기 위한 잉여농산물의 기증 등이다.

PL480 4관은 장기융자조건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로 1959년 개정법에서 생겨났다. 이 조건에 의한 판매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1966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PL480 1관으로 바꾸었다.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이 통과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9월 9일 행정명령 10, 560에 서명하여 PL480의 운용에 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농무부와 국무부 간의 갈등을 예상해서 PL480을 부처 간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는 농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예산국,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가 참여하였다.

특징 및 의의 미국은 한국에 PL480에 의한 농산물 원조를 하기 전에도 GARIOA(점령지역행정구호), ECA-SEC(경제협조처-공급경제협조처), CRIK(유엔한국민간구호), UNKRA(유엔한국부흥국), FOA-ICA(대외활동본부-국제협조처) 등의 원조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원조에서는 전체 원조액의 일부분만 농산물이었다. 이에 비해 PL480 원조에서는 전부가 농산물이었다. 1945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전체 농산물 원조액에서 PL480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이었다. PL480 이전 한국에 제공한 원조농산물은 소맥·소맥분·대맥 등으로 식량이 대부분이었지만, PL480에 의한 원조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소맥과 원면 중심의 가공용 농산물 원료가 대부분이었다. PL480 1관 현지통화 판매조건 원조의 경우 금액 기준 42.32%가 원면, 42.29%가 소맥으로 이 두 품목이 전체 원조액의 84.61%를 차지하였다. PL480 1관 달러 전환 가능한 현지통화 판매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 소맥 39.4%, 원면 24.8%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 특히 PL480 농산물 원조는 미국이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 상당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반공 국가로 만들고, 한국의 정치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한국을 미국의 농산물 시장으로 개척하는 데 활용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원조농산물 판매대금으로 국내 제과·제빵 기술 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 수료생들이 연 제과점과 빵집 등은 미국산 밀가루 소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원조농산물 중 옥수수와 분유 등을 학교 급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미국산 옥수수·분유 식품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정부가 1960년대 시행한 분식장려운동도 미국 원조로 도입된 저렴한 가격의 밀가루 공급 덕분에 가능하였다. 분식장려운동은 밀가루 음식의 대중화를 가져와 미국산 밀가루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는 한국농업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조농산물로 식량부족분을 해결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을 소홀히 하였다. 또 미국에서 대규모로 도입된 원조농산물을 이용해 저곡가 정책을 폈고,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원조 양곡을 제공하면서 유휴농지 개간을 장려해 농지의 확대를 가져온 성과도 있었다.

참고문헌 미국의 대한 농산물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김종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원조의 정치경제학(김종덕,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필자 김종덕(金鍾德)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부록

Ⅰ. 속담·관용구 Ⅱ. 색인 Ⅲ. 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속담·관용구

I

절기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절기	봄	1	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설에는 눈이 많이 내려야 그해에 풍년이 들고, 정월 대보름에는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어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뜻.
		2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	양력 4월 20일쯤인 곡우(穀雨) 때에 가뭄이 들면 그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3	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에 논물을 받아 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
		4	봄비가 잦으면 가을에 마누라 손이 커진다	봄비가 자주 오면 풍년이 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들의 인심이 후해진다는 뜻.
		5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어미 손이 크다	봄철, 특히 파종하기 전에 비가 잦으면 가을에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면 먹을 것이 풍부하니, 마을 지어미들의 손이 커지고 인심이 좋아지게 마련이라는 뜻.
		6	봄비는 벼농사 밑천이다	봄비는 벼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의미.
		7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한 해 농사의 첫 시작인 봄철에 씨를 뿌릴 때에 게으름을 부리면 그만큼 농사가 안되어 열흘을 굶는다는 뜻.
		8	봄에는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	봄 농사철에는 몹시 바빠서 게으른 사람도 저절로 부지런해진다는 뜻.
		9	오월 장마는 꿔다 해도 한다	오월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긴요하기 때문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뜻.
		10	초파일에 물 담으면 농사 망한다	초파일에 물을 귀하게 여기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뜻.
절기	여름	1	거친 두벌이 꼼꼼 애벌보다 낫다	풀이 어리고 적을때 김을 매면 능률이 오르고 힘도 적게 들지만 풀이 크게 자라 무성해진 뒤 김을 매면 두번 매는 것보다 한번 매는 노력이 더들게 되므로 김은 풀이 어렸을 적에 자주 매라는 뜻.
		2	게으른 놈 7월에 후회한다	일을 제때에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뜻의 속담.
		3	뇌우 많은 해는 풍년	여름철 뇌우가 치면서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면 토양이 비옥해져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의미.
		4	들깨모는 석달 열흘 왕 가뭄에도 침 세번만 뱉고 심어도 산다	들깨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해도 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이 자란다는 뜻.
		5	못자리에 호랑이 새끼친다	못자리에 잡초가 너무 많다는 것을 비유한 데서 생긴 말로 피사리를 철저히 해야 됨을 강조한데서 유래한 말.
		6	밤송이 맺을 때 모 심어도 반밥 더먹는다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만 작업을 해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는 뜻.
		7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간다	백중은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로 농사일이 한가한 때라는 의미.
		8	삼복 모두 가물면 왕 가뭄	삼복 기간은 작물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가뭄이 들면 큰 피해를 입게 됨을 의미.
		9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	여름철 소나기의 불규칙한 속성을 상기시킬 때 쓰는 속담.
		10	오뉴월 품앗이 소등을 두고 다툰다	음력 5~6월은 이모작 모내기와 보리 수확,탈곡등과 밭작물 정식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특히 늦모내기는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자기논에 모를 심기위해 일손을 다툰다는 뜻.
		11	유두에 소 타지 말고 팔월에 타라	농부들이 농번기 동안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다가, 팔월 농한기에 들어서면 신선같이 편안해진다는 뜻.
		12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유월 더위에 부지런히 밭에 나가 곡식을 파종해 두면 한해살이는 걱정 없다는 뜻.
		13	유월 장마는 쌀 창고, 칠월 장마는 죽 창고	음력 유월에 지는 장마는 쌀농사에 필요하지만, 음력 칠월에 지는 장마는 해롭다는 뜻.
		14	육칠월에는 외서리 칠팔월에는 콩서리	육칠월에는 참외서리, 칠팔월에서는 콩서리가 제격이라는 의미.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5	조록싸리 피거든 남의 집에 가지마라	조록싸리 꽃이 피는 초여름은 궁한 때이니 남의 집을 가지마라는 뜻.
		16	칠석 물지면 원남 속곳 풀할 쌀도 없다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은 벼의 수잉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침수되면 피해를 크게 받아 수량이 감소된다는 뜻.
		17	칠월 높새바람에 볏잎 마르듯 한다	고온 건조한 바람에 볏잎이 바짝 마르듯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진다는 뜻.
		18	칠월에 나락 검은 집에는 손노릇 가지말랬다	흉작이 들 것 같은 집에 가면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
		19	팔월 그믐에 마지막 쉰다	가을인 음력 팔월에도 음식이 쉴 만큼 날씨가 덥다는 의미.
		20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하지(夏至)가 지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느라 매우 분주함을 이르는 말.
절기	가을	1	9월 입동 오나락이 좋고 10월 입동 늦나락이 좋다	음력 9월에 입동(立冬)이 든 해는 추위가 빨리 오므로 조생종(早生種)이 좋고, 음력 10월에 입동이 든 해는 추위가 늦게 오므로 중만생종(中晩生種)이 좋다는 의미.
		2	가을 것 못 걷어들인 놈 겨울 넘길 생각마라	가을걷이를 못 마친 사람은 겨울을 쉽게 넘기기 힘들다는 의미.
		3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가을 곡식은 다 된 곡식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적기(適期)에 수확하도록 하라는 의미.
		4	가을 곡식은 찬이슬에 영근다	가을에 이슬이 내리면 곡식이 딴딴하게 잘 여문다는 의미.
		5	가을 메[秅]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분주한 가을 추수 때에는 메[秅]를 대신하여 부지깽이까지 덤벙인다는 의미.
		6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도 먹는다	가을 추수기에는 멸구가 나락 벼늘까지 먹을 정도로 멸구의 피해가 심하다는 의미.
		7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괸 물도 먹는다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말.
		8	가을 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가을 찬바람에 곡식이 영근다는 뜻.
		9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	가을에는 빚을 얻어 쓰기가 쉬우므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뜻.
		10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다	가을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나 봄에는 궁하므로 풍족할 때 낭비 말고 절약하라는 의미.
		11	가을 안개는 쌀안개 봄 안개는 죽안개	가을 안개는 벼를 잘 영글게 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봄 안개는 보리에 병해를 주어 수확을 줄게 한다는 의미.
		12	가을 하늘과 큰어미 얼굴은 검어도 좋다	가을에는 구름이 끼어도 바람이 서풍이라 비가 오지 않으며, 친어머니와 저를 미워하는 큰어머니의 얼굴은 보기 흉하게 검어도 좋다는 의미.
		13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가을 해는 짧아서 해를 받쳐서라도 낮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의미. 그 이면에는 수확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부지런히 작업하라는 교훈이 있음.
		14	가을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農事 밑이 어둑하다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 빚을 다 갚고 빈손에 빗자루 하나만 남아도 어딘가 남은 것이 있다는 말로 농사일의 든든함을 이르는 속담.
		15	가을밭을 밟으면 떡이 세 개요 봄밭을 밟으면 뺨이 세 대다	가을밭의 보리는 착근(着根)이 잘 되도록 밟아야 월동에 좋고, 봄밭을 밟으면 새싹이 상하므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
		16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가을에 비가 내리면 집안에서 떡을 해먹으며 지내고 겨울에 비가 오면 집안에서 술이나 마시며 지낸다는 의미.
		17	가을에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가을철의 밭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의미.
		18	가을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일이 많은 가을에는 꾀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성과가 좋다는 의미.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9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음력 구시월에 부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의미의 속담으로 이 바람으로 열심히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
		20	모 이앙시 뻐국새 울면 모사리 잘한다	모 이앙시 뻐꾹새가 울면 그날 기후가 맑음을 뜻하므로 기온상승으로 활착이 잘 된다는 뜻. 강원
		21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안 곡식 천석을 감한다	처서 때 비가 오면 벼가 영글지 못하고 쭉정이가 생기기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뜻.
절기	겨울	1	겨울 따슨 해 보리 굼벵이 자른다	겨울철에 기온이 높아 따뜻하면 애벌레가 보리농사를 망쳐서 그해는 흉년이 들기 십상이라는 제주 지역의 속담. 제주
		2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하면 보리밭에 서릿발이 생겨서 뿌리가 말라죽게 되므로, 보리를 자주 밟아주어 착근(着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3	겨울 소 값은 떨어지고 봄 소 값은 오른다	농한기(農閑期)인 겨울에는 소를 부리지 않으므로 값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소를 많이 부리므로 값이 오르게 된다는 의미.
		4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풍년 든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푹 덮어주면 보온이 되어 보리가 얼어 죽지 않아 보리가 풍년이 든다는 뜻.
		5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마음 든다	동지(冬至)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또는 절기와 결부하여 식물의 생태를 되새길 때 사용함.
		6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	보리 파종 한계 시기를 강조한 속담. 남부지방의 보리 파종은 10월 중순이 알맞으나, 늦어도 입동(立冬)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의미.
		7	오뉴월 하루 놀면 동지 섣달 열흘 굶는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실천해야 한다는 뜻. 경북, 부산
		8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	양력 4월 20일쯤인 곡우(穀雨) 때에 가뭄이 들면 그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진다는 뜻. 충남, 경북
		9	곡우에 비오면 풍년든다	모든 작물의 파종시기인 곡우에 상당히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어 생육이 순조로와 그 해 풍년이 올것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
		10	단오에 물 잡으면 농사 다 짓는다	단오까지 논물을 확보해야 제때 모내기가 이뤄진다는 뜻.
		11	백로 안에 벼 안팬 집에는 가지도 말아라	백로까지 추수가 안될 경우에는 등숙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량이 떨어져 먹을 식량도 부족하므로 손놀이를 가지말라는 뜻.
		12	백로가 지나서는 논에 가 볼 필요가 없다	백로는 이삭이 거의 결정되었으므로 완전낙수외에는 논에 가볼 필요가 없다는 뜻. 전북
		13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나간다	백중은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여서 예부터 바쁜 농사일을 잠시 중단하고 일꾼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 전남, 광주
		14	백중에 물없는 나락 가을 할 것이 없다	백중 때는 중완생종 추수기에 해당되어 물이 많이 필요한데 논에 물을 말리면 수량에 큰 감소를 보인다는 데서 유래한 말.
		15	삼사월은 굼벵이도 석자[三尺]씩 뛴다	음력 3~4월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 이앙하는 시기라 가장 바쁜데 동작이 느리고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할 만큼 바쁘다는 데서 유래된 말.
		16	유두 때 들판이 얼룩소가 되면 흉년 든다	들판이 얼룩소처럼 보이나 이때에 이삭거름을 주면 결실도 잘 되도록 한다는 뜻. 충북
		17	처서에 비오면 사방십리 천석을 감한다	처서는 월 하순경으로 이때는 벼의 추수개화기에 해당되는 때로 이때 비가 오면 개화수정 및 등숙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확률이 떨어진다는 데서 유래한 말.
		18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하지는 벼의 일생중 가장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물대기에 발이 마를 새가 없다는 뜻. 강원
영농	농사	1	건대巾臺놈 풋농사짓기다	1. 처음에는 농사가 남조다 잘 되다가 나중에는 그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뜻. 2. 힘들여 한일이 보람 없이 되었다는 뜻. *건대: 경남 합천에 있는 지명
		2	구년 농사에 삼년 먹을 것은 남아야한다	농민들의 소득은 영농비와 기타 지출이 66%정도 되고, 순소득이 33%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	논농사는 남의 농사다	옛날 가난한 농민들은, 벼농사를 지었다 해도 팔아서 빚 갚고 살 것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보리와 잡곡으로 양식을 삼았을 뿐 쌀밥은 엄두도 못냈다는 뜻.
4	논두렁에 발자국 소리가 잦아야 벼가 잘 자란다	벼농사를 잘하려면, 제초·물관리·시비·제충 등을 제때에 잘하여야 하므로 부지런히 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
5	농사 안 된 것과 아기 궂은 것은 버리지도 못하고 키울 수도 없다	곡식 잘못된 것과 사람 구실 못하는 병신 자식은 이럴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난처하다는 뜻.
6	농사 일찍 지은 이도 복이요, 늦게 지은이도 복이다	젊어서 얻는 복도 복이고, 늙어서 얻는 복도 다 같은 복이라는 뜻.
7	농사가 잘되면 나라에 걱정이 없다	옛날 봉건사회에서는 풍년만 들면 나라가 태평하였다는 뜻.
8	농사가 잘되면 인심도 좋아진다	풍년이 들어 생활이 넉넉하면 인심도 후해진다는 뜻.
9	농사는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농사란 인간이 먹고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소중한 생업이라는 뜻.
10	농사는 기술이 정교하면 땅은 적어도 곡식 소출은 많다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면 단위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라는 뜻.
11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다	봉건사회에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뜻.
12	농사는 농민들의 생활을 후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봉건사회는 농본위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은 절대다수인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
13	농사는 농민들의 이득이다	농업이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으로 산다는 뜻.
14	농사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 먹고 남는 것이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뜻.
15	농사는 명년이나 명년이나 하면서 속아 짓는다	농민들은 내년 농사는 좀더 낫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해마다 속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
16	농사는 밭일에 힘써야만 가을 수확이 많다	농사는 논밭을 부지런히 가꾸고 김매고 손질을 자주 해주어야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
17	농사는 본에 씨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일을 제때에 해야한다	어느 일이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18	농사는 식량의 근본이다	농사지은 곡식은 모두 식량으로 소비되므로 농사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
19	농사는 실기失機하면 안된다	무슨일이나 적당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지만, 특히 농사는 적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친다는 뜻.
20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옛날 봉건사회에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었다는 뜻.
21	농사는 하늘이 일곱 몫이고, 농부가 세 몫으로 짓는다	벼농사는 농사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달렸다는 뜻.
22	농사를 게을리하고 생활이 사치하면 하늘도 부자로 할 수 없다	농민이 농사를 게을리하여 수확이 적은데다가 생활은 호화롭게 하여 지출이 많게되면, 하늘이 설령 돌봐 준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다는 뜻.
23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살림을 알뜰히 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다	농사를 부지런히 하여 수확을 높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만들지못하므로 잘 살게 된다는 뜻.
24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모자란다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할 정도의 빈농이라는 뜻.
25	농사를 짓고 계산하면 반찬 값이 모자란다	농사를 지은 뒤에 수지계산을 해보면 영농비 중에서 반찬 값이 모자랄 정도로 농사는 이득이 박하다는 뜻.
26	농사일은 늦춰서는 안된다	농사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확이 감소된다는 말.
27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서 하라	농사일을 잘 모르거든 경험이 많은 머슴과 상의를 해서 하면 잘하게 된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8	농사일은 한가하지 않다	농사일은 씨를 뿌려서 가꾸어 수확할 때까지 항상 바쁘다는 뜻.
29	농사일이 수고로운 것은 농기구가 편리하지 못한데 있다	농사일이 힘들고 능률이 나지 않는 것은 농기계가 발달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일에 알맞은 좋은 농기계를 창안하여 쓰도록 하라는 뜻.
30	농사지어 봤자 장 값이 모자란다	1년간 땀 흘려 농사지은 뒤에 계산해 보면 늘 손해가 난다는 뜻.
31	농사짓고 영농비를 제하면 반찬값이 모자란다	1년 농사를 짓고 영농비를 제하면 오히려 반찬 값이 모자라는 적자 경영이라는 뜻.
32	농사짓는 사람은 곡식을 얻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	농사짓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으므로 농촌에서는 모두 농사를 지으라는 뜻.
33	농사철에 땅 뗀다	소작제도가 있을 때는 악덕 지주가 농사철에 소작인의 땅을 떼는 사례가 있었다는 뜻.
34	농사철을 어겨서는 안된다	농사는 제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뜻.
35	농심이 천심이다	옛날 봉건사회에서는 약 80%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뜻이 지배적이었다는 뜻.
36	농업이 없으면 농민도 없다	농업은 농민에 의하여 영위되는 것이므로 농업과 농민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뜻.
37	두멧놈 풋농사다	두멧농사는 여름철에는 무성하여 잘 된 것 같으나 가을이 되면 산짐승이 뜯어먹어 별로 수확이 없듯이, 여름에는 풍작이 예상되었으나 가을 수확이 적었을 때 하는 말.
38	방 구들 농사만 짓는다	방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서 농사일은 하지 않고 산다는 뜻.
39	밭농사가 반농사다	옛날에는 밭농사의 수확량이 벼농사 정도로 많아야 춘궁(보릿고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
40	벼농사는 물농사다	벼농사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물이 흔하고 못한 데서 결정이 된다는 뜻.
41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농사는 못 속인다	어떤 일은 사실과 다르게 속일 수도 있지만 농사일은 사실과 다르게 속일 수가 없다는 뜻.
42	사발농사다	1. 변변치 못하게 조금 짓는 농사라는 뜻. 2. 농사를 짓지 않고 얻어먹는 신세라는 뜻.
43	산전山田농사 고라니 좋은 일만 시킨다	1. 산중 밭에 조를 심었더니 고라니가 다 뜯어먹었다는 뜻. 2. 애써 일을 한 것이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뜻.
44	삼년 농사를 지으면 구년 먹을 것이 남는다	땅도 좋고 영농도 잘하고 풍년도 들어 1년 농사를 지으면 3년 먹을 식량을 추수할 수가 있어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
45	쌀농사 짓는 놈 따로 있고, 쌀밥 먹는 놈 따로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촌의 빈농들은, 벼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팔아 버린 타셍 보리밥만 먹고 쌀밥은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뜻.
46	쌀농사는 여든 여덟 번 땀을 흘려야 한다	쌀 米자가 八十八로 이러어진 것은, 쌀농사를 하자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뜻.
47	어깨춤 신명에 농사 다 버린다	농사일을 할 적에는 간식으로 농주를 먹는데 지나치게 먹고 놀다가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뜻.
48	올 농사 못 지은 건 내년에 잘 지으면 된다	한 번 실패한 것은 그 다음 기회에 보충하면 된다는 뜻.
49	일년 농사를 지으면 삼년 먹을 것이 남는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면 3년간 먹을 양식이 남을 정도로 땅도 비옥하고 영농도 잘하고 풍년도 들어서 수확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뜻.
50	일년을 잘 살려면 농사를 잘해야 한다	농촌생활을 하는 사람은 농사를 잘해야 잘 살게 된다는 뜻.
51	자식 자랑은 말아도 농사 잘 된 자랑은 하랬다	자식 자랑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농사 잘 된 자랑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2	정월 열나흗날 저녁식사는 일찍 해야 농사철이 빠르다	음력 1월 14일 저녁 식사를 일찍이 하여야 그해 농사철이 빨라져 농사가 잘된다는 뜻.
		53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부자집 뒷간에 가서 재 한 삽을 떠다가 자기 집 뒷간에 두면 그 해 농사가 잘된다	음력 1월 1일 아침에 부자집 뒷간에 가서 재 한삽을 가져다가 자기 집 뒷간에 두면 부자집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그해 농사가 잘 된다는 뜻.
		54	제석帝釋이가 아저씨라도 농사를 지어야 산다	아무리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먹고 살지, 유산도 없이 빈둥거리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뜻.
		55	집구석이 되려면 들부터 잘 된다	집안이 잘되려면 농사부터 잘 돼야 잘 살게 된다는 뜻.
		56	치산치수는 농사의 대본이다	산에 나무를 심고 수리시설을 하는 것은 농사를 하는 근본이라는 뜻.
		57	칠월에 잘 된 벼는 가을에 가봐야 안다	음력 7월에 질소비료를 많이 준 벼는 줄기와 잎이 무성하여 잘 될 것 같지만, 이런벼는 가을에 가서 병충해도 입고 쭉정이도 많고 비바람에 쓸려서 폐농하게 되므로, 뒤늦게 질소비료(옛날에는 똥비료)를 많이 주면 안된다는 뜻.
		58	한 알을 심어 만 알을 얻는다	1. 낟알 하나를 심은 것이 만 알이 되도록 큰 풍년이 들었다는 뜻. 2.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었다는 뜻.
		59	한 해 농사를 초련으로 다 먹는다	한해 농사라는 것이 추수 때까지 대먹지를 못하고 풋바심으로 다 먹게 된다는 말.로서, 빈농은 농사를 지어도 1년 양식거리가 모자란다는 뜻.
		60	한상국韓相國의 농사짓기다	옛날에 한상국이라는 사람이 농사일을 엉망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영농	곡식	1	가을 곡식을 아껴야 봄 양식이 된다	곡식이 넉넉한 가을에 아껴먹어야 양식을 저축할 수 있다는 뜻.
		2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가을곡식은 다 된 곡식이므로 서두르지말고 적기에 수확하도록 하라는 의미의 속담 충남
		3	가을 죽은 봄 양식이다	양식이 넉넉한 가을에 죽을 쑤어 먹어야 절약한 양식을 춘궁 때 식량으로 쓰게 된다는 뜻.
		4	가을 찬밥은 봄 양식이다	곡식이 흔한 가을철에 양식을 절약해야 이것이 밀려서 봄 양식이 되므로 춘궁을 면할 수 있다는 뜻.
		5	개숫물에 밥풀 하나만 떠도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	옛사람들은 밥풀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면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고 믿어 밥풀 하나도 버리는 일이 없었다는 뜻.
		6	겨 속에도 싸라기가 있다	1. 겨 속에는 싸라기가 섞여 있으니 겨를 잘 까불러서 싸라기를 회수하라는 뜻. 2. 하찮은 것 속에도 귀중한 것이 있다는 뜻.
		7	겨 속에서 쌀 찾기다	1. 겨 속에서 쌀 찾듯이 매우 귀하다는 뜻. 2. 무엇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
		8	곡식 될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1. 곡식도 잘 될것은 떡잎 때부터 미리 알 수 있다는 뜻. 2. 사람도 잘 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다는 뜻.
		9	곡식 찌꺼기를 버리면 죄받는다	애써서 생산한 곡식은 그 찌꺼지까지도 버리지 말고 가축 사료로 쓰라는 뜻. 제주
		10	곡식 한알 한알에는 농민의 피땀이 스며 있다	우리들이 먹는 양식은 농민들의 피땀이 생산된 것이므로 농민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
		11	곡식과 자식은 더러워도 버리지 않는다	곡식과 어린아이는 더러워도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뜻.
		12	곡식도 잘 된 곡식을 더 만져 보고 싶다	1. 곡식도 잘 된 곡식을 더 자주 보고 싶고 만져도 보고 싶게 된다는 뜻. 2. 자식도 잘 된 자식을 더 자랑하고 싶다는 뜻.
		13	곡식은 남의 곡식이 탐스러워 보인다	자라는 곡식은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뜻.
		14	곡식은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다	곡식은 농민들이 걸우고 가꾼 노력의 대가로 수확을 하여 먹게 된 것이므로 농민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뜻.
		15	곡식은 될수록 줄게 마련이다	1. 곡식은 여러 번 될수록 매번 흘리는 것이 있으므로 점점 분량이 줄어든다는 뜻. 2. 무엇이나 옮겨 담으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는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6	곡식은 들어왔다 나가면 이문을 주지만, 돈은 들어왔다 나가면 손해만 준다	곡식은 한 번 들어오면 먹을 것이 생기지만, 돈은 들어왔다 나가면 쓰게 되므로 손해를 본다는 뜻.
17	곳간에서 인심난다	굶주린 사람을 구해주려면 양곡이 넉넉히 있어야 구해줄 수 있다는 뜻.
18	구렁이 허물을 쌀독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	구렁이를 업으로 삼으면 부자가 된다는 데서 유래된 말.
19	난리 때는 곡식 놓고 소금 지고 간다	전쟁이 일어나 피란을 갈 때는 식량보다도 소금이 더 긴요하다는 뜻.
20	낟알 하나에 땀이 열 방울이다	한 알의 곡식을 생산하는 데 농민이 땀을 열 방울이나 흘렸다는 말로서, 우리는 밥을 먹으며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
21	남의 곡식을 먼저 베먹으면 죽어서 소가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자기 곡식을 먼저 베서 고사한 다음 먹어야 한다는 뜻.
22	남의 밥에 쌀이 더 좋아 보인다	물욕이 있는 사람은 남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인다는 뜻.
23	남의 쌀밥보다 내 보리밥이 낫다	1. 남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 2. 욕심내지 말고 건실하게 살라는 뜻.
24	바구미가 쌀을 다먹었다	쌀을 오래 두려면 손질을 자주 해야하는데 그대로 두어 바구미가 먹듯이 덮어놓고 아낀다고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
25	바삐 찧는 쌀에 뉘가 많다	1. 방아는 겨가 다 벗겨짓도록 찧어야 하는데 거칠게 찧으면 당연히 뉘가 섞여 있게된다는 뜻. 2. 무슨 일이나 거칠게 하면 흠이 많다는 뜻.
26	쌀 한 말에 땀이 한 섬이다	농민이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힘들게 생산한 것이므로 먹을 때는 농민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뜻.
27	쌀 한 알 건지려고 쌀뜨물 한 독을 다 마신다	1. 한 알의 쌀이라도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 2.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한다는 뜻.
28	쌀 한 알이 땀 한 방울이다	농민들이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이므로 쌀밥을 먹을 때는 그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
29	쌀광(쌀독)에서 인심난다	남을 도와 주려면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물자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
30	오곡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먹게 된다	농사는 씨를 뿌리고 김매고 거름주고나면 기다리지 않아도 어김없이 철 따라 익게 된다는 뜻.
31	이천利川 구만 리 들 자채쌀 하면 옛부터 임금님 진상미다	경기도 이천 구만 리 들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이 좋아서 옛날에는 임금님 진상미로 쓸일 정도로 품질이 좋은 쌀이라는 뜻. 경기
32	자기 곡식 큰 것은 모른다	곡식은 남의 곡식이 더 잘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곡식이 남의 곡식보다 잘 된 것은 모른다는 뜻.
33	자식 죽는 것은 봐도 곡식 타는 것은 못본다	농부가 가뭄에 곡식이 타들어가는 양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롭다는 뜻.
34	저녁에 곡식을 밖으로 퍼내가면 나쁘다	곡식은 대낮에 거래를 해야지 도둑질하듯이 밤에는 거래하지 말라는 뜻.
35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오곡밥을 안 먹으면 농사철에 일꾼이 안생긴다	음력 1월 14일 아침은 오곡밥을 먹어야 농사일이 잘 되지 안 먹게 되면 농사철에 일꾼을 못 얻게 된다는 뜻.
36	콩나물죽 일 년을 먹으면 일 년 양식이 밀린다	식량을 절약하는데는 콩나물죽을 쑤어먹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
37	키질하다가 싸라기 한 알이 떨어져도 주워 담는다	옛날 농촌 부인들은 쌀을 키질하다가 한알의 쌀라기라도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주워 담을 정도로 곡식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
38	햇곡식 먹을 때는 산신령에게 고사하고 먹는다	추수를 하고 햇곡식을 먹을 때는 산신령에게 먼저 감사의 고사를 지내고 먹으라는 뜻.

영농 굶주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고개는 보릿고개가 제일 높고, 새는 먹새가 제일크다	이 고개가 높으니 저고개가 높으니 해도 보릿고개가 제일 높고, 무슨 새가 크니 무슨 새가 크니 해도 먹새가 제일 크다는 말.
2	고개 중에서 넘기 어려운 고개가 보릿고개다	옛날 춘궁기인 보리가 여물 무렵이 넘기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
3	곳간이 차야 예절도 안다	굶주리면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예절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
4	나락이삭 끝을 보고는 죽어도 보리이삭 끝을 보고는 죽지 않는다	나락이삭이 팬 지 40일이 돼야 먹을 수 있으므로 굶어죽는 사람이 있지만, 보리이삭은 팬지 20일이면 풋보리로 먹을 수 있으므로 굶어죽지 않는다는 뜻.
5	댓새를 굶으니까 쌀자루 든 놈이 온다	굶다가 보면 식량이 생기는 수가 있듯이 곤경을 참아내면 잘 풀리게 된다는 뜻.
6	미나리꽃 필 때 친정아버지 오신다	옛날 미나리꽃이 필 무렵이면 보릿고개라 식량이 떨어져 풀뿌리를 먹고 사는터에, 귀한 손님이 와도 대접할 것이 없어서 민망하고 애닯다는 뜻.
7	미나리꽃 필 무렵에는 딸네 집에도 안간다	미나리꽃이 필 때는 보릿고개 무렵이라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시기이므로 딸네 집에도 가지 말라는 뜻.
8	벼이삭 보고는 죽어도 보리이삭 보고는 안 죽는다	벼이삭은 팬지 40일이 돼야 먹을 수 있지만, 보리이삭은 팬지 20일이면 먹을 수가 있으므로 굶어죽지 않는다는 뜻.
9	병자년 까마귀 빈 뒷간 들여다보듯 한다	1876년 병자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는 까마귀조차도 먹이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뜻.
10	보릿고개 못 넘긴다	햇보리가 나기 전에 굶어죽게 된다는 뜻.
11	보릿고개에 안 죽은 놈이 벼고개에 죽는다	옛날 농촌에는 보릿고개인 춘궁(음력 3, 4월)과 벼고개인 칠궁(음력 7월)이 있었는데, 보릿고개 넘기보다 때로는 벼고개를 넘기가 더 어려울 적이 있었다는 뜻.
12	복숭아꽃 필 무렵에 나들이 말랬다	복숭아꽃이 피는 4월 중순경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춘궁기이므로 무분별한 나들이는 삼가라는 뜻.
13	봄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옛날 춘궁기에는 반가운 사돈이라 하더라도 찾아올까 싶어 겁이난다는 뜻.
14	사월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배는 안 곯는다	4월 춘궁기만 없다면 배 곯는 고생은 않는다는 뜻.
15	삼사월 손님엔 반가운 손님 없다	옛날 춘궁기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대접할 것이 없어서 겁부터 나기 대문에 반가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
16	삼월달에 명주실 선돈 쓴다	봄 양식이 떨어진 어려운 농가에서는 6월에 생산되는 명주실 선돈을 3월에 고리로 쓰게 된다는 뜻.
17	신축년에 남편 찾듯한다	신축년 흉년에 가족들이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헤어져서 부부 간에 서로 찾으로 다니듯이, 헤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다는 뜻.
18	쌀독에 거미줄 치겠다	식량이 떨어져 먹지 못하고 굶주린다는 뜻.
19	쌀독에 쌀 두되만 있어서 처가살이할 놈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는 뜻.
20	여름 이밥은 인심이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지었다 해도 비싼 벼는 다 팔고 보리와 잡곡으로만 식량을 하였기 때문에 쌀법은 가을 추수 때나 조금 먹었던 터라 몹시 먹고 싶어했었다는 뜻.
21	오월에 햇곡식 선돈 쓴다	5월에 모심기를 겨우 해놓고 벼 값 선돈을 받아 쓰듯이 몹시 가난하여 빚으로 생활한다는 뜻.
22	육칠월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	음력 6, 7월이 되면 보리 양식이 떨어져서 보릿고개에 못지 않은 칠궁으로 벼수확을 할 때까지 고생스럽게 사는 터라 손님 오는 것이 무섭다는 뜻.
23	조록싸리 피거든 남의 집에 가지 말랬다	조록싸리가 필 때는 춘궁기이므로 남의 집에 가지 말라는 뜻.
24	칠 년 대흉에도 무당은 안 굶어죽는다	옛날 7년 간의 큰 흉년에도 무당은 굶어죽지 않듯이, 사람은 궁해질수록 미신을 더 믿게 되므로 무당은 흉년을 타지 않는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5	칠궁七窮이 춘궁보다 더 무섭다	예전에는 3,4월 춘궁과 7월 칠궁이 정기적으로 일었는데, 춘궁에는 봄나물도 많고 보리이삭은 팬지 20일만 돼도 풋보리로 먹을 수 있지만, 칠궁에는 나물들이 쇠어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벼이삭은 팬지 40일이 돼야 먹기 때문에 칠궁이 더 무섭다는 뜻.
		26	칠월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보리 양식이 떨어지고 아직 햇벼가 영글지 않아 굶주리는 음력 7월에는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조차도 겁이 난다는 뜻.
영농	농민	1	게으른 놈 낮잠 자기 좋고, 부지런한 놈 일하기 좋은 날이다	여름에 부슬비가 내리는 날 게으른 사람은 비를 핑계로 낮잠자기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덥지 않아서 일하기가 좋다는 뜻.
		2	게으른 놈이 김은 안 매고 이랑만 센다	게으른 농부가 밭은 매지 않고 남은 밭고랑만 세고 있다는 뜻.
		3	겨울 밤이 길다 해도 내 새끼끈만은 못하다	동지섣달 밤이 길다해도 농군들이 밤 늦게까지 꼰 새끼의 길이만큼은 못하듯, 농부는 추운 겨울 밤에도 늦도록 새끼를 꼰다는 뜻.
		4	경작도 않고 먹고 산다	농촌에서 농사도 않고 고생해 가며 산다는 뜻.
		5	광이(괭이)든 거지는 없어도 책 든 거지는 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농사만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지만, 공부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뜻.
		6	김매고 밭가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농부가 된다	농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자꾸 해서 능숙해지면 농부가 된다는 뜻.
		7	꺼끄렁벼 몇 섬만 하면 촌부자다	촌부자는 땅 몇마지기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뜻.
		8	날씨가 좋으면 밭을 갈고, 비가 오면 책을 읽는다	낮에는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피로를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뜻.
		9	논밭 없는 농민이다	농촌에 살면서도 논밭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극빈한 고용 농민이라는 뜻.
		10	농군에게는 흙내가 고소하다	농민들은 흙을 파먹고 살기 때문에 흙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진다는 뜻.
		11	농군은 두더지다	농민은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두더지같은 생활을 한다는 뜻.
		12	농군은 뱃심으로 일한다	농민들의 일은 고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뜻.
		13	농군은 여름에 하루 쉬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농사일은 제 철에 돌보지 않으면 수확이 크게 감수된다는 뜻.
		14	농군을 땅 일궈 먹고 산다	농민은 땅에 곡식을 심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산다는 뜻.
		15	농민들은 땅을 밭으로 삼고, 관리는 농민을 밭으로 삼는다	농민들은 밭에 곡식을 심어 먹고 살고, 관리는 농민들을 착취하여 먹고 산다는 뜻.
		16	농민들의 선물에는 미나리도 한몫낀다	1. 농민들은 자신이 정성들여 가꾼 미나리도 선물로 준다는 뜻. 2. 없는 사람은 하찮은 물건이라도 선물용으로 쓴다는 뜻.
		17	농민들이 가난하면 논밭도 황폐하게 된다	농민이 원체 가난하면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므로 농촌이 황폐해진다는 뜻.
		18	농민은 논가에 어민은 물가에 살아야 한다	농민은 논에 자주 나가보고 어미는 바닷가에 자주 나가야 상황을 잘 알 수 있어 자주 나가 농작물을 가꾸어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 경남
		19	농민은 팔포대상 부럽지 않다	농민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수익은 많지 않으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뜻.
		20	농부가 오죽해야 씨나락을 먹을까	곡식이라고는 씨나락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굶어죽을 지경이라서 먹어서는 안 될 씨나락까지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는 뜻.
		21	농부는 하루 쉬면 백날을 굶는다	농부가 농사철에 하루만 일을 하지 않아도 시기를 놓쳐 수확이 많이 감소된다는 뜻.
		22	농사꾼은 굶어죽어도 씨오쟁이는 베고 죽는다	농사꾼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을 지경이라도 씨오쟁이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굶주림을 극복하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3	농사꾼이 똥 무서우면 농사 못 짓는다	농사에는 똥이 중요한 거름인데, 이것을 무서워하면 농사짓기 어렵다는 뜻.
24	농사지은 사람은 쌀밥을 못먹고,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 쌀밥을 먹는다	1. 가난하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뜻. 2. 돈만 있으면 일을 않고도 호의호식 할 수 있다는 뜻.
25	독농가는 장마가 지거나 가물거나 농사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독농가는 어떤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농사일에 열중하듯이 전문가는 자기 사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
26	독농가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농부는 나쁜 토지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는 뜻.
27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한다	농민들이 들일을 할 때는 먹기도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한다는 뜻.
28	두더지처럼 땅만 일궈 먹고 산다	농산물은 어느 것이나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농민들은 일생을 두고 그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해낸다는 뜻.
29	땅 파먹고 사는 것이 농민이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여 먹고 산다는 뜻.
30	무식하면 농사나 지으랬다	옛날 유식한 사람들은 벼슬을 하여 먹고 살고, 무식한 사람들은 농사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뜻.
31	병신 주인이 아흔아홉 몫한다	남의 손으로 하는 농사에는 일꾼보다 주인이 월등히 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
32	봄내 여름내 사등이뼈가 휜다	농사꾼은 봄에서 여름에 이르기 까지 모심기, 김매기, 풀베기, 보리수확 등을 하느라고 등뼈가 휠 정도로 고되다는 뜻.
33	부자 농부가 마른 고양이 기른다	구두쇠 농부는 땅만 사려 하고, 먹을 것은 굶주려 가며 아끼기 때문에 고양이조차도 마른다는 뜻.
34	산중 놈은 도끼질이고, 들녘 놈은 괭이질이다	산중에 사는 사람은 나무를 베는 것이 직업이므로 도끼질을 잘하게 되고, 들녘에 사는 사람은 농사일로 괭이질을 많이 하므로 능숙하듯이 누구나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능숙하다는 뜻.
35	상농은 흙을, 중농은 작물을 하농은 풀을 가꾼다	농사의 기본은 농토배양으로 땅심을 높여주어야 소기의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데서 유래한 말
36	소청하는 도승지가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잠자는 농군만 못하다	여름 농한기에 편히 쉬는 농민이 벼슬아치가 관복입고 땀 흘리는 것보다 팔자가 더 낫다는 뜻.
37	식전 일이 반나절 일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할 때까지 하는일이, 아침 식사하고 점심 때까지 하는 일과 같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
38	씨나락 망태를 베고 죽는다	농부는 굶어죽을망정 씨나락은 먹지 않고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남겨 놓듯이, 농민은 씨앗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
39	아침에는 아저씨, 저녁에는 쇠아들이다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랄 때 일꾼을 구하려면, 아침 일찍 가서는 저자세로 사정을 해서 일꾼을 얻고 일을 다 마친 저녁 때에는 고자세로 보내듯이, 아쉬울 때는 아첨하다가 이용한 뒤에는 박대한다는 뜻.
40	아흔아홉 섬 하는 놈이 한 섬하는 놈보고 '나 백섬으로 채우게 한섬을 나 달라'고 한다	재물을 모을수록 물욕이 점점 커져서 없는 사람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운다는 뜻.
41	여름 하루 노는 것이 겨울 열흘 노는 것보다도 더 지루하다	1. 5, 6월 긴 긴 해는 같은 하루라도 겨울보다 더 길다는 뜻. 2. 늘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쉬기가 몹시 지루하다는 뜻.
42	여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	농민은 여름 농사철에 하루를 놀게되면 열흘 먹을 식량이 감소되므로 여름에 쉬지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
43	오뉴월에는 발등에 오줌 싸기도 바쁘다	5, 6월에는 모심기와 보리타작 등으로 농촌에서는 몹시 바쁘다는 뜻.
44	유월 농부가 팔월 신선 된다	음력 6월에 늦모심기와 보리타작으로 고되게 일하던 농부들도 8월이 되면 한가하게 추석을 맞이 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5	유월 발바닥이 사흘만 뜨거우면 가만히 누워서 먹는다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6월에 농사일을 하면 한 해 식량은 수확할 수 있다는 뜻.
		46	유월 저승이 지나면 팔월 신선이 된다	농부들이 농번기인 6월이 되면 지옥같이 고생스럽게 지내다가도 농한기인 8월이 되면 신선같이 편하다는 뜻.
		47	이십 석 가난뱅이는 천 석을 만들지만, 백 석으로 줄어든 천석꾼은 이십 석도 못 지킨다	재산을 늘려 나가는 사람은 점점 많이 늘려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패가하는 부자는 남은 재산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뜻.
		48	자식 물려 줄 것은 괭이밖에 없다	자기 땅 없이 남의 땅만 부치는 영세농민은 죽어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괭이 밖에 없다는 뜻.
		49	집안식구가 모두 호밋자루 잡을 줄을 알아야 그 집 살림이 편다	농가에서 온 식구가 농사에 나서면 잘 살게 된다는 뜻. 제주
		50	하늘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사람은 굶어죽게 하지 않는다	1. 농사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 2. 무슨 일이나 근면히 하면 생활은 한다는 뜻.
		51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일생을 땅 파먹고 살다가 죽을 때는 땅에 묻힌다는 뜻.
영농	머슴	1	게으른 머슴 밭고랑 세듯 한다	머슴이 김은 매지 않고 고랑만 세듯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끝나기만 바란다는 뜻.
		2	게으른 머슴은 저녁 나절이 바쁘다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제서야 바쁘게 일을 한다는 뜻.
		3	게으른 머슴은 칠월이 바쁘다	다른 사람들은 7월 전에 쉬는데,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않고 있다가 남이 쉬는 때에 일을 한다는 뜻.
		4	망하는 살림 머슴 밥 많이 준다	집안이 폐가할수록 살림을 알뜰히 하지 않고 도리어 헤프게 한다는 뜻.
		5	머슴 밥도 많이 주고, 닻 밥도 많이 주랬다	일하는 사람은 배가 불러야 일을 할 수 있고, 배는 닻줄을 많이 주어 정박을 해야 안전하다는 뜻.
		6	머슴 중에 상머슴이다	여러 사람이 일하는 중에서 가장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
		7	머슴살이한 사람이 머슴 꼴 못 본다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설프게 일하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뜻.
		8	머슴은 보리 숭늉에 살찐다	옛날 머슴들은 1년 동안 쌀밥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만 먹고 평소에는 보리밥만 먹는데, 그 보리밥 숭늉이 구수하므로 언제나 맛있게 먹는다는 뜻.
		9	머슴은 삼 년마다 갈아야 한다	머슴을 여러 해 계속 해서 두면 주인 성미를 잘 알므로 일 대신 꾀로 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좋다는 뜻.
		10	머슴은 일로 주인을 잡고, 주인은 밥으로 머슴을 잡으랬다	머슴은 일을 많이 하여 주인에게 보답하고, 주인은 음식으로 머슴에게 보답하라는 뜻.
		11	머슴을 잘못 두면 일 년 농사 폐농한다	농사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달려 있듯이, 무슨 일이나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뜻.
		12	머슴이 머슴을 부린다	일을 시키려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시켜야 한다는 뜻.
		13	머슴이 삼 년 되면 주인마님을 부리려고 한다	아랫사람을 오래 쓰다 보면 분에 넘치는 행동도 하게 된다는 뜻.
		14	밥 많이 먹는 머슴이 일도 잘한다	밥은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먹게 되므로 힘센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뜻.
		15	선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분수 없이 쓸데 없는 남의 걱정을 한다는 뜻.
		16	양식은 머슴이 다 먹는다	중노동을 하는 머슴이 집안에서는 양식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뜻.
		17	이월이 되면 머슴은 호미 쥐고 울고, 아낙네는 부엌문 잡고 운다	음력 2월이 되면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접어들므로 남자나 여자나 다 고된 일을 할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8	일 년 내내 일하고 섣달 그믐에 버선목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머슴이다	1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받은 새경돈은 노름해서 다 잃고, 빈손으로 그믐날 주인집에서 나오는 것이 머슴살이라는 뜻.
		19	일 년 농사는 머슴 손에 달렸다	일년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머슴이 일을 잘해 주느냐 않느냐에 달렸다는 뜻.
		20	처음 온 머슴은 일을 잘한다	새 직장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잘한다는 뜻.
		21	한평생 머슴 노릇 해봤자 더벅머리 총각 못 면한다	옛날 머슴살이하는 사람은 젊어서 죽을 때까지 머슴살이를 해도 장가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기가 어려웠다는 뜻.
영농	농토	1	가을 밭에 가는 것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가난한 친정에는 양식이 없지만 가을밭에는 오곡이 익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뜻.
		2	가을 밭은 갈아엎지 않는다	가을 밭에는 대부분 보리와 밀을 심었고, 약간 남은 밭은 갈지 않고 두었다가 봄채소를 심는다는 뜻.
		3	강가 전답은 사지도 말랬다	옛날 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강가의 논밭은 수해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아예 사지를 말라는 뜻.
		4	개구리 울지 않는 논은 값이 떨어진다	개구리가 울지 않는 논은 물이 없는 봉답이므로 값이 싼 논이라는 뜻.
		5	거머리논에 개똥밭이다	논은 거머리가 있는 논이라야 물이 넉넉할 뿐 아니라 비옥하며, 밭은 개똥이 많은 밭이라야 비옥하다는 뜻으로 논이나 밭이 기름지다는 뜻.
		6	거멀논만 찾고 개똥밭만 찾는다	좋은 논과 좋은 밭만 찾듯이, 남의 사정은 모르고 똥딴지 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거멀논: 거머리가 많고 수리가 잘 된 논
		7	건밭에 부룻대 같다	비옥한 밭에서 자란 부룻대처럼 크다는 뜻.
		8	길 막힌 밭 사는 사람은 없다	드나드는 길이 없는 밭은 농사를 지으러 다닐 수가 없으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
		9	남에는 논이 많고, 북에는 밭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남쪽은 강이 많아서 논이 많고, 북쪽은 산이 많아서 밭이 많다는 뜻.
		10	논 많은 곳에는 풍흉이 있어도 밭 많은 곳에는 풍흉이 없다	벼농사 한 가지만 하는 논농사에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지만, 밭농사만 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곡식을 심으므로 풍흉이 없이 지낸다는 뜻.
		11	논 이기듯 한다	1. 논은 잘 이겨야 모심기도 좋고 모도 잘 자란다는 뜻. 2. 한 번 한 말을 거듭 되풀이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12	논 팔아 밭 사기다	1. 일의 순서를 바꾼다는 뜻. 2. 잘 될 짓은 않고 망할 짓만 한다는 뜻.
		13	논밭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줘야한다	논밭은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
		14	논밭이 천년이면 팔백 번 주인이 바뀐다	빈부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논밭의 주인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없이 바뀐다는 뜻.
		15	논은 거머리논을 사랬다	논은 거머리가 있는 수리안전답을 사야 풍흉이 없이 수확할 수 있다는 뜻.
		16	논을 사려면 둑을 먼저 보고 사랬다	논을 살 때에는 먼저 장마 때 수해가 없는 안전답을 사야 한다는 뜻. 제주
		17	논이 좋으면 물이 헤프고, 사람이 좋으면 돈이 헤프다	인정 있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뜻.
		18	농토 사려고 애쓰지 말고 입을 덜랬다	농촌 살림은 농사만 많이 지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와 식량을 절감하도록 하라는 뜻.
		19	대천가 논은 사지 말랬다	옛날 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큰 냇가의 논은 수해를 입을 위험성이 많으므로 아예 사지를 말라는 뜻.
		20	뒷들 논 팔아 젊은이 노름 밑천 대준다	농사도 잘 안되는 뒷들 논보다는 젊은 사람 노름 밑천을 대주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이 낫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1	땅 사려고 말고 입을 덜랬다	농사만 많이 지어 수입을 늘리려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월하다는 뜻.
22	땅심이 좋아야 곡식도 잘 된다	노화되지 않고 비옥한 땅이라야 곡식이 잘 된다는 뜻.
23	문 앞에 있는 옥답이다	집 앞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이라는 뜻.
24	미운 놈 볼려면 길나는 밭을 부치랬다	곡식 밭으로 다니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뜻. 제주
25	믿을 것은 땅밖에 없다	1. 농업은 심고 가꾼대로 수확할 수 있으므로 믿을 수가 있다는 뜻. 2. 재산 증식에는 땅을 사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
26	밭 장자長者는 있어도 논 장자는 없다	밭을 많이 가진 사람은 흉년을 모르고 살아도 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흉년을 타게 된다는 뜻.
27	밭 팔아 논 살 때는 이밥이나 먹자는 것이다	밭을 팔아 논을 사는 것은 쌀밥을 먹기 위하여 한 일이듯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뜻.
28	밭 팔아 논은 사지만, 논 팔아 밭은 사지 말랬다	밭을 팔아 논을 사는 일은 집안이 흥하려는 것이지만, 논을 팔아 밭을 사는 것은 패가할 짓이니 이런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
29	밭을 살 때는 변두리도 보고 사랬다	밭을 살 때는 토질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와 수해의 위험성 등도 보고 사라는 뜻.
30	밭이 좋아야 곡식도 잘 된다	밭을 잘 갈고 거름도 넉넉히 하여 곡식을 심어야 수확도 많이 거두게 된다는 뜻.
31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논밭이 따로 없다	나쁜 논밭이라도 주인의 부지런하면 거름도 많이 주고 객토도 하여 좋은 농토로 만들 수 있다는 뜻.
32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삼 년 부친 논밭도 다시 보고 사랬다	논밭을 살때는 아무리 내용을 잘 아는 논밭이라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고 사라는 뜻.
34	세부측량稅附測量에 땅 날리듯 한다	1.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뒤 세부측량이라는 미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였다는 뜻. 2. 재물을 주인도 모르게 약탈하였다는 뜻.
35	십년에 한 번 먹는 천수답이다	10년에 한 번 정도 농사를 지어 수확할 수 있는 봉답이라는 뜻.
36	알토란 캐는 밭은 남 안준다	알토란은 비옥한 토질에서 잘되는 작물이므로, 이런 토지는 소작으로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영농한다는 뜻.
37	일진에 무자戊字 든 날에는 논밭을 사지 않는다	농토를 사는 데 있어 일진에 무자가 들면 불길한 날이므로 사지 않는다는 뜻.
38	전답신田畓神에는 오월에 풍양제를 지내고, 팔월에는 추석제를 지내고, 시월에는 추양제를 지내면 풍년이 든다	농사짓는 농토에는 5월 모심기 때 풍양제를 지내고, 추수 때인 추석에 추석제를 지내고, 추수를 다 한 다음에는 추양제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다음 해에도 풍년이 든다는 뜻.
39	좋은 밭에서 좋은 곡식 난다	밭이 좋아야 좋은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뜻.
40	지렁이가 많은 땅은 건땅이다	지렁이는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하는 것이므로, 지렁이가 많으면 농작물의 생육이 잘 되는 좋은 땅이라는 뜻.
41	집 잘 지으려고 말고, 좋은 농토 먼저 장만하랬다	집사치하려고 말고, 좋은 농토 먼저 장만하여 생활기반을 구축하라는 뜻.
42	집치레말고 밭치레하랬다	농가에서는 집치장 말고 좋은 농토를 장만하도록 노력하라는 뜻.
43	천봉답 소나기 기다리듯 한다	천수답을 가진 사람은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나기 오기만 고대한다는 뜻.
44	촌부자는 밭부자다	들녘이 아닌 촌에는 밭이 많으므로 밭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5	큰 냇물가에 있는 논밭은 사지 말랬다	옛날 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냇가의 논밭은 수해를 입기 쉬우므로 아예 사지를 말라는 뜻.
		46	토지는 밭갈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토지는 농민들에게 주어서 영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
		47	통로 막힌 밭 시세 없다	출입이 불편한 농토는 값이 싸다는 뜻.
		48	통로 없는 논밭은 사지 말랬다	출입하는 도로가 없이 남의 논밭을 지나다니는 농토는 농사일 하는데 불편하므로 아예 사지를 말라는 뜻.
영농	거름	1	거름더미는 쌀더미다	곡식에는 거름을 만족스럽게 주어야 수확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
		2	거름 한 짐이 곡식 한 짐이다	거름을 한 짐 하게 되면 가을에 곡식을 한 짐 더 생산할 수 있다는 뜻.
		3	거름보다 호미질이다	곡식에는 거름도 중요하지만, 호미로 풀을 뽑아 주고 땅을 긁어서 뿌리의 발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
		4	거름은 농작물의 보약이다	농작물에는 거름을 주지 않으면 약하게 자라나 수확이 감소되므로 거름을 많이 장만하여 시비하라는 뜻.
		5	겨울 새벽에 개똥 줍는다	예전에는 겨울 새벽이면 농민들이 인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개똥을 주워서 거름용으로 썼다는 뜻.
		6	곡식은 걸운 대로 거둔다	곡식은 자라는데 필요한 거름을 넉넉히 주어야 다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
		7	골짝논에 늦거름 주면 농사 망친다	골짝논은 결실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늦거름을 주면 역효과가 난다는 뜻.
		8	꼭두새벽 풀 한 짐이 가을 나락 한 섬이다	이른 새벽에 풀 한 짐을 해서 퇴비를 만들어 거름을 하면 가을에 벼 한 섬을 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9	땀은 벼의 거름이다	농민이 벼농사에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잘 자라서 수확이 많아진다는 뜻.
		10	땅이 비옥하면 가지가 잘 자란다	비옥한 밭은 가지가 잘 자라는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뜻.
		11	똥장군은 비오는 날 지랬다	똥을 작물에 직접 주면 곡식이 죽게 되므로 물에 타서 농도를 희석시켜 사용해야 하는데, 비오는 날 주면 물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뜻.
		12	마늘밭 불은 이른봄에 지른다	마늘밭을 덮은 짚이나 왕겨 속에는 고자리와 같은 해충벌레가 숨어 있으므로 이른봄에 불을 놓아 태워죽이기도 하지만, 불탄 재가 산성화된 흙을 바로 잡는 구실도 하므로 마늘의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
		13	바가지 거름을 주면 농사 망친다	한 번에 많은 양의 거름을 주면 작물이 속성으로 자라서 허약할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 약해서 수확이 감소된다는 뜻.
		14	밥 한 그릇은 남을 공으로 주어도 거름 한 소쿠리는 남 안준다	밥 한 그릇의 식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거름 한 소쿠리로는 많은 곡식을 증산시킬 수 있으므로 거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
		15	손끝이 거름이다	농사일은 자주 손질을 해주어야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는 뜻.
		16	식전 풀 한 짐이 벼 한 섬이다	여름 식전에 풀 한 짐을 베어 퇴비를 하게 되면, 가을에 벼 한 섬을 더 수확할 정도로 증산을 할 수 있다는 뜻.
		17	한설날[寒雪日] 개똥 줍는다	옛날 농촌에서는 추운 겨울날에 개똥을 비료로 쓰기 위하여 주워 모았다는 뜻.
		18	호미끝이 거름이다	곡식은 호미로 자주 김을 매주면 거름한 것처럼 잘 자란다는 뜻.
영농	논물	1	가문 논에 물 대기다	1. 가문 논에 물을 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뜻. 2. 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뜻.
		2	가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기쁘고, 제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기쁘다	농민으로서 가장 기쁜 것은, 가문 논에 물이 들어가 벼가 소생하는 것과 굶주린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라는 뜻.
		3	가뭄에는 사돈네 눈물도 도둑질한다	가물 때는 체면도 염치도 없이 물을 댄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	감꽃 필 무렵 물 잡으면 폐농한다	감꽃 필 때 논에 물을 잡으면 너무 일러서 거름기가 유실되므로 모내기 직전에 물을 대서 심어야 모가 잘 자란다는 뜻.
5	논농사는 물농사다	벼는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넉넉해야 벼농사가 잘 된다는 말.
6	논두렁에 구멍 뚫기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서 논둑을 무너뜨리고, 논에 물마저 없이 만들어 농사를 방해하듯이 남을 해치는 심술궂은 짓만 한다는 뜻. 흥부전
7	논물 욕심에는 친구도 없다	논이 가물 때 물 댈 욕심은 친한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뜻.
8	논에는 물이 장수다	벼농사에는 물이 넉넉해야 풍년이 들게 된다는 뜻.
9	논이 마르더라도 소 발목만 빠지면 괜찮다	논에는 물을 항상 가득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벼 생육단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므로 너무 물욕심만 내지 말라는 뜻.
10	누구나 제 논물 먼저 대려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 논에 물을 먼저 대려는 욕심이 있다는 뜻.
11	단오에 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단오 무렵에 물을 잡아 놓으면 그 물로 두 번 김매기까지는 할 수 있으므로 풍년이 들 수 있다는 말.
12	돈도둑질은 안해도 물도둑질은 한다	가물 때 논이 마르게 되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도 윗논에 물이 있으면 도둑물을 대게 된다는 뜻.
13	마른 논에 물 대기다	마른 논에 물을 대서 모를 심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
14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보기 좋은 것은 없다	1. 농사짓는 사람은 가문 눈에 물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뜻. 2. 끼니를 못 잇는 어려운 사람은 자기는 굶어도 자식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다는 뜻.
15	마른 논에 물 잦듯 한다	마른 논에 물이 줄 듯이 없는 사람은 양식이나 돈이 생기면 금방 없어지게 된다는 뜻.
16	못물은 용마루도 넘어간다	지붕 중앙에 있는 용마루는 사람도 넘어다녀서는 안되는 곳이지만 못자리 물만은 넘어가도 되듯이, 못자리 물은 농사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뜻.
17	무논은 가뭄을 모른다	수리안전답은 가뭄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
18	물(봇물)싸움에 살인난다	가뭄 끝에 논물이 귀해지면 서로 먼저 대려고 하다가 물싸움을 하게 된다는 뜻.
19	물갈이 논 말리면 폐농한다	오랫동안 물을 대두었던 논을 말리게 되면 토양 속의 무기질이 산화되어 작물을 해친다는 뜻.
20	물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	벼농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논에 물이 없으면 윗논 물을 주인 모르게 댄다는 뜻.
21	물도둑질은 세상이 아는 도둑질이다	벼농사짓는 사람은 논에 물이 없으면 으레 윗논 임자의 승낙 없이도 물을 대는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
22	물욕심 없는 사람 없다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려는 욕심이 있다는 뜻.
23	물탐 많은 사람 농사 잘 된 것 못 보았다	벼는 생육시기에 따라 물을 적당히 뺐다가 댔다가 해야 잘 자라는데, 덮어놓고 물만 가득히 대두면 잘 자라지 못한다는 뜻.
24	봇물전쟁이다	날이 심하게 가물면, 봇물을 가지고 흔히 패싸움이 일어난다는 뜻.
25	써레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	써레질한 논물에는 비료 함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이 무렵에는 모심기로 물이 귀할 때라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뜻.
26	오려논에 물 터놓기다	남이 애써서 대놓은 논물을 빼버리듯이 남의 일에 심술을 부린다는 뜻. *오려논: 올벼를 심은 논
27	윗논 물을 대주고 제 논에 물도 댄다	남의 논에서 물을 댈 때는 그 논에 물을 먼저 댄 연후에 빼가는 것이 도리라는 뜻.
28	윗논에 물이 있으면 아랫논도 물 걱정 않는다	1. 윗논에 물이 있으면 저절로 아랫논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 2. 윗사람이 잘 살게 되면 아랫사람들도 그 덕을 보게 된다는 뜻.
29	입하 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써레를 싣고 나온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0	입하에 물 잡으면 보습에 개똥을 발라 갈아도 안된다	재래종을 심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물을 잡으면 근 한 달 동안을 가두어두기 때문에 비료분의 손실이 많아 농사가 잘 안된다는 뜻.
		31	제 논에 물 대기다	가뭄 때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체면치레도 없이 제 욕심만 채우려 든다는 뜻.
		32	처서 물은 오전 오후가 다르다	처서인 8월 하순에는 주야의 온도차가 심하므로 논에 찬물을 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뜻.
		33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에 담그고 산다	하지가 되면, 논에 물을 계속해서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을 벗고 살아야 한다는 뜻.
		34	한식 물은 비상보다 독하다	한식에 논물을 대면 물을 가두어두는 기간이 길어서 벼의 생육에 좋지 않다는 말.
영농	갈이질	1	가을 밭은 안 갈아엎는다	가을 논은 갈아엎어도 밭은 갈아엎지 않는다는 뜻.
		2	갈이를 잘하면 비료 한 번 더 준 폭 된다	논갈이나 밭갈이를 깊게 해야 작물의 생육이 좋아 수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
		3	밭갈이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쟁기를 잡는 사람은 적다	농번기가 되어도 말로만 걱정하고 직접 농사일에 나서는 사람은 적듯이,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적다는 뜻.
		4	밭갈이 갈 때 빈 물동이 지고 가로질러 가면 보습이 부러진다	아침에 소몰고 밭갈이하러 가는데, 물동이 인 여자가 길을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어 보습날이 부러진다는 뜻.
		5	밭을 갈려면 개울까지 낼 줄 알아야 한다	쟁기질을 할 때는 수해가 없도록 밭 주변에 개울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뜻.
		6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만 한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뜻.
		7	한 치 갈면 한 섬 먹고, 두 치 갈면 두 섬 먹는다	논밭은 길이 갈아야 거름도 널리 분포되고 곡식 뿌리도 널리 퍼져서 잘 되므로 깊게 갈아서 수확을 늘리라는 뜻.
영농	파종	1	감꽃 피면 파종하고 못자리한다	감꽃이 피기 시작하면 목화씨도 뿌리고 못자리도 해야 한다는 말.
		2	감꽃 필 때 씨나락 담근다	현재 신품종은 감꽃 필 때면 씨나락 담그는 것이 늦지만 옛날 재래종은 이 무렵이 적기라는 뜻.
		3	감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 안 보이면 못자리가 늦다	못자리는 감나무 잎이 트기 시작할 때가 적기이지, 만약 잎이 펴서 새가 안 보일 때는 이미 그 시기가 늦었다는 뜻.
		4	고초일枯焦日에 밭벼를 갈면 말라죽는다	흉일인 고초일에 밭벼를 갈면 가뭄을 타서 죽는다는 뜻.
		5	고초일에 씨앗을 뿌리면 말라죽는다	흉일인 고초일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가뭄을 타서 말라죽으므로 이날은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뜻.
		6	곡우 전에는 씨나락을 담가야 수확이 많다	재래종은 신품종보다 약 20일 정도 늦게 때문에 곡우 경에 씨나락을 담가야 수확을 많이 낼 수 있다는 뜻.
		7	곡우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약 20일 정도 늦게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곡우인 4월 20일경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는 뜻.
		8	굶어죽어도 씨나락은 먹지 않는다	농가에서 다음해 파종할 곡식의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관해야 한다는 뜻.
		9	덜 여문 씨앗은 배 안 병신과 같다	농사에서는 종자가 좋아야 하므로 덜 여문 씨앗을 종자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
		10	못자리판에 돌 던지기	못자리판에 돌을 던져서 모가 돌에 눌러죽게 될 뿐만 아니라 모를 찔 때 돌이 있어서 작업에 지장을 주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즐긴다는 뜻. 홍부전
		11	밭못자리 삼년 하면 한 해 농사가 도망 간다	밭에다가 거듭 3년간 못자리를 하게 되면 양분을 다 빨아먹어 밭이 토박해지므로 윤작을 하라는 뜻.
		12	볍씨 파종은 무기자戊己字 든 날에 해야 모가 자란다	볍씨를 파종하는 날 일진은 무자와 기자가 든 날을 택해서 해야 벼농사가 잘 된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3	볍씨 파종은 인묘진자寅卯辰字가 든 날에는 하지 않는다	볍씨파종은 일진에 인 자, 묘 자, 진 자 등이 든 날은 피해서 해야 풍작을 할 수 있다는 뜻.
		14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	농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야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뜻.
		15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돼도 거둘 것이 없다	농사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도 거둘 곡식이 없듯이, 사람도 소년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자라서 출세할 수가 없다는 뜻.
		16	봄에 씨앗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뉘우치게 된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어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는 뜻.
		17	사시巳時에 낙종하면 볍씨가 몰린다	사시(오전 10시)경에는 볍씨가 건조하여지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볍씨가 떠다니다가 한곳에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을 피해서 하라는 뜻.
		18	삼월 곡일에 볍씨를 담그면 모가 잘 자란다	재래종은 신품종보다 약 20일 정도 늦기 때문에 3월 곡일에 못자리할 볍씨를 물에 담그면 모가 잘 자란다는 뜻.
		19	섣달 그믐 눈 녹인 물로 다음해 봄에 볍씨를 담그면 해충이 없다	섣달 그믐께 눈 녹인 물을 독에 얼지 않게 간수하였다가 이 물로 볍씨를 담그면 해충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
		20	송장을 보고 파종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농사를 시작하는 파종은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잘 된다는 뜻.
		21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려고 한다	봄에 농사일도 하지 않고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하듯이 허망한 행동만 한다는 뜻.
		22	씨앗은 오줌으로 선별하면 생육이 좋다	씨앗을 오줌에 띄워서 선별하여 심으면, 오줌이 거름도 되고 씨도 불리게 되므로 생육이 잘 된다는 말.
		23	씨앗을 여러 날 두고 심으면 새가 덤빈다	씨앗을 여러 날 심으면 참새에게 들키기 쉬워 참새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뜻.
		24	이팝나무 꽃이 피면 못자리를 한다	재래종 못자리는 4월 하순 이팝나무 꽃이 필 무렵이 적기라는 뜻.
		25	일진에 을자乙字 든 날은 파종하지 않는다	벼 파종하는 날 일진에 을자가 들면 불길하니 피해서 하라는 말.
		26	일찍 뿌려야 일찍 거둔다	농작물은 씨앗을 일찍 뿌려야 일조일이 길어서 수확도 많고 빠르다는 뜻.
		27	종자는 신랑색시 고르듯 해야한다	종자가 좋아야 작물도 잘 되므로 종자를 선택할 때는 배우자를 고르는 심정으로 하라는 뜻.
		28	종자를 속이면 황천죄를 받는다	씨앗을 속여 농사를 폐농시킨 죄는 살아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받는다는 뜻. 제주
		29	좋은 종자를 아끼면 나쁜 종자도 아껴진다	독농가는 좋은 종자도 아끼지만 나쁜 종자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뜻.
		30	죽어도 씨오쟁이는 베고 죽으랬다	농사꾼은 씨나락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
		31	쪽나무 잎이 피기 전에 낙종하면 이화명충이 성하다	모내기 시기를 잘 못 잡으면 이화명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
		32	파종하는 날 머리를 깎으면 씨나락이 몰린다	벼 파종하는 날 머리를 깎으면 머리털이 날아다니듯이 볍씨가 한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뜻.
영농	모내기	1	개구리와 겸상한다	모심기 때 들녘 나무 그늘에서 샛밥이나 점심을 먹다보면 개구리와 맞바라보고 먹을 때도 있다는 뜻.
		2	7월 그믐에 모내기를 하더라도 바로만 심어주라	늦모내기를 하더라도 뿌리를 고르게 맞춰서 정성들여 얕게 잘 심기만 하면 착활도 빠르고 생육도 좋아 수량을 높일수 있다는 뜻. 경남
		3	7월 모는 발 당구고 중식한다	늦모를 낼 때는 눈코뜰새없이 바빠 논물에 발을 담근채로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바쁘다는 데서 유래 경기, 충남, 경남
		4	공달이 들면 늦모가 쓰인다	음력으로 벼가 패기 전에 윤달이 들면 자라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 수확이 증가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	논 자랑 말고 모 자랑 하라	논이 아무리 좋고 비옥해도 모를 잘 못기르면 그해 농사를 그르치게 되므로 모를 잘 길러야 한다는 뜻.
6	논 자랑 말고 모 자랑 하랬다	1. 논이 좋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모가 좋아야 농사가 잘된다는 뜻. 2. 소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나 실속이 있어야 한다는 뜻.
7	논도 있고 물도 있다	모심을 논도 있고 물도 있어서 쉽게 모심기를 할 수 있듯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뜻.
8	늦게 심은 모가 땅내는 쉬이 맞는다	늦모가 올모에 비하여 발육이 잘되었기 때문에 모심기를 하게 되면 올모보다 빨리 착근하여 자란다는 뜻.
9	늦게 심은 벼는 자랄 시기가 없다	벼를 늦게 심으면 자랄 시기가 없어서 수확할 것이 없듯이 무슨 일이나 늦게 시작하는 일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뜻.
10	늦모 가뭄에 천수답 물 바라듯 한다	늦모심기가 늦어가는데 가뭄은 계속되어 천수답 가진 사람의 애간장을 더욱 태운다는 뜻.
11	늦모내기는 놉구덕 밥구덕 모구덕이다	늦모내기를 하면 노동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고 모도 많이 소요된다는 뜻. 전북, 경북
12	늦모는 감 우려먹으며 심는다	7월 중순이면 감을 우려먹을 수 있는데, 재래종 늦모는 이때까지도 심는다는 뜻.
13	늦모는 꼬챙이로 구멍을 뚫어가며 심는다	늦모는 물이 모자라도 심어만 놓으면 거의가 결실하게 된다는 뜻.
14	늦모는 놉구덕·밥구덕·모구덕이다	늦모심기는 놉 얻기도 힘들고, 밥도 많이 들고, 모두 부족하여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
15	늦모는 대추를 코에 넣어가며 심는다	옛날 대추 고장인 옥천·보은에서는 늦모심기를 할 때, 대추를 콧구멍에 넣어서 들어갈 때까지는 모를 심었다는 뜻.
16	늦모는 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넣어가며 심는다	옛날 늦모심기의 최종 시기는 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넣어서 따끔거리기 전까지는 심었다는 뜻.
17	늦모는 사흘이면 땅내를 맡는다	늦모는 모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착근이 빠르다는 뜻.
18	늦모는 손에 든 모와 땅에 꽂은 모가 다르다	늦모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심어야 수확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뜻.
19	늦모는 자랄 여가 없이 이삭팬다	알 밴 늦모는 자랄 사이도 없이 바로 이삭이 패게 되므로 수확할 것이 별로 없다는 뜻.
20	늦모는 찔레꽃 필 때까지 심는다	재래종 벼는 찔레꽃이 질 때까지 심는데, 그래도 대파(代播)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
21	늦모는 하루가 다른다	늦모는 하루 차이에도 수확이 다르므로 서둘러서 심어야 한다는 뜻.
22	늦모는 호미로 심는다	늦게까지 물이 부족하여 모를 심지 못한 논은 호미로라도 심어두면 장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뜻.
23	늦모심기 가뭄에 하늘 쳐다보듯 한다	늦모심기는 점점 늦어져 가고 가뭄은 계속되어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뜻.
24	늦모심기에는 개구리와 겸상한다	늦모심기는 해가 져서 개구리들이 나와 울기 시작할 때까지 일을 하게 된다는 뜻.
25	늦모심기에는 쟁기질하면서도 존다	늦모심기는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연일 과로한 터라서 몹시 피로하여 졸린다는 뜻.
26	늦모심기에는 죽은 중도 꿈틀한다	늦모심기에는 죽은 귀신도 도와주려고 꿈틀할 정도로 일손이 모자란다는 뜻.
27	늦모심기에는 지나가던 원님도 심어주고 간다	늦모심기 때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손을 돕는다는 뜻.
28	늦모에는 골방처녀도 나선다	늦모심기 때는 매우 바쁜시기이고 일손이 보자라기 때문에 규중처녀까지도 동원된다는 뜻.
29	늦모에는 쟁기 꽂아 놓고 낮잠잔다	늦모심기 때는 너무 피로하여 낮잠을 자게 된다는 뜻.
30	대추꽃이 피면 모심기를 시작한다	옛날 재래종 벼는 지금보다 모심기를 늦게 하였기 때문에 대추 고장인 청산, 보은 지방에서는 대추꽃이 피는 것을 잣대로 삼아 모심기를 하였다는 뜻.
31	때죽나무 움트면 못자리 적기다	때죽나무의 움이 클때는 4월 중하순기로 일반 벼 못자리 파종시기로 못자리를 강조한 데서 생긴 말 충남, 전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2	뜬 모가 농사 장원한다	모는 얕게 심어야 착근도 잘 되고 발육도 빨라서 풍작이 될 수 있다는 뜻.
33	만이앙晩移秧 모판에는 뒷방처녀도 나선다	늦모심기 철에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규중처녀까지도 나와서 일손을 돕는다는 뜻.
34	망종 전 오심기다	옛날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20여일 늦게 심으므로 망종인 6월 5일 이전에 심은 것은 다 오심기로 간주하였다는 뜻.
35	모 이앙시 뻐꾹새가 울면 모사리 잘 한다	뻐꾹새가 울면 그날 기후가 맑음을 뜻하므로 활착이 잘 된다는 뜻. 강원
36	모내기 때 하루는 겨울의 열흘 맞잡이다	모를 심지 못하면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모내기 때 하루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
37	모내기에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농번기인 모내기 때는 일손이 모자란다는 뜻.
38	모낸 후 뒷물이 마르지 않아야 잘 먹는다	이앙 직후는 활착기로 이때 논물이 마르면 식상이 많고 활착이 지연되어 생육이 좋지 못하므로 이앙 직후에는 논물을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 전남
39	모농사가 반半농사다	모든 농사에 있어 모가 충실해야 잘 자라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40	모농사가 반농사다	1. 모농사를 잘해서 좋은 모를 심어야 농사가 잘된다는 뜻. 2. 벼농사는 모만 심어 놓으면 농사 반은 하였다는 뜻.
41	모는 꽂아 놓으면 먹는다	벼농사는 심기만 하면 수확은 하게 된다는 뜻.
42	모는 보리타작 전에 심어야 한다	이모작을 하는 논은 보리타작을 한 뒤에 모를 심으면 모가 늦어서 수확이 감소되므로 타작 전에 심어야 한다는 뜻.
43	모심기의 길일은 신미, 계유, 임자, 계미, 갑오, 갑진, 을사, 병오, 을묘, 신유, 갑, 병, 정, 무, 기자가 든 날이다	모심기도 길한 날을 택하여 하면 벼가 병 없이 잘 자라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44	모심을 때 창 받는 논은 떡시루 놓고 비러도 안된다	논갈이를 깊이 하지 않고 얕게 하게되면, 뿌리의 생장이 약하고 영양 보유능력도 적어서 다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뜻.
45	못짐 지고 가다가 매미소리가 나면 못짐 버린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 7월 중순이 지나면 모를 심어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
46	밤꽃이 피면 모내기가 한창이다	밤꽃은 6월 초순경부터 피기 때문에 재래종 벼는 이 무렵에 한창 모내기를 하게 된다는 뜻.
47	배고픈 놈이 모는 잘 심는다	모심기 작업은 몸을 앞으로 꾸부리고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사람보다 배가 고픈 사람이 더 잘 심게 된다는 뜻.
48	벼 심어 여물지 않는다면, 차라리 피를 심어 수확하는 것만 못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일을 하느니보다는 확실성이 있는 작은 일을 하는 편이 낫다는 뜻.
49	벼 심은데 콩 나지 않는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지 콩이 날리가 없듯이 원인과 결과는 다를 수 없다는 말.
50	벼는 6땡 농사 보리는 장땡 농사다	모내기는 6월 6일까지, 보리파종은 10월 10일까지 해야한다는 뜻. 경북
51	벼는 심어만 놓으면 먹는다	벼는 심어만 놓으면 가문다 해도 이내 장마기가 닥치므로 먹게 된다는 뜻.
52	볏모가 좋아야 벼이삭도 크다	볏모가 실하게 자란데서는 이삭도 큰 이삭이 돋는다는 뜻.
53	봄에는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	봄 농사철에는 몹시 바빠서 게으른 사람도 저절로 부지런해진다는 뜻.
54	봄엔 아이 데리고도 좁쌀 한 말을 번다	봄철 모내기 때에는 일손이 모자라므로 여자의 품삯도 올라서 하루에 좁쌀 한 말씩은 받는다는 뜻.
55	뻐꾹새는 모내기를 부지런히 하라고 운다	6월 초순부터 울기 시작하는 뻐국새는 모내기가 늦어진다고 재촉하는 울음이라는 뜻.
56	사시巳時 낙종落種하면 벼알이 기어간다	물못자리를 사시(9시~11시)에 하면 햇볕에 의해 못자리가 부실해진다는 뜻으로 못자리 낙종은 아침일찍해야한다는 말. 경기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7	산골논은 배게 심고, 보리논은 드물게 심는다	산골논은 수온도 낮고 거름기도 적으므로 모를 배게 심어야 하고, 보리를 심었던 논은 수온도 높고 거름기도 많으므로 드물게 심어야 수확이 많다는 뜻.
58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	7월하순 모내기는 늦지만 벼농사가 다른 잡곡보다 낫다는 뜻.에서 유래 전남
59	상강霜降 구십 일 두고 모심어도 잡곡보다는 낫다	상강(10월 21일경)에서 90일 전인 7월 20일경에 모내기를 해도 메밀이나 콩조 등과 같은 잡곡을 파종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낫다는 말.
60	소만 전 오심기다	옛날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늦게 심었기 때문에 소만인 5월 21일경 이전에 심으면 오심기로서 수확이 많았다는 뜻.
61	소서 때는 새각시도 모 심어라	소서는 모내기가 늦어진 때로 새로시집온 색씨까지 나와서 모내기를 서둘러야 할 만큼 바쁜 시기라는 뜻.
62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소서경에는 모심기가 너무 늦어져 지나가던 행인까지도 일손을 돕는다는 뜻.
63	소서 물 보고 천봉지기에 모 심는다	소서 무렵에는 장마로 천수답도 모를 심게 되는데, 그래도 잡곡을 심는 것보다 낫다는 뜻. *천봉지기: 수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빗물로 모를 심는 논
64	소서 전 늦심기다	예전 재래종 벼는 지금의 신품종보다 늦게 심었기 때문에 하지에서 소서 사이에 심는 모는 늦모라고 하였다는 뜻.
65	소서小暑가 넘으면 새각시도 모심는다	7월 7일 경인 소서가 넘으면 모심기가 늦어져 바깥 출입을 삼가는 새각시까지도 동원된다는 뜻.
66	쇠말뚝은 깊게 박고 모는 얕게 심는다	소를 붙잡아 맬 말뚝은 깊고 튼튼하게 박아서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모는 얕게 심어야 수량이 많아진다는 뜻.
67	언덕 다랑이는 배게 심고, 들논은 드물게 심는다	모심기는 찬물내기 산골논에는 배게 심어야 하고, 들판논에는 드물게 심어야 수확이 많다는 뜻.
68	오뉴월 품앗이 이틀 못 넘긴다	5, 6월에는 일손이 모자라는 바쁜 때이므로 품앗이는 이틀 안에 갚아야 한다는 뜻.
69	오뉴월 품앗이는 논둑 밑에 있다	음력 5, 6월 품앗이는 일손이 모자랄 때이므로 즉시 갚으라는 뜻.
70	오뉴월 품앗이도 순서가 있다	5, 6월 늦모심기는 누구나 다 바쁜 때이므로 남이 약속한 품앗이를 빼앗아 순서를 뒤섞으면 안된다는 뜻.
71	오뉴월 품은 제자리서 갚으랬다	음력 5, 6월 품앗이는 일손이 부족할 때이므로 제때에 갚아야 한다는 말.
72	오종은 섬을 더 맨다	모심기를 일찍한 것은 수확이 많아지므로 타작해서 담을 섬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 * 오종: 오심기한 벼
73	유월 늦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 주고 간다	음력 6월 늦모심기에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나가는 원님도 도와 줄 정도로 서둘러 심어야 한다는 뜻.
74	장구 치고 북 치고 모내기한 집 가을할 것 없다	모내기할 때 흥청망청 함부로 심은 논은 수확이 크게 감소되므로 모심기는 정성을 들여 하라는 뜻.
75	전방구치고 모심으면 수확이 떨어진다	이모작을 하는 지방에서는 보리베기, 보리타작, 모내기가 함께 겹쳐 일손이 모자라므로 모내기부터 하고, 보리타작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뜻.
76	제 논 모가 크는 줄은 모른다	남의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은 알아도 제 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
77	죽은 가지에 새가 앉게 되면 만모다	죽순이 자라서 가지가 나고 잎이 피게 되면 모심기가 늦어졌다는 뜻.
78	중복 전에 심은 모는 먹는다	양력 7월 중순 중복 이전에 심은 늦모는 수확이 적어도 먹을 수는 있다는 뜻.
79	중복에 모내기를 해도 잡곡보다는 낫다	7월 중순 중복 무렵에 모내기를 해도 다른 잡곡으로 대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
80	찔레꽃 만발하면 모내기가 한창이다	예전 재래종은 찔레꽃이 만발하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이면 모내기가 한창이라는 뜻.
81	치자꽃 필 때 놓치면 모내기는 늦다	재래종 모는 치자꽃이 피는 6월 초순경이 자나면 모내기가 늦어졌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2	치자꽃이 만발하면 모내기가 한창이다	옛날 재래종 벼는 치자꽃이 만발하는 6월 초순경이면 모내기가 한창이라는 뜻.
		83	파물 모는 지나가는 소금장수도 거든다	늦모내기는 하루만 늦어져도 수확량감소가 커지므로 농사에 큰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소금장수도 모내기를 거들어줘야 할 만큼 바쁘다는 뜻.
		84	하지 전 중심기다	예전 재래종 벼는 지금보다 늦게 심었으므로 하지 이전에 심는 벼는 오심기도 하니고, 늦심기도 아닌 중심기라는 뜻.
		85	하지 전후 3일 동안은 물바가지로 퍼서라도 모내기를 마쳐야 한다	이때가 모내기 적기로 이 시기를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질 수록 소출이 떨어지게 되므로 촌각을 다투어 용수대책을 세우고 하루빨리 모내기를 마쳐야 한다는 뜻. 경남
		86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뜻.
영농	김매기	1	강아지풀도 모르는 놈이 조밭 맨다	잡초와 곡식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김을 매게 되면 도리어 피해가 크듯이, 무슨 일이나 모르고 하게 되면 손해만 본다는 뜻.
		2	강아지풀을 가꾸면 곡식을 해친다	1. 조와 강아지풀이 비슷하다고 해서 조밭에 있는 강아지풀을 뽑지 않으면 수확이 크게 감소된다는 뜻. 2. 악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두면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
		3	강아지풀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을 해치기 때문이다	1. 밭에 나 있는 강아지풀을 뽑는 것은 곡식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뜻. 2. 인간사회에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회에 해독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뜻.
		4	거름보다도 괭이질이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데는 거름도 중요하지만, 풀도 뽑아 주고 곡식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토양을 부드럽게 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
		5	거친 세 벌은 먹어도 꼼꼼 애벌은 못 먹는다	밭은 거칠게 세 번 맨 곡식은 먹어도 꼼꼼하게 한 번을 늦게 메준것은 수확이 크게 감소된다는 뜻.
		6	게으른 농사꾼 밭고랑 넘어다보듯 한다	게으른 농사꾼이 김매기가 싫어서 밭고랑만 세어 보듯이, 무슨일을 하면서 해찰만부린다는 뜻.
		7	고지논 매듯 한다	1. 논은 날일로 매야 제초를 잘하지 고지로 매면 대충대충 한다는 뜻. 2. 무슨 일이나 도급으로 하면 빨리는 하지만 일은 거칠다는 뜻.
		8	곡식에는 괭이질이다	곡식은 심을 때부터 괭이질을 잘해서 심고, 중간에 풀도 자주 매주어야 잘 된다는 뜻.
		9	곡식은 거름보다 호미에 큰다	곡식에는 거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호미로 풀도 매주고 땅도 일궈서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하고, 비가 오면 침수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
		10	근농은 김을 안보고 매고, 중농은 김을 보고 매고, 나농은 풀을 보고도 매지 않는다	근면한 농민은 잘 보이지도 않는 어린 풀까지 매고, 보통 농민은 풀을 보고 매고, 게으른 농민은 풀을 보고도 안 매듯이 곡식이 잘 되고 못되는 것은 김을 잘 매주고 못 매주는 데서 결정된다는 뜻.
		11	김매는 데 주인이 아흔아홉 몫을 맨다	날품하는 사람보다 주인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므로 월등히 많이 한다는 뜻.
		12	농사일 안다더니 피는 안 뽑고 나락이삭만 뽑는다	1. 농사일을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망신만 당한다는 뜻. 2. 남들이 비꼬는 것도 모르고 우쭐거린다는 뜻.
		13	달밤에 김맨다	온종일 농사일을 하고도 달밤이면 또 밤 늦게까지 김을 매는 부지런한 농민이라는 뜻.
		14	달밤에는 김매고, 식전에는 개똥 줍는다	독농가는 밤을 낮삼아 김을 매고, 아침 식사 전에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름할 개똥을 주워 모으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뜻.
		15	도둑 다 잡은 나라 없고, 피 다 뽑은 논 없다	1. 도둑이라고 다 잡을 수 없듯이 논에 피도 멸종시킬 수는 없다는 뜻. 2. 인간사회에 도둑이 있는 것 처럼 논에 피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뜻.
		16	땡볕에서 서 마지기 피사리도 한다	여름 땡볕에서 하루 서 마지기 논의 피도 다 뽑는데 다른 농사일이야 못할 것이 없다는 뜻.
		17	밭갈고 김매기를 게을리하면 곡식을 못 거둔다	농사일을 게으르게 하면 곡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뜻.
		18	밭매기 싫은 놈이 밭고랑만 센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일은 않고 할 일이 얼마나 남았는가만 계산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9	밭에 김을 매지 않으니 강아지풀만 무성하다	밭에 김을 매지 않고 두면 강아지풀만 잔뜩 자라고 곡식은 잘 되지 않는다는 뜻.
		20	밭에 호랑이가 새끼를 치겠다	밭에 풀이 무성하여 호랑이가 새끼를 칠 정도이면 곡식 농사는 폐농하였다는 뜻.
		21	식전에는 개똥 줍고, 달밤에는 김맨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한다는 말.
		22	임자 없는 논밭에 돌피 나듯 한다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논에서 돌피가 나듯이 밭에 풀이 무성하다는 뜻.
		23	정월 곡일에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면 밭에 풀이 많이 나지 않는다	곡일에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여 두발을 단정히 하면 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뜻.
		24	정월 보름날 김치를 먹으면 논밭에 풀이 무성하다	음력 1월 15일에 김치를 먹으면 논밭에 풀이 많이 나게 되므로 이날에는 김치를 삼가라는 뜻.
		25	조밭에 강아지풀이다	조나 강아지풀이 비슷하듯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섞여서 찾기가 어렵다는 뜻. 제주
		26	좋은 싹도 북을 돋워 주어야 좋은 열매가 연다	1. 잘 자라는 곡식도 손질을 잘해 주어야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 2. 재주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뒷바라지를 잘해 주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뜻.
		27	주인 없는 묵논에 돌피 자라듯 한다	주인 없는 묵논에 피가 자라듯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정적인 현상이 성하게 된다는 뜻.
		28	처서에 난 풀이 발등을 덮는다	늦게 난 풀이 더 빨리 자라서 발등을 덮을 정도로 무성해졌다는 뜻.
		29	풀없는 밭 없다	1. 밭에 아무리 김을 매주어도 멸종시킬 수는 없다는 뜻. 2. 인간사회에서 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
		30	풀은 베지 말고 뽑아야 한다	1. 풀은 베면 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뜻. 2. 범죄를 방지하려면 근원을 뽑아 버려야 한다는 뜻.
		31	풀이 우거지고 굽이 긴 밭은 노래로 우기며 간다	하기 힘든 농사일은 농악을 울리며 일을 시켜야 능률이 오른다는 뜻.
		32	피 다 뽑은 논 없고, 도둑 다 잡은 나라 없다	1. 논에 피사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도 남김 없이 뽑아낼 수는 없다는 뜻. 2.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법이 강해도 도둑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는 뜻.
		33	피가 벼를 이긴다	1. 벼보다 피의 번식력이 강하므로 논에 피사리를 해야 한다는 뜻. 2. 법과 도덕이 없으면 악이 선을 이기게 된다는 뜻.
		34	피사리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논에서 피사리를 할 때는 피이삭만 뽑지말고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뜻.
		35	호미 씻으면 김이 무성하다	호미는 깨끗이 씻어두지 말고 항상 김을 매도록 하라는 뜻. 제주
영농	작황	1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가을 곡식은 다 된 곡식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적기에 수확하도록 하라는 뜻.
		2	가을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가을철에 서풍이 불게 되면 곡식들이 더 빨리 여문다는 뜻.
		3	곡식도 잘 된 것을 더 만져보고 싶다	1. 같은 곡식이라도 잘 된 곡식이 탐스러워서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는 뜻. 2. 자식도 말썽꾸러기보다 착한 자식을 더 귀여워하게 된다는 뜻.
		4	곡식은 가꾼대로 거둔다	곡식은 걸우고 가꾼대로 수확을 하게 되므로 노력을 많이 하면 수확도 많아진다는 뜻.
		5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곡식은 주인이 자주 돌아보고 제때에 김도 매고 거름도 알맞게 주면서 손질을 해줄수록 다수확을 하게 된다는 뜻.
		6	곡식은 찬이슬에 영근다	가을 곡식은 찬이슬이 내리는 백로가 지나서부터 영근다는 뜻.
		7	꿀벌이 일찍 활동하면 농사철이 이르다	꿀벌이 일찍이 활동한다는 것은, 그해 해동이 예년보다 이르기 때문에 농사 준비를 서두르라는 뜻.
		8	나락 뿌리는 떼어 주고, 보리 뿌리는 덮어 주랬다	벼는 모내기한 후 첫 김매기에서 뿌리를 끊어 활력을 왕성하게 해주면, 보리는 뿌리를 덮어 해동기에 갈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9	늦게 심은 모는 자랄 시기가 없다	모를 늦게 심으면 자랄 사이가 없어서 결실을 제대로 못하듯이,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
10	늦모는 손에 든 모와 꽂은 모가 다르다	늦모는 같은 모라도 방금 심은 모와 아직 심지 않은 모가 다를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뜻.
11	두 벌 김맬 때는 얼굴이 후끈후끈해야 벼가 잘 자란다	벼농사는 고온다습해야 잘 자라므로 두 벌 김맬 무렵에는 얼굴이 후끈후끈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뜻.
12	때맞추어 오는 비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한다	벼농사는 적기에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라 풍년이 든다는 뜻.
13	말복 무렵이면 벼는 패기 시작한다	말복 때가 되면 재래종 벼도 이삭이 패기 시작한다는 뜻.
14	반하생에는 논밭에 들어가지 말라	반하생인 7월 2일경에는 모든 식물에서 독기가 발생한다는 옛말에 따라 곡식을 심은 논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
15	백로 전 미발未發은 못 먹는다	늦모심기한 벼이삭이 백로인 9월 7일 이전에는 패는 것은 먹고, 패지 않는 것은 못먹게 된다는 뜻.
16	벼 안 패는 칠월 없다	벼는 음력 7월에는 반드시 이삭이 패게 된다는 뜻.
17	벼꽃 필 때 방에 삼대를 때면 벼꽃이 많이 떨어지고, 짚을 때면 쭉정이가 많이 생긴다	벼꽃이 필 때는 땔감으로 삼대를 때거나 볏짚을 때면 흉작이 된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말
18	벼는 남의 벼가 더 커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더 커 보인다	물건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더 잘생겨 보인다는 뜻.
19	벼는 땀방울 먹고 자란다	벼농사는 농군의 땀을 많이 먹을수록 잘 자란다는 뜻.
20	벼는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벼농사는 논에 자주 가서 손질을 잘해 주어야 잘 자라게 된다는 뜻.
21	벼는 찬이슬 먹고 영근다	벼는 찬이슬이 내리는 백로가 지나면서부터 영글기 시작한다는 뜻.
22	벼는 초복에 한 마디, 중복에 한 마디, 말복에 한 마디씩 생긴다	자라는 벼는 초복에 한 마디 생기고, 다음 중복에 한 마디 생기고, 마지막으로 말복에 한 마디가 생기고 나면 이삭이 패게 된다는 뜻.
23	벼이삭 보고는 죽어도 보리이삭 보고는 죽지 않는다	벼이삭은 팬지 40일이 돼야 먹을 수 있지만, 보리이삭은 팬지 20일이면 먹을 수가 있으므로 굶어죽지 않는다는 뜻.
24	보리 안 패는 사월 없고, 벼 안 패는 칠월 없다	보리는 음력 4월이면 패게 마련이고, 벼는 음력 7월이면 패게 된다는 뜻.
25	복날 벼는 나이를 먹는다	벼는 초복에 한 마디, 중복에 한 마디, 말복에 한 마디씩 생겨서 세 살만 되면 패게 된다는 뜻.
26	복달임 날씨에 벼 자라듯 한다	벼는 고온다습한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불볕더위에 잘 자란다는 뜻.
27	봄철이 늦고 가을철이 빠른 해는 늦벼가 좋고, 봄철이 빠르고 가을철이 늦은 해는 올벼가 잘 된다	봄 해동이 늦고 가을철이 빠른 해는 늦벼를 심어야 수확이 많고, 봄철이 빠르고 가을철이 늦은 해는 올벼를 심어야 수확이 많다는 뜻.
28	부자집 벼가 먼저 팬다	1. 부자집 농사는 남보다 일찍 심고 잘 가꾸기 때문에 이삭도 먼저 팬다는 말. 2.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남보다 잘 된다는 뜻.
29	산들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가을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곡식이 빨리 자라면서 여물게 된다는 뜻.
30	삼대로 방에 불을 때면 벼꽃이 떨어진다	삼대로 불을 때면 곡식에 해로우니 아껴두었다가 울타리나 지붕 등에 사용하라는 뜻.
31	서울 양반은 쌀나무에서 쌀이 열린다고 한다	1. 과거 시골에 가본적이 없는 서울 양반이 쌀도 과일처럼 나무에서 열리는 줄로 알았다는 데서 생겨난 말. 2. 보고 듣지 못한 일은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2	숙성하게 자란 곡식이 여물기도 일찍 여문다	빨리 자라는 곡식이 일찍 여물게 되듯이, 일찍 시작하는 일이 일찍 끝나게 된다는 뜻.
		33	오전에 앉은 백로가 오후에는 안보인다	5, 6월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아침에 논에 앉은 백로가 오후에는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자란다는 뜻.
		34	육칠월에 들판을 들어가면 얼굴이 후끈거려야 벼가 잘 자란다	음력 6월 6일 논밭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후끈후끈해야 벼가 잘 자란다는 뜻.
		35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입추인 8월 7일경에는 벼가 한창 자랄 때라 그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뜻.
		36	입추가 되면 벼가 패기 시작한다	입추인 8월 7일경이 되면 벼이삭이 패기 시작한다는 뜻.
		37	추분이 지나면 백곡이 익는다	추분이 지나면 곡식들이 여물게 된다는 뜻.
		38	칠월 칠석날 아침 일찍 들에 나가면 안된다	7월 7일 밭에는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니 해가 뜨기 전까지는 들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라는 뜻.
		39	패는 곡식 이삭 뽑기	1. 다 된 곡식의 이삭을 뽑아 폐농하게 만든다는 뜻. 2. 심술궂은 행동을 한다는 뜻. 흥부전
영농	농작	1	3년간 김맨 풀 들어내면 아무것도 못 자란다	뽑은 풀을 퇴비로 만들어 되돌려 주어야 작물이 잘 자란다는 뜻. 충남
		2	갈이 잘하면 비료 한 번 더 준것과 같다	논갈이를 잘하면 농작물 뿌리 뻗음이 좋아지고 각종 양분을 공급해 주며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준다는 데서 유래된 말.
		3	거친 두벌이 꼼꼼 애벌보다 낫다	풀이 크게 자라 무성해진 뒤 김을 매면 두번 매는 것보다 한 번에 꼼꼼하게 매는 것이 낫다는 뜻. 경기
		4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아무리 식량사정이 어려워 굶주려도 씨나락(볍씨)만은 소중히 다룬다는 뜻으로 농민의 종자에 대한 집착이 강함을 나타내는 뜻.
		5	농작물도 주인을 알아본다	주인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정성껏 관리하므로 포장이 깨끗하고 다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전북
		6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농작물 돌보기를 소홀히 하지말고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
		7	떡잎적에 따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도끼로 밴다	제초, 솎음 작업, 병충해 방제 등 모든 농사일을 초기에 하면 쉽지만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힘이 들고 손해를 보게 됨을 경고하여 이르는 말. 충남
		8	바가지 거름 주면 농사 망친다	너무 많은 비료는 오히려 농사를 망친다는 뜻. 전북, 경상
		9	밥 한 그릇은 공으로 남주어도 퇴비 한 소쿠리는 안 준다	퇴비의 중요성과 퇴비 만들기의 어려움을 말하는 속담.
		10	볍씨 선택은 맏며느리 고르기와 같다	며느리 중에 맏며느리 고르기가 제일 힘들고 진중을 기하듯 논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볍씨 선택에 따라 농사가 좌우됨으로 품종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
		11	비료바가지 엎어진 자리 3년 간다	비료가 든 바가지를 실수로 엎은 자리는 과비로 인하여 병충해 피해 때문에 작황이 불량하여 그 피해가 많다는 말을 비유한 것. 충남
		12	새 씨앗은 재넘어서 바꾸어둔다	같은 종자를 계속 한 지역에서만 재배하면 퇴화되므로 재넘어 먼 곳에서 바꾸어 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수량성이 좋아져서 좋다는 데서 생긴 말.
		13	씨 자랑 말고 땅 자랑 해라	품종이 아무리 좋아도 시비장법 물관리 토양조건에 따라 작황이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지력이 낮은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품종을 재배한다고 해도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없다는 뜻.
		14	왕대밭에 왕대나고 시누대 밭에 시누대 난다	마늘, 콩 등 농작물의 종자는 파종 시 크고 충실한 종자를 심어야만 초기 생육이 좋고 튼튼하게 자라서 수량을 높일 수 있다는 말.
		15	초벌논 매고 가물면 수확을 할 수 있어도 만논 매고 가물면 수확도 못한다	벼농사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백중에 제대로 물을 얻지 못하면 농사를 망친다는 뜻의 속담. 충남

영농 **병충해**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도 먹는다	여름 멸구의 피해보다도 가을 멸구의 피해가 더 크다는 뜻. *나락 벼늘: 벼껍질
2	가을멸구는 볏섬에서도 먹는다	벼멸구는 방제를 소홀히 했을 때 등숙률이 떨어지고 미질이 나쁘게 되어 도정하면 쌀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볏섬에도 먹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
3	강철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라]	강철이가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초봄과 같이 된다는 뜻으로, 악한 방해자가 나타나거나 불운이 겹쳐서 다 되어 가던 일을 망치는 경우를 이르는 말.
4	거미줄 많은 논에 멸구 많다	거미는 멸구를 잡아먹는 천적이므로 거미줄이 많다는 것은 거미의 먹이인 멸구가 많다는 뜻. 전남
5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가 적다	겨울 혹한이면 월동하는 해충들이 얼어죽게 되므로 병충해가 적다는 뜻.
6	겨울이 춥지 않으면 병충해가 심하다	겨울이 추워야 해충들이 동사하는데, 춥지 않으면 해충들이 죽지 않으므로 병충해가 심하다는 뜻.
7	근잠 먹은 끝은 있어도 멸구 먹은 끝은 없다	벼의 병충해에서는 근잠의 피해보다 멸구의 피해가 월등하게 많다는 뜻.
8	근잠 먹은 논 도치고 베고 멸구 먹은 논 불 지른다	근잠은 이화명충을 말하며 멸구는 방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극심하여 수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멸구 피해의 무서움을 일컫는 말. 충남
9	근잠 먹은 벼는 도끼 들고 나서고, 멸구 먹은 벼는 갈퀴 들고 나선다	벼포기에서 근잠 먹은 건 죽지만 안 먹은 볏대는 더 굵어져 큰 이삭이 나게 되는데, 멸구가 먹은 벼는 다 죽어서 수확할 것이 없다는 뜻.
10	남풍이 불 때 방화하면 진드기가 잘 죽는다	남풍이 불어 따뜻할 때 불을 지르면 진드기가 풀잎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죽는다는 말.
11	대 좀먹은 벼포기에 재릅대를 꽂아둔다	대좀은 이화명충을 말하는데 농약이 별로없던 시절에는 이화명충이있는 벼포기에 재롭대를 꽂아 천적인 새를 유인하여 해충을잡게 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 경남
12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병해충이 적다	병충해는 저온이 되면 월동률이 떨어지므로 다음해 병충해 발생이 적다는 뜻. 충남
13	동짓날이 추우면 이듬해 충해가 적다	동지가 추워야 월동 준비를 미쳐 못한 해충들이 얼어죽어 병충해가 적다는 뜻.
14	멸구 많은 해 멸치도 많이 잡힌다	중국 양자강 하류에서 발생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 멸구도 함께 날려와 남서해에 떨어지면 멸치의 좋은 먹이가 되므로 멸치가 많이 잡히고, 내륙지방에 떨어지면 농산물에 큰 해를 미침
15	멸구 지나간 끝은 없다	멸구는 줄기 속의 액즙을 빨아먹어 벼의 위축병 등을 일으켜서 폐농하게 만든다는 뜻.
16	번개 치면 멸구는 죽는다	번개는 흔히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논에 물이 많으면 멸구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번식이 억제되어 감소한다는 뜻.
17	비바람 잦으면 멸구 많다	비바람 많은 해는 해안지방에 특히 멸구 발생이 많다는 말. 전북
18	서풍불면 벼멸구거 많다	중국에서 월동한 벼멸구는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서풍에 의해 주로 날아와서 서풍이 자주 불면 벼멸구의 발생이 많다는 뜻.
19	섣달 영등할머니 올 때 밭을 갈면 구더기가 많다	해빙기인 영등날 영등할머니가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밭을 갈면 땅 속에서 구더기가 많이 나온다는 뜻.
20	안개가 자주 끼면 진딧물이 인다	안개가 자주 낀다는 것은 날씨가 청명하고 낮의 기온이 높아 진딧물 발생이 많다는 뜻. 충남, 전남, 경북
21	여름 소나기에 멸구 머리깨져 죽는다	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 멸구가 물에 떠내려가 벼물구의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뜻. 영호남
22	영등할망 울때 밭갈면 구더기 많다	영등날은 3월 해빙기로서 이 시기는 각종 벌레들이 땅속에서 나오려고 하므로 이때 밭을 갈면 벌레들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해충이 많아진다는 뜻. 제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3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찹쌀로 두더지꼴 떡을 만들어 해 뜨는 쪽에 매달아두면 밭에 두더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두더지는 햇볕을 보면 죽는 동물이므로, 2월 1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두더지형으로 떡을 만들어 매달아두면 두더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
		24	이월 초하룻날 콩을 삶아먹으면 밭에 두더지 피해가 적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음력 2월 1일에 두더지가 싫어하는 콩을 삶아먹으면 두더지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는 뜻.
		25	장마 지나간 끝은 있어도 멸구 지나간 끝은 없다	장마에는 수해를 입지 아니한 논도 있지만, 멸구는 모조리 피해를 주게 되므로 수해보다 멸구의 피해가 더 크다는 뜻.
		26	정월 보름날 방아를 찧으면 밭에 두더지 피해가 많다	음력 1월 15일은 조용히 보내야 하는데, 요란스럽게 방아를 찧으면 그해 밭에 두더지 피해가 많다는 뜻.
		27	정월 보름날이 질면 병충해가 많다	정월 보름날 논두렁 불놓기를 하여 월동 병해충을 없애야 하는데 비가 오면 논 밭두렁 불놓기를 못하여 피해가 많다는 뜻. 전남
		28	정월 일진에 자자子字든 날 쥐불을 놓아야 한다	정월 쥐날에 쥐불을 논둑이나 밭둑에 놓아야 들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말.
		29	정월 초열흘 안 일진에 술자戌字가 들면 그해 충해가 많다	음력 1월 10일 안에 술자가 든 일진이 있는 해에는 충해가 많다는 뜻.
		30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날씨가 좋으면 그해 병충해가 없다	음력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날씨가 좋은 해에는 곡식에 병충해가 없다는 말.
		31	죽순 날 때 벌레가 많으면 벼에 해충이 많다	죽순이 나는 때는 6월 상순부터 하순 사이로, 이 때 벌레가 많으면 벼 농사에도 해충의 피해가 심하다는 뜻. 영호남
		32	참나무 잎을 벌레가 다 갉아 먹으면 흉년이 든다	벌레의 번식 여건이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농작물에도 해충이 많아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뜻. 경기
		33	하늬바람이 불면 멸구가 인다	서풍이 불면 중국 양자강 하류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될 때 멸구도 함께 날아오므로, 우리나라 서남해 지방에 멸구가 발생한다는 뜻.
		34	해충에는 불지르는 것이 상책이다	옛날 농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해충이 생겼을 때 불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말.
		35	황충蝗蟲이 가는 곳에는 가을도 봄이다	황충이 발생하면 곡식이 전멸되어 수확할 것이 없다는 뜻.
		36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	풀무치 떼가 지나가면 농작물이 크게 해를 입어 가을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어 봄같이 궁하다는 뜻으로, 악한, 방해자가 나타나거나 불운이 겹쳐서 다 되어 가던 일을 망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영농	추수	1	가을 곡식은 볼 것 없이 베야 한다	가을 곡식은 제철만 되면 익었다 설었다 따지지 말고 수확해야 한다는 뜻.
		2	가을 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	일손이 모자라는 가을에는 일만 해주면 현물로 곡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먹게 된다는 뜻.
		3	가을 들판에는 대부인마님도 나막신짝을 든 채 나선다	가을 추수 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대부인마님까지 들녘으로 나온다는 뜻.
		4	가을 들판에는 대부인마님도 나선다	가을 추수 때는 늙은 마님까지도 거들어 주려고 들판으로 나올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뜻.
		5	가을 들판에는 송장도 덤빈다	가을 추수기에는 밀·보리 파종과 맞물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죽은 송장도 도와 주려고 할 정도로 바쁘다는 뜻.
		6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가을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있어서 가난한 친정에 가느니보다 들판에 가서 들일을 하거나 이삭을 줍는 편이 낫다는 뜻.
		7	가을 마당에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밑이 어둑하다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 빚 다 갚고 빈 손에 빗자루만 남아도 어딘가 먹을 것이 있다는 뜻.
		8	가을 메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철에는 곡식이 많아 절구가 쉴새없이 번잡하므로 부지깽이도 메 노릇을 해보려고 덤빈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9	가을 밭에 가는 것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가을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뜻.
		10	가을 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가을 추수는 지게질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세고 미련한 사람이 잘하게 된다는 뜻.
		11	가을 추수 때는 고사떡을 해먹어야 길하다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신에게 감사의 고사를 지내야 길하다는 뜻.
		12	가을비 하루가 추수 열흘을 늦춘다	가을 추수철에 비가 하루 오게 되면 볏단을 건조시켜서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여 일이 늦어진다는 뜻.
		13	강철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초목도 말려죽인다는 가상적 동물인 독룡(毒龍) 강철이 지나가게 되면 곡식이 전멸되어 수확할 것이 없다는 뜻.
		14	나락은 윗녘에서 익어 내려오고, 보리는 아랫녘에서 익어 올라온다	벼수확은 북쪽 지방에서 시작하여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고, 보리 수확은 이와 반대로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뜻.
		15	낫 빌려 주었더니 내 밭 곡식 베어간다	1. 남을 동정해 주었다가 배신만 당했다는 뜻. 2. 도둑에게 도둑질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는 뜻.
		16	농사는 내가 짓고 수확은 남이 한다	옛날 소작인들은 한 해 동안 죽도록 농사를 짓고도 가을이 되면 지주, 또는 빚쟁이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 몫은 없었다는 뜻.
		17	다 된 농사에 낫 들고 덤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참견도 않던 사람이 추수할 때에는 뻔뻔스럽게 참견한다는 뜻.
		18	동동 팔월이다	음력 8월은 추수로 몹시 바쁘면서도 어느새 번쩍 지나간다는 뜻.
		19	밥 얻어먹을 짬은 있어도 추수하는 데 갈 짬은 없다	게으른 사람은 밥 얻어먹을 여가는 있어도 농번기에 일 거들어 줄 여가는 없듯이 몹시 게으르다는 뜻.
		20	벼는 북에서 베어 내려오고, 보리는 남에서 베어 올라온다	벼농사 추수는 북쪽 지방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고, 보리농사는 반대로 남쪽에서 베기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뜻.
		21	벼는 상강 전에 베야 한다	벼는 서리를 맞으면 이삭이 부러지므로 서리가 내리는 상강 이전에 베야 손실이 없다는 뜻.
		22	부지깽이도 뛰는 바쁜 시절이다	가을 추수철은 추수로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라는 뜻.
		23	북더기 속에 벼알 있다	벼타작을 하고 쓸어 버리는 북더기 속에도 벼알이 있듯이, 버리는 물건 속에도 쓸만한 것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뜻.
		24	첫가을에는 손톱발톱도 먹는다	벼가 팰 무렵에는 보리 양식이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칠궁으로 굶주렸다가, 초가을이 되면서 햅쌀밥을 먹게 되면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먹는다는 뜻.
		25	추수 때는 돌부처도 꿈적인다	추수 때가 되면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남녀노소가 총동원된다는 뜻.
		26	한가을에는 작대기만 들고 와도 한몫이다	한가을 농번기에는 타작하는 데 작대기만 들고 있어도 한몫을 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뜻.
영농	노동 방식	1	오뉴월 품앗이 소등을 두고 다툰다	하루라도 빨리 자기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 일손을 다툰다는 뜻. 경기
		2	오뉴월 품앗이 논둑[논두렁] 밑에 있다	여름에 산 품을 가을에 곡식을 거둔 후에 갚게 된다는 뜻으로, 빚 갚을 날짜가 멀었음을 이르는 말.
영농	풍흉	1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들고 가물면 흉년든다	재래종 벼는 곡우에 못자리를 하는데 이 무렵 비가 와서 못자리도 하고 모심기 물도 마련하면 풍년이 들지만 가물게 되면 뭇자리와 모심기가 늦어져 흉년이 든다는 뜻.
		2	논 많은 곳에는 풍흉이 있어도 밭 많은 곳에는 풍흉이 없다	밭에는 여러가지 곡식을 심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흉작이라도 다른 곡식에서 풍작이 되는 것이므로 흉년드는 해가 없다는 뜻.
		3	눈이 많이 오는 해 풍년 들고 비 많이 오는 해 흉년든다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보리가 풍년이 들지만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심한 해는 벼농사가 흉년이 든다는 뜻.
		4	닭장에 닭이 늦게 오르면 풍년들고 일찍 오르면 흉년든다	닭이 저녁 늦게 닭장에 오르면 풍년이 들고 일찍 오르면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	도토리는 들판 내다보며 연다	도토리는 들농사가 흉년이 들면 식량에 보탬이 되도록 많이 열리고 풍년이 들면 조금만 열린다는 뜻.
6	동지가 시월 상하순에 들면 풍년이고 중순에 들면 흉년이다	동지가 음력 10월 상하순에 드는 해는 풍년이고 중순에 드는 해는 흉년이라는 뜻.
7	동짓날 새벽에 닭이 열 번 이상 울면 다음해 풍년이 들고 열번 이하로 울면 흉년이 든다	동짓날 새벽녘 닭 울음 소리는 여러 번 일수록 풍년이 들고 회수가 적을 수록 흉년이 든다는 뜻.
8	동짓날 우물무우 싹이 무성하면 풍년들고 약하면 흉년든다	초겨울에 매달아둔 우물무우 싹이 무성하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약하면 흉년든다는 뜻.
9	두견새 울음 소리가 소쩍소쩍 울면 풍년이 들고 소똥소똥 울면 흉년이 든다	두견새가 소쩍소쩍 울어야 풍년이 들고 소똥소똥 울면 흉년이 든다는 말.
10	밭 많은 고장엔 풍흉이 없다	밭에는 여러 가지 곡식을 심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흉작이라도 다른 곡식에서 풍작이 되는 것이므로 흉년드는 해가 없다는 뜻.
11	봄 안개는 천 석을 감하고 가을 안개는 천석을 보태준다	봄에 안개가 끼면 보리에 피해가 크가 가을 안개는 벼의 결실을 촉진시켜 수확을 증가시킨다는 뜻.
12	비 많이 온 해는 흉년들고 눈 많이 온 해는 풍년든다	비는 필요한 양보다 많이 오면 수해로 흉년이 들지만 눈은 많이 와도 땅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수해가 없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뜻.
13	사월 초파일에 비가 오면 벼는 풍년들고 과일은 흉년든다	초파일에 비가 오면 모심기 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벼농사는 풍년이 들지만 과일류는 수정기이므로 비 피해가 크다는 뜻.
14	이월 육일 밤 별들이 달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흉년이 들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풍년이 든다	별의 먹이인 달을 중앙에 놓고 흉년이 들어 배가 고프면 가까이 와서 뜯어먹고 풍년이 들어 배가 부르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서 유래된 뜻.
15	이월 이십일에 비가 오면 대풍이 들고 구름이 끼면 중풍이 들고 날씨가 개면 흉년이 든다	옛날에는 음력 2월 20일 날씨로 그 해 풍흉을 점쳤는데 이날 비가 오면 큰 풍년이 들고 구름만 끼면 보통 풍년이 들고 날씨가 청명하면 흉년이 든다는 뜻.
16	정월 대보름달 윤곽이 두껍게 보이는 쪽 지방은 풍년이 들고 엷게 보이는 쪽 지방은 흉년이 든다	달 윤곽이 두꺼운 쪽 지방은 풍년, 엷게 보이는 지방은 흉년이 든다는 말.
17	정월 열나흗날 보리밥을 해서 밥맛이 좋으면 보리 풍년들고 밥맛이 나쁘면 보리 흉년든다	정월 열나흗날 아침 보리밥을 해서 밥맛이 좋으면 보리 풍년들고 밥맛이 나쁘면 보리 흉년든다는 뜻.
18	정월대보름달이 남쪽으로 뜨면 흉년들고 북쪽으로 뜨면 풍년든다	달 뜨는 위치가 평소보다 남쪽으로 기울게 뜨면 흉년이 들고 북쪽으로 기울게 뜨면 풍년이 든다는 뜻.
19	정월대보름달이 맑으면 풍년 들고 흐리면 흉년 든다	달이 맑게 뜨면 그해 풍년이 들지만 흐리게 뜨면 흉년이 든다는 뜻.
20	정월대보름달이 붉으면 흉년들고 희면 풍년이 든다	달빛이 붉은 것은 흉년이 들 징조고 흰 것은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21	정월보름날 아침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든다	정월보름날 아침에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든다는 뜻.
22	정월초하룻날 남풍이 불면 풍년이 들고 동풍이 불면 흉년이 든다	정월초하룻날 아침바람이 비가 잘 오는 남풍이 불면 풍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동풍이 불면 흉년이 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3	초복에서 상강까지 백 날이 안되면 흉년이 들고 백 날이 넘으면 풍년이 든다	초복에서 상강까지 백 날이 안되면 서리가 일찍 오기 때문에 흉년이 들고 백 날이 넘으면 서리가 늦어서 풍년이 든다는 뜻.
		24	축신년에는 흉년 들고 사년에는 풍년 든다	소해와 원숭이해에는 흉년 들고 뱀해에는 풍년 든다는 뜻.
		25	풍년 곡식은 모자라고 흉년 곡식은 남아돈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므로 부족하고 흉년이 들면 지독하게 절약하므로 오히려 남는다는 뜻.
		26	풍년에 팔 것 없고 흉년에 살 것 없다	없는 사람은 풍년이 들어도 팔만한 곡식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도 살 돈이 없어 못 산다는 뜻.
		27	풍년이 들면 인심이 좋아지고 흉년이들면 인심이 야박해진다	풍년이 들면 생활이 넉넉해지므로 인심이 좋아지고 흉년이들면 굶주리게 되므로 인심이 야박해진다는 뜻.
		28	풍년이 흉년이고 흉년이 풍년인다	풍년이라고 함부로 쓰면 고생하게 되고 흉년이라도 절약하면 먹고는 살 수 있다는 뜻.
		29	풍흉을 모른다	수리시설이 좋아서 매년 풍년만 든다는 뜻.
영농	풍년	1	가을 안개는 천 석을 보태준다	가을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좋아서 벼가 잘 영글어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뜻.
		2	강남 갔던 제비가 빨리 돌아오면 풍년 든다	제비가 예년보다 일찍 오는 것은 해동이 빠름을 의미하므로 이런 해는 일조일이 길어져 풍년이 든다는 뜻.
		3	개울에 고기가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	개울에 물이 많아야 고기가 모이는데 개울물이 많다는 것은 물이 흔하여 벼농사가 잘 될 수 있음을 뜻하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4	거듭 풍년 들기는 어렵다	한 해 풍년이 들면 한 해는 흉년이 드는 것이 보통이지 연거푸 풍년만 들기는 어렵다는 뜻.
		5	겨울에 꽃이 피면 풍년이 든다	겨울에 꽃이 피는 것은 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뜻.
		6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보리 풍년 든다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보리는 눈에 덮여 보온이 되고 수분도 흡족하여 풍년 든다는 뜻.
		7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면 풍년든다	겨울에 얼음층이 얇으면 해동되는 과정에서 보리 뿌리가 뜨게 되므로 얼어죽지만 땅이 두껍게 얼면 보리 뿌리가 뜨지 않으므로 풍년 든다는 뜻.
		8	고드름이 길게 열면 풍년든다	고드름이 길게 어는 것은 눈이 많이 온 탓이므로 보리풍년이 든다는 뜻.
		9	고목나무 잎이 무성하면 풍년 든다	비가 적당히 와서 토양수분이 알맞고 햇볕 쪼임과 생육온도가 알맞으면 고목나무도 잎이 잘 자라 무성하므로 그 해는 기상이 순조로운 해로 농작물의 작황도 좋다는 데서 생긴 말. 충남
		10	곡우에 눈이 오면 풍년 든다	곡우 때 오는 눈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곡식피해가 없어 비 대신 눈이 와도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11	괴악사리 꽃이 많이 피면 풍년 든다	괴악사리는 봄 날씨가 좋으면 꽃이 많이 피는 식물로 봄날씨가 좋아 모내기가 순조롭고 밭작물 파종이 적기에 이루어져 풍년농사가 된다는 뜻. 충남, 전북
		12	금잔디 때 수근이 터지도록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잔디가 새싹이 날 무렵 비가 넉넉히 오게 되면 못자리도 순조롭고 모심기도 할 수 있으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3	나뭇잎이 고르게 피면 풍년 든다	나뭇잎이 고르게 핀 것은 월동기간에 온습도가 알맞게 보장된 것이므로 이런 환경에서도 농작물도 풍작이 예견된다는 뜻.
		14	낙종하고 곡우물 먹으면 풍년든다	곡우 전에 일찍 못자리를 하였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
		15	납일 전에 눈이 세 번오면 보리 풍년 든다	동지를 지나서 셋째 술일인 납일 이전에 눈이 여러 번 와서 쌓이면 보리가 눈 속에서 월동을 하게 되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6	내년은 풍년이 든다	농민들은 해마다 '내년은 풍년이 들겠지'하고 매년 속아서 산다는 뜻.
		17	농가가 풍년이 들면 인심이 저절로 좋아진다	풍년이 들면 농촌 인심이 저절로 후해져 태평스럽게 산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8	눈이 많이 오는 것은 보리 풍년이 들 징조다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보리는 눈에 덮여 보온이 되고 수분도 흡족하여 풍년 든다는 뜻.
19	느티나무 잎이 봄에 똑같이 피면 그 해는 풍년이다	기후조건이 좋지 않으면 가지마다 싹트는 시기가 다르므로 봄에 나뭇잎이 똑같이 핀다는 것은 곧 봄철에 기후조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 전북, 경남
20	단오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단오 무렵은 재래종 벼 모심기가 한창인 때라 이 무렵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뜻.
21	닭이 닭장에 늦게 오르면 풍년 든다	닭이 늦게까지 먹이를 주워먹다가 닭장에 오르는 것은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22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시절이 좋다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월동기간에 온습도 조건이 잘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는 농작물도 풍작이 예견될 수 있다는 뜻.
23	대보름달이 뚜쳇하고 누런색이면 풍년이 든다	보름달 빛깔이 희면 장마가 지고 붉으면 가뭄이 들기 때문에 그중간색인 누런색이면 풍년이 든다는 뜻.
24	대보름달이 인방에 뜨면 평안도, 황해도가 풍년 들고 진방에서 뜨면 강원도, 함경도가 풍년든다	대보름달이 평안도 지방에서 볼 때 인방에 뜨면 평안도, 황해도가 풍년 들고 진방에서 뜨면 강원도, 함경도가 풍년 든다는 뜻. 평안
25	대보름은 맑아야 풍년이 든다	음력 1월 15일 달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어야 그해 풍년이 든다는 뜻.
26	대추가 많이 달리면 풍년이 든다	대추가 많이 열리면 밭 작물의 파종 시기와 벼농사 모내기 기간중의 기상이 순조로와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생긴 말. 경기, 충남
27	대추가 풍년 드는 해는 벼도 풍년 든다	대추와 벼의 풍흉은 언제나 같으므로 대추나 벼 가운데 하나만 봐도 풍흉을 알 수 있다는 뜻.
28	동지섣달에 눈이 와야 보리가 풍년든다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보리는 눈에 덮여 보온이 되고 수분도 흡족하여 풍년 든다는 뜻.
29	밤꽃이 잘 피면 풍년이 온다	밤꽃 피는 시기인 4월 상~중순에 기상이 좋으면 농작물 파종과 생육에 알맞은 기상조건이 되어 농사가 순조롭게 된다는 뜻. 충남, 부산
30	벼룩 많은 해는 조 풍년 든다	벼룩은 건조한 기후에 번식이 잘 되고 조도 비교적 건조한 기상에서 잘되는 곡식이므로 벼룩이 많은 해는 조도 풍년이 든다는 뜻.
31	보리는 한 대에 이삭이 둘이다	보리 한 대에서 이삭이 두 개씩 날 정도로 큰 풍년이 들었다는 뜻.
32	봄에 꽃이 일찍 피면 풍년든다	해동이 일찍되면 농사일도 빨라지고 곡식들은 일조일이 길어져서 풍작이 될 수있다는 뜻.
33	봄에 논물이 저절로 괴면 풍년든다	봄에 논물이 자연적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물로 못자리도 하고 모도 심을 수 있으므로 풍년이 들 수 있다는 뜻.
34	봄에 제비가 일찍 날아오면 풍년 든다	봄에 제비가 일찍 날아오는 것은 기온이 따뜻해져 생활하는데 알맞기 때문이며 파종 등 농업작업이 일찍 이루어지고 보리 생육이 빨라 작황이 좋아진다는 데서 이르는 말.
35	봄에는 남방청제장군을, 가을에는 북방장군을 제사 지내면 풍년이 든다	농사를 지으려면 봄가을로 농업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신의 도움으로 풍년에 든다는 뜻.
36	빗물에 거품이 일면 풍년 든다	수면에 거품이 일정도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는 뜻.
37	사년에는 풍년이 든다	태세에 뱀 사(巳)자가 든 해는 농사 풍년이 든다는 뜻.
38	사람 모르게 눈이 오면 풍년 든다	눈은 풍년의 길조이기 때문에 눈이 사람 모르게 오는 해는 풍년도 사람 모르게 든다는 뜻.
39	사월 보름 날씨가 좋으면 풍년 든다	사월 보름 날씨가 좋아야 그해 풍년이 든다는 뜻.
40	사월 초파일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사월 초파일에 비가 오면 모심기 물로 사용되므로 벼 풍년 든다는 뜻.
41	사월 초하룻날 아침부터 밤까지 남풍이 불면 풍년 든다	음력 4월 1일에 남풍이 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모심기가 잘 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
42	산에 초목이 무성하면 풍년이 든다	산에 초목이 무성하다는 것은 비가 흡족히 왔기 때문이므로 곡식들도 잘 자라서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3	산열매가 많이 열리면 벼도 풍년 든다	비가 흡족하게 와서 산에서 자라는 실과들이 풍년이 들면 벼도 물이 넉넉하여 풍년이 든다는 뜻.
44	삼남이 풍년이면 굶어죽는 놈 없다	우리나라는 충청,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만 풍년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뜻.
45	삼월달 일진에 묘 자가 세 번 들면 콩팥이 풍년 들고 묘 자가 없으면 보리와 삼농사가 풍년든다	음력 3월 중에 묘 자가 든 일진이 세 번 있으면 콩팥이 풍년 들고 묘 자가 없으면 보리와 삼농사가 풍년 든다는 뜻.
46	서울놈은 장마가 져도 풍년인줄 안다	옛날 서울 사람들은 농사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면 풍년이 드는 줄 알듯이 내용을 모르는 일에는 실수하기 쉽다는 뜻.
47	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음력 설에 눈이 자주 오면 보리 농사에 좋고 추석 때는 벼의 등숙기이므로 맑은 날이 많아야 일조시간이 많고 적산온도가 높아 결실이 좋아 풍년이 든다는 뜻에서 유래됨. 영남
48	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설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질어야 풍년이 들고 보름에는 논두렁에 쥐불을 질러 병해충도 예방하고 보름달을 보면서 풍년 기원도 해야 하므로 맑아야 풍년이 든다는 뜻.
49	섬게가 여물어야 시절이 좋다	바다 돌틈에 서식하는 섬게(성게)가 그 속이 누렇게 여무는 해라야 농사도 풍년이라는 뜻.
50	소나무 새순이 길게 자라면 풍년 든다	소나무 새순이 굵고 길게 자란다는 것은 그 해에 봄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알맞게 상승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못자리도 순조로워 풍년이 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
51	소서께 들판이 얼룩소가 되면 풍년이 든다	소서 무렵에 들판에 모가 다 심겨져서 오심기 한 것과 늦심기 한 것이 얼룩져 보이면 모심기도 잘 되고 자라기도 잘 자라서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52	소쩍새가 울면 풍년이 든다	옛날부터 농촌에서 소쩍새가 우는 것은 풍년 들 징조라 하여 소쩍새 울음 기대한 데서 유래된 말.
53	앵도 풍년 드는 해는 벼도 풍년든다	초여름에 앵도가 풍년 들면 가을에 벼농사도 풍년이 들게 된다는 뜻.
54	없는 놈은 보리가 풍년 져야 산다	빈농들은 벼농사 지은 것은 소작료 주고 빚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보리가 풍년이 들어야 그것으로 식량을 한다는 뜻.
55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농사는 풍년 든다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병충해가 적어서 풍년 든다는 뜻.
56	오곡이 풍성하면 집안에 곡식이 가득하다	풍년이 들면 집집마다 곡식 가리가 가득하여 흐뭇하다는 뜻.
57	오뉴월 논물은 따뜻해야 풍년이 든다	벼는 고온다습지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논물이 따뜻해야 풍년이 든다는 뜻.
58	오월 가뭄에는 풍년이 든다	음력 5월은 논보리를 베고 보리타작도 하는 시기라 잠시 가무는 것이 풍년 들 길조라는 뜻.
59	오월 단오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단오날 비가 오면 재래종은 이때 한창 모심기를 하므로 풍년이 들게 된다는 뜻.
60	오월 밤은 추워야 보리가 풍년 든다	음력 5월은 보리의 성숙기이므로 일교차가 커서 밤 날씨가 추워야 보리가 잘 영글어 풍년이 든다는 뜻.
61	우수에 비가 와야 풍년이 든다	우수에 비가 와야 해동을 촉진시켜 풍년이 든다는 뜻.
62	월복하는 해 풍년 든다	중복에서 말복까지 월복을 하여 20일 만에 말복이 되는 해는 늦더위가 10일 연장되기 때문에 벼의 성장이 좋아져서 풍년이 든다는 뜻.
63	유두 안 에 들판이 얼룩소가 돼야 풍년이 든다	유두 이전에 들녘이 오심기 한 것과 늦심기 한 벼로 얼룩져 보이면 모심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뜻.
64	유월 스무날 해질 때 구름 없이 맑아야 풍년 든다	음력 6월은 장마철인데 20일 저녁 무렵에 구름 없이 맑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뜻.
65	유월 엿샛날 새벽 천둥에는 풍년이 든다	음력 6월 6일 새벽에 천둥이 있는 것은 풍년이 들 길조라는 뜻.
66	유월 장마는 쌀 창고다	늦모심기가 끝나고 논에 물들이 귀한 6월 첫장마가 수해 없을 정도로 오는 것은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67	유월이 공달이면 열매농사가 잘 된다	음력 6월에 윤달이 들면 벼, 콩, 조 등의 열매농사는 일조기간이 연장되어 결실이 잘 된다는 뜻.
68	윤달 든해는 노란 곡식이 풍년든다	윤달이 드는 해는 일조기간이 연장되므로 벼 풍년이 든다는 말.
69	은행나무 잎이 아래서부터 고루 피면 풍년 든다	잎이 고루 피었다는 것은 환경조건이 좋았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이런 해는 곡식도 따라서 풍년이 들 수 있다는 뜻.
70	이월 이십일에는 비가오면 태풍이 동반한다	음력 2월 20일에 비가 올 때는 태풍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
71	이월 일진에 묘 자가 세 번 들면 콩팥이 풍년 든다	음력 2월 2일 일진에 묘 자가 세 번 든 해에는 콩팥이 풍년 든다는 뜻.
72	이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이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해동이 빠르게 되므로 풍년이 든다 뜻.
73	이팝나무 꽃이 필때 낙종을 하면 섬뒤주가 모자란다	4월 20일경 이팝나무 꽃이 필때 재래종은 못자리를 하면 수확이 많다는 뜻.
74	입추에 동풍이 불면 풍년 든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풍해의 위험성이 큰데 동풍이 불면 피해가 없어서 풍년이 든다는 뜻.
75	입추에 비가 조금 오면 풍년이 든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인데 비가 많이 오면 해롭고, 조금 와서 해갈만 면하면 풍작이 될 수 있다는 뜻.
76	입춘 일진에 갑자나 을자가 들면 풍년 진다	입춘날 일진에 갑자 또는 을자가 들면 풍년이 든다는 말.
77	입춘에 보리 뿌리가 셋만 되면 풍년든다	입춘에 보리 뿌리가 세 개만 되면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78	장다리가 잘 되면 농사도 잘 된다	봄철 채소에 장다리가 생기는 것은 비가 와서 수분도 넉넉하고 날씨도 따뜻해서 이므로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 곡식도 발육이 좋다는 뜻.
79	정월 대보름날 달무리가 끼면 풍년 든다	보름날 달무리가 서는 것은 풍년이 들 길조라는 뜻.
80	정월 대보름날 여러 가지 볍씨를 같은 무게로 달아 종이에 싸서 중방에 매달았다가 다음날 저울로 달아 가장 무거운 볍씨로 못자리를 하면 풍년 든다	정월 대보름날 여러 가지 볍씨를 같은 무게로 달아 종이에 싸서 중방에 매달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계근하여 가장 무거운 볍씨, 즉 흡습성이 많은 볍씨로 못자리를 하면 풍년 든다는 뜻.
81	정월 대보름달이 진방에서 뜨면 강원도, 함경도가 풍년든다	정월대보름달이 진방(동동남)에서 뜨면 강원도, 함경도가 풍년이 든다는 뜻.
82	정월 상순 일진에 갑자일이 있으면 풍년 든다	육갑에서 갑자일이 첫번째이기 때문에 갑자일 정월 초에 들면 길하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83	정월 초사흗날 일진에 갑일이 있으면 대풍이 든다	십간에서 갑자가 첫번 이므로 이 갑자가 일찍이 들면 대길하여 풍년이 든다는 뜻.
84	정월 초사흗날이나 초사흗날 일진에 신자가 들면 벼농사가 풍년이 든다	음력 1월 3일이나 4일 일진에 신자가 들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뜻.
85	정월 초여드레 곡일날 날씨가 좋으면 풍년든다	음력 1월 8일 곡일에 날씨가 맑아야 풍년이 든다는 뜻.
86	정월 초열흘 안에 고기꿈을 꾸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	음력 1월 10일 이내에 고기 꿈을 꾸며 그해 농사를 잘하게 된다는 뜻.
87	정월 초이틀 안에서 서남풍이 불면 풍년 든다	음력 1월 2일 안에 바람이 서남쪽에서 불어오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8	정월 초하루에서 초여드레 사이 일진에 신자가 들면 비가 알맞게 와서 풍년이 든다	음력 1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일진에 신자가 든 해는 비가 알맞게 와서 풍년이 든다는 뜻.
89	정월 초하룻날 구름이 끼면 풍년 들 징조다	음력 1월 1일 구름이 끼는 것은 1년 동안 농삿비가 많이 올 징조라는 뜻.
90	정월 초하룻날 날씨가 좋으면 과일 풍년든다	음력 1월 1일 날씨가 쾌청하면 그해 과실들이 풍년이라는 뜻.
91	정월 초하룻날 남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	음력 1월 1일 남풍이 불어서 구름이 끼거나 눈이 오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뜻.
92	정월 초하룻날 눈이 오면 풍년 든다	음력 1월 1일 서설(瑞雪)이 오는 것은 풍년이 들 길조라는 뜻.
93	정월 초하룻날 동쪽 하늘에 오색구름이 있으면 보리 풍년든다	음력 1월 1일 아침 동쪽 하늘에 오색구름이 떠 있는 것은 그해 보리 풍년이 들 길조라는 뜻.
94	정월 초하룻날 보리싹이 드물면 풍작된다	한겨울의 보리 발육상태는 밴 것보다 드문 것이 해동이 되면 새끼도 잘 치고 충실하게 잘 자라서 풍작이 된다는 뜻.
95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누른 구름이 오방에서 뜨면 풍년든다	음력 1월 1일 첫새벽에 서운이 오방에서 뜨는 것은 풍년 들 징조라는 뜻.
96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까치가 울면 풍년 든다	까치는 길조이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 아침부터 까치가 울면 풍년이 든다는 뜻.
97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묘 자가 들면 풍년든다	음력 1월 1일 일진에 묘 자가 든 해는 곡식이 풍년 든다는 뜻.
98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술자가 들면 곡식은 풍작이지만 질병이 많다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술자가 든 해는 풍년은 들지만 질병이 있어 인명 피해가 있다는 말.
99	정월 초하룻날은 눈이 와야 풍년들고 정월보름날은 맑아야 풍년든다	음력 1월 1일 서설(瑞雪)이 와야 풍년이 들고 1월 15일은 맑아야 달맞이를 하게되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00	정월대보름 달빛이 희면 흰 벼를 심고 붉으면 붉은 벼를 심어야 풍년든다	달빛이 희면 벼이삭이 흰 벼를 심고 달빛이 붉으면 벼이삭이 붉은 것을 심어야 벼가 잘 된다는 뜻.
101	정월대보름 달이 남쪽으로 기울면 해안 지방이 풍년 든다	황해도 지방에서 음력 1월 15일 달이 남쪽으로 기울게 되면 해안 지방이 풍년 든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말 황해
102	정월대보름 달이 북쪽으로 기울면 산골 지방에 풍년이 든다	정월대보름 달이 북쪽으로 기울게 되면 내륙 쪽의 산골지대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말 황해
103	정월대보름달이 인방에서 뜨면 평안도, 황해도가 풍년이 든다	정월대보름달이 인방(동동북)에서 뜨면 평안도, 황해도가 풍년이 든다는 뜻.
104	정월보름날 각종 씨앗을 소에게 주어 맨 먼저 먹는 씨앗을 심으면 풍년든다	보름날 아침에 여러 가지 씨앗을 소에게 주어 맨 먼저 먹는 씨앗을 심으면 풍년이 든다는 뜻.
105	정월보름날 구름이 뭉게뭉게 뜨면 보리 풍년 든다	정월보름날 구름이 뭉게뭉게 뜨면서 날씨가 포근하면 보리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106	정월보름날 보리뿌리가 희면 풍년든다	보름날 보리를 깨서 흰 뿌리가 생겼으면 풍년이 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07	정월보름날 아침에 각종 곡식으로 밥을 지어 한 숟가락씩 소 구유에 놓아서 소가 맨 먼저 먹는 곡식이 풍년든다	정월보름날 아침에 각종 곡식으로 각각 밥을 지어 한 숟가락씩 소 구유에 따로 놓아서 소가 맨 먼저 먹는 곡식이 풍년 든다는 뜻.
108	정월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어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든다	정월보름날 아침에 밥과 나물을 소 구유에 놓아서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든다는 뜻.
109	정월보름은 맑아야 풍년이 든다	보름날은 구름 없이 맑아야 달이 온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으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10	정월에 묘일이 셋이면 보리 풍년 든다	토끼가 보릿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월 일진에 토끼날이 셋이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뜻.
111	제비가 새끼를 많이 낳는 해는 풍년든다	새들은 날씨를 미라 알아서 그 해에 새끼를 많이 치는 풍년이 든다고 전해 오는 말. 경기
112	제비가 새끼를 많이 치는 해는 풍년든다	제비가 새끼를 많이 치는 것은 길조이므로 곡식도 풍년이 든다는 뜻.
113	제비가 집을 거칠게 지으면 풍년든다	제비집이 거친 것은 흙에 수분임 낳아 그것에 짚북더기를 버무려서 지었기 때문이므로, 이런 해는 물이 흔해서 못자리를 순조롭게 하여 풍년이 든다는 뜻.
114	제비가 집을 거칠게 지으면 풍년든다	제비는 기후에 민감한 동물로서 제비집이 거칠다는 것은 4월경에 토양수분이 많다는 뜻으로 물이 충분하여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년이 예상됨을 뜻함. 충남, 경북
115	진달래 꽃잎이 여덟이면 풍년든다	진달래 꽃잎은 보통 다섯 잎인데 세 잎이나 더 많은 것은 풍년이 들 징조라는 뜻.
116	찔레꽃 필 때 모심으면 풍년 든다	재래종벼는 신풍종보다 늦게 심기 때문에 찔레꽃이 피는 5월중순부터 모를 심기 시작하여, 찔레꽃이 지는 6월 중순까지 끝내게 되면 풍년이 든다는 뜻.
117	찔레꽃철 비는 풍년비다	찔레꽃이 만개하는 5월 중순에 비가 오면 모내기를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뜻.
118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많이 달리면 풍년이 든다	눈이 많으면 봄에 용수량이 많아 영농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농사가 풍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데서 유래.
119	처마끝에 고드름이 많이 달리면 풍년든다	처마에 고드름이 많이 달렸다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음을 의미하므로 눈이 많이 오면 보리를 덮어 동해를 방지하면서 수분도 제대로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풍년이든다
120	천둥번개가 심한 해는 풍년 든다	소나기가 내릴 때 공기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로 인하여 암모니아로 합성되어 빗물에 혼합되면서 땅에 내리면 질소가 공급되어 작물의 생육을 왕성하게 한다는 뜻. 경북, 부산
121	청명에 남풍이 불면 풍년든다	청명에 남풍이 분다는 것은 비가 올 징조라 풍년이 예견된다는 뜻.
122	초복날에서 상강날까지 백 일이 넘으면 풍년이 든다	벼가 한창 자라는 초복 무렵에서 서리에 오는 상강까지 백일이 넘어 일조일이 길수록 수확이 많아서 풍년이 든다는 뜻.
123	초봄에 비가 자주 와야 풍년이 든다	초봄에 비가 넉넉하게 와야 못자리도 하고 모심기 물도 준비하게 되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24	추사일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입추 지나 다섯번째 무일인 추사일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말.
125	친정집에서 가져온 씨앗으로는 풍년이 들지 않는다	친정에서 가져온 씨앗은 아까워서 넉넉히 뿌리지 않으므로 풍작이 될 수 없다는 뜻.
126	풍년 거지가 더 서럽다	풍년이 들어 남들은 모두 호의호식하는데 자신만 거지 노릇을 하기 때문에 더 서러워진다는 뜻.
127	풍년에 곳간이 비고 흉년에 곳간이 찬다	풍년이 들었다고 함부로 먹고 쓰는 사람의 곳간은 비게 되고 흉년이라도 아껴서 먹고 쓰는 사람의 곳간은 차게 된다는 뜻.
128	풍년에 농민 즐기듯 한다	풍년이 들게 되면 농민들이 모두 즐거워한다는 뜻.
129	풍년은 해마다 들지 않는다	비가 매년 알맞게 오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기 때문에 풍년은 매년 들 수가 없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30	풍년이 들면 나라에 걱정할 일이 없다	봉건사회에서는 풍년이 들면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
		131	풍년이 들어야 인심도 좋아진다	풍년이 들면 생활이 넉넉해지므로 인심이 좋아진다는 뜻.
		132	풍년화가 많이 피면 풍년든다	풍년화가 많이 핀다는 것은 풍년이 들 징조이므로 풍년이 든다는 뜻.
		133	하지에 비가 오면 풍년든다	재래종벼는 6월 21일경인 하지 때에도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뜻.
		134	한 이삭에 두 이삭이 달린다	한 개씩 나는 이삭에 두 개씩 날 정도로 큰 풍년이 들었다는 뜻.
		135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 든다	겨울에는 눈이 만힝 와야 보리 풍년이 든다는 뜻.
		136	해마다 풍년이 든다	농민들이 소원하는 대로 해마다 풍년이 들어 만인간이 다 즐거워한다는 뜻.
		137	흰 산새가 나타나면 큰 풍년이 든다	흰 산새가 나타나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뜻.
영농	흉년	1	가을이냐고 봄이다	가을이 되었으나 흉년이 들어 추수할 것이 없다는 뜻.
		2	가뭄에는 씨가 서도 장마에는 씨도 없다	가뭄에는 토양습도에 의한 작물에 발아와 생육이 가능하나 장마중에는 수해로 종자가 썩거나 홍수 피해가 가뭄보다 더 크므로 홍수에 대비하여 치수사업을 사전에 하라는 뜻.
		3	가을이 와도 가을 같지 않다	흉년이 들어 가을이 와도 가을답지 않고 식량 곤란을 받는다는 뜻.
		4	감꽃 필 때 물 잡으면 폐농한다	감꽃이 필 때 물을 잡아서 오래 두었다가 모심기를 하면 토양에 거름기가 다 유실되어 모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흉작이 된다는 뜻.
		5	감꽃 필 때 비가 적게 오면 흉년든다	감꽃 필 때가 모내기 시기이므로 알맞은 양의 비가 와야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다는 뜻. 강원, 경남
		6	갑인년 흉년에도 먹고 남은 것은 물이다	1854년 갑인년에 대홍수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남은 것은 물밖에 없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
		7	강철이 지나간 가을이다	초목을 말려죽인다는 독룡인 강철이 지나간 것처럼 큰 가뭄이 들어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어 큰 흉년이 들었다는 뜻.
		8	개가 마루 밑을 파면 흉년이 든다	개가 마루 밑을 파는 것은 흉조이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9	거지도 흉년이 들까 두려워한다	흉년이 들면 누구나 곤란하게 되므로 거지도 흉년은 두려워한다는 뜻.
		10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추우면 보리가 흉년 든다	겨울이 따뜻하고 보리가 자랐다가 봄추위에 동사하게 되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11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추우면 전염병이 퍼지고 흉년이 든다	계절이 뒤바뀌는 이상기온에서는 해동이 늦어서 흉년이 들 수 있고 봄에 전염병도 유행될 수 있다는 말.
		12	곡식을 되질할 것이 없다	큰 흉년이 들어 곡식을 타작해도 쭉정이 뿐이고 낟알이 없어서 되질해 담을 것이 없다는 뜻.
		13	곡우에 가물면 흉년 든다	곡우에는 못자리 물도 필요하고 보리 가뭄도 있을 때라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14	구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다음해 여름에 장마로 흉년이 든다	음력 9월 1일 바람이 부는 것은 다음해 여름에 큰 장마가 질 징조이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15	까마귀 새끼가 셋이면 흉년든다	까마귀가 새끼를 많이 치면 풍년이 들고 적게 치면 흉년이 든다는 뜻. 제주
		16	꿩이 보금자리를 낮은 곳에 지으면 봄가뭄이 온다	꿩이 낮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는다는 것은 수해가 없을 것으로 예견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해는 가뭄이 온다는 뜻. 경기, 충남
		17	낫 댈 곡식이 없다	농작물이 흉작이 되어 낫으로 벨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었다는 뜻.
		18	논농사가 흉년이면 바다도 흉년든다	가뭄으로 농사가 흉년이 들면 수산동식물도 생산이 감소되어 바다에도 흉년이 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9	달 뒤에 별이 바짝 따라가면 흉년이 든다	달과 별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드문 현상으로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흉조이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20	닭이 동짓날 새벽에 열 번 이하로 울면 흉년이 든다	동짓날 새벽에 닭이 열 번 이상 울지 않으면 다음해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21	대풍호시절에 흉년 농사 짓는다	큰 풍년이 들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자기만 흉년이 들어 원통하다는 뜻.
22	도토리가 풍년이면 벼는 흉년 든다	도토리는 산에서 들판을 내려다보면서 벼가 흉년이 드는 해는 식량에 보탬되라고 많이 열리게 된다는 뜻.
23	동지 팥죽이 쉬면 보리 흉년든다	혹한기인 동지 때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하면 보리가 자랐다가 다 얼어죽게 되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24	뒷간에 삽을 세워두면 농사 안된다	뒷간에 삽을 세워두면 흉년이 들어 농작물의 소출이 적다는 뜻.
25	들판에 쑥이 무성하면 흉년든다	쑥은 가뭄과 장마에 잘 견디는 식물이다. 따라서 기상 불양시 쑥은 무서하게 자랄 수 있지만 일반작물은 잘 자라지 못해 흉년 든다는 뜻. 전북
26	맑은 날 번개 치면 가뭄온다	기류관계로 맑은 날 번개치면 가뭄이 계속될 징조라는 뜻. 강원, 경남
27	망종이 오월에 들면 보리 흉년 든다	망종이 되면 보리가 영글게 되는데 망종이 음력 5월에 들면 영그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28	메밀 한 섬가진 놈이 흉년들기만 기다린다	가뭄으로 모를 못 심게 되면 메밀을 심게 되므로 값이 폭등하여 이득을 많이 얻듯이 남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제 욕심만 낸다는 뜻.
29	메밀도 흉년에는 한몫한다	가뭄으로 벼를 심을 때는 뒤늦게나마 메밀을 심어서 식량으로 한다는 뜻.
30	모심고 동풍이 많이 불면 솥단지 떼어 놓아야 한다	이앙 후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동풍이 자주 불면 벼 생육이 부진하여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데서 유래한 말. 충남
31	물난 끝은 없어도 불난 끝은 있다	수해로 떠내려간 것은 찾을 도리가 없지만 화재에는 타다가 남은 것이 다소나마 있으므로 화재보다 수재의 피해가 더 크다는 뜻.
32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흉년이 든다	물 뜨는 바가지를 엎어서 머리에 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므로 흉년이 온다는 뜻.
33	반타작도 안된다	가을 수확량이 평년에 비하여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
34	배꽃이 피고 지면 서리 피해는 피한다	중부지방에서 배꽃은 4월 20일경에서 5월 1일 사이에 꽃이 만발하므로 배꽃이 피고 지는 시기라면 모든 작물이 서리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 충남
35	백로 안에 벼 안 패는 집에는 가지도 말랬다	백로(9월 7일경) 전에 벼 이삭이 패지 않아면 늦되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
36	백로 전 미발未發은 못 먹는다	백로(9월 7일경) 전에 벼 이삭이 패지 않아면 늦되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
37	백로에 비가 오면 흉년든다	옛날 재래종 벼는 백로에 한창 벼꽃이 필 때라 이때 비가 오게 되면 쭉정벼가 생겨서 흉작이 된다는 뜻.
38	백중에 물 없는 논은 가을 할 것이 없다	백중에는 벼이삭이 팰 무렵인데, 이때 논에 물이 없어서 가물게 되면 쭉정벼가 생겨 흉년이 든다는 뜻.
39	벼꽃 필 때 장마 지면 마당 흉년	벼의 추수개화기에 장마가 지면 수정률이 떨어지고 일조시수도 적으며 도열병 등 각종 병충해 피해도 많아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뜻. 충남
40	보래 배동바지 때 비가 자주 오면 보리 흉년 든다	보리가 팰 무렵 비가 자주 오면 습해와 병해가 발생하여 작황이 나빠져 흉년이 든다는 뜻.
41	보리철 안개는 죽안개다	보리철에 끼는 안개는 곡식이 해롭기 때문에 보리 흉년이 든다는 뜻.
42	보릿대 풍년은 보리알 흉년이다	보리가 잎과 대만 무성하면 이삭은 쭉정이가 되므로 흉작이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3	봄철에 해동이 빠르면 보리 흉년 든다	보리는 눈에 덮인 채 오래 있어야 보온과 수분 흡수가 잘 되어 풍년이 드는데 일찍 해동이 되면 가뭄으로 흉작이 될 수 있다는 뜻.
44	빈 맷돌질하면 흉년든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기구인데, 빈 맷돌질을 하는 것은 흉년을 상징하는 데서 유래한 말. 제주
45	빈 방아질 하면 흉년든다	곡식도 없는 빈 절구에 방아질을 하는 것은 흉년을 상징하는 데서 유래한 말로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뜻.
46	사월 눈은 흉년든다	4월에 늦눈이 오는 것은 이상기온으로 보리가 흉년이 든다는 뜻.
47	사월 무지개에 곡가 오른다	음력 4월 무지개가 잦으면 날씨가 가물게 되므로 흉년이 든다는 말.
48	사월 일진에 묘 자가 안 들면 보리 흉년든다	음력 4월 일진에 묘 자가 들어야 풍년이 들고 없으면 보리 흉년이 든다는 뜻.
49	삼복에 비가 오면 처녀가 운다	모든 농작물은 삼복시간중에 기상이 좋아야 생육이 좋은데 이 시기 장마가 들면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흉년이 든다는 뜻. 경기, 전북
50	유월달이 작 은해는 과일이 흉년든다	음력 6월이 작은 해는 모든 과일이 흉작이라는 말.
51	이월 이십일 날씨가 맑으면 흉년든다	음력 2월 20일에는 흐리거나 비가 와야 풍년이 든다는 뜻.
52	이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흉년든다	음력 2월 1일은 고요하고 날씨가 청명해야지 바람이 불면 그해 흉년이 든다는 말.
53	입춘 지나 눈이 오면 흉년 든다	입춘이 지난 후에 늦눈이 오는 것은 이상기후이며 이는 흉년의 징조라는 뜻.
54	입춘 지나 첫 갑자일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입춘 지나 첫 갑자일에 비가 오는 것은 흉년이 들 불길한 징조라는 뜻.
55	정월 상순 일진에 병자가 들면 가뭄으로 흉년이 든다	음력 1월 상순에 병자가 든 일진이 있으면 그해 가뭄으로 흉년이 든다는 뜻.
56	정월 초닷새날 비가 오면 그해 흉년이 든다	음력 초닷샛날은 아직 추워서 눈이 올 때인데 비가 오면 얼어붙어서 보리가 동사하게 되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57	정월 초사흗날 동남쪽에 붉은 구름이 끼면 큰 가뭄이 있다	1월 4일 아침 동남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끼면 그해 가뭄으로 흉년이 든다는 뜻.
58	정월 초이튿날 동남풍이 불면 흉년든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에 동남풍이 불면 흉년이 든다는 뜻.
59	정월 초하룻날 동풍이 불면 흉년든다	초하룻날 곡식에 해로운 동풍이 분다는 것은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60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자자가 들면 수해로 흉년 든다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자자가 들면 수해로 흉년이 든다는 뜻.
61	정월대보름날 일진이 무자일이면 흉년든다	정월대보름날 일진에 무자가 들면 불길한 일진이라 흉년이 든다는 말.
62	정월에 오일이 셋이면 흉년이 든다	음력 1월 일진에 말날이 셋이면 흉년이 든다는 속설에서 유래된 말.
63	제비가 처마 안쪽을 향하여 집을 지으면 흉년든다	제비집은 처마 안에 밖을 향하여 짓는 것인데 반대로 안을 향하여 짓는 것은 그해 폭풍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느 풍수해로 흉년이 든다는 뜻.
64	조 한 섬 가진 놈이 흉년 들기만 기다린다	남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사소한 제 욕심만 낸다는 뜻.
65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 곡식도 안 준다	벼꽃이 한창 피는 처서에 오는 비는 폭풍우이기 때문에 쭉정벼가 많이 생겨서 흉년이 든다는 뜻.
66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들 안에 천석을 감한다	벼꽃이 한창 피는 처서에 오는 비는 폭풍우이기 때문에 쭉정벼가 많이 생겨서 흉년이 든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67	천상갑에 비가 오면 보리 흉년든다	구정이 지난 첫 갑자일인 천상갑에 비가 오는 것은 보리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68	초파일에 물잡으면 농사 파농한다	이모작을 하던 시절 초파일에 모심기 물을 미리 잡으면 너무 빨라서 비료분이 유실되어 농사에 피해가 크다는 뜻.
69	추석날 마당물이 고이면 보리흉년든다	추석에 장마가 지면 추수가 늦어져서 밭보리 파종도 늦어지며 논보리도 늦게 파종하게 되므로 보리 흉년을 면할 수 없다는 뜻.
70	춘분에 서풍이 불면 보리 흉년든다	춘분 무렵이 되면 보리가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때 동풍잉 불면 싹을 시들게 하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뜻.
71	칠 년 대흉에도 무당은 안 굶어죽는다	사람은 궁해질 수록 미신을 더 믿게 되므로 무당은 흉년을 타지 않는다는 뜻.
72	칠월 칠석날 식전에 논밭에 나가면 수확이 감소된다	칠석난 아침에 천곡신이 백곡의 작상을 보고 논밭의 수확을 정하는데 이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수확이 감소된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말.
73	칠월받이 한 논은 폐농한다	음력 7월에 늦게 질소비료를 사비하면 농사를 다 망친다는 뜻.
74	칠월에 나락 검은 집에는 손노릇 가지 말랬다	잎과 줄기가 검고 무성한 벼는 쓰러지거나 병충해로 흉작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런 집에는 아예 가지도 말라는 뜻.
75	콩은 덤불콩이 되면 폐농한다	콩씨를 드문드문 심지 않고 촘촘히 심게 되면 줄기가 덩굴져 잎만 무성하고 콩이 열리지 않으므로 흉작이 된다는 뜻.
76	큰 전쟁 끝에는 반드시 흉년든다	큰 전쟁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다 동원되기 때문에 노력 부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흉년이 든다는 뜻.
77	한식날 비가 오면 대한으로 흉년든다	한식날은 날씨가 좋아요 풍년이 들고 비가 오게 되면 큰 가뭄으로 흉년이 든다는 뜻.
78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황충(메뚜기)은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곤충으로서 황충이 떼가 한 차례 지나가면 순식간에 흉작이 되고 만다는 뜻.
79	흉년 들면 소값이 내린다	흉년이 들면 먹거리도 귀할 뿐 아니라 다음해 영농 의욕도 상실되어 소값이 헐어진다는 뜻.
80	흉년 떡도 많으면 싸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도 많으면 값이 헐해진다는 뜻.
81	흉년 떡은 보기만 해도 살찐다	흉년에는 죽도 먹기 어려운데 떡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니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는 뜻.
82	흉년 메뚜기다	흉년에는 벼를 심지 못하여 메뚜기까지도 굶어죽게 된다는 뜻.
83	흉년 밥은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이다	흉년에는 굶주려서 아이들도 어른 몫을 먹게 된다는 뜻.
84	흉년 손님은 뒤꼭지가 예쁘다	식량이 없어서 어려운 터에 손님이 오면 반갑기보다 걱정이 앞서 손님이 왔다가 바로 가는 것이 도리어 반갑게 느껴진다는 뜻.
85	흉년 손님은 범보다도 무섭다	흉년이 들이 식량이 없을 때 손님이 오게 되면 반가운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대접할 걱정이 앞선다는 뜻.
86	흉년 음식은 메밀 풀떼기다	흉년에는 대개 벼를 심지 못해 메밀을 심는 수가 많은데 그나마 메밀가루를 풀과 같이 쑤어서 끼니를 때운다는 뜻.
87	흉년 이밥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흉년이 들어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터에 이밥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뜻.
88	흉년 죽 담듯 한다	흉년에는 적은 양의 죽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담을 때 되도록이면 적게 담듯이 음식을 인색하게 담아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89	흉년에 남자는 굶어도 여자는 굶어죽지 않는다	남자는 대문 밖에서 밥을 구걸하기 때문에 거절당하지만 여자는 부엌문 앞에서 구걸하므로 거절하는 일이 적어 얻어먹을 기회가 있다는 뜻.
90	흉년에 떡맛 보기다	흉년에는 밥도 못 먹을 판인데 떡맛을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91	흉년에 밥 빌어먹겠다	흉년에는 밥도 얻어먹으려면 노력을 해야한다는 뜻.
		92	흉년에 밭 팔려 말고 입 하나 덜어라	농촌생활에서 곤란을 당할 때는 농토를 파아서 생활하려고 말고 식량을 절약하여 극복하는 뜻.
		93	흉년에 배운 장기長技다	흉년에 살기 위해 배운 것이라고는 얻어먹는 재주밖에 없다는 뜻.
		94	흉년에 보리개떡도 많으면 싸다	귀한 물건이라도 많으면 값이 싸진다는 뜻.
		95	흉년에 어미는 굶어죽고 자식은 배터져 죽는다	어머니는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자 애쓴다는 뜻.
		96	흉년에 윤달 든다	빨리 자나가야 할 흉년이 도리어 연장되어 고생을 더하게 되었다는 뜻.
		97	흉년에는 고기도 송사리 밖에 없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면 송사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
		98	흉년에는 논밭 늘리려고 말고 한 입을 덜랬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양식을 구하려할 것이 아니라 식구를 줄이도록 하라는 뜻.
		99	흉년에는 뱀도 조이삭을 먹는다	흉년이 들면 뱀까지도 먹지 않던 조이삭을 먹듯이 이렇다할 식량이 없으므로 풀잎이나 풀뿌리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먹게 된다는 뜻.
		100	흉년에는 소금이 양식이다	흉년에는 소금이 음식 맛을 내느데 사용되지만 흉년에는 각종 풀과 풀뿌리에 소금을 쳐서 식량으로 먹는다는 말.
		101	흉년에는 쑥도 양식이다	흉년에는 쑥을 삶아서 식량 대신으로 먹는다는 뜻.
		102	흉년에는 피죽이 인삼죽이다	흉년에는 피를 껍질째 볶아 갈아서 쑨 피죽을 먹고도 견딜 수 있다는 뜻.
		103	흉년이 들면 센 놈은 도둑되고 약한 놈은 거지 된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힘 센 놈은 도둑질을 하게 되고 약한 놈은 거지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
		104	흉년이 들면 씨앗각시 품삯도 안 된다	흉년이 들면 소출이 줄어들어서 영농비는 고사하고 씨 뿌린 품삯도 안나온다는 뜻.
		105	흉년이 들면 인심이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면 성미가 사나워지므로 인심도 나빠진다는 뜻.
		106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이 사나워지게 된다	흉년이 들어 세상이 어지러우면 젊은 사람들이 폭동올 일으키게 된다는 뜻.
작물	벼	1	5~6월에는 논물로 목욕한다	논물로 목욕할 정도로 수온이 높아야 벼의 초기 생육이 좋아진다는 뜻. 전북
		2	7월 벼 검은 집과는 사돈도 맺지마라	벼잎색이 검은색을 띠는 것은 비료를 많이 주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확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농사에 실패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
		3	논에 짚신을 던져 떨어지지 않으면 수량이 많다	벼의 이삭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짚신을 던져도 짚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다는 뜻.
		4	말복 나락(벼)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말복 때는 일기가 좋고 일조시수도 많아 벼의 생장속도가 빨라서 개가 벼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말. 경남
		5	처서에 비오면 나락에서 뿔난다	처서에 비가 자주오면 수발아가 잘되며 일조시수가 적어 벼의 등숙이 떨어지고 품질도 크게 떨어진다는 뜻.
		6	풋벼 자랑과 딸 자랑하지 말라	거름을 많이 주면 벼잎 색이 짙어 벼가 마치 잘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을에 추수해보면 쭉정이가 많아 수량이 떨어진다는 말.로 비료에 욕심을 내지말라고 경고하는 뜻.에서 유래된 말. 인천, 강화
작물	보리	1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하면 보리밭에 서릿발이 생겨서 뿌리가 말라죽게 되므로, 보리를 밟아서 착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
		2	경자년 보리농사 되듯 했다	조선조말 경자년에 보리가 대흉년이었듯이 곡식이 대흉작이라는 뜻.
		3	골나면 보리방아는 더 잘 찧는다	화가 난 사람은 말도 않고 일로 화를 풀게 되므로 더 잘하게 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	골난 며느리 보리방아 찧듯 한다	골난 며느리가 화풀이를 방아에 하듯이 무슨일을 함부로 해치운다는 뜻.
5	꽁보리밥도 제때에 못 먹는다	가난하여서 꽁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살림을 한다는 뜻.
6	동지 때 따뜻하면 보리농사흉작된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어 보리가 월동 중에 얼어죽기 쉬워 흉작이 된다는 뜻. 전북
7	매화꽃 적게 피면 보리농사 망친다	매화꽃이 적은 해는 늦추위가 계속되고 가뭄으로 수분이 부족하여 보리농사에 좋지 못하다는 뜻. 경남
8	매화꽃이 만발하지 않으면 보리농사는 망친다	늦추위가 계속되면서 가뭄으로 토양 수분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 이런 조건에서는 보리 작황도 좋을 리가 없다는 뜻.
9	보리 못된 것이 일찍 팬다	재해로 발육도 제대로 못한 보리가 패기는 일찍 패듯이 못난 놈이 일찍부터 난봉을 부린다는 뜻.
10	보리 못된 것이 일찍 팬다	거름기가 부족한 밭에서 자란 보리는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일찍 패는 반면 소출은 떨어진다는 뜻. 전북
11	보리 심은 데 보리 나고, 피 심은 데 피난다	보리씨에서는 보리가 나고 피씨에서는 피가 나듯이, 원인과 결과는 속일 수가 없다는 뜻.
12	보리 안 패는 삼월 없고, 나락 안 패는 유월 없다	보리는 음력 3월이면 패기 시작하고, 나락은 음력 6월이면 패기 시작한다는 뜻.
13	보리 안패는 3월 없고 벼 안패는 6월 없다	음력 3월에는 보리가 패고 음력 6월에는 벼가 패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자연의 섭리는 항상 일정하게 순환한다는 뜻. 경북
14	보리 파종은 시월 입동에는 입동 후에 하고, 구월 입동에는 입동 전에 한다	보리파종은 음력 입동이 있는 10월에 있는 해에는 입동 후에 하고, 9월에 있을 때는 이전에 윤달이 있어서 이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므로 입동전에 파종해야 한다는 뜻.
15	보리 파종은 일진에 자자子字 든날에는 하지 않는다	보리 파종은 자자가 든 날을 피해서 해야 보리농사가 잘 된다는 뜻.
16	보리 한 대에 이삭이 둘이다	보리 한 줄기에 이삭이 두 개씩 나듯이 보리가 대풍이라는 뜻.
17	보리가뭄은 꿔다해도 한다	해마다 보리이삭이 패는 시기에는 가뭄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 충북
18	보리농사가 반농사다	일반농민들의 주곡은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농사가 전체 농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
19	보리농사는 세간 밑천이다	보리농사를 많이 하여 보리로 식량을 하고, 비싼 쌀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세간을 장만한다는 뜻.
20	보리누름 가뭄은 꾸어다 해도 한다	보리가 익어갈 때는 거의 정기적으로 가물게 된다는 뜻.
21	보리누름에 설늙은이 얼어죽는다	5월 하순경 보리누름 때에 흔히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가 있다는 뜻.
22	보리는 남쪽에서 베어 올라가고, 벼는 북쪽에서 베어 내려온다	보리의 수확은 남쪽에서 먼저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고, 벼는 반대로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뜻.
23	보리는 망종이 환갑이다	보리는 망종이 지나면 늙어서 누렇게 익는다는 뜻.
24	보리는 세간 밑천이다	보리를 재배하게 되면 보리 수확으로 벼 및 기타 농사재배에 필요한 영농비를 충당하게 되므로 농가소득은 물론 보릿짚도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충북
25	보리는 아랫녘에서 익어 올라오고, 벼는 윗녘에서 익어 내려온다	보리는 해동이 빠른 남쪽 지방에서 먼저 익게 되고, 벼는 추운 북쪽 지방에서 익어 내려온다는 뜻.
26	보리는 입동 전에 묻어줘라	이때부터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동 후에 보리를 파종하면 발아와 생육이 부진하여 동해를 받기 쉽다는 뜻. 충남
27	보리방아에 물 부어 놓으니 시어머니 생각난다	평소에 몹시 밉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8	보리밭과 부모묘는 열심히 밟아야한다	보리밭 밟기는 뿌리의 수와 양을 증가시켜 추위와 가뭄에 견디는 힘이 증대된다는 뜻. 충남, 전북
29	보리밭에 상여가 지나면 보리가 잘 된다	이른봄 보리밭에 서릿발이 생겨서 보리가 들떠 있을 때 상여가 지나가면 뿌리가 착근되므로 농사가 잘 된다는 뜻.
30	보리타작하고 모심으면 수확이 떨어진다	모내기는 보리 수확과 맞물려 있는 까닭에 보리는 베기만 하고, 타작은 모심은 뒤에 하지 않으면 벼 수확이 감소된다는 뜻.
31	보리타작하듯이 맞는다	보리타작할 때 보릿단을 두드리듯이 매를 몹시 맞는다는 뜻.
32	보릿대 풍년은 곡식 흉년이다	보리가 질소질 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밑마디가 웃자라 쓰러짐이 많고 등숙도 불량하여 수량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내기가 적기에 되지 않아 좋은 작황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뜻. 전북
33	봄 가뭄들면 벌보리 생긴다	봄가뭄이 들어 수분이 부족하면 미량원소의 흡수율이 떨어져 보리이삭이 여물지 않는다는 뜻. 충북
34	봄보리는 크거나 작거나 때만 되면 벤다	봄보리는 크게 자란 뒤에 이삭이 패는 것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5월 하순이면 패므로 6월 하순에는 다 베야 한다는 뜻.
35	봄안개 끼면 보리농사 망친다	봄안개는 대기중의 습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습도가 높으면 붉은 곰팡이병, 흰가루병, 녹병 등 병해발생이 많게 된다는 뜻. 충남, 전남, 경북
36	봄에 잔고막이 일면 보리 풍년 든다	봄바다에 잔고막이 많이 번식되었다는 것은 날씨가 계속 따뜻하였음을 말하므로 이런 날씨에서는 보리의 생육도 활발하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뜻.
37	삼복날 보리씨 말리면 깜부기 없어진다	한여름 뙤약볕에 말리면 고온에서 깜부기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뜻. 경북
38	서릿발이 많으면 보리농사 폐농한다	해동이 시작될 무렵 보리밭에 서릿발이 많으면 뿌리가 떠서 말라죽게 되므로, 이런 때는 보리를 밟아서 착근이 되도록 하라는 뜻.
39	서릿발이 많으면 보리농사 폐농한다	추울 때 보리를 심으면 들뜬 흙에 뿌리가 상처를 입거나 건조해서 피해를 받는다는 뜻.
40	세전歲前에 보리밭 밟아 주면 떡을 주고, 세후歲後에 밟아 주면 매를 때린다	보리밭은 얼었을 때 밟아 주는 것은 좋지만, 해동해서 진 보리밭을 밟는 것은 해롭다는 뜻.
41	소만이 지나면 보리가 익어간다	소만이 지나면 보리는 더 자라지 않고 여물기 시작한다는 뜻.
42	송장하고 보리는 깊게 묻어라	보리를 균일하게 깊이 묻어주어야 추위, 가뭄 견딜성이 증대되어 이삭이 균일하게 나온다는 뜻. 전북, 충북
43	송장하고 보리는 깊이 묻어야 한다	보리를 얕게 파종하면 강추위에 얼어죽을 수 있으므로 깊이 갈고 약간 두껍게 덮으라는 뜻.
44	양맥兩麥은 재 한 바리 덜 내고 하루 먼저 갈랬다	대맥과 소맥은 거름을 하고 늦게 심는 것보다는 거름을 하지 않고 빨리 파종하는 것이 낫다는 뜻.
45	없는 놈은 보리가 풍년 들어야 산다	없는 사람의 주식은 쌀이 아니고 보리이기 깨문에 보리가 풍년이 들어야 굶주림을 면하게 된다는 뜻.
46	없는 사람은 보리농사가 반농사다	없는 사람은 보리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잘해야 한다는 듯
47	유월 타작은 애기 젖 먹이면서 한다	6월에 모심기를 끝내고 하는 보리타작은 다소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다는 뜻.
48	이 고개가 높으니 저 고개가 높으니 해도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	어느 재가 높으니 뭐니 해도 다 넘을 수 있지만 보릿고개만은 반 저승고개라 넘기가 어렵다는 뜻.
49	이른 밤은 추워야 보리 풍년 든다	음력 2월 날씨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약간 추워야 보리가 잘 자라게 된다는 뜻.
50	입동 전 가위 보리다	충청도 이북 지방에서는 11월 7일 전에 보리싹이 가위처럼 두 잎이 나야 보리가 잘 된다는 뜻.
51	입동 전 송곳 보리다	영호남 지방에서는 입동 전에 보리싹이 송곳 길이로 자라야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2	입춘에 보리뿌리 3개면 풍년든다	월동시기에 관리를 잘하여 뿌리가 살아있도록 해주면 해빙기 후 재생하여 정상생육이 가능하다는 뜻. 충남, 경북
		53	재 없이 보리농사 지을 생각마라	보리는 질소질 비료도 중요하지만 화학비료가 없었던 때에도 이미 나무재를 이용하여 보리를 재배할 만큼 인산 칼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54	정월 보름에 보리 뿌리를 보면 그해 보리농사를 안다	음력 1월 15일 보리를 캐서 새 뿌리가 생겼으면 풍년이 들고, 안 생겼으면 흉년이 든다는 뜻.
		55	정월 초하룻날 보리싹이 드물어야 풍년이 든다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보리싹이 많이 나게 되면 늦추위에 동사하여 흉년이 들므로, 해동기에 접어든 음력 1월 1일경에 보리싹이 나기 시작해야 풍년이 든다는 뜻.
		56	제집 이밥보다 이웃집 보리밥 맛이 낫다	음식은 자기 집에서 늘 먹는 것보다 남의 집에서 모처럼 먹는 것이 맛있다는 뜻.
		57	죄기떡(보리떡) 반쪽 보고 종달리 따라간다	보리떡 한쪽 얻어먹으려고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리까지 먼질을 간다는 뜻. 제주
		58	쥐구멍에 눈 들어가면 보리농사 흉년된다	맥류 등 월동작물은 겨울에 눈이 온 뒤 그대로 쌓여있으면 보온이 되지만 바람이 불어서 눈이 날려 쥐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라면 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한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 경기
		59	찬 바람에 죽은 보리 폭설에 살아난다	눈이 덮여있으면 보온의 효과뿐 아니라 토양수분 보존이 잘 되어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다는 뜻. 충남
		60	천상갑天上甲에 비가 오면 보리농사가 폐농된다	음력 설 지나 첫 갑일인 천상갑에 찬비가 오면, 땅이 녹았다가 다시 얼게 되면서 보리가 얼어죽게 되므로 흉년이 든다는 뜻.
		61	한 달에 보리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는 집은 망한다	옛날 가난한 집 살림에서 보리 미숫가루나 수제비를 자주 해먹을면 망하듯이 식생활을 분수 넘치게 하면 패가 한다는 뜻. 제주
		62	한로 상강에 겉보리 간다(파종한다)	북부산간지방에서 보리를 안전하게 파종하기 위해서 한로 때 보리를 파종해야한다는 뜻. 경북
		63	해동이 빠르면 보리 흉년 든다	보리 눈에 덮인 채 늦게 해동되어야 잘 자라는데, 일찍 해동이 되면 늦추위에 자라던 새싹이 동사하여 흉년이 든다는 뜻.
작물	밀	1	구일이 지나면 밀을 심고, 입동 전에는 보리를 심는다	음력 9월 9일이 지나면 밀을 심는 것이 적기이고, 입동이 다가오면 보리를 심는 것이 적기라는 뜻.
		2	구일 전 밀이요, 입동 전 보리라	밀은 음력 9월 9일전에 파종해야 하고, 보리는 입동인 11월 7일 이전에 파종해야 한다는 뜻.
		3	밀 파종은 일진에 무자戊字 든 날에는 하지 않는다	일진에 무자가 든 날 밀 파종을 하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날을 피해서 하라는 뜻.
		4	밀은 중양 전에 뿌려야 한다	밀 파종은 음력 9월 9일인 중양 전에 하는 것이 적기라는 뜻.
		5	오뉴월에는 밀서리, 육칠월에는 외서리	음력 5, 6월이 되면 남의 밀밭에서 밀을 베어 서리를 하고, 6, 7월에는 남의 참외밭에서 외를 따서 서리를 한다는 뜻.
작물	조	1	벼룩 많은 해에 조가 풍년 든다	벼룩은 건조한 환경에서 번식이 왕성하듯이, 조도 비교적 건조한 기상조건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뜻.
		2	사월 초하룻날 남풍이 불면 조농사가 풍년이 든다	음력 4월 1일 남풍이 불면 조농사가 풍작이 된다는 말.
		3	조 비비듯 한다	1. 조이삭을 비벼서 탈곡하듯이 무엇을 몹시 비빈다는 뜻. 2. 몹시 조바심을 한다는 뜻.
		4	조 한 섬 가진 놈이 곡식 값만 올린다	조 한 섬 가진 놈이 농간을 부려 곡식 값을 올리듯이 변변치도 않은 것으로 남에게 피해만 끼친다는 뜻.
		5	조밭 맬때는 부부간에 싸워야 날 수가 난다	솎음작업시에 마음이 편치않고 화가 난 경우 분풀이를 작물에 하게 되므로 마구 솎음질을 하여 포기간 거리가 드물게 되어 병충해 발생도 적어 수량이 높아진다는 뜻. 경남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6	조이삭 패듯 한다	조이삭이 탐스럽게 패듯이 무엇이 소담스럽다는 뜻.
		7	조이삭은 팰수록 고개를 숙인다	조이삭은 익어갈수록 더 숙여지듯이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해진다는 뜻.
작물	콩	1	가뭄에 콩 나듯 한다	1. 가뭄에 심은 콩은 싹이 타들어가서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다는 뜻. 2. 무슨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한다는 뜻.
		2	거저 먹기는 논두렁 콩이다	공휴지인 논두렁에 콩을 심으면 가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
		3	꼬투리에 물이 줄줄 흘러야 콩 풍년 든다	콩알이 차는 시기에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 가뭄이 없어야 결실이 잘 된다는 뜻. 충남, 경북
		4	꿩새끼 쳐간 콩밭 거둘 것이 없다	적당한 시비와 북주기, 순지르기를 해서 웃자라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뜻. 충남
		5	남의 농사에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한다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여 귀찮게 한다는 뜻.
		6	남의 밭 콩을 따도 할 말은 있다고	남의 콩을 따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다는 뜻.
		7	뙤약볕에 마른 콩잎 이슬비에 힘이 난다	콩잎은 가뭄에 쉽게 시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 충남
		8	반하생이 지나면 콩 심지 않는다	반하생(7월 2일경)이 지난 뒤에는 장마가 끝나고 건조기로 접어들므로 콩이 싹트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기도 늦기 때문에 심지 말라는 뜻.
		9	북풍이 불면 콩은 춤을 추고 벼는 오그라든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이므로 8월 초순경 북풍이 불면 한랭한 기온이 되는데 이 시기가 벼 추수기이기 때문에 벼에는 좋지 않다는 뜻. 경기
		10	사월 초하룻날 동풍이 불면 콩팥농사가 풍년이 든다	음력 4월 1일 동풍이 부는 것은 콩과 팥이 잘 될 징조라는 뜻.
		11	삼복에 장마지면 콩, 팥이 흉년든다	콩이 자랄 시기에 햇빛을 받지 못하면 콩이 웃자라서 수량이 감소한다는 뜻. 충남
		12	삼월 일진에 묘 자가 세번 들면 콩팥이 풍년든다	음력 3월 일진에 묘 자가 세 번 든 해에는 콩과 팥이 풍년 든다는 뜻.
		13	소의 침이 묻어야 콩 풍년든다	소의 침이 묻어야 적심의 효과가 나타나서 콩 수확이 많다는 뜻.
		14	조팝나무 꽃필 때 콩 심어야 한다	조팝나무가 꽃피는 시기는 5월 초순경으로 콩 파종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뜻. 경기
		15	콩 종아리 묻어주면 된장 걱정없다	북주기를 하면 배수 및 토양통기가 조장되고 새 뿌리가 많이 발생하며 생육도 좋아지고 수량도 증대 된다 충북, 경북
		16	콩꽃 필 대 가물면 콩농사는 반농사다	콩꽃이 필 무렵에 가물게 되면 수정이 불량하여 흉작이 된다는 뜻.
		17	콩꽃에 물방울이 달려야 콩 풍년 든다	콩꽃이 필 무렵에 비가 와서 토양 수분량이 흡족해야 수정이 잘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
		18	콩은 덤불 콩이 되면 폐농한다	콩씨를 드문드문 심지 않고 총총 심게 되면 콩대가 덩굴이 되면서 잎만 무성하고 콩이 열리지 않으므로 흉작이 된다는 뜻.
		19	콩은 밭고기다	콩은 고기처럼 영양가가 많은 곡식이라는 뜻.
작물	팥	1	무진년戊辰年 팥방아 찧듯 한다	1863년 무진년에는 벼농사는 흉년이 들었어도 팥농사는 대풍이 들어서 팥곡식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작물	수수	1	까치가 칠월 열나흗날 울면 수수가 잘 된다	음력 7월 14일 까치가 울게 되면 수수가 풍년이 든다는 뜻.
		2	높새바람에 수숫잎 틀리듯 한다	1. 건조된 높새바람이 불면 수숫잎이 말라서 틀어지므로 흉작이 된다는 뜻. 2. 무슨 일이 순리대로 되지 않고 틀리게 된다는 뜻.
		3	수수농사가 잘 되면 그 집안도 잘 된다	1. 수수농사가 잘 되면 다른 밭 곡식도 잘 되므로 식량이 풍족해진다는 뜻. 2. 수수팥떡은 정을 두텁게 하는 음식이므로 수수농사가 잘 되면 집안도 화목해진다는 뜻.
작물	메밀	1	늦자식 농사가 메밀 농사다	늦게 파종하는 작물이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고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늦은 파종에 적합하다는 뜻. 제주
		2	메물은 말복에 되엎어 놓을 정도 자라면 된다	메밀을 적응성이 높은 작물로 말복까지 키가 어느 정도 자라도 수확이 가능하다는 뜻. 경북
		3	메밀 한 섬 가진 놈이 흉년 들기만 기다린다	가뭄이 심하여 모심기를 못하게 되면 메밀을 대파(代播)하므로 값이 폭등하여 이득을 보듯이, 사소한 이득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고난을 초래한다는 뜻.
		4	메밀도 흉년에는 한몫이다	1. 평소에는 대단찮게 여겼던 메밀도 흉년 들어 곡식이 귀할 때는 식량으로 소중히 쓰인다는 뜻. 2. 하찮은 물건도 귀해지면 제 값을 받는다는 뜻.
		5	메밀은 토심土深이 얕은 땅에서도 잘 된다	메밀은 뿌리가 짧기 때문에 토심이 얕은 땅에서도 잘 된다는 뜻.
		6	메밀은 흉년 곡식이다	가뭄이 들어 늦모도 못 심게 되면 일조일이 짧아서 다른 곡식은 못 심어도 메밀은 심을 수 있으므로 흉년 드는 해에 많이 심게 된다는 뜻.
		7	양봉에는 메밀꽃 꿀이 막꿀이다	메밀꽃이 가장 늦게 피기 때문에 양봉에서는 마지막 꿀에 해당된다는 뜻.
		8	천년 피씨 만년 메밀씨	피나 메밀은 여러해 묵은 것이라도 발아가 잘된다는 뜻. 경남
작물	참깨, 들깨	1	가문 해 참깨는 풍년 든다	참깨는 다습한 땅에서는 잘 안 되어도 가뭄 드는 해에는 잘 된다는 뜻.
		2	고추밭에 참깨 심어라	참깨도 고추와 같이 병충해 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뜻. 전남
		3	깨는 불을 담아 부어야 풍년이 든다	깨농사는 날씨가 덥고 약간 가물어야 풍작이 된다는 뜻.
		4	꽃 필 때 가물면 참깨는 풍년이고 콩은 흉년이다	콩은 콩알이 들 때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가물면 콩은 흉작이된다는 뜻. 영남
		5	들깨 모는 석달 열흘 왕 가뭄에도 침 세 번만 뱉고 심어도 산다	들깨는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해도 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뜻. 강원
		6	뻐꾸기 우는 소리 들으면 참깨 심지 마라	북부지역의 뻐꾸기 우는 소리는 6월 중순부터이므로 이때 참깨를 파종하면 파종시기가 늦어서 생육 기간이 짧아져 수량이 크게 감소된다는 뜻. 강원
		7	뻐꾹새 울면 참깨 심어야 한다	남부지방에서 뻐꾸기가 우는 시기는 6월 초순이므로 이모작 참깨 파종적기와 일치한다는 뜻. 경남
		8	뻐꾹새 울면 참깨 파종이 늦다	참깨 파종은 뻐꾹새가 울기 시작하는 6월 초순 이전, 즉 5월 중에 하라는 뜻.
		9	올참깨는 죽어도 부리뒤끝 참깨는 산다	이모작 참깨는 기상재해를 피해가므로 안전하다는 뜻. 경남
		10	참깨는 고팡(곳간)에 들어와야 내 것이다	참깨는 기상재해와 병충해에 민감하므로 타 작물에 비하여 안전재배가 어렵다는 뜻. 제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작물	고구마	1	고구마는 뿌리쪽이 북쪽으로 향하게 심어라	고구마는 습성상 뿌리는 해를 멀리하는 경향이고 줄기는 해를 좋아하는 쪽으로 자라는 향일성이라는 뜻. 충남
		2	도리깨 소리 들리면 고구마 싹이 튼다	보리수확해서 정리한 다음 고구마를 밭에 심는다는 뜻. 전북
		3	새땅 고구마가 맛이 좋다	고구마를 이어짓기하면 덩이뿌리 형성이 불량할 뿐 아니라 단맛도 떨어지므로 각종 미량요소와 유기물이 풍부한 새 땅에서 재배하여야 맛이 좋다는 뜻.
		4	아낙네 말 많으면 고구마 밑 안든다	잡초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고구마 밭에서 아낙네들이 김매기할 때 작업은 등한시하고 말만 많으니 정밀 작업이 이루어질리가 없다는 뜻. 전남
		5	하지 안에 심은 고구마는 침만 발라도 산다	고구마는 5~6월의 건조한 토양건조에서도 발근력이 강하므로 적기에 정식을 실시하면 수량이 높아진다는 뜻. 충남
작물	옥수수	1	강냉이 알이 잘 배기면 나락 여물이 좋다	옥수수는 적기에 비가 오고 7, 8월에 온도가 높으면 추수가 잘되어서 밭농사와 논농사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척도가 된다는 뜻. 경북
작물	녹두	1	녹두밭은 웃머리다	녹두는 두류작물이라도 토질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잘되기 때문에 척박한 곳을 골라 심어도 잘 된다는 뜻. 전북
가축	소	1	검은 풀 먹이면 소 죽는다	검은 풀은 질소 성분이 과다하므로 이런 풀을 먹이면 체내에 질산염이 축적되어 중독을 일으켜 소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인산칼슘이 있는 사료가 요구된다는 뜻.
		2	검 은소가 진상 간다	쇠고기는 검은 소가 맛이 좋다 하여 1750년 전라도 가파도에 검은 소를 사육시켜 진상케 한 데서 유래된 말.
		3	겨울 소 값은 떨어지고, 봄 소 값은 오른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소를 부리지 않으므로 값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소를 많이 부리므로 값이 오르게 된다는 뜻.
		4	계집아이도 외양간 치는 것은 가르쳐 시집 보내랬다	농촌 처녀는 소 먹이는 것도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뜻.
		5	농우 팔아 세금 내고, 집 헐어 불 땐다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여 농촌이 극도로 피폐해져 농민들이 이농하게 된다는 뜻.
		6	누른 소는 힘이 세고, 검은 소는 고기맛이 좋다	검은 소에 비하여 누른 소는 힘이 세고, 검은 소는 고기 맛이 좋다는 뜻.
		7	동상갑冬上甲에 비가 오면 우마가 동사한다	동상갑인 12월 하순경에 비가 오면 기온이 급강하하여 가축들이 동사하게 된다는 뜻.
		8	뜨는 소가 부리기는 좋다	사람을 뜨는 소가 일은 잘하듯이 사람도 성미가 사나운 사람이 일은 박력 있게 잘 한다는 뜻.
		9	먹성 좋은 소가 부리기도 좋다	먹성이 좋은 소라야 잘 먹어 살도 찌고 힘도 좋아서 부리기에 좋다는 뜻.
		10	밭담 터지면 소 든다	밭 주위에 쌓은 돌담이 무너지면 마소가 들어가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뜻. 제주
		11	사릅 송아지는 이도 들어보지 말랬다	쓸모없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상관을 하지 말라는 뜻. * 사릅 송아지: 세 살 된 송아지
		12	사지가 흰 소를 먹이면 주인이 해롭다	네 발이 흰 소를 먹이면 주인을 해치게 된다는 뜻.
		13	살림이 거덜나게 되면 봄에 소 판다	폐가하는 농가는 소를 한창 써야 할 봄철에 내가 팔게 된다는 뜻.
		14	새 풀에 소 살찐다	겨울철에 건초만 먹을 때보다 봄철에 새 풀을 먹으면 비타민과 영양분이 많고 위의 기능도 활발하여 살이 찐다는 뜻.
		15	새해 들어 첫 소날[丑日] 연자방아를 찧으면 가축이 안된다	새해 첫 소날에는 소도 편히 지내도록 하라는 뜻. 제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6	서 푼짜리 소는 이빨도 들어 보지 말랬다	너무 값이 싼 물건은 보지도 말라는 뜻.
17	소 머리에는 방울을 달아 주랬다	소 머리에 방울을 달아 주면 도둑 맞을 염려가 없다는 뜻.
18	소 못 본 사람은 송아지도 크다고 한다	1. 문견이 없는 사람은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 2.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이라는 뜻.
19	소 믿고는 살아도 종 믿고는 못 산다	소는 둔해도 믿음성은 있지만 종은 아첨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없듯이, 아첨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뜻.
20	소 병 예방에는 외양간에 여호여룡如虎如龍이라고 부적을 써붙인다	소나 말에게 병이 유행할 때는, 외양간에 범과 같고 용과 같다는 부적을 써붙이면 병이 무서워서 침범하지 못한다는 뜻.
21	소 병 예방에는 호랑이 뼈를 목에 걸어 준다	소나 말에게 병이 유행할 때는, 호랑이 뼈를 목에 걸어 주면 병이 무서워서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
22	소 새끼 낳는 데 상제가 보면 부정탄다	경사스러운 일에 상제가 참견하면 부정탄다는 뜻.
23	소 젖은 붉어야 새끼를 잘 낳는다	생식기관이 발달된 소는 유방도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런 소는 새끼를 잘 낳는다는 뜻.
24	소 주둥이는 넓죽해야 먹성이 좋다	소 주둥이가 넓죽하면 먹성이 좋아서 살이 찐다는 뜻.
25	소가 굽으로 흙을 뿌리면 비가 온다	소가 앞발로 흙을 파서 뿌리는 것은 날궂이를 하는 짓이라는 뜻.
26	소가 길마 무서워 드러누울까	소가 길마질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 무서워하지 않듯이, 사람도 늘 하는 일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
27	소가 새끼 낳으면 바로 송아지 덧굽을 떼어 천에 싸서 어미소 왼뿔에 걸어준다	갓난 송아지 굽에 붙은 것을 떼어 어미소 왼뿔에 걸어 주면 송아지가 어미를 안 떨어진다는 데서 유래된 말.
28	소가 새끼 낳은 지 사흘 안에는 외양간에 타인은 못 들어가게 한다	어미소와 송아지가 놀랄 수도 있고 부정을 탈 수도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
29	소가 새끼를 낳으면 왼새끼를 외양간에 쳐서 부정을 막는다	소도 새끼를 낳으면 외양간에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아 주어야 소아지가 잘 큰다는 뜻.
30	소가 새끼를 낳은 지 한 달 이내에는 송장을 본 이나 상주는 외양간 출입을 금지시킨다	소가 새끼를 낳은지 1개월 이내에는 송장을 본 사람이나 상주는 외양간에 가지 말라는 말.
31	소는 검은 소를 기르랬다	검정소는 성미가 순하여 기르기가 쉬울 뿐 아니라 고기맛이 유별나게 좋다는 뜻.
32	소는 농가 밑천이다	농가에서 소는 땅 다음 가는 큰 밑천이라는 뜻.
33	소는 농가에서 땅 다음 가는 재산이다	예전에는 농가의 재산목록에서 1호가 토지이고, 2호가 소였다는 뜻.
34	소는 농가의 조상이다	소는 농가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조상 모시듯이 잘 사육하라는 뜻.
35	소는 눕는 것을 좋아하고, 말은 서는 것을 좋아한다	소의 습성은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말은 반대로 서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
36	소는 믿고 살아도 종은 믿고 못산다	1. 소는 미련하여도 믿음성은 있다는 뜻. 2. 예전에 종은 주인에게 아첨을 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없다는 뜻.
37	소는 바깥주인을 따르고, 개는 안주인을 따른다	소먹이는 바깥주인이 하기 때문에 소는 바깥주인을 따르게 마련이고, 개밥은 안주인이 주기 때문에 개는 안주인을 따르게 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8	소는 입이 넓죽해야 살이 찐다	입이 넓죽하게 생긴 소가 먹성이 좋아서 살도 찌고 부리기도 좋다는 뜻.
39	소먹이가 힘들어도 괭이질하기보다는 낫다	소를 기르기가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괭이로 논밭을 파는 것보다 소로 가는 것이 낫다는 뜻.
40	소와 돼지를 한우리에서 기르면 소는 마르고 돼지는 살찐다	소와 돼지를 한우리에서 함께 기르면 소는 마르고 돼지는 살이 찌게 되므로, 소와 돼지는 우리를 각각 해서 길러야 한다는 뜻.
41	소와 염소를 함께 기르면 소가 살찌지 않는다	염소의 노린내로 인하여 소가 마르게 된다는 뜻.
42	소의 귀는 편평해야 성미가 순하고, 돼지의 귀는 아래로 처져야 성미가 순하다	소의 귀는 편평하게 생긴 소가 뜨지 않고 순하며, 돼지의 귀는 아래로 처진 것이 성미가 순하여 기르기가 편하다는 뜻.
43	송아지 낳을 때 곡식 내가지 않는다	송아지 낳을 때 곡식을 외부로 내가면 부정을 탄다는 뜻.
44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코방아 찧는다	연거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
45	쇠병이 유행할 때는 박하, 장뇌, 사향 등을 천에 써서 소머리에 달아준다	쇠병 예방에는 박하, 장뇌, 사향 등을 천에 싸서 소의 머리에 달아두면 소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
46	쇠죽을 가는 나뭇가지로 저으면 소가 마른다	쇠죽을 끓일 때 가는 나뭇가지로 저으면 소가 가는 나뭇가지처럼 마른다는 뜻.
47	아버지 없이는 농사를 지어도 소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	농업이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소로 논밭을 갈고 비료, 곡식류, 땔나무 등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
48	아침 꼴에 소 살찌고, 농사 잘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쇠먹이도 베고 논밭도 보살피면 소는 살찌고 농사도 잘 된다는 뜻.
49	암소는 교미시킨 뒤 바로 냇물을 건너게 하면 수태되지 않는다	암소를 교미시킨 후 바로 냇물을 건너게 하면 배가 냉각되므로 수태하지 않는다는 말.
50	앞 이마에 별박이 소는 주인을 해친다	앞 이마에 흰점이 박힌 소는 주인을 해친다는 뜻. 제주
51	얼룩소를 기르면 화를 당한다	얼룩소는 주인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뜻. 제주
52	여름 소는 파는 사람이 이롭고, 겨울 소는 잡는 사람이 이롭다	여름 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유리하고, 겨울 소는 값이 싸기 때문에 잡아서 고기로 파는 사람이 이롭다는 말.
53	유두에 소 타지 말고, 추석에 소 타랬다	옛날 농사가 잘 된집은 명절에 머슴을 소에 태워 부락사람들이 축하하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유두 명절의 벼농사를 보고 소를 태우는 것보다는 추석 때 수확기를 앞둔 농사 작황을 보고 소를 태우는 것이 정확하다는 뜻.
54	정월 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찰밥과 아홉 가지 채소를 먹이고 외양간 밖을 끌고 다니면 그해 소가 무병하다	음력 1월 15일 아침에 소에게 찰밥과 각종 채소 아홉 가지를 먹이고 외양간 밖으로 끌고 다니면 그해 쇠병을 예방하게 된다는 뜻.
55	정월 열나흗날 해 뜨기 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둥근 고리를 만들어 소의 머리에 걸어 주면 물것이 덤비지 않는다	음력 1월 14일 해가 뜨기 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쇠뿔에 걸어주면, 그해 소에게 물것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
56	정월 일진에 축자丑字 든 날 쇠뿔에 붉은 물감을 칠해 주면 무병하다	음력 1월 일진에 축자가 든 날 쇠뿔에 붉은 물감을 칠해 주면 그 해 소의 병을 예방하게 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7	정월 초하루부터 계산해서 첫번째 축일이 짝수가 되면 소 값이 떨어지고, 홀수가 되면 소 값이 올라간다	음력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첫번째 든 축일이 짝수일 경우에는 그 해 소 값이 헐하고, 홀수일 경우에는 소 값이 비싸다는 뜻.
		58	파리한 소에게 파리 끓는다	소가 병이 들어 파리해지면 파리떼가 몰려들 듯이 사람도 병들어 누워 있으면 물 것이 더 덤빈다는 뜻.
		59	흉년이 들면 소 값이 내린다	흉년이 들면 돈도 귀해지고 소도 부릴 일이 적어지므로 값이 떨어진다는 뜻.
가축	말	1	말 병 예방에는 마구간에 여호여룡如虎如龍이라는 부적을 써붙인다	말 병을 예방하려면 입춘날 마구간 기둥에 여호여룡이라고 부적을 써붙이라는 뜻.
		2	말 병 예방에는 호랑이 뼈를 목에 걸어 준다	말 병이 유행할 때는 호랑이 뼈를 목에 걸어서 예방한다는 뜻.
		3	말은 끌어야 잘 가고 소는 몰아야 잘 간다	말이나 소도 그 성질을 잘 이용해서 부리듯이, 사람도 그 개성을 잘 살려서 일을 시켜야 성과가 있다는 뜻.
		4	말은 백마를 기르고, 소는 검은 소를 기르랬다	말은 백마가 돋보이고, 소는 검은 것이 맛있다는 뜻.
		5	말은 세워서 기른다	말이 누워 있으면 병이 든 것이므로 서 있는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
		6	말을 빌려도 꼴 값은 말 빌린 사람이 낸다	남의 것을 빌려서 쓰는 동안의 비용은 빌린 사람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 뜻.
		7	말이 새끼 낳은 지 이레 안에 간장을 남에게 주면 어미 젖이 마른다	말이 새끼 낳은 지 이레 안에 간장을 남에게 주면 부정을 타므로 삼가라는 뜻.
		8	사나운 말에는 무거운 길마 지운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뜻.
가축	돼지	1	돼지 귀가 크면 성질이 유순하다	귀가 크고 아래로 늘어지면 성질이 순한 돼지라는 뜻.
		2	돼지 귀는 아래로 처져야 성미가 순하고, 소의 귀는 펀펀해야 성미가 순하다	돼지 귀는 아래로 처져야 성미가 순해서 기르기가 좋고, 소의 귀는 넓적하고 펀펀해야 성미가 순해서 부리기가 좋다는 뜻.
		3	돼지 귀는 아래로 처져야 성미가 순하다	돼지 귀는 아래로 축 쳐진 것이 성미가 순해서 기르기가 좋다는 뜻.
		4	돼지 꼬리를 잡았을 때 큰 소리를 칠수록 건강하다	돼지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돼지 꼬리를 잡았을 때 큰 소리를 많이 지를수록 건강한 돼지라는 뜻.
		5	돼지 발이 짧으면 다산한다	발이 짧은 암퇘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
		6	돼지 병에는 쑥으로 이마에 뜸질을 하면 낫는다	돼지가 병들었을 때는 이마에 쑥뜸질을 해주면 신통하게 잘 낫는다는 뜻.
		7	돼지 사오는 날은 길일을 택해야 한다	돼지를 사올 때는 좋은 날을 선택해서 사와야 잘 자란다는 뜻.
		8	돼지 새끼 낳고 사흘 안에 상제가 보면 새끼를 죽인다	돼지 새끼를 낳은 지 3일 안에 상제가 보면 부정을 타서 새끼를 물어죽이게 되므로 상제는 조심하라는 뜻.
		9	돼지 새끼 낳은 지 사흘 안에 주인이 화재를 보고 오면 어미돼지가 새끼를 물어죽인다	돼지 새끼도 낳은 지 3일 안에는 주인이 부정하거나 불길한 것을 보면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죽이므로 삼가라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0	돼지 새끼 낳은 지 열흘 안에 우리 안에 깐 짚을 갈아 주면 새끼가 병에 걸린다	돼지 새끼를 낳은 지 10일 이내에는 우리 청소를 하지 말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뜻.
11	돼지 새끼 낳은 지 이레 안에 주인집에서 고기를 먹으면 새끼가 잘 자라지 않는다	돼지 새끼 낳은 지 7일 이내에 주인이 고기류를 먹으면 돼지 새끼가 부정을 타서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뜻.
12	돼지 새끼 낳을 때 검정옷을 입고 보면 부정탄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에는 평소에 입는 흰옷을 입어야지 검정옷을 입어 어미돼지를 자극시키면 해롭다는 뜻.
13	돼지 새끼 낳을 때 상에 나무 태운 잿물을 떠 놓으면 순산한다	돼지 새끼를 낳을 때 순산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상에다 나무를 태워 만든 잿물을 떠 놓으면 순산한다는 뜻.
14	돼지 새끼 낳을 때 여러 사람이 보면 새끼를 물어죽인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
15	돼지 유방 사이가 좁으면 젖이 적다	암퇘지의 젖과 젖 사이가 넓을수록 젖이 많아서 새끼를 잘 기른다는 뜻.
16	돼지 주둥이가 뾰족하면 살이 안 찐다	돼지 주둥이가 뾰족하면 먹성이 좋지 못하여 살이 안 찐다는 뜻.
17	돼지 주둥이는 뭉뚝해야 살이 잘 찐다	돼지 주둥이는 짧고 뭉뚝해야 먹성이 좋아서 살이 잘 찐다는 뜻.
18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수퇘지를 함께 넣어두면 새끼를 물어죽인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는, 수퇘지를 다른 우리로 옮겨 조용한 분위기에서 새끼를 낳을 있도록 하라는 뜻.
19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짚북더기를 넣어 주면 난산을 한다	돼지우리에 짚북더기를 넣을 때는 새끼를 낳기 전에 넣어 주어야지 새끼를 낳을 때 넣어 주면 난산을 하게 된다는 뜻.
20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나 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 앞에 냉수를 떠 놓는다	돼지가 새끼를 낳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깨끗한 냉수를 상에 받쳐서 우리 앞에 놓아두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뜻.
21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돼지같이 많이 먹고 소같이 일을 많이 해야한다는 뜻.
22	돼지는 귀가 크고 꼬리가 길면 장생한다	돼지는 귀가 크고 꼬리가 긴 것이 무병하고 잘 자란다는 뜻.
23	돼지는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털이 긴 것이 좋다	돼지는 큰 귀가 아래로 늘어진데다 털이 긴 것이 잘 자란다는 뜻.
24	돼지는 먹성이 좋아야 살찐다	돼지는 먹성이 좋아서 아무 사료나 잘 먹으면 살이 찐다는 뜻.
25	돼지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	돼지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으므로 짜게 먹이지 말라는 뜻.
26	돼지는 쉰밥을 먹여야 살찐다	돼지는 약간 쉰밥을 좋아한다는 뜻.
27	돼지를 교미시키기 전에 인분 묻은 짚을 우리에 넣어주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	돼지가 발정하였을 때는 돼지우리에 인분이 묻은 짚을 넣어 준 뒤에 교미를 시키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
28	돼지를 돌 많은 곳에 방목하면 죽기 쉽다	돼지를 돌 많은 곳에 놓아 기르면 돌독으로 죽기 쉽다는 뜻.
29	돼지를 돌 위에 두면 죽는다	돼지를 돌 위에 두면 돌독으로 잘 자란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0	돼지를 사 올 고사용·대사용·제수용으로 정하고 산 것을 그 용도를 바꾸어 쓰면 불길하다	돼지를 기를 때 고사용은 고사에 쓰고, 대사용은 대사에 쓰고, 제수용은 제수에 써야지 만일 용도를 바꾸면 불길하다는 뜻.
31	돼지를 사들이는 날은 진일辰日이 길하다	돼지는 일진이 진일인 날 사오면 잘 자란다는 뜻.
32	돼지를 오래 길러서 늙히면 불길하다	돼지는 새끼를 잘 낳는 돼지라도 5년 이상 기르면 불길하다는 뜻.
33	돼지를 '오래오래' 부르는 것은 5개월 안에 새끼를 낳으라는 뜻이다	돼지를 '오래오래' 부르는 것은 다섯 달 이내에 새끼를 낳으라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는 뜻.
34	돼지를 혼례·제사·고사 등에 잡는 것은 이 년 기른 것이 좋다	재래종 돼지 가운데 혼례용·제사용·고사용 등으로 쓰는 것은 2년을 기른 것이 가장 적당하는 뜻.
35	돼지에게 뱀을 먹이면 빨리 자란다	돼지가 뱀을 먹으면 빨리 자라고 살찐다는 뜻.
36	돼지에게 산나물을 먹이면 살찐다	돼지 사료로는 산나물이 좋다는 뜻.
37	돼지에게 참외 껍질을 먹이면 기름기가 없어진다	참외 껍질을 돼지에게 먹이면 기름기가 적어져 맛이 좋아진다는 뜻.
38	돼지와 소를 한우리에 기르면 돼지는 살이 찌고, 소는 마른다	돼지와 소를 한우리에 넣고 기르면 돼지가 소먹이를 빼앗아 먹으므로 돼지는 살이 찌고, 소는 마르게 된다는 뜻.
39	돼지우리 문은 북쪽으로 내야 잘 자란다	돼지우리는 남향으로 짓되 문은 북쪽으로 내는 것이 길하다는 뜻.
40	돼지우리 주위를 돌로 쌓으면 돼지가 병에 걸린다	돼지는 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돌을 쌓아두면 해롭다는 뜻.
41	돼지우리 터에 소 외양간을 지으면 길하다	돼지우리 터에 소 외양간을 지으면 소가 잘 자란다는 뜻.
42	돼지우리 터에 집을 지으면 불상사가 생긴다	돼지우리 터에 살림집을 지으면 불길하다는 뜻.
43	돼지우리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	돼지우리는 습기가 있어야지 건조하면 돼지에게 병이 생긴다는 뜻.
44	돼지우리는 살림집 동쪽에 짓는 것이 좋다	돼지우리의 위치는 살림집 동쪽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
45	돼지우리는 습기가 있어야 새끼를 많이 낳는다	돼지우리는 항상 습기가 있어야지 건조하면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뜻.
46	돼지우리는 진방辰方으로 하면 새끼를 잘 낳는다	돼지우리는 진방(동동남방)에 짓는 것이 양돈에 가장 좋다는 뜻.
47	돼지우리를 남향으로 지으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	돼지우리는 남향으로 지어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잘 자라게 된다는 뜻.
48	돼지우리를 닭장 밑에 지으면 돼지 번식이 잘 된다	돼지우리와 닭장을 아래위층으로 만들면 돼지도 잘 자라고 닭도 잘 된다는 뜻.
49	돼지우리를 돌로 쌓아 만들면 돼지가 잘 자라지 못한다	돼지는 돌을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돌로 우리를 지으면 해롭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0	돼지우리를 집 뒤에 지으면 돼지가 잘 자라지 못한다	돼지우리의 위치는 살림집 옆쪽으로 짓는 것이 길하므로 뒤쪽으로는 짓지 말라는 뜻.
51	돼지우리에 동풍이 잘 통하면 돼지가 살찐다	돼지우리는 통풍이 잘 되도록 지어 주어야 한다는 뜻.
52	돼지우리에 침을 뱉으면 돼지가 마른다	돼지우리는 더럽더라도 침을 뱉으면 돼지가 살이 안 찐다는 뜻.
53	돼지우리에는 입춘날 요동대길遼東大吉이라고 써붙이면 무병하고 잘 큰다	입춘날(양력 2월 3일경) 돼지우리에 요동대길이라고 써붙이면 양돈이 잘 된다는 뜻.
54	마른 돼지는 잡기 전에 메밀을 먹이면 살이 찐다	돼지를 빨리 살찌게 하려면 메밀을 먹이라는 뜻.
55	마른 돼지는 쥐를 먹이면 살찐다	살이 안 찌고 마른 돼지는 쥐를 잡아먹이면 살이 찐다는 뜻.
56	밤나무로 돼지우리를 지으면 돼지가 마른다	돼지우리를 밤나무로 지으면 돼지가 살이 안 찌므로 이에 유의하하는 뜻.
57	뱀띠가 돼지를 기르면 죽기 쉽다	뱀과 돼지는 상극이므로 뱀띠인 사람은 양돈이 잘 안 된다는 뜻.
58	새끼 밴 돼지가 북더기를 우리 안에 쌓으면 새끼 낳을 징조다	새끼 밴 돼지가 북더기를 우리 안으로 물어다 놓는 것은 새끼 낳을 준비라는 뜻.
59	새끼돼지는 키워서 잡으랬다	1. 돼지 새끼는 키워야 소득이 있다는 뜻. 2. 바둑에서 조그마한 것은 키워서 잡으라는 뜻.
60	섣날 납일臘日은 잡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병 예방이 된다	납일(동지 지난 셋째 술일戌日)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다음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
61	수퇘지 불알은 생후 3, 4개월이면 까야 한다	옛날에는 종자용 수퇘지를 제외하고는 생후 3, 4개월 이내에 불알을 까서 살을 찌게 하였다는 뜻.
62	암퇘지가 발정할 때 메밀을 먹이면 발정이 사라진다	암퇘지가 발정한 무렵에 메밀을 먹이면 발정이 중지되므로 메밀을 먹이지 말라는 뜻.
63	암퇘지가 발정했을 때 콩을 먹이면 발정이 정지된다	콩은 암퇘지의 발정을 정지시키므로 발정기에는 먹이지 말라는 뜻.
64	암퇘지를 교미시킬 때 도끼를 우리에 넣어두면 수퇘지를 많이 낳는다	돼지를 교미시킬 때 암퇘지 우리에 도끼를 두면 수컷을 많이 낳으므로, 우리 안에 도끼를 두지 말라는 뜻.
65	암퇘지를 교미시킬 때 주먹밥을 주면 먹은 덩이 수대로 새끼를 낳는다	암퇘지를 교미시킬 때 주먹밥을 주면 그 주먹밥을 먹은 수대로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
66	어미돼지 젖꼭지 수보다 새끼가 많으면 그 나머지 새끼는 죽는다	암퇘지 젖꼭지 수보다 새끼 수가 많을 때는 사람이 교대로 새끼에게 젖을 먹여 주지 않으면 새끼 중에 약한 것은 죽게 된다는 뜻.
67	어미돼지에게 돼지 태를 먹이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	암퇘지가 새끼를 낳은 뒤에 그 태를 먹이면 다음에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가축	닭	1	까기 전 병아리는 세지 말랬다	1. 병아리는 20일이면 부화하는데, 중간에 자주 들여다보면 어미닭을 불안하게 만들어 부화에 지장을 준다는 뜻. 2. 무슨 일이나 성사되기 전에는 조바심하지 말고 참고 있으라는 뜻.
		2	닭 병에는 옻나무를 닭장 안에 걸어주면 낫는다	닭이 병들었을 때는 옻나무를 베어 닭장 안에 걸어두면 낫는다는 뜻.
		3	닭은 삼 년 기르지 않고, 개는 오 년 기르지 않는다	닭은 3년 이상 기르면 주인이 해롭고, 개는 5년 이상 기르면 주인이 해롭다는 뜻.
		4	닭은 삼 년 기르지 않는다	닭은 3년 이상 기르면 고기가 질겨서 맛도 없지만 불길하기도 하다는 뜻.
		5	닭은 삼 년 이상 기르면 주인을 해친다	닭을 3년 이상 기르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뜻.
		6	닭이 닭장에 늦게 오르면 풍년이 든다	풍년이 들면 사람도 일이 많아져서 집으로 늦게 돌아오듯이, 닭이 닭장에 늦게 오르는 것은 풍년이 들 징도라는 뜻.
		7	닭이 닭장에 일찍 오르면 흉년 든다	닭이 먹이가 적어서 닭장에 일찍 오르는 것이므로 이는 흉년이 들 징조라는 뜻.
		8	닭이 동짓날 새벽에 열 번 이상 울면 풍년 들고, 열 번 이하로 울면 흉년 든다	동짓날 새벽 닭 울음 소리의 다소로 풍흉을 점치는 법.
		9	닭이 해지기 전에 닭장에 오르면 쌀값이 오른다	닭이 닭장에 일찍 오르면 흉년이 들므로 쌀금도 오르게 된다는 뜻.
		10	방 안에서 닭을 잡으면 해롭다	아무리 추워도 방 안에서 닭을 잡으면 해로우니 밖에서 잡으라는 뜻.
		11	한식날 솔개 뜨면 닭농사 망친다	한식(4월 5일경) 무렵부터 솔개가 설치면 햇병아리를 일찍부터 해치므로 닭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
가축	양잠	1	누에가 진 뽑아내듯 한다	누에가 입에서 실을 토하여 고치를 짓듯이 무엇을 계속 뽑아낸다는 뜻.
		2	누에 부정타듯 한다	누에는 부정을 잘 타기 때문에 정결하게 취급하라는 뜻.
		3	누에는 고치를 짓고 스스로 자신을 묶어 놓는다[吐絲自縛]	자기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여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
		4	누에는 하늘에서 온 것이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누에는 정성을 들여 길러야 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취급하라는 뜻.
		5	누에를 섶에 올리고, 떡 해 놓고 빌면 좋은 고치를 얻는다	누에를 정성들여 길러서 섶에 올린 다음에도 정성을 들이는 뜻.에서 고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
		6	누에를 섶에 올린 뒤에 여러 사람이 보면 집을 잘 안 짓는다	누에가 고치를 지을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어야 하므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뜻.
		7	누에를 섶에 올릴 때 지동地動이나 천동天動이 있으면 놀라서 집을 제대로 못 짓는다	누에게 섶에 올라 고치를 지어야 할 때 심한 진동이나 고성으로 인한 공해를 받으면 고치를 단단하게 짓지 못한다는 뜻.
		8	더러운 것을 보고 누에를 보면 누에가 병든다	누에는 깨끗이 정성을 들여 키워야 하는데, 만일 부정한 것을 보고 누에를 손질하면 병이 든다는 뜻.
		9	뱀을 본 사람이 누에를 보면 누에가 병든다	징그러운 뱀을 보고 누에를 보면 누에가 부정을 타서 병에 걸리니 조심하라는 뜻.
		10	봄 누에 깨는 날은 무진戊辰·임오壬午·갑오甲午·을사乙巳·정사丁巳·무오戊午가 길일이다	봄 누에의 알 깨는 날을 길일인 무진·임오·갑오·을사·정사·무오 중에서 택하면 잘 된다는 뜻.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1	봄 누에를 칠 때 돈거래를 하면 고치를 단단히 짓지 않는다	봄 누에를 치는 동안에 고치 예매를 하면 누에가 고치를 단단하게 짓지 않고 함부로 짓는다는 뜻.
		12	뽕내 맡은 누에 같다	누에가 뽕 먹을 시간이 되면 머리를 높이 들고 내두르듯이 굶주린 사람이 몹시 배고파 한다는 뜻.
		13	뽕잎 한 근이 누에고치 열 근이다	누에고치를 많이 수확하려면 먼저 뽕농사를 잘해야 한다는 뜻.
		14	사월 초닷새날 가물면 봄 누에가 잘 안 된다	음력 4월 5일에는 비가 와야 뽕잎이 잘 펴서 봄 누에가 잘 된다는 뜻.
		15	삼월 초사흗날 비가 오면 양잠이 잘 된다	음력 3월 3일에 비가 오면 그해 봄 고치가 잘 된다는 뜻.
		16	송장 본 사람이 누에를 보면 누에가 죽는다	송장 본 사람이 누에를 보면 부정을 타서 누에가 죽는다는 말.
		17	애기 누에 첫잠은 어둡게 재워야 한다	누에가 첫잠을 잘 때는 문을 가려서 어둡게 해 주어야 잘 자란다는 뜻.
		18	애기 누에가 잠잘 때 빨래를 하면 애기 누에가 병든다	누에가 잠을 잘 때 빨래나 다듬이질 소리를 내서 소란스럽게 하면, 누에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병이 생겨 누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
		19	일 년에 누에를 두 번 치면 잘 안 된다	양잠에는 춘잠과 추잠이 있는데, 춘잠을 하게 되면 추잠은 잘 안 된다는 뜻.
		20	정월 초하룻날 일진에 병자丙字가 들면 봄 누에는 잘 안 된다	음력 1월 1일 일진에 병자가 들면 누에가 병이 들어 잘 안 된다는 뜻.
가축	목축	1	새끼 많이[아홉]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새끼 많은 소는 일에서 벗어나 편히 쉴 사이가 없다는 뜻으로, 자식이 많은 부모는 자식을 먹여 키우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고생만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축	축산	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평소에 아무 대비가 없었다가 실패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깨달아 대비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로 이미 농사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
		2	감꽃 필 때 양반 죽고 냉이 필 때 소 죽는다	냉이꽃 필때는 이른 봄으로 새봄에 돋아날 풀만 믿고 월동사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소를 죽인다는 경고의 뜻. 경북, 부산
		3	검은 풀 먹이면 소 죽는다	풀 색이 검다는 것은 실소성분이 많다는 뜻이므로 이 풀을 많이 먹은 소는 병이 발생하기 쉬워 죽을 위험이 많다는 뜻. 충남
		4	늙은 소도 콩깎지 실러 갈 때는 잰다	농사도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일일수록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히 한다는 뜻. 충남
		5	도튼 왓디 쇠든다(밭 담장 허물어진 곳으로 소가 들어간다)	제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소를 방목하는데 농작물(콩, 고구마, 조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가 한 번 밭에 들어가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밭에 담장을 잘 정비하라는 뜻으로 사람의 몸가짐과 집안 정리 등을 잘 하라는 뜻으로 통용된다는 뜻. 제주
		6	돼지 종부는 오동지에 해야 한다	이 시기가 새끼돼지의 육성률도 좋고 사양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 충남
		7	며느리는 소 잘 되는 집안에서 얻어라	소의의 사양관리를 잘하여 송아지를 잘 내는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감이라면 역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일 것이므로 소 잘되는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면 틀립없다는 뜻. 충남
		8	새 풀에 소 살찐다	봄철에 새로 돋아나는 풀은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산야의 푸른 풀을 충분이 먹이면 영양가가 높아 털갈이도 하게 되고 살도 찌게 된다는 뜻.
		9	소 젖이 붉으면 새끼 잘 낳는다	젖이 붉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으로 젖이 풍부해야 송아지도 잘 키울 수 있다는 뜻. 충남, 전북
		10	쇠똥 세바가지가 쌀 세가마	비료가 없던 옛 조상들이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특히 외양간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소중하게 다루라는 데서 생긴 말. 전남
		11	암소는 부려야 새끼내기 잘한다	암소는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골반의 발달이 되고 예부터 일을 시켜 자연스럽게 운동이 이루어져 새끼내기가 잘 된다는 뜻. 경북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2	유두에 소 타지 말고 8월에 소 타라	유두는 음력 6월 보름인데 벼농사 중간 작황만 보고 풍년이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리를 잘해서 완전한 풍년농사임을 확인한 뒤에 잔치를 벌려도 늦지 않음을 이르는 말. 전북
		13	입이 큰 소라야 살이찐다	체형과 비육관계에서 보면 대체로 입턱이 넓으면서 입이 크게 보이는 것이 음욕이 좋으므로 입이 큰 소가 좋다는 뜻. 충남
		14	콩 한 주먹 주는 것보다 빗질 한번 해주는 것이 더 좋다	사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 전북
농기구	가래	1	가래 터 종놈 같다	힘든 가래질을 억지로 하는 종과 같다는 뜻으로, 성품이 거칠고 버릇없이 굴거나 매사에 못마땅해서 무뚝뚝하게 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게으른 년이 삼 가래 세고 게으른 놈이 책장 센다	게으른 년이 삼[麻]을 찢어 베를 놓다가 얼마나 했는지 헤아려 보고, 게으른 놈이 책을 읽다가 얼마나 읽었나 헤아려 본다는 뜻으로, 게으른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고만 싶어 함을 이르는 말.
		3	얻은 가래로 식전 보 막기	숨 가쁘게 급히 하여야 하는 일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괭이	1	산중 놈은 도끼질 야지野地 놈은 괭이질	사람은 각기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괭이자루가 쉽게 빠지면 가문다	공기중 습도가 낮아 괭이자루가 빠질 정도로 건조해 지면 비가 올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는 뜻. 부산
		3	소 먹이기 힘든데 괭이질을 어찌할까	풀밭에 묶어다 놓아주기만 하면 되는 소도 먹이기조차 힘들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괭이질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일할 줄 모르는 선비를 비꼬는 말.
농기구	길마	1	길마 무거워 소 드러누울까	1. 짐을 싣기 위하여 소 등에 얹는 길마가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소가 드러누울 리 없다는 뜻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남의 일을 부질없이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일을 앞두고 힘이 부족할까 겁을 내지 말라는 말.
		2	두 길마(를)[길(을)] 보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두 쪽에 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
		3	사나운 말에는 특별한 길마 지운다	사나운 말은 여느 말과 다른 길마를 지워서 단단히 다룬다는 뜻으로, 사람도 성격이 거칠고 행실이 사나우면 그에 맞는 특별한 제재를 받게 됨을 이르는 말.
		4	한 말[소] 등에 두 길마를[안장을] 지울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
농기구	되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말로 배워 되로 풀어먹는다	학문이나 경험 따위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두레	1	소문난 잔치 비지떡이 두레 반이라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얻은 떡이 두레 반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이 애써서 만든 것보다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뒤웅박	1	담배씨로 뒤웅박을 판다[딴다]	1. 작은 담배씨의 속을 파내고 뒤웅박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이 매우 잘거나 잔소리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성품이 매우 치밀하고 찬찬하여, 품이 많이 드는 세밀한 일을 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말	1	말 위에 말을 얹는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농기구	멍에	1	멍에(를) 메다[쓰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임을 뜻하는 말.
		2	열 새끼 낳은 소 멍에 벗는 날이 없다	소가 숱한 새끼를 낳았어도 일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여 어느 하루도 멍에를 벗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편안할 날이 없고 고생만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농기구	방아	1	골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찧는다	골이 난 김에 기가 올라 일이 더 잘 되어 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
		2	내 일 바빠 한댁 방아	1. 큰댁의 방아를 빌려서 자기 집의 쌀을 찧어야 하겠으나 할 수 없이 큰댁의 방아 찧는 일을 먼저 거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의 일부터 해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이 바쁠 때는 모든 도구를 갖추지 못하고서도 서둘러 함을 이르는 말. 신라 때, 욱면(郁面)이라는 계집종이 일을 빨리 마치고 제가 하고 싶은 염불을 외우기 위하여 주인이 시킨 쌀 찧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
		3	돌 지고 방아 찧는다	디딜방아를 찧을 때는 돌을 지고 하는 것이 더 쉽다는 뜻으로, 힘을 들여야 무슨 일이나 잘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무진년 팥 방아 찧듯	빈번히 무엇을 찧는다는 말.
		5	바쁘게 찧는 방아에도 손 놀 틈이 있다	아무리 바삐 방아를 찧는 속에서도 손으로 방아확 안의 낟알을 고루 펴 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분주한 때라도 틈을 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섬	1	겻섬 털듯	1. 청(請)을 듣기는커녕 냉담하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모양. 2. 무슨 일을 함부로 하는 모양.
		2	달걀 섬 모시듯[다루듯]	매우 조심하여 다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등겻섬에 새앙쥐 엉기듯	먹을 것이 없는 데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떡도 떡같이 못 해 먹고 찹쌀 한 섬만 다 없어졌다	애써 한 일에 알맞은 효과나 이익도 보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허비하였다는 말.
		5	분다 분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왕겨 석 섬을 분다	잘 분다 잘 분다 하니까 쓸데없이 하루아침에 왕겨 석 섬을 다 불어서 날려 보냈다는 뜻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우쭐해서 턱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섬 진 놈 멱 진 놈	섬거적을 진 사람과 멱둥구미를 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각양각색의 어중이떠중이를 이르는 말.
		7	섬에 담아 보아야 풍년을 안다	농사란 마지막 수확때까지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된다는 뜻. 경기, 경남
		8	소금 섬을 물로 끌라고 해도 끈다	소금 섬을 물로 끌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서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 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아전의 술 한 잔이 환자還子가 석 섬이라고	관리에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게 되면 그 몇 곱으로 갚아야 함을 이르는 말.
		10	아홉 섬 추수한 자가 한 섬 추수한 자더러 그 한 섬을 채워 열 섬으로 달라 한다	남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크게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옆구리에 섬 찼나	옆구리에 섬을 차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뜻으로, 많이 먹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3	일 년 시집살이 못하는 사람 없고 벼 한 섬 못 베는 사람 없다	시집살이가 고되고 어렵다 하나 그 시일이 짧으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음을 이르는 말.
		14	조 한 섬 가진 놈이 시곗금 올린다	좁쌀을 불과 한 섬밖에 가지지 못한 자가 쌀의 시세를 올려놓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단치도 않은 인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15	좁쌀 한 섬 두고 흉년 들기를 기다린다	변변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이 아쉬운 때를 기회로 삼아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헌 섬에 곡식이 더 든다	늙은 사람이 밥을 더 많이 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농기구	쇠스랑	1	쇠스랑 발은 세 개라도 입은 한 치다	쇠스랑 한 입에 세 발이 찍혀 들어가듯이 남의 흠을 꼬집어 말하기를 즐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쇠짚신	1	말 삼은 소 신[짚신]이라	말이 삼은 소의 짚신이라는 뜻으로, 일이 뒤죽박죽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말.
농기구	연자매	1	연자매를 가는 당나귀	일에 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워낭	1	밤눈 어두운 말이 워낭 소리 듣고 따라간다	밤눈이 어두운 말이 자기 턱 밑에 달린 쇠고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뜻으로, 맹목적으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쟁기	1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	할 줄 모르는 저를 탓하지 아니하고 도구를 탓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능력 부족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농기구	호미	1	칠월 칠석 후에는 논에 호미를 대지마라	칠월 칠석 이후는 벼의 생육단계가 생식생장기에 해당하며 이때부터 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상하게 하면 양분 공급에 지장을 받아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유래한 말. 충남
		2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1.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호미를 씻다	농가에서, 음력 7월경에 김매기를 끝낸다는 뜻.
농기구	지게	1	한 어깨에 두 지게 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농사일을 한다는 것은 벅차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이므로 바쁘고 힘든 일일수록 순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 전남
농기구	수레	1	가뭄 때 배를 사두고 장마 때 수레 사두어야 한다	장마 때 수레를 사두는 것은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농사일도 미리 앞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일해야 함을 이르는 말. 충남
농기구	씨오쟁이	1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지고 따라간다	자기 논 실정에 맞추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말.
농기구	써레	1	써레질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	써레질 물이 충분해야 모내기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소중히 여기라는 뜻에서 생긴 말.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에 수록된 속담·관용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2~2007), 농사속담(농촌진흥청, 1989), 농어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색인

II

가격안정정책	761
가대기	688
가래	041, 153
가루체	759
가리	351, 602
가마니	351, 523, 738
가을갈이	808
가지접	707
가지치기	538, 637, 641, 679, 811
가축	072, 111, 176, 378, 382, 396, 581, 623
가축방역	384, 583
간작	388
간척	052, 065, 101
간척지	550
갈돌	275, 322, 380
갈무리	293, 373, 617, 694, 738
갈이	423
갈판	322, 380
감귤	643
감염	311
감자	072, 083, 139, 739, 798
감저	741
감저보	731
강냉이	615
강원도	615
강화도	558
개간	065, 069, 101, 404, 548, 634
개구리참외	752
개똥삼태기	506
개량종	363
개상	128, 189, 279, 308, 408, 419, 781, 784, 787
개정전시과	699
객토	040
거름	056, 057, 088, 434, 562, 564, 620, 684, 738
거적	201, 526
건경법	664
건답	335
건삶이	749, 750
건앙법	664
건조	374, 603, 753
걸채	376, 620
겉보리	321
겨리농경	628
겨리쟁기	040, 832
견과류	377
견종법	656, 658
결부법	667
결핵병	383
겹갈이	692
경관	070, 110
경답목우도	832
경복궁	636
경운	276
경운기	042, 183, 276, 336, 402, 409, 542, 657, 736
경작	251, 252, 387
경정전시과	699
경종법	642, 662
경직도	435, 572
경축순환농업	634
경칩	662
계	179, 351, 353
계급분화	079
계단식논	840
계사	763
고구마	083, 730, 739, 741, 798
고랑	081, 222, 388, 402, 656
고랑심기	658
고랭재배	046
고랭지	258, 398, 399
고리버들	754
고무래	036, 328
고무레	501
고미다락	764
고삐	771, 772
고시히카리	647

고온성 080
고운체 759
고지 326, 338
고추 170, 616, 747, 780
곡물 332, 742, 801
곡물건조기 216
곡식 270, 314, 333, 379, 387, 388, 411, 778, 779, 780, 786, 790
곤충 146, 167, 346, 827
골 656, 832
곰방메 331, 501
곰팡이 310, 345, 779
곰팡이 병균 271
공간배치 675
공검지 100
공공비축제 762
공도정책 634
공동노동 079, 141, 284
공동작업 079, 179, 286, 336
공동작업반 180, 675
공물 260, 338, 420
공법 260, 596
공음전시 494, 699
공이 300, 353, 354, 357
공전 361, 371
공출 360, 580
공해전시 699
곶감 509, 511
과농소초 025, 120, 692
과세 260, 745
과수 344, 385, 394
과수원 031, 560, 640
과실 030, 045, 146, 488, 700, 789
과일 043, 096, 130, 202, 376, 426
과전법 102, 121, 748
관개 052, 065, 076, 282, 424, 428, 548, 609, 648, 827
관개시설 259, 314, 389, 412, 840
관광농원 130, 735
관상식물 846, 852
관세 631
관수관급제 093, 748
광견병 382, 383
광우병 536, 823
광주리 190, 366
괭이 041, 175, 185, 391, 540, 572, 835
교과서 791
교배 409, 733
구덕 105, 365, 366
구들장 논 070, 756
구유 542, 764, 830
구정물 563, 688
구제역 383, 718
구종법 642
구황 072, 115, 569, 740
구황식물 047, 117
구황작물 048, 333, 377, 378
구황촬요 567
국가중요농업유산 256, 634, 636, 686, 712, 757, 816
국민동원운동 706
국유지 727, 796, 797
군둔전 289
굽쟁기 689
궁글대 052
궁방전 038
권농정구농서윤음 652, 826
권업모범장 172, 416, 640, 720, 723, 820
귀리 083, 739
귀리나 843
귀속농지 241, 242
균류 400
균전 708
균전제 756
그네 189, 279, 408, 777, 781, 784, 840
그루갈이 658, 775
그루타기 608
그릇 105, 267, 272, 514
극쟁이 806
극젱이 041, 627, 665, 688, 832
근경 037, 658, 838

근대화 159, 211, 244, 401, 517, 750
근접 707
금산 131, 504, 549
기계화 042, 102, 183, 202, 341, 398
기장 051, 082, 204, 428, 611
길마 190, 620
길쌈 283, 505
김매기 079, 285, 342, 425, 544, 574, 664, 737, 812, 843, 849
김매기두레 286
김치 071, 080, 249, 273, 398, 618
꺾꽂이 158, 639
꽃가루받이 080, 641
꿀 587
꿀벌 402, 587
꿀을 752
끙게 330, 501, 524, 628

니은 ㄴ

나락 407, 695
나락뒤주 294, 695
나래 402, 724
낙엽수 640
난방시설 619
날갈이 667
남방아 380, 381, 703
낫 185, 189, 263, 407, 419, 772
낭도고리 267
내한성 613
넉가래 420, 783
노균병 615
노동력 338, 657, 663
노동방식 179, 811
노동 조직 283
노비 326
녹두 051, 083, 200, 501
녹비작물 672
논 352, 397, 401, 414, 794
논갈이 041, 347, 628
논농사 283, 311, 351, 407
논두렁 398
논둑 830
논미나리 361
논벼 393
논호미 087, 189, 835
놉 338
농가 228, 330, 333, 343, 379, 415, 785, 788
농경 228, 247, 373, 387, 391, 627, 662
농경문청동기 107, 303, 690
농경문화 659
농경방식 676
농경지 852
농구 367, 376, 791, 792
농기 653
농기계 226, 275, 277, 337, 369, 611, 773
농기구 268, 274, 283, 296, 316, 329, 350, 375, 400, 408, 423, 723, 729, 781, 793, 830, 836
농민 412, 530, 820
농번기 080, 248
농부 193, 414
농사 231, 232, 396, 406, 791
농사기술 244
농사일 248
농사직설 262, 749
농사체험장 735
농산물 373, 798
농산물건조기 254
농산물원조 854
농서 234, 235, 237, 238, 239, 248
농서대전 652
농약 219, 352, 386, 431, 650, 825
농어민후계자 60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608
농어촌정비법 735
농업 230, 244, 393, 406, 422, 792
농업기계화 218, 343
농업노동 079, 813, 820

농업용수 655
농용양수기 590
농우 177, 249, 397, 530, 629
농작물 246, 333, 340, 384, 390
농작업 276
농장 343, 384
농점 662
농종법 656, 658
농지 311, 398
농지개혁 241, 327
농지개혁법 193, 532, 735
농지면적 312
농지 분배 242
농지소유 756
농지임대차관리법 735
농촌 242, 246
농촌지도소 244
농촌진흥법 243
농촌진흥운동 633
농촌진흥청 244
농한기 418, 526, 729
농협 216, 244
누에 592
누에치기 595
눕쟁기 689
늦벼 051, 055, 501, 749
니코틴 253

디귿 ㄷ

다구 422
다락 730
다랑이논 070, 161
다래끼 728
다모작 618, 657
다촌 420
닥나무 270, 696
단병서 833
단일 작물 251
단일작물 732
단작 607, 650
단지 273
단호박 837
달구가리 602
달구어까리 602
달구지 407, 412, 545, 620, 776
달우리 602
닭 033, 577
닭장 763
담배 431, 615, 818
담배건조실 253
담배농사 254
담뱃잎 254
대나무 696
대나무밭 256
대동법 159
대두 134, 166, 315, 774
대마 388, 504
대목 706
대서 662
대설 662
대숲 256
대오리 754
대장장 263, 264
대장장이 504
대지주 312
대추 639, 700
대추나무 265
대한 661
대한제국 795
댐 179, 591, 709
댕댕이풀 365
덕석 059, 329
덧거름 565, 684
덩굴 747
덩굴쪼김병 615
도구 372, 403, 798
도구통 702
도끼 797

도드미 601, 759
도랑 353, 387
도래방석 189
도량형 281
도량형기 281, 314
도리깨 051, 189, 279, 299, 332, 419, 555
도리깨질 270, 308, 776, 782, 786
도문대작 522
도시화 130, 159, 327
도열병 197, 409, 794
도열병균 272
도정 085, 405, 808
도지권 728
도짓소 396
독 693
돈사 763
돌낫 372, 373
돌도고리 267
돌려짓기 388, 650, 666
돌방아 605
돌배나무 394
돌보습 423, 689
돌산태 499
돌연변이 648
돌확 150, 380
동력경운기 806
동력예초기 777
동력탈곡기 409, 777
동의보감 360
동지 661
동창보 842
동학농민운동 193, 313
돼지 033, 034, 036, 113, 435, 581
돼지열병 383
돼지우리 763
돼지콜레라 280
되지기 312
두둑 388, 402, 656
두둑심기 658
두레 079, 141, 178, 232, 338, 406, 505, 632, 662, 674, 811, 849
두레박 317, 649
두레풍장 287
두록 733
두부 774
두엄 376
둑 412, 548, 827
둔전 038, 365
둥구미 059
둥지 291
뒤웅박 190, 295, 696, 728
뒤주 409, 693, 696
뒷그루 650
드베 293
들깨 036, 143
등메장 672
띄림부채 189
디딜방아 354, 379, 380
따비 041, 175, 184, 392, 404, 690
똥바가지 514
똥오줌 801
똥재 687

리을 ㄹ

레그혼 733
로메인 513
로터리 226, 275, 402
리어카 336

미음 ㅁ

마구간 565, 583, 801
마늘 160
마늘밭 307
마당 639
마당맥질 054
마당질 308

마대 028, 029, 809
마름 313
마소 374
마지기 398, 667
마차 329, 404, 545
만생종 619
말 033, 035, 111, 583
말방아 605
맛의방주 817
망종 338, 419, 662
망치 330
망태기 700
맞두레 282, 590
매번지 737
매통 790
매함지 323
매흙 308
맥주 322, 364
맥질 249
맷돌 192, 319, 320, 325, 355, 381, 605, 790
맷방석 269, 381
머슴 167
머슴날 250, 734
멍석 059, 189, 201, 268, 332, 334, 374
메뚜기 072, 166, 828
메밀 051, 200
메조 716
메주 774
멜론 752
멥쌀 750
멱서리 696
면양 033, 034
면직물 338
명이나물 634
모내기 041, 052, 076, 079, 178, 197, 285, 340, 342, 402, 406, 419, 571, 572, 662
모심기 342
모판 145, 148, 335, 340, 688
목매 320
목장 035, 584
목화 197, 388
목화솜 340
못자리 334, 340, 405
못줄 336
몽골 038
몽리 413
묘목 377
묘목고르기 641
무경운 672
무농약 672
무름병 399
무리 808, 850
무보수 632
무비료 672
무상노동 632
무역협상 630
무인방제 825
무제초 672
물꼬 406, 501
물레방아 356, 840
물맷돌 356, 380
물방아 355, 379, 548, 606
물풀매 786
미곡증산 566
미군정 125
미터법 311
미풍양속 633
민전 121
밀 565
밀양백중놀이 612
밑거름 565, 684

비읍 ㅂ

바가지 293, 514, 604
바구니 105, 190, 728
바람개비 760, 813
바소거리 743
바인더 183, 611, 774

바큇살 349
반경 668
반달돌칼 176, 222
발구 776
발동기 409
발방아 300
발아 730
발작두 673
발효차 685
방목지 379
방석 325
방수제 709
방아 150, 300, 353, 356, 555
방앗간 301, 353, 356
방역 104
방울 638
방제 197, 377, 395, 560, 682, 828
방조제 142, 550, 709
방죽 512, 551
밭 393, 414
밭갈이 041, 129, 388, 391, 628, 656
밭농사 274, 423, 664, 713, 715
밭농업 634
밭미나리 361
밭벼 088, 749
밭작물 391
밭호미 835
배나무 394
배냇소 230, 396
배설물 800
백로 662
백미 405
백중놀이 138, 288
버섯 637
버크셔 732
번지 148, 501, 749
번지질 402
벌꿀 587
벌채 843
벌초 611
벌크 374
벌통 587
법령 794, 796
법률 240
벼 082, 428, 611
벼농사 248, 278, 335, 340, 341, 369, 372, 407, 711, 738, 773, 841
벼멸구 828
벼베기 079
벼타작 839
벼품종 271, 718, 750, 762, 793
벼훑이 781, 839
벽골제 040, 100, 424, 508, 551
벽골지 065
별정전시과 699
볏가리 407
볏단 407, 411, 412
볏모 338
볏짚 406, 704, 801
병아리 602
병아리집 602
병아리통 602
병충해 384, 800, 815
병해 346
병해충 387, 395, 825
보 099, 222, 313, 351, 424, 548, 590, 841
보계 549
보관 334, 739, 830
보관용구 333
보냄 691
보리 082, 086, 160, 197, 415, 416, 418, 419, 428, 611, 738
보리밭 417, 418
보리타작 812
보리 품종 321
보습 024, 061, 129, 319, 347, 627, 688, 690, 808, 850
보은대추 265
복숭아 344, 700
복지정책 630

봇도랑 549, 841
부게 743
부근 633
부동산 795
부동산등기법 722, 746
부뚜 814
부뚜부채 299
부리망 190
부종법 749
부질 673
부채 299
북방지역 052, 060
북부지역 096
분뇨 514, 688
분류해설서 724
분식 706
분식장려운동 855
비구 841
비닐하우스 030, 197, 305, 360, 617, 789, 804, 849
비료 055, 081, 196, 434, 565, 598, 800, 801
뽕나무 696
삐가리통 602

시옷 ㅅ

사과 096, 343
사냥 375
사료 364, 565, 582, 616, 617, 674
사육 035, 378
사이갈이 319
사이짓기 388, 775
사일로 493
사전 361
사회서비스 633
삭갈이 692
산간지 155
산간지대 041, 061, 129
산간지역 052, 060, 073, 078, 161, 343, 390
산란계 579
산림경제 239, 668, 74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636
산미증식계획 065, 245
산양 033
산업화 327
산태질소리 500
산파 417
살구 700
살처분 718
살충 386
살충제 253
삼굿하기 504
삼모작 657
삼베 262, 504
삼찌기 504
삼태거리 500
삼포 503
삼포식 650
삽 153, 392
삽목 613
삽종 663
상강 662
상두꾼 849
상부상조 284, 632, 811
상소문 652
상여놀이 744
상주 509
상주곶감 510
상징적 041
새끼 058, 316, 328, 333, 429, 430, 516, 734, 739
새끼줄 515
새농민 518
새농촌 518
새마을 028
새마을부녀회 519
새마을운동 077, 195, 633
새마을지도자 243, 519
새만금방조제 039
색경 298

생강굴 621
서초 252
서호수 826
석기 372, 391
섞어짓기 339, 388, 616, 775
선쟁기 689
선화봉사고려도경 106
섬지기 312
섬틀 059, 524, 671
성에 689
성인식 692
세계중요농업유산 256, 757, 816
세균 346
세시 명절 232
세종실록지리지 259, 298
소 111, 113, 136, 376, 392, 396, 414
소거리 368
소겨리 811
소달구지 621
소만 662
소목장 798
소반 106
소서 662
소설 662
소수레 545
소유권 240, 361
소작 313, 327
소작관 313
소작농 570, 727
소작료 125, 309, 727
소작쟁 309
소작지 240, 309
소코뚜레 528
소쿠리 367, 368, 420
소한 661
소해면상뇌증 766, 823
소형무 345
솎기 538
손맷돌 355
손모심기 343
손작두 673
손홀태 839
송이버섯 637
쇄토 276
쇠고기 630
쇠고기이력제 766, 823
쇠덕석 266
쇠스랑 041, 056, 392, 541, 572
쇠죽 541, 542, 624
쇠죽바가지 604
수갑 554
수경재배 361, 641
수도작 335, 654
수도작 벼농사 352
수레 297
수로업무법 746
수룡 350
수리 653, 669
수리계 351, 655
수리관개 653, 757
수리관개시설 239
수리 시설 313
수리시설 235, 352, 365, 393, 412
수리조합 710
수문 364, 550
수분 145
수산제 100, 365, 508
수수 082, 204, 428
수신전 748
수재 384
수전 388
수전경종법 663
수조권 748
수차 350, 649, 840
수취 361, 362
수확 144, 152, 332, 374, 411, 419, 434, 437, 780
수확기 772
수확용 373
시비 095, 169, 741

시비량 395
시비법 607, 642, 666
시정전시과 698
식경 668
식량 360, 799
식량공출 761
식량문제 644
식량자급 565
식물 415
식물병 310
식물성 기름 306
식재료 377
신증동국여지승람 259
신한공사 126, 241
싸리채 754
쌀 251, 406, 565, 799
쌀뒤주 294
쌀뜨물 688
쌀보리 415, 416
쌀시장 632
쌀통 294
쌍날따비 302
쌍멍 330
쌍방애 606
써레 147, 189, 392, 401, 572, 724, 734, 771
써레질 041, 571, 628, 750, 765
썰매 375
씨갈무리 696
씨갓통 295
씨망태 728
씨뿌림 574
씨앗 729
씨오쟁이 696

이응 ㅇ

아궁이 687
아들바퀴 759
아주심기 539
아키바레 647
아프리카돼지열병 280
앞그루 650
애호박 837
앵거스 646
야광귀 760
야생벼 410
약산성 043
약용작물 652
양계장 763
양곡 580
양곡관리법 761
양귀호미 835
양념 751
양마 075
양봉 403
양송이 401
양수기 228, 318, 350, 627
양잠 075, 677, 679, 680, 740
양전 653
양지아문 744
어레미 759
어화원 639
얼개미 759
얼금이 759
얼금체 759
얼기미 759
얼맹이 759
여가활동 735
여름작물 306
여전제 756
역둔토 727
역분전 698
연마 605
연자매 544
연자방아 192, 382
연작 056, 650
연장 263, 264, 271, 274, 282, 302, 315, 317, 318, 331, 349, 358, 367, 785, 797
연초 817

연해주 024
열매솎기 811
열무 345
염소 033
영농기술 243
영농조직 676
영좌 287
예초기 611
예취기 369
예취장치 370
옌볜 024
오곡 576, 641, 827
오곡밥 612
오리농법 770
오신채 307
오줌 801
오줌바가지 514
오줌재 563, 564
옥수수 082, 139, 214, 565, 644
옥파 598
온대 135
온대성 043
온실 221, 436, 639, 849
올벼 251
올챙이국수 616
옹구 190
옹기 272
옻나무 696
와룡기 783
완주생강 621
완초장 672
왕골 671
왕실 618
왕토사상 093, 362
외날따비 302
외다리방아 354
외양간 056, 090, 266, 687, 800, 831
요크셔 732
용골차 649
용기 268, 289, 290, 292, 315
용두레 282, 350, 590
용문석 671
우경 040, 228, 565, 656
우렁이농법 770
우루과이라운드 067, 822
우살미 633
우수 662
우역 382
우장춘 640
운반 276, 334, 739
운반 용구 297
울력 054, 425, 839
울릉도 633
움 693
워낭 190
워낭소리 638
원두막 617
원예 076, 129, 599
원예모범장 398, 640
원예작물 304
유기농법 770
유두고사 557
유성생식 729
유인방제 825
유전공학 644, 648
유전법칙 646
육계 397, 579
육묘 337, 341, 576
육우 033
육질 645
윤달 661
윤작 251, 388, 607, 659, 666, 721, 853
응지상소 755
의림지 040, 100, 424, 508
이랑 024, 040, 047, 081, 174, 222, 318, 387, 391, 400, 656
이모작 036, 040, 160, 198, 650, 657, 720
이삭 363, 407
이식법 749
이앙 277, 405

이앙기 216, 278, 337, 342
이앙법 040, 159, 174, 334, 341, 549, 566, 642, 653, 658, 749, 849
이어짓기 607
이익집단 674
이촌향도 124
인걸이 129, 688, 832
인디카 800
인삼 114, 130, 503, 725
인수공통감염 718
일소 527, 542, 822
일장감응성 156
임금노동자 326
임야대장규칙 745
임원경제지 732
임진왜란 121
입동 661, 662
입추 661
입춘 661
입하 661, 662
잉여농산물 853

지읒 ㅈ

자귀 797
자동화 437
자두 700
자루 316
자리 373
자리틀 373
자바 410
자연농법 770
자연환경 657
자유무역 630
자유무역협정 632, 811, 823
자작농 242
자포니카 410, 800
작도 673
작두 190, 705, 764
작무법 656
작물 322, 390, 405, 415, 780
작물선택 675
작부체계 036, 251, 388, 390, 650, 659, 769
잔칫상 266
잠상촬요 677
잠실 592
잠업 593
잡곡 706
잡종 409
잡종강세 616, 647
잡초 051, 087, 137, 141, 212, 393, 417, 737, 771, 843
잡초방제 736
장독 273
장병서 833
재래종 031, 034, 035, 046, 071, 126, 158, 332, 363, 409
재배체계 676
재종천혈판 576
쟁기 024, 040, 061, 129, 226, 275, 329, 347, 392, 404, 414, 422, 657, 734, 793, 797, 808
쟁기지게 743
쟁기질 401, 533, 571, 667, 844
저수 351
저수지 259, 364, 413, 508, 590, 609, 709, 714
저온성 361
저온성 작물 258
저장 272, 693, 730, 798, 809
저장고 293
저장 용구 29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519
전답 596
전시과 102, 747
전염병 104, 112, 280, 382, 384, 717
전작 650
전정 032
전제 653, 669
전지 189, 421

절고 702
절구 275, 380, 419
절구방아 379
절미운동 348
점법 234
점복 232
점파 417
접목 615, 706
접붙이기 640
접수 706
정상기 246
정원 639
정전법 067
정전제 371
젖소 645, 732
제방 064, 100, 259, 364, 512, 555, 714
제사상 266
제언 548, 653, 709
제언사목 655
제언절목 655
제주 268, 333, 403
제주도 087, 088, 121, 127, 147, 150, 316, 332, 365, 380
제초 137, 141, 400, 663
제초기 771
제초제 364, 682, 736
조 082, 204, 428, 554
조공제 512
조류인플루엔자 383, 580, 767
조리도구 274
조생종 619
조선농지령 245
조선미곡통제령 761
조선민사령 727
조선부동산등기령 727
조선부동산증명령 727
조선연초조사서 818
조선총독부 123, 172, 245, 327, 360, 727
조선토지조사사업 721, 745
조세제도 260
조수간만 039
조파 417
족답식 탈곡기 279, 783
종다래끼 189, 700
종두리 602
종두법 737
종묘 636
종자 296, 338, 343, 409, 417, 573, 576
종합농서 669
좌상 287
주말농장 103, 130
주술적 043, 426
주식 045, 348
죽세공품 257, 366
죽순 256
줄다리기 233
줄풀 754
중거리 601, 759
중경제초기 319
중맥설 237
중일전쟁 029
증보산림경제 240
지게 191, 368, 407, 685, 776
지계아문 597
지도자 243
지렁이농법 770
지력 663
지봉유설 252
지세령 745
지승 316
지역경제 063
지주 530
지주목 132
직전법 121, 748
직파 405
직파기 806
직파법 168, 749
진산세고 599
진상 377
진세턱 812

진휼청	768
질병	383, 384
집짐승	763
짚가리	412
짚신	734

치읓 ㅊ

차	420
차나무	815
차륜	349
차밭	421
차조	716
참기름	752
참깨	051, 143, 200
찹쌀	750
창고	831
채삼군	503
채삼꾼	503
채소	344, 361, 373, 399, 788
처서	662
천신	557
철기구	263
청명	662
청제	100
청제비	609
청태전	157
체	420, 601
쳇바퀴	759
쳇불	759
초예기	610
초충도	552
추분	661
추수	308
축만제	554
축사	384, 543, 560
축산	384
춘분	661
춘분점	661
충재	384
취목	851
측량법	649, 746
친환경농업육성법	769

키읔 ㅋ

칼자매	737
코뚜레	190, 330
콤바인	042, 183, 216, 369, 407, 556, 611, 777
콩	083, 139, 200, 428, 611, 807
키	420, 601, 814
키질	778

티읕 ㅌ

타작	054, 153, 308, 407
탄저	382
탄저병	044
탈곡	053, 085, 144, 270, 328, 333, 369, 405, 411, 556, 603, 777, 778, 779, 839
탈곡기	053, 228, 279, 408, 420, 782, 786
탈래기	739
탕개	786
태질	786
태평양전쟁	029
탯돌	128, 279, 408, 781, 787
탱자	643
텃밭	639
토산물	305, 802, 815
토양	390
토지	362, 371, 792, 795, 796
토지개량사업	711
토지개혁	372
토지대장	746, 797
토지분급제	700
토지생산성	659
토지제도	289, 708

토지조사령 727
토지조사사업 530
톱밥 764
통가리 415, 693
통깨 752
통일벼 028, 029, 155, 245, 518, 567, 580, 648, 705
통치체제 370
퇴비 044, 764, 808
트랙터 042, 181, 226, 391, 393, 402, 418, 504, 542, 657, 660, 705, 736
트레일러 226, 275
특산물 298, 608, 788
특산품 802

피읖 ㅍ

파종 402, 500, 558, 576, 728
파종기 574, 576
파종법 363
파풍효과 713
팔관회 639, 643
팡개 785
팥 083, 200, 428, 501
평보 850
평야 406
평호미 835
포기나누기 613
포대 739
포도 344
표고 400
푸줏간 630
풀무 264
품삯 327
품앗이 141, 167, 232, 338, 406, 535, 545, 632, 662, 674
품종 345, 378, 393, 398, 416, 794, 799
품종개량 646
풍구 367, 606, 760, 784
풍년 415
풍로 790
풍물 288
풍장굿 287
피 611

히읗 ㅎ

하동 815
하루갈이 667
하지 661
한돈 583
한로 662
한우 033, 530, 645, 732
한재 384
한전 388
한정록 523, 738
함지박 267, 320
합덕제 101, 710
항아리 696
해안지역 076
해충 197, 377, 385
햄프셔 733
향두 849
허균 823
헛간 090, 688, 730
헤어포드 646
협동회 674
호리 831
호리쟁기 040
호미 036, 040, 137, 141, 189, 690, 737, 850
호미씻이 248, 288
호밀 363
호박 616
호접 707
혼분식 348
혼식 706
혼작 036, 388, 616, 720
홀스타인 646, 732

홀스타인종 645
홀태 127, 420, 782
홈통 649
화령벼 648
화문석 671
화산섬 714
화산회토 711
화성 554
화성벼 648
화전 387, 636, 650, 668, 687, 853
화전개간 634
화전농업 634
화전민 843
화전밭 843
화학비료 044, 177, 393, 650, 763
화학약품 386
화훼 130, 599, 639, 641
화훼류 072
환진벼 648
활대 358
황두 161
황두꾼 850
황충 385
회색곰팡이 615
후작 650
후치 400, 688, 771, 832
훈몽자회 025, 360
홀쳉이 689
홀치개 839
훑기 839
휘묻이 613
휴경 387
휴한 607, 853
휴한농법 650
흡양전 748
흑룡만리 712

A

A자틀 742

F

FTA 403, 632

G

GMO 340, 616, 644

L

LMO 644

P

PL480 578

W

WTO 066, 631

필자

III

강성복 姜成福 충청민속문화연구소

갈이 040
논둑태우기 166
농한기 248
대추 265
마당맥질 308
못자리만들기 340
밤 376
보제 424
수리계 548
수확 555
씨앗고르기 576
이랑짓기 656

구자옥 具滋玉 한국농업사학회

감저신보 047
감저종식법 048
구포건삼도록 113
구황보유방 115
구황작물 116
구황촬요 118
농가월령가 169
농방신편 196
농업 213
농자천하지대본 230
농정신편 235
농정촬요 237
농정회요 239
농포문답 246
신간구황촬요 567
양잠경험촬요 594
잠상집요 676
잠상촬요 678
저죽전사실 696
조선 반도의 농법과 농민 719
조선인삼경작기 725
종저보 730
중맥설 737
충주구황절요 767
한국연초조사서 817

권민석 權珉錫 농림축산식품부

바람개비 367
보토괭이 425
씨송곳 575
체 759
키 778
톱 797
풍구 813

권봉관 權俸觀 농촌진흥청

깨털기 143
벼베기 406
벼타작 407
볏가리 411
보리밟기 418
보리타작 419
작목반 674
저장 694
콩털기 776
탈곡 780

권영석 權寧石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근 257
생강 521
부추 433

권용대 權容大 충남대학교

녹색혁명 155
식량증산 565

김광언 金光彦 인하대학교

가래 025
겨리쟁기 061
광주리 105
괭이 106
극젱이 129
농기구 183
듸림부채 299
디딜방아 300
매통 319
맷돌 322
맷방석 325
물레방아 353
물맷돌 355
물방아 356
바구니 365
바소거리 368
발구 374
발채 376
방아 379
부뚜 429
수레 545
연자방아 605
인걸이 664
쟁기 688
쟁기질 691
절구 702
지게 741
토매 790
호리쟁기 831
후치 850

김규원 金奎元 영남대학교

원예 639
화훼 846

김기영 金基榮 국립농업과학원

양잠 591
잠실 680

김대영 金大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 304

김도헌 金度憲 동양대학교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064
관개 098
김제 벽골제 142

농경문청동기 175
농업혁명 221
당진 합덕제 259
만석보지 313
밀양 수산제수문 364
상주 공검지 508
상주 조공제 512
수원 축만제 554
영천 청제 609
제천 의림지와 제림 714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841

김명자 金明子 안동대학교

농점 232
이십사절기 660

김미희 金美熙 국립농업과학원

김매기 137
논갈이 163
밭갈이 391

김민기 金民基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약 210
도열병 271
마름병 310
무름병 345
잡초 681
탄저병 779
항공방제 825
해충 827

김병기 金秉基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육우 645
한우 821

김석기 金石基 토종씨드림

귀농 123
녹두 154
농촌지도자 242
솎아내기 538
영농후계자 608
주말농장 735
지주대세우기 746
콩 774
팥 806

김재경 金載暻 서울역사박물관

종다래끼 728

김재호 金在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개상 053
고지 079
그네 127
길마 136
넉가래 153
논 159
놉 167
농기수리 190
농사력 197
도리깨 270
독 272
돌확 274
되 281
두레1 282
뒤주 293
말 314
맞두레 317
못줄 342
무자위 349
물풍구 358
밭 387
얼루기 603
옹구 620
용두레 625
탈곡기 783
탯돌 786
통가리 798
홀태 839

김재홍 金在弘 국민대학교

반달돌칼 372
보습 422

김정섭 金廷燮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민 193

김종덕 金鍾德 경남대학교

PL480 853

김진순 金鎭順 코리아루트

농요 225

김철우 金哲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 803

김태복 金兌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참외 752
호박 836

김헌선 金憲宣 경기대학교

농악 205

남기현 南基玄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경지개량사업 065
경지정리사업 066
농촌진흥운동 245
조선부동산등기령 721
조선토지조사사업 727
지적법 745
토지가옥증명규칙 794
토지조사령 796

남인식 南麟植 팜인사이트

가축 033
방목 378
사료 489
사일리지 493
소보험 529
종축개량 732

문두경 文斗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녹차 157

박광호 朴光鎬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늦벼 250
밭벼 393
벼 405
벼품종 409
올벼 619
자연농법 672
찰벼 750
추청벼 762
친환경농법 769
토종벼 793

박석두 朴錫斗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방 709

박선미 朴善美 안동대학교

대마 262
삼둘계 504

박원규 朴圓奎 전 농업기계화연구소

곡물도정기 085
관리기 102
농업용방제기 219
동력이앙기 277
양수기 590
콤바인 772

박종민 朴鍾珉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가마니 027
거적 058
도래방석 268
들것 296
망태기 315
멍석 328
메 330
멱서리 333
발 373
삼괭이 503
섬 523
소쿠리 534
전지 700
태 785
포대 808
둥구미 289
뒤웅박 292
중태 738
채반 753

박한용 朴漢容 세종대학교

무 344
배추 398
순무 558

박호석 朴虎錫 농협대학교

고무래 074
곰방메 089
궁글대 120
끙게 147
농업협동조합 223
따비 302
마지기 311
매번지 318
배미 397
번지 401
쇠스랑 539
온실 617
일경 667
화전 842
나래 148
비닐하우스 436

배도식 裵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곳간 090
구유 111
대장간 263
덕석 266
둥우리 291
부리망 430
쇠죽쇠스랑 541
쇠짚신 543
어리 602
여물바가지 604
외양간 623
워낭 638
작두 673
헛간 830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농경문화 176
농우 228
우경 627
호미 833

백지현 白智昡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거름착 057
골갱이 087
골채 088
남방아 150
남태 151

변현단 卞現丹 토종씨드림

감자 045
고구마 070
담배 252
들깨 298
땅콩 305
목화 338
오미자 612
옥수수 615
잣 682
참깨 751
토란 787

서영대 徐永大 인하대학교

우금해제 629

안승택 安勝澤 경북대학교

간작 036
농가지남 171
단작 251
수문고사 550
연작 607
윤작 650
이모작 657
작부체계 675
조선의 재래농구 723
천일록 755
토양 및 농구 교과서 791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819
혼작 837

안완식 安完植 한국토종연구소

곡물 081
기장 134
맥주보리 321
밀 362
보리 415
수수 553
씨뿌리기 573
유전자변형농산물 644
육종 646
율무 651
조 715
조선도품종일람 718
종자 729
피 814

양선아 梁善雅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간척 037
개간 050
객토 055

양은영 梁銀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추 080

엄정웅 嚴正雄 한식진흥원

가마니틀 028
새끼틀 516
섬틀 525
자리틀 670

엄지범 嚴智凡 전북대학교

경관농업 062
근교농업 129
미곡공출 359
산미증식계획 498
추곡수매제도 761
통일벼 799

염정섭 廉定燮 한림대학교

고사신서 074
공전 091
과농소초 094
궁방전 121
금양잡록 133
농가월령 168
농가집성 173
농사직설 199
농서집요 204
농정서 234
반계수록 370
본사 427
사시찬요초 492
산림경제 496
색경 520
양전제 595
양화소록 599
위빈명농기 641
육해법 648
응지농서 652
이앙법 662
임원경제지 668
증보산림경제 740
한정록 823
해동농서 826

오영주 吳榮周 제주한라대학교

귤 126
메밀 332
산듸 495
유자 643

오유석 吳有錫 성공회대학교

새마을운동 517

오인택 吳仁澤 부산교육대학교

산파법 500
직파법 749

오치훈 吳致勳 경기대학교

과전법 097
관료전 101
둔전제 288
외역전 624
직전 747

우대형 禹大亨 연세대학교

국토이용관리법 119
권업모범장 122
농지개혁법 240
농촌진흥법 244
수륜원 547
지계아문 744

우승하 禹承河 국립민속박물관

마늘 306
인삼 665

위은숙 魏恩淑 영남대학교

공음전 091
민전 361
사전 494
전시과 698

윤수종 尹秀鐘 전남대학교

농계 179
배내 396
우루과이라운드 630

윤진하 尹眞河 전 농업공학연구소

곡물건조기 083
농기계 180
농산물건조기 200
농산물선별기 202
농업기계공동이용 215
농업기계화촉진법 218
농용트랙터 226
담배건조기 253
동력경운기 275
동력탈곡기 278
바인더 369
예취기 610
이식기 659
저온저장고 693
절단기 704
중경제초기 736
파종기 805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새끼꼬기 515
주대틀기 734

이송순 李松順 고려대학교

무미일 348
양곡관리제도 580
절미운동 705

이영식 李英植 강릉원주대학교

소고르기 526
소길들이기 527
소줄꼬기 532
쇠죽쑤기 542
축사 763

이옥진 李沃珍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박 552

이인재 李仁在 연세대학교

정전제 708

이정용 李正容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765

이정철 李廷喆 경북대학교

대동법 260

이준일 李準日 부천활박물관

거름대 056
삼태기 506

이한승 李澣承 안동대학교

거름통 057
새갓통 514
장군 684

이현주 李眩周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경직도 068

이희주 李禧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금치 561
오이 613

장석우 張錫愚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상추 513
양배추 586

장윤아 張倫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미나리 360

전운성 全雲聖 강원대학교

귀속농지매각령 125
마름 309
만석꾼 312
머슴 326
소작 530
신한공사 569

전익조 全翼朝 안동대학교

감 043
꺾꽂이 144
배 394
사과 488
접붙이기 706
휘묻이 851

정명철 鄭明哲 국립농업과학원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076
구례 산수유농업 108
금산 인삼농업 130
담양 대나무밭 255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420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431
상주 전통곶감 509
스마트팜 559

어레미 600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621
울릉 화산섬 밭농업 633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636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653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685
제주 밭담 711
청산도 구들장 논 756
하동 전통 차농업 815
홈통 840

정승헌 鄭承憲 건국대학교

양마 583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가대기 024
갈퀴 042
겨리사촌 060
고써레 078
낫 152
돌태 274
드베 295
매함지 320
멍에 329
무리 347
물광 351
물꼬 352
배토 400
보냄 414
살포 501
삽 507
써레 570
써레질 572
옥시다락 617
칼자매 771
코뚜레 771
평보 808
허수아비 829

정은정 鄭銀貞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양계 577
양돈 581

정치영 丁致榮 한국학중앙연구원

계단식농업 069
고랭지농업 072
보 412
휴경 852

정혜웅 鄭惠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가지치기 031
과수원 095
꽃가루받이 145
낙과 149
묘목고르기 343

정효봉 鄭效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토마토 788

조명철 趙明哲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가지 030

조승연 趙承衍 국립민속박물관

모내기 334

주강현 朱剛玄 정발학연구소

김매기두레 141
두레2 283
두레놀이 287
소품앗이 535
수눌음 544
울력 632
품앗이 811
황두 849

주영하 周永河 한국학중앙연구원

오곡 611
특산물 802

천명선 千明宣 서울대학교

광견병 104
구제역 112
돼지열병 280
방역 382
소해면상뇌증 536
조류인플루엔자 717

최덕경 崔德卿 부산대학교

방제 384
분뇨시비 434
시비법 562
재거름 687
퇴비 800
화학비료 844

최용수 崔龍守 국립농업과학원

벌꿀 402
양봉 587

편성철 片成哲 한국지역문화연구소

버섯 400
복숭아 426
자두 670
포도 810

한지원 韓智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양파 598

황이새 黃이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고리 267
벤줄레 403
산태 499
섬비 524
클 777

자문위원

김명자(안동대 명예교수)
김순철(전 농업박물관 학예실장)
김재호(경북대)
박종민(전 국립산악박물관장)
박호석(농협대 명예교수)
배영동(안동대)
신탁근(온양민속박물관)
안승택(경북대)
염정섭(한림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정명철(국립농업과학원)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조승연(국립민속박물관)

감수위원

구자옥(한국농업사학회)
김광언(인하대 명예교수)
김명자(안동대 명예교수)
김재호(경북대)
박호석(농협대 명예교수)
안완식(한국토종연구소)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農

2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AGRI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國立民俗博物館